남포집 2

호남 선현문집 국역총서 4

김만영 지음
金萬英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일러두기

1. 이 책의 번역 대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남포선생집(南圃先生集)》으로 하였다.
   이 문집은 한국고전번역원 발간 한국문집총간 속 36집에 수록되어 있다.
2. 내용이 간단한 역주는 간주(間註)로, 긴 역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3. 한자는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었으며, 운문(韻文)은 원문을 병기하였다.
4.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랐다.
5. 이 책에 사용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를 묶는다.
- [ ] : 번역문과 뜻이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 또는 강조 문구를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책명 및 각주의 전거(典據)를 묶는다.
- 〈 〉 : 책의 편명 및 운문 산문의 제목을 묶는다.
- ▣ : 원문의 결자 빈자리를 비워 둠을 나타낸다.

《남포집》 제10권 《南圃集》 卷之十

서 序

	번역본	원문
김씨족보서 金氏族譜序	**10**	417
김씨족계서 金氏族禊序	**12**	417
매백헌유고서 梅栢軒遺稿序	**15**	418
성암집서 惺庵集序	**16**	419
금강중수계서 錦江重修禊序	**20**	420
구고서재제생명적록서 九皐書齋諸生名籍錄序	**24**	420
삼학재학생계권서 三學齋學生契劵序	**27**	421
수운정서 峀雲亭序	**29**	422
구암서실팔영시서 龜巖書室八詠詩序	**35**	423
제정생초동책후서 題鄭生抄東策後序	**37**	423
사잠서 四箴序	**38**	424

기 記

춘풍루기 春風樓記	**40**	425
이륜재기 彛倫齋記	**45**	425
열락재기 悅樂齋記	**48**	426
옥성재기 玉成齋記	**50**	427
도민정사기 道民精舍記	**52**	428
시습재기 時習齋記	**53**	428
옥수기유기 玉峀奇遊記	**55**	429
종국기 種菊記	**57**	429
분매기 盆梅記	**58**	430

발 跋

삼학재권후발 三學齋劵後跋	**60**	431
농가집성서발 農家集成書跋	**62**	431
독서사암집후 讀書思菴集後	**64**	432

《남포집》 제11권 《南圃集》 卷之十一

경의설 經義說

원리기설 原理氣說	**68**	434
중설 中說	**70**	434
관계 冠誡	**73**	435
시학발휘 詩學發揮	**76**	436
한거지 閒居誌	**78**	437
경서문대 經鋤問對	**80**	437
완물편 玩物篇	**92**	440
인구태극도 人具太極圖	**94**	441
《중용》수장지도 中庸首章之圖	**97**	442
《중용》수장 존양성찰지도 中庸首章存養省察之圖	**99**	443
《중용》 분절변의 中庸分節辨義	**101**	444
《중용》 분위오대절 中庸分爲五大節	**103**	444
덕성문학도 德性問學圖	**105**	445
인심도심도 人心道心圖	**111**	447
노재왕씨 인심도심도부 魯齋王氏人心道心圖附	**114**	448
역상소결 易象小訣	**117**	449
삼학재규의 三學齋規儀	**126**	451

《남포집》 제12권 《南圃集》 卷之十二

찬 贊

족계권후찬 族禊劵後贊	**132**	454
읍린찬 泣麟贊	**133**	454
가봉찬 歌鳳贊	**134**	454

명 銘

창명 窓銘	**135**	455
호명 戶銘	**135**	455
개과명 改過銘	**136**	455

송 頌

신명주군 극외적 송 神明主君克外賊頌	**139**	456

잠 箴

주일잠 主一箴 **142** 457
경학잠 警學箴 **144** 457
자경잠 自警箴 **146** 457
자신잠 自新箴 **148** 458
계주잠 戒酒箴 **151** 458
계색잠 戒色箴 **152** 458
계타잠 戒惰箴 **153** 459
구용잠 九容箴 **154** 459

상량문 上梁文

금성향교 대성전 상량문 錦城鄕校大成殿上梁文 **160** 460
도민신사 상량문 道民新舍上梁文 **167** 461

제문 祭文

이성암에 대한 제문 祭李惺菴文 **172** 462
이 성암에 대한 제문을 또 짓다 又祭李惺菴文 **175** 462
녹동서원에 최산당을 추배하는 제문 祭鹿洞書院崔山堂追配文 **178** 463
존양 선생 신위전 고사문 存養先生神位前告辭文 **183** 463
구담의 강가 집의 터를 닦을 때 제문 祭龜潭江舍開基文 **183** 463
이사 후 토지신에 대한 제문 祭移家後土神文 **186** 463
지담에서 비를 비는 제문 祭砥潭祈雨文 **189** 463

묘지명 墓誌銘

헌납 임공 묘지명 獻納任公墓誌銘 **191** 465
어모장군 남도포만호 양공 묘지명 禦侮將軍南挑浦萬戶梁公墓誌銘 **191** 465

《남포집》 제13권 《南圃集》 卷之十三

논 論

〈춘추론〉에 대한 반론 反春秋論論 **198** 468
전횡론 田横論 **200** 469

전 傳

공손항전 公孫航傳	**204**	470
매선생전 梅先生傳	**209**	471

격 檄

기졸을 효유하는 격문 喩氣卒檄	**212**	473
광주 나주 양 고을의 문예를 겨루기를 요청한 격문 光羅兩邑戰藝檄	**215**	473

의 義

'현룡재전 이견대인' 의 見龍在田利見大人義	**223**	476

《남포집》 제14권 《南圃集》 卷之十四

남교일기 상 南郊日記[上]	**228**	478
기축년 己丑	**228**	478
경인년 庚寅	**230**	478
기해년 己亥	**231**	479
경자년 庚子	**234**	479
신축년 辛丑	**240**	481

《남포집》 제15권 《南圃集》 卷之十五

남교일기 하 南郊日記[下]	**279**	498
임인년 壬寅	**294**	503
계묘년 癸卯	**310**	507
갑진년 甲辰	**313**	508
을사년 乙巳	**319**	510
일기 후록 日記後錄	**324**	512

《남포집》 제16권 《南圃集》 卷之十六

경세통전 經世通典

사람을 육과로 나누다 人分六科	**334**	518
사민에 관한 전례 士民典例	**334**	518
삼사가 시강하는 통례 三士試講通例	**337**	519
농민에 관한 전례 農民典例	**338**	520
내직에 관한 전례를 논하다 論內官制典例	**341**	521
외직에 관한 전례를 논하다 論外官典例	**343**	522
공민에 관한 전례 工民典例	**346**	523
상민에 관한 전례 商民典例	**346**	523
승민에 관한 전례 僧民典例	**347**	524
병민에 관한 전례 兵民典例	**348**	524
승병 僧兵	**353**	527
노병 奴兵	**355**	527
병민에 관한 총목 兵民總目	**355**	527
지방 의병에 관한 전례 鄕義兵典例	**357**	523
육과의 병민이 과거를 치르는 전례 六科兵民科擧典例	**359**	529
내관과 외직에 대한 규정을 세우는 전례 內外立法典例	**359**	529

《남포집》 부록 제1권 《南圃集》 附錄 卷之一

가장 家狀	**362**	532
행장 行狀	**375**	536
묘지명 墓誌銘	**386**	539

《남포집》 부록 제2권 《南圃集》 附錄 卷之二

서술 敍述	**396**	544
제문 [문봉의] 祭文 [文鳳儀]	**400**	545
또 [나위] 又 [羅禕]	**405**	545
풍산사우 춘추 향축문 [유명현] 楓山祠宇春秋享祝文 [柳命賢]	**410**	547
《남포선생유집》 후서 《南圃先生遺集》 後敍	**411**	548

南圃集

남포집

제 10 권

卷之十

서
序

김씨족보서
金氏族譜序

김씨는 명망있는 가문이니 계통은 당악(棠岳)[1]에서 나왔다. 고려 이전은 족보가 유실되어 기술할 수 없다. 성스러운 조선이 천명을 받아 동방(東方)의 소중화(小中華)를 여니 당시에 우리 조상이 호남 병사의 막부를 보좌[佐幕][2]하였다. 금수(錦水) 서쪽 가와 백봉산(白鳳山)의 북쪽에 땅을 보고 나무를 베어 내어 이에 조종(祖宗)의 터를 잡아서 지금에 이르도록 삼백여 년 동안 대대로 귀업(龜業)[3]에서 전해졌다.

만력 정유년(1597, 선조30)에 한 집안이 전부 전쟁에 매몰되었는데 우리 황고(皇考) 및 종백부(宗伯父) 휘 김준(金浚)이 겨우 죽음을 면했으나 가문의 족보가 이때 유실되었다. 황고께서 우리 조선 건국 후, 남쪽으로 내려온 이후에 휘자(諱字)와 세계(世系)를 손으로 써서 작은 간책(簡冊)을 만들어 전하게 되었다. 내가 어려서 선친을 잃고 고증할 곳이 없었는데 마침 오래된 책 속에서 간책을 얻었다. 손때가 아직 새로워 눈물을 가리고 받들어 열어본 나머지에, 그대로 이어서 황고(皇考) 이후 나뉜 종파와 외손 방지(傍支)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기록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었다.

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가 누가 부모가 없겠는가마는 부모 윗대부터 친척이 다하는데 이르기까지 예(禮)가 비록 한계가 있더라도 정(情)으로 보면 부모이다. 수 대 후에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면

---

1) 당악(棠岳) : 해남의 옛 지명이다.

2) 좌막(佐幕) :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 따위에 따라다니는 관원의 하나로 비장(裨將)을 가리킨다. 막료(幕僚)라고도 하였다. 여기서는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副摠管)을 지낸 당악 김씨 시조 김인(金忍)을 가리킨다.

3) 귀업(龜業) : 현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귀업 마을로, 김만영이 이곳에 귀향하여 살았던 곳이다.

날아다니고 달려 다니며 꿈틀거리는 벌레들과 서로 거리가 얼마나 되겠으며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무엇을 말미암아 일어나겠는가? 이것이 문중의 족보를 만든 까닭이다. 가문에 족보가 있는 것이 나라에 역사가 있는 것과 같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으니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종법(宗法)[4]이 세워지지 못하고 오복(五服)[5]의 친함이 없게 되고 추원보본(追遠報本)[6]의 정성과 효우돈목(孝友敦睦)의 의리가 말미암아 세워질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우리 자손·형제·후손들은 선조의 가르침을 공경히 지키고 삼백 년 동안 서로 이어온 사대부의 풍을 추사(追思)하여, 영원히 만대를 전하고 추락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는 선조의 바람이니라.

황명남도후(皇明南渡後) 13년 정유년(1657, 효종8) 1월 갑자(甲子) 여절교위(勵節校尉)[7] 행(行)[8]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9] 세마(洗馬) 지손(支孫) 만영(萬英) 두 번 절하고 쓰다.

---

4) 종법(宗法) : 대종가(大宗家)·소종가(小宗家)의 계통을 밝히는 규칙이다. 한 가문에서 많은 소종가가 생길 때 대종가가 소종가를 통할하기 위해 생긴 것으로, 사당 제사, 합동 잔치, 복(服) 입는 것, 같은 종파끼리 혼인하지 않는 것 등을 시행하였다.

5) 오복(五服) : 다섯 등급의 상복으로 참최(斬衰) 3년, 자최(齊衰) 1년, 대공(大功) 9개월, 소공(小功) 5개월, 시마(緦麻) 3개월이다.

6) 추원보본(追遠報本) : 먼 조상을 추모하여 근본에 보답함을 말한다. 즉 선대 조상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추원은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함에 바치는 정성이라는 뜻으로, 《논어》〈학이(學而)〉에 “어버이 상을 당했을 때 신중히 행하고 먼 조상들을 정성껏 제사 지내면 백성들의 덕성이 한결 돈후해질 것이다.[愼終追遠, 民德歸厚矣.]”라고 한 증자(曾子)의 말이 보인다. 보본(報本)은 조상의 은혜를 갚기를 생각하여 근본에 보답하는 정성인데,《예기》〈교특생(郊特牲)〉에 “오직 사의 제사에는 구승으로 제물을 갖추게 하니, 근본에 보답하여 시초에 돌이키는 뜻이다.[唯社, 丘乘共粢盛, 所以報本反始也.]”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7) 여절교위(勵節校尉) : 조선 시대 종육품(從六品) 서반(西班)의 무관(武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8) 행(行) : 행수법(行守法)으로, 품계와 벼슬을 서로 견주어서 관직의 앞에 붙이는 규례를 말한다. 품계가 높고 벼슬이 낮을 경우에는 관직 앞에 행(行) 자를 붙이고, 품계가 낮고 벼슬이 높을 경우에는 관직 앞에 수(守) 자를 붙인다. 1442년(세종24) 처음 실시되었고, 이듬해부터 지방 관직에도 확대 실시되었다.《국역 세종실록 24년 7월 19일, 25년 7월 17일》

9)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 계방(桂坊)이라고도 하며 세자를 호위하던 곳이다. 익위(翊衛)·사어(司禦)·위솔(衛率)·부솔(副率)·시직(侍直)·세마(洗馬) 등의 관직이 있다.

김씨족계서

金氏族禊序

친족의 계(禊)[10]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가? '계(禊)'라는 말은 '계(契)'이다. 한 집안의 마음을 묶고 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이니 좌계(左契)[11]를 가지고 우부(右符)[12]를 합하는 것과 같다. 아! 우리 선조 부총공(副摠公)[13]이 남쪽 병영(兵營)에서 임무를 받았을 때 한 아들을 금성(錦城)에 남겼는데 실로 우리 종씨가 남쪽에 거처하는 종조가 되었다. 2대를 전하여 정언공(正言公)[14]에 이르렀고, 또 한 번 전하여 태학관(太學館) 상사공(上舍公)[15]에 이르렀는데, 이분이 고조부 삼 형제를 길러내셨다. 선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9대이고 우리 고조부를 함께 형제 된 이의 자질(子侄) 가운데 초례(禮醮)[16]를 한 자가 11인이다. 위로 상사(上舍) 계열에서 분파된

---

10) 계(禊) : 옛사람이 상서롭지 못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인데, 음력 3월 상사(上巳)에 춘계(春禊)를 지내고, 7월 14일에 추계(秋禊)를 지낸다. 《사기(史記)》 49권 〈외척세가(外戚世家)〉에 이르기를, "패상(霸上)에서 불제(祓祭)를 지냈다."라고 하였는데, 배인(裴駰)의 집해(集解)에 "3월 상사(上巳)에 물가에서 제사를 지내어 상서롭지 못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계(禊)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물가에서 노닐면서 불길한 재앙(災殃)을 미리 막던 풍속으로,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의 난정 수계(蘭亭修禊) 고사가 유명하다.

11) 좌계(左契) : 둘로 나눈 부신(符信) 가운데 왼쪽의 것을 의미하는데, 명확한 증거를 뜻하는 말이다. 《노자(老子)》에 "성인은 좌계를 가질 뿐이지 사람을 책망하지는 않는다.[聖人執左契, 而不責於人.]"라는 말이 보인다.

12) 우부(右符) : 둘로 나눈 부신(符信) 가운데 오른쪽의 것을 의미하는데, 원래는 군사를 징발하는 표신, 즉 발병부(發兵符)이니 발병부의 모양은 둥글다. 일면에는 발병이라 쓰고 다른 일면에는 예를 들면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광주진(廣州鎭)'이라고 썼다. 이것을 반으로 나누어 우부(右符)는 관찰사·절도사(節度使)·제진(諸鎭) 등에 내리고 좌부(左符)는 궁중에 두었다가 군사를 징발할 일이 있으면 좌부와 교서(敎書)를 내리는데, 관찰사 등은 합부(合符)하여 본 뒤에 징병에 응했다.

13) 부총공(副摠公) : 당악 김씨 시조 김인(金忍)을 가리킨다.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副摠管)을 지내고 태종 때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었다. 전라도의 수영(水營)이 무안현(務安縣) 대굴포(大掘浦),현 함평군 학교면 대곡리에 있을 때 좌막(佐幕)으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20리쯤 떨어진 나주시 마산면 귀업리(龜業里), 현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귀업부락에 터를 잡아 세거지로 삼았다.

14) 정언공(正言公) : 당악 김씨 시조 김인(金忍)의 손자인 김종(金琮)을 가리킨다. 정언과 현감을 지냈다.

15) 상사공(上舍公) : 김종(金琮)의 손자인 김두(金豆+斗)를 가리킨다.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16) 초례(醮禮) : 관례에서 빈(賓)이 관자(冠者)에게 술을 따라주는 의식으로, 술을 따라주기만 하고

이와 동종(同宗)이면서 방얼(傍孼)들은 합하여 약간 인이다.

서로 도모하여 말하기를 "통달한 달인은 마음에 내외(內外)가 없어서 사해가 형제이고 만민이 동포인데 하물며 우리 공조(共祖)·동종(同種)이 한 사람의 몸에서 형태가 분리되었고, 형제간에 기를 받고 하나의 터럭과 한 가닥 머리가 하나의 몸 아닌 것이 없으며 호흡하고 움직이는 기가 실로 서로 통하니, 그 친애충후(親愛忠厚)의 의리에 어찌 서로 강학하는 도리가 없겠는가? 더군다나 우리 족친은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우물을 함께한 적이 거의 없어 신의를 강(講)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도가 지금 서로 독실하지 않으니 복(服)을 면하고 정(情)을 다하는 데 이르러서는 어찌 길거리에 사람이 되지 않음을 보장하겠는가? 한 폭에 서명하고 계목(禊目)을 나열하여 봄·가을로 연모(燕毛)[17]하고 길흉에 서로 도와서 백 대의 소원한 정을 하나의 마음에 합하는 최상의 것은 아마도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모두 "좋다"라고 하였다.

대열에서 힐난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인정(人情)은 일정치 않으니 일은 끝마침이 드물다. 무릇 우리 형제와 자식, 조카 혹은 후손들이 만약 두 얼굴과 두 말이 있거나 입은 바로 하고 뱃속은 달라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선조의 가르침을 실추시키는 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선조의 정상(精爽)[18]이 밝고 울창하게 펴져 천상에 임하여 곁에서 질정하니 무릇 나의 이 거사(巨事)가 또한 반드시 말없이 보살펴주는[陰騭][19] 가운데에 흔쾌히 감응하여 혹 이것에 반하거든 이것은 아비가 없고 형제가 없는 인간이 될 것이니 우리 종친이 어찌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나는 이런 경우를 면할 것을 안다."라고 하였다. 힐난하는 자가 말하기를 "옳다."

수작(酬酢)이 없는 것을 '초(醮)'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관례를 가리킨다.

17) 연모(燕毛) : 고을 사람들이 연령순으로 연회의 좌석을 정하는 예(禮)로 향음주례를 말한다.

18) 정상(精爽) : 주희는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마음은 기의 정상이다.[心者, 氣之精爽也.]"라고 하였는데, 정상은 일종의 신명(神明)과 같다. 마음은 이 신명이 있어서 지각운용(知覺運用)의 묘(妙)를 발현하게 된다.

19) 음즐(陰騭) : 하늘이 말없이 보살펴 주는 복을 말한다. 《서경》 〈홍범(洪範)〉 첫머리에 "하늘은 암암리에 백성의 운명을 정해 놓고 그들의 삶을 돕고 화합하게 한다.[惟天陰騭下民, 相協厥居.]"라는 말이 나온다.

라고 하였다.

이에 그 규약을 완성하여 나의 이 말들을 기록하여 책의 머리말로 삼았다. 나는 이 일에 대해 생각하며 상심한 적이 있었다. 예전에 어렸을 적[髫齔][20]에 삼가 아버지와 일가가 여러 공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는 것[21]을 보고 맨 먼저 이 약속을 발하여 일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형제[荊棣][22]가 모두 돌아가셔서 불초한 내가 여러 어진 형제들과 선조들이 이루지 못한 뜻을 20여 년 후에 이었으니 다행이라고 말할 만하더라도 또한 어찌 형제간에 우애[蓼蕭][23]하지 못한 비애의 아픔이 없겠는가? 더군다나 우리 형제의 뒤에 자제된 자들이 척연(惕然)히 감동하여 공경히 지키지 않겠는가? 인하여 모두 여기에 기록하니 후인들은 힘써야 할 것이다.

---

20) 초츤(髫齔) : 머리를 뒤로 늘어뜨리고 이를 갈 무렵의 7~8세쯤 되는 어린아이를 말한다.

21) 어깨를 …… 것 : 형제가 길을 갈 때 줄지어 날아가는 기러기[鴈行]처럼 조금 떨어져 가야 한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예기》〈곡례 상〉에 "나이가 두 배 많으면 부모처럼 섬기고, 10년 이상 많으면 형으로 섬기고, 5년 이상이면 나란히 가되 조금 뒤에 따라간다.[年長以倍, 則父事之, 十年以長, 則兄事之, 五年以長, 則肩隨之.]"라고 하였고, 《예기》〈왕제(王制)〉에 "도로에서 남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부인은 왼쪽으로 가며 차는 중앙으로 다닌다. 아버지 연배의 사람을 만나면 그 뒤를 따르고, 형의 연배의 사람을 만나면 나란히 가되 약간 뒤에 처져 따라간다.[道路, 男子由右, 婦人由左, 車從中央, 父之齒隨行, 兄之齒鴈行.]"라고 하였다.

22) 형체[荊棣] : 형(荊)은 자형(紫荊)나무로 일명 박태기나무이며, 체(棣)는 상체(常棣)로, 형체(荊棣)는 형제간을 비유한다. 옛날 전진(田眞)의 삼형제가 분가(分家)하면서 집에 있던 자형나무까지 삼등분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자, 그 나무가 갑자기 시들었다. 전진의 형제가 이것을 보고 분가하려던 계획을 포기하자 다시 소생한 고사가 있어 형제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나무로 쓰이며, 상체는 아가위 꽃으로, 《시경》 소아(小雅)의 상체(常棣)는 형제간에 우애하는 내용을 읊었기 때문에 형제간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곧 교분이 두터워 형제간처럼 친하게 지냈음을 말한 것이다.

23) 육소(蓼蕭) : 육소(蓼蕭)는 《시경(詩經)》 소아(小雅) 육소(蓼蕭)의 "형에게 잘하고 아우에게 잘한다.[宜兄宜弟.]"라고 한 것을 가리킨 말로, 형제간에 화락하게 잘 지내는 것을 말한다.

매백헌유고서 【이름은 희일(喜馹)이고 호는 매백헌(梅栢軒)이다. 한림(翰林) 오빈(吳賓)의 증손이다.】

梅栢軒遺稿序【名喜馹, 號梅栢軒. 翰林吳公賓之曾孫也.】

매백(梅栢) 오공(吳公)은 집 주위에 매화와 동백을 심어서 그 집을 편액하여 '매백헌(梅栢軒)'이라고 하였다. 대저 천하에서 유명한 나무와 기이한 화초로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것에 무슨 제한이 있겠는가마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나무를 편액으로 삼은 것을 통해 공의 뜻을 안다고 하지 않겠는가? 공은 낙천인(洛川人)이다. 5대의 휘 오척지(吳陟之)는 포의(布衣)의 선비[24]로, 성종 조에 인정을 받아 당시에 고인(故人)으로 칭해졌다. 증조 휘는 빈(賓)으로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옥당(玉堂)[25]학사에 배수되었다. 가풍과 세덕은 저절로 전함이 있어서 공의 성품은 방정·간고(幹固)하고 지조가 곧아 꼿꼿함을 짝할 자가 없었는데 일찍 정헌(靜軒) 고제봉(高霽峯)[26] 공의 문하에 들어가 선생의 풍을 들었으므로 뜻이 고상하고 고아함이 예스러웠다. 자신을 검약으로 절제하여 일찍 과거의 업을 다스려 누차 향시(鄕試)에 수석으로 합격하였고 마침내 예부(禮部)에 들어갔다. 늦게 시와 술을 좋아하여 세상에 뜻을 버리기를 흔쾌히 하였다.

집에 거처할 때는 소박하고 번화한 문장을 섞기지 않았으며 제사에는 먼저 공경을 다 하고 항상 선친의 규약을 받들어 자제를 단속하였다. 사시(四時)의 제사[27]와 기절(忌節)의 제사에 하나같이 가례를 준수하여 효사(孝事)를

---

24) 포위(布韋) : 포의위대(布衣韋帶)의 준말이다. 베로 지은 옷과 가죽으로 만든 띠로, 가난한 선비의 복식을 말한다. 여기서는 가난한 선비를 지칭하는 말로 쓰고 있다.

25) 옥당(玉堂) : 문학하는 선비들이 거처하는 홍문관(弘文館)의 별칭이다.

26) 고제봉(高霽峰) :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이다. 고경명의 본관은 장흥(長興)이며, 자는 이순(而順)이고, 호는 제봉 또는 태헌(苔軒)이다. 광주 압보촌(鴨保村)에서 출생했다. 1552년 식년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명종비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외숙인 이조 판서 이량(李樑)의 전횡을 논핵 하였다가 울산 군수로 좌천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천일(金千鎰), 박광옥(朴光玉) 등과 의병을 일으켜, 전라좌도 의병대장에 추대되었다. 그해 7월 왜적에 맞서 싸우다 아들 고인후(高因厚) 등과 금산(錦山)에서 순절하였다.《갑자모의록 서(甲子募義錄序)》

27) 사시(四時)의 제사 : 절기나 명절에 지내는 제사로, 조선조에서는 정조(正朝)·한식(寒食)·단오(端午)·추석(秋夕)·동지(冬至)·납일(臘日) 등의 속절(俗節)에 사당이나 선영(先塋)에서 제사 지냈다.

다하였다. 공의 부모는 정유년(1597, 선조30) 왜의 변란에 아버지가 패하여 죽자 어머니가 절의에 순국하였다. 공은 항상 부모님 기일에 한 달 동안 소식[素食][28]하고 울기를 상을 당한 처음처럼 하였다. 항상 그 자손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나의 부모님 상에는 장례의 예를 할 수 없었으니 사람의 자식이 죽도록 그 고통이 어떠하였겠는가? 내가 죽은 후에 흰 두건과 흰 띠를 하고 흰 관에 주검을 거두어 대나무 수레에 싣고 돌아가 선조의 무덤에 부장(附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자손이 마침내 남긴 유훈을 어기지 못하였다.

공은 고문(古文)을 좋아하고 시 짓기를 잘하였으나 시를 지으면 번번이 원고를 버렸기 때문에 집에 전하는 시가 없었다. 공이 죽은 지 10여 년 뒤에 공의 장손이 공이 어려서 지은 정식시(程式詩) 약간 편을 난고(亂藁) 중에서 수습하여 책에 정서하여 와서 내게 보여주었다. 아! 내가 17세에 공의 문하에 들어갔고 서른에 공의 상을 입었는데, 그 사이 10년여에 공의 뜻과 행실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몇 편의 과거 시[科詩]로 어찌 공의 평생을 다 엿볼 수 있겠는가? 아! 세상에 말을 기록하는 군자가 없으니 공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묻혀 초목과 함께 썩게 하여 들을 수 없으니 슬프다. 삼가 책의 끝에 경개(梗槩)를 대략 쓴다.

성암[29]집서【이름은 수인(壽仁)이고 호는 성암(惺庵)이다. 청련(青蓮) 후백(後白)의 손자로 인조 연간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역학(易學)에 침잠하여 생을 마쳤다.】

惺庵集序【名壽仁, 號惺庵. 青蓮後白之孫, 仁廟朝, 登第不仕, 沉潛易學而終.】

호남(湖南)은 실로 우리 조선 사대부의 기북(冀北)[30]이다. 현인 군자의

---

28) 소식(素食) : 죽음을 애통하여 밥을 먹을 적에 고기반찬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을 말한다.

29) 성암(惺菴) : 이수인(李壽仁, 1601~1661)의 호이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유안(幼安)이다. 전라남도 강진 출신이다. 1633년 과거에 급제하여 전적, 병조 좌랑, 정언을 역임하였다. 1642년 재차 전적에 제수되었으나 사은한 뒤 바로 전리(田里)로 내려갔으며, 이후로도 여러 차례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30) 기북(冀北) : 기북은 준마(駿馬)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인재가 많음을 비유한 말이다. 한유(

배출이 앞뒤로 서로 접하여 끊이지 않았다. 학자의 정전(正傳)을 칭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선배가 모두 기존재(奇存齋)[31]를 수장으로 추존하였다. 존재의 학문은 퇴도(退陶)[32]에서 나왔고, 퇴계의 전함은 주자(朱子)[33]에 근본한다. 세상에서 도를 알지 못하고 구이지학(口耳之學)[34]이나 강기(强記)를 학문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퇴계를 흠잡으면 주자에게 의양(依樣)하는 것을 병통으로 삼고, 존재를 말하면 퇴계를 신봉하는 것을 하자로 여겼으니 내가 비록 불민하나 일찍이 깊게 병통으로 여겼다. 년 전에 안정동(安靜洞)의 정은당(靜隱堂)에서 성암(惺菴) 이문(李文) 어른을 뵙고 논함이 이 일에 미쳐서 공이 추연(愀然)이 말하기를 "거경궁리(居敬窮理)는 체가 있고 용이 있는 학문이니 크게 중정(中正)하여 지극한데 그치고, 치우치고 기울지 않은 것은 공자·맹자[鄒魯][35]의 뒤에 주자가 크게 완성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한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육자정(陸子靜) 형제[36]와 같이 총명하고

韓愈)의 〈송온조처사서(送溫造處士序)〉에 "백락이 말의 고장인 기북 지방을 한번 거쳐 가자, 말 떼가 마침내 텅 비게 되었다고 한다."[伯樂一過冀北之野, 而馬群遂空.]라는 구절이 보인다.

31) 기존재(奇存齋) : 기대승(奇大升, 1527~1572)으로, 존재는 그의 호이다.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명언(明彦), 호는 고봉(高峯)이다. 기묘명현의 한 사람인 기준(奇遵)이 그의 계부(季父)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1570년에 대사성으로 있다가 영의정 이준경(李浚慶)과의 불화로 해직당하였다. 1572년에 종계변무 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로 임명되었으며, 공조 참의를 지내다가 병으로 인해 귀향하던 도중 고부(古阜)에서 죽었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저서에 《고봉집(高峯集)》이 있다.

32) 퇴도(退陶) : 이황(李滉, 1501~1570)으로, 본관은 진보(眞寶),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퇴도(退陶)·도수(陶叟),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1534년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수찬, 단양 군수(丹陽郡守), 풍기 군수(豊基郡守), 성균관 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벼슬에서 물러나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짓고서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많은 제자를 훈도하였다.

33) 주자(朱子) : 주희(朱熹, 1130~1200)로, 자는 원회(元晦)·중회(仲晦), 호는 회암(晦庵)·회옹(晦翁)·운곡노인(雲谷老人)·둔옹(遯翁) 등이며 존칭하여 주자(朱子)라고 부른다.

34) 구이지학(口耳之學) : 배운 것을 그대로 남에게 옮길 뿐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천박한 학문을 이른다. 《순자(荀子)》〈권학(勸學)〉에서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왔다가 곧장 입으로 나간다.[小人之學也, 入乎耳出乎口.]"라고 하였다.

35) 추로(鄒魯) : 추(鄒)는 맹자의 고향이고, 노(魯)는 공자의 고향으로, 공자와 맹자를 가리킨다.

36) 육자정(陸子靜) 형제 : 남송의 사상가들인 육구연(陸九淵, 1139~1192)과 육구령(陸九齡, 1132~1180) 형제를 말한다. 육자정은 육구연으로 자정은 그의 자이고, 호는 상산(象山), 시호는 문안(文安)이며, 무주(撫州) 금계현(金谿縣) 사람이다. 육구연은 '심즉리(心卽理)'의 주관적 유심론(主觀的唯心論)을 주창하여 주자의 성즉리(性卽理)와 천리인욕설(天理人欲說)에 대항하였는데,

통달·박식하여도 오히려 교수병행(交修並進)의 바름에서 중정을 얻지 못하고 일변에 치우치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였다. 오직 퇴계가 나라의 변방인 편벽한 지역에서 태어나 선생과 수백 년 떨어져 있었음에도 잔편(殘編)의 진간(陳) 중에 그 종지를 얻었다. 퇴계의 문하에서 공부하고 친히 가르침을 받은 자가 한둘이 아니었으나 기존재가 한 번 만나 짧고 간단한 말 사이에서 대의를 얻었다. 편지를 주고받은 나머지에 도(道)의 전수(傳受)가 땅의 원근(遠近), 만남의 소삭(疎數)에 달려 있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책망은 본디 말할 것이 못 되고 후학들이 독실하게 믿고서 의심하지 않아서 마땅히 더욱 정밀하였으니 아! 누가 이 말을 알아서 학문의 요결을 주었겠는가?"라고 하였다.

대개 일찍이 공의 학문을 들여다보면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존재(存齋) 기대승(奇大升)의 사이에서 감발한 것이 많았다. 이 때문에 주문(朱文)[37]을 위주로 독송하고 《퇴도서절요(退陶書節要)》[38]를 귀착점의 중심으로 삼았으며, 《주역(周易)》[39]을 묵묵히 궁구하여 주자(朱子)의 《계몽(啓蒙)》[40]을

이때부터 유학은 심학(心學)과 이학(理學)의 두 학파로 갈라졌다. 뒤에 육구연의 학문은 왕양명(王陽明)에게 계승되어 양명학(陽明學)으로 발전하였다. 육구령은 자가 자수(子數)인데 세칭 복재선생(復齋先生)으로 불렸다. 동생 육구연과 사우(師友)가 되어 아호(鵝湖)에서 강학하면서 '이륙(二陸)'으로 일컬어졌으며, 전주교수(全州教授) 등을 역임하였다. 유학에 깊은 성취를 거두어 당시 사람들에게 '해내유종(海內儒宗)'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37) 주문(朱文) : 주희(朱熹)의 글을 가리키기도 하고, 시호가 문(文)인 주희를 바로 지칭하기도 한다.

38) 《퇴도서절요(退陶書節要)》 :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이 지은 책이다. 이상정은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경문(景文), 호는 대산(大山)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외조부인 이재(李栽)에게 배웠다. 1735년(영조11)에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 예조 참의 등을 지냈다. 저술로 《대산집》·《이기휘편(理氣彙編)》·《사칠설(四七說)》·《제양록(制養錄)》·《퇴도서절요(退陶書節要)》 등이 있다.

39) 《주역(周易)》 : 사물의 변화하는 현상을 예측하는 점서(占筮)로, 고대로부터 《연산역(連山易)》·《귀장역(歸藏易)》·《주역(周易)》 등 세 가지의 역(易)이 있었는데, 앞의 두 가지 역은 없어지고 《주역》만이 후대에 전해졌다. 《주역》은 음양의 두 효(爻)를 세 개씩 중첩하여 만든 8개의 괘와, 8개의 괘를 겹쳐 만든 64개를 근간으로 하여, 매 괘마다 괘사(卦辭)가 있고, 괘마다 6개의 효가 있고 효마다 효사(爻辭)가 있다.

40) 《계몽(啓蒙)》 : 주희가 초학자를 위해 지은 《주역》의 해설서인 《역학계몽(易學啓蒙)》을 말한다. 4권으로 구성하여 1186년에 완성했다. 주희는 《주역본의》 12권을 통해 점서와 의리를 융합하여 《주역》의 본의를 밝히려 했으며, 《역학계몽》에서는 역의 도식, 점서에 대한 수리적 설명에 주력했다. 이 책은

요지로 삼았고, 《역학계몽》을 읽을 때는 퇴계 이황의 《역학계몽전의(易學啓蒙傳疑)》[41]를 지남(指南)으로 삼았다. 그 치도(治道)를 논하면 치심으로 천하의 근본을 삼고, 치심(治心)을 논하면 거경을 궁리의 표준으로 삼았는데 그 말이 <사직봉사(辭職封事)>에 대략 보인다.

평소에 산수 사이에서 그윽한 정(貞)을 좋아하여 한가하게 사물을 읊은 시구절에 나오는 것이 순수하고 단정하니 또한 마음가짐에 법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궁벽진 산골짜기에 빛을 숨기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자임에도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는 본디 모난 행동이나 겉치레가 없고, 범인들과 말함에 한마디도 학문을 억지로 끌어들이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공을 아는 자들은 물욕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지목하였고, 공을 모르는 자들은 범연하게 이름있는 사대부(士大夫)로 논하였으나 세상에 도를 아는 자가 드물었으니 어찌 탓할 것이 있겠는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학에 뜻을 두고 스스로 독실하게 믿어서 장차 큰일을 할 날이 있었는데 문득 세상을 떠난 것이다. 가문을 맡길 곳이 없고 학문을 전할 자가 없어서 평소에 저술한 것들이 잡지(雜紙)·난고(亂藁) 가운데 섞이고 없어지고 흩어졌는데 소장(疏章)과 시율(詩律) 약간 편을 그 이웃 동자들이 뽑아 기록해 보관하였다.

공의 생질 신성필(愼聖弼)[42] 군이 수집하여 출판하여 전하려고 하면서 내가 일찍이 공이 학문을 논한 나머지를 미리 들었다고 하여 원고를 보내 보여주었다. 아!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말이 있으나 말은 그의 덕을 믿는데 필요하지 않다. 공은 평소에 박학(博學)으로 이치를 궁구하고 거경(居敬)으로 마음을 보존하여 은미(隱微)하고 유독(幽獨)한 가운데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았으니[43] 한두 문자를 전하는 것 또한

조선에서도 일찍이 간행되어 유학자들 사이에 널리 읽히고 연구되었으며 역대 왕들이 강독했다.

41) 《역학계몽전의(易學啓蒙傳疑)》 : 이황(李滉)이 주희(朱熹)의 《역학계몽(易學啓蒙)》에 대해서 변석(辨釋)한 책인데, 모두 1책으로 되어 있다.

42) 신성필(愼聖弼) : 자는 여뢰(汝賚)이고, 호는 경암(敬庵)이다. 감사를 지낸 신희남(愼喜男)의 5세손으로, 아버지는 성균관 생원 신광익(愼光翊)이고, 형은 참봉 신성윤(愼聖尹)이다.

43) 사람들이 …… 살았으니 :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仰不愧] 아래로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다[俯不怍]는 내용으로 《맹자(孟子)》 진심상(盡心上)에 보인다. 맹자가 이르기를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천하에 왕 노릇 하는 것은 여기에 끼지 않는다. 부모가 다 생존하고 형제가 무고한

가능할 것이고 전하지 않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주어도 또한 좋을 것이요 알아주지 않아도 또한 해될 것이 없다. 이 때문에 공이 논한 나머지의 몇 마디 말에서 예전에 들은 것을 기록하여 이렇게 돌려보내 공의 심학(心學) 유래의 일부를 전한다.

금강중수계서

錦江重修禊序

금강(錦江)에는 예전에 11인 계가 있었는데 대개 난정(蘭亭)의 옛일[44]을 행하는 것이었다. 시대를 헤아려보면 우리 중종·인조·명종의 삼대 태평 문명 이백여 년을 당하여 남쪽의 형세에서 우리 고을이 최고였다. 때는 곧 우리 고조할아버지 백중(伯仲)씨와 정자(正字) 임붕(林鵬)[45]과 주부(主簿) 나일손(羅逸孫)[46] 등 여러 선비가 불계(祓禊)의 모임을 약속하였다.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 二樂也. 得天下英才而教育之, 三樂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孟子 盡心上》

44) 난정(蘭亭)의 옛일 : 난정에서 수계(修禊)한 일로, 수계는 물가에서 노닐면서 불길한 재앙(災殃)을 미리 막던 풍속이다. 보통 3월 3일에 행하였다.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의 난정 수계(蘭亭修禊)는 진 목제(晉穆帝) 영화(永和) 9년(353) 삼월 삼짇날, 즉 상사일(上巳日)에 왕희지(王羲之), 사안(謝安), 손작(孫綽) 등 42인의 명사(名士)가 난정에서 모여 수계를 행한 뒤에 곡수(曲水)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지으며 성대한 풍류를 즐긴 계회가 있었는데, 왕희지의 〈난정기(蘭亭記)〉에 그 내용이 보인다.《晉書 卷80 王羲之列傳》《古文眞寶 後集 권1 蘭亭記》

45) 임붕(林鵬) : 1486~1553. 임붕의 자는 중거(仲擧), 호는 귀래당(歸來堂),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호남병마우후(湖南兵馬虞候)를 역임한 임평(林枰, 1462~1522)의 아들이다. 1510년(중종5)에 생원이 되었다. 1519년(중종14) 기묘사화로 신진사류인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일파가 화를 입게 되자 이를 구하기 위하여 상소하고 생원의 신분으로 태학의 제생(諸生) 240여 명을 거느리고 대궐 문밖에 기다리면서 명령을 기다렸는데, 사적이 기묘당적(己卯黨籍)에 있다. 1521년(중종16)에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은 경주 부윤에 이르렀다.

46) 나일손(羅逸孫) : 나창(羅昶)이다. 신유년(1501)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2등 15위에 합격하였고, 경오년(1510)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4위에 급제하였다. 1522년에 지평(持平)을 제수받았다가 서경(署經)할 때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체직되고, 그 뒤 형조 정랑(刑曹正郎), 사옹원 주서(司饔院注書)를 지냈다

난새와 봉황이 나는 듯한 것은 승정원 박우(朴佑)[47]의 글씨요, 맑은 대나무, 소나무 마음이라고 한 것은 즉 사간원 나일손의 시이니 한 시대의 풍채와 운치를 상상할 만하였다. 이것을 이어서 연파(烟波)[48], 사암(思庵)[49] 두 선생이 밭 갈고 낚시질한 여가와 공퇴(公退)한 틈에 부로(父老)들과 손을 잡고 앞 사람들이 하던 일을 잘 닦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돈독해졌으나 불행하게도 섬 오랑캐의 변란으로 6년 동안 전쟁을 치렀으니 대개 만력 정유년(1597, 선조 30)부터 친목을 닦는 믿음이 폐하여 강학을 할 수 없었다.

지난 모년 사이에 우리 대부공(大父公)께서 개연히 향당(鄕黨)의 노소(老少)들을 불러서 옛 뜻을 대략 기술하고, 그 불계의 일을 이어서 행하니 전에 계를 받은 후손들이 비록 한 자리에 다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온화하고 돈독한 풍은 고을에 진동하였다. 숭정(崇禎)의 말에 시사(時事)가 어려움을 당하여 선배 부형이 연달아 서거한 후에는 이어 가지 못한 것이 여러 해 되었다. 명나라가 남쪽으로 옮겨간 뒤 21년 을사년(1665, 현종6)에 만영(萬英)이 영평(永平)[50]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향당의 여러 부로가 소매에

---

47) 박우(朴祐) : 1476~1546. 자는 창방(昌邦), 호는 육봉(六峰), 본관은 충주이다. 진사 지흥(智興)의 아들이고 눌재(訥齋) 박상(朴祥)의 아우이며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아버지이다. 1510년 문과(文科)에 급제한 이후 내직으로는 전적(典籍)·승지·대사성·이조 참의·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등을 역임하였다. 외직으로는 남원 부사(南原府使), 공주 목사(公州牧使), 해주 목사(海州牧使),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전주 부윤(全州府尹) 등을 역임하고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 성품이 강직하여 김안로(金安老), 허확(許確), 허항(許沆) 등 간신(奸臣)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주로 외직을 많이 지냈다.

48) 연파(烟波) : 박개(朴漑, 1511~1586)의 호이다. 본관은 충주(忠州), 자는 대균(大均), 호는 연파처사(烟波處士)로 박우(朴祐)의 아들이다. 향시에 합격하고 명종 때 선공감 주부·참봉·고산 현감(高山縣監) 등을 지냈다. 선조 때 암행어사가 되었고, 김제 군수를 지냈다.

49) 사암(思菴) : 박순(朴淳, 1523~1589)의 호이다. 본관은 충주(忠州).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菴), 시호는 문충(文忠)으로 서경덕의 문인이다. 1553년 정시 문과에 장원한 뒤 홍문관 응교로 있을 때 임백령(林百齡)의 시호 제정 문제에 관련하여 윤원형(尹元衡)의 미움을 받고 파면되어 향리인 나주로 돌아왔다. 1565년 대사간이 되어 대사헌 이탁(李鐸)과 함께 윤원형을 탄핵함으로써 포악한 척신 일당의 횡포를 제거한 주역이 되었다. 1572년 영의정에 올라 약 15년간 재직하였다. 이이(李珥)가 탄핵되었을 때 그를 옹호하다가 도리어 양사(兩司)의 탄핵을 받고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 영평(永平) 백운산(白雲山)에 암자를 짓고 은거하였다. 저서로는 《사암집》이 있다.

50) 영평(永平) : 전라도 나주(羅州) 남평현(南平縣)의 다른 이름이다. 본래 백제의 미동부리현(未

책 한 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내가 보니 우리 작은 아버지와 상사(上庠) 정국현(鄭國賢)[51]이 구계(舊禊)를 중수(重修)한 계첩이었다. 두 번 절하고 공경히 열람해보고는 한참동안 슬퍼하였다.

또 공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계(社禊)[52]의 모임은 대개 주나라의 불계(祓禊)[53]의 예와 낙읍(洛邑)의 유상(流觴)의 의례[54]를 시조로 하였고, 위진(魏晉)시대 후에는 회계(會稽)의 승사(勝事)[55]가 천고에 웅대하게 울려 퍼졌는데 그 실제를 상고해보면 청담(淸談)[56]일 뿐이요, 시와 술일 뿐이니 어찌 족히 명교(名敎)의 도[57]라고 하겠는가? 생각건대, 우리 금강(錦江)의 계(禊)는 특히 따뜻한 봄날에 복숭아꽃이나 즐기는 것을 경계로 삼았으니,

---

冬夫里縣)이었는데, 신라가 현웅(玄雄)이라 고쳐서 무주(武州)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가 남평현으로 고쳐서 나주에 소속시켰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36 全羅道 南平縣》

51) 정국현(鄭國賢) : 1592~?. 자는 이보(而寶)이고, 본관은 나주이다. 1624년 식년시 생원 3등 50위로 합격하였다.

52) 사계(社禊) :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며 토지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53) 불계(祓禊) : 삼월 상사절(上巳節)에, 재액을 털어 버리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54) 낙읍(洛邑)의 …… 의례 : 3월 삼짇날 문인(文人)들이 모여서, 굽이쳐 흐르는 물결에 잔을 띄우며 시(詩)를 짓고 노니는 잔치를 말한다. 《진서(晉書)》〈속석전(束晳傳)〉에 "진 무제(晉武帝)가 3월 삼짇날 곡수(曲水)하는 뜻을 묻자 속석(束晳)이 말하기를 '옛날에 주공(周公)이 낙읍(洛邑)에 성을 쌓고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웠으므로 일시(逸詩)에 술잔은 물결을 따라 흐르네.'[羽觴隨波流.]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희지(王羲之)의 난정(蘭亭)의 모임도 여기에서 비롯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고 하였다.

55) 회계(會稽)의 승사(勝事) : 영화 9년 삼짇날 왕희지(王羲之)가 당시의 명사(名士) 40여 명과 회계(會稽) 산음(山陰)의 난정(蘭亭)에서 모임을 갖고 유상곡수(流觴曲水)의 풍류를 즐겼던 일을 〈난정기(蘭亭記)〉라는 글로 기록해 놓았다.《古文眞寶後集 권1》

56) 청담(淸談) : 육조(六朝) 시대에 유행했던 자연주의적 또는 본능주의적 사상가의 일파를 청담파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노장사상(老莊思想)을 조술(祖述)하여 세속의 일을 떠나서 청정무위(淸淨無爲)의 공리공담(空理空談)을 일삼고, 유가의 도덕이나 예의를 무시하고 감정에 따라 유유자적하는 것을 고상하게 여겼다.《二十二史箚記 六朝淸談之習》

57) 명교(名敎)의 도 : 명교는 곧 인륜 도덕의 가르침을 말한다. 진(晉)나라 말기에 이른바 팔달(八達)이라고 일컬어졌던 호무보지(胡毋輔之), 사곤(謝鯤), 완방(阮放), 필탁(畢卓), 양만(羊曼), 환이(桓彛), 완부(阮孚), 광일(光逸) 등 여덟 사람이 예법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날마다 청담을 나누며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놀아서 방달(放達)하기로 유명했는데, 그중에는 심지어 옷을 다 벗고 알몸을 내놓은 자까지 있었다. 그래서 악광(樂廣)이 그것을 보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명교 안에 절로 즐거운 땅이 있는 법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한단 말인가?[名敎中自有樂地, 何爲乃爾也?]"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당일 군자들이 근본을 돈독히 하고 의리를 숭상하여 강마(講磨)로써 인(仁)의 실제로 삼았음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장로들 사이에서 교유하며 준조(樽俎)의 반열에서 읍양(揖讓)하던 자들이 조정에 나가서는 태평성대의 우의(羽儀)[58]가 되었으니 이양(二養) 상국(相國)[59]이 있었고, 뛰어넘어서는 봉황이 천인(千仞)의 절벽을 비상하는 것과 같았으니 청심(淸心)의 고사(高士)[60]가 있었다. 그 향음주례(鄕飮酒禮)[61]에서 오르고 내릴 즈음에 덕성을 훈도하고 장액(奬掖)·보도(輔導)하는 것이 어떠하였겠는가? 지금 공들이 백년의 사업을 창시하여 전현(前賢)의 일을 따르니 아름답다고 할 만하다. 대체 모르겠지만 봄·가을 좋은 날에 잔을 잡고 높은 곳에 올라가 풍류를 드날렸던 것뿐이었겠는가? 장차 진퇴(進退)할 때 읍하고 사양하고, 겨울에는 예를 닦고 여름에는 시를 지으며 옛 법도를 잘 닦으려고 한 것인가? 관혼상제(冠昏喪祭)의 경조사에 그 정을 다하고 착함에 힘쓰며 허물을 보완하여 출입에 심력을 다하고 우리 향당의 예의와 겸양의 풍을 빚어내어 우리 옛 선대의 부형과 제군자(諸君子)의 책임에서 죄를 얻지 않도록 한 것은 우리 11계원 중에 제공들이 아니겠는가? 또 한마디 말을 하자면 오직 옛 11계원의 자손이 우리 고을에 거처하는 데에 무슨 제한이 있겠는가마는 무슨 까닭에 선조의

---

58) 우의(羽儀) : 지위가 높고 재덕이 있어 남의 모범이 되는 것을 뜻한다. 《주역》〈점괘(漸卦) 상구(上九)〉에 "기러기가 공중으로 점차 나아가는 것이다. 그 깃이 의법이 될 만하니 길하다.[鴻漸于陸, 其羽可用爲儀, 吉.]"라고 하였다.

59) 이양(二養) 상국(相國) : 이양(二養)은 이양정(二養亭)을 말하고 상국은 박순을 가리킨다. 박순의 별업(別業)인 이양정은 영평현(永平縣) 영평천(永平川) 가에 있었다. 이항복(李恒福)이 지은 행장에 따르면, 박순은 1586년 8월에 휴가를 얻어 백운계(白雲溪) 가에 집을 짓고 살면서 세상일을 끊었는데, 그곳에 배견와(拜鵑窩)·이양정(二養亭)·청랭담(淸冷潭)·창옥병(蒼玉屛) 등의 명승지가 있다고 하였다. 《白沙集 卷4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朴公行狀, 韓國文集叢刊 62輯》

60) 청심(淸心)의 고사(高士) : 연파처사(烟波處士) 박개(朴漑)를 가리킨다.

61) 향음주례(鄕飮酒禮) : 삼대(三代)부터 있던 예(禮)로, 한 고을의 사람 중에서 덕이 있는 노인을 빈객(賓客)으로 삼아 거행하는 의례이다. 《의례》〈향음주례〉에 "문에 들어온 다음, 주인이 빈(賓)과 세 번 읍하고 계단에 이르러 세 번 사양하면 주인이 먼저 당에 올라가고 빈이 뒤에 올라간다. 주인이 당 위의 동쪽 계단 위쪽에서 미(楣) 아래에 위치해 북향하여 재배하면 빈은 당 위의 서쪽 계단 위쪽에서 미 아래에 위치해 북향하여 답배한다.[主人與賓三揖, 至于階, 三讓, 主人升, 賓升, 主人阼階上當楣北面再拜, 賓西階上當楣北面答拜.]"라고 하였다.

금란지교(金蘭之交)와 같은 한마음으로 사귄 정을 망각하고 서로 보기를 진나라와 월나라처럼 멀게 여기는가?[62] 이것을 우리 계원들이 서로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모두 대답하기를 “우리가 규약을 공경히 지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인하여 그 말들을 기록하여 책의 머리말로 삼는다.

구고서재제생명적록서

九皐書齋諸生名籍錄序

병신년(1656, 효종7)년에 내가 비로소 도내 옛 고을 아홉 개의 언덕[63]과 네 개의 샘[64] 물가로 이사를 했다. 들과 언덕은 비록 소박하나 계곡의 세(勢)는 쟁반처럼 휘돌아 진실로 농부와 시골 늙은이가 여기에서 나를 곧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얻었다. 다만 언덕과 산은 멀고 궁벽지고, 이웃은 떨어져 있어 고요하고, 호미 매고 깊은 샘에서 물을 마시는 밭두둑 사이의 즐거움은 비록 있었으나 경서를 끼고 토론하여 강마(磋磨)의 보탬이 결핍된 것은 한스러웠다. 계묘년(1663, 현종5) 봄에 고을의 어린 유생들이 서실(書室)을 만들면서 몇 사람이 와줄 것을 청하였는데 내가 그들의 간청을 저버리지 못하고 이내 허락하였다.

다음 해 갑진년(1664, 현종6)에 집이 완성되었는데 한 채는 건구(乾邱)의 남쪽에, 그 면을 손(巽)으로 하고 있어서 이름을 ‘양정(養正)’이라고 하였고,

62) 진나라 …… 여기는가 : 진나라는 중국의 서북쪽에 있고 월나라는 동남쪽에 있으므로, 서로 멀리 떨어져서 관계가 소원하다고 하여 관심 없이 냉담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63) 아홉 개의 언덕 : 김만영은 태극(太極)과 팔괘(八卦)의 이름을 따 자신의 집 주변에 있는 아홉 언덕을 ‘구고(九皐)’라 명명하고, 그곳에 ‘양정재(養正齋)’라는 이름의 서실(書室)을 지었다. 이에 대해서는 《남포집(南圃集)》 권4 〈구고음(九皐吟)〉 참조.

64) 네 개의 샘 : 김만영이 자신의 은거 공간에 이름을 붙이고 이에 대해 읊은 〈구고음(九皐吟)〉 서문에, “앞에는 샘이 모두 네 곳 있는데, 당 앞에 있는 것은 ‘소양(少陽)’이라 하고, 감고 앞에 있는 것은 ‘태양(太陽)’이라 하며, 손고 앞에 있는 것은 ‘소음(少陰)’이라 하고, 이고 앞에 있는 것은 ‘태음(太陰)’이라 하였다.[前有泉凡四穴, 在堂前者名曰‘少陽’, 在坎皐前者曰‘太陽’, 巽皐前者曰‘少陰’, 離皐前者曰‘太陰’.]”라고 한 기록이 보인다.《南圃集 권4》

다른 한 채는 곤구(坤邱)의 북쪽에, 그 앞을 간(艮)으로 하고 있어서 '열락(悅樂)'이라고 편액하였다. 대개 낮고 평평한 4개의 산은 쭉 뻗어 여러 빼어난 산을 받아들여 호남의 서석산(瑞石山)·월출산(月出山) 같은 명승지와 금성산(錦城山)·개천산(開天山) 같은 산의 수백 봉우리가 처마에 나열해있어 이른바 구고(九皐)·사천(四泉)이 그 사이에서 들쭉날쭉하니 이것이 지세의 아름다움이었다.

초가집이 새로 완성되니 주렴과 기둥은 단정하고 곧고, 소박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면서도 야박하지 않았다. 종이창은 밝고 깨끗하고 궤안은 따라서 가지런하였으며 때때로 유생들과 조용히 마주 앉아 순정(淳正)한 《시서(詩書)》와 정결(淨潔)한 《주역(周易)》 그리고 경(經)은 같고 전(傳)이 다른 공맹[鄒魯][65]과 제자백가, 고금의 사가들의 서적에 실린 치란(治亂)을 다 거두어 함께 목전에 모아두니 비록 방의 깊은 곳[閫奧]에 잠기지는 못하더라도 그 대강을 거의 씹을 수 있어서, 맛이 없어도 맛이 있고 파하려고 해도 파할 수 없었으니[66] 이것이 재당(齋堂)의 온당함이었다.

게다가 관자(冠子)와 동자(童子)가 반열을 달리하여 의대(衣帶)가 가지런하고, 액황(掖黃)과 피마(披痲)의 복장을 하고 조석으로 상종하여 유유(愉愉)하고 절절(切切)[67]하게 서로 의(義)를 권장하니 이것이 내가 비록 사표

---

65) 추로(鄒魯) : 추(鄒)와 노(魯)는 모두 춘추 시대의 국명(國名)이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태어나고 맹자가 추나라에서 태어난 까닭에 공맹(孔孟)이나 공맹의 예교(禮敎)와 학문을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여기에서는 공자의 《논어》와 맹자의 《맹자》를 가리킨다.

66) 그만두려고 …… 없었으니[欲罷不能] : 안연(顏淵)이 스승인 공자의 도에 대해서 감탄하며 술회한 뒤에 "선생님께서는 차근차근 사람을 잘 이끌어 주시면서, 학문으로 나의 지식을 넓혀 주시고 예법으로써 나의 행동을 단속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그 공부를 그만두려고 생각해도 그만둘 수 없어서 나의 재주를 다하고 보니 부자의 도가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듯 보이긴 하는데, 아무리 따라가려 해도 그 길을 알지 못하겠다.[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欲罷不能, 既竭吾才, 如有所立卓爾, 雖欲從之, 末由也已.]"라고 말한 것이 《논어》 〈자한(子罕)〉에 보인다.

67) 유유(愉愉)하고 절절(切切) : 절절은 '절절시시(切切偲偲)'의 준말로 붕우 간에 간절히 권면하는 것을 말한다. 자로(子路)가 진정한 사(士)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자 공자가 이르기를, "간절하게 권면하고 화목하게 지내면 사라 이를 수 있으니, 벗 사이에는 간절히 권면하고, 형제간에는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切切偲偲, 怡怡如也, 可謂士矣. 朋友, 切切偲偲, 兄弟, 怡怡.]"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論語 子路》

(師表)의 모범은 없지만 여러 유생이 청아(菁莪)의 즐거움[68]이 있다는 것이었다. 혹 봄·가을의 볕 좋은 날에는 바람과 볕이 최고 좋으니 장자(長者)가 선창하고 소자(少者)가 화답하였고, 경을 읽은 여가에 계속해서 시를 읊고, 시를 읊은 나머지에는 약간의 술 마시기를 명하여 술이 거나해지면 몇 곡조 가야금을 타고 기분이 적당해지면 그만두었다. 현악기를 따라서 즐겼으니 여기에서 유생과 더불어 서로 따르는 뜻이 세속의 비루한 것에 있지 않고 떳떳한 정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두 언덕의 서재를 합하여 이름 붙이기를 '구고서재(九皐書齋)'라고 하였다.

하루는 유생들이 작성한 책을 쌓아놓고 책에 유생들의 성명을 쓰기를 청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산야의 사람이 밭두둑 사이에서 서로 따르니 다른 가숙(家塾)·향상(鄕庠)에서 이름을 기록하는 일과는 다르다. 우선 버려두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유생들이 말하기를 "공부하는 친구가 이미 많고 규약이 조밀하지 않으니 언행이 혹 괴오(乖誤)에서 잘못되고 실덕(實德)이 방탕하고 태만함에 귀착됨이 있습니다. 이에 종이에 성명을 연명으로 기록하여 보는 자가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누구는 학업에 부지런하고 누구는 학업에 태만하며 누구는 공손하고 누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여 두려워하고 성찰하는 마음이 이것으로부터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름을 기록하는 것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음이 없는데 하물며 서적을 갖추고 있는 당(堂)과 실(室) 사이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모든 예절을 시행하되 반드시 유사(有司)를 두어 주관하게 한다면 표를 붙여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반드시 책에 이름을 쓰게 하는 데에서 비롯될 것이니 지금 대략 여씨향약(呂氏鄕約)[69]의 문서에서 착함(善)·허물[過]을 기록하는 규칙을 대략

---

68) 청아(菁莪)의 즐거움 : 청아는 인재를 육성함을 뜻한다.《시경》〈청청자아(菁菁者莪)〉에 "무성하고 무성한 새 발 쑥이여, 저 언덕 가운데 있도다. 이미 군자를 만나 보니 나에게 백붕을 주신 듯하여라.[菁菁者莪, 在彼中陵. 旣見君子, 錫我百朋.]"라고 하였는데, 모서(毛序)에 "청청자아는 인재를 육성함을 즐거워한 시이다."라고 하였다.

69) 여씨향약(呂氏鄕約) : 중국 북송(北宋) 때 향촌을 교화, 선도하기 위해 만들었던 자치적인 규약이다. 1076년 섬서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의 여씨 문중에서 만들었으며, 뒤에 주자(朱子)에 의해 약간의 수정이 가해져《주자여씨향약(朱子呂氏鄕約)》이 만들어졌다. 주된 강목은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한다.[德業相勸]", "잘못은 서로 고쳐준다.[過失相規]", "사람을 사귈 때는 서로 예의를 지킨다.[禮俗相交]",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患難相恤]" 등이다. 조선 중종 12년(1517)에 중앙

모방하고자 합니다. 큰 잘못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떠하신지요?"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허락한다."라고 하였다. 인하여 그 책의 머리에 시말(始末)의 정황을 기록한다.

갑진년(1663, 현종4) 11월 16일 남교로포(南郊老圃) 쓰다.

삼학재학생계권서

三學齋學生契券序

"너는 사람이 사람 되는 까닭의 도를 아는가?" "인(仁)과 의(義)일 뿐이다." "인의(仁義)의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 "인의의 도는 어디에 있는가?" "육경(六經)[70]에 실려 있다." "그렇다면 인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육경의 문장을 익숙하게 익히는 것이다. 내 마음의 이치에 되돌려서 몸소 행함이 독실하면 인의를 회복할 수 있어서 사람이라는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육경의 문장을 익숙하게 익히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소학(小學)》을 토대로 하여 그 기초를 세우고 《대학(大學)을 참고하여 그 문에 들어가고 《논어(論語)》로 그 뿌리를 견고하게 하고 《맹자(孟子)》로 그 변화를 통달하고 《중용(中庸)》으로 그 오묘함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 후에 《시서(詩書)》에서 성인의 성정(性情)·달도(達道)를 구하고 《춘추(春秋)》에서 성인의 대경대법(大經大法)을 법 받고 《역경(易經)》에서 천지만화(天地萬化)의 굴신소장(屈伸消長)[71]을 다하고 《예악(禮樂)》에서 천하 만물의

정부의 명령으로 각 지방관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이황의 《예안향약(禮安鄕約)》, 이이의 《서원향약(西原鄕約)》이 만들어졌다.

70) 육경(六經) : 유가에서 말하는 여섯 가지의 중요한 경전으로, 《시경(詩經)》·《서경(書經)》·《예경(禮經)》·《악경(樂經)》·《역경(易經)》·《춘추(春秋)》인데, 《악경》은 진(秦)나라 분서갱유(焚書坑儒) 때에 없어지고 지금은 오경(五經)만 남아 있다.

71) 굴신소장(屈伸消長) : 굴신은 굽힘과 폄이고 소장은 사라짐과 자라남이니, 음양이 순환하고 사물이 성쇠하는 등의 변화를 말한다. 〈역설강령(易說綱領)〉에 "역은 모름지기 착종하여 보아야 하니 천하의 일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선악·시비·득실로부터 굴신·소장·성쇠에 이르기까지

유물유칙(有物有則)[72]을 관찰하고 역사의 글과 백가의 문장을 두루 통하여 고금의 사변, 문장·기예의 핵심과 지류를 통달하여야 한다. 그런 연후에 내 마음의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검약한 데에서 돌이켜 구하고 하나로 꿰뚫어서 만 가지를 통섭한다면 사람이 사람 되는 까닭이라는 것이 천지와 더불어 참여하여 셋이 되어 상하가 함께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체(四體)가 나태해지고 심지(心志)가 방탕해져서 사적인 것을 품게 되고 욕심을 따르게 돼서 자포자기하고 방벽사치(放僻奢侈)하게 될 것이니 이른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고 말과 소에게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놓았다.'라고 할 것이니 사람이란 이름을 얻어도 우러러보아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 땅에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두려워할지어다! 엄격히 해야 할지어다! 세상에서 장구(章句)와 문사(文辭)를 가지고 남의 이목에 아첨하여 영욕과 행운을 취하려는 자는 말세의 인간이니 말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였다.

근래에 파평(坡平) 윤숙(尹俶) 군, 영평(永平) 문만욱(文晩郁) 군, 진양(晉陽) 정기(鄭耆) 군, 파평(坡平) 윤선기(尹先夔) 군, 양천(陽川) 허겸(許謙) 군이 고을의 관동들과 함께 서사학재(書社學齋)를 약속하고 책에 그 이름을 나열하여 써서 영구의 계책으로 삼고자 맹세하였다. 내게 머리말을 써주기를 청하여 내가 사람이 배우지 않을 수 없는 뜻을 대략 말하고 머리말에 인의(仁義) 두 글자를 써주어 책의 서문으로 삼도록 하였다.

기해년(1659, 효종10) 늦가을 3월 30일 쓰다.

어떤 일이든 모두 여기에서 나왔음을 볼 수 있다. …… 문왕이 또 단사를 지어 그 뜻을 해석하였는데 음양이 소장하고 성쇠하고 굴신하는 이치가 아닌 것이 없으며 성인이 배우는 것은 이것을 배운 것일 따름이다.[易須是錯綜看, 天下事无不出於此, 善惡是非得失, 以至於屈伸消長盛衰, 看甚事都出於此. …… 文王又爲之彖辭, 以釋其義, 无非陰陽消長盛衰屈伸之理, 聖人之所以學者, 學此而已.]"라고 하였다.

72) 유물유칙(有物有則) : 《시경》 〈증민(蒸民)〉에 나오는 말로, "'하늘이 여러 백성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도다. 사람들이 마음에 떳떳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지라,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 [天生蒸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라고 하였다.

수운정서

峀雲亭序

큰 바다의 동쪽 땅과 웅진(雄鎭)의 서편 벌에 물은 광주(光州)와 능주(綾州)를 합하고 산은 서석산(瑞石山)과 금성산(錦城山)으로 나뉘도다. 어느 때에 조물주가 한 구역 명승(名勝)을 빚어냈던가? 오늘 명공이 서너 이랑에 정사(精舍)를 높이 여니, 추녀는 기미(箕尾)[73]의 영채(英彩)에 임하고 보휘(寶輝)는 하늘을 능멸하며 문이 제나(濟羅)의 아득한 바람을 받아들이니 호방한 기운 난간에 가득하도다. 주인 영공(令公)[74]은 인간 달존(達尊)[75]의 반열이요, 천상에 노전(老躔)[76]의 정수로다. 대대로 아름다운 명성이 있고 가문에 효우(孝友)를 전하여 봉황의 반열에 수리처럼 서 있으니 어찌 삼어연(三語掾)[77]의 맑은 품격보다 못하겠는가? 봉치(鳳峙)의 계림(鷄林)이 천년

---

73) 기미(箕尾) : 28수(宿)에서 동쪽 별자리인 기수(箕宿)와 미수(尾宿)에 해당하는 중국의 유연(幽燕) 지역, 즉 요동 일대를 가리킨다. 은(殷)나라의 명재상 부열(傅說)이 죽은 뒤에 그의 정신이 하늘로 올라가 기성(箕星)과 미성(尾星) 사이에 별자리를 이루었다는 고사를 원용한 것이다. 《장자》〈대종사(大宗師)〉에 "부열이 도(道)를 얻어서 무정을 도와 천하를 모두 소유하였으며, 죽은 뒤에는 동유성을 타고 기성과 미성을 몰아 열성과 나란하게 되었다.[傅說得之, 以相武丁, 奄有天下, 乘東維, 騎箕尾, 而比於列星.]"라고 하였다.

74) 영공(令公) : 정삼품과 종이품 관리를 높여 이르던 말이다.

75) 달존(達尊) : 천하 사람이 공통적으로 존중해야 할 덕목이라는 뜻으로, 작위[爵]와 연령[齒]과 덕(德)을 삼달존(三達尊)이라고 한다. 《맹자》〈공손추 하(公孫丑下)〉에 "천하에 달존이 세 가지가 있으니, 관작(官爵)이 하나요, 연치(年齒)가 하나요, 덕(德)이 하나이다. 조정에는 관작만 한 것이 없고, 향당에서는 연치만 한 것이 없고, 세상을 돕고 백성을 자라게 하는 데는 덕만 한 것이 없다.[天下有達尊三, 爵一齒一德一. 朝廷莫如爵, 鄉黨莫如齒, 輔世長民莫如德.]"라고 하였다.

76) 노전(老躔) : 노인성(老人星)을 가리키는 말로 노인성은 장수를 상징하는 별이다. 후한(後漢)의 진식(陳寔)이 자질(子姪)을 데리고 순숙(荀淑)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하늘에서는 덕성이 모이는 상서(祥瑞)가 보였다고 한다. 이를 보고 태사(太史)가 임금께 아뢰기를 "500리 안에 반드시 현인들의 회합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後漢書 권62 荀淑列傳》《世說新語 德行》

77) 삼어연(三語掾) : 사도(司徒) 왕융(王戎)이 완첨(阮瞻)을 처음 만나서 성인(聖人)의 명교(名教)와 노장(老莊)의 차이점을 물었을 때 완첨이 "아마 같지 않을 것이다.[將無同]"고 대답하자, 왕융이 한동안 감탄하다가 추천하여 연리(掾吏)로 삼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완첨을 보고 삼어연(三語掾)이라고 하였다. 《晉書 阮瞻傳》

구국(舊國)을 위무하니 중거(仲擧)[78]의 긴 고삐를 잡고 거원(巨源)[79]의 아무 언덕[某邱][80]을 생각하도다.

구양수(歐陽脩)[81]의 백발창안(白髮蒼顔)에 날렵한 고각(高閣)이요, 사안(謝安)[82]의 청산녹수(青山綠水)에 삽상한 명창(明窓)이도다. 문미에 화려한 편액은 멀리 도연명(陶淵明)[83]의 멋진 글귀를 계승하고 바위틈 걸출한

---

78) 중거(仲擧) : 진번(陳蕃, ?~168)을 가리킨다. 중거는 그의 자이다. 동한(東漢) 말의 명신이다. 젊을 때 아버지의 친구가 방문했을 때, 손님이 오는데도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는지 이유를 묻자 "대장부가 일을 처리함에 마땅히 천하를 청소해야지 어찌 집 하나를 일로 여기겠습니까?[大丈夫處事, 當掃除天下, 安事一室乎?]"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후에 환관을 척결하려고 도모하다가 피살되었다. 《後漢書 권66 陳蕃列傳》

79) 거원(巨源) : 진(晉)나라 때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산도(山濤, 205~283)의 자(字)이다. 진(晉)나라 하내(河內) 회현(懷縣) 사람으로, 죽림칠현의 일원으로 마흔이 넘어서야 관직에 나갔다. 상서 우복야를 거쳐 이부 상서(吏部尙書)가 되어 좋은 인물을 많이 등용하였다. 대표적으로 문제(文帝) 때 참소를 입어 억울하게 죽은 혜강(嵇康)의 아들 혜소(嵇紹)를 무제(武帝) 때 천거하여 비서승(祕書丞)이 되게 하였다. 혜강(嵇康)·여안(呂安)과 친하였는데 뒤에 혜강이 처형을 당할 때 아들 혜소(嵇紹)에게 "거원이 있으니, 너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巨源在, 汝不孤矣.]"라고 하였다. 《晉書 권43 山濤列傳》

80) 모구(某邱) : 아무 언덕이란 뜻으로, 고향 땅의 언덕을 뜻한다. 한유(韓愈)의 송양소윤서(送楊少尹序)에 "이제 돌아가서는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아무 나무[某樹]'는 나의 아버님께서 심으신 것이고, '아무 물[某水]'과 '아무 언덕[某邱]'은 내가 어린 시절에 낚시질하고 뛰어놀던 곳이다.' 하면, 고향 사람들이 모두 공경할 것이다.[今之歸, 指其樹曰: "某樹, 吾先人之所種也, 某水某丘, 吾童子時所釣遊也."]"라고 하였다.

81) 구양수(歐陽脩) : 1007~1072. 자는 영숙(永叔), 호는 취옹(醉翁),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중국 송(宋) 나라 인종(仁宗)·신종(神宗) 때의 문신·문인이다. 한유(韓愈)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 고문(古文) 부흥에 힘썼다. 추밀부사(樞密副使)·참지정사(參知政事) 등을 지냈다.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훌륭한 고문(古文)을 많이 창작하였고, 문집으로《구양문충공집》153권이 있다.《신당서(新唐書)》와《오대사기(五代史記)》등을 편찬하였다.

82) 사안(謝安) : 320~385. 진(晉)나라 사람으로, 자는 안석(安石), 시호는 문정이다. 젊어서부터 청담(淸談)을 좋아하여 여러 차례 벼슬을 거절하고 회계군(會稽郡) 산음현(山陰縣)의 동산(東山)에서 왕희지(王羲之), 손작(孫綽) 등과 어울렸으나, 후에 벼슬길에 올라서는 공적을 쌓고 이름을 날렸다. 재상이 되었을 때 전진(前秦)의 부견(符堅)이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자 이를 격파하였다.

83) 도연명(陶淵明) : 365~427. 남북조 시대 진(晉)나라의 은사(隱士)이며 시인으로, 자는 원량(元亮)이며 뒤에 도잠(陶潛)으로 개명하였는데, 일설에는 연명이 그의 자라고도 한다. 팽택 현령(縣令)이 되었으나, 80일 만에 벼슬을 버리고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으며 전원으로 돌아와 문 앞에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고 스스로 오류선생(五柳先生)이라 칭하였다. 시호는 정절(靖節)이다.

건축은 가까이 박상공(朴相公)[84]의 옛터를 이었도다. 구름과 새가 서로 나니 의연히 삼경(三逕)[85]의 풍미요 물과 달이 서로 비치니 얼핏 이양정(二養亭)[86]【박사암(朴思庵)이 이곳에서 말년에 이양정을 지었다.】의 정신 같도다.

이에 가을 만(灣)에 장마 물 잦아드니 갈대 여울에 돌 불거지고, 봄 물결에 비 더하니 버들 언덕에 조수가 평평하도다. 어부의 긴 노래에 물새들이 날개를 접고 열사(烈士)의 높은 읊조림에 고기가 비늘을 번뜩이도다. 혹 외로운 배에 노 젓고 혹 짧은 지팡이 짚고서 푸른 물결 읊조리며 달구경하고 높은 언덕에 서서 바람을 뿜도다. 이 세상에 세 가지 즐거움,[87]【여기에 일구(一句)가 빠진 것 같다】 홍교(虹橋) 백 척에 이르러선 용이 파도에 눕고 월악(月岳) 천 층은 붕새가 해변에 멈춘 것 같도다.[88] 바위의 분장단벽(粉嶂丹壁)을 우러르니 조석의 상서로운 광채 드러내고 봉우리의 녹옥창규(綠玉蒼珪)를 노래하니 운우(雲雨)의 기이한 자태를 바치도다. 사시(四時)의 광경을 선물하고 일실(一室)의 술잔을 마련하도다. 난간 밖 장강(長江)에 이르러선 아련히 오초(吳楚)에 이어지고 문 앞의 큰길은 멀리 경화(京華)에 접했도다. 작방용축(雀舫龍軸)의 돛대는 나루에서 익수(鷁首)[89]와 교차하고 구장호부

---

84) 박상공(朴相公) : 박순(朴淳 1523~1589)으로,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菴), 본관은 충주(忠州),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명종(明宗)·선조(宣祖) 때의 문신·학자이다. 서경덕(徐敬德)의 문인(門人)으로, 영의정(領議政)을 지내고 이이(李珥)·성혼(成渾) 등과 교유하였으나, 서인(西人)으로 지목되어 탄핵을 받고 영평(永平) 백운산(白雲山)에 은거하였다. 저서에 《사암집(思菴集)》이 있다.

85) 삼경(三逕) : 은자가 사는 집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漢)나라 장후(蔣詡)라는 사람이 왕망(王莽)이 집권하자 벼슬에서 물러나 향리인 두릉(杜陵)에 은거하면서 대밭 아래에 오솔길 셋을 내고 벗 구중(求仲)과 양중(羊仲) 두 사람하고만 교유한 데서 유래하였다. 《蒙求 蔣詡三逕》

86) 이양정(二養亭) : 박순의 별업(別業)으로, 영평현(永平縣) 영평천(永平川) 가에 있었다.

87) 세 가지 즐거움 : 맹자(孟子)께서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천하에 왕 노릇하는 것은 여기에 끼지 않는다. 부모가 다 생존하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 二樂也. 得天下英才而敎育之, 三樂也.]"라고 하였다. 《孟子 盡心上》

88) 붕새가 ……같도다 : '鵬蹇海浴의 [浴]'을 '龍臥波心의 [心]'과 대(對)를 맞추기 위하여 [沿]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89) 익수(鷁首) : 익조(鷁鳥)는 백로 비슷한 새로 바람에 잘 견딘다고 한다. 《회남자(淮南子)》 〈본경훈(本經訓)〉에 "익(鷁)은 큰 새이다. 그 새의 모양을 그려서 뱃머리에다 붙이기 때문에 익수(鷁首)라고

(龜章虎符)의 관개(冠盖)는 큰길에서 사마(駟馬)의 굽을 정비하니 넉넉한 정우(停宇)의 조망이요 장쾌한 유거(幽居)의 안목이로다. 오호라! 올라가 경물을 구경하니 지나간 날 아득하고 고금을 둘러보니 천지가 역려(逆旅)[90]로다. 서호(西湖)[91]에 학 떠나가니 처사의 풍류 이미 사라지고 동리(東里)[92]에 용 올랐으니 전왕의 포부 어디에 있는가?

배견와(拜鵑窩)[93] 상공(相公)【사암(思庵)이 또 영평(永平)에 배견와(拜鵑窩)를 지었다.】의 청수(淸水)한 정기를 거두어들이고 배에 행장 꾸린 노선(老仙)이도다.【사암의 형 연파(烟波) 박개(朴漑)[94]의 '일엽편주에 흰 달을 싣고[葉舟載素月]'라는 시구가 있으므로 이 말을 한 것이다.】 창해(滄海)의 먼 곳에 뜻 아득한데 더군다나 매창(梅窓)의 밤은 적적하고 난실(蘭室)의 봄 허허하도다. 노을이 삭막한데 명월은 홀로 오르고 새가 슬피 우는데

한다."라고 하였다.

90) 역려(逆旅) : 나그네가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을 말한다. 이백(李白)의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에 "천지는 만물의 여관이요, 광음은 백대의 과객이다.[夫天地者, 萬物之逆旅, 光陰者, 百代之過客.]"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역려는 천지 사이에서 한가롭게 노닌다는 뜻이다.

91) 서호(西湖) : 서호는 송나라 때 임포(林逋)가 살던 곳이다. 임포는 서호의 고산에 은거하여 20년 동안 성시(城市)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며, 서화와 시에 능하였고 특히 매화시가 유명하다. 장가를 들지 않아 자식이 없었으며 매화를 심고 학을 길러 짝을 삼으니, 당시에 '매처학자(梅妻鶴子)'라고 하였다. 사후에 화정(和靖)이란 시호를 받았다.《世說新語 棲逸》

92) 동리(東里) : 춘추 시대 정(鄭)나라의 재상 자산(子産)을 가리킨다. 그가 동리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다. 정자산은 수십 년 동안 국정을 잡고 있으면서 두 강대국인 진(晉)나라와 초(楚)나라의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한 정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전혀 받지 않도록 하는 수완을 발휘하였다. 그는 특히 외교 문서를 잘 작성하여,《논어》 헌문(憲問)에, "공자가 말씀하셨다. 사명(辭命)을 만들 때 비침(裨諶)이 초고를 만들고 세숙(世叔)이 토론하고 행인(行人) 자우(子羽)가 수식하고 동리(東里) 자산(子産)이 윤색하였다.[子曰: "爲命, 裨諶草創之, 世叔討論之, 行人子羽修飾之, 東里子産潤色之."]"라고 하였다.

93) 배견와(拜鵑窩) : 박순이 1568년에 영평에 왔다가 산천의 빼어남을 보고 머물러 살 때 지은 집의 이름이다. 배견은 두견새에게 절한다는 뜻으로, 흔히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한다. 두보(杜甫)가 촉(蜀)에서 지은 〈두견(杜鵑)〉에 "두견새가 늦은 봄 날아와서, 슬프게 내 집 곁에서 울었지. 내가 보고는 항상 재배했나니, 옛 망제의 넋임을 존중해서였네.[杜鵑暮春至, 哀哀叫其間, 我見常再拜, 重是古帝魂.]"라고 하였다.

94) 박개(朴漑) : 1511~1586. 본관은 충주(忠州), 자는 대균(大均), 호는 연파처사(烟波處士), 박우(朴祐)의 아들이다.

주옹은 어디에 있는가? 물가에 길이 있어 납극(蠟屐[95])의 유풍 알 수 있고, 길가 이끼에 흔적 없어 구장(鳩杖)[96]의 자취 찾을 길 없도다. 의지하는 것은 당나라 마군(馬君)[97]의 삼세이니 뜰에 옥란(玉蘭)[98]이 자라고 송나라 왕씨의 쌍벽이니 집에 금우(金友)가 있도다. 평천장(平泉莊)[99]의 꽃과 돌, 찬황공(贊皇公)[100]의 규모에 뒤지지 않고 상락(常樂)의 솔과 대, 어이 백향산(白香山)[101]의 봉식(封植)으로 하겠는가? 청상(靑箱)[102]의 구업을

---

95) 납극(蠟屐) : 밀랍을 발라서 반질반질하게 한 나막신을 말하는데, 남조 송(南朝宋)의 사령운(謝靈運, 385~433)이 산에 올라가 노니는 것을 좋아하여 항상 나막신을 준비해 신고 다니면서 올라갈 때는 신의 앞굽을 떼고 내려갈 때는 신의 뒷 굽을 떼 내었다고 한다.《宋書 권67 謝靈運傳》

96) 구장(鳩杖) : 옥구장(玉鳩杖)의 준말로, 나이 70이 되어 치사(致仕)한 사람을 비유한 말이다. 한(漢)나라 때 나이 70이 되면 옥장(玉杖)을 주고 그 손잡이 끝에 비둘기 모양의 장식을 하였는데, 이는 비둘기가 체하는 법이 없기에 노인도 체증(滯症)이 없기를 바라는 뜻이었다고 한다.《後漢書 권15 禮儀志中》

97) 마군(馬君) : 마계조(馬繼祖)로, 한유는 마계조를 비롯하여 그의 부친 마창(馬暢), 조부 마수(馬遂) 삼대(三代)와 모두 친분이 있었는데, 생전에 이들 모두를 차례로 먼저 떠나보냈다. 이에 마계조의 묘문을 지으면서 이들과의 각별한 인연을 서술하고 서글픈 심정을 절절히 드러내었다.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40년도 못되었는데, 그들 할아버지, 아들, 손자 삼세의 죽음을 곡하였으니, 인간 세상에서 어떠하겠는가? 사람들이 오래도록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감을 보려고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自始至今未四十年, 而哭其祖子孫三世, 于人世何如也? 人欲久不死而觀居此世者, 何也?]"라고 한 데서 인용한 말이다.《韓昌黎集》 권33 〈전중소감마군묘지(殿中少監馬君墓誌)〉

98) 옥란(玉蘭) : 지란옥수(芝蘭玉樹)와 같은 말로 남의 집안의 우수한 자제(子弟)를 예찬하는 말이다. 《세설신어(世說新語)》 〈언어(言語)〉에 진(晉)나라 사안(謝安)이 여러 자제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묻자, 그의 조카인 사현(謝玄)이 "비유하자면 지란옥수가 뜰 안에 자라게 하고 싶습니다.[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階庭耳.]"라고 대답했다는 구절이 보인다.

99) 평천장(平泉莊) : 평천장은 당(唐)나라 때 찬황백(贊皇伯)에 봉해진 명상(名相) 이덕유(李德裕, 787~850)의 별장이다. 이덕유가 하남(河南) 낙양현(洛陽縣) 남쪽에 평천장을 세웠는데, 둘레가 40리이고 기이한 초목과 돌이 많아 그 경치가 선경(仙境)과 같았다고 한다.

100) 찬황공(贊皇公) : 당나라의 재상인 이덕유(李德裕)를 지칭하는 말로, 그가 조군(趙郡)의 찬황(贊皇) 사람이므로 '찬황공'이라고 부른다.

101) 백향산(白香山) : 향산(香山)은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별호이다. 자는 낙천, 호는 향산거사(香山居士)·취음선생(醉吟先生)이다. 일찍이 형부 상서(刑部尙書)로 치사(致仕)한 뒤 동도(東都) 이도리(履道里)에 살면서 향산(香山)에 석실을 짓고 못을 파고 나무를 심었으며, 팔절탄(八節灘)을 만들었다고 한다.《舊唐書 권166 白居易列傳》

102) 청상(靑箱) : 집안에 대대로 전해지는 학문을 말한다. 육조 송(宋)나라 때 왕준지(王准之)의 집은 대대로 강좌(江左)의 옛일을 잘 알아서 이를 기록하여 푸른 상자[靑箱]에 넣어 두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를 일러 '왕씨(王氏)의 청상학(靑箱學)'이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宋書 권60》

전하여 절로 예를 논하고 시 즐기며 묵유(墨帷)의 고장(古藏)을 간수하여 거문고 타고 피리 부는 것만이 아니도다. 나그네는 천지에 한 마리 좀[一蠹][103]이요 강호에 병마[二豎][104]가 있어 대화(大化)[105]의 그침이 없음을 보겠도다. 기꺼이 물가에 임하여 전현을 좇아 미치지 못하니【글자가 빠진 듯하다】 산하에 부끄럽도다. 가벼운 갈매기의 만 리 마음은 일천(一天)의 갠 달이요. 늙은 학의 천년 의지는 백련(百鍊)[106]의 맑은 파도로다. 오늘 명승을 찾아와 정자의 통활(通豁)한 데에 서서 이러한 뜻 펼치고 우주의 여풍(餘風)을 거슬리도다. 시부(詩賦)는 현사들에게서 여망 있건만 강정(扛鼎)[107]의 필력 부족함 한탄하고 시는 옛 자취에서 찡그림 흉내내니[效嚬][108]어찌 자리에 도움이 될 신공(神功)을 기대하겠는가? 대략 흉금(胸襟)을 펼쳐 창과 벽을 더럽히도다.

---

103) 일두(一蠹) : 송(宋)나라 학자 이천(伊川) 정이(程頤)가 일찍이 말하기를 "농부가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오곡을 농사지으니 내가 그것을 먹고, 백공(百工)이 기물(器物)을 만드니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군사들이 갑옷에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니 내가 편안히 지낸다. 나는 사람들에게 혜택도 주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천지간에 한 마리 좀과 같은 존재이다. 다만 성인(聖人)이 남기신 글을 모아 엮어서 보충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하였다.《二程遺書 권17》

104) 이수(二豎) : 병마(病魔)를 이른다. 진(晉)나라 경공(景公)이 병으로 누워있을 때 병마가 두 아이로 화신(化身)하여 왔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이다.

105) 대화(大化) :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네 단계의 큰 변화로, 유아기·청년기·노년기 그리고 죽음을 말한다.《列子 天瑞》

106) 백련(百鍊) : 옛날 3대 보검의 하나로 꼽혔던 칼 이름이다.

107) 강정(扛鼎) : 큰 정(鼎)을 들 만한 힘을 가졌다는 뜻으로, 힘이 대단히 센 것을 말한다.《사기》 권7 〈항우본기(項羽本紀)〉에 "항우는 힘이 세서 세 발 달린 솥을 두 손으로 불끈 들 만하였다.[力能扛鼎]"라고 하였는데, 한유의 시에 "용 무늬 새겨 백 곡을 담은 세 발 달린 큰 솥을 홀로 불끈 들 만한 필력을 그대는 가졌다오.[龍文百斛鼎, 筆力可獨扛.]"라는 표현이 보인다.《韓昌黎集 권5 病中贈張十八》

108) 효빈(效嚬) : 찡그리는 것을 본받는다는 뜻으로, 자기의 분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남을 흉내 내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장자(莊子)》〈천운(天運)〉에, "서시(西施)가 가슴이 아파서 얼굴을 찡그리자, 그 마을에 사는 추한 사람이 보고 아름답게 여겨 역시 가슴을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리니, 그 마을에 사는 부자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가난한 자는 처자를 거느리고 달아나 버렸다."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구암서실팔영시서

龜巖書室八詠詩序

졸렬하고 우직한 우부(愚夫)는 일찍이 말을 하고자 하지 않았는데 정양(靜養)하는 자가 팔영시(八詠詩)를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대저 사람은 말을 하고자 하지 않으나 어찌 또한 뜻을 말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109] 라고 하였다. 우부(愚夫)가 빙그레 웃으며 말하기를 "거북이 상서롭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자라가 신령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변화해서 바위가 되고 고개[嶺]가 되고, 흥기하여 구름이 되고 노을이 되니 하늘이 장차 이 구름과 노을로 비를 만들어 창창한 생명에 미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높은 바위와 고개를 지켜 아침저녁으로 완상하게 하여 뜻을 고상하게 하려는 것인가? 적(篴)은 8번째에 죽(竹)이 되고 종(鍾)은 6번째에 궁(宮)이 되니 하늘이 장차 두 개의 음으로 소호(韶頀)[110]를 연주하여 새와 짐승으로 춤을 추게[111] 하고자 한 것인가? 아니면 범패[漁梵][112]에 깃들게 하여 불평을 울리게 한 것인가? 이 두 가지 것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마땅히 청송(晴松)으로 지조 삼고, 제월

---

109) 대저 …… 않겠습니까 : 《서경》〈순전〉에, 제순(帝舜)이 기(夔)에게 음악을 담당하게 하면서 "음악의 가사인 시(詩)는 뜻을 말한 것이고, 노래[歌]는 그 가사를 사람이 길게 늘여 부르는 것이고, 악기의 소리[聲]는 그 긴 목소리에 맞추어 연주하는 것이고, 율(律)은 악기의 그 소리를 조화시키는 것이다.[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라고 말한 데서 발췌한 것이다.

110) 소호(韶頀) : 좋은 음악이라는 뜻이다. 《춘추좌전(春秋左傳)》 양공(襄公) 29년 조에는 은(殷)나라 탕왕(湯王)의 음악이라 하였고,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상림부(上林賦)〉 주에 소는 순(舜)의 음악, 호는 탕왕의 음악이라 하였다.

111) 새와 …… 추게 : 《서경》 〈익직(益稷)〉에 "관악기와 도고를 설치하고 축과 어를 써서 음악을 합하고 멈추되, 생과 용을 번갈아 울리니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며 소 음악을 아홉 번 연주하니 봉황이 와서 춤을 추었다.[下管鼗鼓, 合止柷敔, 笙鏞以間, 鳥獸蹌蹌, 簫韶九成, 鳳凰來儀.]"라고 하였다.

112) 어범(漁梵) : 어산(魚山)은 지명인데 또한 어산(漁山)이라고도 칭한다. 염불을 의미한다. 위(魏) 조식(曹植)이 이곳에 있으면서 비로소 범패(梵唄)를 제작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범패를 어범(漁梵)이라 하였다. 또 《현찬 사(玄贊 四)》에 "진사왕(陳思王)이 어산(漁山)에 올라 암수(巖岫)에서 경외는 소리를 들으니 청완(淸婉)하고 추량(遒亮)하여 먼 골짜기에까지 메아리치므로 뒤이어 그 소리에 비겨 범패를 지었다. 그러므로 지금 속중(俗中)에서 어범이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霽月)[113]로 마음가짐 삼아야 한다. 혹은 조양(朝陽)[114]에서 울어서, 문왕의 서상(瑞祥)을 춤추는 것도 명이요, 택반(澤畔)에서 홀로 술 깨어[115] 창랑의 돛배를 띄우는 것 또한 명(命)이다. 지인(至人)[116]은 무심(無心)하여 더불어 화하여 함께 흘러가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구암서실(龜巖書室) 팔영시(八詠詩)〉에 화운하여 노래한다.

---

113) 제월(霽月) : 광풍제월(光風霽月)을 말한다. 광풍제월은 비 갠 뒤의 맑은 바람과 밝은 달로, 인품이 고결하고 마음이 탁 트인 사람을 비유한다. 황정견(黃庭堅)이 《산곡집(山谷集)》 권1 〈염계시(濂溪詩)〉의 서(序)에서 주돈이(周敦頤)를 평하면서 "용릉(舂陵)의 주무숙은 인품이 매우 고상하고 가슴속이 쇄락(灑落)하여 마치 비 온 뒤의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같다.[人品甚高, 胸中灑落, 如光風霽月.]"라고 하였다.

114) 조양(朝陽) : 봉명조양(鳳鳴朝陽)으로, 어진 인재가 때를 만나 일어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시경》 〈권아(卷阿)〉에 "봉황이 우니, 저 높은 언덕에서 울도다. 오동이 자라니, 저 산 동쪽에서 자라도다.[鳳凰鳴矣, 于彼高岡. 梧桐生矣, 于彼朝陽.]"라고 하였다. 당(唐)나라 때에 저수량(褚遂良) 등의 간신(諫臣)이 죽은 뒤로 감히 직간하는 신하가 없었는데, 이선감(李善感)이 어느 날 상소하여 직간을 하자 당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봉명조양(鳳鳴朝陽)'이라고 한 고사가 있다.《新唐書 권105 韓瑗列傳》

115) 택반(澤畔)에서 …… 술 깨어 : 굴원이 축출당한 뒤의 모습을 〈어부사(漁父辭)〉에 "굴원이 방출당해 강담을 거닐고 택반에서 읊조릴 때 안색이 초췌하고 모습이 깡 말랐다.[屈原既放, 游於江潭, 行吟澤畔, 顏色憔悴, 形容枯槁.]"라고 묘사하고, 축출당한 이유에 대해 묻자, 굴원이 "온 세상이 모두 탁한데 나만 청정하고 뭇사람들이 다 취했는데 나만 깨어 있기 때문이네.[擧世皆濁我獨淸, 衆人皆醉我獨醒.]"라고 대답한 것을 원용한 표현이다.

116) 지인(至人) : 일반적으로 덕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지인은 아집이 없다.[至人無己]" 하였고, 《장자(莊子)》 〈천하(天下)〉에 "도의 대종(大宗)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을 천인이라 하고, 도의 정수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을 신인이라 하며, 도의 진수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을 지인이라 한다.[不離於宗, 謂之天人, 不離於精, 謂之神人, 不離於眞, 謂之至人.]"라고 하였다. 《장자(莊子)》의 외편 〈전자방(田子方)〉에도 백혼무인이 열자에게 도를 체험한 초월자의 절대 자유로운 경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인이란 위로는 푸른 하늘을 들여다보고 아래로는 황천에 잠기며, 팔방으로 멋대로 날아다니되 정신이나 기백이 변치 않는 것이다.[夫至人者, 上窺靑天, 下潛黃泉, 揮斥八極, 神氣不變.]"라고 하였다.

제정생초동책후서

題鄭生抄東策後序

광주 사람 정생(鄭生)이 〈동구책대(東邱策對)〉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공께서는 솜씨 좋은 장인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까? 여장(櫲樟)[117]의 나무는 땅에서 자라 하늘에 닿으면 솜씨 좋은 장인이 취해서 동량(棟樑)을 만들고, 기재(杞梓)[118]의 재목은 줄기가 곧고 결이 세밀하니 솜씨 좋은 장인이 취해서 가야금·거문고를 만들기 때문에 크고 가늘고 넓고 좁은 것이 모두 승묵규척(繩墨規尺)[119]으로 헤아려져서 그릇의 쓰임에 합당하게 됩니다. 군주의 사람 씀이 어찌 이것과 다르겠습니까? 조정에서 과거제도를 설치하여 밝은 집사(執事)를 선발하여 팔도에 보내 위포(韋布)[120]의 선비에게 책(策)을 물어 '모의 일은 마땅한가, 마땅하지 않은가?' 라고 하면 제자가 대답하기를 '마땅한 것은 마땅하고 마땅하지 않은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집사가 선발하여 왕에게 올리면 왕이 큰 것은 크게 작은 것은 작게 선택하는 것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이 그 재목의 크고 작은 것을 가려서 사용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그 일이 어찌 중차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집사께서는 맞은 도(道)로서 묻질 않기 때문에 제자가 그에 맞지 않은 법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번다하게 잘 꾸민 문장이고 잘 꾸민 말이며 속이고 거짓 행실일 뿐이니 어찌 법도·규격에 맞는 그릇을 취하여 사용하겠습니까? 군자가 군주에게 고하는 것 또한 이와 같으니

---

117) 여장(櫲樟) : 좌사(左思)의 〈오도부(吳都賦)〉에 나오는 나무 이름으로 녹나무의 일종인데 훌륭한 재목으로 쓰인다. 이 녹나무는 중국 남방에 자생한다.

118) 기재(杞梓) : 기재는 먹구슬나무와 가래나무로, 대표적인 좋은 목재인데 훌륭한 인재라는 뜻이다. 초(楚)나라 영윤(令尹) 자목(子木)이 성자(聲子)에게 묻기를 "진(晉)나라 대부와 초나라 대부를 비교할 경우 어느 쪽이 더 훌륭한가?" 하니, 성자가 대답하기를 "진나라의 경(卿)은 초나라 경보다 못하다. 초나라 대부는 훌륭한 재목이 매우 많아 전부가 경의 재목이다. 이는 마치 기재와 피혁(皮革)을 초나라에서 수입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春秋左氏傳 襄公26年》

119) 승묵규척(繩墨規尺) : 모두 목공이 집을 지을 때 쓰는 연장이다. 규는 둥근 자이고, 척은 일반 자이며, 승묵은 목재를 바르게 재단하기 위한 먹줄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모두 규범과 법도를 말한다.

120) 위포(韋布) : 위대포의(韋帶布衣)의 준말로, 가죽으로 만든 띠와 베로 만든 옷을 말한다. 벼슬하기 전에 입는 옷인데, 흔히 벼슬하지 않은 선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대부가 인재를 취하는 것이 아마도 여기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슬픕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어질게 여겨서 책의 뒤에 그대로 기록한다.

사잠서
四箴序

내가 어려서 이 유가의 학문에 뜻을 두어 나이 15, 6세에 대강 《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대학(大學)》의 대의를 통하였는데 18세에 부모님을 잃고 그로 인해 큰 병을 얻었다. 숨이 끊어질 듯 연명을 해오던 거의 10여 년 동안 이에 의방복이(醫方服餌)의 책을 얻어 공부해보고 침잠(沉潛)하고 섭렵(涉獵)하여 그 내용을 대략 알았다. 집은 가난하고 몸은 병들어 약재를 구하기 어려워 또 도인법(導引法)[121]을 단련하고 병을 늦추고 생명을 연장하는 방술을 구하여 의지와 실천을 한 지 여러 해 되었는데 대개 병의 7, 80%는 제거되었다. 이때 선친 무덤의 이장의 일이 있어서 또 감여(堪輿)[122]의 학문에 골몰하느라 몇 년을 낭비하여 병은 이미 조금 나아졌지만 어린 나이에 기가 거칠어졌다. 그로 인하여 개연히 병법(兵法)에 뜻을 두어 자못 그것에 힘을 썼다. 이것으로 인하여 중후한 기운은 수련하고 단련하는 과정에서 사라져 가볍고 방탕하게 변하였고, 총명한 기질은 여러 해 침아(沉痾)의 나머지에 빼앗겼으며, 몸가짐의 굳은 의지는 지관(地官)의 탄괴(誕怪)와 병가(兵家)의 임기응변의 술책에서 흔들림을 당하였다. 그로 인하여 호산(湖山)의 질탕(跌宕)한 뜻과 시와 술로 안일하게 세월만 보내게 되어 본연의 진실은 이미 8.90%를 잃게 되었다.

해 무술년(1658, 효종9) 가을에 우연히 집에 보관된 서적을 열람해보고는,

---

121) 도인법(導引法) : 도인술(導引術)이라고도 하며, 음강(陰康)에 의하여 창안되었다고 전하는 도가의 무병장수를 위해 행한 건강법이다. 손과 발을 움직여 기(氣)와 혈(血)을 신체 각 부위에 골고루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신의 굴신(屈伸)과 지압(指壓)을 동시에 행하는 신체 운동과 병을 없애 수명을 연장하는 주문법, 호흡법 등을 포괄한다.

122) 감여(堪輿) : 집터나 묘지의 형세 또는 그것을 보아서 길흉을 판단하는 일이다.

한 편에 《심경(心經)》[123)]을 얻어서 읽고 나도 모르게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바로 10년간 잘못 들어간 뜻을 다 포기하고는 옛 학문에 머리를 돌린 것이 지금 1년이 되었는데 치우친 성품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날로 심해졌다. 돌아보니 올해 나이가 36살인데 길을 잃고 방황하며 갈림길에서 분주했다. 지금 조금 깨달은 것이 있지만 구습에 물들어 벗어나기 어렵다. 반세기를 돌아보니 자신을 상실했음이 확연(廓然)하여 이에 사잠(四箴)[124)]을 지어서 벽에 걸어놓고 마음의 경계로 삼는다.

---

123) 《심경》 : 송나라 진덕수(眞德秀)가 경전(經傳)과 송나라 도학자들의 저술에서 심성 수양(心性修養)에 관한 격언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진덕수(眞德秀, 1178~1235)는 주자의 제자로, 자는 경원(景元)이고 호는 서산(西山)이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영종(寧宗) 경원(慶元) 5년(1199) 진사(進士)에 급제하여 호부 상서와 한림학사를 역임하였다. 저서에 《심경》·《대학연의(大學衍義)》·《당서고의(唐書考疑)》·《독서기(讀書記)》·《문장정종(文章正宗)》·《정경(政經)》·《서산문집(西山文集)》 등이 있다.

124) 사잠(四箴) : 안연(顏淵)이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조목을 물었을 때 공자가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라고 답하였다. 《論語 顏淵》. 이것에 대해서 정이가 〈시잠(視箴)〉·〈청잠(聽箴)〉·〈언잠(言箴)〉·〈동잠(動箴)〉을 지었다.

기
記

춘풍루기
春風樓記

천지는 만물을 생육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는 자이니 물(物)에서 생(生)하는 것은 원(元)보다 앞선 것이 없다. 원이란 천지의 대용(大用)이면서 사람에게는 인(仁)이 되고, 때[時]에는 봄[春]이 된다. 춘(春)은 사시(四時)의 원(元)이요, 원은 사덕(四德)[125]의 수(首)이다. 인(仁)이란 오상(五常)[126]의 원이요, 원은 사덕(四德)의 수(首)가 되어 형(亨)·이(利)·정(貞)에 또한 각각 왕성하다. 춘은 사시의 시작이고, 하(夏)·추(秋)·동(冬)에 토(土)와 더불어 같은 덕으로 사계절에 왕성하니, 춘원(春元)의 쓰임[用]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자라게 하고 길러주는 춘원(春元)의 바람이 만물을 고동(鼓動)하여 만물을 양생한다. 그렇다면 춘(春)이란 사시의 전체이고 풍(風)이란 춘원의 대용(大用)으로 만물을 생육하니 군자의 풍(風)도 또한 이와 같고 군자의 인(仁)도 또한 이에 근본 한다. 옛사람이 춘·풍으로써 그 누정을 명명(命名)하는 이가 있었으니, 대개 여기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이 누정을 지음에 천근(天根)으로 들보 삼고 월굴(月窟)로 기둥 삼으며[127]

---

125) 사덕(四德) : 《주역(周易)》에서 말하는 천지자연의 네 가지 덕인 원(元)·형(亨)·이(利)·정(貞)을 말한다.

126) 오상(五常) :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다섯 가지 덕을 말한다.

127) 천근(天根)으로 …… 삼으며 : 천근은 《주역》의 복괘(復卦)를, 월굴(月窟)은 구괘(姤卦)를 가리키는데, 각각 양(陽)과 음(陰)을 비유한 것으로서 천지 음양의 이치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 두 말은 송(宋)나라 소옹(邵雍)의 〈관물(觀物)〉에 "이목 총명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니 하늘이 부여한 것 빈약하지 않네. 월굴을 탐구하여야만 물건을 알 수 있고 천근을 밟지 않으면 사람을 어찌 알겠느냐? 건괘가 손괘를 만난 때에 월굴이 되고 지괘가 뇌괘를 만난 곳에 천근을 보도다. 천근과 월굴이 한가히 왕래하니 삼십육궁이 모두 봄이라오.[耳目聰明男子身, 洪鈞賦與不爲貧. 須探月窟方知物, 未躡天根豈識人. 乾遇巽時爲月窟, 地逢雷處見天根. 天根月窟閒往來, 三十六宮都是春.]"라고 읊은 시에 함께 보인다.

간석(艮石)[128]으로 대를 삼고 건곤(乾坤)으로 문을 삼도다. 인온(氤氳)한 기운은 창문에서 교감하고 염염(苒苒)한 햇살은 방문에서 화순(和順)하도다. 양곡(暘谷)[129]에 해 돋으니 자시자생(資始資生)의 숙기 융융하고 동방에 훈풍 부니 구십춘광(九十春光)의 풍물 곳곳에 있도다.[130] 상하의 산광 서로 푸르고 앞뒤의 물색 널리 푸르니 참 근원의 일맥 기묘하여 기록할 수 없도다. 당에 오르니 자홍색 봄빛 한창이고 방에 들어가니 난초 향기 진하도다. 팔방의 창문 사방으로 열리고 꽃과 버들은 사심이 없도다. 대나무 창은 양지를 향하고 뜰의 풀은 싱그러움 띠도다. 앞내에 비 지나가니 청산은 의구하고 후원에 바람 살랑대니 봄새가 지저귀도다. 누항(陋巷)[131]으로 우이(嵎夷)[132]를 삼고 궐리(闕里)[133]로 양곡(暘谷)을 삼아 선천후천(先天後天)[134]이 모두 가운데에 부쳐 삼십육궁(三十六宮)[135]이 사이에 열 이루도다.

---

128) 간석(艮石) : 간괘(艮卦)가 물상(物象)에 있어 산이 되고 작은 길이 되고 돌[石]이 된다고 하였다. 《周易 說卦傳》

129) 양곡(暘谷) : 해가 나오는 곳을 말한다. 《서경》 〈요전(堯典)〉에 "희중(羲仲)에게 나누어 명하여 우이(嵎夷)에 머물게 하시니 양곡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공안국(孔安國)의 전(傳)에 "양(暘)은 밝음이니 해가 그 곡(谷)에서 나와 천하가 밝아지기 때문에 양곡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130) 구십춘광(九十春光) : 봄의 석 달 90일 동안을 말한다.

131) 누항(陋巷) : 공자의 제자 안회(顔回)의 안빈낙도(安貧樂道)를 뜻한다. 공자가 안회를 칭찬하기를,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로 누추한 거리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 내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아니하니, 어질구나 안회여.[一簞食一瓢飮, 在陋巷, 人不敢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라고 하였다. 《論語 雍也》

132) 우이(嵎夷) : 해가 떠오르는 곳이다. 《서경(書經)》 〈요전(堯典)〉에 "희중(羲仲)에게 따로 명하여 우이(嵎夷)에 살게 하였으니 그곳이 바로 양곡(暘谷)이다. 떠오르는 해를 공손히 맞이하여 봄 농사를 고르게 다스리도록 하였다.[分命羲仲, 宅嵎夷曰'暘谷', 寅賓出日, 平秩東作.]"라는 말이 나온다.

133) 궐리(闕里) : 중국 산동성(山東省) 곡부(曲阜)에 있는 마을로 공자의 고향이다.

134) 선천후천(先天後天) : 우주의 본체와 만물의 본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송나라 소강절(邵康節)이 주역(周易)의 괘도(卦圖)를 해설하고 선천도(先天圖)와 후천도(後天圖)를 구분하여, "복희씨(伏羲氏)의 팔괘(八卦)는 선천(先天)이요, 주문왕(周文王)의 팔괘는 후천(後天)이다."라고 하였다.

135) 삼십육궁(三十六宮) : 삼십육궁은 64괘(卦)와 같은 것으로서 64괘 모두가 하나의 봄기운의 연속이라는 뜻이다. 성호(星湖) 이익(李瀷)은 삼십육궁과 관련하여, "64괘 중에 변역(變易)하는 괘가 8이니, 건괘(乾卦)·곤괘(坤卦)·감괘(坎卦)·이괘(離卦)·이괘(頤卦)·대과괘(大過卦)·중부괘(中孚卦)·소과괘(小過卦)이고, 교역(交易)하는 괘가 56이니, 둔괘(屯卦)·몽괘(蒙卦) 이하가 그것이다. 변역은 8괘가 각각 한 궁이 되고, 교역은 2괘가 합하여 한 궁이 된다."라고 하였다. 《星湖僿說 권20 經史門 三十六宮》

난간 밖 복숭아·자두는 동군(東君)[136]의 고운 햇볕 자랑하고 창문 앞 매화·소나무는 건원(乾元)[137]의 화창한 기운 알리도다. 누정 위 하늘 아득한 곳에 솔개 높이 날고 누정 아래 연못 만경(萬頃)에 물고기 뛰도다.[138]

문 닫고 바라보면 마음[天君][139]이 태평하여 사단(四端)[140]이 온화하고 문 열고 살펴보면 맑은 봄날 경치 좋아 온갖 이치 함께 밝도다. 삼지일(三之日)·사지일(四之日)[141]에 봄옷 만들어지거든 목욕하고 바람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는 흥을 미루어,[142] 덕에 배부른 정신 깨끗하고 술병의 상쾌한 기운

---

136) 동군(東君) : 봄을 맡은 신 이름이다. 봄은 동방(東方)과 청색(靑色)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동제(東帝)·동황(東皇)·청황(靑皇)·청제(靑帝) 등으로 불렸다.

137) 건원(乾元) : 《주역》 〈건괘(乾卦) 단(彖)〉에 이르기를, "위대하도다! 건원이여. 만물이 이를 힘입어 비롯하나니, 이에 하늘을 총괄하였도다.[大哉!乾,元 萬物資始, 乃統天.]"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주희(朱熹)의 《본의(本義)》에 의하면, "건원은 하늘의 덕의 큰 처음이므로, 만물이 생겨남에 있어 모두가 그것을 힘입어 시작으로 삼는 것이다.[乾元天德之大始, 故萬物之生, 皆資之以爲始也.]"라고 하였다.

138) 누정 …… 뛰도다 : 연비어약(鳶飛魚躍)으로,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뛴다는 뜻으로, 만물이 각기 제자리를 얻어 이치가 환히 드러남을 형용한 말이다. 《중용장구》 제12장에 "《시경》에 이르기를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논다.' 하였으니, 상하에 이치가 밝게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詩云, 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현상은 다르지만, 그 이치는 같다는 뜻으로 쓰였다.

139) 천군(天君) : 사람의 마음을 의인화(擬人化)하여 일컫는 말이다. 《순자(荀子)》 〈천론(天論)〉에 "이목구비와 형체는 각각 접촉하는 것이 있어서 다른 것은 할 수 없으니, 대개 이를 천관이라 한다. 마음은 가운데 빈 곳에 있으면서 오관을 다스리니, 이를 천군이라 한다.[耳目鼻口形, 能各有接而不相能也, 夫是之謂天官, 心居中虛, 以治五官, 夫是之謂天君.]"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140) 사단(四端) :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仁)의 단서이고, 자신의 불선(不善)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불선을 미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단서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의 단서이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智)의 단서이다. 사람에게 이 네 가지 단서가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사지가 있는 것과 같다.[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라고 하였다.

141) 삼지일(三之日)·사지일(四之日) : 3월·4월을 가리키는 말로, 《시경》 〈빈풍(豳風) 칠월(七月)〉에 "삼월에는 나가서 쟁기를 수리하고, 사월에는 뒤축 들고 밭갈이한다.[三之日于耜, 四之日擧趾.]"에서 온 말이다.

142) 봄옷 …… 미루어 : 공자의 제자 증점(曾點)이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벗 대여섯 명과 아이들 예닐곱 명을 데리고 기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기우제 드리는 무우에서 바람을 쏘인 뒤에 노래하며 돌아오겠다.[暮春者, 春服旣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자신의 뜻을 밝히자, 공자가 그가 유연(悠然)하고 쇄락(灑落)한 기상이 있는 것에 대해 깊이 감탄하며 허여한 내용이 《논어》 선진(先進)에 나온다.

투철하도다. 이에 훈증(薰蒸)하고 이에 도야(陶冶)한 즉 하남(河南)[143]의 당상 좌중에 춘풍의 조화 이어가리라. 화려한 집과 금 구슬은 주옹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요, 인의 넓은 거처와 편안한 집[144]은 이것이 주인이 즐기는 것이로다. 그러한 즉 하형(夏亨)의 장(長)은 이 누정이 밑천이요, 추리(秋利)의 성(成)도 이 누정이 밑천이요, 동정(冬貞)의 수(遂)도 이 누정이 밑천이니 만물의 자시자생(資始資生)이 어찌 이것에서 벗어나겠는가?

누의 동쪽으로 치자면 인목(仁木)이 울창하여 동풍이 살랑살랑 천만 가지 꽃들 희디희고 붉디붉도다. 모두 봄철의 한 기운을 얻어 화평하고 아름다우니 윤택한 원시(元始)의 인택(仁澤) 같고, 크고 작고 높고 낮은 종류와 하늘을 날고 물에 잠기는 동물·식물이 제자리를 얻지 아니함이 없도다. 누의 서쪽으로 치자면 정로(正路)가 숫돌처럼 탄탄하여 하나의 티끌도 없으며 광풍이 쇄락하여 비 갠 뒤의 청명함이로다.[145] 누의 남쪽으로 치자면 드높이 우뚝 솟은 하나의 예문 위로 달 오르자 거문고 타니 청허함[虛白][146] 일도다. 이에 공자·맹자와 이에 안자·증자의 문물이 여기에 있고 예악(禮樂)이 여기에 있도다. 누의 북쪽으로 치자면 지수(智水)는 천 길을 주야로 쉬지 않고 혼혼(混混)히 흘러 웅덩이 채우고 목표에 도달하여 문채 이루니[147]

---

143) 하남(河南) : 하남 출신인 북송(北宋) 때 성리학자 정이(程頤, 1033~1107)로, 자는 정숙(正叔), 시호는 정공(正公)이다. 하남(河南) 낙양(洛陽) 사람으로, 이천백(伊川伯)에 봉해져서 이천 선생이라 불린다. 정호(程顥)의 아우이며, 주돈이(周敦頤)의 문인으로, 이기(理氣) 철학을 제창하여 유학을 부흥시켰다. 저서에 《역전(易傳)》·《춘추전(春秋傳)》·《이정유서(二程遺書)》 등이 있다.

144) 넓은 …… 편안한 집 : 광거안택(廣居安宅)으로 인(仁)을 뜻하는 말이다. 맹자(孟子)가 인을 '천하의 넓은 집[天下之廣居]'과 '사람의 편안한 집[人之安宅]'이라는 말로 표현한 데서 나온 것이다. 《孟子 滕文公下 公孫丑上》

145) 광풍이 …… 청명함이로다 : 광풍제월(光風霽月)로, 인품이 고결하고 마음이 탁 트인 사람을 비유한다.

146) 허백(虛白) : 《장자(莊子)》 〈인간세(人間世)〉의 "빈방 안에는 흰빛이 생기고 거기에는 좋은 징조가 깃든다.[虛室生白, 吉祥止止.]"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마음이 청허(淸虛)하여 욕심이 없으면 도심(道心)이 절로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147) 지수(智水)는 …… 이루니 : 이 내용은 《맹자》 〈이루 하(離婁下)〉의 "근원이 좋은 물이 계속 흘러서 밤낮을 그치지 아니하여 구덩이가 가득 찬 뒤에 나아가 사해(四海)에 이른다.[原泉混混, 不舍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라고 보이는데, 이는 사람의 학문이 끊임없이 진전하여 높은 경지에 이름을 비유한 것이다.

물고기가 파도를 희롱하고 백조는 깨끗하도다.[148] 그렇다면 이 누를 세움에 실로 군자 이후에 이를 즐길 수 있다 하리라.[149]

이에 주인옹이 소요(逍遙)하고 서성이며 인을 구해 인을 얻어 상제(上帝)를 마주하여 집구석에 부끄럼 없고[150] 일거일동에 부끄럼 없어 천지가 자리 잡고 만물이 생육됨에 이르도다. 이로 말미암아 원형이정(元亨利貞)[151]의 천도(天道)와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유행과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인도가 이에 빈빈(彬彬)하고, 삼강오상의 인륜과 이오(二五) 사팔(四八)의 문채가 이에 혁혁(爀爀)하도다. 아! 지극하도다. 모든 군자가 이어서 수리해가면 이 누는 영원하리로다. 주관하는 자 누구인가? 송나라 선비 장남헌(張南軒)[152]이요, 기록하는 자 누구인가? 해동(海東)의 사람이로다.

---

148) 백조는 깨끗하도다 : 백조학학(白鳥鶴鶴)을 이르는 말로, 《시경》 대아(大雅) 영대편(靈臺篇)에, "왕이 영유에 계시니 거기 있도다. 우록은 탁탁하거늘 백조는 학학하도다. 왕이 영소에 계시니 아! 그득하게 고기가 뛰논다.[王有靈囿, 麀鹿攸伏, 麀鹿濯濯, 白鳥鶴鶴, 王在靈沼, 於牣魚躍.]"라고 하였다.

149) 그렇다면 …… 하리라 : 맹자가 양 혜왕을 보았을 때에 왕이 못 가에 있다가, 기러기와 사슴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어진 사람도 이러한 것을 즐거워합니까?"라고 물었다. 맹자가 대답하기를, "어진 사람인 뒤에야 이러한 것을 즐거워할 수 있으니, 어질지 못한 사람은 비록 이를 갖고 있더라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孟子見梁惠王, 王立於沼上, 顧鴻鴈麋鹿曰: "賢者亦樂此乎?" 孟子對曰: "賢者而後, 樂此, 不賢者, 雖有此, 不樂也."]"라고 하였다. 《孟子 梁惠王上》

150) 집구석에 …… 없고 : 불괴옥루(不愧屋漏)는 방안 깊숙한 곳에 있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 밝아서 혼자 있을 때에도 사심이 일어나지 않음을 말한다. 《시경》 〈억(抑)〉에 "네가 방에 있음을 보건대 옥루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相在爾室, 尙不愧于屋漏.]"라고 하였다.

151) 원형이정(元亨利貞) : 《주역》 〈건괘(乾卦)〉에 "건은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乾, 元亨利貞.]"라고 하였다. 곧, 원형이정은 사물의 근본 원리라는 말인데, 원은 만물의 시(始)로 봄에 속하고 인(仁)이며, 형은 만물의 장(長)으로 하(夏)에 속하고 예(禮)이며, 이는 만물의 수(遂)로 추(秋)에 속하고 의(義)이며, 정은 만물의 성(成)으로 동(冬)에 속하고 지(智)가 된다.

152) 장남헌(張南軒) : 남송(南宋)의 성리학자 장식(張栻, 1133~1180)으로, 자는 경부(敬夫)·흠부(欽夫)·낙재(樂齋), 호는 남헌이다. 면죽(綿竹) 출신으로, 호굉(胡宏)에게 정자(程子)의 학문을 전수받았으며, 주희(朱熹)와 절친한 벗이기도 하다. 학자들이 그를 존경하여 남헌선생(南軒先生)이라 불렀으며, 주희·여조겸(呂祖謙)과 더불어 '동남(東南)의 삼현(三賢)'이라 불렸다. 저서에 《논어해(論語解)》, 《맹자설(孟子說)》, 《남헌역설(南軒易說)》, 《남헌집(南軒集)》 등이 있다.

이륜[153]재기
彝倫齋記

아!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의관(衣冠)을 입고 하늘과 땅이라는 둘 사이에 서서 천지와 함께 삼재(三才)로 칭해지는데 금수와 다른 것은 어떤 점인가? '삼강(三綱)[154]·오상(五常)'[155]이라고 말할 뿐이다. 삼강이란 천서(天叙)의 대경(大經)이요, 오상이란 천부(天賦)의 지리(至理)이다. 삼강과 오상이 이미 하늘에 근본하고 있는데 사람이 잘 행한다면 사람이 하늘·땅과 셋으로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그 체(體)는 하나가 될 것이다. 미미한 한 몸이 천지에 참여하여 셋이 되고, 합하여 하나 된다면 사람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지극히 큰 것이 아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형기(形氣)가 이미 완성되면 외물이 형기에 접촉하고 마음 가운데에 감화되니 칠정(七情)[156]이 생겨나고 사욕(私慾)이 타게[乘] 된다. 사욕이 이미 이기면 삼강·오상의 천(天)이 매몰되고 상실되어 금수에 빠지게 되어 천지와 등져서 둘이 되고 천지 사이에 한 마리 해충이 되면 사람이라는 이름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 심히 두려워할 만하다.

옛날 성인이 이것을 매우 두려워해서 이에 사람을 가르치는 법을 세웠으니

153) 이륜 :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이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정벌한 뒤 기자를 방문하여 이륜(彝倫)을 펴는 이치에 대해 물었는데, 이에 기자가 대답한 것이 홍범구주이다. 《書經 洪範》

154) 삼강(三綱) : 유교 윤리의 근본인 세 가지의 기본 강령을 말한다. 즉 임금은 신하의 벼리가 되고[君爲臣綱], 아비는 아들의 벼리가 되고[父爲子綱],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됨[夫爲婦綱]이다.

155) 오상(五常) : 보통은 오륜(五倫) 즉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을 가리킨다.

156) 칠정(七情) : 인간의 7가지 감정인 희(喜)·노(怒)·우(憂)·사(思)·비(悲)·공(恐)·경(驚)을 가리키기도 하고, 희(喜)·노(怒)·애(哀)·구(懼)·애(愛)·오(惡)·욕(欲)을 말하기도 한다.

상서학교(庠序學校)[157]가 설립되었고, 사서(四書)[158]·육경(六經)[159]의 서적이 만들어졌다. 대개 사서·육경이란 삼강·오상을 밝히는 책이고 상서학교란 삼강·오상을 행하던 곳이다. 이 때문에 옛사람은 국가의 학교뿐만 아니라 향촌(鄕村)·향사(巷社)에 모두 학사를 세워서 15세에 들어갔으니, 소학(小學)·대학(大學)의 절목(節目)이 차례가 상세하고 강목이 엄정하였다. 사람이 천지 사이에 태어나서 말을 할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하루도 익히고 배우지 않은 때가 없었으니 순박하고 선한 풍속이 어찌 일어나지 않았으며, 효제충신(孝悌忠信)이 어찌 독실하지 않았으며, 지치(至治)[160]의 큰 교화가 어찌 행해지지 않았겠는가? 이 삼대(三代)[161]의 세상에 사람이 모두 예로 사양하여 집마다 봉할 만하였는데[比屋可封][162] 후세에는 학교의 이름이 있어도 학교의 실이 없었고 향촌의 학교는 명(名)과 실(實)이 둘 다 없어진 것이 오래되었다. 천 리의 나라를 지나가도 거리에 글방이 있는 것을 아직

---

157) 상서학교(庠序學校) : 맹자(孟子)가 설명한 중국 고대의 교육기관으로, "상·서·학·교를 설치하여 백성들을 가르쳤으니, 상은 봉양한다는 뜻이고, 교는 가르친다는 뜻이며, 서는 활쏘기를 익힌다는 뜻이다. 하나라에서는 '교'라 하였고, 은나라에서는 '서'라 하였고, 주나라에서는 '상'이라 하였으며, 학은 삼대가 공통으로 두었으니, 이는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었다.[設爲庠序學校, 以敎之, 庠者, 養也, 校者, 敎也, 序者, 射也. 夏曰'校', 殷曰'序', 周曰'庠', 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라고 하였다.《孟子 滕文公上》

158) 사서(四書) : 사서는 《대학》·《논어》·《맹자》·《중용》을 가리키는데 《대학》과 《중용》에 각각 《장구(章句)》와 《혹문(或問)》이 있으며, 사서에 모두 주희의 《집주(集註)》가 있다.

159) 육경(六經) : 육경은 《시경》·《서경》·《주역》·《예경》·《춘추》·《악경(樂經)》을 가리키는데 《악경》은 없어졌고 그 이론만이 《예기》 〈악기(樂記)〉에 수록되어 있다.

160) 지치(至治) : 안정되어 번영하고 교화가 널리 행해지는 정치적 국면이다. 《서경》 〈군진(君陳)〉에 "지극한 다스림은 향내가 풍기는 것 같아서 신명을 감동시키니, 제수가 향기로운 것이 아니요, 밝은 덕이 오직 향기로운 것이다.[至治馨香, 感于神明, 黍稷非香, 明德惟香.]"라고 하였다.

161) 삼대(三代) : 중국 고대의 요순(堯舜) 시대와 하(夏)나라, 은(殷)나라, 주(周)나라 시대의 태평성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162) 비옥가봉(比屋可封) : 요순시대에는 교화가 사해에 두루 미쳐 집집마다 모두 봉(封)을 받을 만큼 덕행이 뛰어난 인물이 많았다는 뜻이다. 곧 천하가 잘 다스려져 백성의 풍속이 순후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서(漢書)》 〈왕망전(王莽傳)〉에 "요순시대에는 집집마다 다 봉하여도 되었다."라고 하였으며, 《신어(新語)》 〈무위(無爲)〉에 "요순의 백성이 집집마다 봉할 만하고 걸주의 백성이 집집마다 주벌할 만한 것은 교화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堯舜之民, 可比屋而封, 桀紂之民, 加比屋而誅者, 敎化使然也.]"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한둘 보지 못했으니 옛것을 배운 유식한 선비가 누가 옛것을 어루만지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겠는가?

우리 고을의 남쪽에 '덕곡(德谷)'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한두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가 향당에서 뜻이 있는 사람과 마을 어귀 오른쪽에 서재를 세웠다. 삭망(朔望)으로 동관(童冠)을 모아놓고 강학하였는데 책에 그 이름을 적어놓고 책머리에 나의 뜻 한마디를 청하였다. 내가 옛것을 회복하여 선을 행하는 것을 공경히 여겨 삼가 사람의 사람됨이 삼강·오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옛사람이 학문을 가르치는 것 또한 삼강·오상의 도(道)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책의 머리말로 하고, 그 서재를 이름 붙여 '이륜(彝倫)'이라고 하였다. 대략 그 뜻을 펼쳐서 고하기를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손하며 노인을 노인으로 여기고 어른을 어른으로 여기며[163] 말은 충신하고 행동은 독경하며 어버이를 친히 여기고 어진 이를 높이며 때때로 경을 익히고 예를 익히는 여가에 겸하여 정식(程式)의 문장[164]을 통하고, 유사(有司)의 일에 응하여 입신양명하여 그 부모를 드러내는 것 또한 효제의 도이다. 이 서재에 들어가는 자가 혹시 이것에 위반하여 더러운 분쟁이 있고 말이 겸손하고 공경하지 못하여 서재를 세운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긴다면 서재 이름의 뜻에서 죄를 얻어 깊게 사람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있게 될 것이니 힘쓰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모두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기록해서 경계의 법도로 삼는다.

---

163)노인을 …… 여기며 :《대학장구(大學章句)》 전10장에 "이른바 평천하가 치국에 달려 있다는 것은, 윗사람이 노인을 노인으로 봉양하면 백성들이 효행을 일으키고, 윗사람이 어른을 어른으로 대우하면 백성들이 공손한 마음을 일으키며, 윗사람이 고아를 돌보아 주면 백성들이 서로 저버리지 않나니, 이 때문에 군자는 혈구의 도가 있는 것이다.[所謂平天下在治其國者. 上老老而民興孝. 上長長而民興弟. 上恤孤而民不倍. 是以君子有絜矩之道也.]"라는 말이 나온다.

164) 정식(程式)의 문장 : 일정한 격식을 갖춘 글로, 여기에서는 과거 시험에 적합한 형식의 글을 의미한다.

열락재기

悅樂齋記

열락재(悅樂齋)가 이미 완성되어 '열락(悅樂)'이라고 편액하고 서재의 학생들이 서재 아래에 서서 나에게 묻기를 "청컨대 '열락(悅樂)'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응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노론(魯論)》 수장(首章)의 경(經)[165]을 익히지 않았는가? 옛사람의 학문은 효제(孝悌)일 뿐이다. 효제에 마음을 두면 효제를 배우지 않을 수 없고 효제를 배우면 효제를 익히지 않을 수 없으니 앉음에 시동처럼 함은 앉아 있을 때의 익힘이요, 섬에 재계하는 것처럼 함은 서 있을 때의 익힘이다.[166] 안에서는 심지(心志)요, 밖에서는 언동(言動)이니 가운데를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나니 수면앙배(粹面盎背)[167]라는 것은 효제 아닌 것이 없으니 그 마음의 화열(和悅)이 어떠하겠는가? 이 때문에 이 마음이 한 가정에서 행해지면 부모에게 유순하고 형제 사이에 화목하며, 나라에서 행해지면 군주와 신하가 바르게 되고 친구가 따르게 되니 그 기(氣)의 화락(和樂)이 어찌 그침이 있겠는가? 이것이 군자의 열락(悅樂)이다. 한나라 이후로는 과거제도로 사람을 취하니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것이 문장일 뿐이다. 육경을 표절하고 권모술수를

---

165) 《노론(魯論)》 수장(首章)의 경(經) : 《논어》 〈학이편(學而篇)〉의 첫째 장에 "공자가 말하기를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데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라는 구절을 말한다.

166) 앉음에 …… 익힘이다 : 주희는 《논어집주(論語集註)》에서 "이미 배우고 또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면[時時習之]' 배운 것이 익숙해져서 중심에 희열을 느껴 그 진전이 자연히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시습'을 '시시습지' 즉 '때때로 그것을 익힘'으로 해석하였는데, 또 하나의 설로 '시습'을 '무시불습' 즉 '항상 익힘'으로 해석한 사양좌의 설을 채록해 넣었다. 사양좌는 "시습이란 때마다 익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앉음에 시동처럼 함은 앉아 있을 때의 익힘이요, 섬에 재계하는 것처럼 함은 서 있을 때의 익힘이다.[時習者, 無時而不習, 坐如尸, 坐時習也, 立如齊, 立時習也.]"라고 하였다.

167) 수면앙배(粹面盎背) : '맑게 얼굴에 드러나며 등에 가득하다.'는 뜻으로 《맹자(孟子)》 〈진심상(盡心上)〉에 "군자의 본성은 인의예지가 마음속에 뿌리내려, 그 드러나는 빛이 얼굴에 윤택하게 나타나고 등에 가득하게 나타난다.[君子所性, 仁義禮智根於心, 其生色也, 睟然見於面盎於背.]"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출입하여 문장으로 드러내어 남의 이목을 현혹시키면 그 마음이 기쁜 것이다. 예원(藝園)에서 한묵을 구사하여 세상에 이름을 올리고 생을 즐기고 죽음을 잊고 분쟁을 좇으면 그 기운이 즐거운 것이니 이것은 소인의 열락(悅樂)이다. 이 두 가지 것에서 그대들은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하였다.

별안간 줄에서 비웃는 이가 있어 말하기를 "이런 것이 있구나! 그대 말의 우활함이여. 삼대(三代)는 이미 옛일이고 옛 도는 되돌리기 어려우니 지금의 세상을 살면서 옛날의 도를 되돌리고자 한다면 황하의 물을 되돌려 곤륜(崑崙)의 제방에 주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응답하여 말하기를 "아! 그대는 홀로 하늘에서 진성(眞性)을 품부 받지 않았는가? 그대와 나는 위로는 요순(堯舜)에 이르고, 원래 처음 태어날 때 하늘에서 함께 얻었으니 우리 무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회복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비록 그렇지만 한미한 시골에서 늦게 나와 품부 받은 바탕이 비루하고 용렬하며 습속(習俗)이 누적되어 견문이 구차하면서 과거 시험을 겸하고자 한다면 이른바 '하늘에 근본 한다.'라는 것이 날짐승·들짐승의 탐욕에 흐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이 《노론(魯論)》이 편 머리에 학습(學習) 두 글자를 들고 있는 까닭이다. 그렇지만 세도(世道)의 변화 또한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부모의 바람은 과거 시험에 있고 군신이 만날 즈음이 과거 시험에서이니 과거에 응시하는 것 또한 폐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제생에게 바라는 것은 학습이 비록 과거 시험 공부에 있더라도 심지(心志)가 득실에 빠지지 않고, 문사가 비록 법식을 숭상하더라도 열락(悅樂)은 오로지 효제에 있으니 고금(古今)을 참고하여야 거의 그 바름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원을 미루어 본원에 돌아가 요순의 하늘을 회복하는 것 또한 바랄 만하다. 이것이 내가 서재를 이름 붙인 지극한 뜻이다."라고 하였다. 제생이 모두 절하고 말하기를 "공경히 가르침을 취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벽에 그 말들을 써서 나를 반성하고 제생을 경계하고자 한다.

갑진년(1664, 현종5) 하지에 구고산옹(九皐散翁)이 쓰다.

옥성재기

玉成齋記

을사년(1665, 현종6) 가을에 열락재(悅樂齋)가 훼손되어 김생 진화(金生振華)·윤생 유(尹生瑜)가 연화평(蓮花坪)의 남쪽 기슭에 서재를 중수하여 지어놓고 이름을 청하였다. 편액을 ‘옥성(玉成)’이라 하였으니 대개 정완(訂頑)[168]의 용옥여성(庸玉汝成)[169]의 뜻을 취한 것이다. 대략 그 뜻을 부연 설명하자면 “찬 서리가 내리면 훌륭한 재목도 떨어지지 않음이 없고, 완석(頑石)으로 다스리면 형박(荊璞)[170]이 그 빛을 이룬다. 풍상(風霜)이 숙살(肅殺)하고 거친 돌이 치고 때리면 누군들 하늘을 찌르는 줄기와 햇빛 아래 빛나는 보배를 향해 그 최락(摧落)하고 소력(消礫)하는 참상을 애석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급기야 연약한 것이 강실(剛實)해지고 울퉁불퉁한 것이 매끄럽게 되어서 들보를 걸쳐놓고 채단을 올려놓으면[171] 누가 규모가 크고 화려한 집[輪奐][172]의 완성을 흠모하고 감상하지 않겠는가? 그런 즉 예전의

---

168) 정완(訂頑) : 송(宋)나라 장재(張載, 1020~1077)가 서재의 동서 양쪽 창문 위에 〈폄우(砭愚)〉와 〈정완(訂頑)〉 두 개의 명(銘)을 걸어 놓고서 제생(諸生)을 경계시켰는데, 뒤에 논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정자(程子)의 말에 따라 〈폄우〉를 〈동명(東銘)〉으로, 〈정완〉을 〈서명(西銘)〉으로 개칭하였다. 이 〈서명〉은 인의(仁義)에 입각한 유가(儒家)의 윤리설(倫理說)을 요약해서 서술한 것인데, 주희(朱熹)가 별도로 주(注)를 달아 해설하면서부터 널리 알려졌다. 《伊洛淵源錄》

169) 용옥여성(庸玉汝成) : 하늘이 시련을 주어 훌륭한 인격을 완성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 “부귀와 복택은 나의 삶을 두텁게 해 주고, 빈천과 우척은 너를 도와 성취시켜 주는 것이다.[富貴福澤, 將厚吾之生也, 貧賤憂戚, 庸玉汝於成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古文眞寶後集 卷10》

170) 형박(荊璞) : 형산(荊山)의 박옥(璞玉)으로 내면에 남다른 재주와 포부를 지니고 있지만 한미한 출신에 가려져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무명자를 빗댄 사물이다. 춘추 시대 초나라 사람인 변화(卞和)가 형산(荊山)에서 박옥을 얻어 여왕(厲王)과 무왕(武王)에게 바쳤으나 옥을 감정하는 사람이 보고 돌이라 하여 두 발이 잘리고 말았다. 그 후 문왕(文王)이 즉위하자 화씨는 형산 아래서 박옥을 안고 사흘 밤낮을 울었다. 문왕이 사람을 보내 “천하에 발이 잘린 사람이 많은데 그대만이 유독 이렇게 우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고 묻자, “저는 발이 잘린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보배로운 옥을 돌이라 하고 곧은 선비를 미치광이라 하니 이 때문에 제가 슬피 우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옥공(玉工)을 시켜 박옥을 다듬게 하니 직경이 한 자나 되고 티 한 점 없는 큰 옥이 나왔다고 한다. 이 옥을 화씨벽(和氏璧)이라 한다. 《韓非子 和氏》

171) 들보를 …… 올려놓으면 : 열락재(悅樂齋)를 중수하여 상량식을 거행함을 말한다.

172) 윤환(輪奐) : 건물이 웅장하고 많음을 형용하는 말로, 건물이 낙성된 것을 축하할 때 쓰는

숙살(肅殺)하는 것과 격박(擊拍)하는 것은 진실로 나의 질병을 고치는 약석(藥石)[173]이 아니겠는가? 장자(張子)[174]가 말하기를 '가난하고 천함, 근심과 걱정은 너를 옥처럼 갈고 닦아서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貧賤憂戚, 庸玉汝於成也.]'라고 하니 가난하고 천함, 근심과 걱정은 사람들에게 심한 고통이 아닌 것이 없지만 끝내 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어째서인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루는 자는 상지(上智)요, 중인(中人) 이하는 반드시 격(激)한 것이 있고 난 뒤에 뜻이 독실해지고 실천에 힘이 들어간다. 오직 너 유(瑜)와 화(華)는 굽어보아 고인의 책을 읽고 우러러 이 서재를 중수한 까닭을 하루에 세 번 생각한다면 글 읽는 소리가 비록 입술에서 끊어지고자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진실로 규모가 크고 화려한 집의 완성이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그런 후에 서리와 돌이 원망할 대상이 아니고 나의 뜻을 마칠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이다. 학문하는 방법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도는 이미 열락재(悅樂齋)에 갖추어져 있으니 화(華)와 유(瑜)는 힘쓸지어다!" 라고 하였다.

상투적인 표현이다. 진(晉)나라 헌문자(獻文子)가 저택을 신축하여 준공하자 진나라 대부들이 가서 축하하였는데, 그 중에 장로(張老)가 말하기를 "규모가 크고 화려하여 아름답도다! 이 집에서 살며 기쁜 일로 노래도 하고, 이 집에서 살다가 죽어 곡도 하게 되고, 이 집에서 국족들을 모아 번창함을 누리게 되시라.[美哉輪焉! 美哉奐焉! 歌於斯, 哭於斯, 聚國族於斯.]"라고 하였다. 《禮記 檀弓下》

173) 약석(藥石) : 고대 병을 치료하는 약물과 돌침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174) 장자(張子) : 북송의 문신이자 사상가인 장재(張載, 1020~1077)로, 자는 자후(子厚), 호는 횡거(橫渠), 시호는 명공(明公)이다.

도민정사기

道民精舍記

도민(道民)[175]은 옛 현이다. 혹자는 "옛날에 도가 있는 백성이 살던 곳'이라고 해서 '도민'이라고 했다."라고 한다. 세상에 전하기를 고려 재상[麗相] 문 시중(文侍中)이 살던 곳이라고도 한다. 서석산(瑞石山)의 한 지파가 남쪽으로 2,3백 리를 흘러 덕룡산(德龍山)이 되고, 거슬러 꺾어 동쪽으로 굽이져 서석산을 돌아보며 60여 리를 뒤로 물러나 서석산을 등지고 덕룡산을 마주하며, 음지를 뒤로하고 양지를 끼고서 한 구역 작은 땅을 이루어 언덕이 서리어 사방으로 둘러 방처럼 아늑하다. 전면의 산들이 마치 하늘을 열고 땅을 세운 것처럼 월출(月出)·일봉(日封)·용치(龍峙)·봉악(鳳嶽)·붕명(鵬溟)·구곡(龜谷)의 기괴하고 수려한 것들이 혹은 몸을 부딪고 머리를 늘이며, 혹은 몸을 숨기고 쪽 머리를 드러내며, 혹은 춤추는 소매를 맞잡고 향하며, 혹은 눈썹을 치키고 얼굴을 활짝 펴며, 순종하는 모양 아리따운 자태, 활달한 모양 굳센 기상(氣像)으로 조석에 서기(瑞氣)를 드러내지 않음이 없다.

골짜기에 네 개의 샘이 있는데 다 위로 솟고 개울과 합세하여 억산(億山)과 조지(鳥枝)의 양 언덕 사이로 흘러 삼태(三台) 부택(桴澤)의 물과 함께 연화정(蓮花亭) 아래로 흘러든다. 용탄(龍灘)을 경유하여 삼태 부택에 이르러 산을 감추고 물을 숨겨 밖에서 보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으니, 그 아름다운 기운과 청유(淸幽)한 뜻은 홑옷 속에 비단 무늬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과 같아서[176] 진실로 이른바, '도가 있는 백성이 거처한다.'는 것이다. 야인의 관과 농부의 복장으로 세상과 어그러져[打乖][177] 섞여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

175) 도민(道民) : 김만영이 과거에 우거하던 고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전라도(全羅道)·남평현(南平縣)〉에, "도민부곡(道民部曲)은 현에서 서남쪽으로 16여 리 떨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다.

176) 홑옷 …… 같아서 : 비단옷 위에 다시 홑옷을 덧입어서 화려함을 감춘다는 뜻으로, 남에게 과시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시경》 〈위풍(衛風) 석인(碩人)〉에 "석인(碩人)이 키가 훤칠하니 비단옷을 입고 홑옷을 덧입었도다.[碩人其頎, 衣錦褧衣.]"라는 구절이 보인다.

177) 타괴(打乖) : 세상과 어그러진다는 뜻이다. 송나라 소옹(邵雍)이 〈안락와중호타괴음(安樂窩中好打乖吟)〉이란 시를 지어 자신이 세상과 어긋나는 삶을 살면서 유유자적한다는 뜻을 말하였다.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 마음과 몸을 안으로부터 밖으로 드러내어 안목 있는 이에게 공경을 일으켜 우러르도록 하는 것과는 다르다. 내가 조금도 응도(凝道)[178]의 자질이 없는데, 함부로 구도(求道)에 뜻을 두어 중년인 오늘까지도 전혀 알려진 것이 없어 늘 개연(慨然)히 탄식하였다. 이 지역에서 이런 이름을 얻은 특이함에 기뻐하여 마침내 터를 잡아 작은 집을 짓고, 현판을 걸어 '도민정사(道民精舍)'라고 하였다.

병신년(1656, 효종7) 8월 일 주인옹(主人翁)이 기록한다.

시습재기

時習齋記

지극히 고요한 것[至靜]을 일러 '성(性)'이라 하고 동(動)이 있는 것을 일러 '기(氣)'라고 하며 정(靜)으로부터 움직이는 것을 일러 '정(情)'이라고 하고, 통괄하여 그것을 주관하는 것을 일러 '심(心)'이라고 한다. 이 마음은 은미하여 비록 마음에 거처하나 그 넓은 쓰임은 천지[六合][179]를 가득 채우고도 궁핍하지 않고 육합의 넓은 것을 마음 안에 거두어들여도 사물을 각각 사물에 맡겨두어[180] 만 가지 선이 갖추어지기에 족하니 배우지 않아도

---

178) 응도(凝道) : 《중용장구》 제27장에 "그러므로 지극한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지극한 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故苟不至德, 至道不凝焉.]"라고 보이는데, 주자는 《집주(集註)》에서 "응은 모임이며 이룸이다.[凝, 聚也, 成也.]"라고 주하였다.

179) 육합(六合) : 상하(上下)와 사방(四方)으로 천지(天地)를 의미한다.

180) 사물을 …… 맡겨두어 : 물각부물(物各付物)의 의미로, 사물을 제각각의 사물에 맡겨둔다는 뜻이다. 《근사록(近思錄)》 권4 〈존양(存養)〉에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당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만 다른 일에 구애된 나머지 사물을 제각각의 사물에 맡겨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물을 제각각의 사물에 맡겨두면 이는 내가 사물을 부리는 것이지만, 사물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면 이는 사물에 의해 부림을 받는 것이다.[人不止於事, 只是攬他事, 不能使物各付物, 物各付物, 則是役物, 爲物所役, 則是役於物.]"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주(註)에 "사물을 제각각의 사물에 맡겨둔다고 하는 것은, 사물이 오면 반응을 하되 과도하게 하지 않고, 사물이 가면 변화하되, 그 흔적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사물을 부리게 되고 사물에 의해 부림을 당하지 않게 된다.[所謂物各付物者, 物來而應, 不過其則, 物往而化, 不滯其迹, 是則役物而不爲物所役.]"라고 하였다. 자기의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어떤 일이든 객관적으로 살펴서 그 일에 알맞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능하겠는가? 육합의 광대함과 만 가지 선의 많은 것을 마음의 작은 것에 운반하여 나르면서도 가려서 지킬 수 있고, 지켜서 행할 수 있으니 익히지 않고 능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치지(致知)와 역행(力行)은 학문의 처음과 끝이 되기 때문에 궐리(闕里)[181]의 무리가 《논어》 20편의 수장에서 으뜸으로 삼은 것이다.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에 비록 때때로 익히는 공부를 수용하지 않았더라도 움직임이 있고 난 뒤에 만약 일식(一息)의 익힘이 없으면 곧 배움이 아니다. 치지(致知)는 지식을 익히고자 한 것이고 역행(力行)은 실행을 익히고자 한 것이다. 만약 "나의 지식이 이미 지극하고 나의 실행이 이미 힘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여 더는 때때로 익힘의 노력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아는 것이 협소해지고 실행이 질퍽질퍽해질 것이다. 이미 협소하고 또 질퍽질퍽해지면 이른바 행동이 아는 것에 구애되어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또한 전일의 청명(淸明)함을 보존할 수 없어서 통괄하여 주관하는 것이 병주고향(幷州故鄕)[182]에 귀착되는 것은 드물 것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이로다!

우리 고을에 신여진(愼汝眞) 군이 있어 그 서재를 '시습(時習)'이라 편액하고 나에게 글을 써주기를 깊이 간청하였다. 내가 지행(知行) 두 글자를 들어 곡진하게 고했다. 나 또한 십 년 전의 사냥을 좋아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는데[183] 이것으로 경계를 삼는다.

임진년(1652, 효종3) 2월 10일 쓰다.

---

181) 궐리(闕里) : 산동성(山東省) 곡부현(曲阜縣)에 있는 공자의 옛 마을로, 공자가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182) 병주고향(幷州故鄕) : 정든 타향을 고향에 비유하는 말로 당나라의 가도(賈島)가 병주(幷州)에 오래 살다가 떠나면서 지은 〈상건을 건너며[度桑乾]〉에서 "돌아서 병주를 바라보니 이게 고향인가 하노라.[却望幷州, 是故鄕.]"라는 구절에서 나온 것이다. 오랫동안 생활하여 정든 타향을 뜻한다. 여기서는 자신이 해 오던 학문 방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83) 사냥을 …… 못했는데 : 정호(程顥)가 16, 7세 때에 사냥을 좋아하다가 그만두고 "저는 이미 사냥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라고 하자, 그의 스승 주돈이(周敦頤)가 "말을 어찌 그리 쉽게 하는가. 지금은 그 마음이 숨어 있어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이네. 어느 날 싹이 터 움직이면 다시 전과 같을 것이네."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12년 뒤 석양 무렵 집으로 돌아오던 중, 들판에서 사냥하는 광경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즐거운 마음이 들자 비로소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줄을 알았다고 한다.《二程全書 권8》

옥수기유기

玉峀奇遊記

면성(綿城)[184]의 동쪽, 금강(錦江)의 북쪽에 하나의 기이한 봉우리가 사호(沙湖) 가에 우뚝 서 있어 이름을 '옥수(玉峀)'라고 하는데, 연파처사(烟波處士)[185]가 바위틈에 하나의 작은 집을 짓고 읊은 동악백운(東岳白雲)의 시구[186]가 온 세상에 빛나 산이 외롭지 않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반평생을 병마[二竪兒][187]에 시달려 아직껏 절정에 올라 고상한 자취를 살피지 못하였다. 경술년(1670, 현종11) 4월 하순에 조각배 하나를 얻기를 도모하여 물길 따라 띄워, 생각했던 대로 그 밑으로 갔다.

미처 수백 궁(弓) 거리에 못 미쳐 중류에서 바라보니, 단지 첩옥(疊玉) 누경(累瓊)만이 보이는데 빼어난 세상 밖에 창송(蒼松) 취초(翠草)가 분벽(粉壁) 사이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바위 모서리에 배를 대고 언덕을 따라 올라가 구불구불 동쪽으로 돌아가다가 석대 위에서 쉬고 거듭 서쪽으로 꺾어 들자 오솔길이 있었다. 돌 비탈 6, 7보를 기어오르면서 오른편으로 백장(百丈) 층벽을 붙들고 왼편으로 천길 깊은 못을 굽어보니, 겨우 하나의 지팡이와 신발을 허용할 정도였다. 몇 걸음을 가다가 옥수암(玉峀庵) 옛터를 만났는데 면적(延袤)[188]은 2장(二丈) 남짓으로 푸른 이끼와 잔디가 오래된 섬돌을

---

184) 면성(綿城) : 전라남도 무안(務安)의 별칭이다.

185) 연파처사(烟波處士) : 박개(朴漑, 1511~1586)의 호이다.

186) 동악백운(東岳白雲)의 시구 : 동악백운의 시는 "작은 집 높이 매달려 자미성과 가까우니 달 옆의 스님 그림자 강 건너 날아왔네 서호의 거사 찾아와 묵으니 동악의 흰 구름 풀옷을 적시네[小屋高懸近紫微, 月邊僧影渡江飛, 西湖處士來相宿, 東岳白雲沾草衣.]"라는 7언 절구시인데 김만영은 이 원운을 박개(朴漑)의 시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후백(李後白, 1520~1578)의 문집 《청련집(靑蓮集)》에 〈무제(無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김만영의 《남포집》 〈부원운(附原韻)〉 참조.

187) 이수아(二竪兒) : 병마(病魔)의 별칭이다. 《춘추좌씨전》 성공(成公) 10년 조에 "진(晉)나라 경공(景公)이 병이 심하여 진(秦)나라의 명의(名醫)를 청하였는데, 그가 오기 전에 경공의 꿈에 두 수자(竪子)가 서로 말하기를 '내일 명의가 오면 우리를 처치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고(膏)의 밑과 황(肓)의 위로 들어가면 명의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이튿날 명의가 와서 진찰하더니 '병이 고황의 사이에 들어갔으니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라고 하였다.

188) 연무(延袤) : 연(延)은 가로로서 동서(東西)의 길이, 무(袤)는 세로로서 남북(南北)의 길이를

뒤덮고, 돌 사이에 오직 안석류(安石榴)[189] 한 떨기가 있었는데, 처사가 손수 심은 것이었다. 그 서편 돌길에 아직도 남은 자취가 있어 풀과 가시가 자라지 않았다. 또 그 서편으로 작은 대(臺)가 있고, 작은 대에서 다시 동쪽으로 돌아 북쪽 가까이 올라가니 한걸음에 한 석대(石臺)가 층층 첩첩 쌓여 있어 번민과 피로를 잊었고, 높은 정상에 오르자 활연히 통창(通暢)하여 신선이 된 것처럼 상쾌하였다. 석대 위에 의자 같은 돌이 있고, 의자 위에 창송(蒼松)이 일산 같았다. 의자에 걸터앉아 사방으로 하늘 자락을 바라보니 이 몸이 티끌 세상의 인간이란 걸 깜빡하였다.

인하여 연파 노선(烟波老仙)이 대나무 가마와 복건(幅巾)으로 사물을 보고 흥을 일으켜 붓을 뽑아 붉은 점을 찍어 월변승영(月邊僧影)의 시[190]에 휘둘러 뿌리던 기상과 풍채를 상상하니, 눈앞의 일처럼 선하였다. 우러르고 굽어보는 사이에 감개가 이어졌으니, 모르겠지만 세월이 얼마나 지나야 우리 인간의 자취가 다 민멸(泯滅)하고, 또 어떤 사람이 오늘의 일처럼 세상 밖에 뜻을 두고 나중에 나의 자취를 살펴볼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석공(石工)을 시켜 연파(烟波)의 한 절구(絶句)를 석벽 위에 새기고, 그 뒤에 누추한 나의 이름을 새겨 호산(湖山)의 질탕한 회포를 붙이고 싶었으나 산랑(散浪)의 사람이라 힘이 모자라 뜻을 이루지 못하니 서글펐다. 이에 추연(愀然)하여 즐기지 못하고 발길 따라 아래로 내려오다가 산자락에 이르러 층벽(層壁)을 돌아보니, 한 늙은 중이 있었는데 어디서 온 자인지 알 수 없었으나 등 넝쿨을 헤치며 언덕을 짚고 올라 위태로운 바위꼭대기에 앉아 있기에 내가 기이하게 여겨 부르며 오게 하였으나, 행적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 또한 배에 올라 읊조리며 돌아가다가 해산(海山)을 돌아보니 좋은 꿈에서 깬 것만 같았다.

뜻한다. 여기에서는 면적을 뜻한다.

189) 안석류(安石榴) : 한(漢) 나라 장건(張騫)이 서역(西域)에 사신으로 갔다가 안석국(安石國)에서 가지고 왔다는 석류나무이다.

190) 월변승영(月邊僧影)의 시 : 《남포집》 〈부원운(附原韻)〉에 나와 있는 박개(朴漑)가 지었다는 시 구절을 말한다.

종국기
種菊記

유거(幽居)를 일삼는 것은 아니지만, 외물의 잡념에 부림을 받는 것을 면치 못하여, 당 아래에 흙으로 모두 3등급의 계단을 만들었다.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또 사이에 잡초가 자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상급의 상단에는 황국(黃菊) 몇 뿌리를 심고, 오른쪽과 남쪽 끝에는 백국(白菊)을 한 줄로 심고는 좌측은 비워놓고 걸으면서 감상에 편리하도록 했다. 중간 계단 남쪽 끝과 하급 계단 서남쪽에는 한 줄로 홍국(紅菊)을 심고 왼쪽을 모두 비워두었다. 상단 좌우에는 서로 마주 보게 매죽(梅竹)을 각각 한 그루씩 심고, 중간 계단도 똑같이 심어서 모두 황국(黃菊)을 향하게 하여 손을 당겨서 읍하고 공경히 복종하는 것 같은 형상이 있게 하였다. 또 향란(香蘭) 한 뿌리를 심어 채웠다.

대개 누런 것[黃]은 중정(正中)하고 온윤(溫潤)한 아름다움이 있기에 상단 남쪽의 아래에 있게 하였다. 흰 것[白]은 순수하고 청결한 지조가 있기에 그 다음 계단에 심었고, 붉은 것은 비록 정순(貞純)의 자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풍부(豐富)의 자태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단에 올릴 수 없어서 중간층에 거처하게 하였다. 각 줄에는 모두 사이사이에 흰 것 한두 그루를 심어서 그 향기로운 꽃의 깨끗한 기(氣)를 모두 북쪽에서 사람들이 완상하도록 하였다. 물(物)에 등급을 두어서 상하(上下) 중절(中節)의 분수를 잃지 않도록 하였다. 이것은 비록 한가한 사람이 즐기는 외물의 유희이지만 그러나 우연이 아닌 뜻이 있는 것 같으므로 그대로 기록해서 뜻을 드러내고자 한다.

기축년(1649, 인조27) 5월 10일 쓰다.

분매기
盆梅記

매화는 초목 중에 하나의 식물일 뿐이다. 봄에 자라나 가을에 낙엽이 지니 천시(天時)를 따라서 자라고 죽는 일반적인 초목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옛사람은 그 향기롭고 정결하고 일찍 피고 곧음을 아껴서 당실(堂室) 사이에 심어서 정원의 실제로 삼았다. 오래되어 등걸이 되고, 기이하고 오래되고, 뿌리는 말리고 가지는 파리한 것과 기괴한 것 또한 전지를 가하여 화분에 심어져 당(堂)에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 집에 또한 고장(古莊) 한 뿌리가 있었다. 내가 일찍이 그 이치를 미루어 장점을 말하기를 "사물이 처음 생겨남에 만 가지 품목이 모두 땅에서 자라나니 귀천(貴賤)·청탁(淸濁)의 이치는 본래 다르지 않다. 다만 매화의 성품은 정결로 사람에게 취함을 받으니 숲 덤불의 가운데를 사양하고 특별하게 뜰 정원에 서 있다. 뿌리를 견고하게 심어서 줄기가 멀리 뻗어 화실(花實)이 잡스럽지 않으니 비유하면 둘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혈기(血氣)가 체를 갖춘 것은, 그 종류가 한둘이 아니지만, 오직 우리 인간이 둘 사이에서 인의를 귀하게 여기니 어버이를 친히 하고 남을 사랑하고 은혜가 있고 의리가 있는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식물의 무리 중에서 더러운 곳에 거처하는 것은 분양(糞壤)에 뿌리를 내리고 형극(荊棘)에 가까이 살면서 그 줄기가 지나치게 무성하면서도 성기지 않고, 그 잎이 무성하여도 깨끗하지 않으며 그 혹 비·바람·서리·눈이 때에 맞지 않고, 꽃과 열매 또한 그 절기를 잃으며 도끼든 나무꾼과 양·돼지가 혹 침범하여 생기 또한 시들게 된다. 오직 분재(盆栽)만이 뿌리가 번다하지 않고도 가지가 더욱 성기며 토양이 오염되지 않고도 입이 더욱 청초하며 서리·눈이 내리지 않고도 꽃이 일찍 피며 양·돼지가 이르지 않고 그 생을 이룬다. 봄에 자라도 무성해지지 않고 가을에 서리가 시들게 하여도 시듦을 알지 못하고 정정(亭亭)하니 우뚝 서서 사람이 친애(親愛)하지 않음이 없으니 비유하자면 뭇사람 가운데에 지인(至人)[191]이 있는 것과 같다.

---

191) 지인(至人) : 일반적으로 덕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그 생을 양성하고 그 욕심을 절제하여 번화(繁華)하고, 부귀(富貴)로 그 몸에 더하지 않고도 세상에 남아 독립하여 천고(千古)를 표출(表出)하고 물(物)이 진번(塵煩)을 끼쳐도 모두 나를 더럽히지는 못하는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그 열매는 혹 대갱(大羹)[192]에 간으로 쓰이는데 다섯 가지 맛이 잘 섞어지니 이윤(伊尹)[193]·태공(太公)[194]이 이에 해당한다. 물(物)이 비록 미약하지만, 그 이치는 원대한 것에서 미루어 볼 수 있으니 물이 이것에 더없이 가까운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내가 지극히 아껴 그 말들을 기록한다.

---

192) 대갱(大羹) : 양념을 하지 않고 맹물로 끓인 고깃국을 말한다.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대갱에 간을 하지 않는 것은 남은 맛을 두기 위한 것이다.[大羹不和, 有遺味者矣.]"라고 하였다.

193) 이윤(伊尹) : 은(殷)나라 탕왕(湯王)의 어진 재상이다. 신야(莘野)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중에 탕왕이 세 번이나 폐백을 보내어 출사하기를 간곡하게 청하자, 마침내 탕왕을 도와 하(夏)나라 걸왕(桀王)을 멸망시키고 은나라를 천자국으로 만들었다.

194) 태공(太公) : 중국 주(周)나라 초기의 정치가로 본명은 강상(姜尙)이다. 여(呂) 나라에 봉해져 '여상(呂尙)'이라고도 하고 '태공망(太公望)'이라고 한다. 백이, 숙제와 달리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켜 천하를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다.

발
跋

삼학재권후발
三學齋劵後跋

해[歲舍][195]기해년(1659, 현종 즉위년)의 늦가을에 영평(永平)의 삼학재(三學齋)가 완성되었다. 완성된 날에 서재의 제군들이 재생(齋生)의 명적(名籍)을 취하여 나에게 글을 부탁하며 말하기를 "선생님은 이미 책 머리말을 쓰셨으니 어찌 또 한마디 말로 발문(跋文)을 쓰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들의 뜻을 마치자 내가 의리상 구차한 변명으로 면하기 어려워 바로 삼학재의 설을 추연(推衍)하여 제생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를 "학(學)은 하나일 뿐인데 그것을 삼(三)이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내가 일찍이 듣건대 하남(河南) 정숙자(程叔子)[196]께서 말하기를 '옛날의 학은 하나인데 지금의 학은 셋이니 첫째는 훈고학(訓詁學)이고, 둘째는 문장학(文章學)이며, 셋째는 유자학(儒者學)이다. 도(道)에 빨리 도달하려고 유학을 버리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하였으니 아! 유학이 세상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이 오래되었다. 저 유방(劉邦)의 한나라가 과거로 선발하여 사람을 취하면서부터 이(李)씨의 당(唐)나라와 조(趙)씨의 송(宋)나라에 미쳐서는 학문이 날로 이목(耳目)에 달려가서 삼분의 학문이 시작되었다. 대저 자구(字句)나 해석하고 명분·의리나 탐구하고 오로지 기문(記聞)의 업(業)을 숭상한 것이 훈고(訓詁)의 학이니 지금에 '강경과(講經科)'[197]를 말한다. 시구를 장식하고 장구

---

195) 세사(歲舍) : 세재(歲在), 세차(歲次)와 같은 말이다.

196) 정숙자(程叔子) : 북송(北宋)의 학자 정이(程頤, 1033~1107)로, 자는 정숙(正叔)이고 이천(伊川) 선생으로 불린다. 형 정호(程顥)와 함께 이른 나이에 주돈이(周敦頤, 1017~1073)에게 수업하여 북송 이학(理學)의 터전을 다졌고, 오랜 기간 낙양(洛陽)에서 강학하였기 때문에 '낙학(洛學)'이라 불렸다. 후인들이 그들의 논설과 저작을 정리하여 《유서(遺書)》·《문집(文集)》·《경설(經說)》 등을 편찬하였고, 이를 《이정전서(二程全書)》에 수록하였다.

197) 강경과(講經科) : 과거 시험에서 시험관이 지정하여 주는 경서의 대목을 외던 일을 말한다. 주로

(章句)를 꾸며서 한묵(翰墨)의 마당을 달리는 것이 문장(文章)의 학이니 지금에 이른바 '문예과(文藝科)'이다. 학문이란 한 구절은 곧 그 이치를 아는 것이니 그 이치를 알면 곧 독실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마음에 근본 하여 몸에서 실행하는 것은 쇄소(灑埽)로 말미암아 천리(天理)에 도달하고[198] 가정에서 시작하여 천하에 미치는 것이니 유자의 학이다. 삼대(三代)가 이미 멀어지고 옛 도를 회복하기 어려우니 지금 비록 주공(周孔)의 덕(德)과 안자·증자의 학(學)이 있더라도 과업(科業)을 통하지 않고 군주에서 신임을 얻어 도를 행하기 어려우니 문장(文章)·훈고(訓詁)의 학문을 어찌 전부 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 서재를 삼학(三學)이라고 이름 붙인 뜻이다. 무릇 이 서재에 들어가 이 학문을 강(講)하는 자들은 동몽(童蒙)들은 먼저 훈고(訓詁)를 배우고 조금 자란 자는 문사(文辭)를 학습하고 성인은 전적으로 의리(義理)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박문약례(博文約禮)[199]는 먼저 그 큰 것을 세운 연후에 내가 소유한 것을 미루어 문사(文辭)의 사이에 도달하고, 그 남긴 가르침의 나머지에 응당 진취의 도구를 들어서 그 큰 근본을 확충하고 효친(孝親)·경형(敬兄)·충군(忠君)·제장(悌長)의 도(道)로 삼는다면 학문을 하는 도가 거의 원류가 혼탁하지 않아서 본말이 서로 닦이게 될 것이다. 만약 말(末)에 치달리고 근본을 버려서 투박하고 사치스럽고 장단(長短)을 다툼에 힘쓰며 명예에 치달리고 영리(榮利)에 뜻을 두어 그 본체를 상실한다면 서재를 이름 붙인 본래의 의미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였다.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다.

오경(五經)인 《시경(詩經)》·《서경(書經)》·《주역(周易)》·《예기(禮記)》·《춘추좌전(春秋左傳)》과, 사서(四書)인 《대학(大學)》·《중용(中庸)》·《논어(論語)》·《맹자(孟子)》에서 출제(出題)되었다. 성적은 등급 중 통(通)이 첫 번째이다. 다음은 약(略), 조(粗), 불(不)이다.

198) 쇄소(灑埽)로 …… 도달하고 : 쇄소응대(灑掃應對)는 물 뿌리고 청소하며 응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소학(小學)의 공부이다. 대학(大學)에서 최종 목표인 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는 소학(小學)에서 강조한 물 뿌리고 쓸고 응답하는 쇄소응대(灑掃應對),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부터 그 공부를 시작한다는 말이다. 하학(下學)을 통해 상달(上達)한다는 말은 아래로 인사(人事)를 배운 뒤에 위로 천리(天理)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199) 박문약례(博文約禮) : 글을 통하여 지식을 넓히고 예를 통해서 행동을 검속하는 것이다. 《논어》 〈옹야(雍也)〉에 "군자가 글을 널리 배우고 예로써 요약한다면 또한 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인하여 그 말들을 기록하여 책의 끝에 써서 경계로 삼는다. 아침저녁으로 의관을 정제하고 서재에 들어가 서생들을 이끌고 장구(章句)를 가르치는 자는 영평(永平) 문만욱(文晩郁) 군, 진양(晉陽) 정지(鄭�township) 군, 파평(坡平) 윤선기(尹先夔) 군이 그들이다. 장자후(張子厚) 선생[200]의 이른바 '교인사익(教人四益)'[201]을 세 사람이 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농가집성[202]서발

農家集成書跋

우리 인간이 찬수(鑽燧)[203]이후에 불에 의해 먹고, 뇌누(耒耨)의 이익을 대개 익괘(益卦)[204]에서 취하였다. 천하의 근본은 여기에 달려있다. 옛날에

---

200) 장자후선생(張子厚先生) : 북송의 학자 장재(張載, 1020~1077)로, 자는 자후(子厚), 시호는 헌공(獻公)이다. 횡거(橫渠)는 그의 호이다. 유가와 도가의 사상을 조화시켜 우주의 일원적 해석을 설파함으로써 이정(二程)·주희(朱熹)의 학설에 영향을 끼쳤다. 저서에 《정몽(正蒙)》, 《장자전서(張子全書)》 등이 있다.

201) 교인사익(教人四益) : 어린 후학을 가르치는 네 가지 유익함을 말한다. 장재(張載)가 말하기를, "어린이를 가르치는 데에도 유익한 점이 있으니, 자신을 얽어매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유익함이요, 남에게 자주 가르쳐 주다 보면 자신도 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유익함이요, 어린이를 대할 적에도 반드시 의관을 바르게 하고 자세를 의젓하게 갖는 것이 세 번째 유익함이요, 항상 자기로 인해서 남의 재주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걱정하면 감히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는 것이니 네 번째의 유익함이다.[教小童亦可取益, 絆己不出入, 一益也. 授人數數, 己亦了此文義, 二益也. 對之必正衣冠尊瞻視, 三益也. 常以因己而壞人之才爲憂則不敢惰, 四益也.]"라고 하였다. 《近思錄 권10 政事》

202) 농가집성 : 효종 때 신속(申洬)이 편찬한 책이다. 세종 때 정초(鄭招)와 변효문(卞孝文)이 엮은 《농사직설(農事直說)》, 성종 때 강희맹(姜希孟)이 금양(衿陽) 곧 시흥(始興)에서 농사지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금양잡록(衿陽雜錄)》, 중국 당나라의 한악(韓鄂)이 지은 《사시찬요(四時纂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조선의 농업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펴낸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 등 세 농서를 기본으로 하고, 세종의 〈권농문(勸農文)〉과 주희(朱熹)의 〈권농문〉 등을 보태고, 신속 자신이 지은 《구황촬요(救荒撮要)》까지 포함하여 편찬하였다. 1655년 왕명으로 처음 간행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거나 증보되었다.

203) 찬수(鑽燧) : 찬수개화(鑽燧改火)의 준말로, 철이 바뀔 때마다 그 계절의 나무를 비벼 대어 새로 불을 취하는 일이다.

204) 뇌누(耒耨)의 …… 익괘(益卦) : 《주역(周易)》 〈계사전 하(繫辭傳下)〉에 "신농씨가 나오시어

백성의 부모가 된 자는 이것에 힘써서 흥하고 소홀히 하다가 망했음을 역사를 상고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백성이 드리운 지 삼백 년에 이익을 즐기고 생을 편안히 여기고 성화(聖化)의 가운데에서 경착(耕鑿)[205] 하여도 누구의 힘인지 알지 못한 것은 《농가직설(農家直說)》의 반포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삼백 년을 앞서서 이 백성이 이익을 즐기고 생을 편안히 한 것이 《농가직설》에 있었다면 이후의 억 만년을 누릴 태평성대의 근본이 또한 우리 성상께서 이 책을 반포하는 데 있지 않았겠는가? 나 같이 어리석으면서도 밭고랑의 가운데에서 요순(堯舜)을 즐거워하는 자는 반포한 이 책을 공경히 받아서 훈화(勛華)[206]의 은택에 친히 목욕하였으니 흔연(欣然)히 이 글을 써서 함포(含哺)의 노래[207]를 바치고자 한다.

나무를 깎아 쟁기를 만들고 나무를 휘어 쟁기 자루를 만들어, 쟁기와 호미의 이로움으로써 천하를 가르쳤으니 대개 〈익괘〉에서 취하였다.[神農氏作, 斲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利, 以敎天下, 蓋取諸益.]"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205) 경착(耕鑿) : 밭 갈고 우물 판다는 뜻으로, 태평 시대를 구가한다는 말이다. 요(堯) 임금 때에 어느 노인이 지었다는 〈격양가(擊壤歌)〉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면서, 샘을 파 물 마시고 밭을 갈아서 밥 먹을 뿐이니, 임금님의 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상관이겠는가?[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飮, 耕田而食, 帝力於我何有哉?]"라는 말이 나온다.

206) 훈화(勳華) : 상고 시대의 성군이었던 요 임금과 순 임금을 가리킨다. 《서경》 〈요전(堯典)〉에서 요 임금을 방훈(放勳)이라 하였으니, 요 임금이 일찍이 설(契)을 사도(司徒)로 삼아서 백성들에게 인륜(人倫)을 가르치게 했던 데서 온 말이다. 〈순전(舜典)〉에서 순 임금을 중화(重華)라고 하였으니, 중화는 순 임금의 문채가 요 임금과 거듭 합치되었다는 뜻이다.

207) 함포(含哺)의 노래 : 함포고복(含哺鼓腹)의 준말이다. 실컷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태평성대에 백성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주로 사용하였다. 《장자》 〈마제(馬蹄)〉에 "옛날 혁서씨(赫胥氏) 시대에는, 백성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따지지 않았고 길을 갈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요량하지 않았다. 음식을 입안 가득 넣고서 즐거워하였으며 배를 두드리며 놀았다."라고 하였다. 이는 또한 요 임금 때에 어느 노인이 지었다는 〈격양가(擊壤歌)〉와도 관련된다.

근서사암집후

謹書思菴集後

《사암선생집(思菴先生集)》은 모두 2책 6권으로, 부록은 백사(白沙)[208]의 찬(撰)과 장(狀), 상국(相國) 청음(淸陰),[209] 백헌로야(白軒老爺)[210]가 실제로 서문과 발문을 썼으니 경편(瓊篇)[211]·옥결(玉訣)[212]이 빛나 서로 비추고 남의 이목을 빛나게 하니 아! 위대하도다. 다만 한마디 말이 있으니 덕 있는 선비에게 있어서 귀한 것은 말을 세우고 글로 써서 길이길이 세상에 드리우는 것으로, 이는 비단 문장과 시문뿐만이 아니다. 세도(世道)에 관련이 되고 풍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실제로 그 근본 뜻이다. 선생이 조정에 선 사십 년 동안 제상의 자리에 10여 년을 출입하면서 군덕(君德)을 보필하고 치도(治道)를 도와서

---

208) 백사(白沙) : 이항복(李恒福, 1556~1618)으로,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자상(子常), 호는 백사(白沙) 등이다. 이이(李珥)의 문인으로, 1580년 문과에 급제하고 사가독서(賜暇讀書) 하였다. 이후 언관직을 두루 거쳤으며, 1589년 정여립(鄭汝立)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평난공신(平難功臣) 3등에 올랐다. 임진왜란 때 병조 판서가 되어 전란을 지휘하였으며, 광해군 즉위 후 폐모론(廢母論)에 적극 반대하다 삭탈관직되고 북청(北靑)으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사후에 복관되고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었다. 저서로 《백사집》이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209) 청음(淸陰) : 김상헌(金尙憲, 1570~1652)으로,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 등이다.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의 아우이며, 윤근수(尹根壽)의 문인이다. 1596년 정시 문과에 급제하고 1608년 문과 중시에 급제한 후 대사헌·대사성·대제학을 거쳐 육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하였다. 병자호란 때 주화론(主和論)을 배척하고 끝까지 주전론(主戰論)을 주장하다 인조가 항복하자 파직되었으며, 1639년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청나라에 압송되어 6년 후에 풀려났다. 저서에 《청음집(淸陰集)》이 있으며,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210) 백헌로야(白軒老爺) : 이경석(李景奭, 1595~1671)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상보(尙輔)이며, 호는 백헌(白軒)이다. 종실 덕천군(德泉君) 이후생(李厚生)의 6대손이다. 김장생의 문인으로, 병자호란 때 〈삼전도비문(三田渡碑文)〉을 지었다. 1649년에 효종의 북벌 계획이 이언표(李彦標) 등의 밀고로 청나라에 알려져 사문(査問)하는 일이 있었다. 효종의 구명으로 목숨을 건지고 백마산성(白馬山城)에 위리안치되었다. 저서로는 《백헌집(白軒集)》 등이 있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西溪集 卷12 領議政白軒李公神道碑銘 韓國文集叢刊 134輯》

211) 경편(瓊篇) : 상대방이 보내 준 아름다운 시를 뜻한다. 《시경》 〈모과(木瓜)〉에 "나에게 모과를 던져 주기에, 아름다운 옥으로써 갚는다.[投我以木瓜 報之以瓊琚]"라고 하였다.

212) 옥결(玉訣) : 도가(道家)의 주문(呪文), 비결(秘訣) 등에 대한 미칭(美稱)이다. 당(唐)나라 이백(李白)의 글 〈동야어수주자양선생찬하루송연자원연은선성산서(冬夜於隨州紫陽先生餐霞樓送煙子元演隱仙城山序)〉에, "우리 몇 사람을 맞이하여 혼원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금서와 옥결이 모두 여기에 있다.[延我數,子 高談混元, 金書玉訣, 盡在此矣.]"라고 하였다.

반드시 크게 건명하고 크게 수립한 것이 필시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편집 사이에 적막하게 장주(章奏)와 고계(告啓)에 대해 언급한 것이 한두 문자가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선생은 어려서 화담(花潭)[213]을 섬겨 학문이 그 통서(통서)를 이었으니 선사(先師)의 여지(餘旨)를 소술(紹述)해서 음영(吟咏)에서 발하고 장구(章句)로 전파하여 발명(發明)한 작품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편자(片字)·척언(隻言)도 문집 중에 보이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편집한 것은 산수(山水) 사이의 풍영(諷詠)에 불과하고, 치문(緇門)[214]의 축율(軸律)은 유독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아! 한창려(韓昌黎)[215]의 이른바 '별 같은 시들은 주워 모으고 해와 달 같은 석고문(石鼓文)은 빠뜨렸네.'[216]라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이것은 어찌 선생이 의탁할 만한 자제가 없어서 집안 대대로 전할 보배를 잃어버려서가 아니겠는가? 애석하도다! 아니면 대대로 전할 선생의 지위가 영상(領相)에 이르렀는데도 '좌상(左相) 사면(辭免)의 비답'이라고 했고, 율곡(栗谷)[217]이 홍문관 대제학[文衡] 때에 지은 백사(白沙)의 행장에 임신년(1632, 인조10) 우상(右相)이라고 하는 데에 그쳤으니 또한 의심할 만하다. 모두 기록해서 바름을 구하기를 기다린다.

---

213) 화담(花潭) :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의 호이다. 본관은 당성(唐城), 자는 가구(可久), 호는 화담·복재(復齋),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고 송도(松都)에 머무르며 학문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하여 황진이(黃眞伊), 박연폭포(朴淵瀑布)와 함께 '송도 3절(松都三絶)'로 불리기도 하였다. 문집에 《화담집》이 있다.

214) 치문(緇門) : 승려는 치의(緇衣)를 입으므로 승문(僧門)을 이른다.

215) 한창려(韓昌黎) : 한유(韓愈, 768~824)을 가리킨다. 한유는 당(唐)나라의 문장가로 자는 퇴지(退之)이고 시호는 문공(文公)이다. 송대(宋代)에 창려백(昌黎伯)에 추봉(追封)되었으므로 한창려(韓昌黎)라고 불린다. 유가 사상을 존중하고 도교·불교를 배격하였으며, 특히 요(堯)·순(舜)에서 공(孔)·맹(孟)으로 전해 내려오던 학문의 전통을 주장하여 송대 성리학(性理學)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저서로는 《창려선생집(昌黎先生集)》이 있다.

216) 한창려(韓昌黎)의 …… 빠뜨렸네 : 한유(韓愈)가 주 선왕(周宣王) 때의 것이라고 전하는 석고문(石鼓文)을 발견하고서, 공자(孔子)가 《시경(詩經)》에 이 글을 채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가 석고가(石鼓歌)를 지어 노래한 가운데, "공자는 서쪽으로 진 나라를 가지 못하여, 별 같은 시들은 주워 모으고 해와 달 같은 석고문은 빠뜨렸네.[孔子西行不到秦, 掎摭星宿遺羲娥.]"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17) 율곡(栗谷) : 이이(李珥, 1536~1584)로,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숙헌(叔獻), 호는 율곡 또는 석담(石潭), 시호는 문성이다. 저서에 《율곡집》이 있다.

南圃集

남포집

제11권

卷之十一

경의설
經義說

원리기설
原理氣說

천지(天地)에는 리(理)가 있고 기(氣)가 있고 형질(形質)이 있는데 리와 기를 합하여 총언(總言)하여 '도(道)'라고 한다. 지수(至粹)한 것을 '리(理)'라고 하고 변동(變動)을 일러 '기(氣)'라고 하고 유행(流行)을 일러 '도'라고 한다. 리는 기에 깃들고 기는 형질에 깃드니 이 때문에 기가 모여서 천(天)의 형(形)이 되고 기가 그 가운데에 깃들게 된다. 기가 결합하여 지(地)의 질(質)이 되고 기가 그 가운데에 통(通)하게 되니 이 기는 천지의 가운데에 오르내려 운행이 쉬지 않는데 쉬지 않는 오묘한 이것을 일러 '리(理)'라고 한다. 리는 지정(至靜)하고 기는 지동(至動)하니 동은 스스로 동할 수 없으니 리에서 말미암고, 정은 스스로 발할 수 없으니 기에 타게 되는데 이 때문에 지정무잡(至精無雜)한 것은 리이고, 정(正)이 있고 사(邪)가 있고 통(通)이 있고 색(塞)이 있는 것은 기이다.

오기(五氣)가 순포(順布)하여 사시(四時)가 정(正)을 얻고 생장(生長)을 이루니 만 가지 품물의 순성(順成)은 바름에서 기가 발하고 리가 그 바름을 탄다. 그 혹 사시(四時)·오기(五氣)가 그 상(常)을 얻지 못하고 한서(寒暑)·풍우(風雨)가 어그러져서 절기를 잃는 것은 기가 사(邪)에서 발하여 리가 사(邪)에 가려진 것이다. 사람의 생은 천지의 기이니 이 기가 응결하여 형질(形質)이 되고 기가 형질의 가운데에 깃든다. 천지의 리가 부여하여 성(性)이 되고 성이 기에 깃든다. 성이 기와 합하여 날마다 쓰임에서 유행(流行)하니 또 그것을 일러 '도(道)'라고 한다. 그 기는 구각(軀殼)의 가운데에 통행(通行)하니 발하여 한번 호흡하고 한번 내쉬니, 또 천지의 기와 더불어 상통하여 불식(不息)하니 불식의 묘리는 이것을 일러 '리(理)'라고 한다. 무릇 지각(知覺)·운동(運動)하는 것은 기이고 지각·운동의 묘리는 리이다. 이 때문에 리는 지정(至靜)하고

기는 지동(至動)하고 리는 선·악이 없고 기는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사단이 발하여 칠정(七情)이 중절(中節)을 얻은 것은 기가 선에서 발하여 리가 선에 타게 된다. 사단(四端)·칠정(七情)이 그 바름을 얻지 못하여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모두 사(邪)에서 나온 것은 기가 악에서 발하여 리가 악에 가려진 것이다. 대저 사람은 하나의 천지이고 천지는 하나의 큰 사람이기 때문에 짝하여 말하면 '삼재(三才)'[218]라고 하니 오직 성인이 그 기가 바르고 그 리에 합당하여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잘 생육되는 데에 달하니[219] 사시(四時)·오기(五氣)·한서(寒暑)·풍우(風雨)로 하여 그 차례를 따르고 그 바름을 얻지 않음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주역》에서 말하기를 "천지의 도를 지나침 없이 이루고 천지의 일을 모자람 없이 돕는다."[220]라고 하였으니 크도다! 성인의 이 지극함이여.

---

218) 삼재(三才) : 삼재는 세 가지 기본이라는 뜻으로, 천(天)·지(地)·인(人)을 말한다.《주역》〈설괘전(說卦傳)〉에 "옛날에 성인이《주역》을 지은 뜻은 장차 성명(性命)의 이치를 순히 하기 위해서였으니, 그러므로 하늘의 도를 세운 것은 음과 양이요, 땅의 도를 세운 것은 유와 강이요, 사람의 도를 세운 것은 인과 의이니, 삼재를 겸하여 둘로 하였기 때문에 역이 여섯 번 그어서 괘를 이루고, 음으로 나누고 양으로 나누며, 유와 강을 갈음하여 쓰기 때문에 역이 여섯 자리로 문장을 이룬 것이다.[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兼三才而兩之, 故易六畫而成卦, 分陰分陽, 迭用柔剛, 故易六位而成章.]"라고 하였다.

219) 천지가 …… 달하니 :《중용장구》 제1장에 "희로애락의 정이 발하지 않은 것을 '중'이라 이르고,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 이르니, 중이란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요, 화란 것은 천하의 공통된 도이다. 중과 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잘 생육될 것이다.[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라는 말이 나온다.

220) 천지의 …… 돕는다 :《주역》 태괘(泰卦) 상(象)에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것이 태괘이다. 제왕은 이로써 천지의 도를 지나침 없이 이루고 천지의 일을 모자람 없이 도와서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한다.[天地交泰, 后以財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라는 말이 나온다.

중설

中說

천지는 지극히 크고[至大] 만물은 지극히 많으며[至衆] 일월(日月)은 지극히 밝고[至明] 산천은 지극히 넓으며[至廣] 인심은 지극히 공평하고[至公] 만사는 지극히 번잡[至煩]하다. 만물은 지극히 많으나 천지가 능히 수용할 수 있고, 산천이 지극히 넓지만 일월이 능히 비출 수 있고, 만사는 지극히 번잡하나 인심이 능히 총괄할 수 있으니 천지의 도(道)는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곳에 만물을 수용할 수 있고 일월의 밝음은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산천을 비출 수 있으며 사람 마음의 신령함은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만사를 총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천지(天地)·일월(日月)·인심(人心)은 형이하자(形而下者)이고, 지대(至大)·지명(至明)·지공(至公)하여 하나로 정해진 것은 형이상자(形而上者)라는 것을 알 수 있다.[221] 형이하자(形而下者)는 높다, 낮다, 크다, 작다 등 부르는 명칭이 비록 다른데 형이상자는 본디 피차의 구별이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그 하나일 뿐이니 하나는 무엇인가? 중(中)일 뿐이다. 이 때문에 천지가 중에 맞지 않으면 만물을 수용할 수 없고 일월이 중에 맞지 않으면 산천을 비출 수 없고 인심이 중에 맞지 않으면 만사를 총괄할 수 없다. 천지의 큼과 일월의 밝음으로도 만약 중에 맞지 않으면 만물을 수용할 수 없고 산천을 비출 수 없는데 하물며 인심이 중에 맞지 않음이겠는가?

천지가 상하에서 동정(動靜)하고 일월이 그 사이에서 운행하여 음양(陰陽)의 기(氣)·오행(五行)의 정(精)이 무극(無極)의 진(眞)을 합하여 양의(兩儀)의 사이에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준 것이 이른바 '중(中)의 리(理)'이다. 먼저

---

221) 여기에서 …… 있다 : 형이하(形而下)는 형체가 없는 추상적 존재를 말하는 '형이상(形而上)'과 대립 되는 개념으로, 형체가 있는 구체적 존재를 말한다. 이는 원래 《주역(周易)》 〈계사전 상(繫辭傳上)〉에 "형이상인 것을 도(道)라고 하고, 형이하인 것을 기(器)라고 한다.[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라고 한 데에서 나온 말인데, 이에 대하여 주희(朱熹)는 황도부(黃道夫)에게 답한 편지에서 "천지에는 이(理)와 기(氣)가 있으니, 이(理)라는 것은 형이상의 도(道)로서 만물을 낳는 근본이고, 기(氣)라는 것은 형이하의 기(器)로서 만물을 낳는 도구이다.[天地之間, 有理有氣, 理也者, 形而上之道也, 生物之本也, 氣也者, 形而下之器也, 生物之具也.]"라고 설명하였다. 《朱子大全 권58 答黃道夫》

우리 마음에 품부하여 천하의 사람들이 공적으로 전하여 얻은 것이지 나만 홀로 사사로이 소유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천지는 나의 큰 부모요 일월은 우리 부모의 이목(耳目)이다. 천하의 사람들은 곧 우리 부모의 자식이요 나의 형제이다. 이에 부모가 나에게 명하였다. 대종형(大宗兄)은 나의 군주요 계별소종(繼別小宗) 이하는 공(公)이 되고 경(卿)이 되고 대부(大夫)가 되고 사(士)가 되고, 또 그 아래는 서민(庶民)이 된다. 나는 부모의 자식으로 군주인 우리 대종형을 섬기니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형제의 공·경·대부·사를 섬기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형제의 서민(庶民)에 임하니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군주에게 충성하지 않고 어른에게 공경하지 않고 서민을 아끼지 않는 자는 우리 부모의 자식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이다.

혹은 간사하고 형제간에 우애하지 않고 죽임이 소인(小人) 상(象)[222] 같이 동기(同氣)에 미치는 자는 추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악(元惡)을 품고 종자(宗子)를 모함하여 위태롭게 하는 관채(管蔡)[223]같은 자는 죽이는 것이 좋다. 완악한 아버지 고수(瞽瞍)를 기뻐하게 한[底豫][224] 아름다운 순(舜) 같은 자를 천거하고,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온전히 하여 되돌려 준[225]

---

222) 상(象) : 상은 순(舜) 임금의 이복동생이다. 평소에 순을 죽이려 하였으나 순은 너그럽게 대하였고 나중에 유비(有庳) 땅에 봉(封)해 주었다.

223) 관채(管蔡) : 주공의 형제인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을 말한다.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이 “주공이 장차 어린 성왕에게 이롭지 못하리라.”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자, 주공은 태공(太公)과 소공(召公)에게 정치를 맡기고 낙양의 동쪽으로 피신하였다.《史記 권35 管蔡世家》

224) 저예(底豫) : 순임금이 온 천하가 자기를 추대하였으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오직 완악(頑惡)했던 그의 부친 고수(瞽瞍)를 극진한 효성으로 받들어 마침내 고수를 감화시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감화되어 부자 사이의 윤상(倫常)의 기본이 확정된 것을 이르는 말이다.《맹자》〈이루 상(離婁上)〉에 맹자가 한 말로 “순 임금이 어버이 섬기는 도리를 다하자 고수가 기뻐하게 되었고, 고수가 기뻐하게 되자 천하가 교화되었으며, 고수가 기뻐하게 되자 천하에 부자의 도가 정해졌으니, 이것을 일러 대효라고 하는 것이다.[舜盡事親之道而瞽瞍底豫, 瞽瞍底豫而天下化, 瞽瞍底豫而天下之爲父子者定, 此之謂大孝.]”라고 하였다.《栗谷全書 권23 聖學輯要5》

225) 부모에게서 …… 준 :《효경(孝經)》 첫머리에 나오는 〈개종명의장(開宗明義章)〉에 “이 몸은 모두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 자신의 몸을 바르게 세우고 바른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드날림으로써 부모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라는 말이 나온다.《논어》〈태백(泰伯)〉에서는 증자가 죽음에 임해 제자들에게 “나의 발을 들춰 보고 나의 손을 들춰

증삼(曾參) 같은 자에게 복을 주었으니 이와 같은 것은 어째서이겠는가? 나 또한 천지 중에서 받아서 천지의 아들을 기다리는 공적 존재일 뿐이다. 어찌 말세가 돌아와 천하의 마음이 스스로 사적인 데에 빠지게 되었는가? 지극히 바른 가운데에서 오로지 한편에 치우쳐 천지가 우리 부모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하의 사람이 군신 상하가 되고 우리 형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애증(愛憎)은 한 몸의 사사로움에서 말미암으니 중도(中道)가 세워지지 않으면 호오(好惡)가 천하의 공평함을 따르지 못하게 되어 이욕(利欲)이 멋대로 흘러 부모의 명을 받고 군주가 된 우리 종형이 위에서 고립되고 공경(公卿)·대부(大夫)·사(士)와 서인(庶人)이 된 형제 무리가 분연히 명분을 나누고 서로 대립하여 한집안에서 이익을 다투면 저 위에 임하고 아래에서 질정하는 우리 천지의 대부모가 우리를 효자라고 말하겠는가? 불초(不肖)한 자식이라고 하겠는가? 천지신명[天地神祇]이 밝고 울창하게 줄지어 펼쳐져서 지대(至大)·지명(至明)·지공(至公)·지중(至中)하니 내가 어찌 감히 우리 둘 중에서 우리 형제들과 우리 종자대군(宗子大君) 앞에서 둘을 의심하여 우리 천지 대부모에게 불효했다는 꾸지람을 얻겠는가? 내가 소유한 지중(至中)은 처음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으로 우리 형제의 선각자와 함께 지키기를 원하는데 우리 형제가 중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친 것을 경발(警發)하여 이에 중설(中說)을 쓴다.

보아라. 《시경》에 '전전긍긍하여, 깊은 못 옆에 서 있는 듯이 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하라.' 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훼손을 면했음을 알겠노라. 얘들아.[啓予足, 啓予手, 詩云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氷,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라고 하였고, 증자는 또 《예기》〈제의(祭義)〉에서 "부모가 온전하게 낳아 주었으니 자식이 온전하게 돌아가야 효도라 이를 수 있다. 육체를 손상하지 않고 몸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온전하다고 이를 수 있다.[父母全而生之, 子全而歸之, 可謂孝矣. 不虧其體, 不辱其身, 可謂全矣.]"라고 하였다.

관계

冠誡

사람이 사람 되는 도를 아는가? 사람들은 항상 '천지인(天地人)'이라고 말하는 데 지극히 크고 지극히 넓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은 천지가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삼재(三才)라고 칭하는 자들이 반드시 사람을 천지에 참여시켜 함께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역(易)》에서 '사람의 도를 세워서 인과 의'[226]라고 하였고,《서경(書經)》에서 말하기를 '하늘의 밝은 명을 돌아본다.'[227]라고 하였으며, 삼성자(三省子)[228]는 '밝은 덕을 밝힌다.'[229]라고 하였고, 성인이 찬술한 것을 전(傳)하여 말하기를 '천명지성(天命之性)'[230]이라고 하였다.

대저 하늘이 품성을 내리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계(傳係)[231]를 하는 것과 같으니 고하(高下)·대소(大小)가 비록 현격(懸隔)하고 멀어서 서로

---

226) 사람의 …… 의 :《주역》〈설괘전(說卦傳)〉에 "하늘의 도를 세움은 '음과 양'이요, 땅의 도를 세움은 '유와 강'이요, 사람의 도를 세움은 '인과 의'이니, 삼재를 겸하여 두 번 하였다.[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兼三才而兩之.]"라고 하였다.

227) 하늘의 …… 돌아본다 :《대학장구》 전1장에서《서경》〈태갑 상(太甲上)〉의 말을 인용하여 "하늘의 밝은 명을 돌아본다.[顧諟天之明命.]"라고 한 것에 대해, 주희가 "사람은 천지의 중(中)을 받아 태어난다. 그러므로 사람의 명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나에게 명하여 지극한 선이 보존되어있는 것이니, 그 전체와 대용이 어느 때고 발현되지 않은 적이 없다.[人受天地之中以生, 故人之明德, 非他也, 卽天之所以命我而至善之所存也, 是其全體大用, 蓋無時而不發見於日用之間.]"라고 답한 것을 이른다.

228) 삼성자(三省子) : 증자(曾子)를 가리키는 말로, 그가 "나는 하루에 세 가지 일로 자신을 반성하니, '다른 사람과 도모하면서 충실하지 못했던가? 벗과 사귀면서 미덥지 못했던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던가?' 하는 것이다.[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라고 하였다.《論語 學而》

229) 밝은 …… 밝힌다 : '명덕을 밝힌다'는 명명덕은《대학장구》 경1장에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지선에 그침에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라는 구절에 보인다.

230) 천명지성(天命之性) : 천명지성은《중용장구》 제1장에 "하늘이 명(命)하신 것을 성(性)이라 이르고, 성(性)을 따름을 도(道)라 이르고, 도(道)를 품절(品節)해 놓음을 교(敎)라 이른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라고 한 구절이 보인다.

231) 전계(傳係) :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시킨다는 뜻을 적은 문권(文券)이다.

접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하나의 기가 유행하여 상하에 통하고 홀연히[232] 틈이 없고 실제로 피차가 없기 때문에 '천지인(天地人)'이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의 몸이 중차대함에 이르러서는 천지와 틈이 없는 것을 어째서 알지 못할 까닭이 있겠는가? 태상(太上)이 덕(德)을 세우고 그 수양의 차례와 세운 법이 성현(聖賢)의 경전(經傳)에 갖추어져 있으니 사람으로 하여 순서에 따라 들어가 자득하여 위로 천덕(天德)에 도달한다면 그 말은 오묘하고 그 도는 은미해질 것이다. 지금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이 칙행(飭行)이니, 칙행의 조목은 다섯 개가 있는데 '부자(父子)·군신(君臣)·부부(夫婦)·장유(長幼)·붕우(朋友)'이며 행하는 것은 하나이니 '성(誠)'이니라. 성(誠)에 들어가는 도는 거경(居敬)에 있고 거경의 도는 숙연(肅然)하여 방일(放逸)하지 않는 것이다. 지기(志氣)로 하여 깨끗하고 밝아서 분분하게 멸(滅)을 일으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용모를 바르게 하며 꾸밈을 단정히 하여 나태하고 방탕한 기가 베풀어지지 않게 하여, 일일 이내에 일심(一心) 사이에 맑은 것이 탁한 것보다 많아지고 고요한 것이 동한 것보다 많아지게 한다면 자연히 심지가 투명하여 사(事)를 보는 것이 쉽게 밝아질 것이니, 다섯 가지 조목은 만나는 것마다 어둡지 않아서 만 가지 일을 미루어 밝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몸가짐을 단속하는 것의 대략이고 하학상달(下學上達)[233]의 문호(門戶)이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구한다면 하늘을 섬기고 참여하는 도 또한 멀지 않을 것이다.

향당에 거처하면 자기를 바르게 하고 치우치지 않고, 몸을 세움에 먼저 실이 있게 한 뒤에 이름이 나게 하고, 사람을 접함에는 화합으로써 하고 믿게

---

232) 원문의 '然'은 문맥을 살펴 '忽然'으로 해석하였다.

233) 하학상달(下學上達) : 사람의 일을 배우고 나아가 자연의 법칙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논어》 〈헌문(憲問)〉의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다. 아래로는 인간의 일을 배우고 위로는 하늘의 이치를 터득하려고 노력할 따름인데, 나를 알아주는 분은 아마도 하늘일 뿐일 것이다![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 其天乎!]"라는 공자의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근사록》 〈존양(存養)〉에 "성현의 수많은 말씀도 그 요점을 살펴보면 단지 사람으로 하여 놓친 마음을 단속해서 다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그 마음을 찾아서 위를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이 곧 공자가 말씀하신 대로 아래로 인간의 일을 배우면서 위로 하늘의 이치를 체득하는 일이 될 것이다.[聖賢千言萬語, 只是欲人將已放之心, 約之, 使反復入身來, 自能尋向上去, 下學而上達.]"라는 정명도의 말이 나온다.

하며, 집에 거처할 때에는 예로써 하고 공손하여야 한다. 음식·의복·성색(聲色)·화재(貨財)·명리(名利) 등의 다섯 가지 것은 사람을 함정에 빠트리는 기정(機穽)이요, 성(性)을 벌(伐)하는 도끼이니 먼저 그 큰 것이 세워지면[234] 움직이지 않아도 얻어질 것이다.

종질(宗侄) 이상(履相)[235]은 아주 어릴 적에 고아가 되었는데 지금은 장성하게 되었다. 예(禮)는 삼가(三加)[236]가 마땅하니 성인의 도는 금일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당숙(堂叔) 모(某)가 사람이 삼재에 참여하는 설을 미루어 펼쳐서 초례(醮禮) 자리의 경계[237]로 삼는다. 또 명하여 말하기를 "시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슬프고 슬프다, 부모여, 나를 낳으시느라 몹시 수고하셨다.'[238]라고 하였으니, 사체(四體) 중에 하나의 터럭, 하나의 머리카락을 누가 준 것인가? 몸을 돌아보고 어버이를 생각하고, 어버이를 돌아보고 몸가짐을 조심하는 것은 그 생을 주신 이[所生]에게 욕을 보이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입신양명(立身揚名)으로 부모를 드러내는 것은 효도의 시작이요, 임심리박(臨深履薄)[239]의 태도로 살면서 자연의 순리에

---

234) 성(性)을 …… 세워지면 : 《시경》 〈빈풍(豳風) 벌가(伐柯)〉에 "도끼 자루를 어떻게 베어야 하나, 도끼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네.[伐柯如何, 匪斧不克.]", "도끼 자루를 베나니, 그 법이 멀리 있지 않도다.[伐柯伐柯, 其則不遠.]"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법규, 본보기 등의 의미로 쓰인다.

235) 이상(履相) : 김만영의 당조카 김이상(金履相, 1639~?)을 가리킨다. 자는 사형(士亨)이다. 1675년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236) 삼가(三加) : 예전에 남자가 가관례(加冠禮)를 행할 때, 처음에는 치포관(緇布冠)을 쓰고, 다음은 피변(皮弁)을 쓰고, 다음은 작변(爵弁)을 쓰던 일을 통칭하여 일컫던 말이다.

237) 초례(醮禮) …… 경계 : 김만영이 종질(宗侄) 이상(履相)의 초례 자리에서 경계한 말이다.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 " …… 초(醮)라는 것은 술을 따르기만 하고 수작(酬酢)함이 없는 것을 초라 하니, 예(醴)가 중하고 초가 가벼운 것은 예는 바로 옛날 술이기 때문에 중함이 되는 것이다. 초례가 예례와 다른 까닭은 관을 세 번 가한 뒤에 통틀어서 한 번 예례를 행하고, 초례는 관을 가할 적마다 한 번씩 청주로 초례를 행한다.[…… 謂之醮者, 酌而無酬酢曰'醮', 醴重而醮輕者, 醴是古之酒, 故爲重, 醮之所以異於醴者, 三加之後, 總一醴之, 醮則每一加而行一醮也.]"라고 하였다.

238) 부모여 …… 수고하셨다 : 구로(劬勞)의 가르침은 부모님이 자신을 낳고 기르느라 수고하고 애쓰시며 가르쳐 준 은혜를 말한다. 《시경》 〈육아(蓼莪)〉에 "슬프고 슬프다 부모여, 나를 낳으시느라 몹시 수고하셨다.[哀哀父母, 生我劬勞.]"라는 구절에서 연유한 말이다.

239) 임심리박(臨深履薄) : 조심하고 삼간다는 의미이다. 《시경(詩經)》 〈소민(小旻)〉에서 "마치 깊은 연못가에 다다르거나 얇은 얼음을 밟은 것처럼 조심하고 두려워한다.[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라고 하였다. 증자(曾子)가 병(病)이 위중하자, 제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이불을 걷고 나의

따르다가 죽어서는 편안한 것은[240] 효도의 마지막이다. 이상은 경계하여라. 나의 말은 망녕되지 않다."라고 하였다.

시학발휘

詩學發揮

내가 일찍이 망령되게도 옛날의 이른바 '음영대가(吟詠大家)'를 평론하여 말하기를 "청련(靑蓮)[241]의 시는 마치 곤륜산의 봉황이 흐르는 노을을 희롱하고 태화산(太華山)의 봉우리에서 연꽃이 터지는 것 같아서 단지 천연(天然)의 자태(姿態)만을 볼 수 있고 부착(斧鑿)의 흔적이 있지 않으니 조물주와 더불어 서로 표리(表裏)가 되고 왼손·오른손이 될 수 있다. 초당(草堂)[242]의 시는 파리하기는 나는 학과 같고 깨끗하기는 항해(沆瀣)[243]

발을 보고 나의 손을 보아라. 《시경》에 이르기를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깊은 못에 임한 듯이 하고, 엷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하라.' 하였으니, 이제서야 나는 내 몸을 훼상시킬까 하는 근심에서 면한 것을 알겠구나, 소자들아![啓予足, 啓予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氷,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라고 하였다. 《論語 泰伯》《詩經 小雅 小旻》

240) 자연의 …… 것은 : 송(宋)나라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 "살아서는 내 순응하고 죽어서는 내 편안하다.[存吾順事, 沒吾寧也.]"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온 말이다. 참고로 주희(朱熹)는 이 구절에 대해 "효자의 몸이 살아 있으면 어버이를 섬김에 그 뜻을 어기지 않을 뿐이요, 죽으면 편안하여 어버이에게 부끄러운 바가 없으며, 인인(仁人)의 몸이 살아 있으면 하늘을 섬김에 그 이치를 어기지 않을 뿐이요, 죽으면 편안하여 하늘에 부끄러운 바가 없다."라고 풀이하였다. 《近思錄集解 권2 爲學》

241) 청련(靑蓮) :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 701~762)을 말한다. 이백은 자가 태백(太白), 호가 청련(靑蓮)·취선옹(醉仙翁)으로 시선(詩仙)으로 불리며 시성(詩聖) 두보(杜甫)와 함께 중국 한시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 그의 시는 서정성이 뛰어나 감각과 직관에서 독보적이며, 낭만적이고 귀족적인 시풍을 지녔다. 저서로는 《이태백 시집》 30권이 있다.

242) 초당(草堂) : 두보(杜甫, 712~770)의 호이다. 자는 자미(子美)이다. 성당(盛唐) 시대 시인으로 시성(詩聖)이라 불렸으며, 또 이백(李白)과 병칭하여 이두(李杜)라고 일컫는다. 안녹산(安祿山)의 난이 일어나자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 장안에 연금되었으나 탈출하여 숙종(肅宗)의 행재소(行在所)에 달려가 좌습유(左拾遺)에 올랐다. 48세에 관직을 버리고 사천성(四川省)의 성도(成都)에 정착하여 완화계(浣花溪)에 초당을 세웠다. 그 후 방랑 중에 동정호(洞庭湖)에서 병을 얻어 59세를 일기로 병사하였다.

243) 항해(沆瀣) : 신선이 마신다는 밤사이 내린 맑은 이슬을 이르며, 흔히 신선이 마시는 귀한 음료수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초사(楚辭)》 〈원유(遠遊)〉에 "육기를 먹고 항해를 마심이여, 정양으로 양치질하고

같고 강건하기는 오백 의사(義士)[244]같고 고고하기는 삼동(三冬)의 설죽(雪竹)과 같으니 그 심장을 쪼개고, 담장을 가르는 곳에서는 귀신을 흐느끼게 하고 지사(志士)를 격동시키는 것과 같다. 창려(昌黎)[245]의 시는 혼혼(混混)은 원기(元氣)와 같고 유행(流行)은 하해(河海)와 같고 우뚝 서 있기는 오악(五岳)과 높이가 나란하고 못이 깊기로는 사독(四瀆)과 깊이를 함께하니 내가 일찍이 시 가운데 성경(聖經)으로 생각했다. 양사홍(楊士弘)이 편찬한 〈당시삼등음률(唐詩三等音律)〉[246]에서 비유하기를 '화타(華佗)와 편작(扁鵲)[247]이 세상의 모든 기이한 재료를 합하여 명약(名藥) 한 제를 만들면서, 창양(昌陽)[248]·옥찰(玉札)·단사(丹砂)[249]를 구하여 신(辛) 것은 단 것을 보충하고, 찬 것은 따뜻한 것을 섞고, 높은 것은 누르고 낮은 것은 끌어올려 사람에게 한 번 복약으로 백해(百骸)의 아양(痾痒)을 치료할 수 있게 한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내가 그러므로 상품(上品)의 재주로 마땅히 이백·두보·한유 세 사람을 끌어들이고, 중하(中下) 이후로는 당연히 삼당(三唐)[250]을 준거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아침노을 머금는다.[飡六氣而飮沆瀣兮, 漱正陽而含朝霞.]"라고 하였다.

244) 오백 의사(義士) : 한 고조(漢高祖)가 제위에 올랐을 때, 제왕(齊王) 전횡이 한 고조를 섬길 수 없다 하여 의사 500인만을 데리고 해도(海島)로 들어갔다. 한 고조가 그를 불러오게 하자 자결하였고, 그를 따르던 500 의사도 모두 자결하였다. 전횡도의 오백 의사란, 이 고사에서 온 말로, 여기서는 곧 창포의 기세가 늠름함을 비유한 것이다.

245) 창려(昌黎) : 창려백(昌黎伯)에 추봉된 당대(唐代)의 유자(儒者)이며 문장가인 한유(韓愈)의 호이다.

246) 〈당시삼등음률(唐詩三等音律)〉 : 원(元)나라 양사홍(楊士弘)이 편찬한 당시(唐詩) 선집(選集)으로, 이는 본디 양사홍의 《당음(唐音)》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다. 《당음》은 총 14권인데, 1권은 '당시시음(唐詩始音)', 2권에서 7권까지는 '당시정음', 8권에서 14권까지는 '당시유향(唐詩遺響)'으로 구성되어 있다.

247) 화타(華佗)와 편작(扁鵲) : 모두 중국 고대의 명의(名醫)이다.

248) 창양(昌陽) : 석창포(石菖蒲)로 좋은 약재이다.

249) 단사(丹砂) : 단사는 주사(朱砂)라고도 불리듯이 붉은빛이 도는 광물인데 광명사(光明砂)·진사(辰砂)·영사(靈砂)라고도 부른다. 주된 성분은 수은(水銀)이어서 소량을 복용한다.

250) 삼당(三唐) : 초당(初唐)·성당(盛唐)·만당(晩唐)을 가리킨다. 이는 시작(詩作)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당대(唐代)를 세 단계의 시기로 나누어 부른 데서 연유한 말이다.

한거지
閒居誌

시골 노인이 평소에 성질이 졸렬하고 어그러져 인간 세상에서 부앙(俯仰)할 수 없었다. 나이 40에 비로소 들판의 남쪽에 집을 지어 '남교(南郊)'라고 하고, 반무(半畝)의 채소밭을 일구어 스스로 만족하고 살면서 또 '노포(老圃)'라고 불렀다. 집 주변에 언덕이 있는데 모두 9개여서 혹자는 '구고주인(九皐主人)'이라고 불렀고, 집 뒤에 푸른 소나무를 손수 심어놓고 그 집을 '만취(晩翠)'라고 전각하였다. 작은 채는 직각으로 네모지고 겨우 무릎을 허용하였는데 그 벽에 '직재(直齋)'라고 써 놓았고, 이웃 학생이 두 개의 언덕에 서실을 지어놓고는 '양정(養正)'·'열락(悅樂)'이라고 하였다. 거처하는 곳에는 이름난 산과 아름다운 강이 없어서 바탕이 소박하기가 마치 그 사람과 같다고 하여 혹 '야옹(野翁)'이라고 칭하였다. 야옹은 일찍이 책보기를 좋아했는데 병치레가 잦아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없어서 서가에 수백 권을 꽂아두고 때때로 열람하여 단지 우리 마음의 기(氣)에 물을 대줄 뿐이었다. 나머지는 심사숙고의 뜻을 붙이지 않았는데 천연(天然)의 뜻에 병통이라고 여겼으니 대개 성품이 그러하였다.

성품(性品)을 기르는 방법을 대충 깨닫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기가 거칠어서 정진(精進)할 수 없었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때때로 혹 참여하여 들었지만 나태하고 둔하여 실행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행동이 온통 어둡고 졸렬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르다고 하고 단점으로 여겨도 효효(囂囂)[251)]하였으니 대개 그의 뜻이 너그럽고 느슨했기 때문이었다. 일찍이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책상 정리를 하고는 묵연하게 정좌(靜坐)하여 마치 의도가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실제는 얻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침잠하여 시를 읊어 기(氣)를 펼치고 우주(宇宙)를 살펴보고는 운행의 의미를 곰곰이

---

251) 효효(囂囂) : 스스로 만족하여 욕심이 없는 모양을 말한다. 《맹자》〈진심 상(盡心上)〉에 어떻게 해야 효효할 수 있느냐는 송구천(宋句踐)의 질문에 맹자께서 말씀하기를 "덕을 높이고 의를 즐거워하면 효효할 수 있다.[尊德樂義, 則可以囂囂矣.]"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조기(趙岐)의 주에 "효효는 스스로 만족하여 욕심이 없는 모양이다.[囂囂, 自得無欲之貌.]"라고 하였다.

생각하고, 고금(古今)을 통달하였어도 그 귀착점은 즐기는 것에 참여함이 없었다.

봄에 채소가 채원에 가득하고 가을 곡식이 밭에 가득함에 이르러서는 혹은 대나무 지팡이와 짚신을 신고, 혹은 작은 아이와 파리한 말을 타고 풀잎에 이슬 맺힌 들녘 사이를 다니며 시를 읊으니 그의 즐거움은 농포(農圃)에 있는 것 같았다. 온화한 바람이 꽃을 재촉하고, 드러난 하늘에 달이 흘러가면 가야금 한 번 타고 술 한 잔 마셨는데 스스로 술을 따르고 스스로 가야금을 켜고 좌우에 관동(冠童)이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어서 그의 환락을 도우니 그의 즐거움은 가야금과 술에 있는 것 같았으며 혹은 맑은 강에 달이 뜨면 비록 멀더라도 반드시 가서 암학(巖壑)에서 느긋하게 소요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으니 아마도 산수를 즐기는 자가 아니겠는가? 그 사람의 즐거움은 저절로 그에 맞는 즐거움이 있으니 반드시 깊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

그 마음에 대해서는 항상 그의 입으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것은 하늘이요, 지극히 넓은 것은 땅이지만 일원(一元)[252]의 뒤에는 다 매몰되고 사라져서 그 자취 또한 청소해 버린 것처럼 될 것이니 하물며 우리 인간은 작기가 한 덩어리의 고깃덩어리라서 100년을 살지 못하고 흙과 함께 썩으니 어찌 스스로 있다·없다 할 것이 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나에게는 또한 천지와 그 이치를 함께 하는 것이 있으니 밝고 밝은 마음의 사이에 붙어서 선을 기르고 확충해 간다면 천지만큼 높고 큼을 채워서 일원(一元)과 더불어 처음과 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려(思慮)가 여기에 이르면 저 뜬구름 같은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 우연히 찾아오는[倘來][253]

252) 일원(一元) : 송(宋)나라 소옹(邵雍)이 주장한 '원회운세(元會運世)'의 설에 나오는 용어로, 이 세계가 생성했다가 소멸하는 1주기(周期)를 말한다. 그 학설에 따르면 30년이 1세(世), 12세가 1운(運), 30운이 1회(會), 12회가 1원(元)이니, 일원은 모두 12만 9600년이 된다.《皇極經世書 권2 纂圖指要下》

253) 당래(倘來) : 당래(儻來)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자신의 몸에 우연히 찾아오는 것을 이른다. 《장자》〈선성(繕性)〉의 "요즘 사람들은 높은 관직을 얻고는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몸에 속한 것이지 성명(性命)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우연히 찾아와 몸에 잠깐 붙어 있는 것이다. [今之所謂得志者, 軒冕之謂也, 軒冕在身非性命也, 物之儻來寄也寄之.]"라고 보인다.

비방이나 명예가 어찌 그의 즐거움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즐거움은 백 년의 한가로운 마음을 맡길 수 있을 것이고, 뒤에서 언급한 마음의 즐거움은 천지의 묘용(妙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모아서 정리하여 〈한거지(閑居誌)〉에 쓰지 않겠는가?

을사년(1665, 현종6) 3월 10일 구고주인(九皐主人) 쓴다.

경서문대

經鋤問對

시골 농사꾼은 세상의 일에 대해 알고 힘쓰는 것이 없어 손으로 호미 들고 김매고 농사지어서 어버이 모시는 계책으로 삼고 있다. 날마다 2, 3명의 일꾼을 데리고 동쪽 언덕 아래에서 농사일하느라 체력이 다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호미를 놓고 언덕에 올라가 즐겁게 옛 경(經)을 읽는다. 객이 방문하여 길게 읍하고 말하기를 "무의(巫醫)·악사(樂師)·재장(梓匠)·윤여(輪輿)는 천한 기술이지만 본디 밭 갈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물며 옛 경을 다스리는 것 또한 밭 갈면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농부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신지(莘摯)의 뢰(耒)[254]와 원량(元亮)의 서(鉏)[255]를 객 또한 들어보았는가?"라고 하니, "들어봤습니다."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사군자(士君子)가 마음을 세움에 마땅히 이윤(伊尹)을 뜻 삼아 궁(窮)하여도 또한 행하며 달(達)하여도 또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끝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도연명이 지킨 절개를 지키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객이 발끈하여 응대하여 말하기를 "그대의 말은 응결되어 있고

254) 신지(莘摯)의 뢰(耒) : 신지는 이윤을 말한다. 신(莘)은 이윤이 농사짓고 살던 신야(莘野)이며 지(摯)는 이윤(伊尹)의 이름으로, 이윤이 유신의 들판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255) 원량(元亮)의 서(鉏) : 원량은 도잠(陶潛, 365~427)의 자이다. 도잠의 또 다른 자는 연명(淵明)이며 시호는 정절이다. 팽택의 현령(縣令)이 되었으나, 80일 만에 벼슬을 버리고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으며 전원으로 돌아와 문 앞에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고 스스로 오류선생(五柳先生)이라 칭하였다.

사납습니다. 이윤은 성인이요, 도연명은 현인입니다. 한쪽은 성인이고 다른 한쪽은 현인이지만 성인·현인을 자처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그대가 자처하겠습니까? 그대가 어려서 학문을 좋아했다고 하지만 나이 먹어 이룬 것이 없고 하나의 뜻도 세우지 못하고 많은 허물이 운집하였으며 궁하여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한갓 사체(四體)의 부림을 받고 있는데도 어찌 그대가 높고 크게 뜻을 세워 행동이 미치게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농부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고 저 사람이 옳지 않다. 그러나 곤(鯤)이 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리를 갈 뜻이 있고,[256] 대안(岱鴈)은 털이 없는데도 천 리를 번개처럼 날아갈 마음이 있으니 군자가 담대(膽大)함을 귀하게 여기고, 자중(自重)한 것은 진실로 이 도(道)를 지극히 원대하고 여기고, 이 임무를 지극히 중하게 여겨서이다. 용도(容刀)의 배로는 바다를 건너기 부족하고, 한 척의 칼을 뽑아서는 적을 제압할 수 없으므로 옛사람이 마음에 반드시 성인이 되기로 기약했던 것은 어째서이겠는가? 나와 성인은 처음에는 조금도 다름이 없지만 진실로 그 같음을 알아서 작은 차이도 없게 하면 나 또한 한 사람의 성인일 뿐이니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비록 그렇지만 성인도 사람이니 사람이면서 사람을 배우면 사람이 각각 능하게 된다. 하늘에 대해서는 높고 위대함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데도 옛날 사람들이 하늘과 덕을 나란히 한자가 있다고 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인의(仁義)일 뿐이니 그대의 말이 비루하여 자포자기에 빠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객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습니다. 청컨대 그대의 농사짓는 즐거움을 묻습니다."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천지는 지극히 크고 만물은 지극히 많아도 도(道)가 그것들 사이에 깃든다. 천지는 부모요, 만물은 동포이니

---

256) 곤(鯤)이 …… 있고 : 곤(鯤)은《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이다. 《장자》〈소요유〉에,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은 곤이다. 곤의 크기는 몇 천 리인지 모른다. 변화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은 붕이다. 붕의 등짝은 몇 천 리인지 모른다. 기운차게 떨쳐 날아오르면 그 날개가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쪽 끝의 검푸른 바다로 날아가려고 한다. 남쪽 바다란 하늘의 못이다.[北冥有魚, 其名爲鯤. 鯤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라고 하였다.

달(達)하여 구제[濟]를 겸하는 것은 그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이요, 궁(窮)하여 검약[約]을 지킴은 함께 즐기는 것이 아니다. 나의 뜻이 나의 마음의 수고로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와 그 도를 함께하는 것이요, 나의 뜻이 나의 힘의 수고로움을 행할 수 없는 것은 밭고랑 사이에서 그 분수를 스스로 즐기는 것이다. 봄에 밭 갈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천시(天時)의 서권(舒捲)를 따르는 것이요, 행(行)을 즐기고 위(違)를 걱정하는 것은 도체(道體)의 자연(自然)을 감당하는 것이다. 서쪽 들에서 일을 마치고 유연히 돌아오니 책상에는 책이 있어서 흔연히 함영(涵泳)하니 그 가운데에 천지가 있고 그 가운데에 만물이 있다. 부자(父子)가 갖추어져야 군신(君臣)이 갖추어지고 형제(兄弟)가 있어야 부부(夫婦)가 유별하게 된다. 희(羲)·농(農)·요(堯)·순(舜)이 호호희희(皥皥熙熙)[257]하고, 공(孔)·맹(孟)·정(程)·주(朱)가 혼혼(混混)[258]·원원(元元)하여 모두 거두어 함께 엮어서 일가(一家)를 이루었으니 일상생활 사이에 주옹(主翁)은 아마도 그 즐거움이 있지 않겠는가? 별안간 언덕을 지나 골짜기를 찾아서 나의 남쪽 밭을 돌보니 쭉정이가 자라지 않고 오곡이 잘 자라고 있다. 황충이 다 사라지고 때에 맞는 비가 내리니 시골의 백성과 늙은이가 모두 노래 부르고 흥얼거리고 읊조리고 손뼉 치면서 서로 얼싸안고 서로 읍하고 축하하여 한갓 덕색(德色)을 드러내고 발해(哱咳)를 드러내지 않으니, 말하고 웃는 즈음에 주옹은 아마도 그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나의 농사짓는 즐거움이다."라고 하였다.

객이 말하기를 "우리 그대의 즐거움은 이미 들었습니다. 청컨대 성인을 배우는 도를 듣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농부가 배움은 소를 채찍질하여 부지런히 밭을 가는 일뿐이다. 쟁기를 잡는 손은 실제로 리(理)

---

257) 호호희희(皥皥熙熙) : 화락(和樂)하고 자득(自得)한 모양을 말하는데, 전하여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성왕의 백성은 호호한 듯하느니라.[王者之民, 皥皥如也.]"라고 하였고, 《노자(老子)》 제20장에 "세속의 중인들 희희낙락하여, 마치 푸짐한 잔칫상을 받은 듯, 봄날의 누대에 오른 듯하네.[衆人熙熙, 如享太牢, 如登春臺.]"라고 하였다.

258) 혼혼(混混) : 혼혼은 근원이 있는 물을 말한다. 공자가 자주 물을 일컬은 뜻을 두고 무슨 뜻을 취한 것인가에 대한 서자(徐子)의 질문에 대해 맹자가 말하기를, "근원이 있는 물이 용솟음쳐서 밤낮을 쉬지 않아 구덩이에 찬 후에 나아가 바다에 이르니 근본이 있는 것이 이와 같은지라 이것을 취한 것이다.[原泉混混, 不舍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 有本者如是, 是之取爾.]"라고 한 말이 있다. 《孟子 離婁下》

를 탐구하는 손이 아니니 권농가를 부르는 입술이 어찌 도를 강론하는 입이겠는가? 성현(聖賢)의 모범(模範)이 책에 밝게 빛나 천년 만 년 빛이 해·달과 같을 것이니 진실로 바보가 아니면 누가 보고 아는 것이 불가능하겠는가? 비록 그러나 지극히 은미한 것은 드러나기 어렵고 지극히 위태로운 것은 타기[乘] 쉬우니 하나의 근본이 비록 같더라도 만 가지로 각각 달라지니[259] 만 가지의 다름으로써 타기 쉬움의 위태로움에 골몰하면 동일한 하나의 근본이 더욱 은미해진다. 정주(程朱) 이후로 위아래 천년 백 년 동안 하나로 꿰뚫는 전통 위에서[260] 공자·맹자를 접한 자를 아직 보지 못했다. 옷깃은 푸르고 소매는 노란 고준한 담론을 하는 자가 분분하게 함께 일어나 각각 논한 것이 달라서 대도(大道)를 잃어버렸다. 지금의 학자는 그 만 가지 다른 것을 하나로 하여 근본 하나에 함께 귀착시키고 그 지극히 위태로운 것을 눌러서 그 은미한 것을 드러내게 하니 그 요체는 치지(致知)·역행(力行)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치지(致知)의 잘못은 쉽게 박잡(博雜)한 데에 이르고 역행(力行)의 잘못은 쉽게 고루(固陋)한 데에 흐르는 것이니 박잡한 것은 구이(口耳)의 학문[261]이 되고 고루한 것은 황로(黃老)의 학문[262]이 된다. 이것이 이른바 '묘목을 심어놓고 김매지 않아 도리어 쭉정이만

---

259) 하나의 …… 달라지니 : 이일분수(理一分殊)를 설명하는 말로 이치는 한가지이지만 현상은 다르다는 의미이다. 우주의 근원은 유일(唯一)의 이치인데, 그것이 천만 가지 현상으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만물의 형태로 나타난다. 바꾸어 말하면 수많은 사물이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하나의 달이 천 개의 강에서 천 개의 달로 떠오르는 것은 하나의 이(理)를 수많은 존재들이 나눠 갖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천 개의 강마다 흐리거나 탁한 서로 다른 차이 때문에 하나의 달은 천 개의 강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260) 하나로 …… 위에서 : 일이관지(一以貫之)를 의미하는 말로, 공자가 제자 증삼(曾參)을 불러서 "나의 도는 하나의 이치로써 모든 일을 꿰뚫고 있다.[吾道一以貫之]"라고 하자, 증삼이 "예, 그렇습니다. [唯]"라고 곧장 대답하고는, 다른 문인에게 "부자의 도는 바로 충서이다.[夫子之道忠恕而已矣]"라고 설명해 준 내용이 《논어》 〈이인(里仁)〉에 나온다.

261) 구이(口耳)의 학문 : 귀로 듣고 입으로 곧장 내놓는다는 뜻으로, 되새김질해서 소화하려고는 하지 않고 얼른 밖으로 드러내어 과시하는 것을 말한다. 《순자(荀子)》 〈권학(勸學)〉의 "소인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 귀로 듣고는 곧바로 입으로 내놓는다. 입과 귀의 거리는 불과 네 치일 따름이니, 일곱 자나 되는 이 몸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수가 있겠는가.[小人之學也, 入乎耳, 出乎口, 口耳之間則四寸耳, 曷足以美七尺之軀哉?]"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262) 황로(黃老)의 학문 : 황제(黃帝)와 노자(老子)의 학문으로 진(秦)나라와 한(漢)나라 때 발전하였다. 도가(道家)의 학설을 가리킨다. 신불해(申不害)·한비(韓非)는 법가(法家) 사상가로, 《사기(史記)》에

자라고, 오동나무를 심고 가꾸지 않아 가시덤불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반드시 앎은 잡다한 것에 흐르지 않아야 하고, 행동은 누추한 곳에 흐르지 않아서 정일(精一)하고 택집(擇執)하고[263] 먼저 박(博)하고 나중에 약(約)한 연후에 큰 근본이 세워져서 그 쓰임이 행해지게 되고 몸가짐이 약(約)하고 시행하는 것이 넓게 된다.[264] 이것이 성인을 배우는 대강이다.”라고 하였다.

객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치지(致知)라고 할 만하며[265] 어떻게 하여야 역행(力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만물·만사의 이치를 미루어 내 마음에서 이루는 것을 ‘치지(致知)’라고 하고, 이미 알아서 내 몸에서 행해지면 ‘역행(力行)’이라고 한다. 앎이 부진하면 마음이 넓지 못하여 막힌 것이 많게 되고 행동이 힘이 약하면 아는 것이 헛된 것을 갖추게 되어 무용하게 된다. 비록 그렇지만 이 마음이 경(敬)에서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앎이 정일(精一)하고 택집(擇執)하지 못하여 잡다함에 흐르고, 우리의 행동이 굳게 지키지 못하여 누추한 데에 흐르게 된다.[266] 이런 까닭에 군자는 거경(居敬)을 크게 여기고 궁리(窮理)

“신자(申子)의 학문은 황로(黃老)에 근본을 두고 형명(刑名)을 주로 한다.”라고 하였고, 《사기》의 색은(索隱)에 “황로는 번화한 것을 싫어하는데, 간솔(簡率) 무위(無爲)하면 군신(君臣)이 저절로 바르게 된다. 한비는 부박한 것을 배격하고 법제(法制)는 사(私)가 없는 것이니 명실이 상부한다. 그러므로 황로로 귀결된다.”라고 하였다. 《사기(史記)》 권63 노자·한비열전(老子韓非列傳) 제3.

263) 정일(精一)하고 택집(擇執)하고 : 정일집중(精一執中)을 말하는 것으로, 정일집중은 순(舜) 임금이 우(禹) 임금에게 제위(帝位)를 물려주면서 말한 ‘유정유일(惟精惟一) 윤집궐중(允執厥中)’을 줄인 말로, 《서경》 〈대우모(大禹謨)〉에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그 중도(中道)를 잡을 것이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고 하였다.

264) 먼저 ‧‧‧‧ 된다 : 박문약례(博文約禮)를 설명하는 구절로, 스승에게 배워 식견을 넓히고, 그 지(知)를 예(禮)로 요약하여 행(行)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안연(顔淵)이 스승인 공자의 도에 대해서 감탄하며 술회한 뒤에 “선생님께서는 차근차근 사람을 잘 이끌어 주시면서, 학문으로 나의 지식을 넓혀 주시고 예법으로써 나의 행동을 단속하게 해 주셨다.[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라는 내용이 《논어》 〈자한(子罕)〉에 보인다.

265) 어떻게 ‧‧‧‧ 만하며 :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설명한 구절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지극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장구》 경 1장에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지식을 지극히 하였으니, 지식을 지극히 함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있다.[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라고 하였다.

266) 마음이 …… 된다 : ‘경’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의’는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는 성리학자들의 중요한 수행 방법에 속하는 것들이다. 《주역》 〈곤괘(坤卦) 문언전(文言傳)〉에

를 귀하게 여겼다.[267] 아! 후세에 한 무리의 선비가 성리(性理)를 고준하게 담론하고[268] 고금(古今)을 달려가 말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수천 번 재잘거려 아침부터 하루를 다 하여도 아직 귀일한 자를 보지 못했으니 그가 큰 근본에 과연 세운 것이 있는가? 슬프도다!"라고 하였다.

객이 말하기를 "세상의 군자는 학문(學問)·절의(節義)를 둘로 나누어 절의를 실제 행동으로 생각하고 학문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 이런 논의는 어떠한지요?"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이런 논의가 바로 말세의 탄식이다. 중고(中古) 이전에 어찌 이런 논의가 있었겠는가? 대저 절의는 바로 학문 중에 하나의 일이니 만약 절의를 중하게 여긴다면 주공·공자는 백이(伯夷)만 못하고 육수부(陸秀夫)[269]·문천상(文天祥)[270]은 정주(程朱)보다 뛰어나겠지?

"군자가 경으로 안을 곧게 하고 의로 밖을 방정하게 하여, 경과 의가 확립되면 덕이 외롭지 않다.[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라고 하였다. 참고로 명도(明道) 정호(程顥)는 "경과 의를 서로 잡아 지키면 곧바로 올라가 천덕을 통달함이 이로부터 시작된다.[敬義夾持, 直上達天德, 自此.]"라고 하였다.《近思錄 권2 爲學》

267) 거경을 …… 여겼다 : 거경궁리(居敬窮理)를 설명하고 있다. 거경궁리는 정주학(程朱學)의 학문 수양 방법으로 '거경'은 내적 수양 방법을 가리키는 말로《논어》〈옹야(雍也)〉에 처음 보인다. 경(敬)이란 인간에게 품부(稟賦)된 천명(天命)으로서의 선성(善性)이 순수하고 곧게 발할 수 있도록 성(性)에 영향을 주는 의식 작용을 미연에 없애버리는 수양법을 말한다. 이것은 조용히 앉아서 모든 잡념을 끊어버리는 정좌(靜坐)의 방법을 쓰거나, 한 가지 일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주일무적(主一無適)의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 '궁리'는 외적 수양 방법을 가리키는 말로《주역》〈설괘전(說卦傳)〉에 처음 보이는데, 인간에게 품부된 천명으로서의 선성이 이미 욕심의 영향을 받아 굴절되려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순수하고 곧게 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적극 노력하는 수양법으로, 격물(格物)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말한다.

268) 후세에 …… 담론하고 : 육왕학(陸王學)을 가리킨다. 육왕학은 주희(朱熹)의 이학(理學)에 반대하여 심학(心學)을 제창한 송(宋) 나라 육상산(陸象山)의 학문과 이를 계승하여 양명학(陽明學)으로 집대성한 명(明) 나라 왕수인(王守仁)의 학문을 병칭하는 학술 용어이다.

269) 육수부(陸秀夫) : 1236~1279. 남송 말기 충신으로, 자는 군실(君實)이다. 육수부(陸秀夫)는 송(宋)나라 말엽의 충신이다. 육수부(陸秀夫)는 송나라가 원(元)나라에 의해 패망하자, 복주(福州)에서 익왕(益王)을 세우고 단명전 학사(端明殿學士)가 되었으며, 익왕이 죽자 다시 위왕(衛王)을 세우고 좌승상(左丞相)이 되었는데, 원나라 군사가 송의 최후 보루(堡壘)이던 애산(厓山)을 격파하자,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는 칼을 들고 처자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한 다음 곧 위왕을 등에 업고 함께 바다에 빠져 죽었다.《宋史 권451 陸秀夫列傳》

270) 문천상(文天祥) : 1236~1283. 중국 남송(南宋) 말기의 재상으로, 자는 송서(宋瑞) 혹은 이선(履善)이며 호는 문산(文山)이다. 1256년(이종4) 진사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아간 후 원(元)나라에 대하여 시종 강경책을 주장하고 천도(遷都)를 반대하여 면직되기까지 하였다. 1275년(공종1)

주공·공자가 백이에 대해서는 일지(一指)에서 견배(肩背)이고 육수부·문천상이 정주에 대해서는 근본(根本)에서 일지(一枝)이니 나란히 놓고 논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후세의 사람이 명(名)을 학문이라고 여기는 자가 있는데 군신의 큰 절의에 대해서도 도리어 범인의 아래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세의 논이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객이 말하기를 “세상의 군자는 도를 행하는 것을 절의(節義)라고 생각하여 도를 행하지 않으면 절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진실로 그러합니까?”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이것 또한 말세의 탄식이다. 중고(中古) 이전에 어찌 이런 논의가 있었겠는가? 옛날의 군자는 대본(大本)과 달도(達道)[271]가 세워지지 않음을 걱정했지, 절의가 행해지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않았다. 대본·달도가 이미 세워지면 절의는 논할 것이 못 된다. 만약 도를 행하는 것을 절의로 삼는다면 이부주소(伊傅周召)[272] 등의 무리를 모두 절의의 선비라고 지목할 수 있겠는가? 공자가 ‘독실하게 믿고 학문을 좋아한다.’[273]라고 하였고, 또 ‘나라에 도가 없는데 부유하고 또 귀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274]라고 하였는데 이것으로써 본다면 비록 나라를 위해서 죽더라도

원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자 당시 우승상이었던 문천상은 가산(家産)을 내어 의용군을 조직, 임안(臨安)을 지켰다. 다음 해에 공종(恭宗)의 명을 받아 원나라에 강화를 청하러 갔으나 포로가 되었고 겨우 탈출하여 돌아왔다. 원나라 세조(世祖)가 벼슬하기를 간절히 권하였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았으며, 옥중에서 지은 장시(長詩) 〈정기가(正氣歌)〉를 부른 후 연산의 시시(柴市)에서 처형당하였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며, 저서에 《문산전집(文山全集)》이 있다. 《宋史 권418 文天祥列傳》

271) 대본(大本)과 달도(達道) : 대본은 하늘이 명한 성(性)을 말한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에 “희로애락이 미발한 것을 중(中)이라 하고, 발해서 다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 하니, 중은 천하의 대본이요, 화는 천하의 달도다.[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라고 하였다. 주희는 이 구절에 대해 주석하기를 “대본은 하늘이 명한 성이니, 천하의 이치는 모두 여기에서 나오니 도의 체이다. 달도는 성을 따름을 말하니, 천하와 고금에 함께 행하는 것으로 도의 용이다.[大本者, 天命之性, 天下之理, 皆由此出, 道之體也. 達道者, 循性之謂, 天下古今之所共由, 道之用也.]”라고 하였다.

272) 이부주소(伊傅周召) : 이는 은탕(殷湯)의 현상(賢相) 이윤(伊尹), 부는 은 고종(殷高宗)의 현상 부열(傅說), 주는 주실(周室)의 기초를 세우고 예악 제도(禮樂制度)를 제정한 주공(周公), 소는 주공과 함께 주실을 일으킨 소공(召公)을 가리킨다.

273) 독실하게 …… 좋아한다 : 《논어》 〈태백(泰伯)〉에, “독실하게 믿으면서 배우기를 좋아해야 한다.[篤信好學]”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274) 나라에 …… 것이다 : 《논어》 〈태백(泰伯)〉에, “돈독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목숨을 걸고

그 도를 선하게 하지 못하면 절의가 아니다. 비록 몸이 도덕적이라고 하더라도 도가 없는 세상에서 행해지지 않는 것을 또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사(時事)가 어떠한가를 헤아리지 못하면서 반드시 도를 행하는 것으로 뜻 삼고, 반드시 절의를 세우는 것을 뜻 삼고도 도의 선(善), 불선(不善)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대본이 이미 잘못된 것이니 어찌 논할 것이 있겠는가? 자사(子思)는 '나라에 도가 행해질 때는 자기 뜻을 표현하여 나라에 보탬이 되게 해야 하겠지만, 나라에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는 침묵으로써 자신의 몸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275]라고 하여 이미 명철(明哲)하게 그의 몸을 보존하였으니 사군자(士君子)의 도와 덕을 품은 자가 어찌 이 말로써 종신의 경계로 삼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객이 말하기를 "성현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그 도가 같지 않으니 공자가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았고, 증자는 명덕설(明德說)[276]을 좇고, 자사는 성도설(性道說)을 좇고, 맹자는 항상 인의(仁義)를 말했습니다. 송(宋)의 선정신(先正臣)[277]은 경(敬)을 위주로 했고, 횡거(橫渠)[278]의 가르침은 예(禮)를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성인 문하에서

착한 도를 지켜라.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고, 문란한 나라에는 살지 않으며, 세상에 도리가 있으면 나아가 벼슬을 하고, 도리가 없으면 물러나 숨어야 한다. 나라에 도가 있는데 가난하고 비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에 도리가 없는데 부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篤信好學, 守死善道, 危邦不入, 亂邦不居,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라는 말이 나온다.

275) 나라에 …… 것이다 : 자사(子思)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7장에 "나라에 도가 행해질 때에는 자신의 뜻을 표현하여 나라에 보탬이 되게 해야 하겠지만, 나라에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에는 침묵으로써 자신의 몸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시경》에 '현명한데다가 사려가 깊어서 자기 몸을 보전한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한 것이다.[國有道, 其言足以興, 國無道, 其默足以容. 詩曰: '旣明且哲, 以保其身,' 其此之謂與.]"라는 말이 나온다.

276) 명덕설(明德說) : 《대학장구》에 나오는 "〈강고(康誥)〉에 '능히 덕을 밝힌다.'라고 하였고 〈태갑(太甲)〉에 '하늘의 밝은 명을 돌아본다.'라고 하였고 〈제전(帝典)〉에 '능히 큰 덕을 밝힌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스스로 밝힌 것이다.[康誥曰: "克明德." 太甲曰: "顧諟天之明命." 帝典曰: "克明峻德", 皆自明也.]"라고 한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277) 선정신(先正臣) : 고인이 된 바른 신하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주희를 가리킨다.

278) 횡거(橫渠) : 북송의 학자 장재(張載, 1020~1077)로, 자는 자후(子厚), 시호는 헌공(獻公)이다. 횡거(橫渠)는 그의 호이다. 저서에 《정몽(正蒙)》, 《장자전서(張子全書)》 등이 있다.

당(堂)에 올라간 자가[279] 많게는 70명에 이르렀는데 성(性)과 천도(天道)는 오직 증자(曾子)·자공(子貢)만이 들을 수 있었고,[280] 이미 대의(大意)를 보았던 증칠(曾漆)[281] 이하는 참여하여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중용》·《대학》의 책은 근본을 맨 먼저 드러내어 미묘함을 드러내 밝혔고, 송나라의 선정신(先正臣)이 초학자를 가르치고 인도함에 반드시 본원(本源) 함양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성리(性理)를 담론하는 학문은 그 흐름의 폐단이 정문(程門)의 고학(高學)에서 점점 선불교에 흘러 들어가는 것이 태반이어서 강서(江西)의 학문[282]은 머리를 치며 울부짖는 자가 현자의 뜻을 훼손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만약 고정(考亭) 선생[283]이 백 가지 지류를 막아서 동쪽으로 흘러가게 하지 않았다면 어찌 천하에 유가의 의관을 몰아서 불교의 신자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강호(江湖)의 이설을 다 제거하지는 못해서 천

279) 성인 …… 자가 : 단계적으로 학문의 심오한 경지에 들어갔다는 말이다. 《논어》 〈선진(先進)〉에 "자로(子路)는 마루에는 올랐으나 아직 방에는 들어오지 못했다.[由也, 升堂矣, 未入於室也.]"라고 하였다

280) 자공(子貢)만이 …… 있었고 : 《논어》 〈공야장(公冶長)〉에서 자공이 "부자의 문장은 들을 수 있었지만, 부자께서 성과 천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수 없었다.[夫子之文章, 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라고 한 데 대해, 주희가 주석에서 "성인의 문하에서는 가르침이 등급을 뛰어넘지 않기에, 자공이 이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자에게 성과 천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그 훌륭함에 감탄한 것이다.[蓋聖門教不躐等, 子貢至是, 始得聞之而歎其美也.]"라고 하였다.

281) 증칠(曾漆) : 공자의 제자 증자와 칠조개(漆雕開)를 병칭한 말이다. 공자가 칠조개에게 벼슬을 권했을 때 "저는 아직 벼슬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吾斯之未能信]"라고 대답하자, 공자가 기뻐했다는 말이 《논어》 〈공야장(公冶長)〉에 나온다.

282) 강서(江西)의 학문(學問) : 송(宋) 나라의 육구연(陸九淵, 1139~1193)의 학문을 말한다. 그가 강서의 금계(金溪)에서 출생했으므로 그의 학술을 강서학파라고 한다. 육구연의 자는 자정(子靜), 호는 상산(象山)이다. 중국 남송(南宋)의 철학자로, 끊임없는 탐구와 연구를 강조한 주희(朱熹)와 달리 내면의 성찰과 자습(自習)을 중시하였다. 사람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선하여 그 선이 물욕으로 더럽혀지고 소멸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에 의해 다시 생성,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도(道)의 가장 높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의 사상을 심학(心學)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육구연의 사상은 3세기 이후 명나라의 성리학자 왕양명(王陽明)에 의해 완성되었고, 따라서 이들을 통틀어 육왕학파(陸王學派)라고 불러 정주학파(程朱學派)와 구별하였다.

283) 고정(考亭) 선생 : 고정은 남송의 철학자 주희(朱熹, 1130~1200)의 호이다. 원래는 지명으로 지금의 건양시(建陽市)이다. 주희가 63세 때인 1192년 6월에 이곳에 고정서원(考定書院)을 짓고 강학하였기 때문에 주자를 고정 선생이라고도 불렀다. 이를 기반으로 고정학파(考亭學派)가 형성되었는데, 뒤에 이를 존숭하여 민학(閩學)으로 부르게 되었다.

년이나 폐단이 흘러 지금까지도 끊지를 못하였습니다. 명대의 학자가 많지 않은 것은 아닌데 옛길로 함께 향하여 붉은 깃발을 이미 세우고 상제가 곁에 있어도 몽매하여 높일 줄을 모릅니다. 지금의 학자가 만약 대로를 평이하게 걷고자 한다면 거의 한쪽으로 치우치는 폐단을 면할 것이니 무슨 도를 써야 가능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농부가 머릴 긁적이며 용모를 고치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 우리 그대와 도를 말할 수 있겠구나. 옛날에 주공이 예를 제정하면서 문(文)으로 최상 삼았으니 빛나도다! 문(文)이여. 빈빈(彬彬)함을 상상할 수 있었는데[284] 선배 야인(野人)에 미쳐서 그 혜택이 이미 끊어졌다. 후배 군자(君子)가 문(文)이 그 질(質)을 멸하여[285] 무무(貿貿)[286]하게 예악(禮樂)을 꾸미고 장식하여 옛 도가 이미 없어지자 이 때문에 공자께서 가르침을 설하고 먼저 말과 행동을 보고 듣고 따르게 하고 음탕한 음악과 간악한 예가 그치게 하여 귀와 눈으로 접하지 못하게 한 연후에 큰 근본이 세워질 수 있었다. 이른바 밖을 다스려서 그 가운데를 정성스럽게 하고자 한 것이므로 안자(顔子)가 우뚝 뜻을 세운 것이 극기(克己)[287]·사물(四勿)[288]의 뒤에 있었고 증자(曾子)의 일관충서(一貫忠恕)는 하루에 몸을 세 번 살핀 후에 있었다. 이것이 성인 문하의 가르침이니 마치 천지의 생물이 알맹이에서 움이 트고, 움이 터서 싹이 나고, 싹이 자라 가지가 되고, 가지에서 잎이 나고, 잎에서 꽃이 피고, 꽃에서

---

284) 빈빈(彬彬)함을 …… 있었는데 : 문질빈빈(文質彬彬)을 설명한 말로 문채와 본바탕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조화된 군자라는 말이다.

285) 문(文)이 …… 멸하여 : 《논어》 〈옹야(雍也)〉에 "바탕이 문채보다 지나치면 촌스럽게 되고, 문채가 바탕보다 지나치면 겉치레에 흐르게 되나니, 문채와 바탕이 조화를 이룬 뒤에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86) 무무(貿貿) : 무식하고 뒤떨어짐이다.

287) 극기(克己) : 자기의 사욕을 이기는 것을 말한다. 안연(顔淵)이 인(仁)에 대해서 묻자,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자기의 사욕을 이겨 예에 돌아가는 것이 인을 하는 것이니, 하루라도 사욕을 이겨 예에 돌아가면 천하가 인을 허여할 것이다. 인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으니, 남에게 달려 있겠는가?[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라고 하였다. 《論語集註 顔淵》

288) 사물(四勿) : 네 가지 하지 말라는 것으로, 공자의 제자 안연(顔淵)이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조목을 묻자, 공자가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라고 하였는데, 이를 가리킨다.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공자께서 이미 돌아가심에 미쳐서 문하의 제자들이 사방에 흩어져 각각 들은 것만을 높였으니 사문의 도가 밝지 않게 되었다. 증자(曾子)·자사(子思)가 깊이 걱정하고 염려하여 사도(師道)가 전해지지 못할까 고민하고, 구이(口耳)[289]의 학문에 황홀(恍惚)해짐을 아파하여 이내 표준을 세워 본체(本體)를 직접 가르치는 것으로 발명(發明)하였으니 대개 부득이한 가르침이었다. 맹자의 법통은 대개 여기에서 얻어졌으나 선인(善人)과 신인(信人)의 사이에 위치하고, 미인(美人)·대인(大人)·성인(聖人)·신인(神人)의 아래 위치한 악정자 극(樂正子克)도[290] 마침내 전함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시서(詩書)는 열렬하게 불탄 나머지에 겨우 동자(董子)[291]를 얻었고, 장구(章句)·문사(文辭) 가운데에서는 다행히 한공(韓公)[292]이 있었는데 붓을 빼서 글자나 윤택하게 하여 한갓 조화(藻華)만을 숭상하다가 오계(五季)[293]에 극에 이르렀다. 염락(濂洛)[294]의 현인들이 천장(千丈)이나 우뚝 서서 한당(漢唐)을 굽어보고, 높고 오묘함을 다하여 위로는 공맹을 접하여 우리 도(道)의 소재를 깨닫고

289) 구이(口耳) : 구이지학(口耳之學)의 준말로, 천박한 공부를 뜻한다.

290) 선인(善人)과 …… 악정자 극(樂正子克)도 : 맹자는 자신의 제자 악정자(樂正子)를 평해서 선인(善人)과 신인(信人)의 사이에 위치하고, 미인(美人)·대인(大人)·성인(聖人)·신인(神人)의 아래에 위치한다고 하였다.《孟子 盡心下》

291) 동자(董子) : 한대(漢代)의 학자 동중서(董仲舒, 기원전 179~104)로, 서한의 사상가, 금문경학(今文經學)의 대가이다.《춘추(春秋)》의 연구에 전력을 기울였고《공양전(公羊傳)》을 정밀하게 연구했다. 경제 때 박사가 되었고 무제 때 현량문학지사(賢良文學之士)가 되어 강도왕(江都王)의 재상이 되었다. 후에 교서왕(膠西王)의 재상이 되었으나 얼마 안 있어 병을 이유로 관직을 그만두고 집에서 수학하며 저술하였다. 조정에 큰일이 있으면 늘 사람을 보내 그에게 자문을 구했다. 지금 전하는 그의 저술로는《춘추번로(春秋繁露)》가 있다.

292) 한공(韓公) : 당나라 한유를 가리킨다.

293) 오계(五季) : 오대(五代)라고도 하며, 중국 역사상 가장 분열이 심하고 왕조의 교체가 짧은 기간에 자주 일어난 시기로 당(唐)나라가 망하고 송(宋)나라가 들어서기 이전의 약 50년간의 시대를 말한다. 이 시기의 왕조로는 후량(後梁, 907~923), 후당(後唐, 923~936), 후진(後晉, 936~946), 후한(後漢, 946~950), 후주(後周, 950~959)가 있다.

294) 염락(濂洛) : 염계(濂溪)의 주돈이(周敦頤), 낙양(洛陽)의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를 가리키지만, 통상 염락관민(濂洛關閩)의 준말로, 관중(關中)의 장재(張載), 민중(閩中)의 주희(朱熹) 등 송대(宋代)의 성리학자들을 함께 지칭한다.

큰 근본이 세워지지 않은 것을 개탄하였다. 이 때문에 후배를 장려하고 인솔하여 맨 먼저 하나의 근본을 세우고 만 가지 다른 것을 각각 바르게 하고 성(誠)·명(明) 둘을 끌어들여 내외(內外)를 교차하여 수양하였다. 자사·증자【한 편에서는 맹자】의 끊어진 학문이 여기에 이르러서 다시 이어졌으나 문인의 고제(高弟)가 일변에 떨어짐을 면치 못했으니 이것이 있구나! 유학의 도가 행해지기 어려움이여. 육씨(陸氏)의 형제[295]가 어질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아호(鵝湖)에서 한 번 만난 것은[296] 처음부터 끝까지 합당하지 않아서 마침내 천 년간 이 유가의 도에 큰 하자가 되었으니 주문공 선생의 걱정이 어찌 크지 않았겠는가?"라고 하였다.

【삼가 이편을 지은 것을 고찰해보면 마땅히 갑오년(1654, 효종5) 사이인데 혹 내간(內艱)을 만나 마치지 못한 것인가? 이 아래는 생각건대, 틀림없이 동방(東方)과 관계될 터인데 도대체 선생의 깊은 뜻에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지연시킨 것인가? 당일에 선생님에게 질정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

295) 육씨(陸氏)의 형제 : 송나라 육구령(陸九齡, 1132~1180)·육구연(陸九淵, 1139~1193) 형제를 가리킨다.

296) 아호(鵝湖)에서 …… 것은 : 아호는 중국 강서성(江西省) 신주(信州) 연산현(鉛山縣)에 있는 산으로, 1175년 여조겸(呂祖謙)의 주선으로 주희와 육구령(陸九齡), 육구연(陸九淵) 형제가 이 산의 아호사(鵝湖寺)에 모여 논쟁을 펼친 바 있다. 논쟁의 핵심은 학문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희는 성현의 책을 널리 공부한 뒤에 요약하기를 주장하고, 육씨 형제는 사람의 본심을 발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를 주장한 것인데, 주희는 육씨에 대하여 '태간(太簡)'이라 비판하고, 육씨는 주희에 대하여 '지리(支離)'라 비판하였다.

완물편【선생의 나이 스물두 세 살에 독서할 때 쓴 일기이다.】
玩物篇【先生之年二十二三, 讀書時日記.】

내가 일찍이 《일두정선생실록(一蠹[297]鄭先生實錄)》을 읽어보니 “《주자중용장구(朱子中庸章句)》에 나온 기(氣)로써 형(形)을 이루면 리(理) 또한 그곳에 품부가 된다.’라는 말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어찌 기 뒤에 리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나는 ‘일두(一蠹)는 리기(理氣)는 알았는데 주자의 본의를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다. 주자가 말하기를 “본원(本原)을 논한다면 리(理)가 있고 난 뒤에 기가 있게 되지만 품부(稟賦)를 논한다면 이 기가 있고 난 후에 리가 따라서 갖추어진다.”[298]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주자의 본의이다. 일두의 견해는 아마도 일변에 치우친 것 같으니 학자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말하기를 “비유하면 리(理)는 물과 같고 기(氣)는 기(器)와 같으니 이 기가 없으면 이 리가 붙을 곳이 없어진다.”라고 하였다. 만약 이 기(器)가 없다면 이 물은 흩어져서 있지 않을 것이므로 주자가 먼저 기를 말한 이후에 리를 말했다.

혹 미발(未發)과 기발(旣發)[299]을 의심하여 말하기를 “성낼 때를 당하여는 기쁨의 리(理)가 미발(未發)하고 슬플 때를 당하여는 즐거움의 리가 미발하니

297) 일두(一蠹) : 일두는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호이다. 정여창은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백욱(伯勗), 시호는 문헌이다. 김굉필(金宏弼)과 함께 김종직(金宗直)에게 수학하였다. 저술로는 7권의 《일두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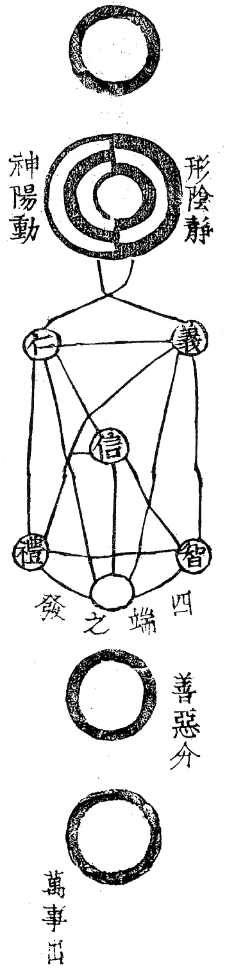
298) 리(理)가 …… 갖추어진다 : 이선기후(理先氣後)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 〈이기 상(理氣上) 태극천지 상(太極天地上)〉에서 “이와 기는 본래 선후로 표현할 수 없다. 다만 논리적으로 추론할 때 이가 먼저이고 기가 나중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理與氣本無先後之可言, 但推上去時, 却如理在先, 氣在後相似.]”라고 하였다.

299) 미발(未發)과 기발(旣發) : 모든 행위를 미발(未發)의 체(體)와 이발(已發)의 용(用)으로 규정한 주희(朱熹)의 학설로, ‘미발의 성[未發之性]’은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정이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고, ‘이발의 정[已發之情]’은 희로애락이 발한 것을 가리킨다. 《중용장구》 제1장에 “희로애락이 발하지 않은 것을 중(中)이라 이르고,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 이른다.[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희의 주에 “희로애락은 정(情)이고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은 성(性)이니 편벽되고 치우친 바가 없으므로 중이라 이르며, 발함에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은 정의 올바름이니 어그러지는 바가 없으므로 화라 이른다.[喜怒哀樂, 情也, 其未發, 則性也, 無所偏倚, 故謂之中, 發皆中節, 情之正也. 無所乖戾, 故謂之和.]”라고 하였다.

칠정(七情)이 서로 교대로 삼가 발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꼭 이처럼 말할 필요는 없다. 사려(思慮)가 아직 발하지 않은 곳은 미발이 되고 이미 발한 곳은 기발이 되니 이 마음이 잠깐 발동한 것이 있으면 곧 미발이 아니다. 그 가운데에 4개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발동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인구태극도

人具太極圖



살펴보면 마음에는 태극(太極)[300]이 있고 또한 음양동정(陰陽動靜)의 리(理)가 있다. 정(靜)한 것은 형(形)이 생(生)한 것이고 동(動)한 것은 신(神)이 발(發)한 것이니 바야흐로 그 동정(動靜)이 미형(未形)에 그 리(理)가 이미 갖추어지니 이것을 일러 '태극(太極)'이라고 한다. 한 번 동(動)하고 한 번 정(靜)하는데 미쳐서는 서로 근본이 되니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이 그곳에 갖추어진다. 인의예지의 성이 갖추어지면 인의예지의 단(端)이 그곳에서 발하게 된다. 사단(四端)이 발하여 선악이 나누어져서 만가지 일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희(伏羲)·요순(堯舜) 이후 공맹(孔孟) 이전에 서로 전하고 서로 주고받은 심법(心法)이니 그 말이 성인의 경(經)과 현인의 전(傳) 가운데에 자세히 갖추어 실려 있다.

맹씨 이후에는 정확하게 발하여 전하는 자가 없어서 천년의 뒤에는 오직 염계(濂溪) 선생만이《역전(易傳)》중에서 태극(太極) 두 글자를 얻어 그려서 도(圖)를 만들고 발(發)하여 설(說)을 지어[301] 우리 도의

---

300) 태극(太極) : 태극은 최초의 혼돈(混沌)한 상태로 있는 기운으로 우주 만물의 근본이 된다.《주역(周易)》〈계사 상(繫辭上)〉에, "역에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라고 하였다.

301) 태극(太極) …… 지어 : 주돈이(周敦頤)가 지은《태극도설》은 그림인 〈태극도〉와 그에 대한 주돈이 자신의 해설인 〈태극도설〉로 구성되어 있다. 천지가 나누어지기 이전을 태극이라 하는데,《주역》에 "역에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음(陰)과 양(陽)을 낸다.[易有太極, 是生兩儀.]"라는 말에 근본하여, 태극도를 그리고 설명을 가한 것이다.

일관된 목적으로 삼았다. 우리 자양선생(紫陽先生)에 미쳐서 그 도(圖)와 그 설(說)이 또 크게 펼쳐지고 분명하게 드러나[302] 삼재(三才)의 일리(一理)가 서로 합한 것이 마치 부절(符節)이 서로 들어맞는 것 같았으니 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다. 주자(周子)가 편찬한 〈자양석전조절(紫陽釋傳條節)〉을 줍고 모아서 개인적으로 〈인구태극도(人具太極圖)〉를 지어 자성(自省)의 도구로 갖추어놓았으니 내가 망령된 것이 아니라 자양 주자의 뜻이다.

또 살펴보건대 희(羲)·우(禹)의 도서오수(圖書五數)[303]의 중(中), 요(堯)·순(舜)의 인심도심(人心道心)의 기미(幾微),[304]문(文)·무(武)·주공(周公)의 건중건극(建中建極)의 묘(妙),[305] 공자(孔子)의 역유태극(易有太極)·오도일관(吾道一貫)의 리(理),[306] 자사(子思)의 계신공구(戒愼恐懼)[307]의 전(前), 증자(曾子)의 명덕

302) 자양(紫陽)선생에 …… 드러나 : 주희(朱熹)는 주돈이의 〈태극도〉와 《태극도설》에 주석을 달았는데, 이를 각각 〈태극도해(太極圖解)〉와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라고 부른다. 《태극도해》는 그가 지은 태극도에 대한 해설서인 《태극해의(太極解義)》를 가리킨다. 《태극해의》는 도(圖)의 해설인 〈태극도해〉와 도설(圖說)의 해설인 〈태극도설해(太極圖說解)〉로 구분되는데, 〈태극도해〉 또는 〈태극도설해〉라고 말하면서 책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성리대전》 권1에 수록되어 있다.

303) 도서오수(圖書五數) : 도서는 하도낙서(河圖洛書)를 말한다. 하도는 중국 전설상의 임금인 복희씨(伏羲氏) 때 황하(黃河)에서 나온 용마(龍馬)의 등에 새겨진 그림으로, 1에서 10까지의 수가 반점의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복희씨가 이를 보고 《주역》의 팔괘(八卦)를 그렸다고 한다. 낙서는 하(夏)나라 우(禹) 임금 때 낙수(洛水)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1에서 9까지의 수가 역시 반점의 형식으로 배열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우 임금이 이를 보고 《서경》의 홍범구주(洪範九疇)를 지었다 한다.

304) 기미(幾微) : 《주역》 계사에 기자동지미(幾者動之微)라 하여, 군자는 미(微)도 알고 창(彰)도 안다 하였으며, 기(幾)를 아는 것은 신(神)이라 하였거니와 기미는 동정(動靜)의 은미한 데서 극치의 경지를 찾는 것이다.

305) 건중 건극(建中建極)의 묘(妙) : 중정(中定)의 도(道)를 정(定)하여 만민(萬民)의 모범적인 법칙을 세우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306) 오도일관(吾道一貫)의 리(理) : 공자가 제자 증자에게 "삼아,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하느니라.[參乎 吾道一以貫之]" 하니, 증자가 '예' 하고 대답했다. 공자가 밖으로 나간 뒤,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다른 문인(門人)이 증자에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증자가 "선생님의 도는 충서일뿐이다.[夫子之道 忠恕而已矣]"라고 대답해 주었다. 《論語 里人》

307) 계신공구(戒愼恐懼) : 경계하고 근신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으로, 《중용장구》 제1장의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떠날 수가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그런 까닭에 군자는 보이지 않을 때에도 경계하고 근신하는 것이며, 들리지 않을 때에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 是故, 君子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明德)[308]의 처음, 맹자(孟子)의 본선지성(本善之性)[309]은 이른바 동정(動靜)이 아직 형태가 없어도 그 리(理)가 이미 갖추어진 때라는 것이다. 희·우의 오승십지후(五乘十之後), 요·순의 유정유일지시(惟精惟一之時),[310]문·무·주공의 경의상승지제(敬義相勝之際), 공자의 시생양의지발(是生兩儀之發), 증자의 명명덕지지선지후(明明德止至善之後), 자사의 은미근독지중(隱微謹獨之中), 맹자의 인유사단지설(人有四端之說)은 이른바 동정이 서로 뿌리가 되어 사덕(四德)·사단(四端)에 갖추어져 발한 것이다. 여기서 그 일체(一體)·일용(一用)은 비록 동정(動靜)의 다름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체가 세워져야만 용이 쓰임이 있게 되니 그 실제는 일본(一本)일 뿐이다.

한 번 동정하여 서로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것은 경(敬)일 뿐이다. 또 오성(五性)의 차례는 본도(本圖)의 오행(五行) 차례와 다른 것이다. 주자가 말하기를 "형(形)은 음(陰)이 하는 것이고, 신(神)은 양이 발한 것이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중(中)이다', '인(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양이고 '정(正)이다', '의(義)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음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인례(仁禮)를 왼쪽에 두고 의(義)를 오른쪽에 두었는데 인(仁)은 사성(四性)의 처음이기 때문에 왼쪽의 머리에 두고, 의(義)는 인의 상대이기 때문에 오른쪽의 위에 두는 것이니 스스로 천착한 것이 아니다. 계신공구(戒愼恐懼)의 전에는 태극(太極)의 체(體)를 볼 수 있고, 발하여 중절(中節)한 때에는 태극의 용(用)을 볼 수 있다. 진묘(眞妙)의 정(精)을 체득하는 것은 마땅히 야기(夜氣)가 깨끗한 아침에 얻을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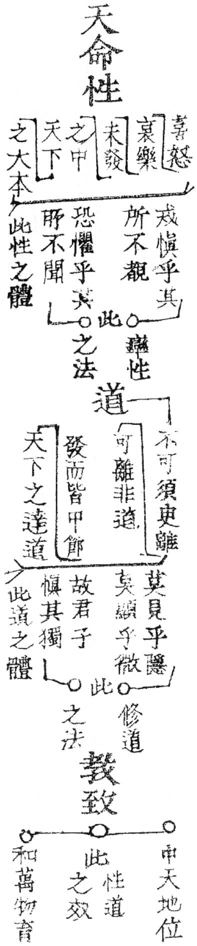
308) 명덕(明德) : 《대학장구》 경1장에 "대학의 도는 명명덕에 있고 신민(新民)에 있고, 지어지선(止於至善)에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라고 하였다.

309) 본선지성(本善之性) : 존양(存養)은 본심(本心)을 잘 보존하고 선성(善性)을 잘 기르는 것으로, 유가(儒家) 가운데 자사(子思)와 맹자(孟子)는 사람의 성품은 본디 선하므로 이를 잘 보존하고 기르면 하늘도 섬길 수 있다고 여겼다.

310) 유정유일지시(惟精惟一之時) : 순 임금이 우(禹)에게 제위를 선양하며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하고 전일해야 진실로 그 중도를 잡을 것이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書經 大禹謨》

《중용》수장지도

中庸首章之圖



삼가 살펴보건대 《중용(中庸)》 수장(首章)의 수절(首節)은 '성도교(性道敎)'[311]를 나누어 말했다. 이절(二節)은 도(道)의 떨어질 수 없음과 존양(存養)의 일을 말했다.[312] 삼절(三節)은 성찰(省察)의 일을 말하고, 사절(四節)은 중화(中和)의 대본달도(大本達道)를 말했다. 마지막 절에서는 중화(中和)의 지극한 공을 말했다. 이것은 주자장구(朱子章句)에서 이미 분명하게 해석했으니 다시 어찌 터럭 하나라도 끼어들 틈이 있겠는가? 다만 '성도교(性道敎)' 세 글자는 한 장의 강령(綱領)이 되고 서로 맥락(脉絡)이 되니 그 문장이 비록 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뜻은 실로 서로 관통(貫通)한다.

그 '희로애락이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을 중이다.'[313]

---

311) 성도교(性道敎) : 《중용장구》 제1장에 "하늘이 명하신 것을 성(性)이라 이르고, 성을 따름을 도(道)라 이르고, 도를 품절해 놓음을 교(敎)라 이른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라고 하였다. 참고로 이에 대한 주자(朱子)의 주에 "사람과 물건이 각기 그 성(性)의 자연을 따르면 그 일상생활 하는 사이에 각기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있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곧 이른바 '도(道)'라는 것이다.[人物各循其性之自然, 則其日用事物之間, 莫不各有當行之路, 是則所謂道也.]"라고 하였다.

312) 이절(二節)은 …… 말했다. : 《중용장구》 제1장에 "희로애락의 감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하고, 일단 일어나서 모두 절도에 맞게 되는 것을 화라고 하니, 중이란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요, 화라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도이다.[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라고 한 말을 합쳐서 동(動)할 때의 공부와 정(靜)할 때의 공부를 설명한 말이다.

313) 희로애락이 …… 중이다 : 《중용장구》 제1장에 "희로애락의 감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한다.[喜怒哀樂之未發謂

라고 하고, ‘중(中)은 천하의 대본이다.’[314]라고 말한 것은 성(性)의 대본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그 ‘도(道)란 잠시도 떨어질 수 없으니 떨어지면 도가 아니다.’[315]라고 하고, 또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316]라고 하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도이다.’[317]라고 한 것은 도의 전체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그 ‘보지 않는 것에도 경계하고 삼가며 듣지 않는 것에도 두려워한다.’[318]라고 한 것은 존양(存養)의 일이고 성을 따르는 법이다. 그 ‘숨은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작은 것보다 잘 나타나는 것이 없으므로 군자는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간다.’[319]라고 한 것은 성찰(省察)의 일이고 도를 닦는 법이다. 그 ‘중(中)과 화(和)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길러진다.’[320]라고 한 것은 중화(中和)의 지극한 공(功)이고 성인의 가르침이니 실로 성(性)과 도(道)에 근본 한 것이다. 삼가 조목을 나누어 도(圖)를 작성하여 잊지 않고 때때로 익히도록 갖추어놓고, 또 지혜 있는 자의 교정을 기다린다.

之中.]”라는 말이 나온다.

314) 중(中)은 …… 대본이다 : 《중용장구》 제1장에 “중은 천하의 큰 근본이다.[中也者 天下之大本也]”라는 말이 나온다.

315) 도(道)란 …… 아니다 : 《중용장구》 수장(首章)에 자사가 말하기를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으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라고 하였다.

316) 발하여 …… 화(和) : 《중용장구》 제1장에 “일단 일어나서 모두 절도에 맞게 되는 것을 화라고 한다.[發而皆中節謂之和.]”라는 말이 나온다.

317) 화라는 …… 도이다 : 《중용장구》 제1장에 “화는 천하의 공통된 도이다.[喜和也者, 天下之達道也.]”라는 말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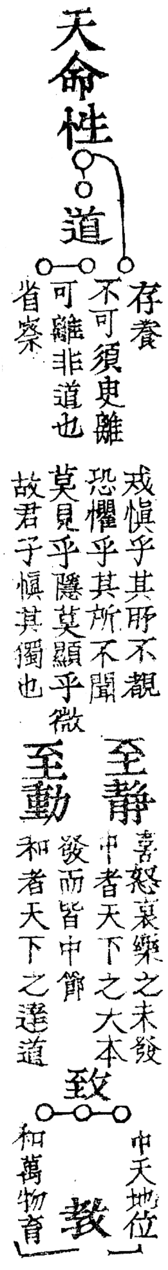
318) 보지 않는 …… 두려워한다 : 《중용장구》 수장(首章)에 자사가 말하기를 “군자는 보지 않는 것에도 경계하고 삼가며 듣지 않는 것에도 두려워한다.[君子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라고 하였다.

319) 숨은 …… 삼간다 : 《중용장구》 수장(首章)에 자사가 말하기를 “숨은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작은 것보다 잘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간다.[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라고 하였다.

320) 중(中)과 …… 길러진다 : 《중용장구》 제1장에 “중(中)과 화(和)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잘 생육될 것이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라고 하였다.

《중용》수장 존양성찰지도

中庸首章存養省察之圖



삼가 살펴보건대 주자가 말하기를 "계신공구(戒愼恐懼)로부터 검속(檢束)하여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편벽되고 치우친 것이 없게 되어 그것을 지켜서 잃지 않는 데 이르면 그 중을 지극히 하여 천지가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321] 근독(謹獨)으로부터 정밀하게 하여 사물을 응하는 곳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 가는 곳마다 그렇지 않음이 없는 데 이르면, 그 화(和)를 지극히 하여 만물이 생육 될 것이다."[322] 라고 하였다. 대개《중용(中庸)》수장(首章)의 조맥(條脉) 공부(工夫)는 여기에서 다 말했고, 학자가 공부하는 처음과 끝마침이 또한 여기에 다 있으니 이른바 죽도록 써도 다 쓸 수 없는 것이다.

삼가 주자의 말로 인하여 조항을 나누어 도(圖)를 그려서 눈을 붙여 생각하고 살피는 도구로 삼았다.

---

321) 계신공구(戒愼恐懼)로부터 …… 것이다 :《중용장구》수장의 끝구절에서 "중(中)과 화(和)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잘 생육될 것이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자의 주에 "계신공구로부터 검속하여 지극히 정한 가운데 편벽되고 치우친 것이 없게 되어 그것을 지켜서 잃지 않는 데 이르면 그 중을 지극히 하여 천지가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自戒懼而約之, 以至於至靜之中, 無所偏倚而其守不失, 則極其中而天地位矣.]"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322) 근독(謹獨)으로부터 ……것이다. :《중용장구》제1장에 "중(中)과 화(和)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잘 생육될 것이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자의 주에 "근독(謹獨)으로부터 정(精)히 하여 사물을 응하는 곳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 가는 곳마다 그렇지 않음이 없는 데 이르면, 그 화(和)를 지극히 하여 만물이 생육될 것이다.[自謹獨而精之, 以至於應物之處, 無少差謬而無適不然, 則極其和而萬物育矣.]"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

다만 중용에서는 비록 경(敬)을 말하지 않았으나 경이 아니면 존양·성찰의 공부를 이룰 방법이 없기에 주자가 말하기를 "군자의 마음은 항상 경외(敬畏)를 보존하여 비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더라도 또한 함부로 소홀히 할 수 없다."[323]라고 하였다. 정자(程子) 또한 말하기를 "학자는 먼저 경을 얻는 방법을 이해함만 같은 것이 없으니 경에 능하면 저절로 이것을 알게 된다."[324]라고 하였으니 학자는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또 살펴보면 계신공구(戒愼恐懼)는 미발(未發)의 근독(謹獨)이요, 막현막현(莫見莫顯)은 기발(旣發)의 근독(謹獨)이니 이것이 존심(存心)·치지(致知)·체용(體用)을 서로 닦는 법이다.

존양(存養)은 아직 솔성(率性)의 전이고 성찰(省察)은 이미 수도(修道)의 뒤이다. 비록 솔성의 전이라도 천명(天命)의 성(性)은 분명하게 그대로 있다. 마땅히 이때 계구(戒懼)하여야 하니 바로 미발(未發)의 전에 존양(存養)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

323) 군자의 …… 없다. : 《중용장구》 제1장 "이 때문에 군자는 그 보지 않는 바에도 경계하고 삼가며 그 듣지 않는 바에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다.[是故, 君子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라는 구절에 대한 주희의 주에, "군자의 마음은 항상 '경'과 '외'를 보존하여 비록 보고 듣지 않을 때라도 또한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하니, 이 때문에 천리의 본연함을 보존하여 잠시도 도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君子之心, 常存敬畏, 雖不見聞, 亦不敢忽, 所以存天理之本然, 而不使離於須臾之頃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324) 학자는 …… 된다 : 《이정유서》 권18 〈이천선생어〉 83조에 제자가 미발 때를 동(動)이라고 해야 할지 정(靜)이라고 해야 할지에 대해 묻자, 이천은 "정이라고 하면 된다. 그러나 정 가운데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니,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곳이다. 배우는 이는 우선 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경을 잘하면 절로 이것을 알 것이다.[謂之靜則可, 然靜中須有物始得, 這裏便一作最是難處, 學者莫若且先理會得敬, 能敬則自知此矣.]"라고 하였다. 또 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주일만 한 것이 없다.[莫若主一.]"라고 하였다.

《중용》분절변의

中庸分節辨義

삼가 생각건대《중용(中庸)》한 권의 책은 자사(子思)가 도를 전한 글이다. 우러러 옛날을 상고해보면 복희(伏羲)[325]는 획(畫)을 긋고, 문왕(文王)은 단(彖)을 쓰고,[326] 주공(周公)은 사(辭)를 쓰고, 공자(孔子)는 십익(十翼)을 지었다.[327]《시(詩)》·《서(書)》·《예(禮)》·《악(樂)》의 경(經),《논어(論語)》·《맹자(孟子)》·《춘추(春秋)》의 책에 이르러서는 간절(切)하고 명적(明的)하고 온인(溫仁)하고 정려(正厲)한 자태가 수연(粹然)하게 성현(聖賢)의 성정(性情)을 드러내는 것이 진실로 한두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때에는 고금이 있고 풍속에는 순박함과 경박함이 달라서 그 한때의 언어가 규침(規箴)·경절(警切)의 사이에서 발한 것이 혹, 상략(詳略)의 같지 않음이 있고, 고하(高下)의 난이(難易)가 있어서, 혹 당겨도 펼쳐지지 않고, 펼쳐져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쉽게 그 단서(端緖)를 볼 수 없다. 그 체용(體用)·본말(本末)·거세(巨細)·대소(大小)를 모두 포함(包含)하여 스스로 하나의 책을 만들었는데 하나의 책 가운데에 다 포괄하여 철두철미하게 시종을 갖춘 것으로《중용》한 책의 상세함과 절실함만 같은 것이 아직 없다.

---

325) 복희(伏羲) : 중국 삼황(三皇)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복희(宓羲), 포희(包犧), 포희(庖犧), 복희(伏戲), 여희(虙犧), 희황(犧皇), 황희(皇犧)라고도 한다. 수인씨(燧人氏)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처음 팔괘를 그리고 서계(書契)를 만들었다고 한다. 복희씨(伏羲氏) 때에 등에 1에서부터 10까지의 문양이 그려진 용마(龍馬)가 나왔는데 이것이 하도(河圖)로, 복희씨가 이를 보고 세 획으로 이루어진 팔괘(八卦)를 그렸다고 한다. 또 하(夏)나라 우(禹) 임금 때 등에 1에서 9까지의 점이 박혀 있는 거북이 나왔는데 이것이 곧 낙서(洛書)로, 우 임금이 이를 보고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만들었다고 한다.《尙書正義 洪範, 顧命》

326) 문왕(文王)은 …… 쓰고 : 상(商)나라 말기에 주(紂)의 신하 숭후호(崇侯虎)가 성인의 덕을 지닌 서백(西伯) 문왕을 시기하여 주에게 참소하여, 문왕은 유리(羑里)의 감옥에 갇혔다. 이때 문왕은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리면서 64개의 괘마다 단사(彖辭)를 붙였다고 한다.《周易 繫辭》

327) 공자(孔子)는 …… 지었다 : 공자의 십익(十翼)은《주역》가운데 공자(孔子)가 지은〈단전 상(彖傳上)〉·〈단전 하(彖傳下)〉·〈상전 상(象傳上)〉·〈상전 하(象傳下)〉·〈계사전 상(繫辭傳上)〉·〈계사전 하(繫辭傳下)〉·〈문언(文言)〉·〈서괘(序卦)〉·〈설괘(說卦)〉·〈잡괘(雜卦)〉의 십전(十傳)을 가리킨다.《역(易)》의 작자에 대해선 여러 이설(異說)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복희씨(伏羲氏)가 팔괘(八卦)와 64괘(卦)를 그렸으며, 문왕(文王)이 이것을 연역하여 괘사(卦辭)를 짓고 주공(周公)이 효사(爻辭)를 짓고, 공자가 십익(十翼)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일찍이 이 책을 읽고 자사(子思)가 앞 성인이 발하지 않은 온축된 도를 발한 것을 알았고, 또 《장구(章句)》를 읽고 주자가 앞의 현인이 발하지 않은 뜻을 발명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근본을 구하여 말에 미치게 하고, 그 흐름을 얻어서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간 것을 아침에 생각하고 저녁에 읽어도 좁은 소견[蠡測][328]에 만에 하나 없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감히 말하기를 "자사가 성도교(性道敎) 세 글자를 한 편의 강령(綱領)으로 삼은 것은 명명덕(明明德) 세 글자를 대학의 강령으로 삼은 것과 같다. 한편 가운데에 만 가지 말과 만 가지 일이 성도교 세 가지 것의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시 실마리가 절이 되니 뜻이 매우 분명하고 맥락(脉絡)·조리(條理)가 저절로 단서(段緖)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대개 주자가 사절(四節)로 나누고 요씨(饒氏)[329]가 육절(六節)로 분절한 것은 비록 차이가 있더라도 뜻과 맥락은 모두 통하니 후생 말학인 내가 어찌 입을 놀리겠는가? 다만 내 뜻에서 망령되이 성도교(性道敎) 세 글자를 미루어 한 편의 강령으로 삼고 31장 가운데에서 구하였으니 그 강령의 요지는 각각 분파가 있고 상고할 만한 분단(分段)과 입절(立節)이 있는 것 같다.

가만히 생각건대 주자가 공맹과 밝음을 나란히 하여 어린 나이에 이 책을 받아 읽고 침잠(沉潛)하기를 반복하여 60세라는 오래된 이후에 《장구(章句)》를 이내 이루었으니 반드시 이 부분에 소견이 있을 것인데 끝내 상고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나의 어리석은 견해가 과연 망령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수백 번을 읽고 3개월을 생각하였지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의혹이 더욱 깊어짐을 보고는 과연 나의 의혹을 끝내 풀 수 없고, 의혹하면서도 풀 수 없어 차록(箚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이치에 박식한 군자의 질정을 기다린다. 특별히 나의 이론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전에 연구해놓은 것과는 다른 이론을 구할 뿐이다.

---

328) 여측(蠡測) : 고둥 껍데기로 바다의 깊이를 측량하는 것처럼 자신의 국량과 식견이 천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터득한 점이 없지 않다는 뜻의 겸사이다. 한(漢)나라 동방삭(東方朔)의 "대롱 구멍으로 하늘을 엿보고, 고둥 껍데기로 퍼서 바닷물을 재며, 풀줄기로 종을 치는 격이다.[以管窺天, 以蠡測海, 以莛撞鍾.]"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文選 권45 答客難》

329) 요씨(饒氏) : 송나라 말기의 이학가(理學家)인 요노(饒魯)를 가리킨다. 그는 여간(餘干) 사람으로, 자가 백여(伯與), 중니(仲尼)이며, 황간(黃幹)의 문하(門下)로서 석동서원(石洞書院)을 세우고 강학하였다. 그의 학문은 주희를 근본으로 하였으나, 주희의 학설을 그대로 고수하지만은 않았다. 《오경강의(五經講義)》·《어맹기문(語孟紀聞)》·《근사록주(近思錄注)》 등을 저술하였다.

《중용》 분위오대절

中庸分爲五大節

수장(首章)이 저절로 제일대절(第一大節)이 된다. 이 절에서는 '성도교(性道敎) '세 글자를 말하니 한 편의 강령(綱領)이 된다.

중니(仲尼)의 '왈장(曰章)'으로부터 '귀신장(鬼神章)'까지가 제이대절(第二大節)이 된다. 이 절은 성도교 세 글자 중에 도(道)를 끄집어내어 말했다. 맨 먼저 '도지난행난명(道之難行難明)'을 말하고, 이어서 '지인용(知仁勇)' 세 글자를 말해 도(道)에 들어가는 문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군자(君子)의 도'를 말했으니 가깝게는 부부(夫婦)로부터 멀리는 천지(天地)에 이르고 '귀신 불견불문지극(鬼神不見不聞之極)'에 이른 연후에 그쳤다.

'순기대효장(舜其大孝章)'으로부터 '애공문정장(哀公問政章)'까지가 제삼대절(第三大節)이 된다. 이 절은 상절(上節) '지비지은지도(至費至隱之道)'를 이어서 성인의 가르침이 또한 지비(至費)하고 지은(至隱)함을 말했다. 대개 맨 먼저 성인의 가르침은 한 가정에서 말미암고 한 가정의 가르침은 효보다 큰 게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대순(大舜)·문무(文武)·주공(周公)의 효로써 말했다. 다음으로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극치를 말했으니 성인의 가르침 또한 여기에 이르러 더할 것이 없게 된다.

'성명장(誠明章)'부터 '유천하지성장(惟天下至誠章)'까지가 제사대절(第四大節)이 된다. 이 절은 상절(上節) '천도인도지언(天道人道之言)'을 이어서 '성도교(聖道敎)' 세 가지 것의 의(義)를 통론(統論)했다. 대개 천도(天道)·인도(人道)의 의(義)는 다음 장이 앞장보다 점점 고원해져서 천도를 말하면 '진기성(盡其性)'에서 시작하여 '천류돈화지극(川流敦化之極)'에서 끝마치고, 인도를 말하면 '치곡(致曲)'[330]에서 시작하여 '발육만물지성(發育

---

330) 치곡(致曲) : 성(誠)이 미흡하여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대현(大賢) 이하의 사람들도 자기의 부분적인 선단(善端)을 확대하여 지성(至聖)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중용장구》 제23장에 "천하지성의 성인 다음가는 사람도 부분적인 선을 점차 확대해서 지성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부분적인 선단으로도 내면이 성실해질 수 있으니, 내면이 성실해지면 밖으로 금방 드러나고, 일단 드러나면 갈수록 현저해지고, 현저해지면 환히 밝아지고, 환히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이 감동을 하면 변화되고, 변화되면 동화된다. 이와 같이 오직 천하의 지성이어야만 남을 동화시킬 수

萬物之盛)'에서 끝마치니, '성도교(性道教)' 세 가지 것의 의(義)는 그 안에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게 된다.

말장(末章)은 저절로 제오대절(第五大節)이 된다. 이 절은 제일절(第一節)과 서로 합치된다. 다만 제일절(第一節)은 은(隱)은 말하여 비(費)에 이르고, 여기의 일절(一節)은 비(費)를 말하여 은(隱)에 이른다. 대개 수장에서 '근독지사(謹獨之事)'를 말하고 미루어 '천하평지성(天下平之盛)'에 이르고, 말장(末章)은 '화민지교(化民之教)'의 말로 시작하여 다음으로 '덕유여모(德輶如毛)'를 말하여 솔성(率性)의 도(道)를 풀이했다. 마지막에는 '무성무취(無聲無臭)'를 말하여 천명(天命)의 성(性)을 풀이했다. 정(程) 선생의 이른바 '마지막에 다시 합하여 일리(一理)를 만들었다.'[331]라는 것이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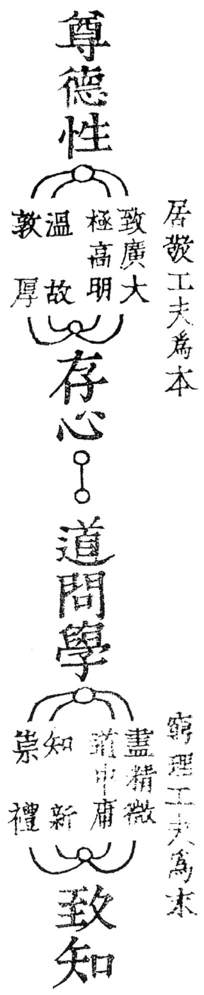
있는 것이다.[其次致曲, 曲能有誠, 誠則形, 形則著, 著則明, 明則動, 動則變, 變則化, 唯天下至誠, 爲能化.]"라는 말이 나온다.

331) 마지막에 …… 만들었다 : 《중용》의 체제에 대해 정자가 "《중용》은 처음에 일리를 말하고, 중간에 흩어져서 만사가 되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합하여 일리가 되었다.[其書始言一理, 中散爲萬事, 末復合爲一理.]"라고 한 말을 가리킨다. 《중용장구》 제1장 원문 아래 주석으로 소개되어 있다.

덕성문학도

德性問學圖

《중용(中庸)》의 이 일절(一節)은 학문하는 본말공부(本末工夫)를 다 갖추고 있어서 선유(先儒)가 이것에 삼가지 않음이 없었지만 다만 우리 자양(紫陽)[332] 선생만이 더욱 이것에 정밀(精密)하였다. 평소에 힘쓰는 것이 이 두 가지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333] 이에 삼가 손으로 그려서 도(圖)를 만들어 항상 마음과 눈으로 관찰하고 살피었고, 또 진서산(眞西山)[334]의 《심경心經》 말장(末章)과 황돈(篁敦)이 주워 모은 전체 대용(大用)의 설을 참고하였다.[335]



---

332) 자양(紫陽) : 안휘성(安徽省)에 있는 산 이름인데, 여기서는 송(宋)나라 주희를 가리킨다. 주희의 아버지 주송(朱松)이 안휘성(安徽省) 흡현(歙縣)에 있는 자양산(紫陽山)에서 독서하였는데, 주희가 그곳에 청사(廳事)를 자양서당(紫陽書堂)이라 하였으므로, 자양은 주희의 호(號)가 되었다. 후세 사람들이 흡현에 자양서원(紫陽書院)을 세웠다.

333) 평소에 …… 않는다 : 《중용》에 보이는 도문학(道問學)과 존덕성(尊德性)을 말한다. 《중용장구》 제27장에 “군자는 덕성(德性)을 높이며 학문(學問)을 말미암는다.[君子尊德性而道問學.]”라고 하였다. 존덕성(尊德性)은 나에게 내재해 있는 천부(天賦)의 덕성을 지켜 가는 것으로 성의정심(誠意正心)이 이에 해당되고 도문학(道問學)은 외재해 있는 온갖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터득해 가는 것으로 격물 치지(格物致知)가 이에 해당된다. 정주학파(程朱學派)에서는 도문학을 중시하는 한편 존덕성도 강조하였으며, 육왕학파(陸王學派)는 존덕성에 치중하였다.

334) 진서산(眞西山) : 남송(南宋)의 학자 진덕수(眞德秀, 1178~1235)로, 자는 경원(景元), 호는 서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복건성(福建省) 포성(浦城) 출신으로, 벼슬이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렀는데 강직하기로 유명하였다. 주자의 재전제자(再傳弟子)로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수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특히 성경현전(聖經賢傳)의 긴요한 내용을 뽑아 《심경(心經)》을 편찬하여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저서에 《대학연의(大學衍義)》·《서산독서기(西山讀書記)》·《문장정종(文章正宗)》·《서산문집(西山文集)》 등이 있다.

335) 황돈(篁敦)이 …… 참고하였다 : 황돈은 명(明)나라의 학자 정민정(程敏政, 1445~1499)의 별호로, 진덕수(眞德秀)의 《심경(心

오명중(吳明仲)[336]이 나를 용두초사(龍頭草舍)로 방문하여 며칠간 머무르면서 〈퇴계심통성정도(退溪心統性情圖)〉[337]를 읽고, '이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의 말에 이르러 명중이 의심하여 말하기를 "리(理)는 본래 적연부동(寂然不動)하니 어찌 리가 먼저 발하는 이치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당연히 처음에는 그의 말을 잠시 의심하여 답을 하지 못하였다. 물러감에 미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성(性)은 곧 리이니 그것이 미발(未發)을 당하여 리는 성에 갖추어져 있다. 그것이 기발(既發)에 미쳐서 리기(理氣)가 동(動)하여 정(情)이 된다. 그렇다면 이 리의 미동(未動)은 성이 되고 기동(既動)은 정이 되기 때문에 리는 본래 적막한 느낌이 있는데 적(寂)이라는 것은 체(軆)요 감(感)이라는 것은 용(用)이다. 이미 감(感)이라고 했다면 동(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리가 먼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이다. 리의 지선(至善)은 혹 어둡고 혹 박잡한 기에 섞이지 않으니 이것이 중절(中節)의 정이 되고, 기가 발하여 리가 따르는 것은 지선의 리가 기에서 명(命)을 들으니 이것은 부중(不中)의 정이 된다.[338] 어찌 리의 적연부동함이 마치 고목의 죽은 재처럼 반드시 기가 발하기를 기다린 후에 리가 따라서 발함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經)》에 여러 학자의 주석을 첨부하여 해설한 《심경부주(心經附註)》를 저술하였다.

336) 오명중(吳明仲) : 오이정(吳以井, 1619~1655)으로,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명중(明仲), 호는 장계(藏溪)이다. 1639년 사마양과(司馬兩科)에 합격하고 1651년 정시(庭試)에 응하였으나, 자급(資級)이 없다는 이유로 낙방하자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에 전념하였다. 저서로 《장계유고(藏溪遺稿)》가 있다.

337) 〈퇴계심통성정도(退溪心統性情圖)〉 : 심통성정(心統性情)은 장재(張載)가 만든 개념으로서 주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장재의 이 개념은 심(心)과 성정(性情)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지만, 이후로 이 개념을 발전시켜서 이(理)와 기(氣), 체(體)와 용(用)의 개념을 도입하여 심(心)을 해석하려고 하였다. 퇴계 이황은 임은 정씨(林隱程氏) 정복심(程復心, 1257~1340)의 《사서장도(四書章圖)》에서 영향을 받아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만들었는데, 그중 제6도 해당하는 것이 〈심통성정도〉이다.

338) 리가 …… 된다 : 이발기발(理發氣發)은 '이도 발하고 기도 발한다.[理氣互發]'라는 뜻으로,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제창한 설이다. 그가 처음에 "사단은 이의 발이고, 칠정은 기의 발이다.[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라고 주장했다가,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과의 토론을 거친 끝에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이다.[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라고 수정하며 논쟁을 마무리 지은 고사가 있다. 반면에, 율곡(栗谷)은 "사단(四端)과 칠정(七情) 모두 기(氣)가 발하는데 이(理)가 이에 타는 것(주재)이다.[四端七情, 皆氣發而理乘之.]" 하여,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說)을 주장하였다.

그 후에 황면재(黃勉齋)[339]가 "사물에 감응하여 동하는 경우, 혹은 기가 동하고 리가 따르며 혹은 리가 동하고 기가 낀다. 이로 말미암아 지선의 리가 기의 명령을 들으니 이로 인하여 선악이 갈라진다."라고 말한 것을 보았다. 그런 연후에 왕성히 크게 깨달았고, 또 퇴계 리발의 설을 알았으니 나의 소견이 아니고 유래가 있는 것이다.【명중의 이름은 이정(以井)이고 한림(翰林) 희도(希道)의 아들인데 상상(上庠)[340]에 올랐다가 일찍 죽었다.】

주자(周子)가 말하기를 "태극(太極)이 동(動)하여 양(陽)을 낳는다."[341]라 하니 대개 태극은 리이다. 만약 "리는 전혀 발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자가 무엇 때문에 "태극이 동한다."라고 말했겠는가? 주자(朱子) 또한 말하기를 "기에 이미 동정이 있으면 실린 리 또한 어찌 동정이 없겠는가?"라고 하였다. 대개 기란 리의 기(器)이다. 지금 기를 보니 또한 미악(美惡)이 있다. 만약 여기에서 리라고 한다면 하늘에 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본래 선악의 다름이 없다. 혹자가 주자에게 묻기를 "성(誠)이란 이 책의 추뉴(樞紐)이고 수장(首章) 한편의 요체인데 성(誠)을 말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수장의 천명지성(天命之性)의 성(性) 자는 21장 자성명(自誠明)의 성(誠)과 동의어이고,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의 도(道) 자는 20장의 성지(性之)의 성(誠)과 서로 유사하며,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教)의 교(教) 자는 25장의 성자비자성기야(誠者非自成己也)·소이성물(所以成物)의 성(誠) 자와 서로 흡사하다. 계구신독(戒懼

---

339) 황면재(黃勉齋) : 남송(南宋)의 성리학자 황간(黃榦, 1152~1221)으로, 자는 직경(直卿), 호는 면재,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민현(閩縣) 장계(長溪) 출신으로, 주희(朱熹)와 유청지(劉淸之)에게 수학하였는데, 주자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학문을 전수하고 사위로 삼았다.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에서 강학하였으며, 주자의 뜻에 따라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을 편찬하였다. 저서에 《오경통의(五經通義)》, 《사서기문(四書記聞)》, 《면재집(勉齋集)》 등이 있다.

340) 상상(上庠) : 태학(太學)을 말하는 것으로 곧 성균관(成均館)이다. 소과(小科)에 급제한 자들이 들어갔으므로 초시에 합격했다는 말로도 쓰인다.

341) 태극(太極)이 …… 낳는다 :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 "태극이 동하여 양을 낳아 동이 극에 달하면 정하고, 정하여 음을 낳아 정이 극에 달하면 다시 동한다.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함이 서로 그 뿌리가 된다.[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라고 하였다.

愼獨)[342] 즈음에 성(誠)이 없으면 진실로 망령되지 않을 수 없어서 존양성찰(存養省察)의 공부[343]가 세워지지 않게 된다. 미발에 중정(中靜)이 성(誠)이고 기발에 화동(和動)이 성(誠)이다.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길러지는 데에 이르면 지성(至誠)의 도(道)가 천지에 참여하여 화육(化育)을 돕는 극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장(首章)에서 비록 성(誠) 자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성(誠)의 도가 그 가운데에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2장의 물건을 그릇에 담는 것에 이르러서는 담긴 물건이 움직이면 그릇이 따라서 움직이고 그릇이 움직이면 담긴 물건 또한 움직일 것이다. 리와 기가 어찌 항상 서로 떨어짐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리가 발하면 기가 따른다.'라는 것이 과연 근거가 없겠는가?"라고 하였다.

매번 《중용》 수장에서 '천명을 일러 성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장구》에서 '기가 형을 이루면 리 또한 그곳에 부여된다.'[344]라고 하는 구절을 읽음에, 대개 자사(子思)가 다만 리를 말하고 기를 말하지 않았는데 주자(朱子)가 한 개 기(氣)자를 첨가해서 리는 허투루 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에 깃들게 하고 기는 스스로 선할 수 없으니 반드시 리에 도움을 받도록 밝혀놓았다. 이곳이 주자장구에서 앞에 현인이 발하지 못한 것을 발하여 크게 공이 있는 곳이다. 기가 비록 혼(昏)·명(明)의 다름이 있더라도 리의 밝은 것은

---

342) 계구신독(戒懼愼獨)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章)에 보인다.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보이지 않아도 조심하는 것이요, 들리지 않아도 두려워하는 것이다.[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 是故君子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라고 하였고, 바로 뒤에 "숨겨진 것보다 잘 드러난 것이 없고 작은 것보다 잘 나타난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가는 것이다.[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라고 하였다.

343) 존양성찰(存養省察)의 공부 : 정(情)이 발동하기 이전의 정시(靜時)에 마음을 보존하고 성품을 함양하는 공부와 발동한 뒤의 동시(動時)에 인욕이 싹트려는 기미에 살피는 공부를 말한다. 《중용장구》 제1장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경계하고 삼가며,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한 것은 존양공부를 가리키며 "반드시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必愼其獨也.]" 한 것은 성찰 공부를 말한다.

344) 기가 …… 부여된다 : 《중용장구》 제1장에 "하늘이 명하신 것을 성이라 이른다.[天命之謂性.]"라고 하였는데, 주희의 주(注)에 "하늘이 음양(陰陽)·오행(五行)으로 만물을 화생(化生)할 적에 기(氣)로써 형체를 이루고 이 또한 부여하니 명령함과 같다. 이에 사람과 물건이 태어남에 각각 부여받은 바의 이를 얻음으로 인하여 건순(健順)·오상(五常)의 덕을 삼으니, 이른바 성이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본디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이미 밝은 리를 따른다면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은 즉 형을 이룬 기이니 또한 하늘의 명이고, 사람의 기질에서 미악(美惡)의 다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음이 없다.

혹자가 묻기를 "《중용》은 실로 중화의 뜻을 겸했는데 기발의 뒤에 또한 중(中) 자를 썼습니까?"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그렇다. 발이중절(發而中節)의 중(中), 용기중어민(用其中於民)의 중(中), 군자시중(君子時中)의 중(中)은 기발의 중이고, 천하대본(天下大本)의 중(中), 치중(致中)의 중(中), 중립불의(中立不倚)의 중(中)은 미발의 중이다. 군자중용(君子中庸)의 중(中), 택호중용(擇乎中庸)의 중(中)은 기발·미발을 겸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혹자가 묻기를 "수장에 또한 비은(費隱)의 도(道)가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12장에서 '비이은(費而隱)'을 말했고, 수장에서 '은이비(隱而費)'를 말함에 대개 비(費)와 은(隱)[345]의 도는 일이 그렇지 않음이 없고, 물이 있지 않음이 없으니 크게는 천지요 은미하게는 부부(夫婦)이다. 티끌 하나의 작은 것과 만사의 광대함에도 리가 있지 않음이 없고 리에 은(隱)이 있고 비(費)가 있지 않음이 없다. 만약 수장으로 논한다면, 성(性)에서는 성 가운데에 비은(費隱)이 있으나 도(道)에서는 성(性)은 은이고 도는 비이다. 만약 오로지 도를 말하면 도 가운데 또한 비은이 있다. 교(敎)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비하여 은처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예악(禮樂)·형정(刑政)의 소이연(所以然[346])을 구한다면 또한 지극히 은(隱)한 것이 그곳에 있게 된다. 그 '잠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은 비이고, 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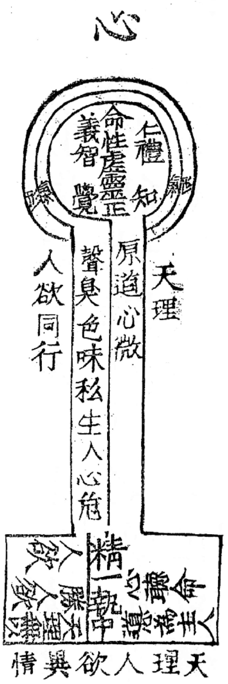
345) 비(費)와 은(隱) : 《중용장구》 제12장에 "군자의 도는 비하고 은하다.[君子之道, 費而隱.]"라고 하였는데, 그 주를 참고하면 "군자의 도는, 그 작용은 광대무변하지만 그 본체는 은미하여 알기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역시 《중용장구》 제12장 중 "《시경》에 '솔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노네.'라고 하였으니, 천지의 도가 위아래로 밝게 드러남을 말한 것이다.[詩云, 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의 주에 "자사는 이 시를 인용하여 만물을 낳고 기르는 천지의 기운이 흐르고 퍼져서 위아래에 분명히 드러남은 모두 이 이치의 운용임을 밝혔으니, 이른바 비이다. 그러나 그리된 까닭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이른바 은이다.[子思引此詩, 以明化育流行, 上下昭著, 莫非此理之用, 所謂費也. 然其所以然者, 則非見聞所及, 所謂隱也.]"라고 하였다.

346) 소이연(所以然) : 그렇게 된 원인, 즉 본체를 일컫는 말로 형이상자(形而上者)에 해당한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은이다. 그 ‘희로애락의 미발’이라고 한 것은 은이고 그 ‘발하여 절도에 맞다.’라고 한 것은 비이다. ‘은미한 곳에서 신독한다.’는 것은 은이고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길러진다.’는 것은 비이다. 그러나 비 가운데 은이 있고, 은 가운데 또한 지극한 은이 있으니 일면을 통찰하여 숙독하고 정밀하게 탐구하면 그 맛이 무궁할 것이다. 몸가짐을 지극히 단속하고 미치는 것이 지극히 넓은 것은 비은(費隱) 두 글자가 최고일 테니 지극히 정미함을 미루고 만 가지 변화를 확대하여 비은(費隱) 위에서 공부한다면 얻는 것이 매우 넓을 것이니 학자는 마땅히 백배로 사색해야 할 곳이다.”라고 하였다.

인심도심도

人心道心圖



성명(性命)을 통섭하고 형기(形氣)를 포괄하고 일신(一身)의 주재(主宰)가 되는 것은 심(心)이다. 리(理)는 기(氣)에 깃들고 기는 형(形)에 깃들고 심은 가운데에서 통섭하니 이른바 심이라는 것은 하나일 뿐이지만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리는 허령불매(虛靈不昧)[347]하니 심의 체(體)이고 지각운동(知覺運動)은 발하여 용(用)에 응하는 것이니 심의 용이다. 그 지각의 때를 당하여 성명(性命)의 바름[正]에 근원 하는 것을 '도심(道心)'이라 말하고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나는 것을 일러 '인심(人心)'이라고 한다. 이 때를 당하여 원(原)은 은미하여 드러나지 않고 생(生)은 쉽게 위태로움에 흐르니 두 가지 것의 경계(經界)가 처음에는 나누어져서 귀결처에 미치지 못할 뿐이다. 이 지경에서는 선악(善惡)·성광(聖狂)이 갈림길에 임한 것과 같아서 이에 성인이 정일(精一)의 공(功)을 더하여 중(中)을 잡았다.[348]

---

347) 허령불매(虛靈不昧) : 사람의 마음은 공허하여 형체가 없으나, 그 기능은 거울처럼 맑고 환함을 이른다. 《대학장구》 제1장의 '명덕(明德)' 주석에서 주희(朱熹)는 "명덕이란 사람이 하늘에서 타고난 것으로, 허령불매하여 뭇 이치[衆理]를 갖추어 만사(萬事)에 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348) 정일(精一)의 …… 잡았다 : 집중(執中)은 중도(中道)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순임금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치를 안 성인이기 때문에 요(堯) 임금이 그에게 제위를 선양하면서 '집중(執中)'이라는 말만을 전수하였고, 우 임금은 배워서 이치를 안 성인이기 때문에 순임금이 그에게 제위를 선양하면서 공력을 쓰는 차례를 가지고 전수한 것이라 말한 것이다.

도심을 위주로 하는데 이르러서는 인심이 명령을 듣고 간직한 마음[操存][349]이 출입함에 발한 것이 모두 절도에 맞게 된다. 중인은 정일(精一)의 공(功)을 이루지 못하여 사(私)에서 생기는 것이 위태롭고, 인욕이 골몰(汨沒)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바름에 근원 한 것이 은미하여 이미 끊어지게 된다. 선악(善惡)·성광(聖狂)은 여기에 이르러 서로의 거리가 만 리나 되고 득실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은 외면상의 행동은 같으나 내면의 실정은 다르다.'[350]라고 한 것이니 대개 요순(堯舜) 이후 정주(程朱) 이전의 전후 수천 년은 그 도리[一揆][351]를 닦고 같은 영역에 귀착되는 것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다. 그 말과 그 법은 모두 방책(方策)[352]에 실어 후세에 남겼으니 비록 저 같은 무지한 사람도 대충 경전 중에서 그 말들을 얻었다. 저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와 대충 그 방법을 통하고서 나처럼 포기한 자는 '자적(自賊)'[353]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일찍이 주자가 인심도심

349) 조존(操存) : 마음을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공자가 이르기를 '잡고 있으면 보존되고, 놓아 버리면 없어지며,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일정한 때가 없고, 어디를 향할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두고 말한 것이다.[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鄕 惟心之謂與]'하였다."라고 한 데서 나왔다.

350) 천리(天理)와 …… 다르다 : 송유(宋儒)인 오봉(五峯) 호굉(胡宏)이 "사람들이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을 대하는 것이, 외면상의 행동은 같아도 내면의 실정은 다르다.[天理人欲, 同行異情]."라고 말한 내용이 《심경부주(心經附註)》 〈인심도심장(人心道心章)〉에 나온다.

351) 일규(一揆) : 동일한 도리라는 말인데, 《맹자》 이루 하(離婁下)에서 맹자가 순(舜)임금과 주 문왕(周文王)의 정치를 논하면서, 비록 천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앞의 성인과 뒤의 성인의 그 도리가 똑같다.[先聖後聖, 其揆一也.]"라고 말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352) 방책(方策) : 서책(書冊)이다. 방(方)은 목판(木版)이고, 책(策)은 간책(簡策)인데, 옛날에 종이가 없을 때에 목판이나 간책에 모든 것을 기록하였으므로 서책의 대명사로 쓰인다.

353) 자적(自賊) : 스스로 해친다는 말로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나온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이고, 수오지심은 의의 단서이고,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이고,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이다. 사람이 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으니, 이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자기 군주가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군주를 해치는 자이다.[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知之端也.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有是四端而自謂不能者, 自賊者也, 謂其君不能者, 賊其君者也.]"라는 말이 나온다.

(人心道心)[354]의 설과 오봉(五峯)의 동행이정(同行異情)[355]의 말을 채집하여 손으로 그려 도를 완성하여 사색과 성찰의 도구로 삼았다. 그러나 과연 주자 선생의 뜻에 합당한지 모르겠다. 인하여 그 말들을 기록하여 지혜 있는 자가 질정해 주기를 기다린다.

---

354) 인심도심(人心道心) : 《고문상서(古文尙書)》 대우모(大禹謨)에 나오는 말이다. 원래 요(堯)가 순(舜)에게 전할 때에는 '윤집궐중(允執厥中)'이라는 네 글자에 불과하였는데, 순이 우(禹)에게 전할 때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했다고 한다. 주희(朱熹)가 이 대목을 요와 순과 우가 서로 도통(道統)을 전한 '십륙자 심전(十六字心傳)'이라고 강조한 뒤로부터 이 말이 송명(宋明) 이학(理學)에서 막중한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주희는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이 심성(心性)의 본체라는 이(理)의 측면에서는 하나라는 이일(理一)의 입장을 전제하면서도, 그것이 발현되어 나오는 용(用)의 분수(分殊)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심은 공정 무사한 이른바 '성명지정(性命之正)'에서 나오고 인심은 사벽(邪僻)의 요소가 내재한 이른바 '형기지사(形氣之私)'에서 나오는 만큼 도심과 인심은 둘로 나뉘어진다는 '도심인심위이(道心人心爲二)'라는 명제를 제기하고는, 여기에 이기(理氣) 및 선악(善惡) 등의 이론과 도덕 수양의 실천 문제를 결부시켜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반면에 육구연(陸九淵) 등은 정주(程朱)의 이러한 '일분위이(一分爲二)'의 마음에 대한 이론을 반박하며, 도심과 인심이 두 가지가 아니고 모두 지선(至善)의 본심(本心)인 만큼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을 도심과 인심으로 분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도심인심합일(道心人心合一)'의 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후로 이 두 학파의 논란이 끈질기게 계속되다가, 급기야는 청(淸) 나라 고증학자들의 실증적 조사 결과에 따라 《고문상서》가 위서(僞書)라는 판명이 내려지면서 이 논쟁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355) 오봉(五峯)의 동행이정(同行異情) : 오봉은 송나라 성리학자 호굉(胡宏, 1106~1161)으로, 자는 인중(仁仲), 오봉은 그의 호이다. 호안국(胡安國)의 아들로 남송 호상학파(湖湘學派)의 개창자다. 어린 시절 양시(楊時)와 후중량(侯仲良)에게 배웠으며, 아버지의 이학사상(理學思想)을 계승하여 도학 진흥을 평생의 임무로 여겼다. 저서로는 《지언(知言)》, 《황왕대기(皇王大紀)》 등이 있다. 호굉(胡宏)은 《지언(知言)》에서 천리와 인욕이 체는 같으나 용이 다르며[同體異用.], 행은 같으나 정이 다르다.[同行異情.]고 주장하였다. 주자(朱子)는 이러한 호굉의 주장 중에서 '체는 같으나 용이 다르다.[體異用.]'는 설은 비판하고 물리쳤으나, '행은 같으나 정이 다르다.[同行異情.]'는 설은 긍정하여 받아들였다. 즉 시청언동(視聽言動)이나 식색(食色)과 같은 행동은 성인도 범인과 마찬가지이지만, 성인은 그것이 예(禮)와 합치되게 함으로써 천리(天理)를 따른다는 점에서 정(情)이 다르다고 보았다. 《朱子語類 卷101 程子門人 胡康侯》

노재왕씨 인심도심도부

魯齋王氏人心道心圖附

삼가 살펴보건대 왕씨(王氏)[356]가 말하기를 "원(原) 자는 밖에서 미루어 들어간 것이니 그 본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미(微)'라고 한다."[357]라고 하였다. 제가 보건대, 원(原)은 근원(根源)과 같으니 도심(道心)이 성명(性命)에서 나온다는 말은 나무가 뿌리에서 발하고 물이 원천에서 흐르는 것과 같다. 대개 원(原) 자에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발하는 뜻이 있으니 '밖으로부터 미루어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밖으로부터 미루어 들어갔다고 말한다면 그 본래 있는 것은 무슨 물건인가 의심할 만하다. 이 도(圖)에서 특히 위에 정(正) 자를 쓰고 아래에 미(微) 자를 쓴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 성명(性命) 양변 4개 조목의 장화(長畫)와 미(微) 자 위에 횡화(橫畫) 또한 어떤 물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다. 그 의심난 것을 이상과 같이 다 기록하여 지혜 있는 자를 기다린다.

"공자는 네 가지를 끊어 없앴으니 사사로운 뜻이

---

356) 왕씨(王氏) : 노재(魯齋) 왕씨(王氏)는 송나라 때 절강성(浙江省) 금화(金華) 출신의 학자 왕백(王柏, 1197~1274)을 말한다. 자는 회지(會之)·백회(伯會), 호는 장소(長嘯)·노재(魯齋),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황간(黃榦)의 제자 하기(何基)에게서 배웠다. 하기(何基)·김이상(金履祥)·허겸(許謙)과 함께 금화(金華)의 네 선생, 북산(北山)의 네 선생으로 일컬어졌다. 주요 저술로는 《독역기(讀易記)》·《독서기(讀書記)》·《시변설(詩辨說)》·《천문고(天文考)》·《지리고(地理考)》 등이 있다.

357) 원(原)자는 …… 한다 : 왕백(王柏)이 〈인심도심도설(人心道心圖說)〉에서 "원(原)자는 밖에서 안을 미루어 그 본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미(微)라하고, 생(生)자는 사물에 감응하여 동함에 그 본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위(危)라 한다."라고 한 것과 "정(正)자와 사(私)자는 모두 밖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인심을 인욕이라 이를 수 없다."라고 한 것을 말한다.

없고, 기필함이 없고, 집착함이 없고, 아집이 없었다."[358]라고 하였다. 내가 일찍이 읽다가 여기에 이르러서 매번 유쾌하지 못한 뜻이 있어서 말하기를 "성인께서 의필고아(意必固我)에 대해 어찌 논이 없을 방법이 있겠는가? 절(絶)이라는 말은 공부를 끊어간다는 것을 말한다. 성인의 마음은 천지(天地)의 조화(造化)와 위아래에서 함께 흘러가니 힘쓰지 않아도 교화가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정성스럽게 되니 어찌 의필고아(意必固我)의 싹을 힘써 끊어가는 이치가 있겠는가? 안자(顔子)[359]의 지위에서도 조금 싹에 뜻을 두는 것을 면치 못했으나 곧 끊어졌다. '필(必)'이라고 하고, '고(固)'라고 하고, '아(我)'라고 하는데 이르러서는 비록 안자(顔子)도 곧 싹이 없어졌는데 하물며 공자이겠는가? 그렇다면 네 가지를 끊는 공부는 공자 문하에 염민(冉閔)[360]의 무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 내가 그러므로 매번 읽다가 여기에 이르러 반드시 왈(曰) 자를 자(子)자 아래에 더하여[361] 공자께서 문인을 힘써 나아가게 하는 말로 삼았다. 이 뜻이 모르겠지만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묻건대 "《대학(大學)》에서는 존양(存養)을 말하지 않고 성찰(省察)만을 자주 말했고, 《중용(中庸)》에서는 존양성찰(存養省察)[362]을 겸하여 말한

---

358) 공자는 …… 없었다 :《논어》〈자한(子罕)〉에 "공자는 네 가지를 끊어 없앴으니 사사로운 뜻이 없고, 기필함이 없고, 집착함이 없고, 아집이 없었다.[子絶四, 毋意毋必毋固毋我.]"라고 한 데 나오는 말이다.

359) 안자(顔子) : 공자의 제자이다. 노나라 애공(哀公)이 공자에게 학문을 좋아하는 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때 공자는 "안회라는 제자가 학문을 좋아하여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허물을 거듭 범하지 않더니, 불행히도 단명하여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으니 학문을 좋아하는 이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有顔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 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 未聞好學者也.]"라고 대답했다.《論語 雍也》

360) 염민(冉閔) : 공자 문하 열 명의 고제(高弟) 중에 염백우(冉伯牛)·민자건(閔子騫)을 가리킨다.

361) 왈자(曰子)를 …… 더하여 : '자절사(子絶四)'를 '자왈절사(子曰絶四)'로 고쳐서 해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경우 "공자께서 네 가지를 끊으셨다."를 "공자께서 네 가지를 끊을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고쳐 해석할 수 있다.

362) 존양성찰(存養省察) : 존양은 마음을 보존하여 성을 기르는 것[存心養性]을 이르며, 성찰은 자신의 사욕을 살펴 이를 막는 것을 이른다.《중용장구》제1장에 "군자는 보지 않는 데에도 삼가며 듣지 않는 데에 두려워한다.[君子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하였는데, 이것은 정(靜)할 때의 존양공부를 말한 것이며, 이어 "숨겨진 것보다 드러남이 없으며 작은 일보다 나타남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가는 것이다.[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 하였는데, 이것은 동(動)할 때의 성찰공부를 말한 것이다. 주자는《집주(集註)》에서 제1장의 이 부분을 "존양·성찰의

것은 어째서인가?” 말하기를 “이른바 ‘명덕(明德)’[363]은 미발(未發)·기발(旣發)을 다 포함해서 말했다. 미발의 전에는 존양할 수 없으니 어찌 헛되이 중리(衆理)를 갖출 수 있겠는가? 기발의 후에는 성찰할 수 없으니 또 어찌 신령하게 만사에 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 증자·자사가 서로 전수한 전(傳)이 한 터럭의 어긋남도 있지 않다. 그러나 경계하고 삼가는 공부를 적확하게 드러내어 분명하게 도를 말한 것은 의심컨대, 《중용》이 더욱 절실하다.

내가 일찍이 옛 성현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의 독실함을 보고는 돌이켜 내 몸에서 구하고, 그 하는 바를 살펴보고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빨개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 비록 한밤중이라도 사색이 여기에 이르면 나도 모르게 분발하여 일어나 정좌하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혹 화창한 봄과 비 갠 가을에 환한 천기(天氣)를 만나고, 혹 달 밝은 고요한 밤에 움직임이 다 사라진 적막함을 만나고, 혹 이름난 산과 아름다운 강에서 상쾌한 경계를 만나면 곧 심기(心氣)가 화평하고 태평해짐을 깨닫고는 다소 함양(涵養)의 기상(氣象)이 있고, 의연(依然)히 시를 읊고 돌아오는 흥취[咏歸之興]가 있었다.[364] 이것으로써 본다면 비록 최고 어리석은 기질이라도 모두 이 성(性)의 밝음을 얻어서 때때로 그 부분적인 선을 발현해 갈 수 있지만 치곡(致曲)[365] 할 수 없을까 걱정될 뿐이다.

요점[存養省察之要]”이라고 주하였다.

363) 명덕(明德) : 주희가 삼강령(三綱領)의 첫 번째인 명명덕(明明德)의 명덕(明德)을 풀이하면서 “명덕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서, 텅 비고 신령스럽고 어둡지 않아, 모든 이치를 구비하여 온갖 일에 대응하는 것이다.[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 以具衆理, 應萬事者也.]”라고 하였다.

364) 시를 …… 있었다 : 《論語 先進》 자로(子路)·염구(冉求)·공서적(公西赤)·증점(曾點)이 공자를 모시고 있었는데, 공자는 제자들에게 각각 뜻을 말하라 하였다. 자로를 비롯하여 염구·공서적은 각각 정치에 대한 것을 말했다. 공자는 비파를 타고 있던 증점에게 너도 말하라고 하니, 증점은 비파를 놓고는 “저의 뜻은 저들과는 다릅니다. 늦은 봄,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어른 5, 6명과 동자 6, 7명과 함께 기수(沂水)에 목욕하고 무우(舞雩)에 바람 쏘이며, 시를 읊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자는 외물(外物)에 구하지 않는 그의 높은 뜻을 가상히 여겨 “나는 증점을 허여(許與)한다.”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자(程子)는 “그의 가슴속이 유연하여 곧바로 천지만물과 상하에서 함께 통한다.[其胸次悠然, 直與天地萬物, 上下同流.]”라고 하였다. 《論語 先進》

365) 치곡(致曲) : 성(誠)이 미흡하여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대현(大賢) 이하의 사람들도 자기의 부분적인 선단(善端)을 확대하여 지성(至聖)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내가 학문한 지 10여 년인데 다만 우리 유자가 불교를 피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불교의 학문이 어떠한가는 깊이 알 수 없었다. 해 병술년(1646, 인조24) 봄에 우연히 용산승사(龍山僧舍)에서 한 늙은 중이 불씨 학문의 불경 한 권을 보여주어 읽어보고는 곧 선배 선생들이 이단을 배척하는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역상소결【경술년(1670, 현종11) 사이에 서생들을 위해 기록을 시작했는데 질병 때문에 송괘(訟卦)에서 그만두었다.】

易象小訣【庚戌年間, 爲諸生始述, 以疾病至訟卦而止.】

"건괘(乾卦) 초구효(初九爻)는 '잠겨있는 용'이니[366] 초구효가 변(變)하면 구괘(姤卦)가 되고 하괘(下卦)의 손괘(巽卦)는 반대(反對)로 하면 태괘(兌卦)가 된다. 태는 못[澤]이니 택을 거꾸로 하면 손괘(巽卦)가 되기 때문에 잠겨있는 상이 있게 된다."라고 하였다.

○ "건괘 구이효(九二爻)는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367]이니 구이효의 전상(田象)은 미상(未詳)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구이효가 변하면 동인괘(同人卦)가 되고 동인괘의 호괘(互卦)에는 손괘(巽卦)가 있고, 손괘의 반대가 태괘(兌卦)가 된다. 태(兌)는 강로(剛鹵)의 전(田)이 되기 때문에 전상(田象)이 있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치에 통한 것 같다."라고 하였다.

○ "건괘 구삼효(九三爻)는 '군자가 종일토록 부지런히 힘쓰고 저녁까지도

---

366) 건괘 …… 용이니 : 《주역》 〈건괘(乾卦) 초구(初九)〉에 "잠겨 있는 용이니 쓰지 말라.[潛龍勿用.]"라고 하였다. 건괘는 모두 양효(陽爻)로 이루어졌는데, 양효는 용을 상징하고, 특히 맨 아래의 초구는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잠룡(潛龍)으로 아무리 덕이 있는 군자라 하더라도 이 초구의 효사를 만나면 은둔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367) 건괘(乾卦) …… 있으니 : 《주역》 〈건괘(乾卦) 구이효(九二爻) 문언(文言)〉에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 봄이 이롭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見龍在田, 利見大人, 何謂也?]"라는 물음에 공자는 "대인은 용덕을 지니고 정중에 위치한 자이니, 평소의 말을 미덥게 하고 평소의 행동을 삼가서 사를 막고 성을 보존하며, 세상을 좋게 하고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며, 덕이 넓게 퍼져서 남들을 교화하는 자이다. 《주역》에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 봄이 이롭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군주의 덕이다.[龍德而正中者也, 庸言之信, 庸行之謹, 閑邪存其誠, 善世而不伐, 德博而化, 易曰: '見龍在田 利見大人 君德也.']"라고 답하였다.

두려워한다.”이니[368] 구삼효가 변하면 리괘(履卦)가 되고 리괘(履卦)의 호괘는 리괘(离卦)가 있다. 리(离)란 일(日)의 상(象)이고, 삼효는 하괘(下卦)의 끝이 되기 때문에 종일(終日)이라고 하였다. 두 개의 건(乾)이 서로 중첩되었기 때문에 건건(乾乾)의 상(象)이 있다. 건괘는 후천(後天)에 있는 자리가 술해(戌亥)가 된다. 해가 들어갈 때이기 때문에 석(夕)의 상이 있고, 리(离)는 심(心)에 속하기 때문에 척(惕)의 상이 있다.”라고 하였다.

○ “건괘 구사효(九四爻)는 ‘혹 뛰어오르거나 연못에 가만히 있다.’[369]이니, 구사효가 변하면 소축괘(小畜卦)가 되고, 호체(互體) 사(四)는 태(兌)의 상(上)이 되기 때문에 연못의 상이 있게 되어 태(兌)는 택(澤)이 된다. 또 구사효가 변하면 손괘(巽卦)가 되고 손(巽)은 고(股)이기 때문에 뛰는 상이 있다.”라고 하였다.

○ “건괘 구오효(九五爻)는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370]이니 구이효·구오효가 변하면 상하(上下)가 모두 리괘(离卦)가 된다. 리(离)란 일(日)이니 처음 지상에 나오면 현(見)의 상이 있게 되고 중천(中天)에 걸리면 비(飛)의 상이 있기에 구이효에서 ‘현(見)’이라고 하고 구오효에서 ‘비(飛)’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

368) 건괘 …… 두려워한다 : 《주역》 〈건괘(乾卦) 구삼효(九三爻) 문언(文言)〉에 “군자가 종일토록 부지런히 힘쓰고 저녁까지도 두려워하면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君子終日乾乾夕惕若, 厲, 無咎.]” 라고 한 것에 대해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덕을 진취시키고 학업을 닦으니, 충신은 덕을 진취시키는 방도이고, 말을 함에 있어서 그 성실함을 세움이 학업을 보유하는 길이다.[君子進德修業, 忠信, 所以進德也,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라고 하였다.

369) 건괘 …… 있다 : 《주역》 〈건괘 구사(九四)〉에 “혹 뛰어오르거나 연못에 가만히 있으면 허물이 없다.[或躍在淵, 无咎.]”라고 하였다. 〈문언(文言)〉에 “깊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용이 시기가 이르면 하늘로 뛰어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자가 “이것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것에 일정한 규칙이 없고, 절대로 사악한 목적으로 옮기지 않는다.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에 불변하는 규율이 없고 사람의 무리를 벗어나 자신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 군자는 덕을 증진시키고 공업을 닦아서 유리한 시기를 잡으려 하기 때문에 화가 없다.[九四曰: “或躍在淵, 无咎, 何謂也?” 子曰: “上下无常, 非爲邪也, 進退无恒, 非離羣也, 君子進德修業, 欲及時也, 故无咎.”]”라고 하였다.

370) 건괘 …… 있다 : 《주역》 〈건괘(乾卦) 구오(九五)〉에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飛龍在天, 利見大人.]” 한 데서 유래하였는데, 주희(朱熹)의 본의(本義)에 “성인(聖人)의 덕으로 성인의 지위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고, 공영달(孔穎達)의 소(疏)에 “성인이 용의 덕을 가지고 날아올라 천위(天位)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건괘 상구효(上九爻)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이다.’[371] 이니 건(乾)의 괘는 높이[上]에서는 하늘이 되고 지위에서는 군주가 되며 윤상[倫]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물(物)에서는 노마(老馬)가 된다. 높이는 하늘에서 다하고, 지위는 군주에서 다하고, 존엄하기는 아버지에서 다하고, 물(物)은 노(老)에서 다하기 때문에 사물의 높은 것은 하늘만 한 것이 없다. 상(上)은 또 하늘의 끝에 있기에 항(亢)의 상이 있다. 하괘(下卦)의 상은 척(惕)이고 상괘(上卦)의 상(上)[372]은 회(悔)이며 상(上)에 심상(心象)이 있는 것은 미상이다.”라고 하였다.

곤괘의 단사(彖辭)에 대하여 “‘암말이다.’[373]이니 건곤(乾坤)은 모두 말에서 상을 취했으니 마땅히 빈모(牝牡)로 건(乾)·곤(坤)을 구별했으므로 빈마(牝馬)이다. 지도(地道)가 비록 유(柔)하나 강건하지 않으면 하늘에 짝할 방법이 없어서 ‘마(馬)’라고 하였다. 말은 비록 강건한 물이지만 빈(牝)이란 성질이 유순(柔順)하기 때문에 ‘빈(牝)’이라고 하였다. 육효(六爻)가 모두 음(陰)이어서 마땅히 음이 다하여 변하면 양이 되니 말의 상이 있게 된다. 종국에는 비록 변하여 양이 되더라도 처음은 음에 근본하기 때문에 ‘빈(牝)’이라고 하였으니 건(乾)에 용의 머리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곤괘 초육효(初六爻)는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얼 것을 알게 된다.’[374] 이니 곤육(坤六)이 상빙(霜冰)을 취한 것은 미상이다. 운봉호씨(雲峯胡氏)[375]가 말하기를 ‘상(霜)은 일음(一陰)의 상이고 빙(冰)은 육음(六陰)의

---

371) 건괘 …… 용이다 : 《주역》 〈건괘(乾卦) 상구(上九)〉에 “하늘 끝까지 올라가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은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다.[亢龍, 有悔.]”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즉, 극히 존귀한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조심하고 겸양할 줄 모르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372) 상(上)은 문맥을 살펴 상(象)으로 해석하였다.

373) 곤괘 …… 암말이다 : 《주역》 〈곤괘(坤卦)〉에 “곤은 원(元)하고 형(亨)하고 이(利)하고 암말의 정(貞)함이다.[坤, 元, 亨, 利, 牝馬之貞.]”라고 하였다.

374) 곤괘 …… 된다 : 《주역》 〈곤괘(坤卦) 초육(初六)〉 효사(爻辭)에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얼 것을 알게 된다.[履霜堅氷至.]”라고 하였는데, 맨 아래에 있는 음효(陰爻)를 가리킨 것으로 아직은 밑에 있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점점 확대되면 결국 큰 죄악을 저지르는 변이 온다는 뜻이다. 서리를 밟으면 점점 굳어져 얼음이 되듯 조그마한 악이 점점 확대됨을 말한 것이다.

375) 운봉호씨(雲峯胡氏) : 운봉은 원(元)나라 때의 학자 호병문(胡炳文, 1250~1333)의 호이다. 그의 자는 중호(仲虎)로, 휘주(徽州) 무원(婺源) 사람이다. 가학(家學)을 돈독히 익히고 주자학에

상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괘의(卦義)로써 말한 것이다. 내가 생각건대, '곤(坤)은 10월에 순음(純陰)의 절기가 되고. 상빙(霜冰)은 그때에 견고해지기 때문에 상(霜)이라고 하고 빙(冰)이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 "곤괘 육이효(六二爻)는 '곧고 방정하고 위대하다.'[376]이니 이(二)는 하곤(下坤)의 중이기 때문에 오로지 지형(地形)으로써 말했다."라고 하였다.

○ "곤괘 육사효(六四爻)는 '주머니 끈을 묶듯이 한다.'[377]이니 육오효는 황색 치마이다.[378] 순구가(荀九家)[379]는 '곤(坤)이 낭(囊)이 되고 황(黃)이 되고 상(裳)이 된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색으로써 말하면 황(黃)이라 하고. 건(乾)을 대대(待對)한다는 점으로 말하면 상(裳)이라고 하고 물(物)을 담는 것으로써 말하면 낭(囊)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 "곤괘 상육효(上六爻)는 '용이 들판에서 싸운다.'[380]이니 그 혈(血)은 현황(玄黃)이고 용은 건(乾)의 상인데 곤(坤)이 용의 명칭을 얻은 것은 어째서인가?

잠심하였는데, 특히 《주역》에 뛰어났다.

376) 곤괘 …… 위대하다 : 《주역(周易)》 〈곤괘(坤卦) 육이(六二)〉에 "곧고 방정하고 위대하다.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直方大. 不習. 无不利.]"라는 구절이 있다. 〈곤괘 문언(文言)〉에 "군자가 경(敬)하여 안을 곧게 하고 의(義)하여 밖을 방정하게 하여 경과 의가 확립되면 덕이 외롭지 않다.[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라고 하였다.

377) 곤괘 …… 한다 : 《주역》 〈곤괘(坤卦) 육사(六四)〉에 "주머니 끈을 묶듯이 하면 허물도 없으며 칭찬도 없으리라.[括囊, 无咎, 无譽.]" 하였는데, 정이(程頤)의 전(傳)에 이르기를 "사(四)는 오(五)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서로 맞는 뜻이 없으니, 바로 상하(上下)가 막혀 있는 때이므로 이러한 때에 정도(正道)로써 자처함은 위태롭고 의심받을 수 있는 처지이다. 만약 그 지혜를 감추어 주머니 끈을 묶듯이 하여 드러내지 않는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해로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378) 육오효는 …… 치마이다 : 《주역》 〈곤괘(坤卦) 육오(六五)〉에 "황색 치마처럼 하면 크게 선하여 길하리라.[黃裳元吉]" 하였는데, 정이(程頤)의 전(傳)에 "황색[黃]은 중색(中色)이고, 치마[裳]는 아래에 입는 옷이다. 중도(中道)를 지키면서 아래에 거하면 크게 선하여 길할 것이니, 분수를 지킴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379) 순구가(荀九家) : 《주역》을 주석했던 순상(荀爽), 경방(京房), 마융(馬融), 정현(鄭玄), 송충(宋衷), 우번(虞翻), 육적(陸績), 요신(姚信), 적자현(翟子玄) 등 9인의 연구가를 말한다. 순상(荀爽)이 이들의 역설(易說)을 모아 《구가역(九家易)》 10권을 만들었다고 한다. 《與猶堂全書 1 雜纂集 권25 九家》

380) 곤괘 …… 싸운다 : 《주역》 〈곤괘(坤卦) 상육(上六)〉 에 "용이 들판에서 싸우는데, 그 피는 검고 누렇다.[上六, 龍戰于野, 其血玄黃.]"에서 나온 말로,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 이에 저항하여 바른 법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군자를 말한다.

음이 다하여 변하면 양이 된다. 곤은 순(順)인데 싸움[戰]의 상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는가? 곤괘는 상(上)이 변하면 박괘(剝卦)가 되고 박(剝)은 상(傷)의 상이다. 상(上)이 곤의 한 모퉁이가 되기 때문에 들[野]의 상이 있게 된다. 들이란 교전(郊甸)의 밖이다. 혈(血)에 이르러서는 감(坎)에 속하고 곤괘의 상(上)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뜻이 상세하지 않다. 이상을 살펴보면, 건이 상을 취한 것은 호변(互變)의 괘에 쓰임이 많고, 곤이 상을 취한 것은 본괘(本卦)에 쓰임이 많으니 대개 양은 동하고 음은 정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둔괘 단사(彖辭)에 대하여 "'후(侯)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381]이니 운봉호씨(雲峯胡氏)가 말하기를 '둔(屯)은 후(侯)를 세워 아래에 진동함이니 진(震)은 장자(長子)에게 후(侯)의 상이 있는 것이며, 초구(初九)의 후(侯)와 의미가 같다.'"라고 하였다.

○ "둔괘 초구효(初九爻)는 '주저하는 것이다.'[382]이니 진(震)은 발이 되기 때문에 반환(盤桓)의 상이 있게 된다. 육이효의 '어렵게 여기고 머뭇거리는 것[屯邅]' 또한 이런 뜻이다."라고 하였다.

○ "둔괘 육이효(六二爻)는 '여자가 말을 탄 것이 10년이 되었다.'[383]이니 〈설괘전(說卦傳)〉에서 '진(震)은 잘 울고, 잘 달리는 말이 되기 때문에 승마(乘馬)의 상이 있다.'라고 하였다. 육이효가 변하면 절괘(節卦)의 하괘가 태괘(兌卦)가 되니 태는 소녀(少女)이다. 그러므로 여자가 생육하지 않는[女不字] 상이 된다. 감육(坎六)·진사(震四)는 십이 되기 때문에 10년의 상이 있다. 또 상하의 음양효(陰陽爻) 또한 10의 수가 된다. 역에서 상을 취하는 신변불측(神變不測)이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

381) 둔괘 …… 이롭다 : 《주역》 〈둔괘(屯卦) 초구〉에 "초구는 주저하는 것이니, 정도를 지키는 것이 이로우며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初九, 盤桓, 利居貞, 利建侯.]"라고 하였다.

382) 둔괘 …… 것이다 : 《주역》 〈둔괘(屯卦) 초구〉에 "초구는 주저하는 것이니, 정도를 지키는 것이 이로우며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初九, 盤桓, 利居貞, 利建侯.]"라고 하였다.

383) 둔괘 …… 되었다 : 《주역》 〈둔괘(屯卦) 육이〉에 "어렵게 여기고 머뭇거리며 말을 탔다가 내려오니 적이 아니면 배우자리니, 여자가 정도(貞道)를 지켜서 생육을 하지 않다가 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생육을 하도다.[六二, 屯如邅如, 乘馬班如, 匪寇婚媾, 女子貞, 不字, 十年乃字.]"라는 구절이 있다.

○ “둔괘 육삼효(六三爻)는 ‘사슴을 좇아 숲속으로 들어간다.’[384]이니 삼(三)이 녹(鹿)에서 상을 취한 것은 자세하지 않다. 혹자가 말하기를 ‘녹(鹿)은 5를 가리켜서 말하고, 《황극내편(皇極內篇)》[385]에서 녹(鹿)은 일양(一陽)에 속하고 감(坎)괘의 일양(一陽)에는 녹(鹿)의 상이 있다.’라고 하니, 비슷하게 또한 통하는 것 같다. 임중(林中)의 하괘(下卦)는 진목(震木)이 되고 호괘(互卦)의 간(艮) 또한 진(震)의 반대이다. 상하가 모두 목(木)이기 때문에 임중(林中)의 상이 있다.”라고 하였다.

○ “둔괘 육사효(六四爻)는 ‘말을 탔다가 내려옴이다.’[386]이니 감(坎)과 진(震)은 모두 말의 상이 있기 때문에 ‘마(馬)’라고 했다. 그러나 육사효의 뜻은 ‘말에 올라 전진하고 싶지만 이미 말에서 이탈하여 머뭇거리게 된다.[離震馬]’는 것이다. 또 감(坎)이 말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마반여(下馬班如)의 상이 있게 된다.”라고 하였다.

○ “둔괘 구오효(九五爻)는 ‘은택을 베풀기가 어렵다.’[387]이니 감(坎)은 혈(血)에 속한다. 고(膏)란 혈(血)이 응고된 것이므로 고(膏)의 상이 있다.”라고 하였다.

○ “둔괘 상육효(上六爻)는 ‘말을 탔다가 내려와서 피눈물을 줄줄 흘리도다.’[388]이니 마(馬)의 상은 육사효의 감(坎)과 동일하다. 혈(血)을 형상한 것은

---

384) 둔괘 …… 들어간다 : 《주역》 〈둔괘(屯卦) 육삼(六三)〉에 “사슴을 좇되 우인(虞人)이 없어 길을 잃어 숲속으로 빠져 들어갈 뿐이니, 군자(君子)는 기미를 알아 버리는 것만 못하니, 그대로 가면 부끄러우리라.[六三, 即鹿无虞, 惟入于林中, 君子幾, 不如舍, 往, 吝.]”라는 구절이 있다.

385) 황극내편(皇極內篇) : 《황극내편》은 송(宋) 나라 채침(蔡沈)이 지은 《홍범황극내외편(洪範皇極內外篇)》을 말한다. 《서경(書經)》 홍범에 의거하여 《주역(周易)》과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서 3편의 논(論)과 구구원수도(九九圓數圖)·범수지도(範數之圖) 등 15도(圖)가 수록되어 있다. 범수는 모두 81수(數)로 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세 번째로 나오는 1의 3의 이름이 수(守)인데, 이것이 다시 81개의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386) 둔괘 …… 내려옴이다 : 〈둔괘(屯卦) 육사〉의 효사에 “말을 탔다가 내려옴이니, 배우자를 구하여 가면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乘馬班如, 求婚媾, 往, 吉, 无不利.]”라고 하였다.

387) 둔괘 …… 어렵다 : 《주역》 둔괘(屯卦) 구오(九五)에 “은택을 베풀기가 어렵다.[屯其膏.]” 하였는데, 정이천(程伊川)은 “군주의 은택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는 군주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자신에게 있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즉 신하가 권력을 남용하여 군주의 은택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388) 둔괘 …… 흘리도다 : 〈둔괘 상육〉의 효사에 “말을 탔다가 내려와서 피눈물을 줄줄 흘리도다.[乘馬班如, 泣血漣如.]”라고 하였다.

육오효와 같으나 오효(五爻)는 양이기 때문에 '고(膏)'라고 하였고, 육효(六爻)는 음이기 때문에 '혈(血)'이라고 하였다. 반여(班如)의 상은 미상이다." 라고 하였다.

몽괘 단사(彖辭)에 대하여 "'내가 동몽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다.'[389]이니 간(艮)은 소남(少男)이기 때문에 '동몽(童蒙)'이라고 하였다. 육오효도 같다." 라고 하였다.

○ "몽괘 초육효(初六爻)는 '사람을 형벌하여 수갑과 차꼬를 채운다.'[390]이니 구순가(荀九家)는 감(坎)을 질곡(桎梏)으로 보았으니 대개 일양(一陽)이 이음(二陰)의 가운데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을 형벌하여 질곡(桎梏)의 상이 있다. 그러나 초육효가 변하면 태괘(兌卦)가 되어 화설(和說)의 상이 있게 되므로 질곡(桎梏)에서 벗어난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 "몽괘 구이효(九二爻)는 '몽매함을 포용해주고 부인의 말을 받아들인다.'[391]이니 '자식이 집안일을 잘한다.[子克家]'이다. 일양(一陽)이 이음(二陰)에 빠져 몽매함을 포용[包蒙]해주는 상이 된다. 호괘(互卦)의 위는 곤괘(坤卦)가 되고 납부(納婦)의 상이 된다. 호괘(互卦)의 아래는 진괘(震卦)가 되어 장자(長子) 전가(傳家)의 상이 있게 된다. 혹자가 말하기를 '구이효가 변하면 곤괘(坤卦)가 된다. 그러므로 부(婦)의 상이 있다.'고 하니 또한 통한다."라고 하였다.

○ "몽괘 육삼효(六三爻)는 '여자를 취함에 쓰지 말 것이니 돈 많은 지아비를 보고 몸을 두지 못한다.'[392]이니 육삼효가 변하면 손괘(巽卦)가 된다. 손(巽)은 장녀(長女)가 되니 여자를 취하는 상이 있다. 손괘(巽卦)의 반대는 태괘

---

389) 몽괘 …… 아니다 : 《주역》 〈몽괘(蒙卦) 단(彖)〉에 "몽이 형통함은 형통할 도(道)로써 행하기 때문이니, 때를 얻었고 중도에 맞은 것이다. 내가 동몽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에게 구함이니 이는 뜻이 응함이다.[蒙亨, 以亨行, 時中也. 匪我求童蒙童蒙求我, 志應也.]"라고 하였다. 동몽이 뜻을 가지고 현자를 찾아가 뜻이 서로 통하였다는 말이다.

390) 몽괘 …… 채운다 : 《주역》 〈몽괘(蒙卦) 초육(初六)〉에 "몽매함을 개발하되 사람을 형벌하여 몽매한 질곡을 벗겨줌이 이로우니 그대로 가면 부끄러우리라.[發蒙, 利用刑人, 用脫桎梏, 以往, 吝.]" 라고 하였다.

391) 몽괘 …… 받아들이다 : 《주역》 〈몽괘(蒙卦) 구이(九二)〉에 "몽매함을 포용해주면 길하고 부인의 말을 받아들이면 길할 것이니 자식이 집안 일을 잘하도다.[包蒙, 吉, 納婦, 吉, 子克家.]"라고 하였다.

392) 몽괘 …… 못한다 : 《주역》 〈몽괘(蒙卦) 육삼(六三)〉에 "여자를 취함에 쓰지 말 것이니 돈 많은 지아비를 보고 몸을 두지 못하니 이로운 바가 없다.[勿用取女, 見金夫, 不有躬, 无攸利.]"라고 하였다.

(兌卦)가 되며 태는 금(金)이고 구이효는 양이 되므로 금부(金夫)의 상이 있다.”라고 하였다.

○“몽괘 상구효(上九爻)는 ‘침략을 막는 것은 이롭다.’[393]이니 상구효는 강결(剛決)의 성(性)으로써 지나치게 높은[過高] 지위를 담당하니 격몽(擊蒙)의 뜻이 있고 하체(下體)의 감(坎)은 은복(隱伏)의 뜻이 있다. 가시덤불 사이에 숨는다면 상구효의 강결(剛決)로써 어찌 공격을 막을 용기가 없겠는가? 그러므로 ‘침략하는 것은 이롭지 않고 침략을 막는 것은 이롭다.[不利爲寇利禦寇]’라고 하였다. 구(寇)는 감(坎)을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수괘(需卦) 단사(彖辭)에 대하여 “‘대천을 건넘이 이롭다.’[394]이니 감(坎)은 물이 위에 있고 건(乾)은 하늘이 아래에 있으니 물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이 낮은 물에 들어가는 것은 대천(大川)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수(需)에는 대천의 상이 있다. 수기(水氣)가 승천(升天)하여 맺혀서 비가 되고 만물이 필요로 하여 자란다. 그러므로 ‘수(需)’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수괘 초육효(初六爻)는 ‘들에서 기다린다.[初六需于郊.]’고 하고, 구이효는 ‘모래에서 기다린다.[需于沙.]’고 하고, 구삼효는 ‘진흙에서 기다린다.[需于泥.]’고 했다.[395] 건(乾)의 양(陽)은 아래에서 나아가는 것으로 뜻 삼으나 큰물이 앞에 있으므로 세 개의 양효(陽爻)가 모두 물의 원근(遠近)으로 말을 하였다. 교(郊)는 물에서 오히려 멀어 평광(平曠)의 항(恒)이 있으나 충격의 걱정이 없으니 ‘항상함이 허물이 없다.[用恒无咎.]’라고 하였다. 모래가 비록 물에 가깝지만 진흙이 지극히 가까움만 같지 못하므로 ‘조금 말이 있으나 길함으로 마친다.[小有言終吉.]’라고 하였다. 진흙은 파도가 격탕하는 장소이므로 ‘구난이 닥침을 부른다.[致寇至.]’라고 하였다. ‘교(郊)’라 하고 ‘사(沙)’

---

393) 몽괘 …… 이롭다 : 《주역》 〈몽괘(蒙卦) 상구(上九)〉에 “몽매함을 쳐야 하니, 침략을 하는 것은 이롭지 않고 침략을 막는 것은 이롭다.[擊蒙, 不利爲寇, 利禦寇.]”라고 하였는데, 몽매함을 깨우친다는 의미이다.

394) 수괘 …… 이롭다 : 《주역》 〈수괘(需卦)〉에, “수는 성신(誠信)이 있어 광명하여 형통하고 정하여 길하니, 대천을 건넘이 이롭다.[需有孚, 光亨貞吉, 利涉大川.]”라고 하였다.

395) 수괘 …… 했다 : 《주역》 〈수괘(需卦) 초구(初九)〉에 “먼 들녘에서 기다린다.[需于郊.]”라고 하고, 〈구이(九二)〉에 “모래밭에서 기다린다.[需于沙.]”라고 하고, 〈구삼(九三)〉에 “진흙에서 기다린다.[需于泥.]”라고 하였다.

라 하고 '니(泥)'라 하고 한 것은 건(乾)이 비록 세 가지 상이 없지만 모두 감(坎)의 상으로써 말했다."라고 하였다.

○ "수괘 육사효(六四爻)는 '피에서 기다림이니 나오기를 구멍으로부터 한다.'[396]이니 감(坎)은 혈(血)에 속함이 둔괘(屯卦) 오효에 보인다. 감(坎)은 담(窞)이고 담(窞)은 혈(穴)이니 상육(上六)은 같다."라고 하였다.

○"수괘 구오효(九五爻)는 '주식(酒食)에서 기다림이다.'[397]이니 운봉호씨(雲峯胡氏)가 말하기를 '주식은 감(坎)의 상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구오효가 변하면 곤(坤)이 되는데 곤은 토(土)이고, 토는 가색(稼穡)이 되는데 가색은 감(甘)이 되므로 구오효에는 주식의 상이 있게 된다.'"라고 하였다.

송괘 단사(彖辭)에 대하여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이니 '대천을 건넘이 이롭다.'[398]는 것은 구오효(九五爻)가 건괘(乾卦)에서 인(人)의 자리[位]가 되므로 '대인(大人)'이라고 하였다. 감(坎)은 아래에 있으므로 '대천(大川)'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 "송괘 초육효(初六爻)는 '다소 말이 있다.'[399]이니 수(需)의 육이효·송(訟)의 초육효는 모두 '소유언(小有言)'을 말했다. 상을 취함에 소유언의 뜻은 자세하지 않다. 혹자가 말하기를 '수괘(需卦)의 호괘(互卦)가 태괘(兌卦)가 되고, 송괘(訟卦)의 초육효가 변하면 또한 태괘(兌卦)가 된다. 태(兌)는 소녀가 되고 입[口]이 되므로 소언(小言)의 상이 있다.'고 하니 이치가 혹 통하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

---

396) 수괘 …… 한다 : 《주역》 〈수괘(需卦) 육사(六四)〉에 피에서 기다림이니 나오기를 구멍으로부터 하도다.[需于血, 出自穴.]"라고 하였다.

397) 수괘 …… 기다림이다 : 《주역》 〈수괘(需卦) 구오(九五)〉에 "주식에서 기다림이니 정하고 길하다.[需于酒食, 貞吉.]"이라 하였고, 상(象)에 "주식정길은 중정하기 때문이다.[酒食貞吉, 以中正.]"라고 하였다.

398) 송괘 …… 이롭다 : 《주역》 〈송괘(訟卦) 단사〉에 "대인을 봄이 이로움은 숭상함이 중정(中正)하기 때문이요, 대천을 건넘이 이롭지 않음은 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利見大人, 尙中正也, 不利涉大川, 入于淵也.]"라고 하였다.

399) 송괘 …… 있다 : 《주역》 〈송괘(訟卦) 초육〉에 "다투는 일을 영구히 하지 않으면 다소 말이 있으나 길하리라.[不永所事, 小有言, 終吉.]"라고 하였다.

○“송괘 구이효(九二爻)[400]는 ‘읍 사람이 삼 백호이다.’[401]이니 읍인 삼 백은 뜻을 취한 것이 상세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삼학재규의

三學齋規儀

매월 초하루 저녁에는 사장(師長)이 각각 가르치는 자제(子弟)를 일제히 모아 서당에서 이틀 밤을 잔다. 초하루 5경에 서재 학생 최연소자 한 사람이 북을 3번 쳐서 기상을 알린다. 제생(諸生)은 일제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유복(儒服)을 입고 상하재(上下齋)에 등을 밝게 밝힌 연후에 사장(師長)이 의관을 단정히 하고 북벽(北壁) 아래에 열 지어 앉는다. 장의(掌議) 1인, 집례(執禮) 1인, 유사(有司) 2인이 재장(齋長) 이하 제생을 인도하여 뜰에서 배읍례(拜揖禮)를 행한 연후에 재생(齋生) 중에 연소자가 일성(一聲)을 울리면 고하여 앉기를 청한다.

○재장(齋長)이 제생을 인도하여 하재(下齋)에 열 지어 앉게 한 연후에 유사(有司)가 서안(書案)·강적(講籍)·필연(筆硯)을 받들고 사장(師長)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올리고는 절하고 고하여 강(講)을 청한다.

○유사(有司)가 동서로 나뉘어 서로 마주 보고 앉은 후에 마땅히 강(講)하는 두 사람이 책을 끼고 나가서 자리 끝에 서서 배례(拜禮)를 하고, 그런 후에 책을 받들고 무릎을 꿇고 책상 위에 두고 물러나 자리에 앉는다.

○ 사생(師生)이 강문(講問)할 때에는 앉아있는 제원(諸員)이 잡다하게 타어(他語)·훤소(諠笑)·실의(失儀)해서는 안 되고 용모를 단정히 하고, 공경하고 엄숙하게 강론(講論)에 전념하여야 한다. 강론의 사이에는 얼굴을 펴고 기운을 화평하게 하고 의리(義理)를 힘써 다하고 함양(涵養)·종용(從容)하여 강(講)하는 학생이 비록 혹 미통(未通) 해도 대뜸 화를 내지 말아야

---

400) 육이(六二) : 원문은 육이(六二)이지만 바로잡아 구이(九二)로 해석하였다.

401) 송괘 …… 삼 백호이다 : 《주역》 〈송괘(訟卦) 구이〉에 “쟁송하지 못함이니 돌아가 도망하여 읍 사람이 삼 백호인 것처럼 하면 허물이 없으리라.[不克訟, 歸而逋, 其邑人, 三百戶, 无眚.]”라고 하였다.

하고 조롱하고 친압해서도 안 된다.

○강(講)을 마치고 나서 불통(不通)한 자가 있으면 유사(有司)가 매를 갖추어 벌을 청하고 사장(師長)이 벌(罰)을 시행한다.

○집례(執禮) 1인이 재장(齋長) 이하를 인도해서 하재(下齋)에 열 지어 앉는다. 제생 중에서 예를 잃은 자를 논할 때는 무거우면 사장(師長)에게 고하여 벌을 시행하고 가벼우면 스스로 결단해서 벌을 행한다.

○유사(有司)가 지필(紙筆)을 갖추어 글짓기를 청하여 벽 위에 걸어둔다. 제생은 이것을 등서 해서 물러가게 하지만 분주(奔走)·소어(笑語)·훤쟁(諠爭) 등의 실차(失次)가 없도록 한다.

○지면(紙面)을 정리하여 쌓아둘 때는 반드시 방정하게 하고, 서획(書畫)·자행(字行)은 반드시 끝이 고르게 한다. 종이가 가지런하지 않고 글이 어지럽고 흘려 쓴 자는 쓴 문장이 비록 기교가 있더라도 하고(下考)[402]에 배치한다.

○정서(正書)해 와서 상재(上齋)에 올린 연후에 물러나 하재(下齋)에 돌아간다. 서책(書冊)·필연(筆硯)을 정리해서 쌓아두고 단정하게 앉아서 기다려야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상재(上齋)를 엿보아서는 안 된다.

○고교(考較)의 등수는 상재(上齋)의 유사(有司)가 큰 소리로 호출(呼出)하고, 제생이 차례로 뜰에 줄지어 서서 배례(拜禮)를 하고 물러난다.

○모든 강례(講禮)의 의례는 보름에 또한 위의 의례와 같게 한다.

○재(齋)에 들어간 제생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정제하고 침구를 거둔다. 장자(長者)는 상하(上下)의 재당(齋堂)를 청소하고 소자(少者)는 중정(中庭)을 청소한다.

○각각의 자리에 단정히 앉아 서책을 공경히 마주하고 화평한 기운과 온화한 소리로 서서히 독송하면서 차례대로 사장(師長)에게 나아가 절하는 것을 마치 초하루에 강문(講問)하는 의식과 같이한다.

○사장(師長)이 가르침을 베풀고 제자(弟子)는 마음을 비우고 기운을 낮추어

---

402) 하고(下考) : 관리의 고과(考課)에서 하(下)의 표어(標語)를 붙인 것이다. 관리의 성적을 조사하는 데에 있어 관장(官長)은 부하의 성적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사하는데, 외관(外官)은 8자로, 경관(京官)은 4자로 평을 부치되 상·중·하의 3등으로 구별하여 포폄하였다. 《大典會通 吏典 考課》

두 손을 모으고 정숙하게 듣되 나태한 용모와 행동, 눈을 움직이고 손을 꼬지 않도록 한다.
○사장(師長)이 가르치기를 마치면 공손히 읍하고 물러 나와서 각각 자리에 돌아가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묻기를 청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관과 띠를 단정히 하고, 서 있을 때는 단정하고 정숙하고 앉아있을 때는 반드시 방정하여 관을 벗고 눕거나 띠를 풀고 걸터앉으면 안 된다. 장기·바둑을 이야기하는 것, 여색(女色)을 평가하는 것, 시시비비를 다투는 것, 남의 장단점을 힐난하는 것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독서에 힘쓰고 의리를 강토(講討)하고 예절을 판별하여야 한다. 혹은 자사(子史)를 읽고, 혹은 문장을 집필하고, 혹은 옛사람의 제도(制行)·고의(高義)를 담론하고, 혹은 옛사람의 시를 읊고, 혹은 책을 읽은 여가에 관을 쓴 아동 및 동년배와 당우(堂宇)를 산책하고 정계(庭階)를 배회하여 기운을 펴고 뜻을 신장하되 걸음은 더디고 무겁게 하고 행동거지는 단정하게 하여 어른과 아이의 차례를 잃어서 다투어 앞질러 다니고 지력(智力)을 다투어 보고 듣는 것이 부끄러운 데까지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서당의 기둥과 벽에 낙서해서는 안 되고 창이나 판자벽에는 글자를 써서는 안 된다.
○야간에는 책상을 정리하고 창과 문을 정숙하게 닫고 등을 밝히고 단정히 앉아 전에 읽은 것을 마음속에서 되풀이하고, 깊은 밤에 잘 때는 서책을 정리하여 높이 선반 위에 묶어놓는다. 각각 침소에 드는데 혹 봄·가을 좋은 계절에 달이 밝고 바람이 좋은 날 밤에는 뜰과 집안을 배회하여 기를 기르고 정신을 맑게 하고, 혹은 옛사람의 아름다운 시 구절을 모으고, 혹은 시운을 호명하면서 시를 짓되 편리한 대로 잠자리에 들거나 코를 골고 흐리멍덩하게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장자(長者)를 대할 때는 공경·겸손을 위주로 하고 동열(同列)을 대할 때는 화평·겸허를 위주로 한다.
○무릇 재생들은 뜻을 세우고 미래를 향해 원대(遠大)함으로 마음 삼는 것을 기약하여 지역 사회의 자잘하고 천박한 일에 대한 담론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마음을 세울 때는 공평(公平)·정직(正直)으로 뜻 삼아 세속의 치우친

개인적인 일이나 회피하는 말에 대해서는 잠시라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연장자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자(少者)는 먼저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되고 소자가 이미 일어났는데 장자가 누워있어서도 안 된다. 무릇 나가고 들어갈 때 연장자가 먼저 움직이면 소자가 앉아서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 서당의 문 안에 각 가정의 비복(婢僕)은 사령(使令)이 주간하는 일이 아니면 감히 일없이 문득 들어와서는 안 된다.
○ 무릇 초하루·보름에 강을 할 때는 각 가정의 노복(奴僕)이 감히 긴박하지 않은 개인적인 일로 시끄럽게 와서 고하여 강론하는 예의 자리를 흐려놓아서는 안 된다.
○ 초하루·보름에 강하는 날에는 평상복을 입은 자는 서당에 들어올 수 없다.
○ 모든 서당의 학생은 개인적인 손님·잡인을 끌어다가 서당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상 24조는 상재(上齋)·하재(下齋)의 집례(執禮)가 담당하고, 초하루·보름의 강(講)에 재생을 이끌고 당 아래에 줄지어 서서 큰 소리로 통독(通讀)하여 그들이 다 듣도록 한다. 재생은 각각 한 장씩 써서 공경히 받들어 행하되 만약 이 규의(規儀)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초하루·보름에 벌을 주어 경계로 삼는다.

신축년(1661, 현종2) 2월 30일에 처음 규의(規儀)를 만들었다.

南圃集

남포집

제 12 권

卷之十二

찬
贊

족계권후찬
族禊券後贊

씨족을 고찰해보건대	稽古氏族
김씨의 조상은 금천이라	金祖金天
아 훌륭하도다 우리 종조	於休我宗
성스러운 조선에서 기원했네	紀自聖鮮
사향으로 이주하여	粵徙姒鄕
지금까지 아홉 세대 전했네	世九今傳
군자의 은택이 끊어지고	澤斬君子
선대의 가업[403]이 실추되니	業墜靑氈
효성과 화목이 있지 않다면	不有孝睦
어찌 선조를 계승하랴	何用承先
이제부터 시작해서	式自此始
그 계통을 새롭게 하고	維新厥係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父父子子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다우리	兄兄弟弟
세대가 멀어져도 정은 친밀하고	世疏情密
복은 다해도[404] 뜻은 굳게 맺어	服盡意締

---

403) 가업 : 원문의 '청전(靑氈)'으로, 본디 푸른 모포를 말하는데, 가업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진(晉)나라 왕헌지(王獻之)가 누워 있는 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모조리 훔쳐 가려 할 때, 그가 "도둑이여, 그 푸른 모포는 우리 집안의 유물이니, 그것만은 두고 가는 것이 좋겠다.[偸兒, 靑氈我家舊物, 可特置之.]" 하자, 도둑이 도망쳤다는 고사가 있다.《晉書 王羲之列傳》

404) 복은 다해도[服盡] : 5대조가 같은 사람의 상사(喪事)에는 간단하게 단문(袒免)차림으로 애도를 표시함으로써 동성(同姓)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뜻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친족관계가 없어져 복(服)이 다했다고 말한다.

영강이 띠처럼 가늘어지고	靈江若帶
금악이 숫돌처럼 닳도록[405]	錦岳如礪
대대로 준수하며	世世遵守
공경히 복행하여 폐하지 말라	敬服無替

읍린찬[406]

泣麟贊

너의 발굽이 둥그니	爾蹄圓
누가 알랴 말이 아니라는 것을	誰知其非馬
너의 머리에 뿔이 있으니	爾頭角
사람들이 대부분 너를 소라고 하는구나	人多謂爾牛者
너는 덕이 있으니	爾有德
의당 마소가 있는 들판에 대은[407]이로다	宜大隱乎馬牛之野

---

405) 영강이……닳도록 : 장구한 세월을 말한다. '영강(靈江)'은 전라도 나주(羅州)를 지나는 영산강(榮山江)을, '금악(錦岳)'은 나주의 금성산(錦城山)을 가리킨다. 한 고조(漢高祖)가 천하를 평정한 뒤 공신들을 봉작(封爵)하면서 맹세하기를, "황하가 띠처럼 가늘어지고, 태산이 숫돌처럼 닳도록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여 이에 후손에 미치게 하겠다.[使河如帶, 泰山若礪, 國以永寧, 爰及苗裔.]" 라고 하였다.《史記 高祖功臣侯者年表》

406) 읍린찬(泣麟贊) : '읍린(泣麟)'은 기린을 위해 울었다는 말로, 세상이 쇠하고 도(道)가 다한 것을 슬퍼하는 뜻이다.《春秋公羊傳 哀公14年》

407) 대은(大隱) : 몸은 조정이나 저잣거리에 있으면서도 뜻은 높은 은자(隱者)를 말한다. 진(晉)나라 왕강거(王康琚)의 〈반초은시(反招隱詩)〉에 "소은은 산속에 숨고, 대은은 시조에 숨는다.[小隱隱陵藪, 大隱隱市朝.]" 하였다.

가봉찬

歌鳳贊

까마귀는 애벌레를 쪼고	烏啄壤虫
올빼미는 썩은 쥐[408]를 다투도다	鴟爭腐鼠
그래도 너는 지각이 있으니	猶有知覺
기색을 살피고는 멀리 날아가는구나[409]	色斯遐擧
더구나 너는 천 길의 날개가 있으니	況爾有千仞之翼
어찌 안개 노을 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랴	盍歸乎烟霞之所

408) 썩은 쥐 : 원문의 '부서(腐鼠)'로, 주로 부귀와 공명을 비유한다. 《장자(莊子)》 〈추수(秋水)〉에 "솔개가 썩은 쥐를 얻어 가지고 가다가 원추가 그 위를 날아가자 썩은 쥐를 빼앗길까 봐 '꽥' 하고 소리를 질렀다.[鴟得腐鼠, 鵷鶵過之, 仰而視之曰, 嚇.]" 하였다.

409) 기색을……날아가는구나 : 기미를 살펴 대처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색사(色斯)'는《논어》〈향당(鄕黨)〉에 "새가 사람의 기색을 보고 날아올라 한참을 빙빙 돈 뒤 내려와 앉는다.[色斯擧矣, 翔而後集.]" 하였다.

명
銘

창명
窓銘

밤은 이미 자시가 지나고	夜已子後
새벽닭이 울려할 때	鷄將鳴時
주인은 잠 못 들고	主人未寐
한 방에는 사욕이 없다	一室無私
바깥 객은 도둑질하고	外客偸賊
척후가 엿보나니	伺候覘闚
창문을 신중히 하여	窓乎愼之
손을 저어 물리치리라	麾而却之

호명
戶銘

한 방이 그윽하고 깊으니	一室幽深
고요하고 편안하다	玄靜安肅
주인이 깊숙이 거처하며	主人深居
조용히 느끼고 침묵한다	寂感隱默
인풍이 일어나서	仁風發揚
동쪽[410)]에서 불어오나니	吹自嵎峓
문을 신중히 하여	戶歟愼之
열고 들여야 하리	闢而納之

---

410) 동쪽 : 원문의 ‘우이(嵎峓)’로, 동방을 가리킨다. 《서경》 〈요전(堯典)〉에 “희중에게 따로 명하여 동쪽 에 살게 하니 양곡이라는 곳이다.[分命羲仲, 宅嵎夷, 曰暘谷.]” 하였는데, 공안국(孔安國)의 전(傳)에 “동쪽 밖의 땅을 우이라 일컫는다.[東表之地稱嵎夷.]” 하였다.

개과명

改過銘

사람은 지성(至聖)이 아니니	人非至聖
누군들 사욕이 없으랴	孰能無慾
사욕을 능히 이기는 것이	慾而能克
성인이 되는 방도이다	作聖之則
사람은 지성(至誠)이 아니니	人非至誠
누군들 과오가 없으랴	孰能無過
과오를 능히 고치면	過而能改
습관이 천성으로 변한다[411]	習與性化
사욕이 처음 싹틀 때는	慾之始萌
지극히 은미함이 털끝 같고	分毫至微
과오가 시작될 때는	過之造端
그 기미는 실 끝 같다	絲忽其幾
기미를 살피지 않고	幾微不察
그대로 방치한다면	任他放過
한 숨 쉬는 순간에	一息之頃
물과 불에 빠지리라	已陷水火
이미 빠져버린 뒤에	旣陷之後
후회한들 무엇 하랴	雖悔何及
이에 현철한 사람은	肆惟哲人
능히 그 기미를 삼간다	能謹其幾
그 홀로를 더욱 삼가고	曾愼厥獨
그 기미를 경계하길 생각하며	思戒其微
그 홀로를 삼가서 치평[412]에 이르고	獨達治平

411) 습관이 천성으로 변한다 : 노력하면 습관이 굳어 천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서경》 〈태갑 상(太甲上)〉에 "습관이 천성과 더불어 이루어진다.[習與性成.]" 하였다.

412) 치평(治平) : 나라가 다스려지고 천하가 평안해지는 것이다. 《대학장구》 경1장에 "사물의 이치가

그 기미를 경계해 위육[413]을 이룬다 微致位育
은과 현[414]이 같은 길이고 隱顯同途
중과 화가 하나의 길이라 中和一轍
지사는 능히 지키나니 志士能守
행하는 데서 지킨다 守之於行
과오를 반드시 알고 過必能知
알면 반드시 바로 잡는다 知必能正
밖을 제재하고 안을 안정시켜 外制內安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己克禮復
지극한 용기가 아니면 苟非至勇
어찌 그 사특함을 쳐낼까 詎斬厥慝
정밀히 하고 전일하게 하면[415] 旣精旣一
온 몸이 모두 생기가 있으리라 四體皆春
본체가 서면 묘용이 행해지고 體立用行
천하를 똑같이 사랑한다 天下同仁
아 아 소자야 嗟嗟小子
오직 경[416]을 밝히라 惟敬是明

이른 뒤에 앎이 지극해지고,……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평안해진다.[物格而后知至,……國治而后天下平.]"라고 하였다.

413) 위육(位育) : 만물이 모두 제자리에서 안정되어 길러짐을 뜻한다. 《중용장구》 제1장에 "중화(中和)의 도를 지극하게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진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하였다.

414) 은과 현 : 원문의 '은현(隱顯)'으로,《중용장구》 제1장에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작은 일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를 삼가는 것이다.[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 하였다.

415) 정밀히……하면 : 정일(精一)은 도심(道心)을 정밀하게 하고 전일하게 하는 것으로 《서경》 〈대우모(大禹謨)〉에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하게 하고 전일하게 하여야 진실로 그 중정의 도리를 가질 것이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하였다.

416) 경 : 경(敬)이란 원래 하늘[天]·신(神)·임금[君]·부모(父母) 등에 대한 경건하고 공손한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데, 성리학자들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전화(轉化)시켜 심성을 수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확립시켰다.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임에　視聽言動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417]　非禮勿行
글을 지어 뼈에 새기고　作辭銘骨
신명에게 질정해야 하리라　惟神是質

417) 보고……말라 :《논어》〈안연(顔淵)〉에, 공자의 제자 안연(顔淵)이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조목을 묻자, 공자가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송
頌

신명주군 극외적 송
神明主君克外賊頌

바른 길[418]은 사통팔달이요	正路路衢
옥 연못은 깊이 흐르니	玉淵淵流
하늘이 만든 명구로다	天作名區
천 층의 강궁[419]이	千層絳宮
허공에 우뚝 서서	屹立虛中
웅장하고도 높다	巖巖崇崇
누가 실로 무리를 주관하며	誰實尸羣
주재가 되어 성대한 무리 통솔하나	作宰統殷
깨어 있는 주군이로다	惺惺主君
주군은 신명하나니	主君神明
하늘의 법도를 쓰면	用天之經
평정되지 않는 적이 없다	無賊不平
준동하며 갉아먹는 적[420]은	蠢玆耗賊
틈이 생기는 걸 바라서	惟欲是隙
이내 명을 어긴다	乃命斯逆
밖으로는 오관[421]을 유혹하니	外誘五官
오관이 태만함을 따라서	五官從慢

418) 바른 길 : 원문의 '정로(正路)'로, 의(義)를 비유한다. 《맹자》 〈이루 상(離婁上)〉에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仁, 人之安宅也, 義, 人之正路也.]" 하였다.

419) 강궁(絳宮) : 도가(道家)에서 신선이 사는 궁전인데, 여기서는 사람의 마음[心]을 비유한 것이다.

420) 적 : 사욕을 의인화한 것이다.

421) 오관(五官) :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말한다.

적과 같아진다	與賊同般
안으로는 육부를 좀 먹으니	內蠹六府
육부가 먹히고 고혹되어	六府耗蠱
적을 받들어 주인으로 삼는다	奉賊作主
의마[422]가 날뛰니	意馬騰踏
그에게 복종하고	于彼服愜
나에게 와서 겁박한다	來我作劫
주군이 근심하고 괴로워하여	君用憂厲
신과 약속을 하고	與神爲契
상제의 명을 받든다	奉命上帝
이에 기의 군사를 안정시키고	爰定氣軍
지가 의의 무리를 거느리니	志帥意羣
모두 주군에게 통솔되었다	咸統於君
예의 병사는 신비하고	禮兵秘秘
의의 기병은 탁월하여	義騎犖犖
위엄 있는 의장이 삼백[423]이다	威儀三百
주군이 선봉의 기병을 쓰고	君用前騎
성벽 뚫어 소를 풀어 놓으니	鑿城縱牛
연나라 적군을 소탕[424]한 것 같다	如蕩燕寇
깎은 나무에 쇠뇌를 발사하고	斫樹發弩

---

422) 의마(意馬) : 제어하기 어려운 생각을 날뛰는 말에 비유한 것이다.《돈황변문집(敦煌變文集)》의 〈유마힐경강경문(維摩詰經講經文)〉에 "마음의 원숭이와 생각의 말이 미쳐 날뛰기를 그쳤다.[心猿意馬罷顚狂.]" 하였다.

423) 위엄……삼백 : 마음이 예(禮)와 의(義)로 잘 무장되어 있다는 뜻이다.《중용장구》 제27장의 첫머리에 "위대하도다. 성인의 도여! 양양히 만물을 발육하여 높기가 하늘에 닿았다. 넉넉히 크도다. 예의가 3백 가지요, 위의가 3천 가지이다.[大哉聖人之道, 洋洋乎發育萬物, 峻極于天. 優優大哉, 禮儀三百, 威儀三千.]"라고 하였다.

424) 성벽을……소탕 : 전국 시대 제(齊)나라 전단(田單)이 즉묵성(卽墨城)에서 연(燕)나라 군사에 포위되었을 때, 성안의 소 천여 마리의 뿔에 칼날을 매달고 꼬리에 불을 붙이고는 '성에 수십 군데 뚫은 구멍을 통해 밤에 풀어 놓아[鑿城數十穴, 夜縱牛.]' 연나라 진영으로 돌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연나라 군대를 대패시키고 70여 성을 되찾은 일이 있다.《史記 권82 田單列傳》

병기와 북소리 어지러이 맞붙으니	亂接兵鼓
위나라 방연이 길을 잃은 것과 같다[425]	魏龐失路
흉한 무리가 제거되자	兇耗旣蠲
연못의 물이 비로소 흐르고	淵流始涓
광활함은 하늘과 같다	廓乎如天
매는 옥만에서 날고	鷹揚玉灣
말은 인산에 누웠으며	馬臥仁山
장수는 개선하며 회군한다	將凱師班
음산한 기운 길이 사라지고	淫氛永屛
천군[426]은 크고도 고요하니	天君泰靜
온 몸이 명을 따른다	百體順命
마침내 영대[427]가 열리고	遂開靈臺
편안한 집[428]이 광대하니	安宅宏恢
만 가지 선이 절로 오리라	萬善自來

425) 깎은……같다 : 제나라의 군사(軍師) 손빈(孫臏)이 조(趙)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위(魏)나라로 쳐들어가면서 마릉에 이르러 나무를 깎아 하얀 면이 드러나게 한 다음 그 나무에 "방연(龐涓)이 이 나무 밑에서 죽을 것이다."라는 글을 써 놓고 좌우에 궁노수(弓弩手)를 매복시켜 두었다. 위나라의 장군 방연은 저물녘에 마릉에 당도하여 나무에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불을 비추어 읽으려 하였는데 채 읽기도 전에 매복한 궁노수들의 기습을 받아 패사(敗死)하였다.《史記 권65 孫子吳起列傳》

426) 천군(天君) : 마음을 가리킨다.《순자(荀子)》〈천론(天論)〉에 이르기를, "마음이 한가운데 빈자리에 있으면서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다스리는 까닭에 마음을 하늘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다.[心居中虛, 以治五官, 夫是之謂天君.]" 하였다.

427) 영대(靈臺) : 마음을 가리킨다.《장자(莊子)》〈경상초(庚桑楚)〉에 "영대에 들여서도 안 된다.[不可內於靈臺.]"라고 하였는데 곽상(郭象)의 주에 "영대는 마음이다.[靈臺者, 心也.]" 하였다.

428) 편안한 집 : 원문의 '안택(安宅)'으로, 인(仁)을 가리킨다.《맹자》〈이루 상(離婁上)〉에 "인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仁, 人之安宅也, 義, 人之正路也.]" 하였다.

잠
箴

주일잠
主一箴

내게 지극한 보배 있어	我有至寶
단전에 간직되어 있다	藏在丹田
누가 실로 주었는가	誰實予之
애초 하늘에서 부여 받았다	初賦于天
형체에 의지해 서지 않으며	不依形立
외물과 함께 옮기지 않는다	不與物遷
지극히 중정하고 명철함이	至中至明
맑은 하늘에 정오의 해이다	晴天午日
공자의 인과 맹자의 선	孔仁孟善
요의 중과 순의 일[429]을	堯中舜一
나도 또한 얻었으니	我亦得之
감히 공경하지 아니하랴	其敢不敬
귀신이 곁에서 질정하고	神質乎傍
상제는 위에서 굽어본다	帝臨于上
옛적에 나는 빙탄 같아[430]	昔我冰炭
그 근본을 두셋으로 했으나[431]	貳參其本

429) 요의……일 : 요(堯) 임금이 순(舜) 임금에게 천자의 자리를 선양(禪讓)하면서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允執厥中.]”라고 하였는데, 순이 우(禹)에게 선양하면서 세 구절을 보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하게 하고 전일하게 하여야 진실로 그 중정의 도리를 가질 것이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論語 堯曰》《書經 大禹謨》

430) 빙탄 같아 : ‘빙탄(氷炭)’은 얼음과 숯이 마음속에서 교차하는 것처럼 마음이 일정치 않다는 말이다.

431) 두셋으로 했으나 : 마음이 전일하지 못하여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주희(朱熹)

이제는 이미 회복하여	今旣復之
순수한 옥을 간직했다	粹玉斯蘊
그러나 나의 기질이	然吾氣質
변화하고 무상하니	變化無常
어찌 내일을 보장하겠는가	安保來日
생각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되지 않겠는가[432]	罔念不狂
이미 전일하다 하지 말며	勿謂旣一
조장하게 하지 말고	勿使助長
공평하고 바르게 하며	平平正正
미리 기대하거나 잊지 말라[433]	勿正勿忘
마치 규벽을 껴안고서	若拱圭璧
제후 왕을 인도해 돕듯 하라	擯相侯王
가뿐가뿐 자연스럽게[434]	輕輕略略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되	不徐不疾
임금의 수레 끈을 잡고	若執君組
육룡을 타고 조정하듯[435] 하라	調禦乘六
잠시라도 혹 소홀히 하면	斯須或忽
적이 나의 방을 엿보리라	賊瞰吾室
하루라도 극기복례하면	一日復禮

가 지은 〈경재잠(敬齋箴)〉에 "두 가지의 일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둘이 되면 안 되고, 세 가지의 일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셋이 되면 안 된다.[弗貳以二, 弗參以三.]"라고 하였다.

432) 생각지……않겠는가 : 《서경》〈다방(多方)〉에 "성인도 생각이 없으면 미치광이가 되고 미치광이도 능히 생각하면 성인이 된다.[惟聖罔念作狂, 惟狂克念作聖.]" 하였다.

433) 조장하게……말라 : 억지로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다. 《맹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반드시 호연지기를 기름에 종사하되, 효과를 미리 기대하지 말아서 마음에 잊지도 말며 억지로 조장하지도 말라.[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하였다.

434) 가뿐가뿐 자연스럽게 : 마음을 보존하되 억지로 힘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말한다.

435) 육룡을 타고 조정하듯 : 임금의 말을 몰듯이 매우 조심하라는 말이다. 육룡은 본래 천자(天子)의 수레를 끄는 여섯 마리의 말에 대한 미칭이다.

천하가 인을 허여하리니[436] 天下歸仁
죽은 이후에나 그치리라 死而後已
아 나의 주인이여 嗟我主人

경학잠【임인년(1662, 현종3) 여름에 생도들이 삼학재에 모여 제술을 일삼았는데 이 글을 써서 경계하였다.】

警學箴【壬寅夏, 諸生會三學齋以事製述, 書此以警之.】

머리에 열이 나도 頭雖熱
관을 벗지 말고 冠不可免
몸에 땀이 나도 體雖汗
옷을 벗지 말라 衣不可袒
겉몸이 단정치 않으면 外體不端
안도 안정되지 않으니 內亦不定
문장을 펴낸들 發爲辭章
누가 너를 공경하랴 孰肯爾敬
다리가 피곤해도 股雖憊
거만하게 앉지 말고 坐不可倨
기운이 나른해도 氣雖倦
쭉 펴고 눕지 말라 臥不可叙
겉모양이 나태해지면 形貌既慢
뜻도 바르지 못하니 志亦不正
글을 써낸들 出爲文筆
어찌 일정하고 안정되랴 安得定靜

436) 하루라도……허여하리니 : 안연이 인(仁)을 묻자 공자가 답하기를, "자기의 사욕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라도 극기복례하면 천하가 인을 허여할 것이다.[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 하였다.《論語 顏淵》

재여의 담장[437]을 경계하고	宰墻可戒
우의 촌음[438]을 아껴야 하니	禹陰可嗇
《대학》에선 어긋남을 경계했고[439]	曾書警悖
〈폄우〉에선 장난질을 경계했다[440]	砭愚箴謔
과업이 비록 말단의 기예라도	業雖末藝
어찌 실질의 덕을 소홀하랴[441]	焉忽實德
소자들아 공경히 받아들이고	小子敬受
내가 미혹되었다 하지 말라	毋謂我惑
마음과 힘을 전일하게 하여	一乃心力
시종일관 쉬지 말아야 하리	終始不息
문사와 덕업을	文詞德業
둘 다 어긋남이 없게 하라	兩兼無忒
이 글을 서재 벽에 걸어놓고	揭諸齋壁
아침저녁으로 보아야 하리	朝暮寓目

437) 재여의 담장 : 게으른 것을 비유한 말이다. 공자의 제자 재여(宰予)가 낮잠을 자자, 공자가 이르기를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썩은 흙으로 쌓은 담장은 손질할 수 없다.[朽木不可雕也, 糞土之牆不可杇也.]" 하였다.《論語 公冶長》

438) 우의 촌음 : 짧은 시간을 말한다. 진(晉)나라 도간(陶侃)이 "대우는 성인이면서도 촌음을 아꼈으니, 보통 사람으로서는 촌음도 마땅히 아껴야 한다.[大禹聖人, 乃惜寸陰, 至於衆人, 當惜分陰.]" 하였다.《晉書 陶侃列傳》

439) 대학에선 어긋남을 경계했고 : '증서(曾書)'는《대학》을 가리킨다.《대학장구》 전10장에 "말이 도리에 어긋나게 나간 것은 또한 도리에 어긋나게 들어오고, 재물이 도리에 어긋나게 들어온 것은 또한 도리에 어긋나게 나가는 것이다.[言悖而出者, 亦悖而入, 貨悖而入者, 亦悖而出.]" 하였다.

440) 폄우에서는 장난질을 경계했다 : '폄우(砭愚)'는 송유(宋儒) 장재(張載)의 〈동명(東銘)〉을 가리킨다. 그 첫머리에 "장난하는 말도 생각에서 나온 것이요, 장난하는 행동도 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戲言出於思也, 戲動作於謀也.]"라는 말이 나온다.

441) 과업이……소홀하랴 : 과거공부를 위한 제술(製述)을 하면서도 마음을 바르게 가지라는 충고이다.

자경잠
自警箴

하늘이 너를 낳고	天乃生汝
세상에 내리면서	降之于世
이름을 사람이라 하고	名之曰人
너의 사체를 갖춰주었다	具汝四體
선한 성품을 부여하고	稟之以善性
아름다운 자질 주면서	投之以美質
심을 그 장수로 삼고	心爲之師
지를 그 병졸로 삼았다	志[一作氣]爲之卒 [어떤 본에는 ‘기’로 되어 있다.]
밖에 몸을 이룬 건	體之於外
이목구비요	耳目口鼻
안에 정해진 건	定之於內
인의예지다	仁義禮智
상제가 너에게 일러	上帝謂汝
“너에게 허령[442]을 주니	投爾虛靈
안으로 너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지 말고	勿內荒爾心
밖으로 너의 몸을 태만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勿外慢爾形
오직 공경하고 의롭게 하여	惟敬惟義
곧게 하고 바르게 하라	以直以方
상제가 너에게 일러	上帝謂汝
“너에게 지각을 주니	稟爾知覺
너의 기를 태만히 펴지 말고	勿怠舒爾氣

442) 허령(虛靈) : 텅 빈 가운데 신령하다는 뜻으로 마음을 가리킨다. 《대학장구》 경1장 명덕(明德)의 주에서 주희(朱熹)는 “밝은 덕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은 것으로, 허령하고 어둡지 않아서 온갖 이치를 구비하고 만사에 수응하는 것이다.[明德者, 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하였다.

너의 사욕을 지나치게 하지 말라" 했으니	勿放過爾慾
오직 정밀하고 전일하게 하여	惟精惟一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라	以克以復
상제가 너에게 일러	上帝謂汝
"너에게 천명을 주니	賦爾于命
너의 행위를 경솔히 하지 말고	勿輕爾作爲
너의 동정을 잊지 말라" 했으니	勿忘爾動靜
오직 장중하고 신중히 하여	惟莊惟愼
진실로 그 성을 따라야 하리	允率厥性
상제가 너에게 일러	上帝謂汝
"명철해야 성스럽게 되니	惟明作聖
흐리멍덩 어둡지도 말고	勿汶汶而昏
꼿꼿하여 광망하지 말며	勿狷狷而狂
선을 숨겨 감추지 말고	勿隱善而藏
악을 가려 키우지 말라" 했으니	勿揜惡而長
밝게 하고 드러내서	惟明惟顯
너의 빛을 나타내라	用表爾光
아 너 소자여	嗟汝小子
상제가 이미 너에게 명했으니	帝旣命汝
너의 몸을 태만히 하지 말고	毋怠汝躬
진실로 상제의 명을 받들라	允承帝命
홀로 있으니 삼가지 않는다 하지 말고	毋謂獨而不愼
어두운 곳이라 공경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	毋謂暗而不敬
상제가 너를 굽어보고	上帝臨汝
반드시 너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必降爾殃
안과 밖을 장중하고 공경히 하여	內外莊敬
혹시라도 감히 잊지 말라	毋或敢忘
겉과 속을 단정하고 전일하게 하여	表裏端一
너의 지조를 소홀히 말라	毋忽汝執

상제가 너를 굽어보고	上帝臨汝
반드시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必降汝福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夙興夜寐
너의 용의를 태만히 하지 말고	毋怠爾容儀
취하고 버림을 공명히 하여	取舍公明
너의 심사를 음탕하게 하지 말라	毋淫爾心思
상제가 너를 굽어보고	上帝臨汝
반드시 너에게 죄를 내리리라	必降爾罪
의롭지 않은 재물을 탐하지 말고	毋貪不義財
예가 아닌 부귀를 부러워 말지니	毋慕非禮貴
상제가 너를 굽어보고	上帝臨汝
반드시 큰 복록을 주시리라	必投介祿
아 너 소자여	嗟汝小子
반드시 삼가고 독실하게 하며	必愼必篤
밤낮으로 부지런히 힘써서	夙夜孜孜
상제의 명을 어기지 말라	毋虧上帝命

자신잠

自新箴

천명이 밝게	命之赫然
하늘에서 내려오고	降之自天
하늘에서 내려와	降之自天
천하에 베풀어진다	天下來宣
사람이 이를 얻어서	人於是得
바로 명덕이라 하니	乃謂明德
하늘에서 내려온지라	降之自天
밝고도 깨끗하다	明且潔焉

밝고도 깨끗하니	旣明且潔
광대하게 통철한다	廣大通徹
저울처럼 공평하고	如衡之平
거울처럼 맑으며	如鑑之淨
비어 있되 신령하여	虛而且靈
이치와 일이 모두 드러난다	理事具形
그러나 혹 가려지면	然或有蔽
본연의 성이 닫히니	本然性閉
신령함이 되레 막히고	靈者反塞
광대함도 좁아진다	廣者又窄
밝게 비추는 거울을	昭然明鑑
먼지와 때가 차지하고	塵垢是陷
깨끗한 보옥도	潔然寶玉
티와 흠이 쌓이나니	瑕玷是積
다듬지 않고 쪼지 않으면	非磨非琢
하자가 절로 벗겨지지 않는다	玼不自剝
빨지 않고 닦지 않으면	不濯不硏
먼지가 어찌 절로 씻기랴	塵豈自湔
몸의 때는	身上之垢
씻어서 말끔해지지만	浴以淸瀏
마음의 가려짐은	心上之蔽
예가 아니면 씻기 어렵다	非禮難洗
머리 감고 몸을 씻어	沐矣浴矣
내 몸을 정결히 하듯	我身潔矣
씻어내고 빨아내어	滌焉濯焉
내 덕을 새롭게 하라	我德新焉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如何以新
날로 새롭고 또 새롭게 하라	日新又新
명덕이 밝아지는 것은	惟明之明

사람으로 인해 밝아진다	因人以明
밝히지 않으면 밝지 않고	不明不明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는다	不新不新
명덕은 저기에 달려 있으나	明者在彼
새롭게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新之在己
명덕이 밝아지는 지 여부는	明之明否
내가 새로워지는 지 여부에 달려있고	在我新否
내가 새로워지는 지 여부는	在我新否
마음이 바른 지 여부에 달려있다	在心正否
마음이 진실로 바르면	心苟正矣
나는 절로 새로워지고	我自新矣
내가 정말 새로워지면	我苟新矣
덕은 절로 새로워진다	德自新矣
구습을 바꾸고 없애면	舊習革去
신명이 펴질 것이다	新命有舒
사욕이 와서 물들면 보존하지 못하고	來染未全
앞서 바로잡으면 도리어 허령해진다	前正反虛
나의 마음과 몸은	惟我心身
나란히 어두움과 밝음의 원인이 된다	昏明並因
내 몸은 내가 붙드는 것이고	我身我持
내 마음은 내가 적시는 것이다	我心我洽
새롭게 하느냐 새롭게 하지 않느냐는	惟新不新
나에게 달려 있지 어찌 저에게 있겠는가	在己焉彼
내가 명덕을 밝히려 한다면	我欲明明
어찌 밝아지지 않겠는가	胡焉不明
내가 새롭고 새로워지려 한다면	我欲新新
어찌 새로워지지 않겠는가	焉乎不新
악이 있으면 제거하고	有惡斯去
사욕이 있으면 저지하라	有慾斯沮

사욕을 막고 인을 행하면　窒慾行仁
심덕이 모두 새로워질 것이다　心德具新
나의 덕이 이미 새로워지면　我德旣新
백성의 덕도 새로워질 것이다　民德可新
백성이 이미 새로워지면　民旣新矣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다　國可平矣
아 나 소자여　嗟余小子
어찌 각기 힘써 바로잡지 않으랴　盍各勉正

계주잠
戒酒箴

지가 안정되면 기도 편안하고　志定氣安
기가 혼탁하면 지도 정체된다　氣渾志滯
성이 고요하면 심도 바르고　性靜心正
심이 어두우면 성도 가려진다　心昏性蔽
기는 지의 군졸이고　氣爲志卒
심은 성의 성곽이다　心作性郭
문란한 군졸은 성곽을 허는데　亂卒毁郭
술이 가장 심하다　惟酒斯極
지를 바꾸고 성을 멸하며　移志滅性
몸을 죽이고 나라를 엎는다　喪身覆國
이에 소자여　惟玆小子
감히 힘쓰지 않겠는가　其敢不勖
맛있는 술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한　惡旨好善
숭백[443)]을 본받으라　崇伯是則

443) 숭백(崇伯) : 숭백자(崇伯子)인 우(禹) 임금을 말한다. 본래 우 임금의 아버지 곤(鯀)이 숭(崇)에 봉작되었으므로 숭백(崇伯)이었다. 《전국책(戰國策)》 〈위책(魏策) 2〉에 "옛날에 제녀가 의적으로

계색잠

戒色箴

나의 성(性)은 장수이고	我性其帥
나의 몸은 기(氣)로 차 있는데[444]	我體其塞
형체를 품부 받고 나면	旣稟是形
형체는 사욕을 낸다	形能生慾
여러 사욕 가운데	衆慾之中
제어하기 어려운 게 색이다	難制惟色
눈이 가려지면	蔽之于目
그 마음도 옮겨가서	其中則遷
나의 정기를 해치고	戕我至精
나의 천성을 뺏는다	奪我眞天
부모가 신체를 남겨주고	父母遺體
천지가 명을 부여했는데	天地賦命
요사한 색에 몸을 던지고	投之妖巧
전혀 경계할 줄 모른다	渾不知警
감히 맹렬이 반성하여	敢不猛省
확연히 주경[445]하지 않으랴	廓然主敬
이 잠언을 저버린다면	若負此箴
짐승과 같을 것이다	橫首同行

하여금 술을 만들게 하였는데 맛이 있었다. 이를 우(禹)에게 올렸는데, 우가 마셔 보니 맛이 있었다. 이에 마침내 의적을 멀리하고 맛있는 술을 끊으면서 '후세에 반드시 술 때문에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할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昔者帝女令儀狄作酒而美, 進之禹, 禹飮而甘之, 遂疏儀狄, 絶旨酒曰, 後世必有以酒亡其國者.]"라고 하였다. 송(宋)나라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 "맛있는 술을 싫어함은 숭백의 아들(崇伯子 우 임금)이 부모를 돌보고 봉양한 것이다.[惡旨酒崇伯子之顧養]"라고 하였다.

444) 기(氣)로 차 있는데 :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지(志)는 기(氣)의 장수이고 기는 몸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夫志氣之帥也, 氣體之充也.]" 하였다.

445) 주경(主敬) : 주일무적(主一無適)하여 정신을 전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송나라의 유학자인 정자(程子)나 주자(朱子) 등이 주창한 수양법(修養法) 가운데 하나이다.

계타잠
戒惰箴

내가 칠정을 아쉽게 여기는 건	我惜七情
게으름이 이름에 없는 것이다[446]	惰惟無名
무릇 나의 한 뜻을	凡我一志
세움이 견정하지 않아서	立不堅貞
그 죄에 따라 벌을 받는 것은	案伏其罪
모두 게으름으로 인해 생긴다	儘從惰生
사체가 이미 게으르게 되면	四體旣惰
그로 인해 총명을 잃는다	仍失聰明
겉이 이미 장중하지 않으면	外旣不莊
안도 따라서 태만해지니	內從而慢
음란한 생각과 난잡한 상념은	淫思亂想
그로 인해 복잡다단하게 되며	仍此多端
배움이 실추되어 황폐해지고	學墜而荒
성도 따라서 어두워진다	性隨而昏
그 허물을 깊이 생각해보면	深思厥咎
불경이 과오가 된 것이니	不敬爲過
마음이 주일무적한다면	心若主一
외물과 함께 변화하지 않는다	不與物化
종일토록 공경하여	欽欽終日
상제를 마주 대한 듯하면	對越在上
비록 태만하고 싶어도	雖欲惰慢
어찌 감히 스스로 방종하랴	豈敢自放

446) 칠정을……것이다 : ‘칠정(七情)’ 가운데 ‘惰’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칠정은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을 말한다.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무엇이 칠정인가,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사랑함과 미워함이다.[何謂七情, 喜怒哀懼愛惡欲.]” 하였다.

엄연한 천군[447]이 儼然天君
오직 나의 엄한 스승이라 惟我嚴師
엄숙하고 단정해야 하니 肅拱端默
감히 조금이라도 방자하랴 其敢小肆
혹시라도 어김이 있으면 如或有違
이 잠언의 말을 볼지어다 視此箴辭

구용잠

九容箴

빠르게 달리면 넘어지니 疾趍而蹶
허둥대지 않고 어찌하랴 非狂而何
편안히 가면 몸이 펴지니 安行而舒
군자의 화평함이다 君子之和
발걸음의 경중에서 足之輕重
그 마음을 볼 수 있으니 可觀其心
빨리 하려는 자는 달려서 欲速者趍
혈기를 누르기가 어렵다 血氣難禁
발은 겨우 문을 나서면서 足纔出門
뜻은 천리를 넘어가는데 意越千里
넓고 큰 자는 서행하나니 涵弘者徐
예경이 그리 만든 것이다 禮敬所至
한 걸음을 막 나아가면 一步方進
뜻이 한 걸음에 있어야 한다 意在一步
힘쓸 지어다 소자야 勖哉小子

447) 천군(天君) : 마음을 가리킨다. 《순자(荀子)》 〈천론(天論)〉에 이르기를, "마음이 한가운데 빈자리에 있으면서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다스리는 까닭에 마음을 하늘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心居中虛, 以治五官, 夫是之謂天君.]"라고 하였다.

뛰어넘지 말고 조급히 하지 말라	毋蹶毋躁

【위는 족용중(右足容重)】

손은 한 몸에서	手於一身
으뜸으로 일을 한다	用功之宗
그것으로 절과 읍을 하니	拜揖以之
예와 경이 나오는 곳이다	禮敬攸從
잡고 쥐고 치고 박으며	操持擊拍
받들고 받으며 마시고 먹으니	奉受飮食
일상의 만사를	日用萬事
손이 만들어 낸다	惟手之出
한 손가락이라도 망동하면	一指妄動
바로 예용을 잃게 되니	便失禮容
조처할 때 필히 공경히 하고	措必以敬
멈출 때도 필히 공손히 하라	靜必以恭
힘쓸 지어다 소자야	勖哉小子
열 개 손이 가리킨다	十手所指

【위는 수용공(右手容恭)】

곁으로 보지 말고	毋傾側視
흘겨보지 말며	毋流邪睇
빨리 돌아보지 말며	毋疾顧眄
찡그려 보지 말라	毋嚬蹙眦
수레에서는 눈길이 식(軾)을 넘지 않고	驂不出式
앉아서는 모서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니	坐不外方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一瞬或放
몰래 태만함이 밝음을 가리니	陰怠蔽明
보아도 볼 수 없게 되어	視不見之
소경에 가까울 것이다	殆乎暗盲

힘쓸 지어다 소자야	勖哉小子
예가 아니면 보지 말라	非禮勿視

【위는 목용단(右目容端)】

목소리를 내고 음악[448]을 하며	聲音律呂
음식을 먹고 말을 한다	飮食言語
전쟁을 일으키고 우호를 내기도 하며	興戎出好
선행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作善起爭
그 시작은 어디인가	其始維何
입으로부터 생긴다	由口而生
팔진미가 풍성해도	八珍雖昌
의가 아니면 맛보지 않으며	非義不嘗
만종의 녹[449]이 쌓여 있어도	萬鍾雖積
예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	非禮不食
어눌하되 민첩하려 하고[450]	欲訥而敏
묵묵하되 깨어 있으려 한다	欲默而惺
힘쓸 지어다 소자야	勖哉小子
입 지키기를 병처럼 하라[451]	守口如甁

【위는 구용지(右口容止)】

목소리는 마음에서 나오니	聲出於心
마음이 바르면 목소리는 조용하다	心正聲靜

448) 음악 : 원문의 '율려(律呂)'로, 원래 성음(聲音)의 청탁(淸濁)과 고하(高下)를 바르게 정할 목적으로 죽통(竹筒)의 길이를 각각 길고 짧게 해서 만든 12개의 악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음악을 뜻한다.

449) 만종의 녹 : 원문의 '만종(萬鍾)'으로, 종(鍾)은 곡식을 담는 도량형기인데 여기서는 많은 녹봉을 말한다.

450) 어눌하되 민첩하려 하고 : 《논어》 〈이인(里仁)〉에서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고 실천은 민첩하려 한다.[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 하였다.

451) 입을……하라 : 주희(朱熹)의 〈경재잠(敬齋箴)〉에 "입을 지키기를 병처럼 하고, 뜻을 막기를 성처럼 한다.[守口如甁, 防意如城.]" 하였다.

목소리는 기에게 부려지니 聲使於氣
기가 사나우면 목소리도 매섭다 氣厲聲猛
거울이 감응하는 것처럼 如鑑之應
저울이 공평한 것처럼 如衡斯平
감출 수가 없으니 不可揜矣
참으로 은폐하기 어렵다 誠難隱閉
힘쓸 지어다 소자야 勖哉小子
목소리를 너무 사납게 하지 말라 聲莫淫厲

【위는 성용정(右聲容靜)】

맨 위에 있으면서 원기를 체행하고 首居體元
오관이 자리한 곳이니 五官所宅
위의의 법도가 되고 威儀之法
시선의 준칙이 된다 瞻視之則
더욱 공경하고 더욱 장중하며 愈敬愈莊
오직 엄숙하고 오직 공손히 하라 惟肅惟恭
공손하되[452] 곧게 세움이 翼翼竦直
이 덕의 모습이다 斯德之容
힘쓸 지어다 소자야 勖哉小子
잠시라도 방자하지 말라 毋或暫肆

【위는 두용직(右頭容直)】

기는 한 몸에서 氣於一身
기르기가 어려우니 養之爲難
온화하게 하면 쉽게 방종하고 和之易流
편안하게 하면 너무 느슨해진다 舒之太寬

---

452) 공손하되 : 원문의 ‘익익(翼翼)’은 공손하고 신중한 모양이다. 《시경》 〈대명(大明)〉에 “오직 이 문왕이 조심하고 공손하여 상제를 밝게 섬기시어 많은 복을 오게 하셨도다.[維此文王, 小心翼翼, 昭事上帝, 聿懷多福.]” 하였다.

무엇이 정숙함만 하겠는가 孰若正肅
유순하고 온화함으로 이루며 濟以巽和
보옥을 받들고 대야를 받들 듯이 奉玉承盤
살얼음을 밟고 강에 임한 듯이 하라[453] 履淵臨河
잠시라도 방심하면 造次或放
방탕한 기운이 바로 채워진다 蕩氣卽塞
힘쓸 지어다 소자야 勖哉小子
두려워하고 경계하라 戰戰戒敕

【위는 기용숙(右氣容肅)】

한결같이 곧은 내면이라야 一以直內
경이 있을 곳이고 敬之所在
의를 바르게 하여야 惟義之正
외면을 방정하게 할 수 있다[454] 可以方外
방정함에는 요체가 있으니 方之有要
서 있는 모양이 중요하다 立容爲大
치우치거나 기울이지 말고 不偏不倚
비뚤어지거나 구부리지 말라 毋邪毋曲
바르고 크며 빛나고 밝아서 正大光明
엄연하게 덕스러워야 한다 儼然惟德
안이 바르고 겉이 순수하며 正內粹外
겉과 속이 단정하고 엄숙하면 表裏端肅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펴지니[455] 心廣體胖

---

453) 보옥을……하라 : 매사를 신중히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연임하(履淵臨河)'는 《시경》 〈소민(小旻)〉에 "전전긍긍하여 깊은 못에 임하듯 얇은 얼음을 밟듯 한다.[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氷.]"라고 한 것을 원용한 것이다.

454) 한결같이……있다 : 《주역》 〈곤괘(坤卦) 문언전(文言傳)〉에 "군자가 경하여 안을 곧게 하고 의롭게 하여 밖을 방정하게 하여, 경과 의가 확립되면 덕이 외롭지 않다.[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라고 한 데서 원용한 것이다.

455) 마음이……펴지니 : 마음속이 널찍하게 관대해지고 신체가 여유 있게 펴진다는 뜻으로 《대학장구

성현과 똑같은 경지이다 聖賢同域
힘쓸 지어다 소자야 勖哉小子
공경히 훈계를 명심하라 敬佩訓戒

【위는 입용덕(右立容德)】

그 기운을 온화하게 하고 溫溫其氣
그 안색을 늠름하게 하여 凜凜其色
온화하되 위엄 있고 和而有嚴
엄숙하되 관대히 하라 肅而寬奕
공경하지 않음이 없게 하여 毋不敬矣
내면을 채우면 얼굴에 드러나니[456] 充內粹面
힘쓸 지어다 소자야 勖哉小子
장중하고 공경하도록 노력하라 莊敬是勉

【위는 색용장(右色容莊)】

(大學章句)》 전6장에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펴지게 한다. [富潤屋, 德潤身, 心廣體胖.]"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456) 윤택하게 얼굴에 드러나니 : 원문의 '수면(粹面)'은 '수면(睟面)'과 같은 말로, 내면에 축적된 것들이 윤택하게 얼굴에 드러나고 등에 가득 넘치는 것을 뜻하는 '수면앙배(睟面盎背)'의 준말이다.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군자의 본성은 인의예지가 마음속에 뿌리 하여 그 얼굴빛에 나타남이 맑고 온화하게 얼굴에 나타나고 등에 가득 넘친다.[君子所性, 仁義禮智根於心, 其生色也, 睟然見於面,盎於背.]" 하였다.

상량문
上梁文

금성향교 대성전 상량문
錦城鄕校大成殿上梁文

천지를 관(棺)으로 삼고 일월을 장지(葬地)로 삼아도 사십 분의 덕의(德儀)는 좇아가기 어렵다.【어떤 본에는 '모두 우러른다[咸仰]'로 되어 있다.】 북두성을 향하고 화산과 숭산[457]을 당길 듯한 이곳에 어찌 삼백년 구전(舊典)을 창건하지 않겠는가. 이에 택궁(澤宮)[458]의 제도를 본받아서 마침내 고을에 학교의 규범을 세웠다. 생각건대 이 고을은 기미성 남쪽 분야[459]이며 영해(瀛海)[460]의 동쪽 지역으로, 영산강이 바다와 접해 있어 승부(乘桴)의 밝은 교화[461]를 부여잡을 수 있고, 금성산이 허공에 서렸으니 소로(小魯)[462]의 지극한 뜻을 거의 계승할 만하다.

돌아보건대 신라 말엽에 비루해져서[463] 바른 학문이 전해지지 못했고,

---

457) 화산과 숭산 : '화숭(華嵩)'은 화산(華山)과 숭산(嵩山)의 병칭이다.

458) 택궁(澤宮) : 주나라 때 활쏘기를 하여 사(士)를 선발하던 곳인데, 전하여 태학(太學)을 말한다. 《周禮 夏官 司弓矢》

459) 기미성 남쪽 분야 : 기미(箕尾)는 28수(宿) 별자리 중 동쪽 별자리인 기수(箕宿)와 미수(尾宿)에 해당하는 즉 조선을 가리키고 남쪽 분야는 나주를 지칭한 것이다.

460) 영해(瀛海) : 큰 바다인데 여기서는 황해를 가리킨다. 《사기(史記)》 〈맹자순경열전(孟子荀卿列傳)〉에 "이러한 주가 아홉 개가 있고 영해가 그 밖을 에워싸고 있다.[如此者九, 乃有大瀛海環其外.]" 하였다. 황해는 중국 쪽에서는 동쪽이다.

461) 승부(乘桴)의 밝은 교화 : 공자의 교화를 가리킨다. 공자가 "도가 행해지지 않는지라 뗏목을 타고 바다에 뜨리니, 이때 나를 따라올 사람은 아마 중유일 것이다.[道不行, 乘桴, 浮于海, 從我者, 其由與.]"라고 하였다. 《論語 公冶長》

462) 소로(小魯) : 큰 포부를 비유한 것이다. 나주(羅州)의 금성산에 오르면 공자가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작게 여기는 것과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맹자가 이르기를 "공자가 동산에 올라가서는 노나라를 작게 여겼고, 태산에 올라가서는 천하를 작게 여겼다.[孔子登東山而小魯, 登太山而小天下.]"라고 하였다. 《孟子 盡心上》

463) 비루해져서 : 원문의 '주리(侏儷)'로 주리(侏離)와 같은 뜻인데, 오랑캐의 언어 문자를 가리킨다.

고려조에 경박해져서 쇠퇴한 뒤로 성스러운 은택이 다 미치지 못하였다. 공사(公私) 간에 좌도(左道)[464]의 시주(施主)를 다투어 본뜨고, 주군(州郡)에서는 바른 학문을 일으키는 데 매우 어두웠다. 진정한 성인이 5백년의 주기에 응하여 나와서[465] 유도(儒道)를 존중하고 학문을 숭상하였는데 다행히도 이 땅에 천재일우의 운수를 만나서 학교를 건립하게 되었으니, 한계(寒溪)의 동문(洞門)은 궐리(闕里)에서 읊조리고 외우는 것과 유사하고[466] 광탄(廣灘)의 원파(源派)는 기우(沂雩)에서 목욕하고 바람 쏘이는[467] 것과 방불하였다.

그러나 명협(蓂莢)이 시들어[468] 세월이 흐르니 대부분 이끼가 먹어 비가 세었다. 지금 전하께서 즉위하신지 12년 되는 경술년(현종11, 1670) 봄에 향을 전하께서 내려주니 혼령이 훈호(薰蒿)[469]하여 기둥 사이의 제수(祭需)

공자의 유학을 벗어난 것을 가리킨다.

464) 좌도(左道) : 이단(異端)의 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불교를 지칭한 것이다.

465) 진정한……나와서 : '500년의 주기[五百之期]'란 《맹자》 〈공손추 하(公孫丑下)〉에 맹자가 제(齊)나라를 떠나면서 "500년마다 반드시 왕자가 나온다.[五百年, 必有王者興.]"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즉 요순(堯舜)에서 탕왕(湯王)까지, 탕에서 문왕(文王)·무왕(武王)까지 성현이 태어나는 주기를 500년으로 본 것이다.

466) 궐리(闕里)에서……유사하고 : 나주 한계동에서 글읽는 소리가 마치 공자의 제자들이 궐리에서 글읽는 소리와 유사하다는 뜻이다. '궐리'는 지명으로 《공자가어(孔子家語)》 〈칠십이제자해(七十二弟子解)〉에 "공자가 궐리에서 처음 가르쳤다.[子始教學于闕里.]" 하였다.

467) 기우(沂雩)에서……쏘이는 : 《논어》 〈선진(先進)〉에 공자가 여러 제자들에게 각자의 뜻을 말해 보라고 했을 때, 증점(曾點)이 마침 비파를 타다가 쟁그렁 소리와 함께 비파를 놓고 일어나서 대답하기를, "늦은 봄에 봄옷이 이루어지거든 관자 5, 6인, 동자 6, 7인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을 쐬고 읊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暮春者, 春服旣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한 데서 온 말이다.

468) 명협(蓂莢)이 시들어 : 세월이 흘러 건물이 낡은 것을 말한다. '명협'은 요 임금 때 조정 뜰에 났다는 서초인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일 한 잎씩 나오고, 16일부터 그믐날까지 매일 한 잎씩 떨어졌으므로, 이것으로 날을 계산하여 달력을 만들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竹書紀年 卷上 帝堯陶唐氏》

469) 혼령이 훈호 : '훈호(薰蒿)'는 귀신의 기(氣)를 형용한 것이다. 《예기》 〈제의(祭義)〉에 "생물들은 반드시 죽고 죽으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나니 이를 귀라고 이른다. 뼈와 살은 땅속에서 썩어 흙이 되고 이것이 야토가 되면 그 기는 발하여 위로 올라가서 소명, 훈호, 처창이 된다.[衆生必死, 死必歸土, 此之謂鬼. 骨肉斃于下, 陰爲野土, 其氣發揚于上, 爲昭明焄蒿悽愴.]"라고 하였는데, 그 주에 "귀신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 소명, 그 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훈호, 사람의 정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에 접한 듯하고, 물이 땅속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470] 소명(昭明)하여 성령이 이곳에 임한 듯하다. 옛 날 그대로 터를 닦으니 장부(長府)는 민손(閔損)에게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고,[471] 학궁 설계에 제도가 있으니 산절(山節)이 어찌 장문중(臧文仲)보다 못하겠는가.[472] 증삼(曾參)처럼 재용에는 방도가 있었고[473] 맹가(孟軻)처럼 농사철을 빼앗지 않았다.[474]

상하의 동우(棟宇)는 《주역》 〈대장괘(大壯卦)〉에서 취하였고[475] 동서의 서영(序榮)[476]은 주나라 제도의 유풍(霤風)을 본뜬 것이다. 승당(升堂)

처창이다.[鬼神之露光處是昭明, 其氣蒸上處是焄蒿, 使人精神竦動處是悽愴.]" 하였다.

470) 물이……것처럼[如水在地] : 시공(時空)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식(蘇軾)의 〈조주한문공묘비(潮州韓文公廟碑)〉에 "공의 신이 천하에 있는 것은 마치 물이 땅속에 있는 것과 같아 어디로 간들 있지 않음이 없다.[公之神在天下者, 如水之在地中, 無所往而不在也.]" 하였다. 《東坡全集 卷86》

471) 옛……것이고 : 원문의 '장부(長府)'는 재화(財貨)를 넣는 창고인데 여기서는 향교의 건물을 가리킨다. 《논어》 〈선진(先進)〉에 "노나라 집정자가 장부를 고쳐 짓자, 민자건이 말하기를 '옛 일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가. 어찌 꼭 고쳐 지을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魯人爲長府, 閔子騫曰, 仍舊貫如之何, 何必改作.]" 하였다.

472) 산절(山節)이……못하겠는가 : 장식을 제도에 맞게 했다는 뜻이다. '산절(山節)'은 두공(斗栱)에 산 모양을 새기는 것인데, 여기서는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장문(臧文)'은 춘추 시대에 노(魯)나라의 대부인 장문중(臧文仲)이다. 장문중이 거북껍질을 보관하는 집을 만들면서 너무 호화스럽게 꾸미자, 공자는 "장문중이 거북껍질을 보관하되, 두공(斗栱)에 산을 그리고 동자기둥에 마름을 새기니, 어떻게 지혜롭다고 하겠는가.[臧文仲居蔡, 山節藻梲, 何如其知也.]"라고 질책하였다. 《論語 公冶長》

473) 증삼(曾參)처럼……있었고 : 향교를 짓는데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증삼(曾參)'은 증자(曾子)의 이름이다. 《대학장구》 전 10장에 "군자는 먼저 덕을 삼가니, 덕이 있으면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영토가 있고 영토가 있으면 재물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씀이 있다. 덕은 근본이고, 재물은 말단이다.……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면 백성들이 흩어지고, 재물을 흩으면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다.[君子先愼乎德, 有德, 此有人, 有人, 此有土, 有土, 此有財, 有財, 此有用. 德者, 本也, 財者, 末也.……是故財聚則民散, 財散則民聚.]" 하였다.

474) 맹가(孟軻)처럼……않았다 : 향교를 짓는데 농사철은 피했다는 뜻이다. '맹가(孟軻)'는 맹자(孟子)의 이름이다. 《맹자》 〈양혜왕 상(梁惠王上)〉에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고……왕도 정치의 시작이다.[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王道之始也.]" 하였다.

475) 상하의……취하였고 : 집을 튼튼하게 짓는 것을 말한다. '희경(羲經)'은 《주역》의 별칭이다. 《주역》 〈계사전 하(繫辭傳下)〉에 "상고시대에는 사람들이 굴에서 살고 들판에서 살았다. 후세에 성인이 이것을 집으로 바꾸어 위에는 들보를 얹고 아래에는 서까래를 얹어 비바람에 대비하였다. 이것은 〈대장괘〉에서 취하였다.[上古, 穴居而野處. 後世聖人, 易之以宮室, 上棟下宇, 以待風雨. 蓋取諸大壯.]" 하였다.

476) 서영(序榮) : '서(序)'는 상(廂)을, '영(榮)'은 처마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동서에 세워진 건물을

한 십철(十哲)이 열석(列席)해 있고 입실(入室)한 사성(四聖)이 동렬에 있다.477) 우조의란(虞操猗蘭)478)은 제나라에서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던 음악479)을 듣는 듯하고, 희란하행(姬亂河荇)480)은 노나라로 돌아온 칠순의 공자481)를 접하는 듯하다. 쇠퇴한 주(周)나라가 저무는 때에 요순(堯舜)의 기상을 품고, 말기의 송(宋)나라가 스러져가는 날에 우리 정주(程朱)의 정통 학맥을 열었도다. 【단구(短句)가 빠진 듯하다.】 도(道)는 오랑캐와 중화(中華)의 차이가 없으니 사유(四儒)가 동한(東韓)에서 지극한 가르침을 따랐고, 덕이 옛날과 지금이 어찌 다르겠는가, 오현(五賢)은 지결(旨訣)을 북학(北學)482)에서 받들었도다.

연이어 합한 궁실에서 함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리니483) 좌우전후에 계신

말한 것이다.

477) 승당한……있다 : 원문의 '승당(升堂)'은 학문이나 도의 경지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을, '입실(入室)'은 승당보다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을 뜻한다. 《논어》 〈선진(先進)〉에, 공자가 제자 자로(子路)의 학문 수준을 두고 말하기를 "당에는 올랐고 아직 방에는 들어오지 못했다.[升堂矣, 未入室也.]" 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십철(十哲)'은 민자건(閔子騫)·염백우(冉伯牛)·중궁(仲弓)·재아(宰我)·자공(子貢)·염유(冉有)·계로(季路)·자유(子游)·자하(子夏)·자장(子張)을 일컫는다. '사성(四聖)'은 안자(顏子)·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를 말한다.

478) 우조의란(虞操猗蘭) : 상량식에 연주했던 음악을 비유한 것이다. '우조(虞操)'는 우순(虞舜)의 금곡(琴曲)을 가리키고, '의란(猗蘭)'은 공자가 지었다는 금곡(琴曲)인 의란조(猗蘭操)를 말한다.

479) 제나라에서……음악[齊之三月] : 매우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것이다. 《논어》 〈술이(述而)〉에 "공자께서 제나라에 계실 때에 순 임금의 소악을 들으시고는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 하였다.[子在齊聞韶, 三月不知肉味.]" 하였다.

480) 희란하행(姬亂河荇) : 상량식에서 읊었던 시를 비유한 것이다. '희란(姬亂)'은 뜻이 미상이고, '하행(河荇)'은 《시경》 〈관저(關雎)〉에 "들쭉날쭉한 마름을 이리저리 물 따라가며 취하도다.[參差荇菜, 左右流之.]라고 하였다.

481) 노나라……공자[返魯之七旬] : '반로(返魯)'는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온 것을 말한다. 《논어》 〈자한(子罕)〉에 "내가 위나라로부터 노나라로 돌아온 뒤로 음악이 바루어져서 아와 송이 각기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吾自衛反魯, 然後樂正, 雅頌各得其所.]" 하였다. '칠순(七旬)'은 그 당시의 나이가 칠순이었다는 뜻인 듯하다. 공자는 68세 때인 노나라 애공(哀公) 11년에 노나라로 돌아왔다.

482) 오현(五賢)은 지결(旨訣)을 북학(北學) : '오현'은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 등 다섯 명의 유현(儒賢)을 가리킨다. '북학'은 북쪽으로 가서 배우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중국의 학문을 비유한 것이다.

483) 향기로운 제사를 올리니 : '필(苾)'과 '분(芬)'은 제물에서 나는 향기를 말하는데 제사의 뜻으로 쓰인다. 《시경》 〈초자(楚茨)〉에 "향기로운 효사에 신이 음식을 즐기네.[苾芬孝祀, 神嗜飮食.]" 하였다.

듯 양양하고[484] 우러러 뵈오니 심원하도다.[485] 삼강(三綱)이 모두 확립되어 전각과 더불어 하늘을 경영하고 구법(九法)[486]이 모두 조화롭게 되어 들보 기둥과 나란히 땅을 다스릴 것이니, 이는 모두 성세(聖世)의 명교(明敎)를 따르고 또한 현부(賢府)의 중창에도 관계되는 일이다. 주자(周子)는 소주(邵州)에서 고명(高明)함이 복서(卜筮)에 부합되었고[487] 문옹(文翁)도 금리(錦里)에서 유학의 교화를 성취하였었다.[488] 전당(鱣堂)[489]에 경사가 넘치고 접역(鰈域)[490]에 환희가 펼쳐지니 이에 아랑(兒郞)의 축문[491]을 진술하여 감히 들보 올리는 일을 돕는다.

---

484) 좌우전후에……양양하고 : 원문의 '양양(洋洋)'은 신령이 곁에 있는 듯한 것을 표현한 말이다. 《중용장구》 제16장에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재계하고 깨끗이 하며 의복을 성대히 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고는 양양하게 그 위에 있는 듯하며 그 좌우에 있는 듯하다.[使天下之人, 齊明盛服, 以承祭祀, 洋洋乎如在其上, 如在其左右.]"라고 하였다.

485) 우러러 뵈오니 심원하도다 : 원문의 '찬앙첨홀(鑽仰瞻忽)'은 우러러 본다는 뜻이다. 안연(顏淵)이 공자(孔子)의 무궁무진(無窮無盡)한 도를 깊이 감탄하여 말하기를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견고하며, 바라보면 앞에 있는 듯하다가, 홀연히 뒤에 계시도다.[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 하였다. 《論語 子罕》

486) 구법(九法) :《서경》 〈홍범(洪範)〉의 '구주(九疇)'를 가리킨다. 이는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대법(大法)으로, 곧 오행(五行)·오사(五事)·팔정(八政)·오기(五紀)·황극(皇極)·삼덕(三德)·계의(稽疑)·서징(庶徵)·오복(五福)이다.

487) 주자(周子)는……부합되었고 : 주자(周子)는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를 가리키는데 그도 소주(邵州)에서 학교를 중수하는 데 관련이 있었다는 뜻인데, 미상이다.

488) 문옹(文翁)도……하였었다 : '문옹(文翁)'은 중국 전한(前漢) 경제(景帝) 때의 문신이다. 촉(蜀) 땅의 군수가 된 후 성도(成都)의 시장 가운데에 관학(官學)을 설치하여 고을의 자제들을 불러다 배우게 하였다. 입학자는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고 성적이 우수한 자는 고을의 관리로 보임하였다. 이에 촉군에 교화를 펼치고 문풍(文風)을 크게 일으켜 인재를 대거 배출하였다. 이는 무제(武帝) 때 전국의 고을에 관학을 설치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漢書 권89 文翁傳》

489) 전당(鱣堂) : 강학하는 장소를 말한다. 한(漢)나라 양진(楊震)이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서도 여러 차례 소명(召命)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황새가 강당(講堂) 앞에 전어(鱣魚) 세 마리를 물고 날아왔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전어는 대부들이 입는 옷의 무늬이고, 세 마리는 삼태(三台)의 조짐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뒤에 양진이 과연 태위(太尉)에 올랐다. 《後漢書 권54 楊震列傳》

490) 접역(鰈域) : 가자미가 생산되는 지역이란 뜻으로, 조선을 가리킨다.

491) 아랑(兒郞)의 축문 : 상량문(上樑文)를 말한다. 원문의 '兒郞'은 '兒郞'의 잘못이다. '아랑(兒郞)'은 아량위(兒郞偉)인데 '어영차'의 의성어로, 어영차 올린다는 뜻이다.

어영차 들보 동쪽에 떡을 던져라[492) 兒郎偉抛梁東
서일이 막 솟아 쌓인 기운 토하네 瑞日初昇積氣融
성신의 진묘한 자취 알고자 하니 欲識聖神眞妙跡
바다 하늘에 단비 내리고 춘풍에 화육되네 海天時雨化春風

어영차 들보 서쪽에 떡을 던져라 兒郎偉抛梁西
수사의 참된 근원이 바닷가에[493) 접했구나 洙泗眞源接海倪
조석으로 밀물이 통하여 금수[494)에 이어지니 日夕通潮連錦水
이로부터 곧바로 하늘 사다리에 오르리라 從玆直到上天梯

어영차 들보 남쪽에 떡을 던져라 兒郎偉抛梁南
남극에서 추성[495)이 바다로 들어가 잠기네 南極樞星入海涵
밤낮으로 천지의 축을 부지하고 日夜扶持天地軸
북극성을 마주하며 삼성과 함께 하네 北辰相對共參三

어영차 들보 북쪽에 떡을 던져라 兒郎偉抛梁北
뭇별들이 빙 둘러서 북극성을 도네 衆星連繞環樞極
하늘과 사람을 어찌 둘로 나눠 보랴 天人豈可兩分看
성화는 작위가 아니라 덕에 있다네 聖化無爲唯在德

---

492) 들보……던져라 : '포량동(抛樑東)'은 상량문 말미의 축송에 상투적으로 붙는 말로, 상·하·사방의 여섯 방위 중 첫째로 동쪽을 든 것이다. 이 같은 투식은 중국 육조 시대(六朝時代) 때부터 전해 내려왔다. 건축물의 기본 골격이 완성된 뒤에 길일(吉日)을 골라 들보를 올리며 상량식을 하는데, 이때 친지들이 음식을 싸와서 축하하고 목수들을 대접한다. 그러면 도목수가 대들보 위에 걸터앉아 만두·떡 등을 상·하·사방으로 던지며 상량문을 읽어 축원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량식도 이와 유사했다.

493) 수사의……바닷가에 : 나주에 향교가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수사(洙泗)'는 수수(洙水)와 사수(泗水)로, 공자가 이 지역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보통 공자의 학문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바닷가'는 나주(羅州) 영산강이 닿는 서해를 가리킨다.

494) 금수(錦水) : 나주의 영산강(榮山江)을 가리킨다.

495) 추성(樞星) : 북두칠성의 첫 째 별인데, 북두칠성을 말한 것이다.

어영차 들보 위로 떡을 던져라	兒郞偉抛梁上
칠요와 삼광[496]이 만상을 나누네	七曜三光分萬象
성스러운 도는 하늘 같으니 어찌 오르랴[497]	聖道如天豈可階
어리석은 무리는 백대토록 흠앙할 뿐이네	羣蒙百代徒欽仰

어영차 들보 아래로 떡을 던져라	兒郞偉抛梁下
유생들은 봄가을로 시서를 일삼네	章甫詩書春及夏
육경[498]에 분명 도의 진수가 실려 있으니	六籍分明載道眞
의리에 깊이 잠기면 친자한 것과 같으리	沉潛義理如親炙

삼가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는 집마다 예의를 말하고 집마다 시서를 외우며, 금석사【어떤 본에는 '사(絲)'가 '생(笙)'으로 되어 있다.】황[499]으로 만대토록 제사를 길이 올리고, 문(文)·행(行)·충(忠)·신(信)으로 4교(敎)[500]의 법도를 길이 남기며, 많은 선비들이 난새처럼 비상하여 멀리 옛 성인의 전통을 잇고, 여러 현인들은 기러기처럼 점진하여[501] 일어나 우리 조정의 유종(儒宗)을 진작할지어다.

---

496) 칠요와 삼광 : '칠요(七曜)'는 일(日)·월(月) 및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의 다섯별을 말한다. '삼광(三光)'은 해와 달과 별을 말한다.

497) 성스러운……오르랴 : 공자의 위대함을 말한 것이다. 《논어》 〈자장(子張)〉에, 자공(子貢)이 스승인 공자의 위대함을 일컬으면서 "우리 선생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마치 사다리를 타고서 하늘을 올라갈 수 없는 것과 같다.[夫子之不可及也, 猶天之不可階而升也.]"라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

498) 육경 : 원문의 '육적(六籍)'으로 육경(六經)과 같은 말이다. 유교에서 말하는 여섯 가지의 중요한 경전인 《역경》·《시경》·《서경》·《춘추》·《예경》·《악경》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 《예경》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책을 가리키기도 하며, 《악경》은 진(秦)나라 때 분서갱유(焚書坑儒)를 거치면서 없어졌다.

499) 금석사황(金石絲簧) : 각종 악기를 가리킨다. 금은 쇠로, 석은 옥으로 만든 악기이며 사는 현악기, 황은 관악기이다.

500) 4교(敎) : 《논어》 〈술이(述而)〉에 "공자는 4가지로 가르쳤으니, 문(文)·행(行)·충(忠)·신(信)이었다.[子以四敎, 文行忠信.]"라고 한 것을 이른다.

501) 기러기처럼 점진하여 : 원문의 '홍점(鴻漸)'으로, 기러기가 낮은 곳에서 점차 높은 곳으로 날아가는 것을 말한다. 《주역》 〈점괘(漸卦) 상구(上九)〉의 "상구는 기러기가 공중으로 점점 날아가는 것인데, 그 깃이 의표(儀表)가 될 만하니, 길하다.[上九, 鴻漸于陸, 其羽可用爲儀, 吉.]" 하였다.

도민[502] 신사 상량문

道民新舍上梁文

사람이 땅에서 살다가 병이 들고 나무에서 살다가 떨어지기도 하자, 선성(先聖)이 궁실(宮室)의 제도를 세웠고,[503] 해를 헤아리고 그림자를 측정하여 후생(後生)들이 띠 집의 법식을 모방하였다. 시(詩)에서는 서우(胥宇)[504]의 장(章)을 말하고 예(禮)에서는 정침(正寢)의 법을 두었다. 주인은 농포(農圃) 가운데 우활한 학자요 시주(詩酒) 간에 취옹(醉翁)[505]이다. 뜻이 씩씩하여 용을 그렸으나 화룡점정(畫龍點睛)의 묘술은 터득하지 못하였고, 매독(買櫝)의 마음이 있었으나 한갓 환주(還珠)[506]의 장탄식만 일으켰다. 서하에서 쓸쓸히 살던 일[507]은 알려지지 않았고 북해에서 변화하려던 날개도 들지 못했다.[508] 원생(原生)처럼 빈천[509]했지만 지락한

502) 도민(道民) : 김만영이 우거하던 고을이다.

503) 땅에서……세웠고 : 한유(韓愈)의 〈원도(原道)〉에 "옛 시절에 사람들의 피해가 많았는데 성인이 나오신 연후에 서로 살려주고 길러주는 도리를 가르치셨다.……나무에서 살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땅에서 살다가 병이 나자 그 후에 궁실을 짓게 했다.[古之時, 人之害多矣, 有聖人者立然後, 敎之以相生養之道.……木處而顚, 土處而病也, 然後爲之宮室.]" 하였다.

504) 서우(胥宇) : 집터를 살펴보아 잡는다는 뜻이다.《시경》〈면(綿)〉에 "고공단보가 아침에 말을 달려와서 서쪽 물가를 따라 기산 아래에 이르니 이에 강녀와 함께 와서 집터를 보아 잡았도다.[古公亶父, 來朝走馬. 率西水滸, 至于岐下. 爰及姜女, 聿來胥宇.]" 하였다.

505) 취옹(醉翁) : 북송(北宋)의 구양수(歐陽脩)이다. 그는 〈취옹정기(醉翁亭記)〉를 지어 자신이 '취옹(醉翁)'인 이유를 설명하였다.

506) 매독(買櫝)의……환주(還珠) : 근본은 버리고 지말(枝末)만 좇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초(楚)나라 사람이 목란(木蘭) 상자에 주옥을 담아 정(鄭)나라 사람에게 팔자, 그 정나라 사람이 상자만 사고 구슬은 돌려주었다는 우화에서 유래한 것이다.《韓非子 外儲說左上》

507) 서하에서……일 : 벗들과 떨어져 홀로 지낸 일을 가리킨다. 공자의 제자인 자하(子夏)가 서하(西河)에서 노년을 보내던 중에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시력을 잃고는 증자(曾子)의 꾸지람을 받자, "내가 벗들을 떠나 혼자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吾離群而索居.]"라고 사과했던 고사가 있다.《禮記 檀弓上》

508) 북해에서……못했다 : 높은 뜻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다.《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에 북해(北海)에 사는 곤(鯤)이란 물고기가 붕새로 변화하여 구만리(九萬里)를 난다고 한 것을 원용한 것이다.

509) 원생(原生)처럼 빈천 : '원생'은 공자(孔子)의 제자인 원헌(原憲)을 말한다. 그는 청고(淸高)하고

곡굉(曲肱)의 삶[510]을 사모했고, 원량(元亮)처럼 가난하지만 어찌 편안한 용슬(容膝)[511]이야 없겠는가?

이에 남촌(南村)[512]에 터 잡은 집을 본받고 북산(北山)[513]의 그윽한 거처를 모방했다. 바다 밖의 명승은 육오(六鰲)[514]의 등에 근접하고 호수 북쪽 승경은 삼신산(三神山) 물가의 물을 마주하고 있다. 새 도시인 영평(永平)의 남쪽이요 옛 현(縣)인 도민(道民)의 부곡(部曲)이다. 산이 서리고 계곡은 굽이져 이원(李愿)[515]의 거처를 떠올릴 만하고, 물이 감돌고 들판은 평평하여 사람들은 중장통(仲長統)[516]의 집으로 부른다. 때가 좋고 날짜도 길하니, 수동(竪棟)과 횡량(橫樑)을 가설하고 애오라지 단정한 붓을 휘둘러 상량의 공적(工績)을 돕는다.

들보 동쪽에 떡을 던져라	抛梁東
바다 밖 단구[517]와 통할 듯하다	海外丹邱若可通

빈한(貧寒)하게 사는 선비의 대명사로 쓰인다.《莊子 讓王》

510) 곡굉(曲肱)의 삶 : 빈한한 생활 속에서도 도를 누리는 삶을 말한다. 공자가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굽혀서 베더라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飯疏食飮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하였다.《論語 述而》

511) 원량(元亮)처럼……용슬(容膝) : '원량'은 동진(東晉)의 시인인 도잠(陶潛)의 자이다. '용슬(容膝)'은 작은 집을 의미한다. 도잠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남쪽 창가에 기대어 교오한 마음을 부치니, 무릎만 겨우 들여놓을 작은 집도 편안한 줄을 알겠네.[倚南窓以寄傲, 審容膝之易安.]" 하였다.

512) 남촌(南村) : 도잠(陶潛)이 살던 곳인 율리(栗里)를 가리킨다. 도잠의 〈이거(移居)〉에 "예전부터 남촌에 살고 싶었으니, 좋은 집터 찾아서가 아니라오. 들으니 깨끗한 마음을 간직한 사람 많아, 즐거이 아침저녁으로 자주 만나려고 해서라오.[昔欲居南村, 非爲卜其宅. 聞多素心人, 樂與數晨夕.]" 하였다.

513) 북산(北山) : 은자의 처소를 의미한다. 남제(南齊) 때 공치규(孔稚圭)가 〈북산이문(北山移文)〉을 지어 북산에 은거하다가 변절하여 벼슬길에 나간 주옹(周顒)을 몹시 책망하는 뜻을 서술했다.

514) 육오(六鰲) : 바다의 삼신산을 비유한 것이다. 본래 '육오'는 바다의 신산(神山)을 머리에 이고 있었다는 6마리 큰 자라를 가리킨다.《列子 湯問》

515) 이원(李愿) : 당나라 때의 은사(隱士)이다. 이원(李愿)이 벼슬을 사직하고 물러나 반곡(盤谷)에 은거할 때 한유(韓愈)가 〈송이원귀반곡서(送李愿歸盤谷序)〉를 지어 그를 칭찬했다.

516) 중장통(仲長統) : 원문의 '중장(仲長)'으로, 후한(後漢) 때의 명사인데 조정에서 벼슬로 부를 때마다 병을 핑계로 사양하였다.《後漢書 권49 仲長統列傳》

517) 단구(丹邱):밤이나 낮이나 항상 밝은 땅으로, 우인(羽人)이 죽지 않고 산다는 선경(仙境)

여기에서 청학동[518]이 바로 보이고　從此直望青鶴洞
하늘과 땅 낮과 밤이 환중[519]에 떠있다　乾坤日夜泛環中

들보 서쪽에 떡을 던져라　抛梁西
금악과 영탄[520]의 빼어난 기운이 나란하다　錦岳靈灘秀氣齊
교외는 백년토록 안개 낀 달밤 같은데　郊外百年烟月夕
호미질 하고 봄 비 속에 긴 내를 지난다　一鋤春雨渡長溪

들보 남쪽에 떡을 던져라　抛梁南
달이 청산에서 솟아 푸른 기운을 가른다　月出靑峯割碧嵐
산 밖으로 영주[521]를 접할 듯하고　山外瀛洲如可接
바다의 해와 하늘 땅 셋이 모두 잠긴다　海光天地尙涵三

들보 북쪽에 떡을 던져라　抛梁北
천주[522]와 북극성이 북극을 향하도다　天柱北辰拱北極
양보[523]를 크게 읊으니 읊을 때마다 쓰라린데　梁甫大吟吟正苦

이다.《초사(楚辭)》〈원유(遠游)〉에 "우인을 따라 단구로 나아감이여, 죽지 않는 옛 고장에 머물련다. [仍羽人於丹丘兮, 留不死之舊鄕]." 하였는데 왕일(王逸)의 주에 "단구(丹丘)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밝다.[丹丘晝夜常明也.]" 하였다.

518) 청학동(青鶴洞) : 지리산(智異山) 속에 있다는 선경인데, 아직까지 아무도 그곳을 찾지는 못했다고 한다.

519) 환중(環中) : 절대적인 경지를 말한다.《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에 "피와 차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을 도추(道樞)라고 한다. 문의 지도리는 환중을 얻어야 무궁한 것에 응할 수 있으니 시란 하나의 무궁한 것이며 비 또한 하나의 무궁한 것이다.[彼是莫得其偶, 謂之道樞. 樞始得其環中, 而應無窮, 是一無窮, 非亦一窮.]" 하였다.

520) 금악과 영탄 : '금악(錦岳)'은 전라도 나주(羅州)의 금성산을, '영탄(靈灘)'은 영산강을 말한다.

521) 영주(瀛洲) : 신선이 살았다는 삼신산(三神山) 중의 하나이다.

522) 천주(天柱) : 하늘을 받치는 기둥을 이른다.《列子 湯問》

523) 양보(梁甫) : 양보음(梁甫吟)으로 악부(樂府)의 곡명이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제갈량(諸葛亮)의 〈양보음〉은 춘추 시대 제(齊)나라 재상 안평중(晏平仲)이 도량이 좁아 세 명의 용사를 죽이고야 만 일을 한탄하는 내용이며, 이백(李白)의 〈양보음〉은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지 못한 울분을 서술한

뭇별들이 어지러이 남쪽 사막으로 이어진다 衆星錯落連南漠

들보 위로 떡을 던져라 抛梁上
구만리 긴 하늘에 쌓인 기운이 출렁인다 九萬長天積氣蕩
얼굴 젖히니 내 정신 몹시 상쾌하게 하고 仰面不堪爽我神
밝은 해와 달이 내 이마에 임하도다 分明日月臨吾顙

들보 아래로 떡을 던져라 抛梁下
만고토록 곤유[524]에 빈마[525]를 멍에 하라 萬古坤維駕牝馬
길한 징조를 펴서 아름다운 상서 만드니 能發休徵作嘉祥
한 구역의 화기는 천년토록 이어지리라 一區和氣千春夏

삼가 바라건대, 상량한 뒤로는 재앙이 영원히 그치고 원포(園圃)에는 길이 봄만 있으며, 시서를 읊고 외워 집에는 추로(鄒魯)의 군자[526]가 가득 차고, 가정에서 충효를 전하여 방에는 하락(河洛)[527]의 순수한 기풍이 있으며, 꿈에 웅비(熊羆)[528]를 꾸어 길이 〈종사(螽斯)〉[529]의 경사를 받으며, 거북과

것이다.

524) 곤유(坤維) : 곤유(坤維)는 지유(地維)를 가리키는 듯하다. 지유는 대지(大地)를 유지하는 동아줄을 말한다.《列子 湯問》

525) 빈마(牝馬) : 암말이다.《주역》에서 땅을 암말에 비유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주역》〈곤괘(坤卦)〉에 "곤은 크게 형통하고 암말의 정함이 이롭다.[坤, 元亨, 利牝馬之貞.]" 하였다.

526) 추로(鄒魯)의 군자 : '추로(鄒魯)'는 공자가 춘추 시대 노(魯)나라 사람이었고, 맹자가 전국 시대 추(鄒) 땅 사람이었던 데에서 온 말이고, 여기서는 유학을 하는 선비를 가리킨다.

527) 하락(河洛) : 하수(河水)와 낙수(洛水)의 병칭으로 낙양(洛陽)을 가리키는바, 북송(北宋)의 정자(程子) 형제가 거처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칭하며, 정주학을 통칭하는 단어로 쓰인다.

528) 웅비(熊羆) : 남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가리킨다.《시경》〈사간(斯干)〉에 "대인이 점을 치니 곰과 큰곰은 남자를 낳을 상서요, 살무사와 뱀은 여자를 낳을 상서로다.[大人占之, 維熊維羆, 男子之祥, 維虺維蛇, 女子之祥.]" 하였다.

529) 종사(螽斯)의 경사 : 〈종사(螽斯)〉는《시경》의 편명으로, 자식을 많이 두는 경사를 의미한다. 그 시에 "수많은 메뚜기가 화목하게 모여들듯, 마땅히 그대의 자손 번성하리라.[螽斯羽, 詵詵兮, 宜爾子孫, 振振兮.]" 하였다.

시초의 점괘가 길하여 실로 풍년[530]의 상서를 누리고, 그 시작을 이제부터 하여 끝없이 전할지어다.

---

530) 풍년 : 원문의 '어의(魚矣)'로,《시경》〈무양(無羊)〉에 "목인이 꿈을 꾸니, 사람들이 물고기로 보였는데……사람들이 물고기로 보이는 것은, 실로 풍년이 들 조짐이다.[牧人乃夢, 衆維魚矣,……衆維魚矣, 實維豊年.]" 하였다.

제문
祭文

이성암[531]에 대한 제문
祭李惺菴文

유세차 신축년(1661, 현종2) 8월 정미삭(丁未朔) 정사(丁巳)에 후학 김만영은 삼가 집안 조카 문봉의(文鳳儀)를 보내 맑은 술과 과일의 제물을 받들어 성암(惺菴) 이 선생(李先生) 영좌 앞에 공경히 제사를 올립니다.

아! 세상에 학문으로 이름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문파가 각기 다르고 학맥도 다양한데 호중(湖中)에서 정학(正學)을 마음에 두고 정주(程朱)의 학통에 가까운 사람은 천년 이래 한 분 존옹(存翁) 뿐입니다. 적막했던 백 년 동안 더는 창도한 자가 없었는데 선생이 나온 것이 다행히도 이 때를 맞았습니다. 선생은 깨끗하고 조용한 자질과 자상하고 온화한 기품으로 세상의 번잡한 일들을 일찍 사절하고 사학(斯學, 유학)에만 뜻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일이 반드시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아서 존심(存心)[532]을 요체로 삼았고, 심체(心體)가 반드시 고요한 데에 편안함을 알아서 직내(直內)[533]를 뿌리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역》을 배워서 먼저 만수일본(萬殊一本)[534]의 영역을 연구하고 【▣】 보존하여 사씨(謝氏)

---

531) 이성암(李惺菴) : 이수인(李壽仁, 1601~1661)을 가리킨다. 성암(惺菴)은 그의 호.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유안(幼安)이다. 1633년 과거에 급제하여 전적, 병조좌랑, 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1642년 재차 전적에 제수되었으나 사은한 뒤 바로 전리(田里)로 내려갔으며, 이후로도 여러 차례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532) 존심(存心) : '존심양성(存心養性)'의 준말로,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연의 성을 기른다는 뜻인데, 성리학에 있어 심성 수양론을 대표하는 말이다. 《맹자(孟子)》 〈진심 상(盡心上)〉에,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성(性)을 아니, 그 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그 마음을 보존하여 그 성을 기름은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하였다.

533) 직내(直內) : 내면을 경(敬)으로 곧게 하는 것으로 유가의 수양법이다. 《주역》 〈곤괘(坤卦) 문언(文言)〉에, "군자는 경하여 내면을 곧게 하고 의로워 외면을 바르게 한다. 경과 의가 확립되면 덕이 외롭지 않다.[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하였다.

534) 만수일본(萬殊一本) : 만물이 서로 다르지만 근본 원리는 하나라는 뜻이다.

의 '경(敬)'을 논한 뜻[535]에 가장 밝았습니다. 아! 선생의 학문은 근본이 있다 하겠습니다.

간책에 이름을 올리고 과거에 급제하여 청요직(淸要職)을 거치고는 은혜로운 윤음(綸音)이 누차 내려오고 간절한 소명(召命)이 답지(沓至)했으나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벼슬하지 않는 것은 의리가 없는 것이다.[536]'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미리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으나, '나는 아직 벼슬할 자신이 없다.'라는 도리에 대해서 독실하게 믿는 바가 있었습니다.[537] 그러므로 홀로 성현이 남긴 경전을 안고서 반평생 깊은 골짜기에서 그대로 평생을 마칠 것처럼 하여[538] 영달(榮達)에 대한 생각을 끊었던 것입니다. 아! 선생의 뜻은 독실하다 하겠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양묘(兩廟, 인조와 효종)가 승하한 날을 당해서는 병든 몸으로 수레를 타고 천리를 달려가 길가에서 곡(哭)을 하였고, 굶어죽은 시체가 길을 메운 때를 만나서는 자기 일처럼 근심하여 소장을 올려 사정을 진언하였습니다. 아! 선생은 세상에 대해 장차 큰 뜻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통탄스러운 것은 바야흐로 학문이 완성되고 공부가 성숙해 질 즈음에 거경궁리(居敬窮理)와 성기성물(成己成物)[539]의 학문에 더욱 크게 힘을

---

535) 사씨(謝氏)의……뜻 : 사씨(謝氏)는 북송(北宋)의 학자인 사양좌(謝良佐)로, '경(敬)'에 대해 "경이란 항상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법이다.[敬是常惺惺法]" 하였다.《心經附註》

536) 벼슬하지……것이다 : 자로(子路)가 세상을 버리고 은거하는 노인 하조장인(荷蓧丈人)에 대해서 "벼슬하지 않는 것은 의리가 아니니 장유의 예절을 폐할 수 없거늘 군신의 의리를 어떻게 폐할 수 있겠는가. 자기 일신을 깨끗이 하고자 큰 인륜을 없애는 짓이다.[子路曰, 不仕無義, 長幼之節, 不可廢也, 君臣之義, 如之何其廢之. 欲潔其身而亂大倫.]" 하였다.《論語 微子》

537) 나는……있었습니다 :《논어》〈공야장(公冶長)〉에 "공자가 칠조개에게 벼슬하도록 권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벼슬하는 것에 대해 아직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니, 공자가 기뻐하였다.[子使漆雕開仕. 對曰, 吾斯之未能信. 子說.]" 하였다. 여기서는 벼슬에 급급하지 않고, 학문과 도(道)에 둔 뜻이 독실했다는 것을 말한다.

538) 그대로……하여 : 부귀빈천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다는 뜻이다.《맹자》〈진심 하(盡心下)〉에 "순 임금이 마른 밥을 먹고 채소를 먹을 때에는 그대로 평생을 마칠 듯이 하더니, 천자가 되어서는 진의를 입고 거문고를 타며, 두 여자가 모시는 것을 본래 있었던 것처럼 여겼다.[舜之飯糗茹草也, 若將終身焉, 及其爲天子也, 被袗衣鼓琴, 二女果, 若固有之.]" 하였다.

539) 거경궁리(居敬窮理)와 성기성물(成己成物) : 정주학(程朱學)에서 말하는 학문을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거경(居敬)은 내적(內的) 수양 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마음을 성찰하여 성실하게 기거동작(

쓸 수 있었다면, 학문의 조예가 지극해지고 실제의 덕이 완성됨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늘이 재주를 주어 처음에는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였다가 끝내는 이처럼 빠르게 빼앗아 갔단 말입니까?

아! 선생은 독실하게 도를 믿으며 견고하게 뜻을 지키고 절실하게 시국을 근심하면서 궁벽한 시골에서 검약(儉約)을 지켰으나, 뜻을 아직 크게 이루지는 못하여 미처 자세히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어[540] 이 만학(晩學)은 의지할 곳을 잃었으니, 어찌 저로 하여금 뼈에 사무치고 넋이 슬퍼하여 계속 대성통곡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연전에 뵈었을 때 밝은 가르침이 간곡했고 계속 편지로 깨우치고 이끌어 주셨기에 약아(約我)[541]의 희망이 바야흐로 커졌는데 어찌 안앙(安仰)[542]의 통곡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체백이 무덤에 영원히 묻히게 되었다는 부음을 듣고도 천한 병이 몸을 휘감은지라, 상여끈도 잡지 못하고 멀리 남쪽 구름만 쳐다보며 정신만 날아서 가고, 사람을 대신 보내 술을 올려 감히 애사(哀辭)를 고합니다. 어둡지 않은 영혼이 계시다면 부디 작은 정성에 임하시어 흠향하소서.

起居動作)을 절제하는 것을 말한다. 궁리(窮理)는 외적 수양 방법으로 널리 사물의 이치를 궁구(窮究)해서 정확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성기성물(成己成物)'은 자기의 덕을 완성하고 그 덕으로 남을 교화시킴을 뜻한다.

540) 세상을 떠나시어 : '화책(華簀)'은 화려하게 만든 자리인데, 화책을 바꾼다는 것은 죽음을 비유한다. 증자(曾子)가 임종 직전에, 깔고 누운 대자리가 너무 화려하여 예(禮)에 맞지 않음을 알고, 바꾸게 하였다는 역책(易簀)의 고사가 전한다.《禮記 檀弓上》

541) 약아(約我) : 스승이 잘 이끌어 준 것을 비유한 것이다.《논어》〈자한(子罕)〉에 "부자께서 차근차근히 사람을 잘 이끄시어 문으로써 나의 지식을 넓혀 주시고 예로써 나의 행실을 요약하게 해 주셨다.[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하였다.

542) 안앙(安仰) : '안앙(安仰)'은 스승이나 훌륭한 인물의 죽음을 비유한다. 공자(孔子)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태산이 무너지려 하는구나. 들보가 쓰러지려 하는구나. 철인이 시들려 하는구나." 라고 읊조렸는데, 자공(子貢)이 이 소식을 듣고는 "태산이 무너지면 우리는 장차 누구를 우러르며, 들보가 쓰러지고 철인이 시들면 우리는 장차 누구를 의지하겠는가?[泰山其頹, 則吾將安仰, 梁木其壞, 哲人其萎, 則吾將安放?]" 하였다.《禮記 檀弓上》

이성암에 대한 제문을 또 짓다 【봉산서원[543] 유생 등을 위해 지었다.】
又祭李惺菴文【爲蓬山書院儒生等作】

명유의 적통이요	名儒宗適
은현의 가법을 이었도다	隱賢家法
자품이 이미 뛰어나고	姿稟旣異
대대로 학문하여 가업 전했네	世學傳業
일찍 국빈으로 뽑히고[544]	早擢國賓
중년엔 도의 요점 깨우쳤네	中悟道的
명산의 고요한 방은	名山靜室
좌우로 도서와 문적이로다	左圖右籍
《역》은 선천[545]을 궁구하고	易窮先天
마음은 미발[546]을 보존하였네	心存未發
조존양성[547]에 방도가 있었으니	操養有方
《근사록》의 진결이었네	近思眞訣

---

543) 봉산서원(蓬山書院) : 휴암(休菴) 백인걸(白仁傑)을 제향하는 전라도 나주(羅州) 남평(南平)에 있는 서원으로 1650년(효종1)에 창건되어 1667년(현종8)에 사액(賜額)을 받았으며, 1868년(고종5)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36 全羅道》

544) 국빈으로 뽑히고 : 과거에 급제한 것을 말한다.《주역》〈관괘(觀卦)〉에 "육사는 나라의 광휘를 관찰함이니, 왕에게 빈이 되는 것이 이롭다.[六四, 觀國之光, 利用賓于王.]"고 한 데서 온 말이다.

545) 선천(先天) : 우주의 본체와 만물의 본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북송(北宋)의 소옹(邵雍)이 진단(陳摶)의 학문을 터득하여《주역》을 설명하면서 복희(伏羲)의 역(易)을 선천, 문왕(文王)의 역을 후천(後天)이라 하였으며,〈복희선천괘위도(伏羲先天卦位圖)〉를 만들었다. 그래서 소옹의 역학을 선천학(先天學)이라 한다.

546) 미발(未發) : '중(中)'을 말하는 것으로,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이 발하지 않았을 때의 편벽되거나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중용장구》제1장에 "희로애락이 발하기 이전을 중이라고 한다.[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하였다.

547) 조존양성 : 성리학에서 심성을 수양하는 방법인 '조존(操存)'과 '존심양성(存心養性)'을 합하여 말한 것이다.《맹자》〈고자 상(告子上)〉에 "잡아 두면 있고 놓아 버리면 없어지는 것으로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일정한 때가 없으며,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것이 마음이다.[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鄕, 惟心之謂與.]"라고 하였고,《맹자》〈진심 상(盡心上)〉의 "마음을 보존하여 본성을 기름은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하였다.

흠흠한 정자의 경과	欽欽程敬
성성한 사씨의 학문[548]을	惺惺謝學
참으로 따르고 독실하게 믿어서	誠服篤信
끝내 지극하기를 기약했도다	終期其極
실질이 채워지니 이름이 퍼지고	實充名發
집안에 있어도 명성이 알려지니	在家聲達
윤음이 여러 번 내려와서	綸音累降
역마로 부르는 일이 잦았네	馹召頻篤
칠조개처럼 자신하지 않고	漆雕未信
원헌처럼 벼슬하지 않으며	原生不仕
검약함을 지키고 거경하며	守約居敬
대의를 볼 것을 기약하였네	期見大意
포거[549]를 멍에하기도 전에	蒲車未駕
백순[550]처럼 먼저 졸했으나	伯淳先亡
좋은 금은 깎여 정밀해지고	良金鏟精
순수한 옥은 다듬어져 빛나리	粹玉理光
남은 글은 주인이 없으니	遺篇無主
어두운 후학은 누굴 본받을까	瞽學奚式
영평의 동쪽 언덕	永平東崖
중봉의 북쪽 기슭에	中峯北麓
글을 지어 현인을 제사하고	命詞祀賢

548) 흠흠한……학문 :《이정수언(二程粹言)》 권상(卷上)에 “마음을 전일하게 하는 것을 ‘경(敬)’이라 하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감이 없는 것을 ‘일(一)’이라 한다.[主一之謂敬, 無適之謂一.]”라고 한 정이(程頤)의 말이 나온다. 성성(惺惺)은 마음이 깨어 있게 한다는 뜻으로 본래 불교 용어인데, 송유(宋儒) 사양좌(謝良佐)가 “경은 항상 깨어 있게 하는 방법이다.[敬是常惺惺法]”라고 말한 뒤로부터 유가(儒家)에서 경(敬)을 해석하는 하나의 유력한 용어가 되었다.《심경부주(心經附註)》 권1 〈경이직내장(敬以直內章)〉에 인용되어 있다.

549) 포거(蒲車) : 덜거덕거리지 않게 부들 잎으로 바퀴를 싼 수레로, 현사(賢士)를 초빙할 때에 쓴다.

550) 백순(伯淳) : 송나라 학자 정호(程顥)의 자이다. 신종(神宗) 때에 왕안석(王安石)과의 불화로 언직(言職)을 버리고 외관말직으로 물러났었는데, 그 뒤 철종(哲宗)이 즉위하여 종정승(宗正丞)의 벼슬을 제수하여 불렀으나 부임하기 전에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宋史 권427 程顥列傳》

나에게 글을 꾸미게 함은	作我矜飾
소자가 옷을 여미고 모시며[551]	小子摳衣
깊이 장려를 받아서이리라	深荷獎則
이제 장차 누구를 우러를까	玆將安仰
덕을 상고할 곳이 없구나	無所考德
삼가 하찮은 제물을 갖춰	謹具菲薄
진실로 정성을 아뢰오니	誠陳悃愊
깨어서 어둡지 않으시거든	惺一不昧
저의 충심에 강림하소서	降格衷曲

551) 옷을 여미고 모시며 : 원문의 '구의(摳衣)'로, 윗사람에게 몸가짐을 공손히 하는 태도이다. 《예기(禮記)》 〈곡례 상(曲禮上)〉에 "어른이 계신 방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옷자락을 치켜들고 모퉁이로 빠른 걸음으로 나아간 다음, 대답하는 것을 반드시 삼가서 해야 한다.[摳衣趨隅, 必愼唯諾.]"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녹동서원에 최산당[552]을 추배하는 제문

祭鹿洞書院崔山堂追配文

명도의 저명한 망족으로	名都著望
곤육의 경사를 쌓으니[553]	慶積坤六
어진 선비와 큰 학자가	吉士弘儒
대대로 후손[554]에 이어졌네	世襲蘭玉
금서를 즐기는 명절이요	琴書名節
존양[555]하는 숙덕으로	存養宿德
밝고 진실한 선생은	顯允先生
집안에서 정학을 전했도다	家傳正學
물고기와 시내처럼 새와 구름처럼	魚川鳥雲
의탁할 때 친할 사람을 잃지 않았고[556]	因不失親
단비처럼 교화하니	時雨而化
위대한 현인의 가문이로다	鉅賢之門

---

552) 녹동서원에 최산당 : '녹동서원'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서원이다. 1630년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존양(存養) 최덕지(崔德之, 1384~1455)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존양사(存養祠)를 창건하고 위패를 모셨다. 1713년에 '녹동(鹿洞)'이라고 사액되어 서원으로 승격하였다. '산당(山堂)'은 최충성(崔忠成, 1458~1491)의 호이다. 최덕지의 손자이다.

553) 곤육(坤六)의 경사를 쌓으니 : 군자의 도를 실천하고 선행을 쌓은 것을 말한다. '곤육(坤六)'은 《주역》 〈곤괘(坤卦) 문언(文言)〉에 "군자는 공경히 하여 안을 곧게 하고, 의롭게 하여 밖을 방정하게 한다.[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원문의 '경적(慶積)'은《주역》〈곤괘(坤卦) 문언(文言)〉에 "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에게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게 마련이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에게 반드시 남은 재앙이 돌아오게 마련이다.[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554) 후손 : 원문의 '난옥(蘭玉)'으로 남의 집안의 우수한 자제를 예찬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사안(謝安)이 여러 자제들에게 어떤 자제가 되고 싶은지 묻자, 그의 조카인 사현(謝玄)이 대답하기를 "비유하자면 지란과 옥수가 뜰에 자라게 하고 싶습니다.[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階庭耳.]" 하였다. 《晉書 卷79 謝玄列傳》

555) 존양(存養) : '존심양성(存心養性)'의 준말로,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고 본연의 성을 기른다는 뜻이다. 《孟子 盡心上》

556) 의탁할……않았고 : 《논어》 〈학이(學而)〉에 "의탁할 때 그 친할 만한 사람을 잃지 않으면 또한 종주로 삼을 수 있다.[因不失其親, 亦可宗也.]" 하였다.

아 대동에서	於惟大東
어진 현인의 은택이 끊어졌는데[557]	澤斬仁賢
신라에서 고려까지	降羅迄麗
도학은 오천[558]을 종조로 삼네	學祖烏川
금오[559]가 재전하여	金鰲再傳
점필재[560]가 사숙하였고	佔齋私淑
수옹과 훤옹[561]은	睡翁暄翁
학문을 더욱 닦고 입실했네[562]	操戈入室
선생의 심법은	先生心法
사문에 오묘하게 나아가서	妙詣師門
그 도가 넓고 넓어	斯道浩浩
손쓰고자 해도 끝이 없었네	下手無垠

---

557) 은택이 끊어졌는데 : 원문의 '택참(澤斬)'으로, 《맹자》 〈이루 하(離婁下)〉에 "군자의 은택도 5대가 지나면 끊어지고, 소인의 영향도 5대가 지나면 끊어진다.[君子之澤, 五世而斬, 小人之澤, 五世而斬.]"라고 하였는데, 이는 선대(先代)의 일이 후손에게서 끊어졌음을 말한다.

558) 오천(烏川) :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이다. 오천은 연일(延日)의 옛 이름으로, 정몽주의 본관이다.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360년에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삼사좌사(三司左使)에 올랐으며, 유학을 크게 진흥하여 성리학의 기초를 세웠다. 끝까지 고려 왕조를 받들며 절의를 지키다가 이방원이 보낸 조영규에게 선죽교에서 죽임을 당했다.

559) 금오(金鰲) : 길재(吉再, 1353~1419)이다.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재보(再父), 호는 야은(冶隱) 또는 금오산인(金烏山人)이다. 조선이 건국한 후에는 조선 왕조의 부름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정몽주에게 수학하였고, 그의 학맥은 김숙자(金叔滋), 김종직(金宗直),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등으로 이어졌다.

560) 점필재(佔畢齋) :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이다. 본관은 선산(善山), 자는 효관(孝盥)·계온(季昷), 호는 점필재이다. 정몽주와 길재의 학통을 계승하여 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도학 정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생전에 지은 「조의제문(弔義帝文)」은 무오사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561) 수옹과 훤옹 : 정여창(鄭汝昌, 1450~1504)과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이다. 정여창의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백욱(伯勗), 호는 일두(一蠹)·수옹(睡翁)이다. 김굉필의 본관은 서흥(瑞興), 자는 대유(大猷), 호는 사옹(蓑翁)·한훤당(寒暄堂),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562) 학문을……입실했네 : 원문의 '조과입실(操戈入室)'로, 본래는 《후한서(後漢書)》 〈정현열전(鄭玄列傳)〉에서 유래하여 상대의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스승의 학문을 더욱 더 닦았다는 뜻이다. 원문의 '입실(入室)'은 도(道)의 심오한 경지에 들어감을 뜻한다. 《論語 先進》

윤리를 밝히고 가르침 세움에 明倫立教
장님처럼 밤길을 더듬을 때[563] 擿埴冥行
선생을 존숭하고 믿음은 先生尊信
부모와 천지신명 같았네 父母神明
성과 명[564]은 형체가 없으나 形命無形
존양성찰에는 법도가 있었으니 養省有法
경과 성을 규칙으로 삼아 敬惺規則
사씨처럼 부연하고 정자처럼 본받았네[565] 謝衍程式
선생이 가슴에 새겨 先生服膺
황연히 스스로 터득하고 怳然自得
산당으로 물러나서 卷懷山堂
이윤에 뜻을 두고 안자를 희구했네[566] 志莘希巷
전은 무명[567]에 견주고 傳擬無名
시는 격양[568]을 사랑했으며 詩愛擊壤

---

563) 장님처럼……때 : 학문의 나아갈 길을 잘 모름을 비유한 말이다. 한나라 양웅(揚雄)의 《법언(法言)》 〈수신편(修身篇)〉에 "소경이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면서 길을 찾아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과 같게 될 뿐이다.[擿埴索途, 冥行而已矣.]" 하였다.

564) 성과 명 : 원문의 '形命'은 문맥상 맞지 않아, 최충성(崔忠成)의 《산당집(山堂集)》 〈산당선생배향축문(山堂先生配享祝文)〉을 참고하여 '性命'으로 번역하였다.

565) 경과……본받았네 : '경(敬)'은 유가의 가장 중요한 수양법인데 정이(程頤)가 강조한 것이다. '성(惺)'은 항상 깨어 있는 것으로, 《심경부주(心經附註)》 〈경이직내장(敬以直內章)〉에 사양좌(謝良佐)가 "경은 항상 성성하는 법이다.[敬是常惺惺法]"라고 한 것을 말한다.

566) 이윤에……희구했네 : '신(莘)'은 유신(有莘)으로 옛날 명재상 이윤(伊尹)이 이곳에 살았다. 이윤은 농사를 짓다가 탕왕(湯王)의 정중한 초빙을 받고 세상에 나와 하(夏)나라 걸왕(桀王)을 추방하고 상(商)나라 왕조를 건립하였다. 《孟子 萬章上》 '항(巷)'은 공자의 제자 안연(顔淵)의 안빈낙도했던 누추한 곳이다. 《論語 雍也》

567) 무명(無名) : 송(宋)나라 소옹(邵雍)을 말한다. 《주역》의 이치에 정통하고 상수학(象數學)에 능하였다. 낙양(洛陽)에 살 때에는 공중누각(空中樓閣)을 지어 자호를 무명공(無名公)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그는 〈무명공전(無名公傳)〉을 지어 명리와 차별을 초월하겠다는 자신의 지향을 전(傳)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性理大全 권13 無名公傳》

568) 격양(擊壤) : 송나라 소옹(邵雍)의 《이천격양집(伊川擊壤集)》에 나오는 시를 말한다.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담아서 노래한 시가 많다.

한가로이 역리를 탐구했고[569]	寬閑弄丸
내가 그칠 바를 알았네	得我攸止
이단의 교를 힘써 배척하고	力排異教
바른 이치를 앞장서 밝혔네	倡明正理
체가 확립됨은 형체의 뒤요	體立形後
용은 형체가 시작되기 전에 갖춰졌다고 한[570]	用具未始
분명한 한 마디의 말은	一言昭晰
근본이 하늘에서 나온 것이네	原本出天
안생[571]처럼 일찍 세상 떠나	顏生早世
격언은 전해지지 않고	格言無傳
백순[572]처럼 먼저 떠났으나	伯淳先亡
이름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名聞播人
남은 향기가	餘芳遺馥
나약한 자 세우고 완악한 자 깨우치네	立懦惺頑
황폐한 고을이 비루하여	荒鄉鄙汚
성대한 의전을 오래 미뤄왔는데	久稽褥[573]儀
백대의 공론은	百代公論
시대가 멀어져도 변하지 않아	愈遠不淄

569) 역리를 탐구했고 : 원문의 '농환(弄丸)'으로 태극(太極)과 같은 구슬을 가지고 논다는 말로, 역리(易理)를 탐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송나라 소옹(邵雍)의 《이천격양집(伊川擊壤集)》 권12 〈자작진찬(自作眞贊)〉에 "구슬을 가지고 노는 여가에, 한가로이 왔다 갔다 하노라.[弄丸餘暇, 閑往閑來.]"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주(自註)에 "환(丸)은 태극이다."라고 하였다.

570) 체가……한 :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권1 〈도체(道體)〉에 "邵子가 말하기를 "용(用)은 천지 이전에 일어나고 체(體)는 천지 이후에 확립되었다.[邵子曰, 用起天地先, 體立天地後.]"라는 내용이 보인다.

571) 안생(顏生) : 공자의 제자인 안회(顏回)를 말한다. 공자의 가장 뛰어난 제자로, 32세에 요절하였다.

572) 백순(伯淳) : 송나라 학자 정호(程顥)의 자이다. 신종(神宗) 때에 왕안석(王安石)과의 불화로 언직(言職)을 버리고 외관말직으로 물러났었는데, 그 뒤 철종(哲宗)이 즉위하여 종정승(宗正丞)의 벼슬을 제수하여 불렀으나 부임하기 전에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宋史 권427 程顥列傳》

573) 褥 : '縟'의 잘못인 듯하다.

선비들[574]이 모두 찬사하여　縫掖咸辭
묻지 않았어도 도모함이 맞았네　不咨謀諧
영봉[575]의 서쪽 산기슭　靈峯西麓
덕수의 남쪽 물가에　德水南滸
우뚝한 사당이 있으니　有堂巋然
명조의 신령스런 사우로다　名祖神宇
분향할 날을 가려 배향하고　配享涓苾
같은 사당에서 함께 제사하여　合祀同室
덕을 존숭하고 절개 숭상하니　崇德尙節
길이 전해져 끝이 없으리라　永傳無極
두 공께 사사로이 대함이 아니고　非私二公
후세를 모두 권면하려 함이라네　幷勸來億

574) 선비들 : 원문의 '봉액(縫掖)'으로 유자(儒者)들이 입은 옷소매가 넓은 복장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선비를 지칭한 것이다.《예기》〈유행(儒行)〉에 "저(공자)는 어려서 노나라에 살 때에는 봉액의 옷을 입었고, 장성하여 송나라에 살 때에는 장보의 관을 썼습니다.[丘少居魯, 衣縫掖之衣, 長居宋, 冠章甫之冠.]"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575) 영봉 : 전라도 영암(靈巖)의 월출산을 가리키는 듯하다.

존양 선생 신위전 고사문
存養先生神位前告辭文

산당 선생의 정학은	山堂正學
단서와 연원이 있어	端緖淵源
가법과 사문에	家法師門
둘 다 허물이 없으니	兩盡罔愆
예에 맞게 배사하고	禮合配祀
나란히 술잔을 올립니다	並饗罍爵
거북을 지지니 조짐이 바르고	焞龜兆正
분향 날짜를 택함이 점괘에 맞아	芬涓叶卜
신위를 받들어 배향하고	奉配神位
감히 정성을 펴서 경건히 고합니다	敢伸虔告

구담의 강가 집의 터를 닦을 때 제문【조카 오재발을 위해 짓다.】
祭龜潭江舍開基文【爲吳侄再發作】

오산현[576] 남쪽이요	烏山縣南
구담 물가의 북쪽에	龜潭磯北
한 언덕이 둥글고 깨끗한데	一邱圓淨
빼어난 풍경들이 다 모였습니다	衆秀咸集
흐름은 금단으로 통하고	流通錦湍
산은 광악에서 뻗어 나와	峙自光嶽
가까이는 남덕을 향하고	近拱南德
멀리 영월을 당길 듯합니다	遠引靈月
큰 들판이 넓고 평평하여	大野寬平

576) 오산현(烏山縣) : 전라남도 나주(羅州)시 남평(南平)면의 옛 이름이다.

앞뒤로 담요를 펼친 듯하고 前後鋪氈
용이 사리고 범이 웅크리듯 龍蜒虎蹲
산천이 융결하였습니다 融結山川
마침내 명승이 되어서 聿爲名區
누대가 있고 연못이 있습니다 有臺有淵
상상컨대 옛날 선인들이 想昔先人
화려한 서까래를 높이 가설하여 高架華椽
나는 듯한 용마루와 서까래에 翼然甍桷
붉고 흰 장식 성대했을 것입니다[577] 丹堊奐侖
난옹이 벽에 시를 짓고 蘭翁詠壁
태로가 문미에 시를 썼으나 苔老題楣
정유년의 병란[578]에 赤鷄兵燹
천지가 모두 걸려들었습니다 天地交罹
재앙이 화재[579]로 이어져서 禍延回祿
집이 다 재가 되고 말았고 棟宇成燼
황폐해진 지가 백년이라 荒榛百年
행인들도 탄식하였습니다 行路嗟愍
작은 이 몸이 먼 후손으로 藐余裔雲
선인의 뜻을 받들어서 克承先志
무성한 초목 베어 없애고 芟蕪除蕁
황폐해진 터 헤쳐서 여니 啓荒頹址

---

577) 성대했을 것입니다 : 원문의 ‘환윤(奐侖)’으로, 흔히 ‘윤환(輪奐)’으로 쓰인다. 규모가 웅장하고 성대하다는 뜻으로, 건물이 낙성된 것을 축하할 때 쓰는 표현이다. 진(晉)나라 헌문자(憲文子)가 저택을 신축하여 준공하자 대부들이 가서 축하하였는데, 이때 장로(張老)가 “아름다워라, 웅장한 집이여! 아름다워라, 성대한 집이여! 제사를 지낼 때에는 여기서 음악을 연주하고, 상사를 당했을 때는 여기서 곡읍을 하고, 여기서 국빈과 종친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美哉輪焉, 美哉奐焉. 歌於斯, 哭於斯, 聚國族於斯.]”라고 축사하였다. 《禮記 檀弓下》

578) 정유년의 병란 : 정유재란(丁酉再亂)을 말한다. 원문의 ‘적계(赤鷄)’로 정유년(1597, 선조30)이다. 십간(十干) 중의 정(丁)은 오행에서는 화(火)에 해당하고 색채로는 적색에 해당하며, 십이지(十二支) 중의 유(酉)는 닭을 뜻하는 글자이다.

579) 화재 : 원문의 ‘회록(回祿)’으로, 화신(火神)의 이름이다. 화재의 의미로 쓰였다.

화려한 창은 비록 없으나	文窓縱乏
소박한 집은 세울 수 있습니다	白屋可起
붉은 여지[580]는 나지 않아도	荔丹非産
음식과 술로 정성껏 차리고	麪醑將誠
목욕하고 옷을 털며 머리 감고 관을 털고	浴振沐彈
마음을 단정히 하고 감정을 단속했습니다	齊心約情
기가 이내 훈호[581]하여	氣仍薰蒿
저의 충심에 복을 내리고	嘏我衷赤
저를 돕고 저를 보호함은	佑我保我
오직 신이 복을 주는 바이니	惟神所福
영원히 재앙을 없애고	永蠲災眚
강녕과 길함을 길이 늘여 주소서	長延康吉
집은 구름과 남기에 잠겨있고	戶鎖雲嵐
난간은 바람과 안개를 들입니다	軒納風烟
마음이 한가롭고 뜻이 즐거워	心閑志樂
늙어가며 고기 잡고 하늘 낚으니	老漁釣天
후세에 오래도록 전하여	久傳來世
저의 복전[582]을 잇게 하소서	承我福田

580) 붉은 여지 : '여단(荔丹)'으로 붉은 여지 열매를 말한 것인데, 여기서는 특별한 제물(祭物)을 비유한 것이다. 소식(蘇軾)의 〈조주한문공묘비(潮州韓文公廟碑)〉에 "들소의 희생을 올리고 닭 뼈로 점을 치며 우리 술잔 올리니, 아, 찬란한 붉은 여지와 황금색 파초라오.[犦牲鷄卜羞我觴, 於粲荔丹與蕉黃.]"라는 구절이 있는데 특산물로 제물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581) 훈호(薰蒿) : 귀신의 기(氣)를 형용한 것이다. 《예기》 〈제의(祭義)〉에 "생물들은 반드시 죽고 죽으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나니 이를 귀라고 이른다. 뼈와 살은 땅속에서 썩어 흙이 되고 이것이 야토가 되면 그 기는 발하여 위로 올라가서 소명, 훈호, 처창이 된다.[衆生必死, 死必歸土, 此之謂鬼. 骨肉斃于下, 陰爲野土, 其氣發揚于上, 爲昭明焄蒿悽愴.]"라고 하였는데, 그 주에 "귀신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 소명, 그 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훈호, 사람의 정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처창이다.[鬼神之露光處是昭明, 其氣蒸上處是焄蒿, 使人精神竦動處是悽愴.]" 하였다.

582) 복전(福田) : 봄에 씨 뿌리고 가꾸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공양(供養)하고 보시(布施)하며 선근(善根)을 심으면 그 보답으로 복을 받는다는 뜻의 불교 용어이다.

이사 후 토지신에 대한 제문【을축년[583] 정월 16일 을해】
祭移家後土神文【乙丑正月十六日乙亥】

남양(南陽)[584]에 초가집을 처음 완성한 것은 공경심을 지키려함이지 음풍농월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회암(晦菴)[585]도 토지에 제사할 때 의례를 두었으니, 미리 재계하고 감히 짧은 글을 고합니다. 공경하되 멀리해야 하니 하물며 신을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586]

주인 모(某)는 주경야독하는 신세로 청근(淸謹)함은 멀리 연명(淵明)[587]을 사모하고, 산수에서 소박한 마음으로 유한(幽閑)함은 가까이 퇴도(退陶)[588]를 배웠습니다. 감히 몸을 고상히 하려 함이 아니라, 외람되이 은거하여[589] 산수를 즐기면서 차라리 인(仁)과 지(智)를 배워[590] 이루지는 못할지언정, 명예와 이익을 구하면서 세상에 아첨하여 작게 이루는 일은 멀리 배척하겠습니다. 당체(棠棣)의 시를 읊으면서 원컨대 오직 부모님이

---

583) 을축년 : 김만영의 생존 기간 동안에 을축년에 해당하는 해는 1625년인데, 이 때는 김만영의 나이가 2살 때여서, 연도에 착오가 있는 듯하다.

584) 남양(南陽) : 제갈량(諸葛亮)이 유비(劉備)를 만나기 전에 초옥(草屋)을 짓고 농사지으며 은거했던 곳이다.《三國志 권35 蜀書 諸葛亮傳》

585) 회암(晦庵) : 남송(南宋)의 학자 주희(朱熹)의 호이다.

586) 공경하되……있겠습니까 : 토지신을 공경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논어》〈옹야(雍也)〉에, 번지(樊遲)가 지혜에 대해 묻자 공자가 "사람의 도의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한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 可謂智矣.]"라고 하였다. 또《중용장구》제16장에 "《시경》에 이르기를 '신이 이르는 것을 헤아릴 수 없거니, 더구나 신을 싫어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詩曰, 神之格思, 不可度思, 矧可射思.]"라고 하였다

587) 연명(淵明) : 동진(東晉)의 고사(高士) 도잠(陶潛)의 자이다.

588) 퇴도(退陶) : 원문에는 '도퇴(陶退)'로 되어있는데, '퇴도(退陶)'의 잘못인 듯하다. 이황(李滉)의 자이다.

589) 몸을……은거하여 : 원문의 '고상(蠱上)'은《주역》〈고괘(蠱卦)〉의 상구(上九)에 "왕후를 섬기지 않고 그 일을 고상히 한다.[不事王侯, 高尙其事.]"라고 한 것을 말한다. '건초(乾初)'는《주역》〈건괘(乾卦)〉 초구(初九)에 "잠긴 용이니 쓰지 말라.[潛龍勿用]"라고 한 데서 원용한 것으로 은거함을 뜻한다.

590) 산을……배워 : 공자(孔子)가 일찍이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智者樂水, 仁者樂山.]"라고 한 데서 원용한 것이다.《論語 雍也》

편안하고[591] 곤이(坤二)의 경계를 외우면서 다만 경의직방(敬義直方)을[592] 추구하겠습니다.

이제 도민(道民)[593]의 옛 마을은 세칭 '시중(侍中)'의 옛 땅으로 솔과 대는 순박한 옛날의 풍치를 띠고 있고, 짐승과 새는 산인(山人)의 의로운 집을 기뻐합니다. 이에 왕통(王通)의 허름한 집[594]을 지어서 몇 질의 경전과 역사서를 살림살이로 삼고 옥천(玉川)의 부서진 집의 지붕을 이어서 마음으로 춘추삼전(春秋三傳)[595]을 기약하고 맛 좋은 술 한 잔 따르기를 기약하면서 감히 토지신께 바치고 재배합니다. 재계하고 정결히 하며 의복을 성대히 하니 황홀하게 처창훈호(悽愴焄蒿)[596]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엄숙하고 장엄히 행하니 양양하게 위에 계시는 듯합니다.[597]

---

591) 당체(棠棣)의……편안하고 : '당체(棠棣)'는 '상체(常棣)'와 같은 뜻인데, 《시경》의 〈당체〉는 형제간의 우애를 읊은 시이다. 《중용장구》 제15장에 "《시경》 〈당체〉에 '처자와 잘 화합하면 금슬을 타는 것과 같고, 형제들과 우애하면 화락하고 즐겁나니, 너의 가정을 잘 다스리며 처자를 기쁘게 하라.' 하였는데, 공자가 '그러면 부모님도 편안하실 것이다.'라고 하였다.[詩曰, 妻子好合, 如鼓瑟琴, 兄弟旣翕, 和樂且耽, 宜爾室家, 樂爾妻帑, 子曰, 父母其順矣乎.]" 하였다.

592) 곤이(坤二)의……경의직방(敬義直方)을 : 《주역(周易)》 〈곤괘(坤卦)〉에 "육이는 곧고 방정하고 위대하다.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六二, 直方大, 不習无不利.]"라고 나오고, 〈곤괘(坤卦) 문언(文言)〉에는 "군자는 경하여 내면을 곧게 하고 의로워 외면을 바르게 한다.[君子, 敬以直內, 義以方外.]"라고 하였는데, 이 구절이 도학(道學) 공부의 가장 중요한 요결이 되었다.

593) 도민(道民) : 김만영이 우거하던 고을이다.

594) 왕통(王通)의 허름한 집 : 자신의 집을 낮춰 말한 것이다. 왕통(王通)은 수(隋)나라 말기의 대학자이다. 20세에 〈태평십이책(太平十二策)〉을 바쳤다가 채택되지 않자 초야로 물러나 연구와 교육에 힘썼다. 《고금사문유취(古今事文類聚)》에 의하면, 당시에 양소(楊素)가 왕통에게 벼슬할 것을 권하자 왕통이 "선인에게서 물려받은 폐려(敝廬)가 있어서 비바람을 가리기에 충분하고, 박전(薄田)이 죽을 끓여 먹기에 충분하고, 책을 읽고 도를 얘기하니 스스로 즐기기에 충분합니다.[有先人之敝廬, 足以庇風雨, 薄田足以具餰粥, 讀書談道, 足以自樂.]" 하면서 벼슬을 사양하였다.

595) 옥천(玉川)의……춘추삼전 : 허름한 집 두어 칸을 짓고 살겠다는 말이다. 옥천(玉川)은 당(唐)나라 때 시인인 노동(盧仝)의 자호(自號)이다. '춘추삼전'은 《춘추》의 주석서인 《좌씨전(左氏傳)》, 《곡량전(穀梁傳)》, 《공양전(公羊傳)》을 가리킨다. 노동은 간의대부(諫議大夫)로 부름을 받았으나, 나가지 않고 소실산(少室山)에 은거하였다. 한유(韓愈)의 〈기노동(寄盧仝)〉에 "옥천 선생은 낙양성 안에 부서진 집 두어 칸뿐일세.……춘추삼전은 높은 다락 위에 묶어 놓고, 성인이 남긴 경만 안고서 시종 연구한다.[玉川先生洛陽裏, 破屋數間而已矣.……春秋三傳束高閣 獨抱遺經究終始.]" 하였다.

596) 처창훈호(悽愴焄蒿) : 귀신의 기(氣)를 형용한 것이다. 《禮記 祭義》

597) 양양하게……합니다 : 역시 귀신의 기를 형용한 것이다. 《中庸章句》

제물이 비록 보잘 것 없으나 정성은 흠향하실 만합니다. 신께서는 달밤에 호미를 멘[598] 이 몸을 보호하시고 경서를 품고 의리를 간직했던 처음의 뜻을 편안케 하소서. 무망(誣罔)[599]한 일이 이르면 얼음이 풀리고 안개가 사라지듯 하게하고, 불상(不祥)한 일이 오면 구름이 걷히고 자리가 걷히듯 하게 하소서.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을 쐬며[600] 백년토록 봄바람을 차지하게 하시고, 집안을 마땅하고 즐겁게 하여 만세토록 화락을 길이 누리게 하소서.

598) 달밤에 호미를 멘 : 유유자적 은거하는 삶을 말한다. 도잠(陶潛)의 〈귀전원거(歸田園居)〉에 "남산 아래 콩을 심었더니 잡초가 무성해 콩 싹이 드물구나. 새벽에 일어나 잡초를 매고 달빛 띠고 호미 메고 돌아오네.[種豆南山下, 草盛豆苗稀. 晨興理荒穢, 帶月荷鋤歸.]" 하였다.

599) 무망(誣罔) : 원문엔 '無罔'으로 되어있으나, 문맥상 '誣罔'의 잘못인 듯하다.

600) 기수에서……쐬며 : 도를 즐기며 유유자적함을 말한다. 《論語 先進》

지담에서 비를 비는 제문
【신축년 여름(1661, 현종2) 영평 사군 채충립[601]을 위해 짓다.】
祭砥潭祈雨文【辛丑夏爲永平使君蔡忠立作】

물은 감의 덕[602]으로	水維坎德
양은 정이고 음은 중입니다	陽正陰中
더구나 이 맑은 연못은	矧玆澂潭
용[603]의 신령한 궁입니다	乾九靈宮
능히 비를 내리는 은택을 일으켜	能興雨澤
우리 백성을 살지게 할 수 있는데	膏我羣生
시국이 어려움을 만나고	屬時艱虞
기근에 거듭 걸렸습니다	饑饉荐嬰
백성들이 곤액을 당하고	生靈困厄
시신이 구렁을 메우는데	屍塡溝壑
신께서는 내려다보면서	維神降監
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詎無矜恤
더구나 지금 백성의 목숨이	況今民命
모두 보리농사에 달렸는데	都係麥農
가뭄이 두 달이나 되도록	旱暵兩月
초목을 다 태우고 있습니다	焦盡芃茸
불쌍한 우리 하늘의 백성들	哀我天民
급박한 목숨이 괸 물의 고기라	命迫涔魚
어제는 구름이 일어나기에	昨日油然
소생하리라 갈망하였는데	喁望其蘇

---

601) 채충립(蔡忠立) : 《승정원일기》 현종 2년(1661) 11월 10일 기사에 채충립이 남평 현감에 제수된 기록이 보인다.

602) 감의 덕[坎德] : 《주역》 〈설괘(說卦)〉에 "감괘(坎卦)는 물[水]이니 구독(溝瀆)이 된다.[坎爲水, 爲溝瀆.]" 하였다.

603) 용 : 건구(乾九)는 용(龍)을 가리킨다. 건괘(乾卦)는 모두 양효(陽爻)로 이루어졌는데, 《주역》에서 양효를 '구(九)'라 칭한다. 건괘의 양효는 용을 상징한다.

어찌하여 가랑비조차	云胡雺霎
아침나절도 다 못 내립니까	曾不崇朝
고을 수령이 직분을 잘못해	邑宰不職
신께서 벌을 내린 것이라면	神誅所攄
그 죄는 이 몸이 당해야지	罪丁厥躬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赤子何辜
이에 심히 두렵고 놀라워	玆深恐惕
마음과 몸을 깨끗이 씻고	洗心滌膚
성의를 경건하게 펼쳐서	虔誠披悃
공손히 충심으로 고합니다	恭修忠告
정결한 희생과 향기로운 술	潔牲香醑
향기로운 제물 함께 올리니	兼陳芬苾
신께서는 오르내리시면서	維神陟降
저의 붉은 정성을 흠향하소서	歆我赤愊
바람을 몰고 천둥을 채찍질해	駕風鞭霆
하늘로 오르고 땅에서 솟구쳐	騰天聳地
패연히 단비를 내리시어	霈霈甘澍
온 세상에 함께 혜택을 주소서	八區同惠
철철 연못에 이르게 하여	淫淫至澤
만물을 모두 흠뻑 적시면	萬品俱沐
영원히 보답의 제사 올리리니	永世報祀
신께서는 그 복을 누리소서	神享厥福

묘지명
墓誌銘

헌납 임공 묘지명
獻納任公墓誌銘

공의 휘는 기지(器之)요, 자는 국화(國華)이며, 풍천(豐川) 사람이다. 조부 휘 윤신(允臣)은 관찰사를 지냈다. 부친 휘 전(錪)은 광릉 참봉(光陵參奉)을 지냈고 집의(執義)로 추증되었으며 세칭 명고(鳴皐) 선생이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탁월하고 천성이 인후하며 문장과 학행은 세상에서 추앙받았다. 나이 겨우 약관에 생원과 진사시에 모두 합격하였고, 무오년(1618, 광해 10) 증광시(增廣試)시에 대책(對策)으로 급제하여 사헌부·사간원·이조를 거치고, 옮겨서 헌납으로 제수되었다.

만년에 남평의 망산(望山)에 터를 잡았고 집에서 생을 마쳤다. 묘는 치소 남쪽 창흘(昌屹)의 국사봉(國師峯) 묘좌(卯坐) 언덕에 있고 묘갈이 있는데 선생이 지었던 묘지명은 바람에 닳고 비에 씻겨 사라지고 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임서하(任西河)가 지은 행장(行狀) 가운데에서 채록하여 본집에 기록한다.

어모장군 남도포만호 양공 묘지명 【병서】
禦侮將軍南挑浦萬戶梁公墓誌銘 【幷序】

우리 고을의 어모장군 만호(禦侮將軍萬戶) 양공(梁公)이 세상을 떠난 뒤 장사를 며칠 앞두고 공의 적손고(適孫孤)인 유원(有源)씨가 나에게 묘지(墓誌)를 세우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내가 정의(情義)상 교분이 친밀하니 사양하지 못하고 대략 전말을 기록하여, 길이 보존하는 데에 만분의 일이라도 대비하였다.

《동한사쇄(東韓史鎖)》를 살펴보건대, 양씨(梁氏)의 선계는 탐라(耽羅)에서 나왔고 【▣】부(婦)의 종(種)으로 마침내 양씨 계보의 비조가 되었다. 역사가가 이미 전기(傳紀)에 쓴 것은 해와 달처럼 밝아 동방 사람들의 이목에 비춰진 것이었으니 또한 어찌 억지로 기록하였겠는가. 후손에 이르러 휘 태시(泰始) 공이 백제에서 벼슬을 하면서 대방(帶方)[604]에 대대로 거주하게 되었는데, 관향으로 용성(龍城)[605]을 하사 받았고 그 후 광산(光山)으로 옮겨 살았다. 공의 증조인 직장공(直長公)에 이르러 육봉(六峯) 박우(朴祐)[606] 선생과 함께 나의 선대에 사위로 들어와서 그대로 나주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바로 성균생원 김효상(金孝祥)의 사위이다. 고조의 휘는 현민(顯民)으로 통훈대부(通訓大夫)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을 지냈다. 증조의 휘는 철형(鐵衡)으로 선무랑(宣務郞) 사옹원 직장(司饔院直長)을 지냈다. 조부의 휘는 징(澄)으로 통훈대부(通訓大夫) 군자감 부정(軍資監副正)에 추증되었다. 부친의 휘는 복수(福壽)로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이고, 배위는 파주(坡州) 염씨(廉氏) 종사랑(從仕郞) 관(寬)의 따님으로, 명나라 만력(萬曆)기원 계유년(1573, 선조6) 정월 24일에 공을 나주(羅州)의 치소 남쪽 마산면(馬山面) 귀업리(龜業里) 별장에서 낳았으니 실로 우리나라 선묘조(宣廟朝) 6년이다.

공의 휘는 시립(時立), 자(字) 【▣】이다.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름다운 자질이 있었고 기백과 풍도가 범상치 않았다. 성동(成童) 때부터 의젓하게 성인(成人)의 의기가 있었다. 임진년(1592, 선조25)에 이르러 국운이 중도에 비색(否塞)하여 섬 오랑캐가 밖에서 으르렁댔고, 6년이 지난 정유년(1597, 선조30)에는 왜적이 양호(兩湖)[607]를 유린했다. 공의 일가 부자형제는 모두 적의 흉포한 칼날에 희생되었는데, 오직 공 한 사람이 천지가 화를 당한 가운데서도 생명을 겨우 홀로 보존하였다. 공은 이 때 나이 겨우 20

---

604) 대방(帶方) : 전라도 남원(南原)의 옛 이름이다.

605) 용성(龍城) : 역시 전라도 남원(南原)의 옛 이름이다.

606) 육봉(六峯) 박우(朴祐) : 육봉은 박우(朴祐, 1476~1547)의 호이다. 본관은 충주(忠州), 자는 창방(昌邦)이다. 1510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좌승지·강원도 관찰사·개성 유수 등을 지냈다.

607) 양호(兩湖) : 충청도와 전라도를 말한다.

여 세였는데 부모의 시신을 수습하여 선영 옆에 귀장(歸葬)하고 3년 거상(居喪)하면서 예절을 벗어나지 않았다.【'유(踰)'가 어떤 본에는 '위(違)'로 되어있다.】

상을 마친 뒤에는 비분강개하여 무예에 뜻을 두고 문묵(文墨)에는 자잘하게 마음을 두려 하지 않았으니 대개 뜻한 바가 있어서였다. 4년이 지난 계묘년(1603, 선조36)에 국가에서 정시(廷試)를 치러 인재를 취할 때 공이 이 선발에 발탁되어 끼게 되었으니 전라병사(全羅兵使) 신경유(申慶裕)의 방하(榜下)였다.[608]

광해군 6년 계축년[609]에 공은 수문장(守門將)에 제수되었고 어모장군(禦侮將軍)으로 가자(加資)되었다. 기미년(1619, 광해11)에 남도보 만호(南挑堡萬戶)로 제수되었고 신유년(1621, 광해13)에 체직되었다. 당시는 혼암한 조정이라서 권귀(權貴)들이 권력을 농락하고 여우처럼 아첨하는 자들이 요직을 담당하니 아부하여 요행을 바라고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길에 가득하였다. 그러나 공이 홀로 호연히 초탈한 뜻을 갖고 선공(先公)이 경영하던 삼향(三鄕)의 별장으로 물러날 것을 결정하여 서호(西湖)의 물가에 집을 지었다. 세상일은 사절하고 휘파람불고 읊으면서 몸을 마치도록 변치 않을 것을 스스로 다짐하였다. 명나라가 남쪽으로 건너간[610]지 4년 만에 위청(僞淸)이 참람하게 황제를 칭하고 개원(改元)[611]하였는데, 순치(順治) 6년 무자년[612] 6월 29일 삼향(三鄕)의 집에서 세상을 마쳤으니 향년 76세였다.

---

608) 신경유(申慶裕)의 방하(榜下)였다 : '신경유(申慶裕)'는 '신경유(申景)'의 잘못인 듯하다. '방하'는 같은 방(榜)에 하위로 급제한 사람을 가리킨다. 《선조수정실록》 1603년 1월 1일 기사에 "정시(庭試)를 실시하여 문과(文科) 이명준(李命俊) 등 10인과 무과(武科) 신경유(申景) 등 1천 6백여 인을 선발하였다."라고 한 기록이 보인다.

609) 광해군 6년 계축년 : 원문에 '光海六年癸丑'으로 되어 있으나 광해군 6년은 계축(癸丑)이 아니고 '갑인(甲寅)'이니, 착오가 있는 듯하다.

610) 명나라가 남쪽으로 건너간 : 1644년 북경이 청(淸)에 의해 함락되자 명(明) 왕실의 일족이 화중(華中)·화남(華南)에 남명(南明)을 세운 것을 말한다.

611) 위청(僞淸)이……개원(改元) : '위청(僞淸)'은 청(淸)나라를 거짓된 왕조로 폄칭한 것이다. '개원'은 연호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612) 순치(順治) 6년 무자년 : '순치(順治)'는 청(淸)나라 세조(世祖)의 연호로, 1644~1661년이다. 순치 6년은 기축년(1649)이고, 무자년(1648)은 순치 5년이다. 연호와 간지에 착오가 있는 듯하다.

이 해 모(某) 월일에 화산(華山)의 선영에 귀장(歸葬)하였는데 묘역은 같으나 묘혈은 달리 하였고 모좌(某坐) 모향(某向)의 언덕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과단했으며 의연히 뜻을 세운 바가 있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 하며 소소한 예절에 구애받지 않았다. 중도에 불행을 만나서 한 집안의 부자(父子)가 전부 왜적의 손에 함몰되자 분연히 불공대천의 원수로 삼고 마침내 무예(武藝)로 몸을 일으킨 것이니 그 뜻이 어찌 작은 데 있었겠는가? 그러나 호산(湖山)에서 초탈하게[613] 마치고 말았으니 아! 애석하도다.

우승지 한호(閑好) 임련(林堜)[614] 영공이 시를 지어 공을 애도하기를 "소년 시절에 붓을 던지고 봉후(封侯)에 뜻을 두고서,[615] 남북의 비린내와 먼지[616]를 깨끗이 소탕하려 했다네. 애석하다 초나라 벽옥[617]을 알아주는 이 없으니, 차질을 빚어 흰머리 되도록 끝내 이루지 못했구나."라고 하였다. 대개 그의 지조와 절개를 한 시대 사대부들이 추앙함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공의 배위는 전의 이씨(全義李氏)로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 섬(暹)의 따님이다. 5남 1녀를 두었다. 장남 열(悅)은 남평 문씨(南平文氏) 학생 홍검(弘儉)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공보다 8년 먼저 세상을 떴다. 다음은 흘(仡)·협(協)·수견(秀堅)인데 후사가 없이 요절하였다. 막내아들 흡(恰)은 이천 서씨(利川徐氏) 학생 윤(玧)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딸은 학생 나치소(羅致

---

613) 호산에서 초탈하게 끝마쳤으니 : 원문의 '本以湖山實宕見終'에서 '本'의 뜻은 미상이다. '實'은 '佚'의 잘못인 듯하다.

614) 한호(閑好) 임련(林堜) : 한호(閑好)는 임련(林堜, 1589~1648)의 호이다.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동야(東野)이다. 사간·집의·우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615) 붓을……두고서 : 문(文)을 버리고 무(武)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후한서(後漢書)》 〈반초전(班超傳)〉에 "반초는 집안이 가난해 항상 관리에게 고용되어 글 써주는 일로 먹고 살아 오랫동안 수고로웠다. 한번은 일을 그만두고 붓을 던지면서 탄식하며 말하기를 '대장부가 다른 뜻과 지략이 없으면 오히려 부개자와 장건을 본받아 이역에서 공을 세워 봉후의 자리에 올라야 하거늘, 어찌 오래 붓 잡는 일에 종사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超家貧, 常爲官傭書以供養, 久勞苦. 嘗輟業投筆, 歎曰, 大丈夫無他志略, 猶當效傅介子張騫立功異域, 以取封侯, 安能久事筆硯間乎.]" 하였다.

616) 비린내와 먼지 : 원문의 '성진(腥塵)'으로, 누린내 나고 더럽다는 말로 오랑캐를 가리킨 것이다.

617) 초나라 벽옥 : '초벽(楚璧)'은 양시립을 비유한 것이다. 춘추 시대 초(楚)나라 사람 변화(卞和)가 초왕(楚王)에게 바쳤다는 보옥(寶玉)을 가리킨다. 《韓非子 和氏》

素)에게 시집을 갔는데 보은 현감(報恩縣監) 덕준(德峻)의 아들이다. 손자는 5남으로 유원(有源)·차일(次一)·후일(後一)은 장남 열(悅)의 소출이다. 후원(厚源)·달원(達源)·국일(國一)은 막내아들 흡(恰)의 소출이다. 손녀는 셋이다. 장손녀(長孫女) 하나는 사인(士人) 김숙(金俶)에게 시집을 갔고, 하나는 선전관(宣傳官) 최원립(崔元立)에게 시집을 갔고, 하나는 유학(幼學) 김상겸(金尚兼)에게 시집을 갔다. 계손녀(季孫女)는 몇이다.

유원(有源)은 전취(前娶)가 당악 김씨(棠岳金氏) 학생 태협(泰浹)의 딸이고, 재취(再娶)는 조양 임씨(兆陽林氏) 첨지(僉知) 시윤(時潤)의 딸이다. 지금 적손(適孫)으로서 거상(居喪) 중인데 견문이 넓고 기억력이 좋으며 문장이 남보다 뛰어났다. 차일(次一)은 먼저 요절하였고, 후일(後一)은 아직 미혼이다. 후원(厚源)은 금성 오씨(錦城吳氏) 학생 이망(以望)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달원(達源)은 광산 김씨(光山金氏) 유학(幼學) 상의(尙倚)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측실에 5남 1녀가 있는데 첫째는 수(憷)·둘째는 경(憬)·셋째는 운(惲)·넷째는 칙(忕)·다섯째는 변(忭)이다. 딸은 김덕승(金德昇)에게 시집갔다. 집에서 유원(有源)씨가 손수 기록한 가장(家狀)에 따라 대략 서술하고 명을 붙인다. 명은 다음과 같다.

영해[618]의 신령한 기운과	瀛海靈氛
방장[619]의 순정한 정신 지녔으니	方丈精純
공은 백대토록	惟公百代
그 향기 영원하리라	乃永厥芬
의연히 굳세고 과감하며	毅然剛果
걸연히 빼어나고 특출했는데	傑然英特
칠순을 호수와 산에서	七旬湖山
맑은 복을 누렸구나	能享淸福

618) 영해(瀛海) : 큰 바다를 가리킨다. 《사기(史記)》 〈맹자순경열전(孟子荀卿列傳)〉에 "이러한 주가 아홉 개가 있고 영해가 그 밖을 에워싸고 있다.[如此者九, 乃有大瀛海環其外.]" 하였다.

619) 방장(方丈) : 신선이 산다는 산이다. 《史記 秦始皇本紀》

신세를 돌아보니	顧閱身世
육십에도 한관이라	六秩寒官
사람들이 공을 애석해 했으나	人爲公惜
공은 도리어 편안히 여겼네	公反爲安
화산의 옛 언덕	華山舊隴
금리의 새 묘도에	錦里新阡
사라지지 않은 영혼이 계셔서	不泯者存
천만년 함께 하리라	於千萬年

南圃集

남포집

제 13 권

卷之十三

논
論

〈춘추론〉에 대한 반론
反春秋論論

내가 생각건대 노천 소씨(老泉蘇氏)[620]의 〈춘추론(春秋論)〉에 “위(位)는 공적(公的)인 것이요, 도(道)는 사적(私的)인 것이다.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을 이길 수 없다.” 하였는데, 그 뜻은 ‘부자(夫子, 공자)가 비록 도를 지니고 있었으나 그 지위는 얻지 못하였고 사적인 도는 공적인 것이 아니니, 한 사람의 사적인 것으로 천하의 상벌을 공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여긴 것이다. 마침내는 은연중에 스스로 해석하기를 “부자가 노나라에 천자의 권위를 빌려주고, 부자는 스스로 노나라 역사의 명칭을 빌려서 《춘추》를 지었다.” 하였다. 나는 감히 그 설을 반박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다.

“노소(老蘇)의 설은 잘못이다. 범인(凡人)의 소견으로 성인의 뜻을 역탐(逆探)하면서 에둘러서 교묘하게 왜곡하니 합당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아서 《춘추》의 본뜻을 크게 잃었다. 왜 그런가?

천지에 통하고 사사롭지 않은 것을 덕(德)이라 하고, 고금에 달하고 크게 공정한 것[大公]을 도(道)라 한다. 도(道)를 사사로운 것으로 여긴다면 위(位) 또한 공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 천지에 통하고 사사롭지 않기 때문에 덕이 천지에 합치하는 것이다. 고금에 달하고 크게 공정하기 때문에 도가 귀신에 합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자(夫子)는 천지이고 귀신인 것이다. 지극히 크고 지극히 넓어서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것은 천지요, 변화하고 신묘하여 알 수 없는 것이 귀신이니, 나의 덕이 능히 그에 배합하다면 일개 작위(爵位) 따위는 얻어도 되고 얻지 못해도 되는 것이다.

주공(周公)이 죽고 나니 대도(大道)가 서지 못했고, 문왕(文王)과 무왕(武

620) 노천 소씨(老泉蘇氏) : ‘노천(老泉)’은 소순(蘇洵, 1009~1066)의 호이다.

王)이 이미 멀어지고 나니 왕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 난신적자들이 천하에 자취를 이으니 삼강(三綱)과 구법(九法)[621]은 바다가 마르고 산이 무너지듯 하여, 천지가 천지답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부자(夫子)가 천지처럼 우뚝 홀로 섰으니 부자께서 어찌 구구한 작위(爵位)를 혐의하여 도(道)로써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춘추》를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춘추》의 법은 천지이고 귀신인 것이다. 천지와 귀신이 부자의 붓에 붙어서 상벌을 준 것이다. 부자가 상벌을 준 것은 바로 하늘이 상벌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께서 "나를 알아주는 것도 《춘추》요, 나를 죄 주는 것도 《춘추》이다."[622] 한 것이다. 이것이 부자의 큰 뜻이다. 그런데 만약 '지위는 공적인 것이고 도는 사적인 것이다.'라고 한다면 걸왕(桀王)·주왕(紂王)·유왕(幽王)·여왕(厲王)[623]이 공(公)이요 주공(周公)과 부자는 사(私)이니 옳겠는가.

'부자가 노나라에 천자의 권위를 빌려주었다'고 한 데 이르러서는 더욱 그 잘못을 볼 수 있다. 노나라의 체(禘)제사를 공자가 보려 하지 않은 것은[624] 그것이 예(禮)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구나 천하를 상벌하는 권한을 노나라에 빌려주고 스스로 빌릴 수 있겠는가? 결단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천하가 유도(有道)하면 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천하가 무도(無道)하면 도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나에게 있는 천도 (天道)는 지성(至誠)하여 쉼이 없는 것이다.[625] 그러니 나에게 있는

---

621) 구법(九法) : 《서경》 〈홍범(洪範)〉의 '구주(九疇)'를 가리킨다. 이는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대법(大法)이다.

622) 나를……춘추이다 : 《맹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춘추》는 천자의 일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나를 알아주는 것도 《춘추》이고, 나를 죄 주는 것도 《춘추》일 것이다.'라고 말했다.[春秋, 天子之事也. 是故孔子曰, 知我者, 其惟春秋乎, 罪我者, 其惟春秋乎.]" 하였다.

623) 걸왕(桀王)……여왕(厲王) : 하(夏)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왕(桀王)과 은(殷)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紂王)은 나라를 망하게 한 폭군(暴君)의 상징이고, 주(周)나라의 12대 유왕(幽王)과 10대 여왕(厲王)은 나라를 어지럽힌 혼군(昏君)의 상징이다.

624) 노나라의……것은 : 《논어》 〈팔일(八佾)〉의 "체제사는 강신주를 따른 뒤로부터는 내가 보고 싶지 않다.[禘, 自既灌而往者, 吾不欲觀之矣.]"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625) 지성(至誠)하여……것이다 : 《중용장구》 제26장에 "그러므로 지성은 쉼이 없으니, 쉬지 않으면 영구하고 영구하면 징험이 나타난다.[故至誠無息, 不息則久, 久則徵.]" 하였다.

천도로써 하늘에 있는 명을 받들고 천하의 선악에 대해 상벌을 주어서 만세의 윤기(倫紀)를 바로잡도록 하늘이 부자에게 책임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을 알고서도 도리어 작위의 혐의 때문에 상천(上天)의 무거운 책임을 저버린다면 그것이 어찌 부자의 뜻이겠는가? 이 때문에 《춘추》를 지은 것이다.

소자(蘇子)는 하찮은 소견으로 천지와 귀신을 역탐하여 추측하려다 헤아릴 수 없게 되자 사사로운 뜻으로 견강부회하고, 그럴듯한 설을 찾다가 되지 않자 노권(魯權)의 설[626]을 가탁하여 성인의 뜻을 밝혀보려 했으니 아! 졸렬하고도 천박하도다. 내가 그래서 '범인의 소견으로 성인의 뜻을 역탐하여 《춘추》의 본 뜻을 크게 잃었다.'라고 한 것이다."

전횡론

田橫論

내가 살펴보건대, 전횡(田橫)[627]이 2빈객과 500명의 사(士)를 데리고 섬으로 들어갔을 때 한(漢)나라가 왕후(王侯)로 예로 부른 것은 그가 혹 난을 일으킬까 우려해서였다. 이에 전횡이 역마를 타고 낙양(洛陽)에 이르렀는데 조정에 도착하기 30리 전에서 자살하였다. 그가 자살한 뒤 2빈객과 사(士) 500 사람도 모두 자살하였다. 가령 502사람이 목숨을 버리면서 의리를 취하여

---

626) 노권(魯權)의 설 : 공자가 '노나라에 천자의 권위를 빌려주었다[借魯以天子之權]'는 설을 말한 것이다.

627) 전횡(田橫) : 전횡은 조카인 제왕(齊王) 전광(田廣)이 한신(韓信)에게 사로잡혀 죽자 자립하여 제왕이 되었다. 얼마 뒤 한 고조 유방이 황제가 되니, 전횡은 주벌될까 두려워 500여 명의 무리와 바다 섬으로 들어가서 살았다. 유방이 사신을 보내 전횡의 죄를 용서하고 부르기를 "전횡아, 오너라. 크게는 왕으로 봉하고 작게는 후(侯)로 봉하겠지만, 오지 않으면 군사를 보내어 주벌하겠다."라고 하였다. 전횡이 이에 빈객 두 사람과 낙양으로 가다가 30리를 남겨 두고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한왕(漢王)과 나란히 왕이라 칭하다가 지금 한왕은 천자가 되고 나는 망국의 포로가 되어 그를 섬기게 되었으니, 너무도 부끄럽다."라고 하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며 두 사람에게 자신의 수급을 바치게 하였다. 한 고조가 왕자의 예법으로 전횡을 장사 지내 주었다. 두 빈객과 섬에 있던 500명도 모두 자결하였다. 《史記 권94 田儋列傳》

죽음을 마치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여러 전씨(田氏) 종족들은 이미 멸망했고 전횡도 세울 후사(後嗣)가 없었으니, 저 502사람은 무슨 바랄 것이 있어 그 의리를 이룰 수 있겠는가. 호인(胡寅)의 《독사관견(讀史管見)》[628]에 이른바 “어떤 것을 위하는 바가 없이 행하였으니 참된 의사(義士)이다.”[629]라는 것은 옳은가 그른가?

비록 그렇지만 나는 일찍이 그 중도를 잡아 논하여 “전횡의 죽음은 높다고 할 만하고, 사(士)의 죽음도 의롭다고 할 만하다.” 하였다. 저 전횡은 제(齊)나라의 공자(公子)이다. 건(建)[630]의 객들이 부른 송백(松栢)의 노래는 천년 후에도 사람의 이목이 살펴보는 바로 매우 답답하게 하지 않음이 없는데 더구나 전횡의 경우이겠는가?

전횡의 현명함으로 502사람의 의리를 믿고서, 패공[631]이 의리를 붙들어 함곡관(函谷關)으로 들어가던 날에 검을 차고 황하를 건너 자방(子房)·소하(蕭何)·조참(曹參)[632]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관대한 장자[633]의 대업을 도와 이루고, 함곡관을 점거하여 한 번 호령하며 송백(松栢)과 아사(餓死)의 치욕을 씻고, 연후에 서책(署冊)에 이름을 나열해 쓰며 금궤(金櫃)[634]의

---

628) 호인(胡寅)의 독사관견(讀史管見) : 원문의 ‘호관견(胡管見)’으로, 송(宋)나라의 학자인 호인(胡寅)이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읽고 주요 사건마다 자신의 견해를 기록한 《독사관견(讀史管見)》 30권을 엮었다.

629) 어떤……의사(義士)이다 : 사심 없이 오직 의리에 따라 행동한 것을 말한다. 예양(豫讓)의 고사를 말한다. 예양은 전국(戰國) 시대 진(晉)나라 사람으로 지백(智伯)을 섬겨 총애를 받았는데, 조양자(趙襄子)가 지백을 쳐서 멸망시키자, 지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였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조양자에게 잡히자 자결하였다. 《史記 권86 刺客列傳 豫讓》

630) 건(建) : 초나라 평왕(平王)의 태자로 비무극(費無極)의 참소를 당해 쫓겨나서 객사한 건(建)을 말한 듯하나 확실치 않다. 《春秋左氏傳 昭公27年》

631) 패공(沛公) : 한(漢)나라 고조(高祖) 유방(劉邦)이 제위(帝位)에 오르기 전의 칭호이다. 패(沛)에서 기병(起兵)하였으므로 한 말이다.

632) 자방(子房)·소하(蕭何)·조참(曹參) : 세 사람 모두 한(漢)나라의 개국공신(開國功臣)이다. 자방(子房)은 장량(張良)으로, 그의 자가 자방이다.

633) 관대한 장자[寬大長] : 한고조 유방을 가리킨다. 《사기(史記)》 〈고조본기(高祖本紀)〉에 “지금 항우는 강하고 사나우니 지금 항우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패공만이 관대한 장자이니 그를 보내야 합니다.[今項羽彊悍, 今不可遣. 獨沛公素寬大長者, 可遣.]” 하였다.

634) 금궤(金櫃) : 금으로 만든 궤로, 옛날에 중요한 문서나 물건을 보관하던 곳인데, 흔히 공신들의

맹약을 하고, 제나라 한쪽 지방에서 왕 노릇하면서 남면(南面)하여 고(孤)를 칭하고,[635] 전씨의 조종(祖宗)으로서 백세토록 제사를 받아먹었다면,[636] 사람들 가운데 누가 대장부라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하지를 않고 사나운 조무래기들과 일을 함께 하다 끝내는 전복되고 말았다. 이는 왕릉의 어미[637] 같은 일개 부녀자도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인데 전횡은 하였단 말인가? 설사 전횡이 한(漢)나라를 미처 섬기지 못하여 사태가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온 제나라 70여 성이 한신(韓信)의 손에 한 번 깨져서 나라가 멸망하고 군주는 죽어 종묘사직이 폐허가 되니, 전횡의 큰 원수로서 한(漢)나라 또한 진(秦)나라와 같은 것이다. 전횡을 위한 계책으로는 마땅히 통곡하며 하늘에 부르짖고 복수를 기약하면서 500인의 목숨을 내놓은 의사들과 연계해 십이(十二)[638]의 강력한 제나라의 변경으로 들어가 웅거하였다면, 백만의 무리도 한 번 호령하여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견고한 사방의 요새를 등지고 임치(臨淄)[639]에서 예의를 갖추면서 천하의 선비들을 초치하고 한(韓)나라와 위(魏)나라에 격문을 전하여 의를 떨쳐

녹권을 보관하는 곳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여기서는 공신(功臣)에 책록(策錄)되는 것을 말한다. 《한서(漢書)》 〈고제기(高帝紀) 하〉에 "또 공신들과 부절을 쪼개어 서사를 지어서 단서 철계를 금궤 석실에 봉함하여 종묘에 갈무리했다.[又與功臣剖符作誓, 丹書鐵契, 金櫃石室, 藏之宗廟.]" 하였다.

635) 남면(南面)하여 고(孤)를 칭하고 : 군주가 된다는 말이다. 남면은 군주는 조정에서 북쪽에 앉아 얼굴을 남쪽으로 향했으므로 군주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말하고, 고(孤)는 제후가 자신을 가리키던 호칭이므로 역시 군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636) 제사를 받아먹었다면 : 원문의 '혈식(血食)'으로, 희생(犧牲)을 잡아 생육(生肉)을 바쳐 제사함을 말한다. 여기서는 제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637) 왕릉(王陵)의 어미 : 유방이 항우와 패권을 다툴 때에 왕릉이 유방의 편이 되었다. 항우는 이에 왕릉의 어머니를 군중에 붙잡아 두었다. 왕릉의 사자(使者)가 항우의 진영으로 오자 왕릉의 어머니는 비밀리에 심부름꾼을 보내 "'한왕(유방)은 장자이다. 늙은 나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내가 죽음으로써 심부름꾼을 보낸다.' 하고는 칼에 엎드려 죽었다. 항우는 노하여 왕릉의 어머니를 삶아 죽였다. 왕릉은 마침내 한왕을 따라서 천하를 평정하였다." 하였다.《史記 권56 陳丞相世家》

638) 십이(十二) : 10분의 2라는 뜻으로 천혜의 요새지임을 말한다. 《사기》 고조기(高祖紀)에 "(제나라는) 땅은 사방으로 2천 리나 되고 제후국은 천리 밖에 떨어져 있으니 제후국의 군사가 1백만이라면 10분의 2인 20만의 군사만으로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地方二千里, 持戟百萬, 縣隔千里之外, 齊得十二焉.]" 하였다.

639) 임치(臨淄) : 전국 시대 제(齊)의 수도이다.

서쪽으로 갔다면, 그 당시 중원의 병사들은 유방과 항우가 서로 백전백패하는 나머지 피폐해져 부상에 신음하는 소리가 사방에 달했고, 팽왕(彭王)의 변란[640]에 황제가 직접 출정을 하였으나 조(趙)나라와 대(代)나라 변경의 부대가 하나도 조정의 부름에 오지 않았으며, 백등(白登)의 포위[641]에 소하(蕭何)와 조참(曹參)이 손을 거두어 계책을 낸 바도 없었으니, 더구나 돌진해오는 500 의사(義士)들의 예봉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했다면 한 나라와 제 나라의 자웅은 기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호라, 전횡의 현명함으로도 계책이 여기에 미치지 못했던가? 가령 천명과 인심이 이미 한(漢)나라로 돌아가서, 사람의 지모가 비록 훌륭한들 어쩔 수 없더라도 마땅히 성을 등지고 한 번 싸워 복수의 대의에 죽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런데 한(漢)나라 사신을 한 번 만나보고는 '크게는 왕을 시켜주고 작게는 제후를 시켜주겠다.'[642]는 이끗에 유혹되어서 천리를 역마를 타고 가면서 명을 받드는데 분주하다가, 계책이 바닥나고 형세가 곤궁해진 뒤에야 구독(溝瀆)에서 칼에 엎드려 죽었으니 이 무슨 의리인가. 내가 그러므로 "전횡은 작은 은혜로 인심을 결집한 일은 있으나, 그 대의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하는 것이다. 삼가 논한다.

---

640) 팽왕(彭王)의 변란 : '팽왕'은 팽월(彭越)을 말한다. 항우(項羽)를 섬기다 한(漢)나라에 귀순하여 기공(奇功)을 세우고 양왕(梁王)에 봉해졌는데, 공신인 한신(韓信)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병력을 동원하여 자신을 보호하다가 고조(高祖)의 노여움을 사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史記 권90 彭越列傳》

641) 백등(白登)의 포위 :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직접 군대를 인솔하고 흉노의 묵특 선우(冒頓單于)를 정벌하기 위해 출정했는데, 도리어 평성(平城) 부근의 백등산(白登山)에서 7일 동안 흉노의 30만 대군에게 포위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가 선우의 부인 연지(閼氏)에게 후한 뇌물을 써서 겨우 포위에서 벗어났다.《史記 권93 韓信列傳》

642) 크게는……시켜주겠다 : 한 고조가 전횡에게 사신을 보내 회유하기를 "전횡은 오라, 크게는 왕을 시켜주고 작게는 제후를 시켜 주겠다[田橫來, 大者王, 小者乃侯耳.]" 하였다.《史記 권94 田儋列傳》

전
傳

공손항전[643] 【병서】
公孫航傳【並序】

공손항(公孫航)은 강동인(江東人)이다. 혹자는 육인(六人)이라고도 한다. 자는 해경(海卿)으로 황제(黃帝)의 아들이다. 황제는 형호(荊湖)[644]에서 솥을 주조하였다. 공고(共鼓)와 화적(化狄)[645]이 따르고 있었는데, 호수 가운데 뜬 잎을 보고 황제가 감응하여 항(航)을 낳아서 두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되게 하였다. 황제가 용을 어거하여 멍에하고 하늘로 올라가자[646] 항은 호해(湖海) 사이에 살면서 공손(公孫)이라는 성(姓)을 썼다.

우(禹) 임금 때 이르러 우 임금을 도와 물길을 유도하는 데 공적이 있었고, 용문(龍門)을 뚫은 일[647]과 물길을 강한(江漢)으로 흘러가게 하는 데[648] 항의 공적이 많았다. 우 임금은 현규(玄圭)를 올려 치수의 완성을 아뢰고[649] 항을

---

643) 공손항전 : 우임금이 탔던 배[航]를 의인화하여 쓴 것이다.

644) 형호(荊湖) : 형산(荊山) 아래 있는 정호(鼎湖)를 가리킨다. 옛날 황제(皇帝)가 여기에서 솥을 주조하였던 곳이다.《史記 封禪書》

645) 공고(共鼓)와 화적(化狄) : 황제의 신하로 배와 노를 만든 사람들이다.《설문(說文)》〈주부(舟部)〉에 "옛날에 공고와 화적이 나무를 깎아 배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노를 만들어서 통하지 못했던 곳을 건넜다.[古者共鼓,貨狄刳木爲舟, 剡木爲楫, 以濟不通.]"고 하였는데 서개계(徐鍇繫)의 전(傳)에 "공고와 화적 두 사람은 황제의 신하이다.[共鼓,貨狄二人, 黃帝臣也.]" 하였다.

646) 하늘로 올라가자 : 원문의 '빈천(賓天)'으로, 하늘의 손님이 되었다는 뜻인데 존귀한 사람의 죽음을 뜻한다.

647) 용문(龍門)을 뚫은 일 : '용문'은 산 이름이다.《사기(史記)》〈이사열전(李斯列傳)〉에 "우 임금이 용문을 뚫고 구하(九河)를 소통시킬 때 손발이 부르트고 얼굴이 누렇게 초췌하였다.[禹鑿龍門, 疏九河, 手足胼胝, 面目黧黑.]" 하였다.

648) 강한(江漢)으로……데 : '강한(江漢)'은 장강(長江)과 한수(漢水)를 이른다.《서경》〈우공(禹貢)〉에 "파총산에서 양수를 유도하여 동쪽으로 흘러 한수(漢水)가 되게 하며……남쪽으로 강수(江水)에 들어가게 하셨다.[嶓冢導漾, 東流爲漢……南入于江.]" 하였다.

649) 현규(玄圭)를……아뢰고 : '현규'는 검은 옥이다. 순(舜) 임금이 우(禹)에게 권한을 맡겨 수토(水土)를 평정하게 하였는데 "우가 현규를 올려 그의 성공을 순 임금에게 아뢰었다.[禹錫玄圭, 告厥成

임명하여 구주(九州) 통진백(通津伯)으로 삼았다. 일찍이 우 임금과 강을 건너는데 배가 황룡의 등에 얹히는 바람에 거의 건널 수 없게 되었다. 항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선제(先帝)께서 정호(鼎湖)에서 용을 어거하였는데 나 또한 용의 등에 얹혔으니 어찌 운명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안색을 변치 않았는데 곧 용이 사라지고 말았다.

항이라는 사람은 신장이 수 십 장(丈)이요 몸집의 크기가 백 여 아름인데 헌걸차고 씩씩하니 맨 발로 황하를 건널 힘과 바다를 항해할 위력이 있었다. 그 성품은 능히 세상과 함께 부침할 수 있으며 사람을 대하는데 선악 귀천을 구분하지 않고 귀의한 자들을 모두 수용하였다. 다만 산을 유람하며 육지로 다니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다.

우 임금이 붕어하고 하(夏)나라의 덕이 쇠퇴하자 항 또한 늙었다. 이계(履启)[650]가 즉위하여서는 날마다 음란과 포학을 일삼으면서 항과 함께 주지(酒池)에서 밤새도록 즐겼다. 항의 아들인 도(刀)가 간언을 했으나 듣지 않으니, 도는 무광(務光)[651]과 함께 강호로 들어가서 끝내 나오지 않았다. 탕(湯)이 걸(桀)을 주벌하게 되자 항은 초택(楚澤)[652]으로 달아났다. 주(周)나라 소왕(昭王)이 남방을 순수(巡狩)하여 초나라에 이르렀는데 초택에서 같이 배를 탔다가 왕과 함께 익사했다.[653]

항은 세 아들을 두었다. 장남은 함(艦), 막내는 방(方)이고, 도(刀)는 바로 가운데 아들이다. 은(殷)나라 말기에 도(刀)는 여상(呂尙)과 동해에서 낚시를 하고 살았는데 서백(西伯)이 사냥을 나가서 여상이 주(周)나라로

功.]" 하였다.《書經 禹貢》

650) 이계(履启) : 하(夏)나라의 폭군인 걸(桀)의 이름이다.

651) 무광(務光) : 탕(湯) 임금이 하(夏)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왕위를 그에게 양보하려 했던 인물이다.《莊子 讓王》

652) 초택(楚澤) : 옛날 초(楚)나라 지역에 운몽(雲夢) 등 7개의 연못이 있었다.

653) 주(周)나라……익사했다 : 소왕이 초(楚) 땅을 순수하다가 강가에서 배를 타게 되었는데 초나라 사람들이 미워하여 아교로 접합시킨 배를 바치니 이에 소왕이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아교가 녹아 배가 해체되어[膠液船解]' 물에 빠져 죽은 일이 있다.《帝王世紀 周》

귀의하자[654] 도는 정색하며 불쾌해하고 강 입구 맑은 물가를 오가다가 그 몸을 마쳤다. 그 자손은 천택(川澤)에 흩어져 살았는데 모두 청고(淸高)하게 스스로 면려하면서 벼슬자리에 나간 적이 없었으니 모두 도의 유풍(遺風)이었다. 그 뒤에 월(越)나라 범려(范蠡)·한(漢)나라 엄자릉(嚴子陵)·진(晉)나라 도원량(陶元亮)·당(唐)나라 장지화(張志和)·송(宋)나라 임군복(林君復) 같은 청절지사 들이 모두 도의 자손들과 함께 어울렸다. 항의 막내아들인 방(方)은 별다른 기예나 능력이 없어 대대로 나루터 관리가 되어 그 삯을 취하여 살아갔다.

장남 함(艦)은 사람됨이 굉걸(宏傑)하고 관대하며 원대한 지략이 있었는데 아버지 항을 따라서 초나라에서 살았다. 진시황(秦始皇) 때 서불(徐市)과 서로 좋게 지면서 서불에게 말하기를 "시황이 탐욕스럽고 포학하여 백성들을 들볶으니 물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은데[655] 그대는 어찌하여 신선술로 황제를 설득해서 도생(圖生)의 바탕으로 삼지 않는가." 하였다. 서불이 이에 서쪽으로 관문에 들어가 황제를 뵙고 청하기를 "동남동녀(童男童女) 3천 명과 함께 바다로 들어가 삼신산(三神山)의 불사약을 구하겠습니다." 하였다. 황제는 바야흐로 신선술을 찾고 있었기에 서불의 말을 믿고 따라주니 서불은 함과 함께 3천명을 싣고 바다 섬으로 들어가 살았다. 산동(山東)의 호걸들이 모두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무리 수 천 명과 함께 해안을 따라 황하에 도착해서, 장차 패공(沛公)과 병력을 합쳐 관중(關中)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 때 장한(章邯)[656]이 조(趙)나라를 공격하자 초(楚)나라가 구원하였다. 항적(項籍)은 경자관군(卿子冠軍)[657]을

---

654) 서백(西伯)이……귀의하자 : 서백(西伯)은 주 문왕(周文王)을 말한다. 서백(西伯)이 사냥을 나갔다가 위수 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여상을 만나 함께 돌아와 사(師)로 삼았다.《史記 齊太公世家》

655) 물이……같은데[如水益深] : 학정이 더욱 심해진다는 말이다.《孟子 梁惠王下》

656) 장한(章邯) : 진섭(陳涉)을 멸망시키고 항량(項梁)과 위구(魏咎)를 격파한 진(秦)나라의 맹장(猛將)이었다. 그런데 간신 조고(趙高)의 전횡에 실망하여 그 후 항우(項羽)에게 항복하여 옹왕(雍王)이 되었다가 유방(劉邦)에게 패하여 자살하였다.《史記 項羽本紀》

657) 경자관군(卿子冠軍) : 초(楚)나라 회왕(懷王)의 상장군(上將軍)인 송의(宋義)를 가리킨다. 진(秦)나라 장감(章邯)이 황하를 건너 조(趙)나라를 공격하여 거록(鉅鹿)을 포위하자 회왕은 송의를 상장군으로 삼고 항우(項羽)를 차장(次將)으로 삼아 조나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송의가 안양(安陽)에 이르러 46

살해하고 군대를 거느려 황하에 도착하였다. 함이 항우(項羽)를 설득하며 말하기를 "장한을 공격할 것도 없다. 조고(趙高)[658]가 궁중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장한과 틈이 벌어졌으니 이는 안과 밖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 지금을 위한 계책으로는 나와 함께 황하로 떠가서 직접 함곡관에 이르러 패공와 합세하여 진(秦)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좋다. 뿌리를 제거하고 나면 장한은 공격할 것도 없다." 하였다.

항우가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십만의 무리를 통솔하여 무도한 진(秦)나라를 공격하려는데 함이 얄팍한 꾀로 나를 흔들어 대고 병사들의 마음을 꺾는다." 하면서 함을 황하에 가라앉히고 그의 무리 수천 명도 모두 가라앉혔다.[659] 함은 몰래 탈출하여 그의 무리와 함께 남쪽으로 장강(長江)과 한수(漢水)로 흘러가서 장차 한왕(漢王)과 합종하려 하였다. 마침 항우가 강 가운데서 의제(義帝)를 시해하자, 한왕이 삼로(三老)의 계책[660]을 써서 흰 상복을 입고 항우를 주벌하고 남쪽으로 장강과 한수로 배를 타고 내려왔다.

함은 비장(裨將)인 소(艘)로 하여금 십만의 무리를 이끌고 왕을 따라 팽성(彭城)으로 내려가게 하였다. 함은 황하로부터 관중(關中)으로 들어가서 소하(蕭何)와 더불어 육로와 수로로[661] 군량을 운송하니 시종 식량이 끊어지지 않았다. 한나라가 이로써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 고조(高祖)는 함을 봉하여

일간을 형세만 엿보며 공격하지 않자, 답답하게 여긴 항우는 송의가 제(齊)나라와 모의해 초나라를 배신하려 한다며 그를 살해하였다.《史記 項羽本紀》

658) 조고(趙高) : 진(秦)나라 때 환관이다. 진 시황(秦始皇)이 죽자 승상(丞相) 이사(李斯)와 거짓 조서를 만들어 장자(長子) 부소(扶蘇)에게 죽음을 내리고 이세(二世) 호해(胡亥)를 세웠으며, 이사를 죽이고 승상이 되어 대소사를 제멋대로 하다가 진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였다.

659) 함을……가라앉혔다 : 항우(項羽)가 진(秦)나라와 싸우러 가면서 하수(河水)를 건넌 뒤 '배를 모두 가라앉히고[沈船破釜甑]' 솥과 시루를 깨뜨리고, 막사를 불태우고, 사흘 양식을 지니고서 사졸에게 반드시 죽을 것임을 보여 주었던 것을 비유한 것이다.《史記 項羽本紀》

660) 삼로의 계책[三老策] : 삼로(三老) 동공(董公)의 계책을 말한다. 항우가 의제(義帝)를 시해한 사실을 알게 된 유방(劉邦)이 삼로(三老) 동공(董公)의 진언을 받아들여 의제를 위해 상(喪)을 발표하고 통곡한 다음, 군사들에게 소복을 입히고 천하의 제후들에게 항우를 토벌할 것을 호소하자, 많은 제후들이 이에 호응하였다. 유방은 이들을 거느리고 항우를 죽이고 천하를 통일하였다.《漢書 高帝紀上》

661) 육로와 수로로 : 원문의 '전조(轉漕)'로 식량을 운반할 때, 육로(陸路)를 통해 수레로 운반하는 것을 전(轉)이라 하고, 수로(水路)를 이용하여 배로 운반하는 것을 조(漕)라 한다.

하간왕 겸 전운사(河間王兼轉運使)로 삼았다. 무제(武帝)가 사방 오랑캐를 정벌할 때에는 모두 육군으로 승리를 취했는데 함은 육상전투를 익히지 않았으므로 공적이 없었다.

예관(兒寬)과 복식(卜式)[662]의 무리가 소금과 철로 이익을 삼기에 미치자 함은 군량 운송으로 공을 세워 크게 총애를 받았다. 마침내 그의 죽음에 미쳐서 그의 아들 축(軸)은 광무제(光武帝)가 호타하(滹沱河)를 건널 때 미처 따라가지 못했고 이 때문에 축출을 당했다.[663] 촉한(蜀漢)의 적벽(赤壁) 전쟁에서는 와룡(臥龍)[664]을 따라서 큰 공을 세웠다. 이 때부터 그 자손은 대대로 수군의 장수가 되었고 공을 세운 자도 이루 다 기술할 수가 없다.

가장 애석한 것은 송(宋)나라 때 애산(崖山)의 전쟁[665]이다. 축(軸)의 자손 만여 무리가 장세걸(張世傑)의 통솔을 받았는데 세걸의 전략이 뛰어나지 못하여 마침내 수만의 무리를 견양(犬羊) 같은 적에게 먹히게 하고 말았으니 하늘에 사무치는 통분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 자손으로 사방의 오랑캐 땅에 흩어져 사는 자가 천하에 가득했다. 다만 북호(北胡)의 땅에서는 살지 않았는데 북호는 또한 외축(畏縮)되어 감히 그 틈을 탈 수가 없었다. 상고시대 신명(神明)의 종족으로 아! 기특하도다.

사관은 판단하여 말한다.

“인재를 쓸 때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 있는 자가 잘 쓰면 천하에 어질지 않은 자가 없고 잘 쓰지 못하면 천하에 악하지 않는 자가 없다.

---

662) 예관(兒寬)과 복식(卜式) : 예관과 복식은 한(漢)나라 무제(武帝) 신하들이다.

663) 축출을 당했다 : 이때는 배를 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664) 와룡(臥龍) : 와룡은 제갈량(諸葛亮)의 호이다.

665) 애산(崖山)의 전쟁 : ‘애산(崖山)’은 광동성(廣東省) 신회현(新會縣) 남쪽 큰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인데, 형세가 험하기로 유명하다. 남송 말기에 원병(元兵)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보강군 승선사(保康軍承宣使) 장세걸(張世傑)이 위왕(衛王) 병(昺)을 모시고 애산으로 가 있었다. 원병이 다시 애산을 공격해 오자, 장세걸은 군함 10여 척을 가지고 도망을 쳤고, 좌승상(左丞相) 육수부(陸秀夫)는 형세가 어찌할 수 없음을 간파하고 마침내 위왕 병을 등에 업고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한편 장세걸은 뒤에 다시 애산에서 군졸을 수습하여 송나라 황실의 후예를 찾아서 황제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다의 큰바람을 만나서 익사하고 말았다. 이로써 남송은 완전히 멸망하였다.《宋史 忠義列傳》

공손항은 한 몸이로되 우임금을 도와 공을 세우고 물과 땅을 평정하였으니 걸출하여 볼 만하였으나, 끝내는 걸임금과 음탕에 빠졌고 결국 초택(楚澤)에서 아교가 풀리어[666] 죽었으니 어찌 그리도 잘못되었던가!

또한 출신을 가지고 인재를 써서는 안 된다. 항의 아들 도(刀)는 청고(淸高)함이 비할 바가 없었고, 함(艦)은 웅장한 지략이 매우 뛰어났으며, 방(方)은 나루터 아전으로 늙어 남에게 부림을 받았다. 한 뿌리에서 나왔으나 현우(賢愚)와 청탁(淸濁)이 이렇게 현저히 다르다. 이 때문에 선왕(先王)이 대대로 봉록은 주되 대대로 관직을 주지는 않았던 것이니 인재를 쓰는 자는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도(刀)의 후손으로 이름이 부(桴)[667]인 자와 가장 친한데 장차 그와 함께 타고 바다에 뜰 뜻[668]이 있다. 그래서 그의 세계(世系)를 특히 자세하게 기술하는 바이다.”

매 선생전【병서】

梅先生傳【並序】

매(梅) 선생은 나의 허물없는 벗이다. 그 이름은 옥화(玉和)인데 세칭 정백공(貞白公)이라고 한다. 나는 알봉(閼逢)[669]의 해에 상제로부터 명을 받고 대지에 내려와서 동방의 바다 근처에서 산다. 장려(瘴癘)[670]가 핍박하고 구름과 노을이 습하며 누런 갈대와 참 대를 아침저녁으로 맞는다.

---

666) 아교가 풀리어 : 아교로 접합시킨 배를 탔다가 아교가 풀리고 배가 해체되어[膠液船解]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말한다. 《帝王世紀·周》

667) 부(桴) : 원문은 ‘桴’로 되어 있는데 공손항의 후손들의 이름은 모두 ‘배’와 관련된 것이므로 ‘桴’의 잘못이다.

668) 바다에 뜰 뜻 : ‘부해(浮海)’는 은거하겠다는 뜻이다. 《논어》 〈공야장(公冶長)〉에 공자가 천하가 어지러움을 탄식하여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에 뜨리라.[道不行, 乘桴浮于海.]” 하였다.

669) 알봉(閼逢) : ‘알봉’은 고갑자(古甲子)로 ‘갑(甲)’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김만영 자신이 태어난 갑자년(1624)을 말한다.

670) 장려(瘴癘) : 산천의 나쁜 기운인 장기(瘴氣)로 인해 생기는 병이다.

함께 얼굴을 펴고 마음을 토로할 자가 없었는데 우연히 선생을 대 울타리 아래에서 만나 흔연히 세상을 초월한 교분을 맺었다.

그 자질과 품성이 특출하고 탁월하며 순수하고 온윤하다. 맑은 향이 사람을 감싸고 온화로운 기운이 만물을 생동하게 한다. 옥병에서 얼음이 생기고 섬궁(蟾宮)[671]에서 눈이 빛나는 듯 투명하고 맑아서 형산(荊山) 박옥(璞玉)[672]의 실질과 담담한 아취를 지니고 있다. 그윽하고 깊은 곳에서 만나니 향기에는 지란(芝蘭)의 빼어남과 정결(貞潔)한 자태가 있었다.

그 실행(實行)에 있어서는 바깥은 둥글고 안은 어질며 몸은 작으나 뜻은 원대하다. 맵고 신 기운과 맛은 사람의 이를 시리게 하니 세속의 사람들과 속된 선비들은 모두 침을 흘리며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귀한[673] 대인들이 들어다가 솥에 넣어서 오미(五味)를 각각 바르게 하고 태갱(大羹)[674]을 조화롭게 하여 교묘(郊廟)에 올리고 조야(朝野)에 베푼다면 진실로 적합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생은 꽃과 열매 둘 다를 갖춘 것이다.

아! 세상에서 맛있는 고기[675]를 실컷 먹는 자들은 한갓 고량진미만을 일삼아서 선생을 쓸쓸히 황량한 초야에 서 있게 하고 나무꾼과 목동도 모두 쉽게 여기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그러나 선생이 어찌 오랫동안 울타리 아래에 머물겠는가? 반드시 황금 화분에 올리는 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교분을 맺고 그의 전(傳)을 대략 서술하여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

671) 섬궁(蟾宮) : 두꺼비가 살고 있다는 달을 의미한다.

672) 형산(荊山) 박옥(璞玉) : 원문의 '형박(荊璞)'은 전국시대 초나라 형산(荊山)에서 나온 박옥(璞玉)으로, 천하의 보물인 화씨벽(和氏璧)이다.《韓非子 和氏》

673) 부귀한 : 원문의 '종정(鍾鼎)'은 종명정식(鐘鳴鼎食)으로, 사람이 많아서 식사 때가 되면 종을 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식사 시간을 알리고 솥을 벌여 놓고 먹는다는 뜻이다.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마을에 들어찬 집들은 종을 치고 솥을 늘어놓고 먹는 집들이다.[閭閻撲地, 鍾鳴鼎食之家.]"라고 하였다.

674) 태갱(大羹) : 본래는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육즙(肉汁)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음식을 가리킨다.《예기》〈악기(樂記)〉에 "성대한 제향의 예에서는 현주를 높이 치고, 제기에 생선을 바치며, 태갱은 조미를 하지 않으니, 다하지 않은 맛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大饗之禮, 尙玄酒而俎腥魚, 大羹不和, 有遺味者矣.]"라고 하였다.

675) 맛있는 고기 : 원문의 '추환(芻豢)'으로, 가축 가운데 풀을 먹고 자라는 소와 양 같은 가축을 '추(芻)'라 하고, 곡식을 먹고 자라는 개와 돼지 같은 가축을 '환(豢)'이라 한다.《孟子 告子上》

드러내는 바이다.

태사공은 말한다.

“선생의 선조는 상(商)나라 고종조(高宗朝)에 원기(元氣)를 조화하는 임무에 쓰였다.[676] 그 후세에는 높여 쓴 자가 없다가 송(宋)나라 임화정[677]이 벗으로 삼고 믿어 주었다. 그러나 한갓 그 유한(幽閑)한 아취만 섬겼을 뿐이요 대미(大味)[678]를 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비록 그렇지만 임화정의 뒤에는 그 유한한 아취마저도 아울러 버렸으니 슬프도다! 그렇다면 능히 선생을 벗으로 삼아 나와 함께 할 자는 몇이나 될 것인가!”

【임진년(1652, 효종3) 5월 단오일 밤에 꿈을 꾸었다. 내가 열천(洌泉)가에서 노닐고 있는데 어떤 흰 옷을 입은 사자(使者)가 나에게 읍을 하며[679] 말하기를 “상제로부터 명을 받고 족하(足下)에게 글을 구합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른 바 글이라는 것은 어떤 글을 말합니까?” 하였다. 그가 답하기를 “매 선생전(梅先生傳)입니다.” 하였다. 내가 살펴 짓다가 홀연 깨어나니 바로 한 바탕 꿈이었다. 이에 괴이하게 여겨서 바로 그 전을 짓고 아울러 그 일을 아래에 썼는데 기이한 일을 기록한 것이지 감히 속인 것은 아니다.】

---

676) 선생의……쓰였다 : 《서경》 〈열명 하(說命下)〉에, 상나라 고종(高宗)이 재상 부열(傅說)에게 “만약 간을 맞춘 국을 만들거든, 네가 소금과 매실이 되어야 한다.[若作和羹, 爾惟鹽梅.]”라고 부탁한 말이 나온다.

677) 임화정(林和靖) : 화정은 송나라 임포(林逋)의 시호(諡號)이다. 명리(名利)를 구하지 않고 서호(西湖)의 고산(孤山)에 은거해 살면서 매화나무를 심고 학을 기르면서 지냈다. 《宋史 隱逸列傳 林逋》

678) 대미(大味) : 지순(至純)한 맛을 말한다.

679) 나에게 읍을 하며 : 원문의 ‘楫余’는 ‘揖余’의 잘못인 듯하다.

격
檄

기졸을 효유하는 격문[680)]
喩氣卒檄

유년월일에 단양(丹陽) 도총대장(都總大將) 지수(志帥)는 기졸(氣卒) 군인 등에게 반포하여 고하노라. 준동하는 4적(四賊)의 추한 무리는 실로 칠전(七田)[681)]의 모얼(秏孼)이다. 벌과 전갈과 짐새의 독,[682)] 사나운 말과 날선 칼날 같은 것들이어서 나의 빈틈을 엿보다가 이렇게 지키지 않는 틈을 타서 공격한다. 처음에는 우씨(虞氏)에게 길을 빌리듯 사사로운 것으로 점차 설득하고[683)] 끝내는 험윤(玁狁)이 태원(大原)을 점거하듯[684)] 도리어 포학을 자행하며, 산택(山澤)을 마시고 불어댈 듯 순식간에 천 개의 쇠뇌를 쏘고 풍운을 질타하듯 잠깐사이에 만 가지 변화를 어지럽힌다. 오는 것은 번개를 놀라게 하고 가는 것은 강물을 모는 것 같다. 안택(安宅)[685)]을 점거하여

680) 기졸을 효유하는 격문 〈喩氣卒檄〉 : 지(志)를 장수(將帥)로 기(氣)를 군졸(軍卒)로 의인화하여 쓴 격문이다.

681) 4적(四賊)의……칠전(七田) : '4적'은 미상이고, '칠전'은 칠정(七情)을 비유한 듯하다.

682) 짐새의 독[鴆毒] : 짐조(鴆鳥)의 깃을 술에 담가 마시면 그 독이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민공(閔公) 원년에 "안일함은 짐새의 독이니,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宴安鴆毒, 不可懷也.]"라는 말이 나온다.

683) 우씨(虞氏)에게……설득하고 : '우씨'는 '우공(虞公)'을 말한다. '가도멸괵(假道滅虢)'의 고사를 말한 것이다. 희공(僖公) 2년에 진(晉)나라가 순식(荀息)이 굴(屈)에서 나는 네 필의 말과 수극(垂棘)에서 나는 옥을 우(虞)나라에 뇌물로 주고서 길을 빌려 괵(虢)나라를 쳐서 하양(下陽)을 멸망시키고, 희공(僖公) 5년에 다시 길을 빌려 괵(虢)을 취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虞)까지 멸하는 내용이 나온다. 《春秋左氏傳 僖公 2年, 5年》

684) 험윤(玁狁)이 태원(大原)을 점거하여 : '험윤(玁狁)'은 북방 오랑캐이다. 《시경》 〈유월(六月)〉 제5장에 "잠깐 험윤을 쳐서 태원에 이르렀으니 문무를 겸비한 길보여, 만방이 법으로 삼도다.[薄伐玁狁, 至于大原. 文武吉甫, 萬邦爲憲.]" 하였다.

685) 안택(安宅) : 인(仁)을 뜻한다. 《孟子 離婁上》

위태롭게 하고 예문(禮門)[686]을 타고 난을 일으키니, 불이 아니어도 뜨거워져서 집이 불타고 얼음이 아니어도 차가워져서 계곡이 언다.

이에 나의 주군(主君)[687]은 기산(岐山)의 한 모퉁이에서 형세가 급박하여 태왕(太王)이 어려운 것 같고,[688] 서촉(西蜀)의 삼위산(三危山)에서 사태가 위급하여 상황(上皇)이 피난을 간 것 같다. 뜨거운 화로를 설치해도 하늘을 덮는 흰 눈을 녹이기 어렵고 현석(玄錫)의 공을 이루지 못해 황하가 땅을 가르며 흐르는 것을 여전히 볼 수 있다.[689] 누가 능히 이 음험하고 흉악한 것들을 쓸어버리고 주군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인가? 흰 무지개가 해를 범하니[690] 진(秦)나라 군대가 승기를 탔고, 누런 안개가 들판을 덮으니[691] 한(漢)나라의 태양이 밝지 못했다.

주수(主帥)는 한 편의 의성(意城)이요 삼전(三田)[692]의 주장(主將)으로,

---

686) 예문(禮門) : 예(禮)를 말한다.《맹자》〈만장 하(萬章下)〉에 "의(義)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예(禮)는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니, 오직 군자만이 이 길을 다닐 수 있고 이 문을 출입할 수 있다.[夫義, 路也, 禮, 門也. 惟君子能由是路, 出入是門也.]" 하였다.

687) 주군(主君) : 마음을 가리킨다.

688) 기산(岐山)의……같고 : 주 태왕(周太王) 고공단보(古公亶父)가 빈(邠) 땅에 있을 때 적인(狄人)이 쳐들어오자 백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빈을 버리고 기산(岐山) 아래로 옮겨 갔다는 고사를 말한다.《孟子 梁惠王下》

689) 현석(玄錫)의……있다 :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현석(玄錫)은 순(舜)임금이 우(禹)에게 권한을 맡겨 수토(水土)를 평정하게 하였는데 "우가 현규를 올려 그의 성공을 순임금에게 아뢰었다.[禹錫玄圭, 告厥成功.]" 한 것을 말한다.《書經 禹貢》

690) 흰……범하니 : 불길한 징조이다. 진 시황(秦始皇)을 암살하기 위해 형가(荊軻)가 떠날 때, 연나라 태자 단(丹)이 흰 무지개가 해를 꿴 것을 보고 실패를 예견하였다.《사기(史記)》〈추양열전(鄒陽列傳)〉에 "옛날에 형가가 연나라 태자 단의 의리를 사모했는데, 흰 무지개가 해를 꿰니 태자가 두려워했다.[昔者, 荊軻慕燕丹之義, 白虹貫日, 太子畏之.]" 하였다.

691) 누런……덮으니 : 불길한 징조이다.《한서(漢書)》〈성제기(成帝紀)〉에, 한 성제(漢成帝) 원년에 공이 없는 태후의 여러 아우들을 후(侯)로 봉하자 "여름 4월에 누런 안개가 사방을 가득 메웠다.[夏四月, 黃霧四塞.]"라고 보인다. 이에 대해《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서 "간대부 양흥 등이 대답하기를 '(누런 안개가 가득 메운 것은) 모두 음이 성하여 양을 침해한 기운입니다. 고조의 약속에 공신이 아니면 후를 봉하지 않기로 하셨는데, 지금 태후의 여러 아우들이 모두 공이 없이 후가 되었으니, 외척이 〈후에 봉해진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하였다.[諫大夫楊興等, 對皆以爲陰盛侵陽之氣也. 高祖之約, 非功臣不侯, 今太后諸弟, 皆以無功爲侯, 外戚, 未曾有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692) 삼전(三田) : '삼단전(三丹田)'으로 도가에서 말하는 세 곳의 단전인데,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산하가 옛날과 다르니 백인(伯仁)의 흐르는 눈물을 몇 번이나 닦았던가.[693] 그리하여 처첩들을 항오에 편입시키고 제나라 사람처럼 판자와 삽을 놓지 않았다.[694] 한 밤중에 종치는 소리를 듣자 마음이 추향하는 바가 이미 밝아지고, 관중(關中)에 물기(勿旗)[695]를 세우자 흉악한 무리의 안색이 변하니 오히려 차마 적과 양립하랴, 한 하늘을 같이 이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이에 바로 옛 성인의 계책을 계승하고 천명을 받들어 하늘의 토벌을 행하여 삼부(三符)가 이미 수립되니 부죽(剖竹)의 형세가 이뤄지고, 일기(一機)가 이에 펼쳐지니 균석(鈞石)[696]도 뽑을 수가 있다. 육비(六轡)[697]가 손에 있으니 사마(駟馬)가 어긋나게 달리지 않고, 사유(四維)[698]가 앞에 펼쳐지니 수레가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다. 반드시 적을 섬멸하여 남겨 기르는 일이 없으니[699] 어찌 남은 싹이 있게 하겠는가?

---

693) 산하가……닦았던가 : 어지럽혀진 마음을 빼앗긴 산하에 비유한 것이다. 백인(伯仁)은 동진(東晉) 사람 주의(周顗)의 자이다. 《세설신어(世說新語)》 〈언어(言語)〉에 다음과 같은 고사가 전한다. 서진(西晉)이 유송(劉宋)에게 쫓겨 장강(長江)의 동남쪽으로 건너가 동진(東晉)이 되었는데, 신하들이 신정(新亭)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주의가 “풍경은 다르지 않으나 산하는 정히 절로 다름이 있구나.[風景不殊, 正自有山河之異.]”라고 하자, 좌중이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694) 처첩들을……않았다 : 마음을 다잡고 해이해진 의성(意城)을 다시 쌓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전국 시대의 제(齊)나라 장군 전단(田單)이 연(燕)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몸소 판자와 삽을 잡고 병사들과 함께 일을 하였고 처첩(妻妾)들을 군대의 항오에 편입시키고[乃身操版插, 與士卒分功, 妻妾編於行伍之間, 盡散飮食饗士.]’ 음식을 모두 풀어 병사들을 먹여서 연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史記 田單列傳》

695) 물기(勿旗) : ‘사물(四勿)’의 깃대[旗]라는 뜻이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41 〈안연편(顏淵篇)〉에서 ‘비례물시(非禮勿視)’를 논하면서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물(勿) 자는 깃발과 비슷하여, 이 기를 한 번 흔들면 삼군(三軍)이 모두 물러난다.’라고 하였으니, 공부는 단지 이 ‘물’ 자에 달려 있다.[說文謂勿字似旗脚, 此旗一麾, 三軍進退, 工夫只在勿字上.]” 하였다.

696) 균석(鈞石) : 고대 무게의 단위로 가장 무거운 저울추이다. 《서경》 〈하서(夏書) 오자지가(五子之歌)〉에 “통용되는 석과 공평한 균이 왕부에 있다.[關石和鈞, 王府則有.]” 하였는데, 채침의 주에 “균과 석은 5권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다.[鈞與石, 五權之最重者也.]” 하였다.

697) 육비(六轡) : 여섯 개의 말고삐라는 말인데, 네 필 말의 고삐 여덟 개 중에서 양편 참마(驂馬)의 두 고삐는 식(軾)의 고리 속에 넣고 손에는 여섯 개의 고삐만 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시경》 〈사철(駟驖)〉에 “검붉은 네 필의 말 통통하게 살졌나니, 여섯 개의 고삐를 손 안에 쥐었도다.[駟驖孔阜, 六轡在手.]”라는 말이 나온다.

698) 사유(四維) : 나라의 벼리가 되는 4가지로 예(禮)·의(義)·염(廉)·치(恥)를 말한다. 《管子 牧民》

699) 섬멸하여……없으니 : 《서경》 〈반경(盤庚)〉에 “불선하고 무도한 자들이 타락하여 공손하지

아! 나의 기졸(氣卒) 군인 등은 구태를 혁파해 제거하고 새로운 명을 모두 따르라. 옛날에는 마음이 외물에 변화되었음을 깨닫고 오늘엔 하늘에 통함을 각성하여, 칼날을 맹렬히 갈아 적세(賊勢)의 요충을 끊고 문호를 한결같이 지켜서 외객(外客)이 와서 엿보는 것을 막아라. 신(神)이 지키는 고을을 영원히 귀신이 엿보는 집이 되지 하지 말라.[700] 만약 나와의 약속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이 처벌을 명할 것이다. 너희가 혹시 나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천군(天君)의 기상을 와서 보라. 이는 나의 충고이니 격문이 이르는 대로 글과 같이 시행하라.

광주 나주 양 고을의 문예를 겨루기를 요청한 격문

光羅兩邑戰藝檄

삼가 생각건대, 폐읍은 탄환만한 한 작은 현이지만 다행히 귀주(貴州)와 경계를 접하여 닭 울음소리가 서로 들리고 개의 이빨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 서악(瑞嶽)[701]의 신령한 빛이 항상 금수(錦岫)[702]를 끌어당길 듯하고, 영탄(靈灘)[703]의 상서로운 기운이 멀리 낙포(樂浦)로 통한다. 산천은 아름답고 인물은 많아 곧바로 상하(上下)를 가릴 수 없다. 명공(名公)과 거경(巨卿)·석덕(碩德)과 홍유(鴻儒)가 전후로 배출되어 역사를 빛낸 사람도 우열을

않거나 잠시 만남에 간악한 짓을 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이들을 남기어 기르지 않고 코를 베고 죽여서 새 도읍에 그 종자를 퍼트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乃有不吉不迪, 顚越不恭, 暫遇姦宄, 我乃劓殄滅之無遺育, 無俾易種于茲新邑.]" 하였다.

700) 신이……말라 : '경(敬)'으로 마음을 수양해야 한다는 말이다. 주희(朱熹)의 제자인 임용중(林用中)이 지은 〈주일명(主一銘)〉에 "마음에 주재가 있으면 텅 비게 되니, 신이 그 성곽을 지키고, 주재가 없으면 실하게 되니, 귀신이 그 집을 엿본다.[有主則虛, 神守其都, 無主則實, 鬼闞其室.]"라고 한 데서 온 말로, 귀신이 집을 엿본다는 것은 곧 마음에 사욕(邪慾)이 들어옴을 의미한다.《性理大全 권32 性理4 心》

701) 서악(瑞嶽) : 서석산(瑞石山) 즉 광주(光州)의 무등산(無等山)을 말한다.

702) 금수(錦岫) : 전라도 나주(羅州)의 금성산(錦城山)을 말한다.

703) 영탄(靈灘) : 광주와 나주를 경유해 흐르는 영산강(榮山江)을 말한다.

가릴 수 없다. 호중(湖中) 천리 땅에 바둑알처럼 펼쳐진 군들이 어찌 한량이 있겠는가마는 명승을 칭할 때 광주(光州)와 나주(羅州)를 나란히 세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더구나 옛적 태평시절 수백 년 동안에 문물이 부려(富麗)하고 신성하신 조종(祖宗)의 단비와 같은 교화로 걸출한 준재들이 이 두 고을에 모여서 사철로 기쁘게 노닐며 서로 어울려 즐긴 것은 시례(詩禮)의 가르침과 현송(絃誦)의 아름다움이 아님이 없었으니, 우리 두 고을 간의 백전(白戰)[704]의 놀이는 여기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긴급한 주장(奏章)과 격문(檄文)이 대열을 짓고 줄을 이루어 일진일퇴하고 일승일패하면서 자웅이 가려지고 성패가 나뉘었다. 마치 두 적이 서로 맞서 깃발과 북이 진을 이루고 기문(奇門)[705]과 정법(正法)으로 각기 그 능력을 결판 짓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전(戰)'이라고 하였으니 대개 희언(戲言)이었다.

임진년(1592, 선조25)과 정유년(1597) 뒤에 군무와 국정에 어려움이 많아지면서 문명(文明)한 모임이 폐지되고 강론하지 않은 지도 수십 년이다. 지난 만력(萬曆)과 숭정(崇禎) 연간에 나라가 중흥하여 바르게 다스려지고 백가지 폐지된 일이 모두 진작되자 사문(斯文)의 이 거동도 더욱 경장(更張)되었으며 예악의 풍도와 재예(才藝)의 풍성함에 아직도 혹 미치는 자들이 있었다. 아! 식양(息壤)이 저기에 있고[706] 맹단(盟壇)도 옛 그대로인데 희생(犧牲)을 진설하는 글을 폐기하고 강론하지 않은 것이 지금 몇 년이나 되었도다. 말이 여기에 미치니 장탄식을 금할 수 없다.

지난번 우리 명부(明府)의 이(李) 사문(斯文) 선생이 귀주(貴州)에 공문을

---

704) 백전(白戰) : 시인(詩人)들이 서로 재능을 겨루는 것을 말한다. 본래 송(宋)나라 구양수(歐陽脩)가 특정한 어휘를 쓰지 못하게 하고 시를 짓게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705) 기문(奇門) : 기문둔갑(奇門遁甲)으로 길흉을 점치는 술수(術數)의 일종인데, 흔히 병법에 많이 이용되었다.

706) 식양(息壤)이 저기에 있고 : 굳게 맹세한 일을 가리킨다. 식양은 전국(戰國) 시대 진(秦)나라의 읍명(邑名)이다. 진나라 무왕(武王)이 장수 감무(甘茂)에게 의양(宜陽)을 정벌하게 하였는데, 감무는 왕이 도중에 후회할까 염려하여 식양에서 굳게 맹세하게 하였다. 후에 왕이 정벌에 대해 회의를 느끼자, 감무가 글을 올려 "식양이 저기에 있습니다.[息壤在彼.]"라고 하였고 드디어 의양을 함락시켰다. 《戰國策 秦策》

보내 옛 의리로 권면을 하였다. 그런데 귀주의 군자들은 숨을 죽이고 움츠리면서 성벽을 견고히 하고 굳게 지키니, 동주(東周)가 합종(合縱)을 맺어[707] 연합을 하자 함곡관(函谷關)의 진(秦)나라 군대가 나가지 않은 것 같았다. 그랬으니 폐읍에서는 마땅히 부녀자가 쓰는 두건과 머리 장식물을 만들어 사마중달(司馬仲達)[708] 같은 겁쟁이의 나약함을 깊이 꾸짖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진 장수는 용서하는 일이 많아서 궁지에 처한 사람을 곤란하게 하지 않고, 병가(兵家)는 정도(正道)를 귀하게 여겨서 불능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위태로운 자는 붙들어 주니 각기 강역을 지키면서 예로써 서로 구휼하는 것만 못하였다. 그러므로 양계(兩階)에서 회군을 하여 문무(文舞)를 춘[709] 것이 오래 되었는데 지금 또 생각해보니 한 걸상을 벗어나 강남에서 잠이나 자는 것을 어찌 오랫동안 용납하겠는가? 원컨대 여러 군자와 더불어 문예를 겨뤄야 하지 않겠는가?

2월 25일 계유(癸酉)는 수신(受脤)[710]하기에 좋은 날이다. 폐읍은 바야흐로 시례(詩禮)를 군율로 삼고 예악(禮樂)을 깃발로 삼는다. 고허(孤虛)·왕상

---

707) 합종(合縱)을 맺어 : 원문의 '약종(約從)'으로, 전국 시대의 대표적인 유세객인 소진(蘇秦)이 강성한 진(秦)나라를 두려워하는 산동 지역의 제후국을 찾아다니며 6국(六國)의 연합으로 진나라에 대항하자는 합종설(合縱說)을 주창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진나라의 장의(張儀)가 여섯 나라가 동맹을 깨고 진나라를 섬기자는 연횡책(連橫策)을 폈다. 장의의 계책대로 여섯 나라가 각각 분리되어 결국 진나라에게 모두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史記 권70 張儀列傳》

708) 부녀자가……사마중달(司馬仲達) : 원문의 '건괵(巾幗)'으로, 부녀자들의 두건과 머리 장식인데, 못난 사내를 부인에 빗대는 경멸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사마중달은 사마의(司馬懿)의 자(字)이다.촉한(蜀漢)의 제갈량이 위(魏)나라 사마의(司馬懿)와 대적할 때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사마의가 응하지 않으므로 일부러 '부녀자가 쓰는 장식물[巾幗婦人之飾]'을 보내 조롱하였다.《晉書 宣帝紀》

709) 양계(兩階)에서……춘 : 양계(兩階)는 주인과 손님의 섬돌인데, 여기서는 모여서 문장을 겨루던 회합 장소를 말한다.《서경》〈대우모(大禹謨)〉에 "(禹가) 회군을 하고 군대를 거두자 순 임금이 문덕을 크게 펴고 방패와 깃을 들고 두 섬돌 사이에서 춤을 추었는데, 70일 만에 유묘가 귀순해왔다.[班師振旅, 帝乃誕敷文德, 舞干羽于兩階, 七旬有苗格.]" 하였다. 문무(文舞)는 칼이나 창을 들지 않고 문관(文官)의 차림으로 열을 지어 추는 춤이다.

710) 수신(受脤) : 제사 고기를 받는 것으로, 출병(出兵)하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문예를 겨루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민공(閔公) 2년 조에 "군대를 거느린 자는 종묘에서 명령을 받고 사에서 제육을 받는다.[帥師者, 受命於廟, 受脤於社.]" 하였다.

(旺相)[711]의 천시(天時)는 《주역》을 쓰고 상벌(賞罰)·여탈(予奪)의 권한은 《춘추》를 법으로 삼는다. 대장기는 장원봉(壯元峯) 아래에 세우고 육화진(六花陣)[712]은 인덕지(仁德池) 가에 펼친다. 사자(四子)[713]의 엄밀함과 칠서(七書)[714]의 책략에 예의(禮儀) 삼백과 위의(威儀) 삼천[715]을 겸하여 모두 거두어 함께 들어서 좌우로 배열하여 정렬하고, 연후에 중군의 장수로 아름답게 있는[716] 자는 반마(班馬)와 장한(莊韓)[717]이고 용기를 사서[718] 남보다 먼저 오른 자는 이두(李杜)와 구소(歐蘇)[719]이다. 산경(山經)과

---

711) 고허(孤虛)·왕상(旺相) : 술법가에서 날과 계절의 길흉을 따지는 방법이다. '고허'는 일진(日辰)에 기운이 완전하지 않음을 이르는바, 예를 들면 갑자일(甲子日)로부터 계유일(癸酉日)까지가 10일간인데, 여기에는 지지(地支) 중 술(戌)과 해(亥)가 빠지므로 술과 해는 고(孤)가 되고, 술과 해의 반대 방향인 진(辰)과 사(巳)는 허(虛)가 되는 따위이다. '왕상'은 기운이 왕성하고 딴 기운이 도와줌이 있음을 이른다. 이를테면 봄에는 나무의 기운이 왕성하여 목왕(木旺)이고 화상(火相)이며, 여름에는 불의 기운이 왕성하여 화왕(火旺)이고 토상(土相)인 것과 같은 경우이다.

712) 육화진(六花陣) : 제갈량(諸葛亮)의 팔진법(八陣法)에 기초하여 당(唐)의 이정(李靖)이 만든 진법이다.

713) 사자(四子) : 사자서(四子書)의 준말로, 공자(孔子)·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의 언행록이라 할 《논어》, 《대학》, 《중용》, 《맹자》를 지칭한다.

714) 칠서(七書) : 중국의 병법(兵法)에 관한 7종의 병서(兵書)이다. 《손자(孫子)》·《오자(吳子)》·《육도(六韜)》·《사마법(司馬法)》·《삼략(三略)》·《울료자(尉繚子)》·《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이다.

715) 예의(禮儀)……삼천 : 큰 예와 작은 예를 말한 것이다. 《중용장구》 제27장에 "크고 넉넉하도다. 예의가 3백 가지요, 위의가 3천 가지로다.[優優大哉, 禮儀三百, 威儀三千.]"라는 말이 나온다. 예의(禮儀)는 기본적인 대강령(大綱領)인 경례(經禮)를 말하고, 위의(威儀)는 구체적인 소절목(小節目)인 곡례(曲禮)를 말한다. 《예기》 〈예기(禮器)〉에 "경례가 3백 가지요, 곡례가 3천 가지인데, 그 정신은 하나이다.[經禮三百, 曲禮三千, 其致一也.]"라는 말이 나온다.

716) 중군의……있는 : 《시경》 〈정풍(鄭風) 청인(淸人)〉에 "청읍 사람이 축 땅에 있으니, 네 마리 갑옷 입힌 말이 유유자적하도다. 왼쪽 사람은 수레를 돌리고 오른쪽 사람은 칼을 뽑거늘, 중군의 장수는 아름답게 있도다.[淸人在軸, 四介陶陶, 左旋右抽, 中軍作好.]"라고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717) 반마(班馬)와 장한(莊韓) : '반마(班馬)'는 반고(班固)와 사마천(司馬遷)의 병칭이다. '장한(莊韓)'은 장주(莊周)와 한비자(韓非子)의 병칭이다.

718) 용기를 사서 : 원문의 '고용(賈勇)'으로, 춘추 시대 제(齊)나라 사람 고고(高固)가 진(晉)나라 군대 속으로 돌진하여 위세를 떨치고 돌아와서 자기 군사의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하여 "용맹을 떨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나에게 남아 있는 용기를 사 가라.[欲勇者, 賈余餘勇.]"라고 외쳤던 고사에서 온 말이다. 《春秋左氏傳 成公2年》

719) 이두(李杜)와 구소(歐蘇) : '이두(李杜)'는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의 병칭이다. 구소(歐蘇)는 구양수(歐陽脩)와 소식(蘇軾)의 병칭이다.

지지(地誌)[720]의 백가(百家)들에 이르러서는 양식을 나르고 군량을 실으며 군수물자를 공급하기를 청하지 않음이 없다. 또한 헌창(軒倉)의 육체(六體)[721]·이채(李蔡)의 팔분(八分)[722]·종장(鍾張)과 왕조(王趙)[723]의 수백 수천 형태의 글자는, 비단을 펴고 흰 배를 펼쳐놓고 팔뚝을 걷어붙여 휘갈겨 쓰며 혹 명령을 받아 격문을 기초하고 혹 나무를 깎아 흰 바탕에 쓰니,[724] 붕새가 묵지(墨池)[725]에서 날고 용이 붓끝에서 뛰어오른다. 이것이 대략 폐읍의 군대 진용이다.

또 순풍(淳風)[726]에게 점대를 뽑게 하니 효상(爻象)이 모두 길하고 초공(焦貢)[727]에게 거북껍질을 지지게 하니[728] 조짐도 좋다. 원컨대 여러 군자는

---

720) 산경(山經)과 지지(地誌) : 산경(山經)은 산맥과 지리를 기록한 책을 말한다. 지지(地誌)는 방역(方域), 산천(山川), 풍속, 산물(產物) 등을 기록한 책을 말한다.

721) 헌창(軒倉)의 육체(六體) : '헌창(軒倉)'은 고대 글자를 만들었다는 창힐(倉頡)을 말한다. '육체(六體)'는 서체를 가리킨다.

722) 이채(李蔡)의 팔분(八分) : '이채(李蔡)'는 이사(李斯)와 채옹(蔡邕)이다. 이사는 진나라 때의 재상으로 문자를 통일하기 위해 대전(大篆)에 바탕을 두고 소전(小篆)을 제정했다고 한다. 채옹은 후한 말기의 문신이자 서법가(書法家)로 전서(篆書)와 예서(隸書)에 뛰어났으며, 팔분체(八分體)와 비백체(飛白體)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팔분(八分)'은 서체(書體)의 하나로, 예서(隸書)와 전서(篆書)를 절충하여 만든 서체이다.

723) 종장(鍾張)과 왕조(王趙) : '종장(鍾張)'은 삼국 시대 위(魏)나라의 종요(鍾繇)와 동한(東漢)의 장지(張芝)로, 이들 두 사람은 모두 글씨를 잘 쓰기로 이름 높았다. '왕조(王趙)'는 서예에 뛰어났던 동진(東晉)의 왕희지(王羲之)와 원나라의 조맹부(趙孟頫)의 병칭이다.

724) 나무를……쓰니 : 전국 시대 제(齊)나라 손빈(孫臏)이 위(魏)나라 방연(龐涓)과 싸울 때 손빈이 방연을 마릉(馬陵)의 좁은 길로 유도한 다음 그곳에 복병(伏兵)을 설치하고서 큰 나무의 껍질을 하얗게 깎아 내고 거기에 쓰기를, "방연이 이 나무 밑에서 죽을 것이다.[龐涓死于此樹之下.]" 하였는데, 과연 방연이 밤에 도착하여 깎아낸 나무에 쓰인 흰 글자를 보다가[龐涓果夜至斫木下, 見白書.] 기습을 받아 대패하고 자신은 목을 찔러 자결한 일을 말한다.《史記 孫子吳起列傳》

725) 묵지(墨池) : 진(晉)나라 때 왕희지(王羲之)가 붓을 씻었다는 연못이다. 송(宋)나라 증공(曾鞏)의 〈묵지기(墨池記)〉에 의하면, "신성가에는 우묵하게 패여 있는 장방형의 못이 있는데 이곳은 왕희지의 묵지라고 한다.[新城之上, 有池窪然而方以長, 曰王羲之之墨池者.]" 하였다.

726) 순풍(淳風) : 당(唐)나라 이순풍(李淳風)으로 박학하였는데, 특히 천문(天文)과 역산(曆算) 및 음양(陰陽)의 학문에 더욱 정통하여 혼천의(渾天儀)와 황도의(黃道儀) 등을 만들었다.

727) 초공(焦貢) : 전한(前漢) 소제(昭帝) 때의 역술 이론가로, 초공(焦贛)이라고도 한다.

728) 거북껍질을 지지게 하니 : 점을 친 것이다. 원문의 '灼繩'은 '灼龜'의 잘못인 듯하다.

속히 행장을 꾸려 음주례와 조도제(祖道祭)[729]를 행하고 대오(隊伍)를 지어서 오라. 한(韓)·조(趙)에 지원을 청하고 제(齊)·초(楚)에 구제를 구하라. 손빈(孫臏)의 십만 개의 아궁이[730]·항적(項籍)의 사흘 치 식량[731]·전단(田單)의 죽기를 각오한 마음[732]·맹시사(孟施舍)의 두려움 없는 의지[733]로 당당하게 깃발을 끌고 정연하게 출병하라. 한 띠 같은 영강(榮江 영산강)의 만경창파를 장강(長江) 같은 천연의 참호로 여겨서 건너기 어렵다고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 천 길이나 되는 금악(錦嶽 금성산)의 구름 속 하늘로 솟은 봉우리를 팔공산(八公山)[734] 같은 산색으로 보지를 말고 저상된 기운을 진무하라. 일곱 번 놓아주고 일곱 번 붙잡은 것은 서촉(西蜀)의 형세요[735] 세 번 싸워 세 번 패배한 것은 동오(東吳)의 형세이다.[736]

---

729) 조도제(祖道祭) : '조(祖)'는 길을 떠날 때에 길신(神)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730) 손빈(孫臏)의……아궁이 : 손빈이 제(齊)나라의 군사를 거느리고 위(魏)나라의 장수 방연(龐涓)과 싸우게 되자 첫날에는 취사하는 아궁이를 10만 개 만들었다가 이튿날엔 5만 개로 줄이고 또 그 이튿날엔 3만 개로 줄여 도망친 것처럼 위장하였다. 이에 방연이 방심하고 추격을 하다 마릉(馬陵)에서 손빈의 복병을 만나자 자결하였다.《史記 孫子吳起列傳》

731) 항적(項籍)의……식량 : 결사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결의를 비유한 것이다. 항적이 진(秦)나라와 싸우러 가면서 하수(河水)를 건넌 뒤 "배를 모두 가라앉히고, 솥과 시루를 깨뜨리고, 막사를 불태우고, 사흘 양식만 지니고서 사졸에게 필사적으로 싸워야 함을 보여준 것[沈船破釜甑, 燒廬舍, 持三日糧, 以示士卒必死]"을 말한다.《史記 項羽本紀》

732) 전단(田單)의……마음 : 전단은 전국(戰國) 시대 제(齊)나라의 명장(名將)이다. 노중련(魯仲連)은 전단이 즉묵(卽墨)에서 승리했던 이유를 들면서 "그 때에는 장군은 죽으려는 마음이 있었고 군사들은 살려는 기운이 없었다.[當此之時, 將軍有死之心, 而士卒無生之氣.]" 하였다.《戰國策 齊策6》

733) 맹시사(孟施舍)의……의지 : 맹시사(孟施舍)는 싸움에서 비록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오직 두려움이 없기만을 기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孟子 公孫丑上》

734) 팔공산(八公山) : 전진(前秦) 왕 부견(苻堅)과 동진(東晉)의 장수 사석(謝石)과 사현(謝玄)이 대전을 펼친 산이다. 부견이 대패하고 팔공산을 바라보니, 두려운 나머지 산의 초목들이 모두 진나라 군대로 보였다고 한다.《晉書 권114 苻堅載記下》

735) 일곱……형세요 : 원문의 '칠종칠금(七縱七擒)'으로, 촉나라 후주(後主) 건흥(建興) 3년(225)에 제갈량이 군대를 이끌고 남이(南貳)를 평정하면서 맹획(孟獲)과 싸우면서 일곱 번 놓아주고 일곱 번 생포하여 심복케 한 일을 가리킨다.《三國志 권35 蜀書 諸葛亮傳》

736) 세……형세이다 : 전국시대 월나라가 오나라를 패배시킨 일을 말한다.《국어(國語)》〈오어(吳語)〉에 "오(吳)나라 군대가 월(越)나라에게 세 번 싸워 세 번 패배하자 마침내 월(越)나라 군대가 오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곧장 오나라의 국도(國都)에 진입하여 왕궁(王宮)을 포위하였다.[三戰三北, 乃至於吳, 越師遂入吳國, 圍王宮.]" 하였다.

폐읍(弊邑)을 위한 계책으로는 우리의 군대를 정비하고 우리의 문덕(文德)을 펼쳐서, 귀주(貴州)가 무장을 해제하고 붓을 던지며 우리의 춘풍(春風) 같은 은택에 모여들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만약 부득이 하책을 내야한다면, 맑은 휘파람 한 소리로 돌아가려 생각하는 무리를 앉아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옥 같은 모습에 몇 마디 말로 온 진(秦)나라의 군대를 쓸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만약 성도(成都)의 노장(老將)[737]이 먼저 항복 깃발을 세운다면 쇠고기와 술로 대접하여 보살피고 위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사로잡고 풀어주며 붙잡고 버리는 것은 내 손바닥 안의 일처럼 쉬우니 어찌 넉넉히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아! 앞의 말은 희언일 뿐이고 또한 한결같은 법칙이 있다. 모(某) 등이 평일에 옥녀봉(玉女峯) 아래로 길을 가다가 포충사우(褒忠祠宇)[738]를 쳐다보니 문장과 절의가 늠름하여 엊그제 같았다. 망천산(望川山) 앞을 지나다가 존재(存齋)[739] 서원(書院)의 뜰에서 재배를 올리니 학문(學文)과 종파(宗派)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듯하였다. 더구나 만취(晩翠) 평원에 유지(遺址)가 여전히 남아있으니 한 줄기 맑은 얼음이 황연히 정신을 접한 듯하고, 천 길 비단 봉우리에 눈과 달이 서로 빛나니 창의(倡義)의 충심이 백대를 격동시킨다. 그러니 우리 문도된 자들은 주선읍양(周旋揖讓)하면서 정학(正學)을 격려하고 책선보인(責善輔仁)[740]해야지 문(文)으로써만 벗을

737) 성도(成都)의 노장(老將) : 후한(後漢)의 엄안(嚴顔)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는 유장(劉璋)의 부하 장수로 파군 태수(巴郡太守)로 있다가 장비(張飛)에게 잡혔는데 "우리 파주에는 머리 잘리는 장군은 있을지언정 항복하는 장군은 있지 않다.……목을 치려면 칠 것이지 어째서 성을 내는가."라고 의연하게 대답을 하자, 장비가 장하게 여겨 풀어 주고 빈객으로 대접했던 고사가 전한다.《三國志 권36》

738) 포충사우(褒忠祠宇) : 포충사로, 임진왜란 때 순절한 고경명 고종후 고인후 3부자와 유팽로 안영 등 5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사액 사당이다.

739) 존재(存齋) :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호이다.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명언(明彦),호는 고봉(高峯) 또는 존재(存齋)이다. 1558년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572년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되었고, 대사간·공조 참의를 지냈다.

740) 책선보인(責善輔仁) : 선한 행동을 권하고 어진 품성을 돕는다는 말로 벗 사이의 바른 도리를 말한다.《맹자》〈이루 상(離婁上)〉에 "아비와 자식 사이에는 선을 권하지 않는다.[父子之間不責善]" 하였고,《논어》〈안연(顔淵)〉에 "군자는 글로 벗을 모으고, 벗으로 어짊을 돕는다.[君子, 以文會友, 以友輔仁.]" 하였다

모은다면 옳겠는가?[741] 술잔을 잡고 필묵을 희롱하며 오로지 꾸밈만을 일삼아 장단(長短)을 다퉈 겨루며 한묵(翰墨)으로만 각축을 벌인다면 옳겠는가? 그 반드시 변별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모름지기 여러 군자가 강회(講會)하는 날에, 정숙자(程叔子)가 시험을 고쳐 과제물로 하는 것으로[742] 마음을 세우고 호 문정(胡文定)이 소호(蘇湖)에서 가르쳤던 경의(經義)를 규칙으로 삼아서[743] 걸음걸이 하나도 법도에 맞게 하고 오르내릴 때 예로써 하되, 고하(高下)를 살펴 평가하거나 교졸(巧拙)을 비교해 재는 데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 바라건대 정학일통(正學一統)의 종지(宗旨)를 높이고 삼사(三舍)가 경박하고 사치스럽다는 비난을 면해야 한다. 그런다면 농담을 잘 하면서도 지나치지는 않고[744] 늦추고 당기는데 법도가 있으며[745], 문장과 덕행 두 가지를 행하는데 어긋나지 않고 전현(前賢)에게 부끄러울 바가 없어서 후세에게 길이 교훈을 드리울 것이다. 원하노니 여러 군자는 부디 또한 힘쓸지어다!

---

741) 문(文)으로써만……옳겠는가? : 문장만이 아니라 덕행도 중시해야한다는 말이다.

742) 정숙자(程叔子)가……것으로 : 송(宋)나라 유학자 정이(程頤)를 가리키는데, 그의 자가 정숙(正叔)이므로 존칭하여 그렇게 부른다. 그가 학제(學制)를 자세히 살핀 뒤에 시험을 월과(月課)로 고치고, 향공(鄕貢)의 진사(進士) 수를 줄이도록 철종(哲宗)에게 건의한 것을 가리킨다. 《小學 善行》

743) 호 문정(胡文定)이……삼아서 : 호 문정(胡文定)은 호 안정(胡安定)의 잘못인 듯하다. 호 안정은 송(宋)나라 학자 호원(胡瑗, 993~1059)으로 안정은 호이다. 그는 소주(蘇州)와 호주(湖州)에서 교수로 생도들을 가르쳤는데 가르칠 때는 사제의 예를 엄하게 하였으며, 사람을 가르치는 법에 있어 과조(科條)를 자세하게 구비하고 경의재(經義齋)와 치사재(致事齋)로 나누어 가르쳤다. 경의재에는 소통하고 기국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거처하게 하고, 치사재에는 사람마다 각각 한 가지 일을 전공하게 하고 도한 가지 일을 겸하여 익히게 하였다. 《宋元學案 권1 安定學案》

744) 농담을……않고[善戲不謔] : '謔'은 '虐'의 잘못인 듯하다. 농담을 하면서도 절도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시경》〈기욱(淇奧)〉에 "농담을 잘 하되 지나치지는 않는구나.[善戲謔兮, 不爲虐兮.]" 하였다.

745) 늦추고……있으며 : 본래 활줄의 이완과 긴장을 조절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일을 조화롭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禮記 雜記下》

의

義

‘현룡재전 이견대인’ 의

見龍在田利見大人義

내가 일찍이 《주역》을 읽다가 〈건괘(乾卦〉 이효(二爻)의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 봄이 이롭다.[見龍在田, 利見大人.]”라는 설에 이르러서 책을 덮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자가 이 세상에 태어남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천하의 큰 운수와 관계되어 청명한 지기(至氣)를 부여받고 천하의 큰 뜻을 경륜하여 우주의 원대한 계략을 움켜쥐며, 하늘의 기둥이 기우려하면 그 몸으로 받들고 창생들이 도탄에 빠지면 그 몸으로 구원할 수 있다. 그 포부가 이와 같다면 군주가 현자(賢者)를 어찌 소중히 여기지 않겠는가? 진실로 국가의 기용(器用)일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좋은 값을 기다려[746] 저절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현자의 일이고, 몸을 굽혀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은 군주의 도리이다. 동기(同氣)가 서로 찾는[747] 일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름을 팔고 저절로 이르게 할 수 있겠는가? 윗사람이 진실로 목마르듯 바라는 정성으로 대하고 사제(思齊)[748]의 마음을 보인다면, 인재를 구하는 노고는 악발(握髮)[749]보다 심하고 예우 또한 설례(設醴)[750]보다 융숭할 것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행실을

---

746) 좋은 값을 기다려 : 자신의 뜻을 알아줄 군주를 기다린다는 뜻이다.《論語 子罕》

747) 동기(同氣)가 서로 찾는 : 뜻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의기투합하는 것을 말한다.《周易 乾卦 文言》

748) 사제(思齊) : 《논어》〈이인(里仁)〉의 “현인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보면 안으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라고 한 것을 말한다.

749) 악발(握髮) : 주공이 천하의 인재를 선발하는데 전념하여 “머리를 한 번 감는 사이 세 번이나 젖은 머리를 움켜쥐고 나갔고, 밥 한 끼를 먹는 사이 세 번이나 입 속의 음식을 뱉어냈다.[一沐三握髮, 一飯三吐哺.]”라는 고사를 가리킨다.《史記 권33 魯周公世家》

750) 설례(設醴) : 현사(賢士)를 후한 예로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전한(前漢)의 초 원왕(楚元王)이 빈객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 적에, ‘술을 좋아하지 않는 목생(穆生)을 위하여 항상 단술을 마련하여[

본받는 것은 어쩌면 풀이 바람에 눕는[751] 것처럼 빠를 것이요, 그림자가 형체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은 북채와 북이 서로 호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그러니 저 산림의 초가에 사는 무리와 영해의 먼 구석에 사는 무리 중에 누가 밭 갈기를 그만두고 번연히 마음을 고쳐먹지 않겠으며, 모두 낚시질을 그치고 귀의해 오지 않겠는가? 이에 봉궐(鳳闕)로 날아오르고 용문(龍門)으로 치달려, 명군(明君)을 만나서 재주를 펼치고 성주(聖主)를 만나서 능력을 베풀면, 책략이 부합하고 간쟁이 받아들여져서 "직무를 맡아 저토록 전담하는구나."라고 할 것이다.

이 때문에 군주는 현자를 소홀히 하는 잘못이 없고 신하는 멀리 떠나려는 뜻이 없게 되니 용이 나타난 날에 구름이 따르고 범이 포효하는 때에 바람이 맹렬한 것이요, 기러기 날개가 순풍을 타고 큰 물고기가 바다에서 마음껏 노니는 듯 하는 것이다.[752] 때를 만남이 이와 같으니 어찌 품은 바를 다 펴지 못할까 걱정하리오? 군주의 신임을 얻음이 저와 같으니 혹시라도 배운 바를 펼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한 세상을 태평성대[753]에 가져다 놓고 만백성을 수역(壽域)[754]에 올려놓을 것이다. 문물은 당우(唐虞)[755]의

常爲穆生設醴]' 예우했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漢書 楚元王傳》

751) 풀이 바람에 눕는 : 원문의 '풍초(風草)'로, 바람이 불면 풀이 쓸리듯이 윗사람이 인도하면 아랫사람이 따른다는 말이다. 계강자(季康子)가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눕는다.[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草上之風, 必偃.]" 하였다.《論語 顔淵》

752) 기러기……것이다 : 왕포(王褒)의 〈성군이 어진 신하를 얻음에 대하여[聖主得賢臣頌]〉에 "마치 큰 기러기 깃이 순풍을 만난 듯이 순조롭고 신속하며, 마치 큰 물고기를 큰 바다에 풀어놓은 듯이 거침없을 것이다.[翼乎如鴻毛遇順風, 沛乎若巨魚縱大壑.]"라고 하였다.《古文眞寶後集 卷1》

753) 태평성대 : 원문의 '희호(熙皥)'는 화락(和樂)하고 자득(自得)한 모양을 말하는데, 전하여 태평성대를 의미한다.《노자(老子)》 제20장에 "세속의 중인들이 희희낙락하여, 푸짐한 잔칫상을 받은 듯, 봄날의 누대에 오른 듯하네.[衆人熙熙, 如享太牢, 如登春臺.]"라고 하였고,《맹자》〈진심 상(盡心上)〉에 "성왕의 백성은 스스로 만족해한다.[王者之民, 皥皥如也.]"라고 하였다.

754) 수역(壽域) : 인수지역(仁壽之域)의 준말로, 태평성대를 뜻한다.《한서(漢書)》 권22 〈예악지(禮樂志)〉에 "구례를 찬술하고 왕제를 밝혀서 온 세상의 백성들을 이끌어 인수의 지역에 오르게 하면, 풍속이 어찌 주나라 성왕과 강왕 때의 태평 시절 같지 않겠으며 수명이 어찌 은나라 고종 때와 같지 않겠습니까.[述舊禮明王制, 驅一世之民, 躋之仁壽之域, 則俗何以不若成康, 壽何以不若高宗.]" 하였다.

755) 당우(唐虞) : 당요(唐堯)와 우순(虞舜) 시대로, 곧 요순(堯舜) 시대로 태평성대를 말한다.

시대이니 훌륭하도다! 아름다운 징조가 모두 이르고, 예악은 상주(商周)[756]의 시대이니 찬란하도다! 좋은 상서가 다투어 오리라.

강구(康衢)의 연월(烟月)[757]을 구가하니 어찌 방패와 창이 햇빛에 번쩍거릴 날[758]이 있겠는가? 나라의 형세가 반석처럼 편안할 것이니 이 무궁한 즐거움을 헤아린다면 《주역》에서 이른 바 '이견대인(利見大人)'의 공효가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아! 현룡(見龍)의 재주를 가지고 대인(大人)을 만나봄이 이로운 자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솥을 지던 이윤(伊尹)이 성탕(成湯)을 찾아갔으니[759] 성탕은 600년 푸른 역사를 수립하였고, 칼을 두드리던 태공(太公)이 주 문왕(周文王)을 받들었으니[760] 주 문왕은 800년 희업(姬業)[761]을 이었도다. 백리(百里)는 자신을 팔았고[762] 영자(寗子)는 소를 먹이다가[763] 진(秦)나라에서 제(齊)나라에서 이룬 공업을 상상할 수 있을

---

756) 상주(商周) : 상주는 상(殷)나라와 주(周)나라 시대로, 예악이 정비된 때를 말한다.

757) 강구(康衢)의 연월(烟月) : 강구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사통팔달의 큰길을 이르고, 연월은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추는 모습으로 태평성대의 평화로운 풍경을 말한다.

758) 방패와……날 : 전란(戰亂)을 말한다.

759) 솥을……찾아갔으니 : 불우했던 인물이 성군을 만났다는 뜻이다. 《사기(史記)》 〈은본기(殷本紀)〉에 "이윤은 이름은 아형이다. 아형이 탕을 만나고자 했으나 길이 없자 유신씨의 잉신이 되어 솥과 도마를 짊어지고 맛난 음식으로 탕에게 유세하여 왕도를 이루었다.[伊尹名阿衡. 阿衡欲奸湯而無由, 乃爲有莘氏媵臣, 負鼎俎以滋味說湯, 致于王道.]"라고 하였다. '이윤(伊尹)'은 상(商)나라를 건국한 탕왕(湯王)의 대신이다. '성탕(成湯)'은 탕왕을 말한다.

760) 칼을……받들었으니 : 비천한 일을 하다 성군을 만났다는 뜻이다. 《초사(楚辭)》 〈이소(離騷)〉에 "여망이 푸줏간에서 칼을 두드리다 주 문왕을 만나 등용되었네.[呂望之鼓刀兮, 遭周文而得擧.]" 하였다.

761) 희업(姬業) : 희성(姬姓)이 왕이 된 주(周)나라의 왕업을 가리킨다.

762) 백리(百里)는 자신을 팔았고 : '백리'는 백리해(百里奚)이며, '자육(自鬻)'은 자신의 재능을 파는 것이다. 《맹자》 〈만장 상(萬章上)〉에 "백리해(百里奚)가 진(秦)나라의 희생을 기르는 자에게 양가죽 다섯 장을 받고 자신을 팔아 그곳에서 소를 먹였다.[百里奚自鬻於秦養牲者五羊之皮, 食牛.]"라고 하였다.

763) 영자(寗子)는 소를 먹이다가 : '영자(寗子)'는 영척(甯戚)이며, '반우(飯牛)'는 소를 먹인다는 뜻인데, 춘추 시대 위(衛)나라 영척이 미천했을 때, 제(齊)나라에 들어가 남의 소를 먹이면서 제 환공의 행차를 바라보고는 쇠뿔을 두드리며 노래하자, 환공이 듣고 그를 현자로 여겨 등용했다. 《呂氏春秋 擧難》

것이다. 그것이 '이견대인(利見大人)'의 공효이니 또 어찌 낱낱이 사례를 들겠는가?

옛일을 논하는 것이 무익하다면 이것은 접어두자. 해동(海東) 천년에 삼한(三韓)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성명(聖明)한 군주는 자궁(紫宮)에서 팔짱을 높이 끼고 있고[764] 현명한 인재들이 청괴(靑槐)[765]에 진열해 있었다. 그런데 다스림은 소강(小康)[766]에 지나지 않았고 때가 대도(大道)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원대한 계모와 큰 덕을 지닌 선비가 암혈(巖穴)에 능력을 숨기고 종적을 감추는데, 위에서는 불러주는 군주가 없고 아래에서는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 재능을 펴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현자를 구하는 정성이 미진하여 그러한 것이고, 제회(際會)[767]의 기약이 막연하여 그러한 것이다. 내가 어찌하여 오늘날에 '이견(利見)'이 되지 않고 있음을 의심하는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성은 모(某), 이름은 모(某)이다. 그의 거처는 강호(江湖)이다. 나의 남은 뜻은 이와 같다. 삼가 의(義)를 쓴다.

---

764) 자궁(紫宮)에서……있고 : 자궁(紫宮)은 제왕의 거처로 궁궐을 말한다. '고공(高拱)'은 성군이 팔짱을 낀 채 아무 하는 일이 없이도 천하를 크게 다스린다는 뜻이다.

765) 청괴(靑槐) : 조정(朝廷)을 비유한 것이다. 《주례(周禮)》 〈추관 조사(秋官 朝士)〉에 "세 그루의 회화나무를 마주 대하는 곳이 삼공의 자리이다.[面三槐, 三公位焉.]"라고 하였다.

766) 소강(小康) : 조금 편안한 세상이라는 뜻이다. 《예기》 〈예운(禮運)〉에 의하면, 유가(儒家)에서 이상(理想)으로 삼는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세상이다.

767) 제회(際會) : 풍운제회(風雲際會)의 준말로, 임금과 신하가 의기투합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 〈건괘(乾卦) 문언(文言)〉에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좇는다.[雲從龍, 風從虎.]"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南圃集

남포집

제 14 권

卷之十四

남교일기 상
南郊日記 上

【기축년(1649, 인조27)부터 경인년(1650, 효종1)까지, 또 기해년(1659, 효종10)부터 을사년(1665, 현종6)까지이다.】

[기축년(1649, 인조27)]

■ 기축년 7월 19일 병자(丙子)

은명(恩命)을 받아 서울로 가기 위해 출발하였다. 이는 국상이 있어[768] 감히 물러나 있지 못하고 장차 분곡(奔哭)[769]한 다음 숙배(肅拜)하려고 하였으므로 병든 몸을 추슬러 출발한 것이다.

■ 8월 5일 임진(壬辰)

새벽에 막소(幕所)에 나아갔다. 날이 밝을 무렵 궐문으로 들어가 분곡례(奔哭禮)를 행하여 사배(四拜)하고 빈청(賓廳)에서 쉬었다. 해가 높이 떠 진시(辰時)가 되자 숙배례(肅拜禮)를 행하였다. 저녁에 병세가 심하여 순장(旬狀)[770]을 병조에 올렸다. 참판 임담(林墰), 밀양(密陽)의 나위소(羅緯素)가 모두 나에게 서울에 머물라는 뜻으로 권유하였다. 내가 답하기를 "신하로서 군주를 섬기고 싶지만 병이 깊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6일에 좌랑(佐郎) 권시(權諰)가 편지를 보내 묻고 대답하였는데, 이때 이 사람이 일사(逸士)로서 특명에 의해 불려왔지만 또한 병으로 순장을 올렸습니다."라고 하였다.

오시(五時)에 김징(金澄)이 또 좌랑 권시의 말을 나에게 고하기를 "국장(國葬)이 임박하였으니 어찌 교송례(郊送禮)를 행하지 않고 물러나겠습니까."

768) 국상이 있어 : 기축년(1649) 5월 인조가 승하하였다.

769) 분곡(奔哭) : 임금이나 부모의 부음(訃音)을 듣고 달려가는 것을 말한다.

770) 순장(旬狀) : 사직을 청원하는 문서를 말한다. 각 관아의 낭관이 사임을 원할 때는 열흘에 한 번씩 세 번 계속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병이 깊지 않으면 어찌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겠습니까. 지난날 명종(明宗)의 국상을 치를 적에 퇴계(退溪) 이 선생(李先生)은 지위가 재신(宰臣)의 반열에 있었지만 국장을 치르기 전에 몸을 추슬러 지레 물러났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는지 비록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필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제가 비록 감히 비길 수 없지만 이처럼 병이 위독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이미 굳혔으므로 억지로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 11월 4일

김중호(金仲浩) 군이 학문하는 방법과 기질의 병통에 대해서 묻기에 답하기를 “그대는 자품이 온유하고 기상이 안온하니 그 덕을 향상시키는 공부에 대해 굳이 비루한 나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엄하고 온후한 사람은 혹 과단성 있고 용맹하게 나아가는 공부가 부족하기도 하다. 자양(紫陽 주희(朱熹)) 선생이 일찍이 ‘외(畏)’ 자로 ‘경(敬)’ 자를 풀이하였는데,[771] 주일(主一)[772]하는 방법은 이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근래 대략 그 방법을 터득하였으니, 이 마음을 다잡고 흐트러트리지 않아 해이하고 나태한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모두 이 ‘외(畏)’ 자의 힘이다.……”라고 하였다.

■ 12월 26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땅에 화기(和氣)가 많아 동산의 송죽(松竹)이 더욱 맑고 그윽하였다. 울타리의 닭도 울지 않고 마을의 개도 짖지 않아 세속의

---

771) 자양(紫陽)……풀이하였는데 : 《심경(心經)》에 《주역》의 ‘경이직내(敬以直內)’를 논한 부분의 부주(附註)에 면재 황씨(勉齋黃氏)가 말하기를 “경을 주일무적이라고 한 것은 정자의 말씀이다. 그러나 스승인 주자께서 또 ‘경’이라는 글자는 오직 두려워함이 가장 가깝다고 하셨으니, ‘경’이란 이 마음이 숙연하여 두려워하는 바가 있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敬者主一無適之謂, 程子語也. 然師說又以敬字惟畏爲近之, 蓋敬者, 此心肅然, 有所畏之名.]”라고 하였다.

772) 주일(主一) : 성리학의 핵심 개념 가운데 ‘경(敬)’을 말한다. 정이(程頤)는 “마음을 전일하게 가지는 것이 ‘경’이고 이리저리 옮기지 않는 것이 일이다.[主一之謂敬, 無適之謂一.]”라고 하였다. 《近思錄 권4 存養》

번뇌와 더러운 누가 전혀 없고 확연히 천고(千古)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마음이 들었다. 창문은 밝고 깨끗하며, 책상은 정결하여 두서너 동자(童子)와 시서(詩書)를 담론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어서 뒷동산으로 나가 솔숲 가 대숲 길을 왕래하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왔다. 어린아이에게 막걸리 한 잔을 따르게 하고 파하였다.

[경인년(1650, 효종1)]

■ 경인년 4월 1일

호사(胡使 청나라 사신)가 와서 혼인을 청하여 나라에서 금림군(錦林君 이개윤(李愷胤))의 딸[773]을 시집보내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또 듣건대 호사가 영의정 이경석(李景奭), 대제학 조경(趙絅)을 백마산성(白馬山城)에 안치(安置)하였다고 하였다.[774] 나랏일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하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 9월 23일

기력이 달리고 정신이 피곤하여 안석에 기대 누워서 조카 김이상(金履相)에게 양손을 주무르게 하였다. 이어서 내 얼굴의 점을 속으로 헤아려 보니 32개였다. 내가 또 김이상의 얼굴에 난 점을 손으로 세어 보니 또한 32개였다. 마침내 기이하여 기록하였다. 대개 팔괘(八卦)가 세 번 변하면 그 수가 32이니, 어쩌면 감응한 것인가.

---

773) 금림군(錦林君)의 딸 : 의순공주(義順公主)이다. 청나라 구왕(九王)이 우리나라와 혼인하기를 원하였으므로 조정에서 이개윤(李愷胤)의 딸을 공주로 봉하여 보냈는데, 1650년에 청나라로 갔다가 1656년에 돌아왔고, 1662년에 죽었다.

774) 호사가……하였다 : 백마산성(白馬山城)은 평안북도 피현군 백마산 고지에 있는 고구려 시대의 산성이다. 북쪽으로는 의주, 남쪽으로는 용천군(龍川郡)과 피현군 일대를 굽어볼 수 있어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효종 초년에는 김자점(金自點)의 밀고로 북벌 계획이 탄로 나고 척화신을 처벌하라는 청나라의 요구가 거세지자 조경(趙絅, 1586~1669)과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을 이곳에 안치하였다.

■ 10월 1일 신사(辛巳)

일식이 있었다. 이날 듣건대, 나라에서 사대부 집안의 딸을 찾아내어 호청(胡淸)과 혼인하게 하였다고 한다. 수령이 사대부 집안 첩의 소생을 시집보내기로 하여 한밤중에 군졸을 풀어 갑자기 들이닥쳐 잡아가니 곡소리가 마을에 가득하였다. 나랏일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어찌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 윤(閏)11월 19일

한가로운 가운데 퇴계(退溪) 선생이 지은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의 행장(行狀)을 읽었다. '맹자(孔孟), 정자(程子), 주자(朱子)의 덕과 재주'라는 구절[775]에 이르러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과연 이와 같다면 사도(斯道)에 큰 뜻을 둔 선비가 모두 훌륭한 글을 후세에 남기는 정도에서 그칠 따름이란 말인가. 슬프고 슬프다. 이 행장을 읽고 정암이 후세에 남긴 글을 자세히 살펴보니, 포용하고 공손하여 모난 면을 드러내지 않고 혼연히 중화(中和)의 기상이 있으니, 참으로 덕이 있는 사람의 말이다. 근세에 말을 잘하는 선비 중에는 눈썹을 치켜세우고 큰소리만 치는 자가 종종 있으니 어찌 정암의 경지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기해년(1659, 현종 즉위년)]

■ 기해년(1659, 현종 즉위년) 5월 4일

효종현인대왕(孝宗顯仁大王)이 승하(昇遐)하였다.

■ 5월 7일

부음(訃音)이 이르자 즉시 본읍(本邑)의 객관(客館)으로 들어가 곡하였다. 부음을 들은 지 6일 째에 성복(成服)하였다.

---

775) 맹자(孔孟)……구절 : 《退溪集 》권48 <정암선생행장(靜庵先生行狀)>의 "공자, 맹자, 정자, 주자의 덕(德)과 재주를 써서 왕도(王道)를 일으키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울 텐데도 결국에 성취된 것은 교훈을 세워서 후세에 남기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夫以孔孟程朱之德之才, 用之而興王道, 猶反掌也. 而其終之所就, 不過曰立言垂後而止耳.]"라는 구절을 가리킨다.

■ 10월 25일

궐문(闕門)에서 분곡(奔哭)하였다.

■ 10월 28일

발인(發引)하였다. 다음 날 하관을 거행하였다.

■ 11월 1일

동작진(銅雀津)을 건넜다. 밤에 과천(果川) 삼곡(三谷)에 투숙하였다. 듣건대, 지평 희중(希仲) 윤휴(尹鑴)가 와서 이웃 마을에 머문다고 하였다. 그의 훌륭한 명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보지 못했으므로 찾아갔다. 진사 신경윤(愼慶胤)도 함께 와 있었다. 희중은 특지(特旨)로 지평에 제수되었는데 선친의 묘소를 이장하는 일로 세 번 상소하여 체차되기를 청하고 좋은 묏자리를 잡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고 한다. 잠시 담소를 나눈 뒤에 희중과 마을 뒷산에 올라 경기의 산천을 바라보았다. 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물녘에 헤어졌다.

■ 11월 26일

내가 서용되어 군직(軍職)이 회복되었다고 한다. 성상의 은혜가 이에 이르렀으니 황송하고 감격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 12월 2일

남평(南平) 수령이 조보(朝報)를 보내왔다. 그 가운데 "11월 1일에 상이 '이번 발인(發靷) 때 지방에 있는 이전에 벼슬한 관리 가운데 와서 모인 자를 일일이 서계(書啓)하도록 승정원에 분부하라.'라고 전교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 12월 5일

승정원이 계달(啓達)하니, 전교하기를 "이 서계(書啓) 가운데 학업과 학행(學行)이 있는 사람은 좌참찬 송시열(宋時烈)과 이조 판서 송준길(宋浚吉)

에게 물어 뽑아서 아뢰라.”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때 좌참찬이 어떤 사유로 인혐하여 즉시 뽑아서 아뢰지 못하였다.

■ 12월 7일

전교하기를 “우참찬은 병으로 즉시 서계(書啓)하지 않았으니 시기를 놓치는 것이 염려스럽다. 이조 판서의 서계를 먼저 써서 들이도록 분부하라.” 라고 하였다.

■ 12월 8일

이조 판서 송준길(宋浚吉), 참판 이일상(李一相), 참의 조복양(趙復陽)이 아뢰기를 “전 교리 이수인(李壽仁)은 시종신으로 명리(名利)를 추구하지 않고 사직하여 지조를 지키니 세상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사업(司業) 윤선거(尹宣擧)와 사업 윤원거(尹元擧)는 모두 실직(實職)이 있으므로 비록 원래 단자(單子)에 있던 이전 직함의 인원수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776] 일찍이 탑전(榻前)에서 다 갖추어 진달하였습니다. 전 좌랑 신석번(申碩蕃), 전 좌랑 최휘지(崔徽之)는 일찍이 선조(先朝)에서 곧장 6품으로 올렸습니다. 전 자의(諮議) 이상(李翔), 전 자의 송기후(宋基厚)는 일찍이 이미 강관의 직임에 제수되었습니다. 전 세마(洗馬) 김만영(金萬英)은 일찍이 자의에 의망된 적이 있고, 신석번(申碩蕃), 이상(李翔)은 더욱 뛰어난 사람입니다.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여기에서 뽑아 아뢴 사람은 다음번에 비록 결원이 없더라도 아울러 모두 부직(付職)하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12월 9일

이조가 아뢰기를 “전교가 내렸습니다. 참상(參上)은 현재 실제로 결원이 있으니 즉시 의망하고, 참하(參下)는 궐원이 없는 곳은 우선 송서(送西)하여 주의(注擬 의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

776) 비록……않았지만 : 원문은 ‘雖不出於元單子前御之數’인데, 문맥을 살펴 ‘御’를 ‘銜’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대로하라.”라고 하였다. 이날 신석번(申碩蕃)은 사복시 주부에, 최휘지(崔徽之)는 활인서 별제에 제수되고, 이상(李翔)은 사직(司直)에, 송기후(宋基厚)는 사정(司正)에, 김만영(金萬英)은 사용(司勇)에 부직하였다고 한다. 성상께서 선비를 좋아하는 지극한 뜻을 숭상할 만하다. 다만 중전(中殿)께서 공주를 낳았다고 하니, 온 나라 신민들의 실망스러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 12월 11일

어떤 사람이 패랭이를 쓰고 짚신을 신고 포의(布衣) 차림으로 와서 당상(堂上)에서 배알하였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그 이름을 물으니, 김구성(金九成)이라고 하였다. 유학(儒學)에 대해서 말하니 대략 대의가 통하였다. 음양술학(陰陽術學)과 자미지수(紫微之數)[777]를 언급하였는데, 모두 그 뜻을 통달하였다. 거처하는 곳을 물으니, 본래 서울 사람인데 무장현(茂長縣) 해안에 우거한다고 하였다.

[경자년(1660, 현종1)]

■ 경자년(1660, 현종1) 2월 6일 소양(少陽)

퇴계(退溪)와 고봉(高峯)이 주고받은 편지 몇 편을 읽고 개연(慨然)히 옛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대개 학자는 의리와 출처 사이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편지를 주고받으며 논변하여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바로 심문(審問), 명변(明辨)하는 우리 유가의 학문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근세에 세도(世道)가 사익만 추구하고 선비들은 사당(私黨)에 아부하니 편지를 주고받으며 심문하고 명변한 것을 지적하여 서로 공격하며 칼자루를 잡고 노려보지 않는 자가 드물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학통을 전수한 것을 탄복하여 여기에 기록한다.

---

777) 자미지수(紫微之數) : 점술에 관한 용어이다. 자미(紫微)는 별의 이름으로, 제왕에 해당하는 성좌(星座)이다.

■ 2월 20일 대양(大陽)

종제(從弟) 서봉명(徐鳳鳴)이 우계(牛溪), 율곡(栗谷)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는 소[請從享文廟疏]> 2도(度)을 소매 속에서 꺼내 보여 주었다. 대개 호남(湖南) 유생들이 진청(陳請)하는 것으로, 하나는 전 직강(直講) 이기발(李起浡)이 지었고, 하나는 전 현감 최유지(崔猷之)가 지었다. 결국 최유지가 지은 것을 올렸다고 한다. 직강 이기발은 바로 일사(逸士) 이흥발(李興浡)의 아우이니, 명리(名利)를 추구하지 않고 벼슬에서 물러난 것으로 이름이 드러났다. 최유지는 고 승지 최온(崔蘊)[778]의 양자이다. 승지는 학행(學行)으로 세상에 이름이 드러났다. 최유지는 현재 승지의 거상 중에 있다.

■ 3월 12일 소양(少陽)

이문석(李文碩)이 와서 수학하였다. 이문석 군이 스스로 말하기를 "저는 바로 치재(恥齋) 홍인우(洪仁祐) 공의 외증손입니다. 공께서는 고행하며 학문에 힘쓰시다 거상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부인(內夫人)께서 뵙기를 청하였지만 공께서는 허락하지 않고 돌아가셨으니, 이는 거상 중에 부녀를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옛사람이 행실을 절제하는 엄정함과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삼가는 태도가 이와 같았다.

■ 4월 3일 소양(少陽)

이문석(李文碩)이 와서 수학하였다. 이문석 군이 전하기를 "부친이신 사군(使君)께서 서울에서 와서 말씀하기를 '주상(主上)께서 근래 안질을 알아 증세가 매우 나빠 사물을 보지 못하시니 대신과 경상(卿相) 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청평위(靑平尉) 심익현(沈益顯)이 편전(便殿)으로 들어가 절하였는데 상께서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시자 여론이 애태우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의관 윤후익(尹後益)이 세 차례 침을 놓자 불현듯 나았다고 하니, 신민의 기쁨과 경사가 지극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

778) 최온(崔蘊) : 1583~1659. 본관은 삭녕(朔寧), 자는 휘숙(輝淑), 호는 폄재(砭齋)이다. 남원 출신이다.

또 말씀하기를 '장령 허목(許穆)이 상소하여[779] 「대왕대비는 선왕에 대해서 이미 적손(嫡孫)이 승중(承重)한 것이 되니 마땅히 참최(斬衰) 삼년복을 입어야 하는데 지금 기년복(朞年服)을 입는 것은 예가 아니다. 주공(周公)의 제도로 말하면 기년의 상은 제후에게는 없으니 대왕대비가 기년복을 입는 것은 더욱 예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상서(尙書) 송준길(宋浚吉)이 상소하여 허목이 잘못되었다고 논변하였지만 비답이 오래도록 내리지 않아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대개 국상 초기에 송시열과 송준길이 '선왕이 비록 양자로 들어가 중통(重統)을 이었지만 세적(世適)이 아니고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상에 대왕대비가 이미 삼년상의 복을 입었으니, 예에는 적자(適子)가 둘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지금 다시 참최(斬衰)를 입는 것으로 거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왕대비는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780]

■ 5월 4일 대음(大陰)

4경(更) 초점(初點)에 객관으로 들어갔다. 태수(太守) 및 참봉 서행(徐荇)과 관아의 뜰에 모여서 곡하였다. 이날 전 참의 윤선도(尹善道)가 대왕대비의 복제(服制)를 논하였는데 언관이 그 죄를 쟁론하여 율문에 따라 처분하기를 청하였다고 한다. 예조에서 해당 관부에 공문을 보내 "소상(小祥) 뒤에 조정의 사대부는 연포(練布)로 사모(紗帽)를 싸고, 이어서 대(帶)를 띠고 이어서 최복(衰服)을 입으며, 문신과 무신 당상의 아내는 길복(吉服)을 입는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또다시 공문을 보내 "사대부의 정복(正服)은 칠승(七升)의 생포(生布)로 단령의(團領衣)를 만들고 의대(衣帶)는 숙마(熟麻)로 착용하라.……"라고 하였다.

---

779) 허목(許穆)이 상소하여 : 1659년 효종(孝宗)이 승하하자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服喪) 문제를 두고 허목 등의 남인이 삼년복설(三年服說)을 주장하며 올린 상소를 이른다.

780) 대개……것이다 : 1659년 효종이 승하한 뒤에 기해예송(己亥禮訟)이 발생하였다. 효종의 국상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 즉 조 대비가 입을 상복을 두고 송시열과 송준길 등 서인은 기년복을 주장했다. 효종이 차남인 데다 장남인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사망했을 때 조 대비가 이미 장자(長子)에 해당하는 상복인 삼년복을 입었으므로 기년복이 타당하다는 논리였다. 이에 허목, 윤휴 등 남인은, 효종이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조 대비가 삼년복을 입는 것이 옳다고 맞섰다.

능주(綾州)의 좌수(座首) 이위(李魏)가 61세로 이번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호창(呼唱)하는 4인을 거느리고 피리를 불고 고을 거리로 들어갔다고 한다. 목사 이성징(李聖徵)이 호창하는 4인을 잡아 옥에 가두고 말하기를 “나라에 국상이 나서 아직 연제(練祭)도 지내기 전인데 풍악을 울리며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편안한가?”라고 하니, 이위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며 돌아갔다고 하였다. 듣고는 한 번 웃을 만하였다. 시류와 관련 있으므로 기록한다.

■ 5월 24일 대양(大陽)

정승 연양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이 졸하였다고 한다. 공은 바로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의 장자이니, 거의공신(擧義功臣)[781]으로 인조(仁祖)를 섬기고 세 조정에서 벼슬하여 지위가 정승의 반열에 올랐지만 살림살이가 청빈하여 일개 한사(寒士)와 같았다고 한다.

■ 5월 25일 대음(大陰)

송준길(宋浚吉)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대개 전 참의 윤선도(尹善道)가 올린 상소에 비난하는 말이 있었는데, 상소가 올라가자 즉시 물러났고 윤선도도 삼수(三水)에 안치(安置)되었다고 한다.

한성부 좌윤 권시(權諰)가 조정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대개 윤선도의 상소가 올라가자 양사(兩司)에서 서로 소장을 올려 처벌하기를 청하니, 권공도 차자를 올려 윤선도를 감언지사(敢言之士)라고 논변하였는데, 양사가 인혐하였으므로 권공도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 8월 28일 신해(辛亥) 대양(大陽)

이문석(李文碩)이 서울에서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묻고, 또 장령 허목(許穆)이 올린 <의례상복도(儀禮喪服圖)>를 보냈다.

---

781) 거의공신(擧義功臣) :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을 말한다. 정사공신(靖社功臣)이라고도 부른다.

■ 11월 23일 소양(少陽)

장령 허목(許穆)이 외직인 삼척 부사(三陟府使)에 제수되자 식자들이 애석하게 여겼다고 한다.

■ 12월 16일 대음(大陰)

이날 저물도록 정좌(靜坐)하니 마음과 기운이 화평하였다. 밤이 되어서 자질구레한 일로 화가 치밀어 올라 한밤중까지 심기가 불편하였는데 억지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억제하자 편안해졌다. 이어서 생각해 보니, 몸의 지나친 행동은 마음의 지나침으로 말미암고, 마음의 지나침은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으로 말미암는다. 형기의 사사로움은 모두 귀로는 좋은 음악을 듣고자 하고, 눈으로는 여색을 탐하고자 하고, 입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고, 사지는 편안하고자 하고, 물욕은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에서 나온다. 다섯 가지 천성적인 욕심[782]은 외물에 감응하여 마음에 동하고, 마음에서 생겨 일에 드러난다. 하루 동안 마음이 고요한 때는 적고 동요하는 때는 많으니, 이 마음이 어떻게 그 바름을 얻겠는가. 나는 매일 자시(子時)부터 오시(午時)까지, 오시부터 자시까지 이 마음을 점검하여 밖으로 달아나지 않게 한다. 하지만 이따금 잠깐 사이에 갑자기 정욕(情慾)에 끌려가니 일이 지난 뒤에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진다. 내 기질의 병통은 늘 나약함에 있으니, 아는 것은 혹 민첩하지만 지킴이 굳건하지 못하여 낭패하는 근심이 있기까지 하는 것이 매양 이와 같다. 하루 동안 심지(心志)가 발현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고 자기만 홀로 아는 것이니, 마음의 선악을 붓 가는 대로 기록하여 경계하고 반성하는 자료로 삼는다.

■ 12월 17일 무술(戊戌) 대음(大陰)

일찍 일어나 고요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못을 반성하니 부끄러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생각건대, 아침에-원문 1, 2자 결락-얼굴을 씻었다. 이어서 스스로 생각하니, 사람이 날마다 세수하는 것은 얼굴에

782) 다섯……욕심 : 원문은 '五音之欲'인데, 문맥을 살펴 '音'을 '性'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때가 끼었을까 두려워해서이다. 이 마음을 옮겨서 날마다 짐짓 마음에 때가 끼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얼굴의 때는 사람들이 반드시 보고 마음의 때는 신이 틀림없이 안다. 더구나 마음속에 싹트는 것은 반드시 일에 드러나게 마련이니 사람도 끝내 속일 수 없다.

낮에 해가 창에 비쳤지만 한기가 여전히 매서웠다. 이어서 생각하기를, 겨울의 해나 여름의 해나 같은 해인데, 한기와 열기가 확연하게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계절의 기운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어서 생각건대, 사람의 본성은 지극한 선을 함께 타고 났지만 현명함과 어리석음의 다름이 있는 것은 기질이 그렇게 한 것이다. 배우는 자는 마땅히 기질에 대해서 공부해야 한다. 기질이 준수한 자는 대체로 자잘한 일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 많고, 기질이 용렬한 자는 두려워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잘못이 적다. 내가 준수한 기질을 타고나지 않았는데도 잘못이 많은 것은 대체로 혈기가 거친 데서 생기는 잘못이니, 경계할 줄 알아야 하므로 기록한다.

낮에 윤선삼(尹先三)이 와서 수학하였다. 책 한 줄을 읽는데 음을 세 번이나 잘못 읽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마음이 경(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흩어졌는데도 거두어들이지 못하므로 마음과 입이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심경(心經)》을 보았는데 <극기복례장(克己復禮章)>에 이르러 스스로 해석하기를 “예를 회복하는 곳이 어떻게 인(仁)이 되는가? 인이라는 것은 곧 천리(天理)이니, 자신의 사욕을 이기면 곧 천리이므로 예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 그러므로 ‘예의(禮儀) 300가지와 위의(威儀) 3000가지 가운데 한 가지 물건도 인이 아닌 것이 없다’[783]고 한 것이다.” 하였다.

이날 오전에 불편했던 심기는 오후가 되자 마음이 화평하고 기운이 편안해졌다.

---

783) 예의(禮儀)……없다 : 《근사록》 〈도체(道體)〉에서 장재(張載)가 “하늘이 사물의 본체가 되어 빠뜨리지 않음은 인이 일의 본체가 되어 있지 않은 데가 없는 것과 같다. 예의 300 가지와 위의 3000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물건도 인 아닌 것이 없다.[天體物不遺, 猶仁體事而無不在也. 禮儀三百威儀三千, 無一物之非仁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12월 18일 기해(己亥) 소음(少陰)

새벽 이후가 되어서야 심기가 조금 편안해졌으니, 야기(夜氣)[784]를 잘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인은 동짓날에 관문(關門)을 닫는 것[785]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축년(1661, 현종2)]

■ 신축년 1월 9일 기미(己未) 소양(少陽)

윤보(尹保) 씨 형제가 사는 봉산(蓬山)의 산실(山室)을 방문하였다. 윤공(尹公)과 형 윤경(尹儆)이 선영(先塋) 부근에 집을 지었는데 형제가 처자식을 데리고 터를 잡아 한 집에서 서로를 대하고 마음껏 즐기며 동문(洞門)을 나가지 않은 지 지금 10여 년이고, 나이도 70세이다. 두 사람이 비록 옛날 성현(聖賢)을 배워 실천하는 선비는 아니더라도 지행(志行)의 고상함은 숭상할 만한 점이 있다. 내가 방문하니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다. 산의 흥취가 자못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점이 있었다.

■ 1월 11일 신유(辛酉) 소양(少陽)

수령을 찾아갔다. 수령이 술자리를 마련하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였다. 상이 재해를 입은 해읍(海邑) 백성들의 올해 전세(田稅)을 감면해 주어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고, 산읍(山邑)은 상세포(上細布), 기인목(其人木),[786] 방물(方物) 등의 부세를 감면해 주었다고 한다. 남평(南平)은 비록 산읍에

784) 야기(夜氣) : 한밤중의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밤중에 고요히 생각할 적에 생겨나는 양지(良知)와 선념(善念)을 말한다.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야기가 보존될 수 없으면 금수(禽獸)와의 거리가 멀지 않다.[夜氣不足以存, 則其違禽獸不遠矣.]" 하였다.

785) 성인은……것 : 《주역(周易)》 〈복괘(復卦) 상(象)〉에 "우레가 땅속에 있는 형상이 복괘이니, 선왕이 보고서 동짓날에 관문을 닫아 장사꾼과 여행자가 다니지 못하게 하며 임금 자신은 사방을 순시하지 않는다.[雷在地中, 復先王以, 至日閉關, 商旅不行, 后不省方.]"라고 하였다.

786) 기인목(其人木) : 기인(其人)이 바치는 무명을 이른다. 기인은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에 궁중과 관청에 숯과 땔감 등을 공물(貢物)로 바치던 공인(貢人)을 말한다. 《大典會通 工典 京役吏》

속하지만 재해는 해읍과 차이가 없었으므로 본도의 감사 김시진(金始振)이 해읍과 함께 거행하기를 별도로 계청하였는데, 상이 처리하라고 해당 조(曹)에 내리니 호조 판서 허적(許積)이 반대하는 내용으로 아뢰자, 백성들이 원망하였다고 한다.

이조 판서 송준길(宋浚吉)이 집에서 상소를 올려 사직을 청하니, 상이 체차(遞差)하라고 명하였다고 한다.

수령이 또 말하기를 "내가 부유한 백성의 곡식을 끌어 모아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났는데 별도로 담당 약정(約正)[787]의 무리가 관청의 명령을 빙자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사사로이 거두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징계하여, 바야흐로 곡식을 찾아내어 백성들을 구제하는 명을 혁파하고자 합니다."라고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부유한 백성의 재물을 거두어 나누어 주고, 죽음을 앞에 둔 백성을 구휼하는 것은 또한 이웃 마을이 서로 구제하는 의리입니다. 지금 약정이 지나친 짓을 한다고 하여 명령을 폐한다면 목이 멘다고 먹기를 그만두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곤궁하며, 군주가 어려 온 나라가 불안에 싸여 있고, 세신(世臣)이 연달아 죽으니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수령이 말하기를 "상께서 부세를 견감한 것은 백성을 위하여 돌보아 주는 방도가 지극합니다. 다만 16개 관사에 바치는 공물은 한 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막론하고 일정하여 더하고 빼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의 전결(田結)은 반 넘게 손실이 났지만 각 관사에 바치는 공물은 전례대로 감해 주지 않아 수령은 변통할 길이 없기에 굶주린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니, 근심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러한 일은 보고하여 변통하게 할 수 없습니까?"라고 하니, 말하기를 "감사가 비록 계청(啓請)하더라도 해당 관사에서 으레 반드시 반대하는 내용을 아뢰니,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전(田) 1결(結)당 미(米) 1말을 세금으로 거두고, 1년이 지나더라도 다른 역을 지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주(海州)에

787) 약정(約正) : 향약(鄕約)의 임원(任員)으로 도약정(都約正)과 부약정(副約正)이 있다.

그 고사가 있어, 율곡(栗谷)이 건의하여 전국에 시행하기를 청하였지만 끝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대동(大同)은 1결당 13말인데 또한 국가의 재용(財用)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하니, 수령이 말하기를 "세상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 2월 8일 무오(戊午) 바람이 차가웠다

낮에 담양(潭陽)에 사는 여익길(呂益吉)이 찾아왔다. 여익길이 말하기를 "담양에 사는 사인(士人) 유진석(柳震碩)은 미암(眉庵 유희춘(柳希春))의 증손입니다. 올해 나이가 20남짓인데, 고학(古學)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운암(雲巖) 이흥발(李興浡)이 은거한 곳에 집을 지어 글을 읽고 학문을 하며 산 어귀를 나오지 않은 지 지금 수년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들은 지 오래되었으니, 이 말로 인하여 기록한다.

■ 2월 27일 정미(丁未) 소양(少陽)

삼학재(三學齋) 유생들이 삼학재규의(三學齋規儀)를 써 주기를 청하니, 마침내 24조(條)를 지어서 주었다.【<경의설(經義說)>에 자세히 보인다.】

■ 2월 28일 무신(戊申) 소양(少陽)

나는 봄여름이 되면 으레 상기증(上氣症)을 앓곤 한다. 정신이 혼미하고 입이 마르고 몸이 피곤하며,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피로한 것 등 갖가지 좋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나니 매우 근심스럽다. 연전에 수양하는 요결(要訣) 1책을 정헌(靜軒) 고공(高公) 순후(循厚)의 옛 별장에서 구하여 그 비법을 시험하였는데, 올해는 기운이 자못 조금 편안하니 그 효과를 본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아침에 몸 상태를 살펴보고 이어서 질병을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기록한다.

정헌은 바로 나의 처 외조부 고순후(高循厚)이니,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의 셋 째 아들이다. 예학(禮學)에 정밀하였으며, 기상이 질박하고 고풍스러우며 행실이 단정하고 엄숙하니, 실로 옛날의 학자이다. 내가 젊어서 그 문하에 나아가 보고 느낀 것이 실로 많았다. 그런데 어느덧 20년이

지나 귀밑머리가 세려고 하고 병들어 쓸모없고 게으른 습성 탓에 조그마한 성취도 전혀 없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도 모르게 긴 탄식이 나온다.

공은 관직이 형조 정랑에 이르렀다. 72세의 나이인 경진년(1620, 인조18) 2월 10에 졸하였다.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가난해도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치관(緇冠)에 거친 삼베옷 차림으로 보리밥을 먹고 초가집에 살며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지만 즐거워하며 근심하지 않았다. 조정의 신료가 앞 다투어 천거하여 여러 번 관직이 내렸지만 끝내 출사하지 않았다.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분연히 의병을 일으켜 왕실을 위해 힘을 다하려는 뜻을 품고 사인(士人) 안방준(安邦俊), 조평(趙坪) 등과 의병을 모집하여 바야흐로 나라의 환란에 달려가 순절하고자 하였으니, 사의(辭義)가 늠름하여 범할 수 없는 기상이 있었다. 이윽고 난리가 평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군사를 해산하고 돌아와 종신토록 편안하고 고요하게 지내며 말소리와 얼굴빛에 동요가 없어 도를 지키다가 죽었다. 아, 도가 있는 선비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궁벽한 곳에 깊숙이 거처하며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으니, 세상에 그의 지조를 아는 자가 없어 죽은 뒤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한탄스럽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감개가 일어 여기에 기록한다.

■ 2월 29일 기유(己酉) 대음(大陰)

고요히 앉아 종일 책을 보다가 사람의 병통은 모두 기질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 기(氣)의 죄과를 굴복시켜 탁한 기를 맑게 하고, 치우친 기를 바르게 하며, 들뜬 기를 고요하게 하고, 급한 기를 느리게 하며, 게으른 기를 부지런하게 하여 치우친 바에 따라 한결같이 중도에 알맞게 한다면 기가 중도에 알맞아 성(性)이 자연히 그 중도를 회복할 것이다. 내 기질의 병통은 매양 혼미하고 유약하며 게으르고 혼탁함에서 생기는데, 또 세밀하지 않고 거칠어서 혹 화락하면 나쁜 곳으로 빠지기 쉽고, 조급하면 난폭해지기 쉽다. 양부(兩斧)[788]의 해로 말하면 또한 온갖 상념이 일어남을

---

788) 양부(兩斧) : 주색(酒色)을 가리킨다. 술은 창자를 가르는 도끼이고, 여색은 심성(心性)을 가르는 도끼이다.《宋子大全隨箚 권5 隨箚》

면하지 못한다. 지금 즐겨 마시던 술은 끊은 지 몇 년이 되었다. 여색을 멀리하라는 경계는 비록 매양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묵묵하게 공부하더라도[789]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일어나는 상념은 혹 마음에 싹트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모두 기에 부림을 당한 것이니, 이로부터 기어코 맹렬하게 반성하고 통렬하게 끊어야 한다. 인하여 여기에 기록한다.

오후부터 비가 내렸다. 술시(戌時)에 지진이 났다. 한밤중까지 비가 그치지 않았다. 봄에 비가 자주 오는 것은 농부들이 꺼리는 바이고, 지진의 변고는 《춘추(春秋)》에 기록된 것이니,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어찌 근심스럽지 않겠는가.

■ 3월 17일 병인(丙寅) 대음(大陰)

윤숙(尹俶)이 태수의 말을 전하기를 “이렇게 큰 기근을 당하였는데 16사(司)에 바치는 공물(貢物)은 조금도 견감해 주지 않습니다. 제용감(濟用監)의 정포(正布)를 현재 실어다 바쳐야 하는데 본현(本縣)은 재결(災結) 외에 남은 것이라곤 겨우 200부(夫) 뿐인데 평년에 바치는 공물의 원래 수량을 그대로 적용하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모두 고갈되어 마련해 낼 길이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정장(呈狀)으로 인하여 감사에게 전보(轉報)한 다음 입계(入啓)하여 우선 가을이 되면 실어다 바치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문구를 짓기 어려우니, 일전어(一轉語)[790]를 내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말단 관리라도 만물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둔다면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로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고통이 극도에 이르렀으니, 내가 어찌 감히 다른 말로 사양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정장의 글을 지어 보냈다. 감사 김시진(金始振)이 무등산(無等山)에 제사

---

789) 다른……하더라도 : 관녕이 어릴 적에 친구인 화흠(華歆)과 함께 채마밭을 매다가 황금을 발견하였는데, 관녕은 마치 돌을 본 듯 개의치 않으며 호미로 밀쳐 내고 밭을 맸으나, 화흠은 한번 집어 보고서야 내던졌다.《世說新語 德行》 어려서 화흠과 자리를 함께하여 글을 읽다가 화흠이 문밖에 지나가는 벼슬아치를 보러 나가자 관녕은 즉시 그와 자리를 나누어 앉았고 그 후로는 그를 친구로 여기지 않았다.

790) 일전어(一轉語) : 선가(禪家)에서 선승(禪僧)이 선기(禪機)를 드러내는 한마디 말로, 사람의 심기(心機)를 깨우치는 것을 가리킨다.

지내기 위해 광주(光州)에 왔다고 하는데, 민간에서 역병이 돌기 때문에 와서 제사 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 3월 18일 정묘(丁卯) 소음(少陰)

윤선기(尹先夔), 문만욱(文晩郁)이 찾아왔다. 능주(綾州) 사인(士人)과 본 고을 사인들이 웅점사(熊岾寺)에 모여 도내와 장흥(長興)에 통문을 돌렸다고 한다. 이는 장흥 사람 김광원(金光遠)[791]이 영천서원(靈川書院)에 배향되자 여론이 김광원을 비난하여 서원을 중수할 적에 그대로 위판(位板)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문치욱(文致郁), 이단(李漙) 등이 먼저 통문을 돌리자, 김광원의 자손도 생원(生員) 조덕길(曺德吉)에게 부탁하여 여러 고을에 통문을 돌려 위판을 훼손하는 것은 의리가 아님을 알렸다. 당시 배향하는 의론은 우산(牛山) 안방준(安邦俊)이 먼저 꺼냈으므로 우산의 자손들이 능주 사인에게 권면하여 통문을 돌려 원통함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내가 일찍이 그 중도를 잡아 논하기를 "김공의 출처와 언행은 내가 비록 전말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감히 함부로 의론하지 못하지만, 서원의 이름은 관계된 바가 매우 중하니 반드시 오도(吾道)에 공이 있고 사문(斯文)에 신망을 받아 한 나라의 종유(宗儒)가 되며 백대의 사표가 되어 사림이 흠모하고 공론이 일제히 일어난 뒤에 사당을 세워 영령을 모셔야 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도학의 선정(先正)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유림의 원기를 진작하여 백대에 전하여도 부끄러움이 없고 천하 사람들에게 성대하게 보여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한번 이름이 알려진 선비가 조금 엄격한 행실이 있다고 하여 그 자손과 친족들이 한 고을에 자리 잡고 살면서 갑자기 향사(享祀)하자는 의론을 내어 마침내 높다란 건물을 세운다. 아첨하여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거늘 온 세상이 모두 다 이와 같다. 저가 말하는 선유(先儒)가 비록 도덕은 진현(眞賢)에

791) 김광원(金光遠) 1478~1550). 본관은 영광(靈光), 자는 언명(彦明), 호는 월봉이다. 교리(校理) 김괴(金塊)의 아들이다.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이다. 1519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했으나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스승 조광조가 사사(賜死)되자, 장흥(長興) 월봉산(月峰山)에 들어가 학문에 전념했다. 1521년 신사무옥(辛巳誣獄)에 연루되어 영변(寧邊)에 유배되었고, 1533년 고향에 돌아와 후진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미치지 못하더라도 예의염치에 관한 생각은 필시 일반 사람보다 뛰어날 것이니, 행여 죽은 뒤에 지각이 있다면 어찌 마음에 부끄럽지 않겠으며, 어찌 예에 맞지 않는 제사를 흠향하겠는가. 더구나 풍속이 날로 나빠지고 사풍(士風)이 경박해져 봄가을로 제사 지내는 것을 향현(享賢)이라고 하면서 묘우(廟宇)에 모여 종일 실컷 마시고 신나게 떠들며 방자하기 그지없다. 이로 인하여 날마다 다투고 갑자기 원수가 되니, 말류의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세도(世道)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누가 만회하여 폐단을 깨끗이 씻어 버리겠는가. 슬프도다."라고 하였다.

저녁에 삼학재(三學齋)에서 묵었다. 생도 30여 인과 함께 묵었는데, 새벽닭이 처음 울 때 생도들이 일어나 강학하니 자못 인재를 기르는 즐거움이 있었다.

■ 3월 28일 정축(丁丑)

문 앞 및 대천(大泉), 소천(小泉), 음천(陰泉), 양천(陽泉) 가에 버드나무를 심었다. 그 일을 주관한 자는 을생(乙生)과 돌이(道乙伊) 두 어린 남자 종이다. 네 곳의 천(泉)과 언덕 가에 심은 것이 모두 30여 그루이다. 어느 때 녹음이 길에 우거져 원림(園林)에 은은히 비춰 내 대문을 보호하여 황홀하게 바람이 불고 달이 떠오르는 감흥이 있을지 모르겠다. 사람으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동하게 한다.

나는 젊어서부터 심하게 산수를 좋아하는 성벽(性癖)이 있었다. 하나의 산이나 돌, 원림이나 시내의 승경을 보면 날이 저물어도 돌아가는 것을 잊었다. 돌아온 지 몇 달이 되면 또한 어느새 마음이 끌리고 생각은 그곳에 있었다. 반평생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우환까지 겹쳐 아직 경치 좋은 곳을 얻어서 터를 잡고 살지 못하고 있으니, 아, 탄식할 만하다. 비록 그렇지만 교외의 전원은 또한 세상을 피해 은둔하는 몸을 숨기고 세상을 버린 마음을 깃들일 수 있다. 지금 새로 지은 집은 비록 산수의 승경은 없지만 교외의 들판과 냇물이 흐르는 시내를 잘 가꾸어 준다면 아마 달빛 아래 호미를 메고 돌아오는 흥취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전(民田)이 섞여 있어 구입할 만한 돈이 없고 풍속도 좋지 않다. 무성한 숲 높은 산을 늘 그리워하여,

새가 저녁이면 숲으로 돌아가듯 본능적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큰 은자(隱者)는 성시(城市)에 숨는 법이니,[792] 진실로 나의 지극한 즐거움이 있다면 참으로 얻는 묘미가 절로 있을 것이고 남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하지만 돈독하게 믿고 의심이 없는 경지로 말하면 저 산수도 일개 외물일 따름이니 어찌 그 속에 마음을 얽매이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침내 기록하여 스스로 경계한다.

■ 4월 9일 무자(戊子)

본 고을 수령이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대부분의 불공정한 것을 제거하였다고 한다. 올해의 기근은 전고에 없던 것으로, 관문(官門)에서 굶주림을 호소하는 자가 날마다 수백 명이었다. 관도(官道)를 메워 오열할 정도인지라 태수(太守)가 10일에 한번 창고의 문을 열어 구휼하기로 하였다. 관정(官庭)에 장막을 설치하고 죽을 끓여 주린 백성을 먹이니, 와서 먹는 주린 백성이 날마다 300여 명이었다. 미리 태장(太醬) 70여 단지를 마련하고 해채(海菜) 100여 섬을 사다가 국을 끓여 먹이니 주린 백성들이 매우 기뻐하였다. 또 양쪽 대로 가에 승려들로 하여금 장막을 설치하여 죽을 끓이게 하고 다른 고을에서 경내로 들어오는 유민(流民)을 진휼하여 살리니,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무수한 사람들이 운집하였다. 또 멀리 관문까지 오지 못하는 농민을 염려하여 직접 곡식을 싣고 가서 구휼하니 고을 백성들이 고을 원의 은혜에 대해 칭송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태수가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였으니, 태수는 바로 이정(李晸)이다.

■ 4월 11일 경인(庚寅)

하늘에 구름이 일어 가랑비가 내리려 하고 바람 한 점 없었다. 초목의 가지와 잎이 모두 메말라 하늘로 곧장 뻗어 마치 우로(雨露)의 은택을 받고

---

792) 큰……법이니 : 진(晉)나라 왕강거(王康琚)의 〈반초은시(反招隱詩)〉에 “작은 은자는 산림 속에 숨고, 큰 은자는 조시에 숨는 거라, 백이는 수양산에 숨었고, 노자는 주하사 벼슬에 숨었네.[小隱隱陵藪 大隱隱朝市 伯夷竄首陽 老聃伏柱史]” 하였다.

싫어 하는 듯하였다. 자세히 그 정경을 보니 사람으로 하여금 감발하는 뜻을 일으키게 하였다. 지각이 없는 식물이지만 또한 음양이 서로 만날 때 감응하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움직이고 지각이 있어 하늘에서 성명(性命)을 받은 존재야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이날 영춘재(迎春齋)에 앉아서 아이종에게 소양천(小陽泉)의 물을 길어오게 하여 솔잎을 타서 한 그릇을 마시자 정신이 나고 자못 상쾌해졌다. 나는 평소 병이 많아 방서(方書)를 탐구하여 음식을 조절하고 약물(藥物)을 복용하며 정신을 수양하였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솔잎을 복용하는 법을 익혀 복용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오늘 흥취가 있음을 깨달았다. 인하여 여기에 기록한다.

이날 빈 재실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적막하였다. 봄새들은 지저귀며 처마를 따라 둥지를 찾느라 기둥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앞산 언덕에는 나물 캐고 소 치는 아이들이 단가를 부르고 경쾌하게 웃으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농부와 촌로는 소를 끌거나 호미를 메고 들밭과 수풀 사이를 찾아가니, 이 사이에 실로 참뜻이 있었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저절로 감흥이 일어났다. 인하여 일어나 냇가를 소요하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오니 빈집은 적막하였다. 봄날 낮에 몇 권의 역사서가 솔바람에 이리저리 펄럭거렸다.

■ 4월 14일

이날 남교(南郊) 정사(精舍)의 지붕에 이엉을 이었다. 뜰에 무성하게 우거진 매화의 가지를 직접 치고, 동자(僮子)는 마당을 쓸고 어린 여종은 집안 청소를 하였다. 집에 먼지가 없고 초가집이 정결한 가운데 고요히 서책을 보니 더욱 맛이 있었다. 다만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고달파 사방에는 시름뿐이니 전원의 즐거움은 또한 얻기 어려울 듯하다. 때때로 분수를 모르는 근심을 면하지 못하니, 한탄스럽다. 이날 밤 절구 한 수를 입으로 읊어 이루었는데 "시끄럽게 우는 개구리들 내 마음을 알까 보랴[亂叫羣蛙說箇心]"라는 구절이다. 대개 앞 교외의 논을 새로 갈아 개구리들이 시끄럽게 울었기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곤충은 지각이 없는 일개 미물일 따름인데 그 우는 소리는 울어 대다가 그치다가 하여 마치 음률이 있는

듯하였다. 더구나 개천과 수렁에서 자득하여 울적에 반드시 그 즐거움이 있으니, 개골거리는 소리는 또한 서로 그 심정을 말하는 듯하였다. 천기(天機)가 절로 동하여 소리를 내는 것은 또한 똑같은 마음이다. 그 사이에 진정한 의사가 암암리에 지각의 근원에서 서로 감응하는 곳이 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절로 읊조리곤 하니, 또한 사물과 내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른바 "성대한 천리가 상황에 따라 발현한다."라는 것이다. 한밤중에 잠자리에 들어 또 절구 1수를 지었다. "화평한 기운은 마음을 즐겁게 하니 잠자리를 정돈하네.[調氣怡神整枕衾]"라는 구절이 있다.

■ 4월 15일 갑오(甲午)

밤에 하늘에 뜬 달이 산뜻하고 환하여 홀로 작은 창에 기대어 앉아 입으로 읊어 절구 1수를 이루었다. '홀로 소나무 드리운 창문에 기대어 앉으니 밤은 벌써 깊었네.[獨倚松窓夜已深]'라는 구절이 있다.

■ 4월 16일 을미(乙未)

마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니 나를 어지럽게 하는 속세의 일이 사라졌다. 묵묵히 방에 앉아 책상 위 성현을 고요히 대하였다. 이와 같은 때 어찌 참다운 의사가 없겠는가. 다만 마음을 전일하게 지키지 못하여 사물을 접한 뒤에 쉽게 끌려갈까 두려울 따름이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이러한 기상을 보존하면 도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니, 힘쓸지어다.

■ 4월 23일 임인(壬寅)

단비가 막 개어 만물이 모두 기쁜 기색이 있었다. 다만 흉년에 먹을 음식이 없고 보리도 익지 않아 마을에는 시름과 탄식이 가득하였다. 나의 집은 평소 가난한데 더구나 심각한 흉년을 만나 죽조차 끓이기 어려우니 가솔들 가운데 혹 성난 표정을 얼굴에 드러내는 자도 있었다. 나는 본래 마음이 태평하여 재산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넉넉하거나 부족한 것을 가지고 좋아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닥쳐 생각해 보니, 사대부에게 가족이 있는 것은 나라에 백성이 있는 것과 같다. 군부(君父)

가 되어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군주에게 돌아가는데, 가장이 되어서 가솔로 하여금 굶주림과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유독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없겠는가. 옛 사람이 양식이 자주 떨어졌지만 그 즐거움을 변하지 않았던 것[793]은 가속으로 하여금 의리를 깨우치게 하여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의리가 아닌 것을 사모하지 않게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나의 인(仁)이 이미 동복(僮僕)을 교화하여 의리를 깨우치게 하는 데 이르지 못하였고, 그들을 굶주림과 추위, 고달픔에 떨게 하였으니,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측은할 뿐만이 아니라, 동복들도 항심이 없어 은연중에 불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고 어찌 장담하겠는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계책은 평세(平歲)에 동복을 재촉하여 부지런히 농사짓게 하고 집안사람들로 하여금 절약하고 검소하게 하여 항상 유사시에 대비하는 곡식을 저축하여 흉년에 굶주림을 면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나의 근본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가산(家産)을 경영하는 일을 앞세워 더 풍족하게 살려고 계산하는 마음은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꼴이어서 점점 사악하고 인색하며 의리를 해치는 지경으로 점점 빠져드니 매우 두려워할 만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하여, 본원적인 곳을 엄히 확립한 뒤에 그 나머지를 미루어 사무에 미치게 하여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근심이 없도록 경계하는 바이다.

이날 비가 그친 뒤에 바람이 맑고 온화하였다. 소가 비탈진 언덕에서 졸고 보리가 바람에 물결치듯 출렁거리며, 해오라기가 들판에 내려앉고 논에 물이 가득하니 전원의 흥취를 펴기에 충분하였다. 내가 근래 매양 새로 지은 재실에 앉아 들판을 보니 작은 새가 있었다. 그 울음소리가 매우 경쾌하고 간드러지며, 풀숲에서 날아올라 점점 춤추듯이 이리저리 날더니 곧장 하늘로 향해 솟아올랐다. 온갖 방법으로 혀를 놀려 약삭빠르게 요염하니, 소리가 처음에는 잠깐 낮고 느리더니만 하늘 높이 올라서는 마디마디가 가늘고 촉급해졌다. 가늘고 촉급한 소리가 극에 달하니 또 빙빙 돌면서

793) 옛사람이……것 : 《논어》 〈옹야(雍也)〉에 “한 대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음료로 누추한 시골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변치 않는다.[一簞食, 一瓢飮,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라고 하였다.

내려왔는데 그 소리가 조금 느려지다가 땅에 앉아서 울음소리가 멈추었다. 그 새의 이름을 시속에서는 '종다리[鍾至理]'라고 한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높고 낮으며, 길고 짧으며, 성기고 빠른 음률이 있었다. 그 나는 것을 보니 빙글 돌리고 나아가고 물러나며 오르내리는 조짐 있었으므로 보기에 또한 정취가 있었다.

인하여 생각하기를, 무릇 천지 사이에 생겨 난 것은 모두 이(理)와 기(氣)가 발현 되지 않은 존재가 없고 각기 지각이 있다. 기(氣) 쪽에 속한 것은 지각의 근본이고 이(理) 쪽에 속한 것은 바로 하늘에서 부여받은 성(性)이다. 사람과 사물은 본래 다르지 않고, 다만 치우치거나 바른 구분이 있을 따름이다. 비록 그렇지만 성음(聲音)은 마음에서 나오고 운동은 기(氣)로 말미암는다. 이미 지각이 있으므로 운동과 성음이 있으니, 저 새가 소리를 내어 울부짖는 것은 필시 의미가 있어 그 정(情)을 말하는 것이건만, 다만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뿐이다. 대저 사람이란 슬프면 울고 기쁘면 노래하며, 서로 만나 정을 얘기하고 책을 읽으면서 그 소리를 길게 늘어뜨린다. 사람은 소리에 자연히 각각 그 의미가 있지만 저 새들은 또한 들을 줄 모르니, 이는 또한 사람이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 사이에 지극한 이치가 담겨져 있는 것은 새들이나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시경(詩經)》에 '소리개는 하늘에서 날고, 물고기는 못 속에서 뛰노누나.[鳶飛戾天 魚躍于淵]'라고 하였는데, 자사(子思)가 이 말을 인용하여 군자의 도를 밝혔다는 사실을 또한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인이 위아래에서 우는 봉황의 소리를 듣고 십이율을 만들었으니,[794] 봉황과 이 작은 새는 똑같이 새이고 이와 기를 함께 얻어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이니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옛날에 지인(至人)은 하나의 사물을 보면 반드시 그 이치를 궁구하였으니, 복희씨(伏羲氏)는 용마(龍馬)로 인하여 팔괘(八卦)를 그었고[795] 우(禹) 임금은 신귀(神

---

794) 고인이……만들었다 : 십이율은 음악의 표준인 육률(六律)과 육려(六呂)이다. 황제(黃帝)가 악관(樂官) 영윤(伶倫)에게 악률(樂律)을 만들라고 명하자, 영윤이 해계(嶰谿) 골짜기의 대나무를 취하여 12개의 통(筒)을 만들고 봉황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12음률을 구별했는데, 수컷 울음소리로 육률을 삼고 암컷 울음소리로 육려를 삼았다고 한다. 《呂氏春秋 仲夏紀 古樂》

795) 복희씨(伏羲氏)는……그렸고 : 복희씨가 황하에서 용마(龍馬)가 하도(河圖)를 등에 지고 나오자 그것을 보고 팔괘(八卦)를 그었고 이를 다시 64괘로 만들었으며, 그 뒤에 문왕(文王)이 괘사(卦辭)와

龜)를 보고 구주(九疇)를 만들었다.[796] 정자(程子)가 토끼를 보고 괘를 그은 것[797]도 이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미물을 보거나 새의 지저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다해 살피지 않은 적이 없다. 다만 보는 것이 투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치를 궁구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지금 작은 새를 보고 부질없이 기록한다.

또 “사람들이 내 마음이 천지와 통하고 만물에 두루 미쳐 내외, 피차, 물아의 구분이 없이 똑같이 한 가지 이치라는 것을 안다면 자연히 마음이 천협(淺狹)하지 않고 도량도 클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갓 내가 있는 것만 알고 상대가 있는 줄은 모른다. 한 몸의 몸뚱이 외에는 기가 전혀 통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넓지 않고 도량도 좁다.”라고 하였다.

오후에 문 앞을 지나는 고향 친구가 있었는데 들어와 보지 않은 채 지나갔다. 이 사람은 나와 교유한 적이 있고, 나와 인척관계 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더러 고유하였으면서 지금은 문 앞을 지나면서도 보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곰곰이 그 까닭을 생각해 보았다. 근래 고향에 한두 소년이 있었는데 또한 나의 외가 쪽 사람이다. 자못 빈번하게 왕래하며 글을 배워 조금 깨우쳤다. 지난번에 향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아무개가 그대에게 글을 배우는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 그대는 어찌 그만두어서 비방을 멈추게 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경전(經傳)은 성현의 공변된 말이다. 나는 다행히 먼저 성현의 찌꺼기[糟粕][798]를 깨우쳤다. 사람이 배우고자 하는 것 또한 천하의 공변된 마음이다. 내가

효사(爻辭)를 지었고, 공자(孔子)가 십익(十翼)을 지어서 《주역》이 완성되었다.

796) 우(禹)……만들었다 : 홍범구주(洪範九疇)를 이른다. 《서경(書經)》 〈주서(周書) 홍범(洪範)〉에 우(禹) 임금이 정한 정치 도덕의 아홉 가지 원칙이 실려 있다. 구주는 오행(五行), 오사(五事), 팔정(八政), 오기(五紀), 황극(皇極), 삼덕(三德), 계의(稽疑), 서징(庶徵), 오복(五福), 육극(六極)이다.

797) 정자(程子)로……것 : 정자는 정이(程頤)를 말한다. 정이가 어떤 사람이 토끼를 팔고 있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성인(聖人)이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를 보고 8괘를 그으셨다. 그러나 이 어찌 하도와 낙서를 보고서만 가능한 일이겠는가. 이 토끼만 보고도 8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니, 수(數)는 이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곧 평범한 사물에도 역수(易數)가 담겨 있다는 말이다. 《二程遺書 권18》《易經蒙引 권11 상》

798) 옛사람의 찌꺼기 : 글로 전해진 성현의 말씀을 뜻한다. 남포가 겸사로 쓴 표현이다.

어찌 성심으로 옛 성현을 배우려는 사람을 거절할 수 있겠으며, 남들도 어찌 공변된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을 비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그 사람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갔다. 그 뒤에 이웃 고을의 아무개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말하기를 “김 아무개와 아무개가 당론을 일삼는다고 하니, 어찌 유자의 일이겠는가.”라고 하였다. 들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전해 주었는데, 이는 향인이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트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당이 나뉜 뒤로 조정으로부터 향곡(鄕曲)에 이르기까지 색목(色目)을 손가락질하며 당동벌이(黨同伐異)[799] 해 왔다. 광해조(光海朝)가 이 때문에 망국의 지경까지 갔는데, 그 의론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는다. 위에서 말한 내게 와서 배운 소년도 바로 향인 가운데 당색이 다른 사람의 자제이므로 다른 쪽 사람이 꺼려서 비방하는 말을 지어서 나에게 미친 것인데, 오늘 문 앞을 지나며 방문하지 않은 것은 필시 꺼리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일 따름이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대저 인심은 천하의 공기(公器)이다. 천리(天理)의 중정한 것을 품부받은 것이 천하의 공기가 된다. 이를테면 평평한 저울이나 맑은 물과 같으니, 만일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하늘에서 부여받은 바른 이치를 잃어버려 이기적이고 스스로를 해치는 사악한 지경으로 빠질 것이니, 사람이고서 차마 이렇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일찍이 의견을 제시하여 말하기를 “한유(韓愈)와 범중엄(范仲淹)처럼 문장이 뛰어나고,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처럼 학문이 훌륭하더라도 만약 지금의 이른바 한편으로 치우친 당론에 구속된다면 그 사람은 볼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또 항상 말하기를 “만약 지금의 당론을 위해서라면 하루아침에 만종(萬鍾)의 부를 쌓고 오정(五鼎)[800]의 존귀한 지체가 되더라도 나는 하지 않는다. 만약 마음가짐이 중정하여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는다면 누추한 집에서 죽더라도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무릇 평소 남과

---

799) 당동벌이(黨同伐異) : 일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뜻이 같은 무리끼리는 서로 돕고 그렇지 않은 무리는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800) 오정(五鼎) : 소, 양, 돼지, 생선, 순록의 다섯 가지 고기를 다섯 솥에 각각 담아 먹는 것을 이르는 말로, 고관 귀족의 대단히 호사스러운 진찬(珍饌)을 뜻한다.《儀禮 少年饋食禮》

교유할 때라든지 논의를 세워 문장을 지을 때에는 평생 한마디 말도 당론에 스스로 치우친 적이 없으므로 동인과 서인이 모두 수상하게 여겼다. 혹자가 ‘아무개는 동론(東論)을 주장한다’고 한 것은 그가 비록 서인이라도 서인의 논리가 이치에 맞지 않으면 비난하였기 때문이다. 혹자가 ‘아무개는 서론(西論)을 주장한다’고 한 것은 그가 비록 동인이라도 동인의 말이 의리가 아니면 비난하였기 때문이다. 혹자가 마음에 주장하는 바가 없다고 한 것은 양쪽이 옳지 않으면 양쪽을 비난하고 양쪽이 옳으면 양쪽이 옳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배우면 어떤 사람은 꺼려서 얼굴을 가리고 문을 지나가기까지 하니, 사람의 편벽되고 인색함이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인가. 매우 우습다. 지극히 공정한 나의 마음으로 향당에 있으면 향인이 이와 같고, 조정에 나아가면 조정의 사람들이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세도가 이러하니 어찌 행할 수 있겠는가.

내게 몇 뙈기 밭이 있으니 힘써 농사지어 풍년이 들면 처자식은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새로 지은 집은 자못 정결하며 앞에는 샘이 있고 뒤에는 땔나무를 할 수 있는 산이 있다. 또 경서 몇 권이 있으니 마음을 다스리고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지금부터 문을 닫고 깨끗이 청소하여 원기를 기르고 정신을 수양하여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을 편안히 하고 전현(前賢)의 지극한 훈계를 가슴에 새겨 천명을 따라 한가롭고 고요한 생활을 즐긴다면 한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죽어서는 편안할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다만 예부터 나라가 망하려 할 적에는 반드시 붕당을 지어 서로 다투었으니, 공변되지 않고 바르지 않아 나라가 따라서 멸망하였다. 말이 여기에 이르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노파심이 절실하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근래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을 보았는데, 우리 동방에서 의리가 있는 문장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문집을 보니, 그 가운데 “내가 남시보(南時甫)와 화담(花潭) 학문의 문제점을 논하였는데 허태휘(許太輝)[801]가 듣고서

---

801) 허태휘(許太輝) : 허엽(許曄, 1517~1580)으로,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태휘, 호는 초당(草堂)이다. 허균(許筠)과 허난설헌(許蘭雪軒)의 아버지이다.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문인으로 청백리(淸白吏)에 올랐다.

편지를 보내 힐난하였고, 황중거(黃仲擧)[802]와 학문을 논하다가 우연히 송당(松堂)의 《백록동규해(白鹿洞規解)》[803]를 언급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문인이 보고 불편하게 여기는 자가 많았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 말을 보고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 있다. 10년 전 우산(牛山)[804] 안공(安公)이 <우산답문서(牛山答問書)>를 지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 몇 조목을 우연히 발견하고[805] 우산의 문인에게 질정하는 가운데 내왕하는 사람이 적잖이 비난을 받았으니, 비난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는다. 대개 천하의 의리에 관한 시비는 바로 공공(公共)의 일이다. 후학이 선각에 대해서 질정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혹 시비를 논란하는 것도 천하의 공도(公道)이다.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각자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감싸며 일괄적으로 존숭하여 남들이 의혹스러운 점을 질정하지 못하게 하니, 참 우스운 일이다. 지금 이 책에서 우연히 이 논을 본 것으로 인하여 부질없이 기록한다.

대개 우산(牛山)은 임하(林下)의 선비로 기상이 매우 좋다. 다만 본원과 관련된 곳에서 혹 함양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가다듬는 공부에 흠결이 있으니, 전적으로 들은 것을 기록하고 서술하는 것을 학문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삼으므로 격앙되어 발로한 논의가 많고 온후하여 중도를 얻은 기풍이 적다. 내가 일찍이 인심이 허령(虛靈)하다는 설을 해석하여 말하기를 "이(理)는 본래 허하니 기(氣)를 겸한 뒤에 신령해진다. 기는 본래 신령하지 않고 이(理)에 의지한 뒤에 신령해진다."라고 하였다. 지금 주자

---

802) 황중거(黃仲擧) : 중거는 황준량(黃俊良, 1517~1563)의 자이다. 호는 금계(錦溪), 이황의 문인이다.

803) 송당(松堂)의 백록동규해(白鹿洞規解) : 조선 중종 때의 무신(武臣)인 박영(朴英, 1471~1540)으로, 자는 자실(子實), 호는 송당,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가 사직 후 정붕(鄭鵬)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다.

804) 우산(牛山) : 안방준(安邦俊)의 호이다. 1573~1654.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사언(士彦), 호는 은봉(隱峯) 또는 우산(牛山), 시호는 문강이다. 1591년 성혼(成渾)의 문하에 나아가 배웠다. 광해군이 즉위한 뒤 우산에 은거하여 후진 양성에 힘썼다.

805) 내가……발견하고 : 원문은 '余偶發未解處若千條'인데, 문맥을 살펴 '千'을 '干'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朱子)의 ‘이(理)와 기(氣)가 합하면 곧 지각할 수 있다’는 설을 보니 과연 망녕된 나의 주장과 우연히 합하였다. 이것으로 인하여 공부를 한다면 혹 도의 본체를 보는 데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지 않겠는가. 주자가 또 말하기를 “비유하자면 촛불에 기름을 부으면 많은 불꽃이 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지각하도록 하는 것은 마음의 이요, 지각할 수 있는 것은 기의 신령함이다.”[806]라고 하였다. 내가 마침내 ‘불에 기름을 붓는다.’는 설을 해석하여 말하기를 “기름은 스스로 불꽃을 피울 수 없고 불을 붙여야 불꽃이 일어난다. 불은 스스로 불꽃을 피울 수 없고, 기름이 있어야만 불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이(理)와 기(氣)가 서로 합하여야 지각이 생겨난다는 말이다.

저녁에 남자종들이 소를 찾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소를 도둑맞은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고달파 우리 백성들이 장차 죽게 생겼다. 아무리 양민이라도 도둑으로 변하였으니 장차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느냐. 어찌할꼬. 더구나 나는 잃었지만 남은 얻었을 테니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더 이상 찾지 말라.”라고 하였다.

■ 4월 27일 병오(丙午) 소양(少陽)

아침에 일어나 앉았다. 갠 하늘 날씨가 좋았고, 초목은 함초롬하였다. 두루미 한 마리가 홀로 샘의 근원에 서 있다가 갑자기 날아올랐다. 이어서 흥이 일어나 절구 1수를 지었는데 “검은 치마에 흰옷 차림을 한 선경의 동자라네.[玄裳素服一仙童]’라는 구절이었다. 또 절구 1수를 지었다.

단비가 그치고 날이 개이자 보리가 이미 익었으니	甘雨新晴麥已秋
동산엔 싱그러운 풀이 가득하여 기운 맑고 그윽하네	滿園芳草氣淸幽
고요히 만물이 끊임없이 생성하는 의사를 보니	靜看萬物生生意
도리어 내 마음에서 한 이치를 구하네	還向吾心一理求

806) 지각하는……영특함이다:《주자어류(朱子語類)》에 나오는 말이다.

근래 심기가 자못 온당하니 본원의 묘리를 이로 인하여 알 수 있을 듯하였다. 늘 부지런히 힘쓰다가 혹 감흥이 발현할 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에 끌려가니, 이는 공부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 사물을 관찰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 읊조리기를 마지않기까지 하였다. 이를 기록하여 눈이 녹고 풀이 자라는 근심을 경계한다.

낮에 홍종화(洪鍾華) 씨가 와서 새로 지은 재실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향당(鄕黨)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의리를 설명하여 말하기를 "무릇 향당에서 이웃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도리는 충후하고 화목한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반복하여 서로 경계해야지 느닷없이 비난해선 안 됩니다. 선한 행실이 있으면 차근차근 서로 권면해야지 문득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먹어선 안 됩니다. 노인은 공경하고 현자는 존경하고, 어린이는 이끌어 주고 약한 사람은 세워 주고 강자는 경계하여 힘써 서로 과실이 적게 한다면 향리의 풍속이 점점 충후한 쪽으로 변할 것입니다. 향리에서 이 일로 서로 면려하는 것은 형들 몇 분에게 달려 있으니 힘써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대개 근래 향리의 풍속이 나빠지는 조짐이 있는 듯하였으므로 이렇게 언급한 것이다.

■ 4월 28일 정미(丁未) 대양(大陽)

비가 그친 뒤의 기상이 오늘은 더욱 좋다. 걸어서 앞 시내로 나가 새로 심은 버드나무를 점검하였다. 지난달에 오래 가물었으므로 말라 죽은 것이 3분의 2이나 되었는데 살아남은 것은 새로 잎이 나 사랑스러웠다. 이어서 생각하기를 하늘이 만물을 냄에 그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생장하는 이치도 만 가지로 같지 않다. 그러나 꽃이 피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 또 번식한다. 열매가 없는 것은 반드시 그 뿌리를 옮겨 심은 뒤에 자라는 것이니, 초목은 모두 그러하지 않음이 없다. 그런데 유독 버드나무만 그 가지를 꺾어 흙에 꽂아도 살 수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이 나무는 천지에서 양생(陽生)의 기운을 받아 가장 먼저 싹이 돋고 또 무성하다. 그러므로 이른 봄 초목이 아직 싹트기 전에 이 나무는 먼저 잎이 돋아난다. 양기를 먼저 받기 때문에 초가을에 음기에 쉽게 감응하여 그 잎이 먼저 떨어진다. 옛사람이 글자를 만들

때 '목(木)'과 '양(昜)'을 의부로 삼았으니, 옛 '양(陽)' 자의 뜻은 이것을 본받은 것인가. 땅에 꽂아도 잘 사는 것은, 풍부한 양생(陽生)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양기가 상승할 때 그 기운을 쉽게 얻어서 사는 것임이 분명하다. 비유하자면 타고난 기운이 청명한 사람은 천리의 본원을 먼저 깨달아 선을 행하기 쉬운 것과 같다. 그 이치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음에 느낀 점이 있어 여기에 기록한다. 혹 이 나무가 푸른 잎이 녹음을 이루고 새순이 자라 가지가 뻗어 나갈 때면 주인도 진보하는 뜻을 두어 위로 본원이 되는 곳에 도달하여 행동할 때 발양(發揚)해서 이 나무와 더불어 펴질 것이니, 경계할지어다. 이어서 절구 1수를 지었으니[807] "몇 그루 버드나무를 문 앞에 심었네.[數株楊柳種門前]"라는 구절이 있다. 또 절구 1수를 지었으니, "전원에 새로 집을 지으니 맑은 시내가 곁에 있네.[野居新卜傍清漪]"라는 구절이 있다.

이인로(李仁老)가 말하기를, "저의 고조인 생원(生員) 이응림(李應霖)은 바로 우리 태조조(太祖朝) 때의 부마도위(駙馬都尉)인 이등(李薆)의 손자로, 풍산(楓山) 추송곡(楸松谷)에 장사 지냈습니다. 올해 2월에 술사(術士) 이계현(李啓玄)이 와서 말하기를 '이 묘지는 매우 흉하니 자손들이 참혹한 화를 입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자손에게 막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듣고서는 매우 놀라 즉시 좋은 날을 잡아 이장하였습니다. 생원 공의 묘도(墓道)에 수기(水氣)가 있었는데 마치 조수(潮水)가 막 밀려난 뒤의 형상이었습니다. 백골이 물에 떠밀려 한쪽에 쌓여있었으며 거품이 일고 질척질척 하였으니 완연히 조수가 밀려난 뒤 물가의 형상과 같았습니다. 그 내묘(內墓)는 나무의 한 뿌리가 지판(地板) 아래로 들어가 있었고 크고 작은 뿌리가 무수하게 해골을 휘감고 있어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오싹하였다. 대개 자손과 선조의 관계는 지엽과 뿌리 같은 관계이니 "조상도 편안하고 자손도 편안하다"라는 정자(程子)의 말이 매우 이치에 가깝다. 지금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창질(瘡疾)에 걸려 죽었는데 온 집안이 모두 그러하였고 이인로 등 몇 사람만 살아 있을 따름이다. 비록 묘 터의 조짐과 술가의 말이 우연히 맞아떨어졌는지는

---

807) 절구 1수를 지었으니 : 본서 권4에 수록된 <양류음(楊柳吟)>이다. <양류음>은 칠언절구 2수로 되어 있다.

모르겠지만 이 또한 알지 않아선 안 되는 일이다. 기록하여 치밀하게 무덤을 조성하지 않는 자의 경계로 삼는다. 또 “무덤에 석회를 사용하는 것은 장차 나무뿌리가 파고들고, 개미가 갉아 먹고, 뱀이 지나다니는 근심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길한 기운이 오르지 못한다는 지관의 말에 현혹되어 지판(地板) 밑에는 으레 석회를 사용하지 않는다. 내가 일찍이 그것의 그릇됨을 극렬히 말하였다. 지판 아래에 만약 석회, 황토, 가는 모래 세 가지 물질을 섞어 버무려 두껍게 쌓아 단단하게 응고시킨다면 나무뿌리가 어디로 들어가겠는가. 장사 지낼 때 효성을 다하는 자는 이런 일에 대해 알지 않아선 안 된다.

오후에 《포은집(圃隱集)》을 펴서 읽었다. 중국으로 왕래할 때 지은 시편을 두루 보았는데 수천 리 길 산천의 풍경을 모조리 입으로 읊어 놓은 것이다. 후인이 나중에 장구(章句)를 읊조린다면 신주(神州)의 형승(形勝)과 수레를 타고 왕복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듯 황홀할 것이다. 시구를 얻어 읊조리는 모습과 정신을 생각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듯하여 벌써 300년이 지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이다. 공경하는 마음과 비감한 마음이 드는 끝에 생각하기를, 남아가 세상에 태어남에 사업이 매우 중하니, 위로는 천지의 무궁한 이치에 통달할 수 있고 아래로 만리 산천의 승경을 구경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천고의 지난 일을 통달할 수 있고 뒤로는 만대에 영원히 남을 이름을 세울 수 있다. 선생과 같은 자는 고금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이 몇 명이 있겠는가. 슬프다. 이 외로운 몸은 바다 모퉁이 누추한 고을에 태어나서 한 뙈기 황량한 밭을 궁박하고 적막한 가운데에서 지키니, 지식은 일신의 일을 주선하지 못하고 견문은 천리 밖을 벗어나지 못했다. 얼마 안 되는 낡은 책에서조차 그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였으니, 오두막집에서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잠을 자며 조그마한 득실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며 우매한 사람의 비방과 칭찬에 따라 좋아하고 노여워함을 면하지 못하였다. 100년이 지나 갑자기 순식간에 죽는다면 초목과 함께 자취도 없이 사라질 따름이니, 이것으로 선생의 사업에 비교하면 벌레를 붕새에 비교할 정도뿐만이 아니다. 아아, 서글프고 애달프다. 비록 그렇지만 군자의 사업은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따름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 인색하지 않으니

어찌 유독 고인에게만 넉넉하겠는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또한 그다지 짧지만은 않으니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힘써 죽은 뒤에 그만둔다는 자세로 매진한다면 비록 만분의 일도 고인과 비슷하지 않더라도 아마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버리지 않아 초목과 금수처럼 되는 것은 면할 것이다. 지금 선생의 문집을 보고 홀연히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나도 모르게 붓 가는 대로 기록하였으니, 후일 공부를 게을리할 때 혹 이 기록을 보고 불현듯 깨닫고 척연히 본보기로 삼아 나태한 뜻을 경계하기를 바란다.

■ 5월 4일 신해(辛亥) 소음(少陰)

서봉령(徐鳳翎) 군과 대화를 나누었다. 말할 적에 매양 절의를 강조하고 학문은 귀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예경(禮經)은 부질없는 글이라고 하였으니, 말마다 이와 같았다. 내가 말하기를 "학문과 예경이 과연 헛된 글이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면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은 모두 학문 가운데 일인데 학문을 배격하고 절의를 구하는 것은 오곡을 농사짓지 않고 배부르기를 바라는 것이니 괜찮겠는가."라고 하였다. 서군이 인하여 우리나라 고금 인물의 온갖 고사를 두루 말하였다. 그 말이 잔잔한 물결처럼 슬프고 절절하였으니, 참으로 기이한 선비이다. 다만 학문이 본원이 되는 곳에서 구하지 않고 매양 외면에 속박되어 고금 인물을 논하여 절의를 귀착점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학문하고 예를 지키는 것을 근신하며 작은 일에 청렴한 정도로 치부하고, 세상일을 경영하는 것을 절의와 충신으로 여긴 것이다. 그 학문은 대개 은봉(隱峯) 안장(安丈 안방준(安邦俊))에게서 나왔고, 안장은 일찍이 우계(牛溪 성혼(成渾))에게 배웠는데, 무엇 때문에 그 학문이 이처럼 너무 조리가 없이 번잡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비록 그렇지만 또한 말세의 퇴폐한 풍속을 면려할 수 있으니, 어찌 일률적으로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 장점을 취하여 벗 삼는다면 괜찮다.

■ 5월 5일 계유(癸酉) 대양(大陽)

날씨가 아까울 만큼 화창하였다. 집에서 기르는 여마(驪馬)를 앞 비탈에 풀어놓았으니, 정강이까지 자란 푸른 풀을 종일 배부르게 먹게 되었다.

이미 속박하는 재갈이나 고삐가 없어 마음대로 풀을 뜯고, 내려가 샘에 고인 물을 마시고 누웠다가 일어나고 다니면서 먹으며 편안하였으니, 그 뜻이 매우 한가로운 듯 보였다. 집에 또 적마(赤馬)가 있는데 성질은 욕심이 많은 성미라 길들이지 못하므로 마구간에 매어 놓았다. 물을 마시고 여물을 먹는 데 번번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니, 보기에 매우 고통스러운 듯하였다. 인하여 생각하기를, 비록 기르는 가축이라도 욕심의 정도에 따라 고통과 즐거움이 이처럼 현격히 다르니, 사람이고서 일개 '욕(慾)' 자를 제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808]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남에게 제재를 받아 수족이 묶인 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어찌 우리 집 적마와 다르겠는가. 보고서 갑자기 경계하고 일에 느낀 점이 있어 기록한다.

■ 5월 6일 갑술(甲戌) 대음(大陰)

이문석(李文碩)이 찾아와서 작별 인사를 하였다. 성주(城主)의 임기가 차서 돌아가야 하기에 내일 행장을 꾸려 떠나므로 나에게 작별을 고한 것이다. 이 사람과 몇 년 동안 상종해 보니 지의(志意)가 고상하였는데 지금 멀리 떠난다니 서운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나에게 묻기를 "지금 돌아가면 어떤 책을 읽어야 자립(自立)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문장을 짓거나 시구를 다듬는 것은 말류의 학문이니, 나는 감히 그대에게 권하지 않는다. 오직 원하건대, 사서(四書) 가운데 본원적인 곳을 탐구한다면 문장이 이 가운데 있고 의리도 이 가운데 있으니, 어찌 이 외의 것에 마음을 쏟겠는가. 그대를 보니 기질이 깨끗하면서 유약하여 시끄러운 성시(城市)에 오래 거처해선 안 된다. 동호(東湖)에 있는 그대의 별장은 경치가 매우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그곳에서 옛 경서를 끼고 독서하여 정신을 수양하고 본원을 함양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황량하고 외진 곳에서 홀로 쓸쓸히 지내는 나 같은 자가 또 그대와 작별하니 서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야기를 다하고 나자 비가 내렸다. 비를 맞으며 작별하려니 석별의 정이 한층 더하였다.

---

808) 사람이고서……있겠는가 : 원문은 '人而不可案伏得一慾字耶'인데, 《심경(心經)》에 근거하여 '案'을 '按'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이문석이 말하기를 "사간 이수인(李壽仁)이 올린 사직 상소의 끝에 '본도 감사 김시진(金始振)은 아첨하면서 남의 비위를 맞추기나 하고 진휼 정사에 실효가 없으며,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지 않은 채 공미(貢米)를 독촉하여 거두어들였습니다.……'라고 하니, 감사가 바야흐로 사직 상소를 올려 스스로 해명하였습니다. 사간 이수인의 이러한 행동이 어떠합니까." 라고 하니, 내가 말하기를 "이 늙은이는 은거하여 벼슬하지 않은 지 이미 10여 년이 되었다. 고인의 책을 읽고 얻은 것이 또한 많으니, 반드시 의리에 합당한지를 본 뒤에 군주에게 말해야 할 것이다. 다만 도덕과 신의에 대한 말을 진달하여 군주의 덕행을 증익하는 것은 비록 산림(山林)에서 출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혹 아뢸 수 있거니와 남의 장단점과 시비를 논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네."라고 하였다.

■ 5월 7일 을묘(乙卯) 소음(少陰)

이문석(李文碩)에게 편지를 보내 떠나는 길을 위로하였다. 또 별구(別句) 세 구절을 부쳤다. 첫 번째는 '남쪽 교외에 적막한 한 초가집이 있네.[南郊寂寞一茅廬]'라는 구절이고, 두 번째는 '동호의 승경은 동쪽 지방에서 독차지 하였네.[東湖形勝擅東隅]'라는 구절이고, 세 번째는 '지각에 차이가 없는 것은 정심에 달려있네.[知覺無差在正心]'라는 구절이다. 이문석이 어제 작별을 고할 때 마음에 새길 말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였으므로 끝에 언급하였다.

저녁에 갑자기 시구를 얻었다.

비가 그치자 푸른 하늘 광활하니	雨霽碧天闊
흰 구름이 먼 산에 생기네	白雲生遠山
외로운 촌락에 날이 저물려 하니	孤村日欲暮
나무 끝에는 새들이 집으로 돌아오네	木末鳥知還

이어서 스스로 풀이하기를 "비가 그쳐 하늘이 광활하면 도체(道體)의 광대함을 안다. 구름이 먼 산에 생기면 생의(生意)가 무궁하다는 것을

안다. 외로운 촌락에 날이 저물면 이 몸이 늙기 쉬움을 안다. 나무 끝에 새가 돌아오면 이 마음 귀착할 곳을 깨달을 것이다. 이 시는 대개 눈에 들어오는 사물로 인하여 절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통하여 구가 이루어졌지만 깊이 생각하면 또 이처럼 음미할 것이 있다. 이 시는 성정(性情)에서 발한 것이고 성정은 천리(天理)에서 근본한 것이니, 오묘하다고 할 수 있다.” 하였다.

■ 5월 9일 소음(少陰)

낮에 퇴계의 도산시(陶山詩) 서를 읽었다.[809] 나도 모르게 갑자기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일었다. 이어서 절구 1수를 지었는데 “흰 돌 펼쳐진 맑은 시내는 광풍제월 사이에 펼쳐지네.[白石淸溪光霽間]”라는 구절이 있다.[810]

■ 5월 13일 신유(辛酉) 소양(少陽)

새벽에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여니 맑게 갠 하늘 푸르고, 바람과 이슬이 하늘에 가득하였다. 흰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자는 새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일체의 경계가 아득한 가운데 오직 새벽닭이 꼬끼오 하며 서로 화답할 따름이었다. 초연히 인간 세상을 굽어보니 세속의 밖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입으로 읊조려 시를 지었는데, “원기가 충만하여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네.[元氣淋漓露濕天]’라는 구절이 있고, 또 ‘이슬이 쓸쓸히 내리는 가운데 천지가 광활하네.[露氣凄凄天地空]’라는 구절이 있다. 아침에 차를 마시고 ‘잣나무 잎으로 차를 끓이니 안개가 피어오르네.[柏葉煎茶氣作霞]’라는 구절을 짓고, 또 솔잎을 복용하고 ‘늠름하게 곧은 마음 눈 속의 청청한 자태일세.[凜凜貞心雪裏顔]’라는 구절을 지었다.

■ 5월 14일 임술(壬戌) 대양(大陽)

안일대(安一大)가 ‘천(天)’ 자, ‘원(圓)’ 자 운으로 시를 지으니, 그 운을 써서

---

809) 퇴계의……읽었다 :《퇴계집》 권3에는 〈도산잡영(陶山雜詠)〉이라는 제하에 칠언절구가 18편, 오언절구가 26편 실려 있다. <도산잡영>에 병기(幷記)가 있는데, 이를 서문이라고 한 듯하다.

810) 흰……지었다 : 원문은 ‘有白石淸溪光霽問之句’인데, 문맥을 살펴 ‘問’을 ‘間’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절구 1수를 지었는데 ‘천군이 높이 앉아 단전을 세우네.[天君高拱立丹田]’ 라는 구절이 있다.

■ 5월 15일 계해(癸亥) 소양(少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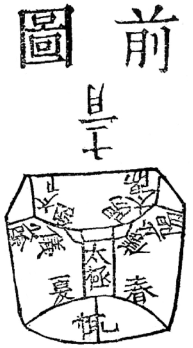
새벽에 일어나려 할 때 절구의 시를 지었는데 ‘지게문과 창문 굳게 닫혀 어둑어둑 밤에.[戶窓深鎖夜茫茫]’라는 구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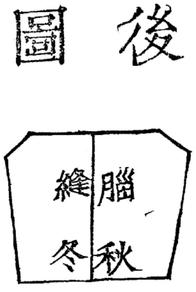
낮에 안일대(安一大)로 하여금 베로 만든 관(冠)에 검은 물을 들여 직접 단정하게 여며 쓰게 하였으니, 그 관을 ‘양의관(兩儀冠)’이라고 하였다. 인하여 <관설(冠說)>을 지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베 1폭을 사용한다. 그 길이는 머리를 두를 수 있을 만큼에다 1치 8푼을 남긴다. 1치 8푼으로 첩자(輒子)를 만든다. 첩자의 양식은 4푼 반을 일으킨 다음 오른쪽으로 접고, 4푼 반은 왼쪽으로 접는다. 실로 꿰매어 고정시키고 그 가운데를 비워 두니 만들어진 첩자는 9푼과 흡사하다. 아직 첩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베의 폭 양쪽 변과 양쪽 끝을 포개어 안으로 향하게 한 다음 폭의 한 변을 돌려 첩자를 만든다. 이마의 양쪽 눈썹 위에 맞추고 그 나머지를 머리 좌우로 둘러 뒤쪽 머리에 이르러 꿰매어 그 끝을 합한다. 실로 매어 위쪽 변에 연결하여 꿰맨다. 앞면의 첩자는 그 길이가 관의 가운데 까지 와서 가로로 두 가닥으로 나누어 각각 위쪽 양 모서리에 이른다. 양쪽 모서리에 미치기 전에 또 나누어 두 가닥을 만들고 두 가닥 끝은 두 갈래로 비스듬히 모서리를 만들면 좌우로 모두 사각이 된다. 합하여 논하면 첩자의 9푼은 태극(太極)을 본뜬 것이다. 1첩(輒)의 끝을 나누어 두 가닥으로 만든 것은 태극이 양의(兩儀)[811]를 낳은 것을 본뜬 것이다. 양쪽 가닥을 나누어 네 가닥을 만든 것은 양의가 사상(四象)을 낳은 것을 본뜬 것이다. 전후 4엽(葉)은 사시(四時)를 본뜬 것이다. 그 높이가 1자 2치인 것은 12월을 본뜬 것이다. 나는 태극의 체(體)가 확립된 뒤에 양의와 사상이 나누어지고, 양의와 사상의 도가 행해진 뒤에 사시와 12월의 공이 이루어지고 만물이 각각 본성을 따라 천지의 도가 이루어진다고 여겼으므로 합하여 ‘양의관(兩儀冠)’이라고 하였다. 100년 사이에 나의

811) 양의(兩儀) : 음양(陰陽)을 가리킨다. 태극(太極)에서 음(陰)과 양(陽)의 양의가 생기고, 양의에서 태양(太陽)·소음(少陰)·소양(少陽)·태음(太陰) 등 사상(四象)이 생긴다.

원복(元服)[812]을 만들어 그 머리에 갓을 썼으니, 이름을 돌아보고 의리를 생각하여 내 마음의 태극에서 돌이켜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양의관 전후분석지도(兩儀冠前後分釋圖)>





갓이 완성되자 힐난하는 자가 말하기를 "선왕의 법도에 맞는 옷이 아니면 감히 입지 않는 것이 예이다. 그대는 어찌 선왕의 법도에 맞는 옷을 입지 않고 마음대로 갓을 만드는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선왕의 법도에 맞는 옷이 훌륭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1000년 뒤에 그 제도를 잘못 전하여 참되지 않은데, 더구나 옛날과 지금은 풍속이 달라져서 놀랄 만큼 괴상해졌다. 이 때문에 부자(夫子)가 봉액(縫掖)과 장보(章甫)를 지역에 따라 바꾸어 썼으니,[813] 이는 풍속과 너무 괴리되어 놀라게 하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만든 갓이 비록 옛 제도를 계승하지 못했지만 그 취한 상(象)은 모두 지극한 이치가 깃들어 있고 기수(氣數 길흉화복의 운수)가 운행하는 것이다. 평상시 머리에 써서, 천리(天理)가 유행하는 묘미와 본체는 하나로되 만 가지로 형상이 드러나는 도를 상상하면 절로 내 마음의 천리에 묵묵히 부합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내가 이 관을 만든 까닭이다." 라고 하였다. 힐난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대의 관은 태극(太極), 양의(兩儀), 사상(四象), 사시(四時), 십이월

---

812) 원복(元服) : 관례(冠禮)를 치를 때 착용하던 어른의 의관이다.《儀禮 士冠禮》

813) 부자(夫子)가……썼으니 : 봉액(縫掖)과 장보(章甫)는 선비의 의관(衣冠)을 말한다. 봉액은 의복의 한 종류이고 장보는 관(冠)의 한 종류이다. 공자가 어린 시절 노(魯)나라에 살 때는 봉액을 입고, 자란 뒤에 송(宋)나라에 살 때는 장보를 썼다.《禮記 儒行》

(十二月)을 본뜬 것인데 굳이 ‘양의(兩儀)’라고 명명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태극의 이치는 매우 은미한 것이다. 사상, 사시, 십이월은 기(氣)의 분수(分殊)[814]이다. 양의와 같은 것은 이(理)가 이미 나누어져 사상(四象)과 시세(時歲)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통틀어 명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본받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베 1폭을 사용하여 검은 물을 들이면 힘이 덜 들고 마련하기 쉽고, 뜻은 심원하고 이치가 갖추어지니, 가난 속에서 질박함을 숭상하는 곤궁한 선비에게 알맞다.”라고 하였다. 힐난한 자가 물러나자, 아울러 그 말을 기록한다.

■ 5월 19일 을축(乙丑) 소양(少陽)

집에 흰 염소가 있는데 암컷과 수컷이 교배하여 검은 염소를 낳았다. 온 몸이 청흑색이고 흰 털이라곤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모든 사물은 부모의 혈기를 받아 태어나는데 흰 염소가 검은 염소를 낳은 것은 어째서인가? 이 또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자가 궁구할 수 있는 사물의 지극한 이치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그 근본을 찾아 궁구하여 말하기를 “천하에는 다만 한 음(陰)과 한 양(陽)이 있을 따름이다. 저 날짐승은 양물(陽物)이고, 달리는 짐승은 음물(陰物)이다. 음은 변하지만 양은 변하지 않으므로 무릇 나는 새의 색은 모두 일정한 색이 있다. 이를테면 까마귀[烏], 까치[鵲], 기러기[鴈], 오리[鴨], 제비[鷰], 참새[雀], 해오라기[鷺], 황새[鸛] 따위가 모두 이것이다. 또 양 가운데 음인 것이 있는데, 이를테면 병아리[鷄雛]와 같은 것으로, 검은 닭이 흰 병아리를 낳는 것이 이것이다. 무릇 달리는 짐승은 모두 그 형체와 색을 바꾸니, 이를테면 개[犬], 말[馬], 고양이[猫], 소[牛], 염소[羔], 양[羊] 따위가 이것이다. 또한 음 가운데 양인 것이 있는데, 이를테면 사슴[鹿], 노루[獐], 여우[狐], 이리[狸]와 같은 따위로, 모두 일정한

---

814) 분수(分殊) : 이는 ‘이일(理一)’이 전제된 말로, 보통 ‘이일분수(理一分殊)’로 많이 쓰인다. ‘이일’이란 우주의 근원은 유일(唯一)의 이치 한 가지라는 뜻이고, ‘분수’란 이 유일의 이치가 나뉘면 천만 가지 현상으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형태와 성질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朱子語類 권1 理氣上 太極天地上》

색이 있는 것이 이것이다. 가축 가운데 일정한 색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털이 달린 부류로는 돼지[猪]가 있고, 깃털이 달린 부류로는 오리[鴨]가 있다.[815] 털이 달린 산짐승은 일정한 색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또한 음양(陰陽)의 뜻이다. 오직 양기(陽氣)가 귀하므로 양기를 많이 품부받은 금수의 경우는 암수에 정한 짝이 있다. 음기를 많이 품부받은 금수의 경우에는 암수에 정한 짝이 없으니, 제 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색이 있고, 제 짝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색이 없다. 양은 귀하고 음은 천하며, 양은 바르고 음은 순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저녁에 고요히 앉아 스스로 생각하니, 사람의 일신상 모든 행위가 모두 한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이 청명하면 화평하지 않은 일이 없고, 마음이 혼잡하면 어지럽지 않은 일이 없다. 이 때문에 유가의 사업은 전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천고의 성현이 경계한 말씀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 요체는 '마음을 다스린다.[治心]'라는 2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사서(四書)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사서 가운데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이 더욱 긴요하다. 송(宋)나라 학자의 설 가운데 《근사록(近思錄)》과 《심경(心經)》이 가장 긴요하다. 《대학》, 《중용》, 《심경》, 《근사록》, 가운데 또한 긴요한 몇 마디 말이 있으니, 위로는 요순(堯舜)의 한 '중(中)' 자[816] 및 부자(夫子)의 이른바 "하나로 관통한다."라는 묘리[817]를 접할 수 있다. 일찍이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 내 마음의 정중(靜中)한 묘리와 묵묵히 부합한다면 천고에 전해지지 않은 비결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매양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지만 더욱 깨닫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요사이 아침저녁 사이에 확실치는 않으나 참 묘미를 환하게

---

815) 털이……있다 : 원문은 '羽族有匹家鵝'인데, 문맥을 살펴 "匹"을 "鴨"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家鵝'는 연문인 듯하여 번역하지 않았다.

816) 요순(堯舜)의……자 : '중(中)'이라는 것은 순(舜) 임금이 우(禹) 임금에게 전해 준 도통(道統)의 심법(心法)을 이른다. 《서경》 〈대우모(大禹謨)〉에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야만 진실로 그 중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고 하였다.

817) 부자(夫子)의……묘리 : 《논어(論語)》 〈이인(里仁)〉에 공자가 "삼아,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하느니라.[參乎! 吾道, 一以貫之.]"라고 한 데에 나오는 말이다.

터득한 곳이 있는 듯하였다. 비록 공부가 익숙하지 않아 갑자기 잃어버리는 탄식이 있지만 멀지 않아 다시 올 조짐이 있었으니, 주자(朱子)가 '오래도록 힘을 쓰다가 하루아침에 환하게 관통한다.[用力之久 一朝豁然貫通]'라고 한 말을 이로 인하여 혹 그 만에 하나라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이러한 곳에 이르러 한 발을 잘못 내디디면 곧 바뀌어 불교의 교리에 빠질 것이니, 알지 않아선 안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한다.

이날 홍자일(洪自一)이 금성(錦城)에서 돌아왔다. 전 현감 나염(羅袡) 자상(子尙)이 오늘 죽었다고 한다. 자상은 바로 나의 외가 경주 부윤(慶州府尹) 나공(羅公) 휘 소(素)의 아들이다. 은진현(恩津縣), 태인현(泰仁縣), 운봉현(雲峯縣) 등지에서 수령을 지냈는데, 재능으로 이름이 났고 고을을 다스릴 적에 치적이 있었다. 운봉 현감이 되었을 때 잠시 남원(南原) 수령을 겸하여 맡았는데, 남원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감사에게 모두 청하여 나후(羅侯)를 태수로 임명해 주기를 원하였으니,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서필원(徐必遠) 군이 관찰사가 되었을 적에 나 군(羅君)을 으뜸으로 여겨 "닭을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오. 다만 고을이 작은 것이 한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서군은 평소 뜻이 높아 남들을 허여하는 경우가 적다고 일컬어지는데 이처럼 칭찬하였으니 그 사람됨이 재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애석할 따름이다.

내 갑오년(1654, 효종5)에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 여염집에 역병이 돌았는데, 나군이 먼저 와서 문상하고, 부수(賻襚)[818]를 마련해 주었으니, 그 후의는 숭상할 만하다. 지금 그 부음을 듣고 또한 슬퍼할 따름이다.

■ 5월 25일 무진(戊辰) 소양(少陽)

낮에 종갓집 숙모 오씨(吳氏)의 부음을 듣고【바로 7촌 숙부 동추공(同樞公) 휘 김준(金俊)의 처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당했을 때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공만 홀로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20년 동안 이역(異域)에

---

818) 부수(賻襚) : 부의(賻儀)의 명칭은 보내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재화는 '부(賻)', 수레와 말은 '봉(賵)', 의복은 '수(襚)', 가지고 노는 물건은 '증(贈)', 패옥은 '함(唅)'이라 한다. '부'와 '봉'은 살아 있는 이를 돕는 데 쓰는 것이고, '증'과 '수'는 죽은 이를 송별하는 데 쓰는 것이다.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었다. 수은(睡隱) 강항(姜沆) 공들과 절개를 저버리지 않고 귀향하였다. 건장한 다섯 아들을 낳아 자손이 끊기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 공의 절의와 용기, 정성과 효성이 드러난 결과이다. 스스로 편찬한 문집 1권이 있다. 외손인 간의대부 나만성(羅晩成)이 서문과 묘지명을 지었는데 세상에 전해진다.】즉시 상차(喪次)로 달려갔는데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도착하여 흑립(黑笠)과 소대(素帶) 차림으로 들어가 곡하고 재배하였다. 마침내 나와서 변복(變服)하고는 상주를 조문하였다. 셋째 아우 김한걸(金漢傑)이 초종(初終)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마시게까지 하였는데, 비록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그 효성은 숭상할 만하다. 나는 그가 이로 인하여 생명을 해치지 않을까 근심하여 직접 그 손가락을 펴서 보니, 네 번째 손가락이 다 잘렸다. 즉시 사람을 시켜 붕사(朋沙)를 구하여 발라 주게 하였다. 대개 이 아우는 평소 효성이 남달랐다. 오씨는 모두 다섯 아들을 낳았다. 모두 다 분가시키고 김한걸의 집에서 봉양을 받으며 살았는데, 오씨는 늘 효성으로 봉양한다고 그를 칭찬하였다. 이에 이르러 이러한 행실이 있었으니, 사람이라면 누군들 사람의 자식이 되지 않겠는가마는,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기는 사람은 만에 하나도 없다. 사람이라면 누군들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기고자 하지 않겠는가마는, 자신을 희생하여 효도를 다하는 것으로 말하면 옛날에도 이러한 사람은 드물었다. 다행히 우리 가문의 형제 사이에서 이러한 사람을 보니 공경할 만하다. 일가 사람이 다 모여 장사를 지냈다.

■ 5월 23일 신묘(辛卯) 대양(大陽)

상차(喪次)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오는 길에 좌랑 임위(林瑋)에게 인사드렸다. 운봉(雲峯) 나염(羅袡)의 상에 가서 조문하니, 그 아들 나두삼(羅斗三), 나두장(羅斗章), 그 아우 도사 나진(羅袗)이 조문을 받았다. 조문한 뒤에 그대로 수운정(峀雲亭)으로 가서 경주공(慶州公)을 위문하였다. 그 차자(次子)인 정읍(井邑) 수령 나반(羅襻)이 곁에서 시중을 들었다. 여든 노인이 울면서 슬픈 마음을 비치니 보기에 참담하였다.

성암(惺菴) 이수인(李壽仁) 공이 별세하였다고 한다. 공은 청련공(靑蓮

公) 이후백(李後白)의 증손으로, 과거에 급제한 뒤에도 벼슬하지 않았고, 두 조정에 걸쳐 정언에 제수되었지만 직임에 나아가지 않았고, 효종조(孝宗朝)에 수찬, 교리, 집의 등의 직임에 제수되었는데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금상(今上)이 즉위한 초기에 선왕의 상차(喪次)에 달려가 조문하고, 이어서 국장을 치른 뒤에 부수찬에 제수되었지만 숙배하지 않고 돌아왔다. 올봄에 또 사간에 제수되었지만 사직 상소를 올리고 출사하지 않았다. 일찍이 월출산(月出山) 아래 안정동(安靜洞)에 집을 지어 방 안 가득히 책을 쌓아 두고 고요히 정양(靜養)한 지 무릇 20년인데, 역학(易學)에 더욱 힘을 쏟았다. 내가 일찍이 가서 절하고 《계몽(啓蒙)》[819]을 논하고, 또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가운데 의심나는 부분을 질정하였다. 말이 카랑카랑하고 동정(動靜)이 편안하니, 참으로 세상을 피해 행실을 깨끗하게 한 선비였다.[820] 다시 월출산의 산사에 함께 가서 조용히 학문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기약하였다. 또 말하기를 "만약 강론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명칭을 싫어하니 비웃음이 따를 것이다. 그 명칭을 버리고 그 실지를 얻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면 참으로 즐거운 점이 있을 것이니, 이것은 우리들이 힘써야 할 바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밖을 제어하는 것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공자와 안자(顏子)의 학문은 먼저 시청언동(視聽言動)을 삼가 하였고,[821]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학문은 더욱 내면과 외면을 함께 기르는 데 삼가였으니, 어찌 세상 사람들을 도외시한 채 성현의 학문으로 내면을 수양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대개 공은 마음이 염정(恬靜)하고 학문을 좋아하였지만 혹 외면을 단속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으므로 내가 넌지시 풍자한 것이다. 공이 빙그레

---

819) 계몽(啓蒙) : 주희가 초학자를 위해 지은 《주역》의 해설서인 《역학계몽(易學啓蒙)》을 말한다.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86년에 완성했다. 이 책은 조선에서도 일찍이 간행되어 유학자들 사이에 널리 읽히고 연구되었으며 역대 왕들이 강독했다.

820) 참으로……선비였다 : 원문은 '眞遯士淸修之士也'인데, 문맥을 살펴 '士'를 '世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821) 공자와……것이고 : 《논어(論語)》 〈안연(顏淵)〉에 "공자가 말하기를, '자기를 억제하여 언어 행동으로 하여금 예에 합치하도록 하는 것이 인(仁)을 한 것이다.'라고 하니, 안연이 그 조목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웃으며 고개를 끄떡였다. 그 뒤에 나도 병이 많아 오히려 산방(山房)에서 강론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서로 편지로 학문을 논할 따름이었다. 지금 그 부음을 들으니 통탄스러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날 정읍 수령 나반(羅襻)과 문답하였다. 나반이 말하기를 “세속에서 초상이 나면 조석상식(朝夕上食)에 고기반찬을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선대로부터 모두 소선(素膳)을 올렸으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니, 내가 말하기를 “예(禮)에 조석전(朝夕奠)에 포해(脯醢)를 쓴다고 하였으니, 상식에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듯하다.”라고 하였다. 나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세속에서 소선을 사용하는 것은 무슨 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옛사람은 반드시 본 것이 있어 소선을 올리는 풍속을 만들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내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옛날에 지방의 풍속이 전적으로 불교의 예법을 따랐다. 사람이 처음 죽으면 재를 올려 승려에게 밥을 먹였으니,[822] 이 풍속은 대개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유자의 집안은 지방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 나반이 수긍하였다.

■ 5월 25일 계유(癸酉) 대양(大陽)

집안의 생질(甥姪) 문봉의(文鳳儀)가 영암(靈巖)에서 돌아와 신성필(愼聖弼)의 편지를 전해 주었다.【편지 내용은 제 9권 <서찰편>에 자세히 보인다.】

■ 6월 22일 기해(己亥) 대양(大陽)

남자종 말생(末生)으로 하여금 두레박으로 샘물을 퍼 올리게 하여 며칠 동안 애써서 겨우 몇 되지기의 땅에 모내기를 하였다.[823] 이를 기록하여 농가의 재앙이 극심함을 드러낸다. 대개 5월 2일 비가 내린 뒤에 아직 쟁기질할 정도의 비가 내리지 않아 검붉게 타 버린 땅이 1000리이니 그 참담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우선 오늘 본 것을 가지고 말하면 백성들의 목숨이

---

822) 재를……먹였으니 : 원문은 ‘設齊飯僧’인데, 문맥을 살펴 ‘齊’를 ‘齋’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823) 겨우……심었다 : 원문은 ‘扱秧僅數升地’인데, 문맥을 살펴 ‘扱’을 ‘移’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가을이나 겨울이 되기 전까지 붙어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백성들은 서로 골목 사이에 마주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따름이다. 이러한 때 백성들의 윗사람이 된 자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지성으로 하늘을 감동시켜 백성들을 살릴 방도를 찾아야 하는데 수령과 관찰사의 직임을 맡은 자는 바야흐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날마다 형륙(刑戮)을 가하면서 사랑하거나 돌볼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으니,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 불쌍한 이 죄 없는 백성들은 장차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나도 모르게 측은한 마음이 들어 여기에 기록한다.

■ 6월 29일 병오(丙午) 대양(大陽)

낮에 가랑비가 동남서쪽에서 내리다가 순식간에 그치니, 백성들의 정상이 더욱 가련하다. 정재(鄭榟)가 와서 말하기를 "이달 25일에 능주(綾州) 어느 읍의 깊은 우물에서 얼음 두 덩어리가 얼었는데, 길이가 1자 남짓이었다. 물을 기르는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이 모여 보는 가운데 끄집어내어 손바닥 위에 올리니 갑자기 녹았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올해처럼 큰 가뭄은 고금에 드문 변고이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목숨이 아침에 저녁을 보장할 수조차 없는데 6월에 얼음이 얼었으니, 이것이 어떤 일의 조짐인가. 두렵고 두렵다.

■ 7월 1일 무신(戊申) 대양(大陽)

오래도록 너무나 가물어 농토가 황폐해졌다. 더구나 여러 해 계속 혹독한 기근이 들었으므로 모든 백성이 다급한 나머지 토지와 재물, 노비, 노리개를 파는 자가 길에 가득하였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마다 틀림없이 죽게 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기색이 없으니 보기에 참담하였다. 아, 평생 독서하였으니 어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는가마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 남을 구제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처자식조차 오히려 구제하지 못하여 굶주림에 울부짖는 소리가 집 안에 가득하니 어찌 한탄스러운 마음을 견딜 수 있겠는가. 옛날 이윤(伊尹)은 한 백성이라도 제 살 곳을 얻지 못한 백성을 하나라도 보면 마치 자기가 그들을 떠밀어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은 것처럼 여겼으니,[824] 학자는 마땅히 이윤의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 하지만 재주가 없어 시행하지 못하고 뚜렷한 행실이 없어 알아주지 않으니 어찌하랴. 날마다 굶주리는 백성들을 보며 탄식할 따름이다. 오늘 장차 배고픔을 면하려고 종을 시켜 남에게 전답을 팔게 하였는데 팔지 못하고 왔기에 느꺼운 마음이 들어 기록한다. 자신의 궁핍함을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요, 시절을 아파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 3일 경술(庚戌) 대양(大陽)

새벽에 전 감찰 홍종문(洪鍾聞)과 관정(館庭)에 들어가 배곡례(拜哭禮)를 행하였으니, 바로 선왕의 담제일(禫祭日)[825]이다. 이날 전 한성부 우윤 신천익(愼天翼) 공의 부음을 들었다. 공은 감사 신희남(愼喜男)의 손자이다. 공의 선고(先考)가 자식이 없어 선비(先妣) 아무개와 함께 지리산(智異山)에서 기도드리고서 잉태하였다. 선비가 푸른 새 한 쌍이 품속에서 나와 한 마리는 하늘로 오르고 한 마리는 바다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는데, 이윽고 출산하니 바로 쌍둥이였다. 장자의 이름을 천익(天翼), 차자를 해익(海翼)이라고 지었으니, 꿈에 나타난 징조를 따라 지은 것이다. 형제는 어릴 때부터 용모가 범상치 않았다. 어려서 현주(玄洲) 조찬한(趙纘韓)에게 배웠는데 아이 때부터 사부(詞賦)로 세상에 이름이 났다. 맏이는 20세에 급제하였고, 차자는 21세에 알성시(謁聖試)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다. 차자의 관직은 원외랑(員外郎)에 이르렀고, 26세의 나이에 졸하였다. 다음은 차자가 졸한 뒤의 이야기이다. 원주(原州)의 문관 최문환(崔文煥)과 아우 최문욱(崔文煜)도 어릴 적에 또한 문사(文詞)에 능하였다. 하루는 형제가 함께 고을의 향교에서 노닐었다. 달 밝은 밤에 최문욱이 나가서 마당을 거닐다가 홀연히 몽롱한 상태에서 어떤 산 위에 이르자, 문사(文士) 10여 인이 둘러 앉아

---

824) 이윤(伊尹)은……여겼으니 : 또 《맹자》 〈만장 상(萬章上)〉에 "이윤은 천하의 백성 중에 필부(匹夫)와 필부(匹婦)라도 요순(堯舜)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그들을 떠밀어 구렁텅이에 집어넣은 것과 같이 생각하였다.[思天下之民匹夫匹婦, 有不被堯舜之澤者, 若己推而內之溝中.]"라는 맹자의 말이 나온다.

825) 담제일(禫祭日) : 상제(祥祭) 후 1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 초상에서 27개월 만이다.

있었는데 말과 모습이 맑고 준수하였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최문욱에게 말하기를 “나는 영암(靈巖)의 신해익(愼海翼)이다. 나의 형이 지금 영암에 있으니, 그대가 나의 소식을 내 형에게 전해주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최문욱이 “예예”라고 대답하니,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최문욱의 집 사람들이 온 산천을 뒤져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니 최문욱이 덩굴 위에 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옷자락을 보니 둥근 뭉치 하나가 있었다. 깨뜨려 보니 천에 가득 사(辭)가 적혀 있었는데, 바로 신해익의 필체였다. 원주와 영암이 멀리 떨어져 있어 최문욱은 신해익이 누구인지 들은 적이 없다. 신천익 공이 이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 끝에 찾아서 그 글씨를 보니, 과연 바로 동생의 필체였다. 그 뒤에 최문환은 급제하였고, 최문욱은 진사시에 합격한 다음 더 이상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참봉(參奉) 최익(崔瀷)에게 들었다. 최익은 신씨와 한 동네 사람이어서 전말을 자세히 아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뒤에 최문환이 영암 군수(靈巖郡守)가 되자 최문욱이 따라갔다. 사람들이 모두 그 일이 사실인지 묻자 최문욱이 자세히 말하였다고 한다.

대개 이 일은 괴이하고 허황한 듯하다. 그리고 공에게 평소 청요직에 오르기를 기대하였지만 한번도 출사하지 않았다. 명성이 당대에 자자하였지만 보통 사람처럼 마음껏 술을 마시고 청담(淸談)[826]하며 작은 절개에 구애받지 않았다. 문을 닫아걸고 세상과 인연을 끊었으니 얼굴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혹 사람을 만나면 즉시 술을 가지고 오라고 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이 방약무인(傍若無人)하였다. 시사에 대해 언급하면 괴이하고 허황된 말로 장난삼아 대답할 따름이었다. 이것으로 본다면 그가 자처한 도리에 필시 뜻한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 부음을 듣고 고인(高人)이 세상을 떠난 것을 개탄하고 아울러 그 이야기를 기록하여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 이력을 알게 하고자 한다.

---

826) 청담(淸談) : 중국의 위(魏)나라와 진(晉)나라 시대에 예법을 무시하고 노장(老莊)의 사상을 숭상하여 현묘한 이치를 담론하는 것을 이른다. 진나라 말기에 팔달(八達)이라고 일컫던 호무보지(胡毋輔之), 사곤(謝鯤) 등 여덟 사람이 예법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날마다 청담을 나누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 7월 7일[827] 갑인(甲寅)

한밤중에 비가 내려 새벽에 그쳤다가 아침을 먹은 뒤에 비가 내렸다. 대개 5월 2일 이후로 오늘 내린 비가 자못 세찼다. 다만 아직 논에 심지 못한 못와 아직 싹이 나지 않은 콩은 어쩔 수 없게 되었다.

내가 방서(方書)에 적힌 속담을 보니 뚜렷한 효험이 많았다.[828] 방서에 "입춘(立春)이 드는 날짜가 천간(天干)으로 갑(甲)과 을(乙)에 해당하면 풍년이 든다.[立春日甲乙 則歲豐]"라고 하였다. 또 "여름 초하룻날에 비가 내리면 배가 마을까지 들어온다.[夏上甲雨下 則船入村巷]"라고 하였다. 올해 1월 5일 을묘일(乙卯日)은 바로 입춘(立春)이고, 5월 16일 상갑(上甲)[829]에 잠깐 비가 내렸지만 모두 효험이 없었다. 속담에 "정월 보름에 달빛이 환하게 비치면 조만간 풍년이 든다.[元望月光澤 早晩占豐]"라고 하였는데 올해 정월 보름에 달이 떴으므로 농민들은 풍년의 조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속담에 "양맥(兩麥 보리와 밀)은 추수를 할 수 있다.[兩麥占西成]"라고 하였는데, 올해 보리농사가 풍년이 들었다고 할 수 없으니,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 앞으로 옛말이 이처럼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한번 맞는 경우는 있다. 속담에 봄비가 자주 내리는 것으로 가모(家母)의 손이 커지는 것에 비유하였는데, 올봄에 봄비가 매우 자주 내려 그 말이 부합하였으나 더러 부합하지 않는 해가 있다.

낮에 문입주(文入柱) 등이 방문하여 전 판서 조경(趙絅)이 작성한 상소의 초고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오랜 가뭄으로 상께서 정전(正殿)을 피하고 조언을 구하자. 조경이 성지(聖旨)에 응하여 상소를 올린 것이다. 그 대략에 "전하께서는 두려워하고 삼가서 재변을 경계하시니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윤선도(尹善道)만 유독 심리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하였다. 상소가 올라가자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

827) 7일 : 원문은 '初七夕'인데, 문맥을 살펴 '夕'을 '日'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828) 뚜렷한 효험이 많았다 : 원문은 '多有明驗'인데, 문맥을 살펴 볼 때 '多'는 '未'의 오자로 추측된다. 하지만 우선 원문대로 번역하였다.

829) 상갑(上甲) : 상갑(上甲)은 춘·하·추·동 각 철마다 첫 번째에 든 갑자일을 가리키는데, 농가에서는 이날의 일기를 가지고 해의 풍흉 등을 점친다고 한다.

"윤선도의 죄악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분개하는 것이고 성상께서 통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경이 도리어 감히 방자하게 두둔하여 터무니없는 말로 남을 속여 현혹하였고, 끌어다가 비유하는 것이 음흉하고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왕명을 출납하는 도리로 볼 때 흐리멍덩하게 입계해선 안 되지만 우선 봉입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이렇게 음흉하고 참담한 상소는 본들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즉시 도로 내주라." 라고 하였다. 처음에 예법을 논쟁하는 일로 인하여 계속 악화되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화란(禍亂)의 기미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차마 말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나라의 일이 망극하다고 할 수 있다.

■ 7월 12일 기미(己未) 소양(小陽)

낮에 동남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니, 온갖 봉우리가 빼어남을 다투어 짙은 옥색을 띠었다. 바라봄에 예사롭지 않아 시 한 구절을 읊조렸다. "옥처럼 기이한 봉우리 수천 개가 솟아 남극성의 반허리와 나란하네.[玉作奇峯列百千 平排南極半腰天]"라는 구절이다.

■ 7월 13일 경신(庚申) 소양(小陽)

한밤중에 일어나 보니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여 달의 기상이 담박하였다. 입으로 한 구절을 읊조렸으니, "폭풍우 몰아쳐 신거(神車)[830]를 움직이네.[顚風急雨運神車]"라는 구절이다.

■ 7월 14일 신유(辛酉) 대양(大陽)

낮부터 별안간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다가 저물녘에 그치니 달이 밝고 상쾌하였다. 또 절구 1수를 지었으니 "용이 창해의 물결을 몰아쳐 큰 바람을 타고 가네.[龍驅滄海駕雄風]"라는 구절이 있다.

■ 7월 15일 임술(壬戌) 소음(少陰)

---

830) 신거(神車) :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신선의 수레를 이른다.

신성필(愼聖弼)이 심부름꾼을 통해 편지로 안부를 물었다. 또 소은(素隱) 신천익(愼天翼) 공의 부음을 알렸는데 6월 15일에 별세하였다고 한다. 또 그 장인 성암(惺菴 이수인(李壽仁))의 상을 애통해하였으니, 말뜻이 간절하였다. 즉시 답장을 보냈다.【9권 <서찰>에 자세히 보인다.】 낮에 '남국 고인 이미 하늘로 올랐네.[南國高人已上天]'라는 구절을 지었다. 이는 소은을 위해 지은 것이다. "바른 도가 전하지 않은 지 이미 백 년이 되었네.[正道無傳已百年]"라는 구절을 지었다. 이는 성암을 위해 지은 것이다.

■ 7월 28일 을해(乙亥) 소음(少陰)

당질(堂侄) 김이상(履相)이 묻기를 "사람이 윤달에 죽으면 기제사는 본달에 붙어 있는 달에 지내는 것이 예법에도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기일에 윤달이 든다면 윤달에 제사 지냅니까?"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이는 변례(變禮)이고 옛 예법에는 상고할 것이 없어서 억측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윤달이라는 것은 천시(天時)의 일정한 것이 아니다. 마땅히 본달에 제사 지내야 할 듯하다."라고 하였다.

南圃集

남포집

제 15 권

卷之十五

남교일기 하
南郊日記 下

■ 1661년(현종2) 윤7월 8일 을유(乙酉) 대음(大陰)

종제 나선(羅褀)[831]이 와서 절하였다. 이 편에 그의 종질 나두삼(羅斗三)[832]이 편지를 부쳐 그 선친인 운봉(雲峯) 군[833]을 임시로 안장하는 예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개 산운(山運)이 길하지 않아 임시로 안장해야 한다는 지관의 주장에 대해 그 부형의 논의가 합일되지 않았으므로 서신을 띄워 질문한 것이다.

■ 윤7월 9일 병술(丙戌) 소음(少陰)

나선이 돌아갔다. 나두삼의 별지(別紙)에 대해 이렇게 답하였다.

"풍수가의 금기설이 마구 횡행하고부터 임시로 안장하였다가 길운이 들기를 기다리는 시속이 비로소 생겨났습니다. 위로 형장(兄長)을 둔 인인(仁人)과 효자는 독단할 수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닦아야 속기도 범하지 않고 경례(經禮)에도 어긋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러한 경우에 처한 자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대부분 관례에 따라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효(大孝)[834]는 고례(古禮)를 근거로 삼아 반드시 대사를 극진히 치르고자 하니 순수한 효성이 지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식견이

---

831) 나선(羅褀) : 1634~?. 자는 정경(整卿),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정개청(鄭介淸)의 문인인 나덕준(羅德峻)의 손자이고, 나경소(羅經素)의 아들이다. 1675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 정랑, 사헌부 장령, 용강 현령(龍岡縣令), 마전 군수(麻田郡守) 등을 지냈다.

832) 나두삼(羅斗三) : 1635~?. 자는 태서(台瑞), 본관은 나주이다. 나염(羅袡)의 아들이다. 1666년 식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제원 찰방(濟源察訪), 사섬시 직장, 공조 좌랑, 태인 현감(泰仁縣監) 등을 지냈다.

833) 운봉(雲峯) 군 : 나두삼의 부친인 나염(羅袡, 1611~1661)이다. 자는 자상(子尙)이다. 생부는 나위소(羅緯素)인데, 나위소는 나덕준의 아들로 남포의 외친이다. 나염은 1642년 식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은진 현감(恩津縣監), 공조 정랑, 태인 현감(泰仁縣監), 운봉 현감(雲峯縣監) 등을 지냈다. 현감으로서 치적을 많이 쌓았고, 특히 운봉 현감으로 재직하면서 남원(南原)의 수령을 잠시 겸직하였는데 남원 주민들이 그를 남원의 수령으로 부임하게 해 달라고 관찰사에게 청원하기도 하였다.

834) 대효(大孝) : 간찰 등에서 상을 치르고 있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이다.

천박하고 고루하여 평소 예학에 밝지 못하니 어찌 감히 망녕되게 한마디 말을 내어 대효의 큰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성스러운 효성에 감격하여 감히 끝내 효자의 애절한 간청을 거절할 수 없겠기에 한두 가지 억설을 대략 갖추어 아래에 열록(列錄)합니다.

이미 송빈(松殯)이나 토빈(土殯)이라고 한다면 유고하여 빈소를 옮기는 예와 같습니다. 또 이미 빈소를 옮긴다고 한다면 조전(祖奠)을 올려 영결하는 절차가 없은 뒤에야 비로소 빈(殯)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임시로 안장한다고 하였으니, 상여 줄을 잡고 발인한 다음 풍비(豐碑)를 세우거나 폄석(窆石)에 매달아 하관(下棺)하는 절차는 온전히 장례를 준용하면서 예증(禮贈)과 제주(題主) 두 조목만은 제외하고 거행하지 않고 '이는 빈례(殯禮)이다.'라고 한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제(虞祭), 졸곡(卒哭), 부례(祔禮) 또한 없애고 거행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광중(壙中)을 파서 하관하고 흙을 채우고 봉분하면 이는 유택(幽宅)이고 둔석(窀穸)인 것이니 반혼(返魂)하고 우제를 지내 신(神)을 편안하게 하는 예를 어찌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즉시 제주하고 나서 축문을 품는 의절도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반복해서 생각해 보건대 대효가 지금은 장례를 준용하고 뒤에 개장례(改葬禮)를 준용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수도에서 관료로 생활하다가 사망한 중국 사람의 경우 만 리 길을 돌아와 장례를 치르는 것이 형편상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송빈이나 토빈의 풍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경은 토질이 건조하고 기후가 차서 벌레나 뱀, 습기로 인한 시신의 손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해양국이라 벌레나 뱀, 개미 떼의 소굴이니 어찌 벌레나 뱀, 습기로 인한 시신의 손상이 정녕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정녕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효자와 인인의 마음은 끝끝내 틀림없이 꺼림칙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반년 동안 임시로 안장하더라도 대략 석회와 격판(隔板)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광중이나 유실(幽室)은 택(宅)이라 하고 묘지나 영역(塋域)은 조(兆)라고 합니다. 비록 수개월 동안 임시로 안장하더라도 수개월 동안은 택조가 되는 것이니 토지신(土地神)에게 고유하는 글에 언급하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을

듯합니다. 더구나 퇴도(退陶 이황(李滉))는 구경산(丘瓊山 구준(丘濬))의 학설을 바꿀 수 있으나 일반인이 주자(朱子 주희(朱熹))의 학설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장자(張子 장재(張載))가 이르기를 '대공(大功) 이하의 상에는 윤달을 계산하고, 기년(朞年) 이상의 상에는 기년으로 끊고 윤달은 계산하지 않는다.'[835] 하였고, 제복(除服)한 자가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는 응당 〈상복소기(喪服小記)〉의 주설(註說)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옥조(玉藻)〉 주석의 '아버지가 상중에 있으면 자식은 순길복(純吉服)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836]는 설을 가지고 미루어 보면 보내온 편지에 상측(喪側)에서 백대(白帶)를 착용한다는 말은 시공복(緦功服)[837]에서 적용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러나 제사에 참석하는 경우는 조복(弔服)을 착용하고 참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장지가 비록 지근거리라고 해도 대여(大轝)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신중함과 공경을 지극히 다하는 태도가 아닐 듯합니다. 더구나 자제가 부형을 섬기는 것은 부형이 자제를 장사 지내는 예와는 크게 다르니 모든 의절(儀節)과 도수(度數)는 구차하게 사용하여 편의를 좇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 지구(知舊)들에게 서신을 띄워 상례(喪禮)의 어려운 점을 질문하는 것은 옛 학자도 그렇게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금성 현감(錦城縣監) 원두추(元斗樞)가 당상관 품계에 처음 가자(加資)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는 포상하기를 청한 어사 김수흥(金壽

---

835) 대공(大功)…… 않는다 : 《장자전서(張子全書)》 권8에 수록된 〈제사(祭祀)〉에 보인다.

836) 아버지가…… 된다 : 《예기(禮記)》 〈옥조(玉藻)〉의 "호관에 검은 무를 다는 것은 아버지가 상중에 있을 때 자식의 관이다.[縞冠玄武, 子姓之冠也.]"라는 구절에 대한 진호(陳澔)의 주에 "호로써 관을 만듦은 흉복이고, 무가 검은색인 것은 길복이다. 길복과 흉복이 서로 반씩 인 이유는 아버지가 상중에 있으면 자식은 순길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以縞爲冠, 凶服也, 武則玄色, 吉也. 所以吉凶相半者, 蓋父有喪服, 子不可用純吉.]"라고 하였다.

837) 시공복(緦功服) : 원문은 '腮功之服'인데, 일반적인 용례에 근거하여 '腮'를 '緦'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興)의 서계(書啓) 때문이었다.[838] 원두추가 부임한 초기에는 엄명하다고 일컬어졌으나 근래에는 온 고을이 떠들썩하게 증오하고 있다. 지금 당상관의 품계에 가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고을 사람들은 원두추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원수 대하듯 김수흥을 거명하며 욕하고 있다.

6월 군민들이 한창 굶주려 고생하던 시기에 민간에 양맥(兩麥)을 독촉해 징수하면서 수도 없이 매질을 가하였다. 또 소금에 절인 조그마한 물고기 덩어리 한 개를 민간에 분배해 주고 대맥(大麥) 3말을 독촉하여 징수하였는데, 3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은 6말을 썼다. 또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자가 발생하자 40여 명을 작은 방 하나에 가둬 놓고 그 문을 잠근 다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돌에 불을 지펴 사람들이 모두 초주검이 된 뒤에야 꺼내 옥에 수감하니 곡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한다.

이런 무자비한 일이 한두 사례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루 다 기록하지도 못할 정도이다. 과거에 듣기로 이 자가 과거 유종(儒宗)의 문하에서 공부하고[839] 더러 청렴하고 강직하며 공정하다고 호평한 자도 있었다고 하였는데 고을의 정사가 이러하니 무슨 이유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다.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 윤7월 25일 임인(壬寅)

아침에 윤숙(尹俶)[840]이 편지를 보내 "지강(砥江)의 가을 흥취가 한창 아름다우니 어찌 구경 가지 않을쏜가." 하였다. 이에 식후에 나는 말채찍을

---

838) 금성 현감(錦城縣監)……때문이었다 : 《나주목읍지(羅州牧邑誌)》에 의하면, 원두추는 1660년 8월 14일에 도임하여 1663년 4월 16일에 이임하였다. 또 《현종실록(顯宗實錄)》 2년 6월 4일 기사에 의하면, 어사 김수흥의 서계로 인하여 금성 현감 원두추 등이 포상을 받았다. 한편 김수흥의 원문은 '金守興'인데, 《현종실록》 이 기사 및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현종 2년 3월 22일 기사에 근거하여 '守'를 '壽'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이하 '金守興'은 모두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839) 이 자가……공부하고 : 원두추는 원두표(元斗杓)의 동생으로, 잠야(潛冶) 박지계(朴知誡)에게 수업하고 이의길(李義吉), 김극형(金克亨) 등과 종유하였다. 《南溪集 권73 廣州府尹贈左贊成元公墓碣銘》

840) 윤숙(尹俶) : 1612~1669. 자는 태초(太初), 호는 양진재(養眞齋),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종형 윤검(尹儉)과 함께 병자호란 때 의병을 결성하여 근왕하고자 하였다. 만년에 도이봉(道伊峯) 아래 서재를 짓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휘둘러 가서 강가의 송정(松亭)에서 종일 소요하였다. 윤생 등은 나를 위해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았다. 흥치가 매우 적의하여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다. 이날 강가에서 절구(絶句) 2수[841]를 읊어 이루었는데 "수면은 명징하여 텅 빈 듯이 맑다.[水面澄明湛若空]"와 "한 줄기 맑은 냇물은 비단처럼 푸르네.[淸流一帶翠如羅]" 등의 구절이 있다.

■ 윤7월 27일 갑진(甲辰) 대양(大陽)

이방(吏房) 정우열(丁遇說)이 와서 진휼하는 일에 대한 감사[842]의 장계를 보여 주었다. 장계에 수록된 9개 조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재해를 입은 고을의 전세(田稅)를 탕감하여 징수하지 않고 초실(稍實)한 산군(山郡)의 전세를 옮겨 재해를 입은 고을의 백성을 진휼하기를 청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지 않는 각 읍의 공물을 각 관에서 거두어 들여 구황할 수 있도록 청하는 것이다. 셋째는 대동법을 시행하는 각 읍에서 아직 거두지 못한 춘등미(春等米) 7말씩을 탕감하여 징수하지 않고, 추등미(秋等米) 6말씩은 거두어 각 읍에 보관해 두어 관수(官需)나 진공(進供)하는 물종(物種)의 값을 충당할 수 있도록 청하는 것이다. 넷째는 지대가 높은 밭으로서 재해를 입은 곳은 재결(災結)을 인정해 주기를 청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재해를 입은 읍의 모든 요역을 모조리 면제하고 군장(軍匠)의 가포(價布)도 모두 경감해 주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값을 내려 관직을 팔기를 청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교생(校生)의 납속(納粟)을 청하는 것이다. 여덟째는 시노비(寺奴婢)나 관노비(官奴婢), 향리가 곡물을 헌납하고 면역(免役)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아홉째는 이 밖에 아직 고안하지 못한 건은 계속해서 장계로 보고할 수 있도록 청하는 것이다.

말이 매우 간절하여[843] 백성을 사랑하고 시국을 근심하는 마음이 언외에 드러났다. 근래 이와 같이 훌륭한 감사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하였다. 다만

---

841) 절구(絶句) 2수 : 본서 권4에 수록된 〈맑은 가을날 지강에 배를 띄우다[淸秋泛舟砥江]〉이다.

842) 감사 : 1661년 6월 5일 전라 감사에 임명된 눌재(訥齋) 이태연(李泰淵, 1615~1669)이다.《承政院日記 顯宗 2年 6月 5日》

843) 말이 매우 간절하여 : 원문은 '辭意懇測'인데, 문맥을 살펴 '測'을 '惻'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조정에서 그의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감사도 시종일관 그 마음을 간직할는지는 모르겠다. 이후로 응당 두고 보겠다.

■ 8월 1일 정미(丁未) 대음(大陰)

신성필(愼聖弼)[844]이 특별히 사람을 보내 편지를 띄워 이성암(李惺菴)[845]의 장삿날을 통고해 주고 만사(挽詞)를 쓸 종이도 곁들여 보냈는데 편지의 말이 간절하였다. 아울러 질의하기를 "사계(沙溪)는 어린아이가 상사를 주관할 경우 우제(虞祭)의 축사(祝辭)에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잠들 때까지[夙興夜處]'나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에 편안치 못하였습니다.[哀慕不寧]'라는 등의 말은 고쳐 써도 무방하다고 하였는데[846] 만약 고친다면 그 말을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장인의 계후자(繼後子)가 현재 13세이므로 감히 묻습니다." 하였다.

■ 8월 9일[847] 을묘(乙卯) 대음(大陰)

영암(靈巖) 문생(文甥) 봉의(鳳儀)[848]로 하여금 성암에게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이날 빗소리가 밤중까지 그치지 않았다. 홀로 앉아 있노라니 초연하여 절구(絶句) 한 수를 입으로 읊어 이루었는데 "소슬한 가을비 소리가 초가 처마를 울리네.[蕭蕭秋雨響茅簷]"라는 구절이 있다.

신성필에게 답장을 보내고 이 편에 만시(挽詩) 배율(排律) 13운(韻)과【제

---

844) 신성필(愼聖弼) : 1626~1674. 자는 여뢰(汝賚), 호는 경암(敬庵), 본관은 거창(居昌)이다. 생원 신광익(愼光翊)의 아들이다. "신 효자(愼孝子)"라고 불릴 정도로 효행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845) 이성암(李惺菴) : 이수인(李壽仁, 1601~1661)이다. 자는 유안(幼安), 호는 성암,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의 증손이며, 이태길(李泰吉)의 아들이다. 1624년 생원 진사시에 모두 합격하고 1633년 증광 문과에 급제하였다. 졸기에 의하면, 천성적으로 관직을 좋아하지 않아 고향에 물러나 지내면서 소명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한다. 특히 역학(易學)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신성필은 그의 사위이다.

846) 사계(沙溪)는……하였는데 : 사계 김장생(金長生)의 《사계전서》 제39권 〈의례문해(疑禮問解) 상례(喪禮) 제주(題主)〉에 보인다.

847) 9일 : 원문은 '初十日'인데, 간지에 근거하여 '十'을 '九'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848) 문생(文甥) 봉의(鳳儀) : 남포의 생질인 문봉의(1638~1709)이다. 자는 성서(聖瑞), 호는 송구(松邱), 본관은 남평(南平)이다. 문우상(文遇尙)의 아들이다. 영암 장암리(場巖里)에 거주하였다.

2권 오언배율에 자세히 보인다.】[849] 제문(祭文)을【12권 〈이 성암에 대한 제문[祭李惺菴文]〉에 자세히 보인다.】 아울러 작성하여 보냈다.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 8월 12일 무오(戊午) 소양(少陽)

오후에 날씨가 청명하여 가을 심사가 맑고 상쾌하였다. 집안을 말끔히 소제하고 단정하게 앉아 책상을 마주하니 사념이 솟지 않고 사지육체가 평안하였다. 어찌 항상 이러한 기상을 잡아 지킬 수 있겠는가. 옛사람이 말한 가을달이나 차가운 얼음의 비유도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 8월 22일 무진(戊辰) 소음(少陰)

오시(午時)에 서풍이 불고 비가 내리더니 한참 만에 그쳤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어제 김중원(金仲源)[850]과 나눈 대화를 생각해 보았다. 중원은 내 과실에 대한 광주(光州) 사람들의 지적을 들어 하나하나 언급하였다. 그중에는 더러 결점을 너무 악착같이 찾아내려고 한 것이나 시론(時論)에 치우친 자의 비난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모두 내가 몸단속이 엄격하지 못하고 마음 다스림이 엄밀하지 못하며 학문을 열심히 하지 않고 말 삼가기를 독실하게 하지 않아 이런 비방을 불렀으니 이 어찌 심히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851]

다만 세상이 한창 논의가 분열되어 인물을 끌어들이고 시비를 분변함에 각각 영합하는 바를 두어 명리를 넘보고 있는데 나는 한 몸으로 모든 세파에 부딪히는 가운데 마음가짐은 공정하게 하고자 하고 처신은 중도를 지키고자 하여 세속의 경도된 풍조로 처신하지 않고 홀로 우뚝 서서 치우치지 않으니

---

849) 제2권……보인다 : 본서 제2권 오언배율 〈만이성암 수인(挽李惺庵 壽仁)〉을 가리키며, 이 외에도 본서 제4권 칠언절구(七言絶句)에 남포가 지은 동일 제목의 만시가 보인다.

850) 김중원(金仲源) : 김오(金浯, 1617~1676)이다. 자는 중원, 호는 칠매(七梅),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명암(鳴巖) 김형(金逈)의 손자이며, 진사 김성로(金成輅)의 아들이다. 우산(牛山) 안방준(安邦俊)의 문인이다. 1660년 증광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851) 이것이……아니겠는가 : 원문은 '此豈可戒可懼之甚者耶'인데, 문맥을 살펴 '豈' 뒤에 '非'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여러 사람의 구설이 집중되는 것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나 스스로 잘못을 하여 남들의 비난을 얻은 것은 이제부터 통렬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의(時議)를 추종하고 그 마음을 바꾸어 유행하는 세태에 동화되는 것은 내가 차마 할 수 있겠는가. 인하여 기록하고 경계하는 바이다.

■ 8월 23일 기사(己巳) 소양(少陽)

북풍이 살짝 일더니 날씨가 청량해졌다. 오전에는 단정히 앉아 심신을 수렴하여 다잡았다. 오후에는 동복(童僕)에게 명하여 마당에 있는 콩대와 들깨를 거두게 하고 짚신에 지팡이를 짚고 그 사이를 왕래하였는데 낫을 들고 콩대를 베기도 하고 지팡이를 짚고 원경을 조망하기도 하고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기도 하니 자못 지극한 즐거움이 있었다. 어느새 석양이 서산에 내려앉자 돌아가는 새가 숲에【다른 본에는 숲[林]이 처마[簷]로 되어 있다.】 깃들었다. 나 역시 유유히 돌아오니 궤안이 깨끗하고 조용한 가운데 경전이 책상에 놓여 있어 즐겁게 훑어보았다. 모두 마음을 맑히고 즐겁게 하는 것이니 어찌 굳이 외물(外物)을 사모할 것이 있겠는가.

■ 8월 24일 경오(庚午) 소양(少陽)

오재발(吳再發)[852]이 서신을 보내 이르기를 “가을 기운이 참으로 상쾌하니 구담(龜潭)의 맑은 물결을 완상할 만합니다. 지금 오랜 벗 한두 명과 강가의 서덜 굽이에서 만나 환담하기로 약속하여 술상을 삼가 마련하였습니다. 혹 어르신을 모시고 하루 동안의 맑은 완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나는 글을 보고 즉시 출발하여 조금 뒤 도착하였다. 사인(士人) 이소(李韶)와 그 아우 이경(李謌),[853] 오재발 형제, 이운단(李雲槫)[854] 등 여러 사람이

---

852) 오재발(吳再發) : 본관은 낙안(樂安)이다. 남포의 장인 매백헌(梅栢軒) 오희일(吳喜馹)의 손자이다.

853) 사인(士人)……이경(李謌) : 이소 형제는 본관이 전의(全義)로, 석탄(石灘) 이신의(李愼儀)의 손자들이다. 이소는 이신의의 장남인 이정길(李貞吉)의 둘째 아들이고 이경은 셋째아들이다.《宋子大全 권159 石灘李公神道碑銘》

854) 이운단(李雲槫) : 이소(李韶)의 큰형인 이호(李頀)의 아들이다.

어른, 아이 8, 9명과 함께 자리를 펴고 앉아[855] 수석 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나를 맞아들였다. 강가 서덜 위에 죽 벌여 앉아 서로 안부 인사를 주고받고 나서 술을 몇 잔 마시게 하는데 아우 해영(海英)[856]이 광주목(光州牧)의 처소에서 도착하였다. 뒤이어 어부가 뗏목을 이용하여 바위 가에 기대어 쏘가리, 잉어 몇 마리를 올리니 아이들에게 명하여 회를 뜨게 하였다. 술을 돌려 마시는 틈틈이 한담을 섞으니 흥치는 흡족하여 매우 즐거웠고 못은 거울처럼 명징하였다. 어슴푸레한 황혼 빛이 언덕의 한 길을 따라서 푸른 잔디에 은은히 비쳐 오자 마침내 함께 작별하고 호탕하게 돌아왔다. 풍진세상의 좋은 놀이였으니 또한 한 가지 즐거운 일이었다.

■ 9월 1일 정축(丁丑) 대양(大陽)

이날 우연히 《초씨역림(焦氏易林)》[857]을 펴 보고 64괘(卦) 384효(爻)를 1년 360일에 분배하는 법을 파악하였다. 64괘 가운데 진괘(震卦), 이괘(離卦), 태괘(兌卦), 감괘(坎卦)를 덜어 내어 사정(四正)[858]으로 삼아 각각 1일에 분배하여 4일을 얻고 60괘는 6×6=36이므로 360일을 얻어 총 364일이 된다. 작년 11월 20일 동지를 복괘(復卦)의 첫 효로 기산(起算)하여 금년 11월 1일 동지에 이르면 364효를 전부 활용하게 된다. 내일부터 날짜에 분배하여 괘를 기재할 계획이다. 다만 10월 28일은 곤괘(坤卦) 상육효(上六爻)에서 분배가 끝나고 그믐날이 남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이후로 응당 다시 상고해 봐야겠다.

---

855) 자리를 펴고 앉아 : 원문의 '반형(班荊)'은 풀을 펴고 앉은 것으로, 길에서 옛 친구를 만나 싸리를 깔고 앉아 정담을 나눔을 말한다. 《春秋左氏傳 襄公26年》

856) 아우 해영(海英) : 남포의 종제인 김해영(金海英)이다. 호는 광곡자(廣谷子)이다.

857) 초씨역림(焦氏易林) : 전한(前漢)의 초연수(焦延壽)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점서이다. 《초공역림(焦貢易林)》 혹은 줄여서 《역림》이라고도 한다. 64괘를 겹쳐 4096개의 변괘(變卦)를 만들어 풀이하였다.

858) 사정(四正) : 《주역(周易)》의 8괘 가운데 감괘, 이괘, 진괘, 태괘로서 곧 4개의 정괘(正卦)이다. 겨울, 여름, 봄, 가을의 사시(四時)를 각각 나누어 주관한다.

■ 9월 3일 기묘(己卯)[859] 간괘(艮卦) 육오(六五)

이날 《초씨역림(焦氏易林)》과 소씨(邵氏)의 도(圖)[860]를 참고하여 64괘를 24절기에 분배하는 도와 도설(圖說)을 만들었다. 따로 기록하고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 9월 5일 신사(辛巳) 겸괘(謙卦) 초육(初六) 소양(少陽)

태수(太守) 조억(趙億)[861] 군이 내방하고 떠났다. 그에게 이달 24일 증광생원진사시(增廣生員進士試)를 설행하고 10월 13일 증광 문무과(增廣文武科) 과장을 설행한다는 말을 들었다. 세자가 탄생한 경사 및 두 자전(慈殿)에게 휘호(徽號)를 올리고 선대왕을 부묘(祔廟)한 경사 때문이었다.[862] 아울러 성상께서 본도 관찰사가 계청한 9개 조목으로 구성된, 백성들을 진휼하는 데 대한 상소를 윤허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생이 소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성상의 은택이 하늘과 같다.

효종대왕이 다섯 명의 공주를 낳아 금상은 형제가 없고 즉위한 지 3년이 되도록 세자를 보지 못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위태롭고 불안하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 세자가 탄생한 경사를 듣게 되니 그 기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8월 15일 진시(辰時)에 탄생하였다고 한다.

■ 9월 12일 무자(戊子) 비괘(否卦) 육이(六二) 소음(少陰)

전 금성 판관(錦城判官) 유준(柳浚)[863] 공이 졸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

859) 기묘(己卯) : 원문은 '乙卯'인데, 전후 간지를 살펴 '乙'을 '己'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860) 소씨(邵氏)의 도(圖) : 소옹(邵雍)의 〈선천도(先天圖)〉를 가리킨다.

861) 조억(趙億) : 남평 현감(南平縣監) 조억(1615~1670)이다. 자는 자수(子壽), 호는 환성자(喚醒子),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현곡(玄谷) 조위한(趙緯韓)의 아들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그는 1661년 6월 29일 남평 현감에 임명되어 7월 12일에 하직하였다.

862) 세자가……때문이었다 : 《현종실록(顯宗實錄)》 2년 8월 20일 기사에 의하면, 당시 네 가지의 경사 즉 숙종의 탄생과 효종의 부묘 및 장렬왕후(莊烈王后)와 인선왕후(仁宣王后)에게 휘호를 올린 일, 명성왕후(明聖王后)의 책례(冊禮)를 기념하여 대증광시(大增廣試)를 거행하기로 하였다.

863) 유준(柳浚) : 1584~1661. 자는 징원(澄遠), 호는 사교당(四矯堂),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유몽익(柳夢翼)의 아들이다. 1606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감찰, 판관의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고

유공은 40년 세월을 벼슬하지 않고 집안에서 지내면서 법도 있게 집안일을 처리하고 서재를 건립하여 후학을 교육하다가 올해 78세로 졸하였다. 상복을 입고 상례를 거행한 제자가 40여 인이었다. 아들 유성오(柳誠吾)는 회덕 현감(懷德縣監)으로 있고 나머지 두 아들인 유창오(柳昌吾), 유형오(柳亨吾)와 손자 유상운(柳尚運)은 문재(文才)를 갖추어 모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 9월 19일 을미(乙未) 췌괘(萃卦) 육삼(六三)

가서 현감을 만났다. 접때 현감이 내방해 준 예에 사례하기 위함이었다. 옛사람들은 공적인 일이 아니면 관할 수령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현감들이 매번 내방하여 예를 다하고 누차 예물을 보내주기도 하여 마지못해 가서 사례하였다. 나같이 거친 사람이 자주 관아에 들어가는 것은 더없이 불편하다. 그러나 선영이 이곳 남평(南平)에 있고 보면 이곳의 현감으로 있는 사람이 예의와 공경을 다하는데도 전혀 답례하지 않는다면 의리에 또한 온당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부득이한 일을 한 것이다.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 10월 7일 계축(癸丑) 관괘(觀卦) 육삼(六三) 소양(少陽)

경차관(敬差官) 여증제(呂曾齊)[864]가 현(縣)의 백성에게 잔혹한 형벌을 자행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보다 앞서 본도는 3년 동안 기근이 매우 혹심하였는데 올해 좌도(左道)는 산읍(山邑)의 농사가 해읍(海邑)보다는 조금 괜찮았다. 그러나 본현의 농사는 해읍과 다름이 없었으므로 감사 이태연(李泰淵) 공이 재해를 입은 군현에 본현을 함께 열거하여 장계로 보고하였다.

금성 현감(錦城縣監) 원두추(元斗樞)는 우의정 원두표(元斗杓)의 아우로

부임하지 않았다.

864) 여증제(呂曾齊) : 자는 여로(汝魯), 호는 동은(洞隱), 본관은 함양(咸陽)이다. 형조 판서 여이재(呂爾載)의 아들이다. 1646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652년 증광 문과에 급제하였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661년 8월 25일에 전남좌도 경차관(全南左道敬差官)으로 부임하였다.

성질이 본래 잔혹하였다. 과거 충주 목사(忠州牧使)로 재직할 당시 이태연 공이 충청 감사로 재직하면서 어떤 일로 원두추를 태거하여 쫓아내었다. 올가을에 원두추가 말미를 받고 서울에 올라와서 어느 재상에게 말하기를 "남평의 농사는 풍년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남평 현감과 오랜 친구 관계이므로 재해를 입어 황폐해졌다고 꾸며 조정에 허위로 보고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재상이 성상에게 보고하니 이로 인해 좌도에 경차관을 파견하여 검증하게 한 것이다. 대체로 남평의 읍정(邑井)이나 하천을 따라 위치한 몇몇 리는 조금 농사가 되었으므로 원두추가 이를 빙자하여 감사에게 화를 덮어씌워 과거의 원한을 갚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9월 12일에 여증제가 영암(靈巖)에서 본읍에 도착하여 전야(田野)는 전혀 자세히 조사하지도 않은 채 도감(都監) 윤선갑(尹先甲), 도서원(都書員) 송대춘(宋大春)에게 장을 쳤다. 송대춘은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또한 거처가 쾌적하지 않다는 이유로 매우 잔혹하게 관아 아전들에게 장을 쳤다. 어제는 또 능주(綾州)에서 현에 도착할 때 향중 인사(鄕中人士)인 전 참봉 서행(徐荇)[865] 등 70여 인과 촌에 거주하는 상놈들 100여 인이 길가에 엎드려서 상서(上書)하여 애걸하고 이어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실상을 진달하였다. 그러자 여증제가 크게 노하여 서행을 모욕하고 그의 종과 상놈들을 옥사에 가두고 감관과 서원(書員) 등 7, 8인에게 혹형을 가하였다.

이보다 앞서 재해를 입어 황폐해진 본읍의 1900여 결(結)을 모두 태거(汰去)하였으나 여증제는 다만 기존 재결(災結)에서 600여 결만 남기고 빼 버렸다. 감사는 하는 수 없이 차재읍(次災邑)으로 조정에 재차 보고하고 곡식과 부역에 대해 징수를 독촉하라고 공문을 보내 알렸다. 이에 사람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원망이 하늘에 사무쳤다. 부랑하다가 죽는 화가 금방 눈앞에 닥쳤는데 본읍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형장이 잔혹하여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백성들에게 또 형륙(刑戮)까지 가해지니 차마 무어라 말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여증제의 화가 기근보다 혹심하다." 하였다.

---

865) 서행(徐荇) : 자는 이택(而澤), 호는 용악(龍岳), 본관은 이천(利川)이다. 후릉 참봉(厚陵參奉)에 임명되었다. 병자호란 때 사재를 다 털어 의병을 모집하여 진사 조수성(曺守誠)과 함께 여산(礪山)에 집결하였다가 청주(淸州)에 이르러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고 돌아왔다.

■ 11월 1일 병자(丙子) 복괘(復卦) 초구(初九) 소양(少陽)

하루 종일 재계하며 지냈으니 오늘은 곧 동짓날이다. 지은 절구(絶句)[866]에 '야반천심(夜半天心)' 등의 시어가 있다.

■ 12월 11일[867] 병진(丙辰) 무망괘(无妄卦) 구사(九四) 대양(大陽)

새벽에 일어나 외조부[868]의 기제(忌祭)를 지냈다. 날씨가 따사로워 제법 봄기운이 있었다. 굶주린 백성들의 고초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도로 위에 굶어 죽은 시신이 즐비하다. 무안(務安) 고막교(古漠橋)[869] 위에 한 여인이 두세 살짜리 아이를 안고 앉아서 한나절이나 통곡하다가 저녁 무렵에 다리 아래로 그 아이를 던지고는 대성통곡하고 떠났다는 말을 들었다. 아마도 굶주림으로 모자가 모두 생존하지 못하는 형편 때문이었을 것이다. 듣고서 너무너무 슬프고 가여웠다.

■ 12월 12일[870] 정사(丁巳) 무망괘(无妄卦) 구오(九五) 대양(大陽)

종질(從姪) 김이상(金履相)이 능주(綾州)에서 곡식을 구입해 왔다. 내가 이르기를 "옛날 계로(季路)는 100리 밖에서 쌀을 져 와 어버이를 봉양하였다.[871] 자식이 어버이에 대하여 힘이 미칠 수 있는 것은 모두 응당 갖은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대기근을 맞아 몸소

866) 절구(絶句) : 본서 권4에 수록된 〈동지(冬至)〉이다.

867) 11일 : 원문은 '十二日'인데, 간지에 근거하여 '二'를 '一'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868) 외조부 : 나원길(羅元吉)이다. 자는 길재(吉哉),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나경(羅絅)의 아들이다. 1606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남평에 거주하였다. 1615년에 남명(南冥) 조식(曺植)을 문묘에 종사(從祀)하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869) 고막교(古漠橋)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나주목(羅州牧) 교량(橋梁)〉에는 '古幕橋'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고막포(古幕浦)에 있는 다리로 소개되어 있다. 현재 함평의 고막천 석교(古幕川石橋)가 이것이다.

870) 12일 : 원문은 '十三日'인데, 간지에 근거하여 '三'을 '二'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871) 옛날……봉양하였다 : 자로(子路)가 일찍이 공자를 뵙고 말하기를 "예전에 제가 양친을 섬길 때는 항상 명아주와 콩잎만 먹는 형편이었으므로, 어버이를 위하여 백 리 밖에서 쌀을 져다가 봉양하곤 했습니다.[昔者由也, 事二親之時, 常食藜藿之實, 爲親負米百里之外.]"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孔子家語 致思》

집안일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그 어버이가 굶주리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는 자가 많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해내어 어버이를 봉양하는 일에 뜻을 두니 내가 몹시 측연하구나.” 하였다.

■ 12월 15일 경신(庚申) 명이괘(明夷卦) 육이(六二) 대양(大陽)

아침에 짙은 안개가 사방을 가득 채워 100보 떨어진 사물의 형상도 식별할 수 없다가 해가 높이 올라온 뒤에 그쳤다. 오늘은 곧 입춘절(立春節)인데 음산하고 독한 기운이 이러하니 이것이 무슨 징후란 말인가. 백성은 굶주려 죽지 않으면 옮겨 다니는데 전염병이 또 따라서 생겨났다. 첫 절기에 음울한 기운이 어둑하게 가득 차니 결코 길한 조짐이 아니다. 놀라운 마음으로 기록한다.

■ 12월 16일 신유(辛酉) 명이괘(明夷卦) 구삼(九三) 대양(大陽)

날씨가 푹하여 중춘과 다를 바 없었다. 낮에 충의(忠義) 윤경(尹儆)[872]의 상에 조문하였다. 반혼(返魂) 때 쓰는 유거(柳車)의 제도는 《가례(家禮)》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세속에서는 상고해 내어 그것을 제작하는 자가 없다. 내가 김재화(金載華)를 시켜 상가에 말하게 하여 그 제도를 자세히 가르쳐 주고 그것을 제작하게 하였다. 그 제도가 더없이 좋아서 호상(護喪)한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고맙다는 뜻을 표하였다.

다만 복토(伏兎)의 제도는 본문을 따르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듯하다. 그래서 긴 장대에 별도로 작은 기둥을 세우고 대의 위쪽 부근에 널의 높이를 헤아려 둥근 구멍을 만들어 작은 방형의 평상[873]에 세운 작은 기둥의 둥근 구멍과 서로 맞게 한 다음 가로 빗장을 만들어 끼우면 기울기가 매우 심한 언덕이나 비탈을 오르내려도 널이 항상 수평을 이루고 반듯하게 된다. 자식 된 자들이 상사를 치르는 대사에 이로부터 그 제도를 서로 전하여 잘못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872) 윤경(尹儆) :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귀와정(歸臥亭) 윤정훈(尹廷勳)의 둘째 아들이다.

873) 작은 방형 평상 : 원문은 ‘小方牀’인데,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등에 의거하여 ‘牀’을 ‘牀’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12월 29일 갑술(甲戌) 기제괘(旣濟卦) 육사(六四) 소음(少陰)

집안을 청소하고 하루 종일 재계하며 지냈으니 오늘은 곧 섣달 그믐날이다. 한 해 농사의 전체적인 상황을 두루 상고하여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봄비가 적기에 내려 백성들이 풍년을 기대하였으나 여름 가뭄이 극성을 부려 농경지가 재해를 입고 황폐해졌다. 가을과 겨울 사이에 굶어 죽은 시신이 즐비하고 도적이 제멋대로 날뛰는 데다 전염병까지 따라서 치성하였다. 유랑민과 노약자들이 쏟아져 나와 도로가 저잣거리 같았다. 그러나 혹리(酷吏)와 탐관(貪官)은 형륙을 자행하여 백성들의 괴로움은 날로 심화되고 달로 증가하였다. 훌륭한 정사가 비록 밝으신 성상에게서 나오더라도 혜택이 아래로 백성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나같이 재야에 있는 자의 근심이 비록 간절하더라도 어쩌겠는가.

붓 가는 대로 사실을 기록하고 또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1년 300일 동안 허송세월하여 낮에는 일어나 있고 밤에는 엎드려 있었으니 무슨 일을 이루었겠는가. 엄밀하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학문은 조금의 진전도 없고 엄격하게 스스로를 단속하지 못하여 비방은 산처럼 쌓였다. 나 자신을 반성하여 스스로 생각해 보니 하늘을 우러러도 부끄럽고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럽다. 내년에는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과거의 허물은 얼음이 녹듯이 사라지고 새로운 지식은 점점 진전되기를 바란다. 그리한다면 노경에 허물이 적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이날 미시(未時), 신시(申時)에 신방(申方)에서 천둥소리가 나고 번갯불이 일더니 이내 비가 내리고 햇빛이 어두워졌다. 폭풍과 소나기가 잠깐 사이 그쳤다 쳤다 하고 천둥소리와 번갯불이 별안간 일었다 사라졌다 하였다. 아주 괴상한 현상이었다.

[임인년(1662, 현종3)]

■ 1월 26일 경자(庚子) 동인괘(同人卦) 구오(九五) 소양(少陽)

근래 일이 없어 고요히 앉아 심신을 수렴하는 여가에 한가로이 《송사(宋史)》를 읽어 보았다. 광종(光宗)과 영종(寧宗) 연간에 이르러 간신이 권력을

장악하고 도학(道學)을 위학(僞學)이라고 지목하니[874] 이를 살펴보고 견딜 수 없이 답답하였다. 이를 보면 오늘날의 일과 같아서 수백 년 전의 일인 줄도 모를 정도이니 책을 덮고 탄식하였다.

■ 1월 27일 신축(辛丑) 동인괘(同人卦) 상구(上九) 소양(少陽)

나는 전에 인심(人心)의 오묘함은 본래 하늘에 부합하나 다만 한 겹의 사심을 뚫고 위로 천리를 통달해야 세상만사를 총괄하여 꿸 수 있고 이를 이루지 못하면 비록 모든 역사를 두루 살펴보더라도 결국은 나의 일에 유익함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역사책을 읽어 볼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근래 한가로이 지내는 여가에 《송사》를 두루 읽어 보니, 엄숙하여 마치 내 자신이 조정에 있으면서 위로는 군부를 따르고 아래로는 재상의 반열에 들어 안으로 각종 정무를 처결하고 밖으로 국경의 변란을 방어하는 듯하였다. 그리하여 나도 모르게 정신은 안정되고 숙연해지며 외면은 단정하고 엄숙해져서 태만한 기운이 심신에 일지 않고 궤안(几案)과 당실(堂室)이 엄숙하여 마치 조정인 것 같았으니 내가 학문을 하는 데 크게 보탬이 되었다. 이는 역사책을 읽는 방법으로 삼을 만하므로 기록해 둔다.

■ 1월 28일 임인(壬寅) 임괘(臨卦) 초구(初九) 대음(大陰)

동풍이 때때로 일고 비가 내릴 기미가 다분하였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미 지나간 세월을 때때로 되돌아보니 사소한 허물과 큰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돌이켜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하늘에 부끄러워졌다. 이제부터 우뚝하게 뜻을 세우고 의연하게 분발하여 옛 습속을 제거하고 날마다 새롭게 터득한다면 죽기 전에는 허물이 적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정(先正)이 말하기를 "몸의 과실을 없애기는 쉽거니와 마음의 과실을 없애기는 어렵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몸의 과실이 있으면

874) 광종(光宗)과……지목하니 : 간신 한탁주(韓侂胄)가 주희의 학문을 위학(僞學)이라 하여 금단한 이른바 경원당금(慶元黨禁)의 사건을 말한다. 영종 경원 연간에 한탁주와 조여우(趙汝愚)가 권력 쟁탈전을 벌일 적에 주희 등이 조여우 편을 들었는데, 한탁주가 득세한 뒤 승상 조여우 이하 59인을 모조리 몰아내는 한편, 도학을 위학이라고 규정하고 일절 금지하도록 하였다.《宋史 권434 蔡元定列傳, 권474 韓侂胄列傳》

사람들이 책망할 수 있거니와 마음의 과실이 있으면 신이 비난할 수 있다.” 하였으니,[875] 이 말은 응당 종신토록 외워야 한다.

■ 1월 30일 갑진(甲辰) 임괘(臨卦) 육삼(六三) 소양(少陽)

하루 종일 조용히 지냈다. 오후에 일어나 동쪽 언덕에서 매화를 구경하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절구(絶句) 한 수[876]를 읊었다.

듣건대 동산에 벌써 매화가 폈다 하기에	聞道東山已放梅
지팡이 짚고 이끼 덮인 길을 한가로이 거닐었네	一筇閒步穿莓苔
꽃 찾는 흥취를 아무도 아는 이 없어서	無人識得尋芳興
나 혼자 소매 가득히 맑은 향기 담아 돌아왔네	滿袖淸香獨自回

봄비가 막 개니 고아한 정취가 이와 같았다.

■ 2월 14일 무오(戊午) 절괘(節卦) 구오(九五) 소양(少陽)

문팔주(文八柱)가 와서 삼인도(三寅刀)를 주었다.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에 제련하여 주조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르기를 “세 번의 인일에 걸쳐 제련하여 주조한 것입니다. 금년 1월 4일이 무인일이고 16일이 경인일이고 28일이 임인일이니 이 3일에 걸쳐 이 도를 완성한 것입니다.” 하였다. 그렇다면 임인년, 임인월, 임인일에 완성하고 또 중간에 무인일과

---

875) 선정(先正)이……하였으니 : 앞 구절은 소옹(邵雍)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권12 〈관물편(觀物篇)〉에 보인다. 뒤 구절은 정확한 출전을 찾을 수 없다. 다만 〈관물편〉에 “입으로 말하는 것이 몸으로 행하는 것만 못하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만 못하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몸으로 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마음을 다하는 것은 신만이 아니 사람의 총명도 오히려 속일 수 없는데 하물며 신의 총명에랴.[言之于口, 不若行之于身, 行之于身, 不若盡之于心, 言之于口, 人得而聞之, 行之于身, 人得而見之, 盡之于心, 神得而知之. 人之聰明, 猶不可欺, 況神之聰明乎?]”라는 구절이 있는데 《심경부주(心經附註)》 권1 불원복장(不遠復章)에 인용되어 있다. 또 《장자(莊子)》 제23편 〈경상초(庚桑楚)〉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불선을 저지르는 자는 사람들이 그를 처벌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악을 행한 자는 귀신이 처벌한다.[爲不善乎顯明之中者, 人得而誅之, 爲不善乎幽閒之中者, 鬼得而誅之.]”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를 인용한 첩산 사씨(疊山謝氏)의 말이 《심경부주》 권1 시이우군자장(視爾友君子章)에 나온다.

876) 절구(絶句) 한 수 : 본서 권4에 수록된 〈동쪽 언덕에서 매화를 구경하다[看梅東皐]〉이다.

경인일에 걸쳐 완성한 것이다. 무(戊)는 중앙의 정색(正色)[877]이고 경(庚)은 서방(西方)의 정금(正金)[878]이고 임(壬)은 북방(北方)의 매서운 기운[879]인 데다 5개의 인(寅)은 맹호의 신(神)이다. 그 기운들을 합하여 이 도에 모았으니 신물이 되는 것도 당연하다. 장차 주옹(主翁)의 쓰임이 되려는가.

■ 2월 19일 계해(癸亥) 중부괘(中孚卦) 육사(六四)

한식절(寒食節)에 큰 비바람이 치던 날씨가 오늘에야 갰다. 그러자 따사로운 기운이 충만하여 만물의 형상이 드러났다. 언덕의 매화는 반이나 떨어지고 정원의 풀은 막 돋아났다. 사물을 관찰하여 이치를 고찰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마음을 살피니 새롭게 터득하는 재미가 있고 옛 습속의 싹이 없어졌다. 《심경(心經)》을 강학하러 온 사인(士人)이 있어 단정히 공수(拱手)하고 조용히 읽으니 깊은 의미를 더욱 깨닫게 되었다. 가령 내가 이와 같은 기상을 길이 보존하여 본심을 보존하고 주장하여 잃지 않는다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진보할 것이다. 그러나 신체에 질병이 많아 외모가 장엄하지 않고 마음이 본래 나약하여 속의 뜻이 확고하지 않은지라 마음이 다스려지는 날은 적고 어지러운 날은 많으며 공경하여 깨어 있는 상태는 적고 혼매하고 나태한 기운은 공경하는 마음을 이김으로써 천리가 발현함은 매우 드물고 외물에 유혹됨은 매우 많게 하니 통탄스러운 마음을 이길 수 있겠는가. 마음이 발하는 바를 붓 가는 대로 기록하여 스스로 경계하는 말을 갖추는 바이다. 다만 붓을 거두고 일기책을 덮은 뒤에 이 생각이 이미 사라지고 다른 생각이 또 생겨나는 것이 두려우니 삼가고 삼가야 한다.

이날 화제(花堤)의 평민이 와서 배알하고 말하기를 "본현에 적을 두고 있는 기민에게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그런데 기민의 수가 1000명을 헤아릴

---

877) 무(戊)는 중앙의 정색(正色) : 정색은 간색(間色)의 반대말로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 다섯 가지 순정한 오방색(五方色)을 가리킨다. 천간(天干) 무는 황색에 해당하며 황색은 오방색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다.

878) 경(庚)은 서방(西方)의 정금(正金) : 천간 경은 오방색 가운데 백색에 해당하며, 백색은 서쪽에 위치한다. 또한 오행으로 보면 정금에 속한다.

879) 임(壬)은……기운 : 천간 임은 오방색 가운데 흑색에 해당하며, 흑색은 북쪽에 위치한다.

정도라서 먹을 사람들은 이미 대단히 많으나 먹을 죽은 매우 적은 데다 관아의 아전들이 또 이를 악용해 농간을 부려서 죽에다 물을 부어 불려서 먹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황달을 앓고 사망자도 매일 1, 2명씩이나 됩니다. 다른 현에서 흘러들어 온 백성들은 죽을 먹이는 것이 또 본현 사람만 못하므로 길가에 버려진 굶어 죽은 시신들이 즐비합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참담해졌다.

이어 기억하건대 며칠 전 내가 광주 목사(光州牧使)[880]와 대화할 때 굶어 죽은 기민의 시신이 낭자한 문제를 언급하자 광주 목사는 대답하기를 "이들은 비록 풍년이 들더라도 농사와 길쌈에 즐겁게 종사하지 않고 하는 일이 없으니 산다고 해도 세상에 유익함이 없고 죽는다고 해도 국가에 손해가 없습니다." 하니, 내가 이르기를 "재주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각각 자기 아들이라 말할 것입니다.[881] 저들이 비록 잔민(殘民)이라 하더라도 부모 된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휼의 정은 백성이 현명하거나 우매하거나 간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건대 목민관이 되어서 그 언사가 이와 같고 속리(俗吏)의 견해가 늘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 곤궁한 이들이 가엾다[882]고 할 만하다.

■ 2월 25일 기사(己巳) 귀매괘(歸妹卦) 구사(九四) 소양(少陽)

광주(光州)의 송후(宋垕)[883]가 생원, 진사 양시(兩試)에 합격하고 박치도

---

880) 광주 목사(光州牧使) : 《승정원일기》 현종 2년 7월 12일 기사 및 《광주읍지(光州邑誌)》 등을 참조할 때 이광재(李光載)라는 인물로 보인다. 자는 계장(季章), 본관은 부평(富平)이다. 진사시와 문과에 합격하였다.

881) 재주가……것입니다 : 이 말은 안연(顔淵)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 안로(顔路)가 공자의 수레를 팔아서 외관(外棺)을 만들기를 청하자, 공자가 거절하면서 한 말이다. 즉 공자는 "재주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또한 각각 자기 아들이라 말할 것이니, 내 아들 리가 죽었을 때에도 관만 있고 외관은 없었다.[才不才, 亦各言其子也. 鯉也死, 有棺而無槨.]"라고 하였다. 《論語 先進》 남포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보살펴 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이 말을 인용하였다.

882) 이……가엾다 : 《시경(詩經)》 〈소아(小雅) 정월(正月)〉에 "부자들은 괜찮거니와, 이 곤궁한 이들이 가엾다.[哿矣富人, 哀此煢獨.]"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이 구절은 다시 《맹자(孟子)》 〈양혜왕 하(梁惠王下)〉에도 인용되어 있다.

883) 송후(宋垕) : 이 당시 생원시와 진사시 방목(榜目)에 의하면 후(垕)가 후(堠)로 되어 있다. 자는

(朴致道)[884]가 진사시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치도는 고 진사 박충정(朴忠挺)의 아들이다. 박충정의 아비[885]가 부유하여 도적에게 피살되었는데 박충정은 도적이 한 마을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3년 뒤 박충정이 그의 종을 시켜 도적 집에서 세포(細布)를 구입하게 하였는데 그 서명을 보니 곧 그 아비의 수표(手標)였다. 또 다른 종을 시켜 도적을 미행하게 하였더니 가게에 의복을 팔았는데 바로 그 아비의 의복이었다. 박충정은 몰래 주관(州官)에게 가서 그 사유를 울면서 고하였다. 이에 주관이 급히 도적들을 체포하여 형신하니 도적들이 곧 자복하였으므로 그 무리를 사형에 처하였다. 박충정은 그 아비가 비명에 죽은 것을 애통해하여 그 아비가 이식을 낸 재물 문권을 가져다가 소각하였다. 또 종신토록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문을 닫고 거의 외출하지 않으니 향리에서 그 얼굴을 본 자가 드물었다.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3년 동안 염탐하여 차분하게 도리를 다함이 이러한 데까지 이르렀다. 문권을 소각하고 과거를 그만두어 영리(榮利)를 초탈하였다. 또 난적에게서 그 아비를 구하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여 종신토록 자책하여 두문불출하였다. 그러니 그 독실한 효성은 가상히 여길 만하다. 그 아들 박치도는 젊은 나이로 소과에 합격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니 사람들이 장차 원대하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아마 박충정이 행한 효행의 보응인 듯하다.

각 읍에서 기민들에게 죽을 쑤어 주는 곳에 시신이 쌓여 있는데 본읍이 한층 심각하여 사망자가 날마다 4, 5인 이상이므로 관아 거리와 골목길에 쌓인 시신이 낭자하여 차마 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을 듣고서 참담해졌다.

■ 2월 29일 계유(癸酉) 규괘(睽卦) 구이(九二) 소양(少陽)

현리(縣吏)가 이조의 관문(關文)을 받들고 와서 배알하였다. 그 관문의 내용을

자후(子厚), 본관은 홍주(洪州)이다. 송수(宋燧)의 아들로 1608년에 출생하여 광주에 거주하였다.

884) 박치도(朴致道) : 1642~1697. 자는 학계(學季), 호는 검암(黔巖), 본관은 순천(順天)이다. 1662년 증광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광주에 거주하였다.

885) 박충정의 아비 : 박언감(朴彥瑊, 1578~1644)이다. 자는 시헌(時獻)이다.

살펴보니 '이달 9일 정사(政事)에서 신(臣) 만영(萬英)을 거두어 서용하여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제수하였으므로 제때 공무를 행하도록 독책하라.'라는 내용이었다. 성상의 하늘 같은 은혜가 미친 바이니 황감하기 그지없다.

■ 3월 2일 을해(乙亥) 규괘(睽卦) 구사(九四) 소양(少陽)

스스로 생각건대 초야의 어리석고 비루한 내가 관직에 임명된 것이 지금까지 세 조정에 이르렀으나 평소의 자취는 조정과 동떨어져 있었다.[886] 그런데 관직에 임명하는 과분한 은혜를 외람되이 누차 받게 되니 비록 순박함을 지키면서 분수에 만족하여 감히 무릅쓰고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항상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두렵고 부끄러워진다. 어쩌면 이로 인하여 경계하여 밤낮없이 전전긍긍 삼가면서 글을 읽고 허물을 반성하며 나태한 태도를 채찍질하여 죽기 전에 혹 비루한 기질을 변화시켜 미세하게나마 진보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만분의 일이나마 누조(累朝)의 큰 은혜에 보답하고 한편으로는 하늘이 부여한 본연의 선량한 품성을 회복한다면 행여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어 사람이 된 도리[887]에 부끄러움이 없게 될 것이다. 인하여 여기에 기록하여 마음과 뼈에 새기는 경계로 삼는다.

■ 3월 4일 정축(丁丑) 규괘(睽卦) 상구(上九) 소양(少陽)

하루 종일 조용히 앉아 맛이 없는 가운데의 맛을 음미하였다.[888] 인하여 절구(絶句) 한 수[889]를 이루니 "고요함을 주장해야 마음이 비고 전일해진다.[主靜方虛一]"라는 구절이 있다.

---

886) 관직에……있었다 : 남포는 인조 때 내시교관(內侍敎官), 효종 때 세마(洗馬), 현종 때 동몽교관 등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는 않았다.

887) 사람이라는……도리 : 《심경부주(心經附註)》 서문(序文)에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어 삼재에 참여하여 만 가지 조화를 낼 수 있는 것은 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人之得名爲人, 可以參三才而出萬化者, 以能不失其本心而已.]"라는 구절에서 온 말이다.

888) 맛이……음미하였다 : 경전(經傳)을 읽어 음미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889) 절구 한 수 : 본서 권1에 수록된 〈주정(主靜)〉이다.

■ 3월 7일 경진(庚辰) 이괘(履卦) 육삼(六三)[890)]

하루 종일 북풍이 불어 누런 먼지가 사방에 자욱하였다. 낮에 임면(任冕)이 내방하였다. 그를 통해 우암(尤庵) 송공(宋公 송시열(宋時烈))이 병조판서에 임명되고 동춘당(同春堂) 송공(宋公 송준길(宋浚吉))이 대사헌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공은 효종의 지우를 입어 작위가 지극히 높아졌으나 금상이 즉위하고 나서 칩거하며 소명에 응하여 나아가지 않은 지가 지금까지 4년이 되었다. 이번에 큰 관직에 임명되어 과연 수레에 멍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달려갈 것인지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때에 하늘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기근이 거듭 닥친 결과 들에는 굶어 죽은 시신이 쌓여 있다. 인심은 이반되고 조정의 기강은 문란하고 대신은 연달아 사망하였다. 그러니 기왓장이 깨지듯 흙이 무너지듯 나라가 망하는 형세가 머잖아 닥칠 것이다. 초야의 천하고 어리석은 나 같은 자도 나도 모르게 한밤중에 일어나 탄식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선왕의 특별한 지우를 입어 작위가 이미 삼공에 오른 두 공은 오히려 오두막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는가.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나도 모르게 들보를 쳐다보며 장탄식을 하게 된다. 인하여 여기에 기록해 둔다.

■ 3월 8일 신사(辛巳) 이괘 구사(九四)[891)]

날씨는 어제와 같되 북풍과 뿌연 먼지는 더욱 심하였다. 몸이 편치 않아 문을 닫고 꼼짝 않고 앉아 신심(神心)을 완양(完養)하였다. 저녁에 들으니 읍에 마련된 죽을 쑤어 주는 곳에서 하루 동안 사망한 자가 7명이나 되고 두 처를 둔 이웃 마을 백성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였는데 두 처가 달아나서 마을의 개가 그 시신을 다투어 물어뜯는데도 족인(族人)들 역시도 수습하지 않았으며, 또 두 아들을 둔 어미가 길가에서 사망하여 개 떼가 다투어

---

890) 육삼(六三) : 원문은 '九三'인데, 전후 간지와 효의 순서에 근거하여 '九'를 '六'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891) 구사(九四) : 원문은 '六四'인데, 전후 간지와 효의 순서에 근거하여 '六'을 '九'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물어뜯는데도 그 아들들이 상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참혹한 인심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가슴 아프기 그지없다. 곧 죽어 가는데도 부자와 부부조차 서로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옛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 가슴 아프기 그지없다.

■ 3월 22일 을미(乙未) 대축괘(大畜卦) 상구(上九)

남구만(南九萬) 공이 진휼 어사(賑恤御史)[892]로 영남에 갈 때 상이 인견하여 인재를 발굴하라고 명하였다. 남구만은 물러나 상소[893]하여 아뢰기를, "이전에 신이 조정에 김만영(金萬英)을 천거하였으나[894] 상께서는 임용하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지금 신이 비록 인재를 발굴하더라도 결국 나라에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상이 특별히 전조(銓曹)에 전지(傳旨)를 내려 조속히 관직에 붙이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동몽교관을 제수한 것이고, 이조 참의 유계(兪棨) 공도 논하여 천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 5월 5일 정축(丁丑) 구괘(姤卦) 초육(初六)

5월은 벽괘(辟卦)[895]가 구괘[896]인 때이면서 이번 단오는 또한 구괘의 초육이 되니 천시(天時)와 괘기(卦氣)[897]가 이와 같이 절로 서로 부합하였다. 천도

---

892) 진휼 어사(賑恤御史) : 원문은 '賑恤御使'인데, 일반적인 용례에 근거하여 '使'를 '史'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893) 상소 : 《승정원일기》 현종 3년 2월 2일 기사에 부사과 남구만이 올린 이 상소의 대개(大槪)가 보인다.

894) 김만영(金萬英)을 천거하였으나 : 남구만의 문집인 《약천집(藥泉集)》 제3 〈인성변진소회소(因星變陳所懷疏)〉에 남구만이 남포와 담양(潭陽)의 유학(幼學) 유진석(柳震錫)을 천거한 내용이 보인다.

895) 벽괘(辟卦) : 벽(辟)은 임금[君]이란 말로, 주관 혹은 통솔의 의미이다. 1년 12개월을 《주역(周易)》의 괘에 배치시키는 것으로, 자월(子月)인 11월은 양(陽) 1획인 복괘(復卦), 축월(丑月)인 12월은 양 2획인 임괘(臨卦), 인월(寅月)인 정월은 양 3획인 태괘(泰卦), 묘월(卯月)인 2월은 양 4획인 대장괘(大壯卦), 진월(辰月)인 3월은 양 5획인 쾌괘(夬卦), 사월(巳月)인 4월은 양 6획인 건괘(乾卦), 오월(午月)인 5월은 음(陰) 1획인 구괘(姤卦), 미월(未月)인 6월은 음 2획인 돈괘(遯卦), 신월(申月)인 7월은 음 3획인 비괘(否卦), 유월(酉月)인 8월은 음 4획인 관괘(觀卦), 술월(戌月)인 9월은 음 5획인 박괘(剝卦), 해월(亥月)인 10월은 음 6획인 곤괘(坤卦)에 각각 배치시키는 것이다.

896) 구괘 : 이는 '음이 처음 생겨 장차 자라는[陰始生而將長]' 괘이다.

897) 괘기(卦氣) : 《주역》의 괘를 사시(四時), 월령(月令), 기후(氣候) 등에 배치한 것을 말하며, 서한(

(天道)의 유행은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하나의 음(陰)이 막 싹트는 초기에 대해 옛사람이 경계하는 말을 세운 것이 지극하였다. 엄동설한의 매서움은 한여름에 음(陰)이 처음 생겨나는 초기에 싹트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크게는 국가의 군자와 소인의 진퇴(進退) 소장(消長)의 기미와 은미하게는 내 마음의 천리와 인욕의 공사(公私)와 사정(邪正)의 구분과 그대로 합치하지 않음이 없다. 그 단서는 매우 은미하여 보기 어렵고 그 자라남은 천지에 가득 미치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 오묘하고 아득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가운데 하나의 음(陰)의 숙연한 기운이 여러 양(陽)의 아래에 이미 조짐이 드러났다. 돌이켜 나의 마음에서 찾아볼 때 남은 알지 못하고 나만이 홀로 아는 곳이 몇 번 음이 자라고 몇 번 양이 회복되었는지 모르겠다. 순임금이 말한 유정(惟精) 공부[898]는 이때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가만히 천시를 대하여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스스로를 성찰하는 바이다.

■ 5월 19일 신묘(辛卯) 정괘(鼎卦) 구삼(九三) 대음(大陰)

아침에 종가에서 연제(練祭)를 거행하였는데 나는 몸이 편치 않아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내다보니 푸른 소나무가 골짝에 가득하고 푸르른 나무가 섬돌을 따라 서 있었으니 옛일을 생각하여 감개에 젖는 회포를 가누지 못하였다. 나의 고조이신 진사공(進士公)[899]의 생질인 박사암(朴思庵 박순(朴淳))이 선묘조(宣廟朝) 때 정승이 되어 휴가를 청해 귀향하여 외선조의 묘소를 살폈다. 진사공께서 이를 영예롭게 여겨 이곳에 재소(齋所)를 건립하여 흥경사(興慶寺)라고 명명하셨는데 정유재란 때 사찰이 병화로 무너졌다. 나의 조부공[900]께서 터의 동북쪽에 작은 집을 짓고

西漢)의 맹희(孟喜)가 처음 창안하고 경방(京房)이 발전시켰다.

898) 유정(惟精) 공부 : 유정은 정(精)하게 살핀다는 의미이다. 《심경부주》 권1 서인심도심장(書人心道心章)에 순임금이 말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묘하니 정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야 진실로 중도를 잡을 것이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는 구절이 인용되어 있다.

899) 나의 고조이신 진사공(進士公) : 김두(金斗)이다. 자는 가균(可均), 호는 모암(慕庵), 본관은 당악(棠岳)이다.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 나주(羅州)의 진사 11명과 함께 조광조를 신원하는 운동을 펼친 인물이다.

900) 조부공 : 김원록(金元祿)이다. 사암(思庵) 박순(朴淳)의 문인이다. 임진왜란으로 일가가 화를

벽송당(碧松堂)이라고 명명하셨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졌다. 현재의 이 벽송당은 내가 여러 족인과 함께 도모하여 건립한 것이다. 인하여 생각건대 어릴 적에 선부형(先父兄)과 여러 어른을 따라서 선대의 묘소를 왕래하며 보살피고 이곳에 나아가 묵었던 것이 완연히 어제 일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난 옛 자취가 되었다. 가만히 깊이 생각하매 마음을 가누기 어렵다.

■ 6월[901] 27일 무진(戊辰) 송괘(訟卦) 구사(九四) 소음(少陰)

저녁에 문삼고(文三古)[902]가 영암(靈巖)에서 와서 절하였는데 곧 나의 외가 친척 동생이다. 그가 묻기를 "형께서 전에 강진(康津)의 청련(靑蓮)을 모신 사우(祠宇)[903]에 보내는 통문(通文)을 작성하여 성암(惺庵) 이수인(李壽仁)을 본사(本祠)에 배향해야 한다고 하셨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이르기를, "영암의 사인(士人)들은 대부분 성암은 본사에 배향할 만한 인물이 못 될 뿐더러 권하여 배향하도록 한 것은 또한 지나친 처사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말을 시끄럽게 전하고 들은 자들도 휩쓸리고 있습니다. 형께서는 그 비방에 대해 해명할 말이 없습니까?" 하니, 내가 이르기를 "그럴 만도 하겠지. 명월주(明月珠)나 야광벽(夜光璧)을 어두운 밤길을 가는 사람에게 던져 줄 경우 칼을 어루만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은 어째서이겠나?[904] 과거에 드물게 보던 것을 갑자기 대하면 마음이 떨리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신도 모르게 대로하기 때문이니 이는 곧 인지상정이라네. 지금 이공(李公)은 궁벽한 골짜기에 깊이 은거하여

입게 되자 이로부터 과거를 단념하였다고 한다.

901) 6월 : 원문에는 없는데, 간지에 근거하여 '六月'을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902) 문삼고(文三古) : 1633~1699. 자는 태초(太初), 본관은 남평(南平)이다. 문현(文玹)의 아들이다.

903) 강진(康津)의……사우(祠宇) : 강진 서봉서원(瑞峯書院)을 가리킨다. 청련(靑蓮)은 이후백(李後白, 1520~1578)의 호이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수인(李壽仁)은 이후백의 증손이다.

904) 명월주(明月珠)나……어째서이겠나 : 이는 《사기(史記)》 〈추양열전(鄒陽列傳)〉의 "신은 들으니, 명월주나 야광벽을 어두운 밤 길 가는 사람에게 던져 줄 경우, 칼을 어루만지며 노려보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까닭 없이 보물이 앞에 이르기 때문입니다.[臣聞明月之珠夜光之璧, 以闇投人於道路, 人無不按劍相眄者, 何則? 無因而至前也.]"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수인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주는 이가 세상에 없다는 의미이다.

사람들이 공의 얼굴을 보는 일이 드물었고 비록 어쩌다 사람들과 접하는 경우라도 말하고 웃거나 행동하는 것이 남들과 같고 음식을 먹거나 기거하는 것이 남들과 같아서, 공을 본 자들이 평소 내심 공을 만만하게 봤다가 이제 큰일을 도모하는 나의 말을 듣고 모두들 놀랍고 괴이쩍게 여기는 것이니 또한 인지상정이네. 지금 속인들은 속으로 유자(儒者)의 생김새나 안색, 먹는 음식이나 행동은 반드시 일반 사람과는 판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만나보고 다른 사람들과 같으면 '저 사람 역시 평범한 사람이지 유자가 아니다.' 하니, 이것이 맹자(孟子)가 부득이 요순(堯舜)도 일반 사람과 똑같으셨다[905]고 발언한 까닭이네. 저 이공은 만년에 깨달아 학문에 뜻을 두어 문을 닫아걸고 뜻을 구한 인물이라네. 그 행위와 언동은 본래 세속을 놀라게 하는 사업은 없었으니 오늘날 속인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나." 하였다. 그가 이르기를 "유자는 일반 사람들과 다를 수는 없습니까?" 하니, 내가 이르기를 "깊이 은벽(隱僻)한 이치를 찾은 뒤라야 속인의 마음을 놀라게 할 수 있다거나 지나치게 괴이한 짓을 행한 뒤라야 세인의 이목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말은 유가(儒家)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일세. 그래서 군자의 말은 일반인과 같으면서도 같은 가운데 절로 같지 않은 것이 있고, 군자의 행실은 일반인과 같으면서도 같은 가운데 또한 같지 않은 것이 있네. 같은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같지 않은 것은 어찌 일반인의 이목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겠나. 미처 알지 못한 이상 그들이 공을 폄훼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공을 폄훼한 것은 아니네." 하였다.

---

905) 요순(堯舜)도……똑같으셨다 : 《맹자(孟子)》 〈이루 하(離婁下)〉에 보인다.

■ 8월 13일 계축(癸丑) 돈괘(遯卦) 초육(初六)

날씨는 환하고 상쾌하며 당실은 한갓진 가운데 홀로 책상 앞에 앉거나 누워서 고서를 보았다. 절구(絶句) 한 수[906]를 입으로 읊었는데 “푸르고 맑아라 가을 하늘 개니[碧淨秋天霽]”라는 구절이 있다.

■ 9월 10일 경진(庚辰) 점괘(漸卦) 육사(六四)

《역도설(易圖說)》[907]을 보고 느낌이 있어 이런 절구(絶句) 한 수를 이루었다.

주역의 도 밖에 존재하는 천지는 없거니와	易外無天地
복희와 문왕은 그림자와 형체를 그렸을 뿐이네	羲文畫影形
모름지기 천지의 이면을 따라서	須從天地裏
괘획의 이름을 점검해 보아야 하리	點檢畫中名

《주역》의 도는 천지간에 유행하여 모든 초목금수와 멀게는 고금, 가깝게는 한순간까지 한 물건, 한 시각도 역이 아닌 것이 없으니 역의 전체가 천지에 깃들어 있거니와 저 복희의 괘획(卦劃)과 문왕의 괘사(卦辭)는 다만 그림자와 형체를 그려냈을 따름이다. 상지(上智)는 괘획과 괘사가 없어도 진실로 하늘에 있는 역을 묵묵히 알 수 있고, 중지(中智) 이하의 선비 또한 괘사를 통해 괘획을 알고 괘획을 고찰하여 하늘을 알 수 있다.

■ 10월 18일[908] 무오(戊午) 췌괘(萃卦) 육이(六二) 대양(大陽)

금성(錦城)의 유점(柳簟)이 내방하였는데 효자 유공신(柳公信)[909]의 아들이고 나에게 외가 8촌이다. 유공신은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자

906) 절구(絶句) 한 수 : 본서 권1에 수록된 〈책을 보다[看書]〉이다.

907) 역도설(易圖說) : 남송 오인걸(吳仁杰)이 지은 책으로, 《주역(周易)》의 괘와 효의 변화 및 점치는 법을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908) 18일 : 원문은 ‘初八日’인데, 간지에 근거하여 ‘初’를 ‘十’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909) 유공신(柳公信) : 1579~1655. 호는 송계(松溪),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장성해서 6년 동안 추복(追服)하고 종신토록 묘소 아래 거처하면서 조석으로 성묘하되 날씨가 아무리 춥거나 더워도 그만두지 않으니 묘전(墓前)의 부복(俯伏)한 곳은 이 때문에 풀이 자라지 못하였다. 목사 이여익(李汝翊)[910]이 그의 효행에 대해 듣고서 그를 내방하고 문밖에 있는 고송(孤松)을 봉하여 효자송(孝子松)이라고 명명하였다. 뒤에 조정에서 그의 효행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그 문에 정표(旌表)하였다.

■ 10월 29일 기사(己巳) 관괘(觀卦) 구오(九五) 소음(少陰)

종을 시켜 황두(黃豆) 4말을 가지고 시장에서 목(木)을 구입해 오게 하였으나 구입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금년 봄과 여름 사이에 굶어 죽은 시신이 언덕을 이룰 정도로 쌓인 가운데 목 1필에 대해 미(米) 2되 값을 쳐 주고 두(豆) 4되로 교환하고자 해도 사람들이 오히려 구입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그런데 몇 달 뒤 작황이 평작보다 조금 나아지니 목 1필이 조(租) 8, 9말 값이 되고 두 5, 6말에 교환되며, 물고기 1미(尾)는 곡물 몇 말 값이 되었다. 또 시장에 주육(酒肉)이 넘쳐나고 여항(閭巷) 구석구석에서 떼지어 가무를 하니 낭비하기 좋아하고 안일해지기 쉬운 인정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현재는 농사가 비록 평작보다 조금 낫다고 해도 다년간 체납된 공채(公債)며 사채(私債)에 대해 일시에 징수를 독촉하고 대동법(大同法)을 이 시기에 또 시행하여 다년간 거두지 못한 각 관사의 공물(貢物)에 대해 또 긴급하게 규정대로 독촉하고 있다. 백성들이 먹을 식량의 여유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민심이 우매하여 미거(未擧)하게도 경계할 줄 모르니 국사와 민심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 보인다. 서글픈 마음으로 기록한다.

■ 11월 11일 신사(辛巳) 복괘(復卦) 육삼(六三)

동짓날이니 새벽에 일어나 가묘(家廟)를 참배하였다. 눈보라가 아주

---

910) 이여익(李汝翊) : 1591~1650. 자는 비경(棐卿), 호는 수봉(秀峯), 본관은 벽진(碧珍)이다. 이응원(李應元)의 아들이다. 1649년(인조27)에 나주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이듬해 재임 중 관소에서 사망하였다.

매서워 하루 종일 문을 닫고 앉아 미양(微陽)을 길렀다.[911] 지은 시에 "일양이 회복된 것이 천근이다.[一陽來復是天根]"[912]라는 시구가 있다.

■ 12월 7일 병오(丙午) 서합괘(噬嗑卦) 육삼(六三) 대음

낮에 이서(里胥)가 와서 환곡을 매우 절박하게 독촉하였다. 또 산성에 쌀을 운반하고 경대동미(京大同米)를 납부하고 관사에 땔감을 납부하는 등의 역(役)에 대해 매우 철저하게 독촉하였다. 3년 동안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장기간 관곡(官穀)을 거두지 않다가 올해 농사가 조금 잘되었다고 하여 다년간 체납된 빚에 대해 일시에 징수를 독촉하고 다른 군에 옮겨 진휼하거나 산성에 운반하는 쌀과 대동의 무거운 부세를 중첩적으로 각박하게 거두고 있다. 올해 농사가 다소 풍년이 들었다고는 하나 유랑하는 백성들이 아직 안착하지 못하였고 굶주려 고달픈 고통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하였다. 올해 목화 농사가 또 너무도 시원찮아 굶주림을 겪고 난 백성들이 몸에 온전하게 옷을 갖추어 입은 자가 없다. 군현의 감옥은 꽉 차 있는데 더군다나 한정(閑丁)을 색출하여 충정(充定)하라는 명령이 아침저녁으로 성화처럼 다급하여 일족들까지 침탈을 당하는 화가 소란스럽게 여염에 가득하다. 근심에 젖어 탄식하는 얼굴빛과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도로에 넘쳐나고 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르기를 "연전의 기근 때 죽지 못하여 이런 온갖 재앙에

---

911) 미양(微陽)을 길렀다 : 미양은 곧 동지에 일양(一陽)이 처음 생기는 아주 미약한 양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안정시켜 기른다는 뜻이다. 《주역(周易)》 복괘(復卦) 상사(象辭)에, "우뢰가 땅속에 잠재한 것이 복이니, 선왕이 그것을 인하여 동짓날에 관문을 닫는다.[雷在地中復, 先王以, 至日閉關.]"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이(程頤)는 "양이 처음 생겨남에 매우 미미하니 안정한 뒤에야 자랄 수 있다. 그러므로 복괘의 상사에 '선왕이 이것을 보고서 동짓날에 관문을 닫는다.' 하였다.[陽始生, 甚微, 安靜而後能長. 故復之象曰'先王以, 至日閉關.']"라고 하고, 주희는 "하나의 양이 처음 회복함에 양기가 매우 미미하니, 수고롭게 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안정하여 미미한 양을 길러야 하는 것이니, 마치 사람이 선한 마음이 막 싹트려고 할 적에 바로 안정하여 기르고자 하여야 비로소 성대해지는 것과 같다.[一陽初復, 陽氣甚微, 不可勞動. 故當安靜以養微陽, 如人善端方萌, 正欲靜以養之, 方能盛大.]" 하였다.

912) 일양이……천근이다 : 본서 권5에 수록된 〈동짓날에 느낌이 있어 읊다[長至日有感]〉에 보이는 구절이다. 천근(天根)은 소옹(邵雍)의 말인데 그의 시 〈관물음(觀物吟)〉에 "건이 손을 만난 때 달의 굴을 보게 되고, 지가 뇌를 만난 곳에 하늘의 뿌리를 볼 수 있다.[乾遇巽時觀月窟, 地逢雷處見天根.]" 하였다. 천근은 양효(陽爻) 하나가 맨 밑에서 생겨난 지뢰복(地雷復)괘를 뜻한다.

걸려들게 된 것이 한스럽구나.” 한다. 아, 민생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도 은택을 베풀기를 건의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심지어 견감(蠲減)해 주라는 명령이 비록 성상의 하교로 내려지더라도 부세 징수가 주현에 극도의 해악을 끼치고 있으니 한탄스러운 마음을 견딜 수 있겠는가. 한갓 칠실(漆室)의 이부(嫠婦)가 한탄하는 마음[913]을 품고 누추한 집에서 탄식만 할 뿐이니 말해 무엇 하랴.

■ 12월 30일 기사(己巳) 비괘(賁卦) 육이(六二) 대음(大陰)

하루 종일 재계하며 지내면서 세밑을 보내었다. 올해는 봄여름에 대기근이 들어 굶어 죽은 시신이 언덕을 이룰 정도로 쌓였다. 또 농사가 비록 평작보다 조금 낫다고 해도 부세 징수가 너무도 가혹하여 여염에는 해를 넘길 거리가 없다. 대체로 여름 동안 주현에 쌓인 시신이 낭자하고 곤경에 처하여 떠도는 유민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는데도 수령은 감사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감사는 한갓 수령의 말만 믿고 또한 조정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채(官債)의 상환이나 대동법의 설행, 군정(軍丁)에 대한 다급한 수괄(搜括)로 위태롭게 독촉하고 그 화가 일족이나 이웃에까지 미쳤다. 그리하여 군현의 감옥에는 수감된 자가 시장에 몰려든 사람처럼 많고 관정(官庭)에는 매 맞아 흘린 피가 흥건하였으니 차마 말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한 해가 장차 저물어 가는 이때 나의 한 해 동안의 몸과 마음의 일이 일상생활에 드러난 것을 묵묵히 생각해 보면 비록 큰 허물은 없었으나 은미한 사려나 학문을 진전시키는 공부, 물들어 버린 기질, 비루한 구습의 측면에서 보자면 확연하게 변화시킨 공효가 없었다. 방 안에 고요히 앉아 이미 지나간 일을 점검해 보니 나도 모르게 하늘을 우러러도 부끄럽고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러워진다.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내년에 두려워하고 반성하는 근본으로 삼는 바이다.

---

913) 칠실(漆室)의……마음 : 분수에 지나친 근심을 뜻하는 말이다. 춘추 시대 노(魯)나라 칠실이라는 읍에 과년한 처녀가 자신이 시집가지 못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나라의 임금이 늙고 태자가 어린 것을 걱정하여 기둥에 기대어 울자 이웃집 부인이 비웃으며 “이는 노나라 대부의 근심이지 그대가 무슨 상관인가.”라고 하였다. 《列女傳 권3 漆室女》

나는 어릴 때 서책의 면지(面紙)나 공행(空行)에 글씨 쓰는 것을 좋아하였다. 열일곱 살 때 정헌(靜軒) 고공(高公)[914]을 뵈었는데【공은 선생의 부인의 외조부이고 제봉(霽峯)의 셋째 아들로 관직은 정랑이다.】 공은 예학(禮學)에 심오하고 기풍이 매우 단중(端重)하였다. 공을 모시고 이야기할 때 마침 서책의 면지에 난잡하게 쓰인 초서 글자가 있는 것을 보고 공이 대뜸 이르기를 "나는 평소 서책을 더럽히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더구나 성현의 경전은 신명처럼 공경하고 부모처럼 존경해야 하거늘 어찌 묵필(墨筆)로 긁적일 수 있단 말인가. 마음 씀이 단정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만하구나."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두려워지고 얼굴이 발개진 채로 지난날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이때부터는 서책에 점 하나도 함부로 찍지 않았다. 아, 내가 만약 일찍 현명한 스승을 따라서 배움에 힘썼더라면 오늘에 이르러 사람됨이 이와 같겠는가. 우연히 옛일이 생각나서 서글픈 마음으로 기록한다.

[계묘년(1663, 현종4)]

■ 2월 8일(정미) 임괘(臨卦) 육삼(六三)

3경(更) 4점(點)에 일어나 손과 얼굴을 씻었다. 공복(公服)을 입고 홀(笏)을 쥐고 성묘(聖廟)에 나아가 석전례(釋奠禮)를 행하였다. 늘어선 성현의 모습이 엄숙하여 향을 피우고 술을 붓자니 양양(洋洋)히 앞에 계신 기상을 뵌듯하여 내 마음이 저절로 공경스러워졌다. 예를 마치고 문을 나서니 날이 이미 새벽이 되었다. 공복을 벗고 다시 재(齋)로 나아가 앉았다. 한낮에 생도들과 준여(餕餘)를 조금 마시고 돌아왔다.

---

914) 정헌(靜軒) 고공(高公) : 고순후(高循厚)이다. 자는 도상(道常), 호는 정헌, 본관은 장흥(長興)이다. 제봉(霽峯) 고경명(高敬命)의 아들이다.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 때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다. 남포의장인인 매백헌(梅栢軒) 오희일(吳喜馹)이 그의 사위이다. 그는 고경명의 넷째아들인데 삼남인 고준후(高遵厚)가 일찍 사망한 관계로 본서에서 셋째아들이라고 일컬은 듯하다.

■ 7월 13일 무인(戊寅) 승괘(升卦) 상육(上六) 대양(大陽)

광주 부윤(廣州府尹)[915] 원두추(元斗樞)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사람은 평소에 혹리(酷吏)라고 일컬어졌다. 금성(錦城)에서 광주(廣州)로 옮겨 제수되자 이졸(吏卒)들이 형벌로 죽은 자가 많았다. 적도(賊徒)들이 한밤중에 도성(都城)에서 소리치며 그가 금성에 있을 때 보낸 사운선(私運船) 2척이 막 경강(京江)에 정박했다고 하자 잡아오라는 명이 비로소 내려졌다. 원두추는 은밀히 먼저 듣고 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그의 사인(舍人)은 그가 상한(傷寒)을 앓았는데 땀을 내지 않아 죽었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 말은 길가에 떠도는 소문이라 믿기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거듭 전했기 때문에 우선 적어 둔다. 다만 금성 사람들은 백성마다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통쾌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가 크게 인심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9월 4일 무진(戊辰) 둔괘(遯卦) 육이(六二)

금성 현감(錦城縣監) 윤부(尹)가 대간(臺諫)에게 논척을 당해 돌아가려 한다고 들었다. 공은 관직을 맡은 지 몇 달 만에 치적(治績)으로 명성이 크게 일어났다. 백성들과 조례를 정하고 권계(勸戒)를 게을리하지 않아 고을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정언(正言) 소두산(蘇斗山)[916]이 공의 나이가 많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고 탄핵하였으나 상께서 윤허하지 않으시자 사간원의 계사(啓辭)가 그치지 않았다. 공은 기별을 듣고 즉시 수레를 내어 돌아갔다. 고을 사람들이 문을 지키고 수레를 붙잡아 문을 나서지 못하였다고 한다.

봄 무렵 무관(武官) 홍우익(洪宇益)이 영암(靈巖)을 다스리면서 치적으로 인한 명성이 도내에 으뜸이었는데 탄핵을 당해서 떠나고, 윤공도 엄중한

---

915) 광주 부윤(廣州府尹): 원문은 '廣州府君'인데, 문맥을 살펴 '君'을 '尹'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916) 소두산(蘇斗山): 1627~1693. 자는 망여(望如), 호는 월주(月洲),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울분 끝에 병사하였다. 서인 집권하에서도 처신이 근신하지 못하여 공의(公議)에 버림받았고, 향촌에 있을 때는 무단(武斷), 수령 재임 때에는 탐관오리라는 비난을 받았다.

탄핵을 당하였다.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좋은 수령이라는 명성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백성들에게 학정을 펼치는 것이 상책이라네. 그대는 홍우익과 윤부를 보게나. 백성을 사랑하면 엄중한 탄핵을 당한다네.[欲保美守令 虐民爲上策 君看洪與尹 愛民被重劾]"라고 하였다.

■ 10월 5일 기해(己亥) 건괘(蹇卦) 구삼(九三) 대양(大陽)

경차관(敬差官) 이관징(李觀徵)이 오늘 현에 들어왔다고 들었다. 올해 재해로 인한 손실이 참혹하였지만 나라에서 재결(災結)을 처리하는 정사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관리들이 동정을 살피느라 두려워하여 과반(過半) 정도 재해로 손상을 입은 화곡(禾穀)은 전혀 재결에 넣지 않았고 10분의 7 이상인 경우만 겨우겨우 장부에 적어두었다. 본읍의 재결이 겨우 700여 결(結)이었지만 감사는 오히려 재전(災田)이 지나치게 많다고 화를 내고 재해로 손상을 입은 것이 10분의 8 이하인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다. 백성들의 실망이 마치 부모를 잃은 듯하였다. 나머지 다른 고을도 모두 그러하였다. 가을 무렵 혹독한 가뭄의 여파로 주상께서 특별히 애통한 마음을 담은 하교를 내려 백성을 위로하시니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히 솟아나 듣는 자들이 감격하고 기뻐하였다. 하지만 백성을 보호하는 실제 일이 이처럼 공허하니 이른바 지극한 은택이 백성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이 어찌 우리 임금의 잘못이겠는가. 통탄스럽다.

■ 12월 30일 계해(癸亥) 수괘(隨卦) 상육(上六)

이날은 제석(除夕)이다. 한 해의 일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 날씨가 절기에 맞지 않아 삼농(三農)이 여물지 못하여 백성이 먹고살기가 어려웠고 포흠(逋欠) 난 것을 갚으라는 독촉에 민심이 흉흉하였다. 재이(災異)가 자꾸 발생하고 우역(牛疫)이 매우 심하고 조수(鳥獸)가 저절로 죽으니 이것이 무슨 영향일까?

돌이켜 내 몸과 마음을 점검해 보았다. 1년 동안 행위가, 이 마음은 고요한 때보다 흔들리는 때가 많았고 안정된 순간보다 혼란스러운 순간이 많았으며 일을 하는 순간마다 겉으로 드러났다. 집안을 다스리는 예법도 남을 대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허물은 없었더라도 자질구레한 생각이나 혼자 한가하게 있을 때면 간혹 하늘에 부끄럽고 사람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평소에 힘을 쓴 것이 한 치의 마음과 일곱 자의 몸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위로 하늘의 뜻을 받들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서 바로잡는 일에도 여전히 집안 가득한 부끄러움이 있다.

삼가 죄의 근원을 살펴보자면, 그 싹은 실로 입심(立心)이 견고하지 못하고 기질(氣質)에 편협함이 많아 찌꺼기를 없애지 못하고 외물(外物)에 쉽게 이끌리는 데서 나오고, 병의 근원이 오로지 심지(心志)가 분명하지 않고 이치를 정밀하게 밝히지 못한 데 있어 선악의 기미에 대해서 용맹하게 표준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묵묵히 헤아려 보건대 내년이면 41세가 되니 척연(惕然)함이 심해져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갑진년(1664, 현종4)]

■ 1월 5일 무진(戊辰). 무망괘(无妄卦) 구오(九五) 소음(少陰)

유생 홍일뢰(洪一耒)가 말하기를 “지난해 12월 24일에 중수하고 봉안하는 일을 의논하기 위한 황산 서원(黃山書院)의 모임에 저도 가서 참여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서원에서는 이전에 이 문원(李文元 이언적(李彦迪)), 이 문성(李文成 이이(李珥)), 성 문간(成文 성혼(成渾)) 세 분 선생을 배향하였다. 이번에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이 중수하는 일을 주관하여 이문순(李文純 이황(李滉))과 조문정(趙文正 조광조(趙光祖)) 두 분 선생을 주향(主享)으로 하였다. 함께 모인 양호(兩湖) 지방의 인사가 200여 인인데 송 판서[송시열]가 수헌(首獻)하고 참의 이유태(李惟泰)가 부헌(副獻)하고 공주목사(公州牧使) 정영한(鄭英漢)이 종헌(終獻)하였다. 송시열, 이유태 두 공은 심의(深衣)에 복건(幅巾)을 쓰고 제례를 거행하고 정군(鄭君)은 시복(時服) 차림으로 일을 거행하였다고 한다.

■ 1월 21일 갑신(甲申) 기제괘(旣濟卦) 구삼(九三) 소양(少陽)

새벽에 일어나 제례를 행하였다. 이 지방은 선군자(先君子)께서 나고 자란 마을이라서 어버이의 넓고 큰 은혜가 평소보다 만 배나 크게 느껴진다. 이날 선조의 산소를 하나하나 배알하였고 벽송당(碧松堂)에서 형제와 조카들이 모여 하루를 묵었다.

■ 1월 27일 경인(庚寅) 가인괘(家人卦) 구삼(九三) 소양(少陽)

서울의 사인(士人) 이로(李潞)가 나를 만나러 왔다. 전 이조 판서 조경(趙絅)의 외손자인데 말솜씨가 온당하여 예전에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윤휴(尹鑴), 윤선도(尹善道), 허목(許穆)이 예를 논한 시말을 얘기할 수 있었다. 그의 외조부 역시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당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는데 때마침 포천(抱川)의 촌사(村舍)로 물러나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숙부인 이군 성징(李君聖徵)이 현재 동래(東萊)의 이군 성징 임소(任所)에 있는데, 전해 겨울 진봉(進封)하는 행렬을 영솔해 온 왜인(倭人)을 접대할 때 주량을 다투느라 도리를 어기고 교만하였다. 이군이 시종일관 굽히지 않자 왜인이 검을 뽑아 난동을 부려 부산 첨사(釜山僉使)와 부사(府使)의 군관(軍官) 이하는 모두 달아나 숨고 하리(下吏) 1인만 죽음을 무릅쓰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일이 진정되자 달려가 보고하였고, 첨사는 잡혀가 곧장 옥에 갇혔다."고 하였다.

■ 2월 2일 갑자(甲子) 손괘(損卦) 상구(上九) 소양(少陽)

읍리(邑吏)가 다음 날 수령인 채후(蔡侯) 충립(忠立)의 여츤(旅櫬 객사한 사람의 널)이 내일 발인을 하여 돌아온다고 고하였다. 가서 만났더니 상주가 만사(挽詞)를 부탁하기에 그를 위해 율시 한 편을 지었다. 대체로 채후는 꾸밈이 없고 관대하고 검소하였지만 정사(政事)에는 재주가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가 사납지 않은 것은 좋아했지만 융통성이 없는 것을 단점으로 꼽았다. 상(喪)을 치를 때 고을 사람인 윤선갑(尹先甲), 홍종화(洪鍾華)가 치상(治喪)을 주관했는데, 베로 만든 이불과 짧은 바지 외에는 관아에 보관된 옷이 없어 염관(斂棺)할 방도가 없었다. 향인(鄕人)들이 함께 부의

(賻儀)를 보내 주어 이불과 바지를 사서 염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만사를 지었는데, 3, 4구는 “정사에 부드러운 채찍을 사용하여 은혜를 우러러보았으며, 관을 채울 옷이 없으니 비로소 청렴했음을 알겠구나.[政用鞭皮方仰惠 衣無充棺始知淸]”이고, 7·8구는 “제주배(齊州盃)[917]의 물을 술잔에 붓고, 거듭거듭 만가(挽歌)를 부르며 떠나는 공을 전송하네.[酌彼齊州盃上水 綿謳三唱送公行]”이다. 대체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 2월 15일 정축(丁丑) 귀매괘(歸妹卦) 초구(初九) 대양(大陽)

율지곡(栗枝谷)에서 외조부와 외조모의 묘소에 제사를 지냈다. 대체로 내 외조부께서 만년에는 번잡한 성시(城市)에 염증을 느껴 일년 내내 도촌면(道村面)의 농사(農舍)에 머무셨다. 대를 이을 자손이 없으며 숭정(崇禎) 연간 신미년(1631, 인조9년)에 돌아가셨다. 나는 어린 나이라서 고향에 반장(返葬)하지 못하고 이곳에 임시로 장사하였다. 나 또한 형제나 아들, 조카가 없어 봄가을로 성묘하되, 어버이의 산소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절일(節日)에 제사를 치르지 못하고 흔히 하듯이 날짜를 가려 거행하였다. 나는 여덟 살에 처음으로 외조부에게 《천자문(千字文)》과 당송 시문(唐宋詩文)을 배웠다. 그해 12월에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곧고 굳은 뜻과 고고한 자태를 우러러보고 있다. 오늘 향을 사르자니 처연한 감회가 마음에 가득하지만 또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 수 없으니 서글프기만 할 뿐이다.

■ 윤6월 21일 신사(辛巳) 미제괘(未濟卦) 구이(九二)

묘시(卯時)와 진시(辰時)에 햇무리가 졌다. 남풍이 천천히 불어오고 조금 지나서 북풍도 함께 일기 시작하였다. 남쪽과 북쪽 방향에서 구름이 일시에 풍산(楓山)의 서쪽으로 모였다. 내 집 동쪽에서 우레와 번개가 치더니 큰비가 쏟아 붓듯 하였는데 참으로 기이한 볼거리였다. 남쪽과 북쪽에서 바람이 마주하고 함께 불어와 사방의 구름이 한곳으로 모여들어 거센 빗줄기를 이루었다. 신의 공능(功能)과 귀신의 자취를 찬란하게 엿볼 수 있었다. 아,

917) 제주배(齊州盃): 제주(齊州)를 다스리면서 청렴함으로 이름 높았던 조궤(趙軌)의 고사를 빌린 시어(詩語)이다.《隋書 趙軌列傳》

그중에는 이 일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듯하건만, 호령하여 모였다 흩어졌다 하며 변화무쌍한 굴신(屈伸)이 어찌 이처럼 신묘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 난 뒤 시원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구름이 걷히고 비가 그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 역시 신묘하였다. 그대로 묵묵히 바라보다가 적어 둔다.

이날 이조 참판 유공 계(兪公棨)[918]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군(兪君)은 강직하고 학문을 좋아하였다. 일찍이 일 때문에 금산(錦山)으로 귀양을 가 골짜기에 직접 서까래 몇 개로 된 초가집을 지었고 기장밥과 나물국조차 아침저녁으로 잇지 못하였지만 독서를 멈추지 않고 편안하였다. 해배(解配)되어 돌아와서는 무안 현감(務安縣監)에 제수되었는데 청렴하고 근실하며 공정하고 검소함으로 칭송을 받았다. 현의 직임을 떠나서는 간관(諫官)에 제수되었다. 인조(仁祖)의 시호(諡號)를 올리는 날에는 직언하여 성상의 위엄을 범하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인산(因山) 뒤에 부령(富寧)으로 유배 되었다. 우재(尤齋) 송공(宋公 송시열(宋時烈))이 효묘(孝廟)를 뵙고 그의 죄가 아니니 풀어 주어 돌아오게 하도록 상소하였다. 곧이어 왕을 보필할 인재로 천거되어 차례차례 청요직(淸要職)에 올랐다. 금상이 왕위를 계승하자 오래도록 옥당(玉堂)에 있다가 부제학이 되었다. 참의로 이조에 들어가 참판에 제수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체차되었다.

유군(兪君)이 무안에 있을 때 내게 편지를 보낸 뒤 줄곧 왕래하면서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 여러 해였다. 당시 내가 조모의 상을 당하여 장례와 제사 일에 얽매어있어서 찾아뵙고 만나기로 한 약속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공은 관직을 그만두고 떠났다. 그래서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하였는데 지금 그의 부고를 들으니 나를 처연하게 하였다.

■ 12월 14일 신미(辛未) 명이괘(明夷卦) 육이(六二) 소양(少陽)

우재(尤齋) 송공(宋公 송시열(宋時烈))이 지방관을 매우 공경스럽게 대하여, 회덕 수령(懷德守令)과 청주 목사(淸州牧使)가 찾아오면 반드시

918) 유공 계(兪公棨) : 1607~1664.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무중(武仲), 호는 시남(市南)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예학과 사학에 정통하였다.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윤선거(尹宣擧), 이유태(李惟泰) 등과 더불어 충청도 유림의 오현(五賢)으로 일컬어졌다.

뜨락에 내려와 맞이하고 전송하며 용모와 말투가 매우 공손하였다고 들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성주(城主)가 군부(君父)에게 명을 받아 나를 다스리기 위해 왔으니, 성주에게 거만한 것은 곧 군부에게 거만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부인(夫人)의 조카가 서원현(西原縣)【청주(淸州)의 명호(名號)가 강등되었을 때이다.】을 다스릴 때 그가 찾아오자 역시 뜨락으로 내려와 맞이하고 전송하여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는 대체로 속인이 아내의 조카를 자기 친족처럼 대하는 것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 12월 20일 정축(丁丑) 비괘(賁卦) 육이(六二) 소양(少陽)

이계현(李啓玄)은 경기 고양(高陽)에 사는 상놈의 아들이다. 젊은 시절 승려가 되었고, 고(故) 상국(相國) 남이웅(南以雄)[919]의 산재(山齋)에 우거하였다. 남 상국은 그가 지닌 재주를 아까워하여 독서를 권하였다. 한 번만 읽으면 바로 암기하였으며 많은 책을 널리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자 남 상국이 그에게 환속(還俗)을 권하였다. 풍수학으로 시속(時俗)에 이름이 나자 어버이의 장례를 치르는 공경대부들이 앞 다투어 그를 맞이하였다. 정유년(1597, 선조30)에 전한(典翰) 이수인(李壽仁)의 집에서 북으로 돌아올 때 나도 조부의 장지가 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옮겨 묻을 자리를 골라 달라고 하였지만 내 뜻에 만족스럽지 않아서 아직 그 자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올해 서봉령(徐鳳翎)이 자기 부모를 이장하려고 경기, 강원 지역 등을 뒤져서 그를 맞이하여 왔다. 그의 사람됨을 보았더니 추위가 극성을 부리는 겨울인데도 홑옷만 입고도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차가운 샘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기도 하고, 길을 갈 때는 말을 타지도 않고 하루에 수백 리를 달리고도 피곤을 느끼지 않았다. 사람이 살던 옛 마을이나 선산(先山)을 찾아가 지난 길흉을 말하면 마치 부절을 맞춘 듯이 정확하였다. 그래서 경사(卿士) 이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미혹되어 도인(道人)이라 일컬었다. 내가 보기에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시골의 늙은 창기(娼妓)에게

---

919) 남이웅(南以雄): 1575~1648.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적만(敵萬), 호는 시북(市北)이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까지 왕을 호종했고 그 공으로 좌찬성에 올랐다.

빠져서 생각이나 행적이 모두 드러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다만 풍수에 관한 술법이 평범한 지관(地官)들보다 조금 나을 뿐이었다. 이 때문에 나도 한두 번 그를 불러 선산(先山)을 점쳐 보았지만 역시 가볍게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여전히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12월 30일 정해(丁亥) 기제괘(旣濟卦) 상육(上六) 소양(少陽)

오늘은 섣달 그믐날이다. 일년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헤아려 논해 보니, 봄과 여름이 교차할 때 비가 내리고 해가 뜨는 날이 심하게 어긋나지 않은 것이 남쪽 지방의 들판에 있는 약간의 고을뿐이었다. 7, 8월 간에는 윗사람들이 농가의 득실을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풍년이라고 일컬었다. 서리가 내린 뒤 벼가 태반은 여물지 않았건만 윗사람들이 또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 그래서 들판에는 흉년의 조짐이 있지만 부세는 풍년이 든 해처럼 징수하여 백성들의 고통과 원망이 많았다. 골짜기에 있는 군(郡)에서는 수재(水災)가 모두 심해서 백성들은 산이 무너져 압사당하고 오곡은 거센 계곡물에 떠내려가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목면(木綿)이 재해를 입어 손상된 것은 산이나 들판이나 똑같건만 대동미(大同米)를 포(布)로 환산하여 거두어들였으니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민심이 소란스럽고 몸에 제대로 된 옷을 걸치지 못하였다.

상천(上天)이 경계를 보여 일월성신이 동요되고 서로 부딪치는 변화를 눈이 있는 자라면 모두가 보았으며, 산천초목과 짐승이 벌이는 괴이한 증상이 모두 드러났다. 인심이 놀랍도록 잘못되고 세도가 추잡하고 야박하기가 얘기할 가치도 없었다. 수령은 일락(逸樂)에 빠져 귀에 들리는 게 없는 듯하고 조정은 인원만 갖추었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듯하였다. 덕행을 갖춘 사대부들은 당론(黨論)만 숭상할 뿐이고, 혼탁한 관리들은 뇌물에만 힘쓸 뿐이어서 300년 종사(宗社)를 비호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무슨 시대인가.

민간의 비루한 사람인 데다 문지(門地)도 미천하고 자취도 소원하니 뜨거운 심정이 뱃속에 가득하여 분격하지 않은 날이 없지만 또한 어찌하지 못하였다. 오로지 날씨의 맑고 흐림을 적어 두는 조그만 책자 끝에다 오직

심정의 만 분의 일만 적으면서 마음에 쌓인 기분을 펼쳐 놓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의 일은 나만 홀로 근심할 바도 아니고 또한 내 심력(心力)으로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의 심신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수양이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만이 내 분수에 해당하는 일이다. 1년 동안 있던 일을 돌이켜 보니 보아줄 만한 실상이 백에 하나도 없었다. 마음을 다스리는 도를 모르지도 않고 수신의 공부를 익히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마음과 일이 괴리되고 일상의 동정(動靜)이 어긋나 360일 가운데 헛되이 떠돌지 않는 날이 없었다. 내 나이를 손꼽아 보니 이미 42세가 되었다. 묵은해를 보내는 이 밤에 나도 모르게 놀라고 깨달아 삼가 여기에 적어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을 꾸짖는 도구로 삼는다.

[을사년(乙巳年 1665)]

■ 2월 5일 임술(壬戌) 손괘(損卦) 육사(六四)

영암(靈巖)의 인사들이 최산당(崔山堂)[920]을 존양사(存養祠)에 배향하고 나에게 봉안 제문(奉安祭文)을 지어 달라고 청하였다. 내가 최 산당의 봉안 제문과 존양위전 고문(存養位前告文) 2편을 지었다.【제문(祭文)과 고문(告文)은 12권에 자세히 보인다.】

존양(存養)은 성이 최(崔)이고 이름은 덕지(德之)이며 완산인(完山人)이다. 단종조(端宗朝)에 관직이 직제학에 이르렀지만 세묘(世廟)의 왕업이 점점 융성하는 것을 보고는 몸을 추슬러 물러났다. 영암의 영보촌(永保村)에 머물면서 조그만 누각을 지어 존양(存養)이라고 편액을 걸고 연촌거사(烟村居士)라고 자호하였다. 한가하게 지내면서 심신을 수양하고 조용히 자신을 다스리고 벼슬에 마음을 두지 않았으니 참으로 진(晉)의 징사(徵士)

---

920) 최산당(崔山堂): 1384~1455.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가구(可久), 명은 덕지(德之), 호는 연촌(烟村)·존양(存養)이다. 급제한 뒤 추천을 받아 사관이 되었다. 남원부사를 사퇴한 뒤 영암의 영보촌(永保村)에 내려가 학문연구에 몰두하였으며, 문종이 즉위하자 예문관 직제학에 임명하였으나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영암 주민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하고 존양사(存養祠)라 이름 지었다.

인 도연명(陶淵明)과 같은 부류였다. 마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우고 그에게 제사를 지냈다.

공의 손자인 최충성(崔忠誠)은 어려서부터 사학(斯學)에 뜻을 두고 과거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한훤(寒暄) 김 선생(金先生 김굉필(金宏弼))께서 앞장서 성학(聖學)을 천명하여 후생(後生)을 권면한다는 말을 듣고 책상자를 짊어지고 가서 공을 따랐다. 뜻을 독실하게 품고 학문에 힘을 쏟았으며 일찍이 스승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혼례를 행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혼례를 치른 뒤 즉시 스승의 문하로 가서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김 선생께서 대륜(大倫)을 폐할 수 없다고 권했지만 공은 학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양하면서 "학문에 의심스러운 바가 없고 대체(大體)가 수립된 뒤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선생도 강요하지 못하였다. 선생의 숙부인 김총(金聰)이 영보(永保)에 살았다. 선생은 공 때문에 직접 숙부의 집에 가서 몇십 일을 묵고 돌아갔는데 공은 또 선생을 따라갔다. 뜻이 독실하고 학문에 근실하기가 이와 같았다.

그의 학문은《소학(小學)》으로 자신의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거경(居敬)[921]에 유념하였다. 역학(易學)에 밝았으며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모습이 소옹(邵雍)과 다르지 않았다.[922] 자호(自號)는 산당서객(山堂書客)이며 나이 33세에 돌아가셨다. 약간의 저술이 집에 보존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그는 입언(立言)이 구차하지 않고 시문에 담긴 뜻이 통쾌하여 진정한 심학 정인(心學正人)의 말이었다. 그의 탁월한 학문은 대략《경현록(景賢錄)》에 보인다. 정유년(1657, 효종8) 전에는 순천부(順天府)의 경현서원(景賢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지금은 현풍서원(玄風書院)에 배향되어 있다고 한다. 존양사(存養祠)에는 아직도 합사(合祀)하는 의례(儀禮)를 거행하지 않아 사론(士論)이 한스럽게 여겼는데, 이번에 도내에 공의가 일제히 일어나 성대한 제의(祭儀)가 장차 이루어진다면 유림(儒林)에게

---

921) 거경(居敬) : 마음과 몸가짐을 조심하여 덕성을 닦는 것을 이른다.

922) 소옹(邵雍)과 다르지 않았다 : 송(宋)나라 소옹은 학문이 깊고 역리(易理)에 훤하여 세상만사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살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안락와(安樂窩)라고 하고, 자기 자호를 안락 선생(安樂先生)이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일생을 유유자적하게 지냈다.《宋書 권427》

다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글솜씨가 모자란다고 사양하지 않고 제문을 지어 돌려보냈다.

■ 3월 9일 을미(乙未) 태괘(泰卦) 초구(初九) 소양(少陽)

오재발(吳再發)이 나를 찾아왔다. 내일 신주를 고쳐 쓰는 일로 의례 절차를 묻기 위해서 온 것이다. 대체로 을유년(1645, 인조23) 연간에 조부는 살아 계신데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임진년(1652, 효종3)에 조부상을 당해서 조부상의 길제(吉祭) 때 신주를 고쳐 쓰고 체천(遞遷)해야 하였지만 그 당시에 오재발은 나이가 어려서 예를 익히지 못한 상태라 거행할 수가 없었다. 내가 매번 시행하기를 권하였지만, 이제야 예를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3년상을 마친 뒤 즉시 시행하지 못하고 추후에 제사를 지낼 경우 고사(告辭)의 축문(祝文)은 응당 상례(喪禮)의 본문(本文)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그 예를 조금 바꾸어 내일은 먼저 연유를 고하고 대(代)마다 신주를 고쳐 쓴 다음에 모레 조부 이상을 합제(合祭)하되 시향(時享)의 예를 사용하고, 그런 다음에 친진(親盡)한 신주를 즉시 묻게 하였다.

이 절차가 과연 권도(權道)를 행하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모르겠다. 내가 예에 익숙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변통(變通)이 한집안에서 있는 일이니 예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변통이 없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견(臆見)으로 판단을 내렸다. 아마도 중도를 지키는 예를 잃어 뒷사람을 잘못 인도할 듯하여 기록해 둔다. 응당 예를 아는 군자에게 질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 3월 16일 임인(壬寅) 대축괘(大畜卦) 구이(九二) 대양(大陽)

이웃의 친구들과 남석(藍石) 강가에서 배를 띄우기로 약속하였다. 주인이 배를 대고 술을 마련하여 노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말에서 내려 배에 올랐다. 술이 몇 순배 돈 뒤에 옷자락을 걷고 물가로 내려와 푸른 물결을 손으로 희롱하고 맑은 물을 일게 하여 발을 씻고 상류로 올라가 얼굴을 씻었다. 관을 털고 옷깃을 떨치고 다시 배에 올라 노질을 하지 않고 바람을 따라 배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조금 있자 거문고를 짊어진 몇몇이 바위틈에서 나와 우리를 맞이하여 배를 옮겨 가까이 오도록 하였다. 비록 시속(時俗)의 음조(音調)이고 소리가 듣기 힘들었지만 물과 바람이 음악을 늘어지게 하여 촉급한 음이 길어지고, 깊은 연못에 소리가 울려 시끄러운 음이 조화로워지고, 바위 골짜기가 곡조를 그윽하게 하여 천박한 것이 깊이가 있어지고, 돌 여울이 울어대어 탁한 음이 청아해지고, 강가 새들의 날개 짓하는 소리에 음탕한 음이 깨끗하게 느껴졌다. 끝내 속되고 천한 곡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황홀함이 마치 백아(伯牙)의 유수고산곡(流水高山曲)[923]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았으니, 모두 산수(山水)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 거문고로 연주하는 음악도 이와 같은데 더구나 나의 마음은 본래 산의 고요함[山之靜], 물의 움직임[水之動]과 더불어 깨끗함[淨]과 맑음[淸]을 함께하여 피아의 구별이 없으니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때 시우(時雨)가 그치고 화창한 날씨가 한창이고, 산에 핀 꽃은 반쯤 져버리고 물가의 풀들은 향기를 다투며, 푸른 복숭아와 붉은 살구는 마을의 대나무숲 바위틈에 있는 소나무 사이에서 은은히 비추니 참으로 조물주의 기이한 행적이었다. 이때에 잔잔한 바람이 천천히 불어와 물결이 비단 같은 무늬를 이루고 작은 배 하나가 호젓하게 강 가운데로 흘러가니, 소식(蘇軾)이 말한 '세상을 잊고 홀로 서 있으며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되어 올라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헛된 말이 아니었다.[924]

조금 있으려니 구름이 걷히고 달이 모습을 드러내며 파도는 가라앉고 바람은 고요해졌다. 배를 돌려 바위에 대어 놓고 뱃전에 기대어 생각하였다. 유구한 모든 사물 가운데 천지와 같은 것이 없다. 일원(一元)이 다하면 천지도 한갓 꿈에 불과하다. 장강(長江)과 벽산(碧山)은 수명이 하늘과 나란하지만 만물이 가려진 뒤에는 강산도 한갓 꿈일 뿐이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삶과

---

923) 백아(伯牙)의 유수고산곡(流水高山曲) : 백아(伯牙)는 춘추 시대 거문고의 명이다. 백아의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이 종자기(鍾子期)였다. 백아가 고산곡(高山曲)을 타니, 종자기가 듣고 "아, 산이 높구나[山巍巍]"하고, 또 유수곡(流水曲)을 타니, 종자기가 듣고 "아, 물이 출렁거린다[山洋洋]" 하였다. 《列子 湯問》

924) 소식(蘇軾)이……아니었다 : 소식의 〈적벽부(赤壁賦)〉에 "표연하게 속세를 벗어나 홀로 서서 날개를 달고 신선이 된 것 같다.[飄飄乎如遺世獨立, 羽化而登仙.]"라고 하였다.

죽음은 아침저녁 사이로 순식간에 다하여 저 강기슭의 풀이나 바위에 핀 꽃과 더불어 짧은 시간 동안 꾸는 하나의 잔몽(殘夢)으로 함께 돌아가는 것이니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흩어진 뒤에 자취가 자연의 조화에 따라 사라지면 곧 천지도 또 하나의 나이고 강산도 또 하나의 나이다. 그 가운데 실질적인 이치를 함께 깨우치는 것은 천지, 강산도 나와 차이가 없으니, 내가 어찌 그 사이에서 다른 의견이 있겠는가. 망연하게 길게 탄식하고 우주를 둘러보고 시비가 뒤섞인 속세를 돌아보니 시기의 눈빛이 가득하고 득실을 근심하는 무리가 어찌 한 번 비웃음거리조차 되겠는가.

이윽고 팔을 베고 한숨 잤더니 술이 막 깨어 비로소 수레를 타고 돌아왔다. 달빛은 매헌(梅軒)으로 들어오고 새벽닭이 막 울려 하였다.

6월 그믐날, 윤군 선삼(尹君先三), 문생 팔주(文生八柱), 조카 정세경(鄭世經) 등에게 경계하는 편지를 주었다.【제9권 <서찰>에 자세히 보인다.】

일기 후록

日記後錄

■ 기해(1659, 효종10) 5월 4일

효종대왕(孝宗大王)께서 승하하셨다. 금상이 대신(大臣)과 유신(儒臣)들에게 명하여 대왕대비의 복제(服制)를 의논하게 하였다. 이조 판서 송시열(宋時烈), 병조 판서 송준길(宋浚吉) 등이 의견을 아뢰어 기년복(朞年服)으로 정하였다. 다음 해 경자년(1660) 봄에 장령 허목(許穆)이 상소하여 기년복이 예에 맞지 않음을 논하였다. 그 대략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의례기(儀禮記)》의 가공언(賈公彥) 소(疏)에 '차장(次長)을 세우더라도 3년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효종대왕께서 차장(次長)으로 대통(大統)을 이어 사직을 다스리셨으니 대왕대비께서는 참최(斬衰) 3년[925]으로 상을 치르셔야 합니다. 중자(衆子)의 복제로 상을 치러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상께서 대신(大臣)과 유신(儒臣)들에게 논의하라고 명하자 좌찬성 송시열, 좌참찬 송준길 등이 이전 견해를 고집하여 의견을 아뢰기를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상 때 인조대왕(仁祖大王)과 대왕대비께서 3년 동안 복상(服喪)을 하셨습니다. 지금 또 삼년상을 치른다면, 이것은 종법(宗法)이 엄격하지 못하고 윤서(倫序)가 명확하지 못한 일입니다. 허목의 의견은 따를 수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호군(護軍) 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여 예법에 대한 두 유신의 논의가 잘못되었음을 극론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공언의 소에서 주장한 '차장(次長)의 경우에도 참최(斬衰) 3년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두 유신이 종통(宗統)을 소현세자에게 돌리고 효종을 지파(支派)로 대우한 것은 천리를 거역하고 《예경(禮經)》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소가 올라오자 상께서 진노하여 방귀전리(放歸田里)[926]하라고 명하자,

---

925) 참최(斬衰) 3년 : 허목의 주장은 자최(齊衰)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고 참최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본문은 착오이거나 오기(誤記)이다.

926) 방귀전리(放歸田里) : 죄인을 서울에서 추방하여 시골로 돌려보내는 처벌로, 중죄를 지은

언관(言官)은 형률에 따라 죄를 다스려 삼수군(三水郡)에 안치(安置)하기를 청하였다. 좌윤(左尹) 권시(權諰)가 상소하여 거듭 윤선도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거들고 과감하게 직언(直言)한 것임을 밝혔으나 언관이 '흉악한 인물의 논계(論啓)를 거들었으니 파직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경자년(1660, 현종1) 가을 홍공 명하(洪公命夏)[927]가 전장(銓長 이조 판서)이 되었을 때 전 장령 허목을 의망(擬望)하여 삼척 부사(三陟府使)로 삼자 대신(大臣)이 상에게 "이 사람은 여차여차하니 등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늙고 병들었으니 험한 변방에 보임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즉시 이조에 묻기를 "허목이 늙고 병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변경 지역을 감당하지 못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조에서 그의 기력이 감당할 수 있다고 회계(回啓)하자 상께서 마침내 가도록 명하라고 비답을 내리니, 식자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그해 겨울 우재(尤齋) 송공(宋公 송시열)이 여러 차례 대사헌과 이조 판서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효종대왕께서는 영명하고 과단성이 있고 지략이 원대하며 조용하면서도 도량이 넓으셨다. 소현세자에게 원자(元子)가 있었지만 인조께서 폐위하고 효종을 세웠으니, 대체로 문왕(文王)과 같은 뜻이었다. 효종은 즉위 11년에 걸쳐 나라를 다스리는 데 온 마음을 쏟았다. 안으로는 유가의 학술과 경학(經學)을 갖춘 선비를 구하여 아침저녁으로 치국의 도리를 강구하고, 밖으로는 병졸을 훈련하는 방도를 배양하는 일에 심력을 다하여 개연히 평성(平城)의 치욕[928]을 씻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일찍이 행행(行幸)할 때면 갑작스럽게 말을 내달아 신하들이 뒤따르지 못하였다. 후정(後庭)에 활을 쏘고 말을 달리는 길을 마련하여 국사(國事)를 돌보는 여가에 활을 당기고 말을 달려 정성을 다하여 무예를 익히셨다. 무술년(1658, 효종9) 연간에는 말을 달리다

죄인에게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릴 때 사용되었다.

927) 홍공 명하(洪公命夏) : 1607~1667.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대이(大而), 호는 기천(沂川)이다. 1646년(인조24)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한 뒤 교리, 헌납 등을 지내고 암행어사로 부정한 관리를 적발하여 당대에 이름을 떨쳤다.

928) 평성(平城)의 치욕: 평성은 한 고조(漢高祖)가 40만의 흉노병(匈奴兵)에게 포위당했던 지명이다. 여기서는 병자호란(丙子胡亂)의 치욕을 가리킨다.

떨어져 부상을 당해 거의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가 다시 소생하셨다. 다음 해 기해년(1659) 5월, 귀밑 부분의 종기 때문에 갑자기 승하하시니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땅으로 꺼지는 듯하였다. 식자들은 또 이와 같은 군주가 있건만 아래에 왕을 보필할 인재가 없어 끝내 지극한 치리(治理)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을 한스럽게 여겼으니 어찌 애통함을 견딜 수 있겠는가.

인조조(仁祖朝)에 성균관, 사학(四學)의 유생들과 초야의 유생들이 소장을 올려 우계(牛溪 성혼(成渾))와 율곡(栗谷 이이(李珥))을 문묘(文廟)에 배향하기를 청하였지만 상께서 윤허하지 않으셨다. 영남의 유생들은 상소하여 종사(從祀)해서는 안 된다고 논하였다. 효종 1년 경인년(1650)에 성균관과 사학(四學), 지방의 유생들이 또 소장을 올려 사정을 진달하고 청원하였지만 또 윤허하지 않으셨다. 영남의 유생들과 서울에 있는 의견이 다른 자들이 또 상소하여 불가하다고 극론하였다. 금상(今上 현종(顯宗)) 1년 기해년(1659)에 서울과 지방의 유생들이 또 소장을 올려 사정을 진달하고 청원하였지만 또 윤허하지 않으셨다. 이번에는 다른 의견을 지닌 상소가 일어나지 않았다.

경자년(1660) 봄 전적(典籍) 홍종문(洪鍾聞)이 서울에서 와서 말하기를 "서울에 있는 인사들이 간혹 서로 말을 전하기를 '김사계(金沙溪 김장생(金長生))가 일찍이 우계(牛溪)와 율곡(栗谷)은 충(忠)과 효(孝)에 대해서 모두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으니 배향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문하의 제자들 가운데 같은 때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배향하는 문제를 의논하는 데 감히 주장하지 못한다. 양송(兩宋) 또한 사계 문하의 뛰어난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의향도 이와 같다. 그래서 효묘(孝廟)에게 지우(知遇)를 입었지만 감히 배향하는 일에 대해서 건의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비록 전해 들은 말이라서 믿기에는 부족하지만 이 또한 한 시대의 사론(士論) 가운데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적어 두고 훗날의 고찰에 대비한다.

장사를 위해서 부산(釜山)으로 와서 정박하는 왜노(倭奴)들은 국가에서 으레 동래 부사(東萊府使)가 접대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대체로 이웃 나라와 교류하는 의리이다. 그 예법은 부사가 북쪽 벽 아래에서 의자에 앉아 왜노로

하여금 북면(北面)하여 부사를 향하게 하였다. 중간에 왜노는 사납게 굴고 부사는 지치고 힘이 없어 남면(南面)하는 예법이 폐지되고 동서로 서로를 마주하는 규정이 만들어져 식자들이 치욕스럽게 여겼다.

무오년(1678, 숙종4) 연간에 민공 정중(閔公鼎重)[929]이 동래를 다스릴 때 분개하여, 남면하고 의자에 앉는 규정을 회복하였다. 왜인들이 크게 반발하여 난을 일으키려고 하였지만, 민공은 변고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부 안의 정예병을 보내어 군진(軍陣)을 배열하고 대비하게 하였다. 그러자 왜인들은 그 위세를 꺼려 감히 방자하게 굴지 않았지만 조정에서는 이를 근심하였다. 이어서 민공을 조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만웅(李萬雄)을 대신 임명하였다.

왜노들이 점점 악행을 저지르고 백성을 약탈하고 겁박하자 이군(李君)이 그들의 괴수 2인을 붙잡아 참수하고 관문(關門) 밖에 매달았다. 이어 상소하여 정병(精兵) 수만을 갖추어 적의 소굴을 소탕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이만웅(李萬雄)을 잡아 가두라고 명하자 왜인들이 관문을 비우고 떠났다. 나라 안이 시끄러워 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걱정하였지만 끝내 아무 일도 없었다.

무술년(1658, 효종9) 7월 21일 내가 객과 당(堂)에 앉아 있는데 시각이 밤 술시(戌時)쯤이었다. 용마루만 한 큰 별[長星]이 나타났다. 광채가 마치 불이 난 듯하고 동북 방향에서 나와서 곧장 하늘 한가운데를 지나 남서쪽으로 들어갔는데 시각이 오래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기해년(1659) 12월 초무렵에 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또 동쪽에서 나와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년도와 같았으며 크기는 약간 작았다. 무술년부터 기해년까지 온갖 변괴가 나타나 해인사(海印寺), 상계사(雙溪寺)의 흙으로 만든 불상이 땀을 흘리고, 사람 머리에 뿔이 돋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꼬리가 소꼬리 같고 도성 안의 흑하(黑霞)에서 비린내가 나고, 남산(南山)의 소나무가 바람도 없건만 저절로 부러지고,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고, 금성(錦城)의 사호강(沙湖江)[930] 물이 사흘 동안 붉은색을 띠었다. 기해년 11월 10일에는 종일토록

---

929) 민공 정중(閔公鼎重) : 1628~1692.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대수(大受), 호는 노봉(老峯)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으로 기사환국(1689년) 때 벽동(碧潼)에 유배되어 죽었다.

930) 사호강(沙湖江) : 담양부(潭陽府)의 용천산(龍泉山)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 광주의 동쪽에

흙비가 내려 원근을 분간하지 못하였고 해는 홍적색(紅赤色)이었다. 이와 같은 재이(災異)를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괴이하여 적는다. 아, 통탄스럽다.

옛날에는 국휼(國恤)에 달려가 곡을 하는 예가 없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는 명묘(明廟 명종)의 상 때 국장(國葬)을 기다리지 않고 벼슬에서 물러나 초야로 돌아갔다.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상에도 역시 대궐로 나아가 곡을 하지 않았다. 인조(仁祖)의 상(喪)에 이르러서는 전함(前銜)의 관원이 대궐로 나아가 곡을 하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 간혹 대궐로 나아가지 않아서 견책을 입은 자도 있었다. 효종(孝宗)의 상에는 일명(一命) 이상은 비록 산관(散官)의 반열에 있더라도 서둘러 대궐로 나아가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그대로 규례로 굳어졌다.

경자년(1660, 현종1)에 대왕대비의 복제에 대하여 예법을 논의할 때 대신(大臣)들의 의견과 양송(兩宋)의 의견이 서로 부합하였다. 오직 원평(元坪) 원상(元相)만 허공 목(許公穆)의 논의와 서로 부합하였다. 당시 호군(護軍) 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여 예의(禮儀)를 의론하여 양송의 잘못을 극론하고, 지평 윤휴(尹鑴)가 장령 허목 및 승지 이유태(李惟泰)에게 편지를 보내 기년복이 매우 근실하지 못함을 논하였다. 이때 물론(物論)이 비등하고 시비가 서로 엇갈려 간혹 양송의 죄를 논하며 군주를 기만하고 나라를 잘못되게 한다고 지목하기까지 하였다. 우재 송시열은 다른 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해윤(海尹 윤선도(尹善道))의 대문(大文)과 여윤(驪尹 윤휴(尹鑴))의 주각(註脚)으로 우리는 어디서 죽을지 모르게 되었다."라고 했다고 한다. 일시의 의논이 부합하지 않아 되풀이되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사림(士林)이 둘로 갈라졌으니 나라가 장차 어찌 되려는가.

이 당시 이른바 서인(西人) 중에는 산서(山西), 청서(淸西), 탁서(濁西)라는 지목이 있었다. 유술(儒術)에서 일어난 자들을 산서(山西)라고 이르고, 청론(淸論)을 지닌 경사(卿士)들을 청서(淸西)라고 이르고, 전부터 섞여 있던 훈구(勳舊)를 탁서(濁西)라고 하였다. 동인(東人) 가운데 대북(大北)

이르러서 북쪽에서 흘러오는 황룡천(黃龍川)과 만난다.《海東繹史 地理考 山水》

이라 이르는 것은 이제 듣지 못하지만, 이들도 소북(小北)과 남인(南人)으로 갈라졌다. 조그마한 나라가 인심이 이렇게 분열되었으니 난세에 의지할 곳 없는 백성은 누구 집에 머물지 알 수가 없다. 슬프다.

전주(全州)의 문관(文官) 이흥발(李興浡)[931]과 그의 아우 이기발(李起浡)이 모두 문과(文科)로 조정에 나아가 현요직(顯要職)에 이르렀다. 병자호란 이후, 두 형제는 늙은 어머니를 보시고 운암산(雲巖山)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잡고 농사를 짓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임금이 부르는 조서가 여러 차례 내려왔지만 자신의 뜻을 지키며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조정에서 이흥발을 금성 현감(錦城縣監)으로 제수하여 현의 아전이 산속 계곡 사이로 그의 집을 찾아갔다. 도중에 대나무 삿갓을 쓰고 물고기를 낚아 낚싯대를 메고 땔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다. 아전이 읍하고 말하기를 "이 현군(李縣君)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였다. 얼마 뒤 한 촌락에 이르렀다. 몇몇 집이 울타리를 두르고 숲에 의지하여 있었다. 그 사람이 들어가 대나무 평상에 앉아 아이를 불러 물고기를 삶고 기장밥을 지어 아전을 먹이더니, "너는 돌아가거라. 나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그때서야 아전은 비로소 그가 이 현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다. 이기발도 여러 번 관직에 제수되었지만 끝내 한 번도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영암(靈巖)에 신공 천익(愼公天翼)이 있는데 사부(詞賦)로 세상에 이름이 높았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청요직을 두루 지냈지만 병자년(1636, 인조14), 정축년(1637) 이후로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효종이 즉위하여 간절히 불러들이자 한 번 몸을 일으켰다. 당시 신독재(愼獨齋) 김공 집(金公集)과 이군 유태(李君惟泰)가 함께 부름을 받고 조정에 나아가 주상의 질문에 답하게 되었다. 상께서 매우 정중하게 자문하시자 김공은 상께 성의 정심(誠意正心)을 권하고 이군은 복수(復讎)로 상의 마음을 열어 주었다. 상께서 신공(愼公)을 돌아보며 "그대는 할 말이 없는가?"라고

931) 이흥발(李興浡): 1600~1673.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유연(悠然), 호는 운암(雲巖)이다. 이색(李穡)의 후손이다. 급제하여 집의까지 올랐으나 1636년 청나라 사신이 와서 화친을 청하자, 척화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린 뒤 1637년 벼슬을 버리고 향리에 돌아가 명나라를 위하여 절개를 지키며 학문을 닦았다.

하자, 신공은 “김집이 성정(誠正)을 아뢰고 이유태가 복수를 아뢰었으니 신은 더 이상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말하기를, “신이 초야에서 왔기에 용안(龍顔)을 알지 못합니다. 성상의 위의(威儀)를 한번 우러러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상께서 일어나 앉아 서로 마주하도록 명하였다. 얼마 뒤 종종걸음으로 나가면서 상 앞에 있던 근신을 불러 묻기를 “나갈 때도 배례(拜禮)를 행하는가?”라고 물으니 상께서 미소를 지으셨다. 근신들이 모두 찬탄하면서 말하기를 “산야(山野)에 머무는 이의 태도가 아름답도다.”라고 하였다. 대체로 공은 항상 시와 술로 소일하며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수양하여 겸허한 태도를 지니고 청아한 풍도(風度)로 고상한 품위를 지키며 평소에는 문을 닫고 지내서 이웃 마을에서도 그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하였다.

경자년(1660, 현종1) 1월 송공 준길(宋公浚吉)을 이조 판서에서 체차하고 홍공 명하(洪公命夏)를 대신 임명하였다. 효종대왕 때부터 유학에 뜻을 두고 현자를 예우하는 데 마음을 다하여 한 시대의 사류 가운데 한 가지 명성, 한 가지 재예(才藝)라도 지닌 자라면 관직의 반열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 가운데 선왕(先王)의 고굉 심복(股肱心腹)이 되어 동전(東銓 이조(吏曹)) 과 서전(西銓 병조(兵曹))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가까이한 자가 송공 시열, 송공 준길 2인이다. 내직과 외직을 출입하면서 10여 년 안에 지위가 높은 반열에 이른 자가 권공 시(權公諰)[932]이다.

양송(兩宋)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추천하여 선조(先朝) 때 이르러 대각(臺閣)을 출입하고 새로 즉위한 임금에게 더욱 융숭한 지우(知遇)를 입어 지위가 상대부(上大夫)에 이른 자가 이군 유태(李君惟泰)이다. 선조 때 일로 배척되어 10년을 전원에 머물다가 송공이 한 번 천거하자 굽혔던 몸을 크게 펴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성이 드러난 자가 유공 계(兪公棨)이다. 대각에 출입하거나 경악(經幄)에 드나들었던 자가 허공 목(許公穆)

---

932) 권공 시(權公諰) : 1604~1672.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사성(思誠), 호는 탄옹(炭翁)이다. 예송 문제가 불거졌을 때, 송시열과 송준길에 대립하여 윤선도를 지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같은 서인의 규탄으로 파직되어 광주(廣州)의 선영에 머물러 살았다.

과 이상(李翔)[933]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물러나기만 하고 나아간 일이 없으며 임금이 부르는 명이 아침저녁으로 계속 내려와도 줄곧 몸을 움직이지 않은 자가 윤문거(尹文擧), 윤선거(尹宣擧), 윤원거(尹元擧), 이수인(李壽仁)이다. 낭서(郎署)의 직임에 있으면서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한 자가 신석번(申碩蕃), 이기후(宋基厚), 임위(林墇), 최휘지(崔徽之) 등 몇 사람이다. 한 시대에 소문만 듣고도 흥기하여 학문의 세계를 향해 나아간 자가 서울과 지방에 자못 많았으며 사림의 기상이 날로 배양되었으니, 윗사람이 올바른 방도로 이끌고 인도하면 문왕(文王)을 기다려 흥기하는 것[934]은 시대에 고금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느닷없는 재난의 발생도 그 사이에 조짐이 숨어 있으니 선견지명을 갖춘 선비라면 깊이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당시에 또 희중(希仲) 윤휴(尹鑴)가 있었다. 선조 때 매우 융숭하게 예우하고 일찍이 인견(引見)하고자 하여 성의와 예우를 다하였지만 자신의 지조를 지키며 나오지 않았다. 금상 초엽에 특별히 지평에 제수하였으나 네 번씩이나 상소하여 체차되었다. 지금의 화순 현감(和順縣監) 김극형(金克亨)과 가깝게 지내면서 도의(道義)로 맺은 교우라고 칭탁하였고, 사류들 또한 의지하고 중시하는 자가 자못 많았다. 그러나 양송(兩宋)과 이공 유태는 이단(異端)이라고 배척하였다.

혹자가 송공(宋公)에게 "공은 성상에게 위임을 받았건만 시책을 건의하고 시행한 일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라고 하자, 송공이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의리도 아직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다른 것을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혹자가 "첫 번째 의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자, 송공이 "이론(異論)이 방자하게 횡행하건만 아직 물리치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의리를 거행하는 것이라고 이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아마도 윤희중(尹希仲)을

---

933) 이상(李翔): 1620~1690. 본관은 우봉(牛峯), 자는 운거(雲擧) 또는 숙우(叔羽), 호는 타우(打愚)이다. 송시열(宋時烈)을 통하여 김집(金集)의 학통을 이어받았으며, 숙종 연간에 노론과 소론이 분기할 때에는 송시열을 따라 노론의 편에 서서, 남인의 등용을 주장하는 소론에 반대하였다.

934) 문왕(文王)을……것 : 문왕 같은 성군이 나타나면 평범한 백성도 감화되어 분발하게 된다는 뜻이다. 《孟子 盡心上》

지목한 듯하다.

송공의 문하에 황세정(黃世禎), 송규정(宋奎禎) 2인이 있는데 이들이 희중(希仲)과 벗으로 의좋게 지냈다. 이공(李公)이 고향에서 송공에게 편지를 보내 "황세정, 송규정과도 아울러 절교하였다."라고 했다고 한다. 사림 간에 간혹 서로 화합하지 못하니 한심하다 이를 만하다.

호남에는 또 윤선도(尹善道)가 있다. 광해조(光海朝)에 상소하여 지조를 세웠으며 인조(仁祖)와 효종(孝宗)께서 모두 매우 융숭하게 예우하여 지위와 명성이 높아졌다. 나이가 올해 80이며 사림과 의논이 합치되지 않아 물러나 초야(草野)에 있다.

南圃集

남포집

제16권

卷之十六

경세통전
經世通典

사람을 육과(六科)**로 나누다**[人分六科] ○총목(總目)

사(士) : 상(上) 중(中) 하(下)
농(農) : 상(上) 중(中) 하(下)
공(工) : 상(上) 중(中) 하(下)
상(商) : 상(上) 중(中) 하(下)
승(僧) : 상(上) 하(下)
병(兵) : 상(上) 중(中) 하(下)

<**사민에 관한 전례**(士民典例)>

상사(上士) : 서울은 성균관 학생, 사학(四學)[935] 학생 및 초시(初試)에 입격(試入)한 자를 상사로 삼는다. 지방은 교생(校生) 및 초시에 입격 자를 상사로 삼는다. 성균관 학생의 상사는 50원(員), 사학은 각각 20원, 지방의 주학(州學)은 50원, 부학(府學)은 40원, 군학(郡學)은 30원, 현학(縣學)은 20원으로 정한다. [이상은 서울과 지방의 상사에 관한 규정이다. 초시에 입격한 사람을 제외하고 경서에 밝고 행실이 바른 사족(士族)의 자제로서 문학이 남보다 뛰어나고 재주가 출중한 자를 잘 가려 뽑아 인원수를 채운다. 서울은 대사성(大司成)이 1년에 두 차례 낭속(郞屬)과 회동하여 상사를 대상으로 강(講)을 시험하고, 지방은 각 도의 도사(都事)가 해당 수령, 학관(學官)과 1년에 두 차례 강을 시험한다. 강에서 통효(通曉)하지 못한 자는 강등하여 중사에

935) 사학(四學) : 서울의 중앙과 동·남·서에 세운 네 학교로, 곧 중학(中學)·동학(東學)·남학(南學)·서학(西學)을 이른다.

예속시킨다. 강에서 비록 통효하였더라도 50세가 넘도록 초시에 입격하지 못한 자는 중사로 강등한다.]

중사(中士) : 서울과 지방은 일정한 인원수가 없다. 친가나 외가 쪽으로 결함이 없는 사족(士族)의 자제를 가려 인원수를 채운다. 서울과 지방에서 1년에 두 차례 강(講)을 시험하되 세 차례 강에서 연달아 통효한 자는 상사로 올린다. 두 차례 연달아 불통한 자는 하사로 강등하고, 초시에 입격한 자는 상사로 올린다. 강에서 비록 통효하였더라도 50세가 넘도록 초시에 입격하지 못한 자는 향임(鄕任)에 소속시킨다.【즉 좌수(座首), 별감(別監), 이관(里官)의 자리이다.】

하사(下士) : 서울과 지방은 일정한 인원수가 없다. 중사(中士)에 충원되지 않은 양반의 자제와 사대부 서얼(庶孼) 및 일반 백성 가운데 준수하고 학행이 뛰어난 자를 모두 정원에 채운다. 서울과 지방에서 1년에 두 차례 강을 시험하는데 강에서 세 차례 연달아 통효하지 못한 자는 강등하여 군역(軍役)에 충당한다. 초시에 입격한 하사는 중사로 올린다. 초시에 입격한 군인은 하사로 올린다. 서얼 신분인 하사는 곧장 군역에 충당한다. 하사로서 강(講)에서 비록 통효하였더라도 50세가 넘도록 초시에 입격하지 못한 자는 향임(鄕任)에 소속시킨다.【바로 영거 감관(領去監官) 및 당사(黨師)의 자리이다.】

삼사(三士)의 공통된 규례[三士通例] : 무릇 학교에 모일 때 및 강관(講官), 학관(學官)에게 배읍(拜揖)할 때 상사(上士)는 동쪽에 서고, 중사(中士)는 서쪽에 서며, 모두 북쪽으로 오른다. 하사(下士)는 남쪽에 서고 동쪽으로 오른다.

하사의 경우에는 1년에 7승(升) 면포(綿布) 1필(匹)을 바친다. 수령이 병조에 봉납(捧納)하여 군국(軍國)의 비용으로 쓴다. 초시에 입격하여 중사로 오른 뒤에는 바치지 않는다.

삼사가 과거를 보는 공통된 규례[三士科擧通例] : 서울과 각 도(道)는 삼소(三所)[936]로 나누어 과장(科場)을 설치한다. 상사(上士)는 일소(一所)에

936) 삼소(三所) : 조선 시대에는 상피제(相避制)가 있어서 가족이 과거 시험의 시험관일 경우 그 시소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또 응시자가 많을 경우 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 17년(1435) 7월부터 분소법(分所法)이 실시되었다. 시장(試場)은 생원·

나아가고, 중사(中士)는 이소(二所)에 나아가고, 하사(下士)는 삼소(三所)에 나아간다. 상사는 50인(人)을, 중사는 25인을, 하사는 15인을 선발한다. 회시(會試)도 삼사를 나누어 삼소에 나아간다. 상사는 생원(生員)・진사(進士) 100원(員)을, 중사는 60원을, 하사는 40원을 선발한다. 문과와 무과의 급제시(及第試)의 경우에는 초시(初試)는 삼소로 나누고, 삼사가 각각 위의 규례에 따라 시소에 나아간다. 전시(殿試)의 경우에는 삼사가 함께 나아간다. 생원과 진사가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상사와 같다.

신은 삼가 상고하건대, 옛날에 삼명지신(三命之臣)[937]을 사(士)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대부(大夫), 낭관(郎官)이 있는데 학교의 생도들을 통틀어 사라고 합니다. 대저 사는 '일삼다[事]'라는 뜻입니다. 집안에서는 부형을 섬기고 출사하여서는 군주를 섬기고, 한가할 때 학문하는 것이 바로 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는 관학(館學)으로부터 아래로는 향교(鄕校)와 여항에 이르기까지 귀천과 현부(賢否)를 따지지 않고 갓을 쓰고 띠를 띤 자를 통틀어 사라고 칭합니다. 심지어 군역(軍役)에 양가(良家)의 소생을 모두 교안(校案)에 넣어 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리는 하도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혹은 이름을 숨기고 안면을 바꾸며 사실을 숨기고 꽁무니를 빼며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무리가 또한 그 사이에서 나오니, 평소 마을에서 고담준론을 하지만 혹 군적(軍籍)에 올라 강무할 일이 있으면 농간을 부려 이름을 지워버리는 자도 모두 사라고 일컫습니다. 명분이 바르지 않고 상하가 법도가 없어서 풍속이 날로 야박해지고 교화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다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신이 고심하여 삼가 이상과 같이 사를 세 등급으로 나누자는 설을 주장합니다. 이처럼 한다면 현우(賢愚)에 분별이 있고 귀천(貴賤)에 차례가 있어 혼잡하고 어지러운 풍습이 사라질 것입니다. 과거 시험장을 설치할 때 현우와 귀천이 같은 시험장에 함께 들어가 비천한 도굴꾼과 개백정의

진사시의 경우 일소(一所)와 이소(二所), 문과와 무과의 경우 일소, 이소, 삼소가 있었다.

937) 삼명지신(三命之臣) : 주대(周代)에 관작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구명(九命)이라 칭했는데, 삼명은 공(公), 후(侯), 백(伯)의 경(卿)에 해당되는 관작이다.

무리가 장보(章甫)와 현단(玄端)의 반열에 섞여 시끄럽게 난동을 부리기까지 하니 너무나도 기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시관은 금지하지 못하니, 가령 세속을 초월한 선비와 우뚝이 절개가 있는 유자가 본다면 어찌 그 사이에 고개를 숙이고 수모를 당하고자 하겠습니까. 과거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본래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 때의 제도가 아니고, 과거의 제도도 이처럼 문란하니, 도리에 어긋나는 가운데 또 매우 도리에 어긋난 것입니다. 품행이 단정한 군자가 어떻게 우리 조정에 출사하겠습니까. 품행이 단정한 군자가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는다면 아첨하는 무리와 봉록만 탐하는 무리가 날마다 전하 곁에 있을 것이니, 하·은·주 삼대 때의 지극한 다스림을 또한 어디에서 다시 보겠습니까. 지금 신이 내세운, 삼사(三士)가 각기 삼소(三所)에 나아가는 과거 제도가 비록 하·은·주 삼대 때의 제도는 아니지만 현우와 귀천이 섞여 어지러운 폐단을 조금이나마 저지할 수 있을 듯하고, 예의염치(禮義廉恥)를 아는 방도가 점차 여기에서 흥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사가 시강하는 통례**[三士試講通例]>

상사강(上士講) : 30세 이하는 사서(四書)를 강하고 겸하여 《소학(小學)》,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중에서 제비를 뽑아 강한다. 30세 이상은 삼경(三經)과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통감(通鑑)》, 《송감(宋鑑)》 가운데에서 원하는 것으로 강한다. 40세 이상은 사서삼경(四書三經), 《주례(周禮)》, 《예기(禮記)》 가운데에서 제비를 뽑아 강한다.
중사강(中士講) : 30세 이하의 강은 《대학(大學)》, 《논어(論語)》를 강하고, 30세 이상은 《맹자(孟子)》, 《중용(中庸)》을 강한다.
하사강(下士講) : 30세 이하는 《소학(小學)》이나 《사략(史略)》을 강한다. 30세 이상은 《대학(大學)》, 《논어(論語)》 혹은 《통감(通鑑)》을 강한다.

이상은 강관(講官)이 개강할 때의 규례이다. 상사(上士) 가운데 혹 논문(論文), 표문(表文), 책문(策問), 고부(古賦)를 지어서 강서(講書)를 대신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짓는 것을 허락한다. 입격시킬 만한 저술이 있는 경우는 강에서 통효(通曉)를 맞은 것과 같은 규례를 적용한다. 규정과 법식이 맞지 않는 저술은 불통(不通)을 맞은 것과 같은 규례를 적용한다. 중사(中士)와 하사(下士) 가운데 혹 고시부(古詩賦), 사서의(四書疑), 삼경의(三經義)를 짓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짓게 한다. 그 규정은 상사의 규례와 같이 한다.

이상 강은 도사(都事), 수령(守令), 학관(學官), 춘추고강(春秋考講)을 제외하고 3년에 한 차례 시행하되 별도로 어사(御史)를 보내고, 고강(考講)과 저술(著述)은 일일이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삼사시(三士試) 열강(閱講)에서 글의 뜻에 통달하고 의리가 관통하여 막힘이 없는 자와 저술이 월등하여 6분(分) 이상인 자는 입계(入啓)하여 초시(初試)에 입격한 자격을 준다. 3분 이상은 필(筆), 묵(墨), 지(紙), 연(硯) 등을 상으로 넉넉하게 내린다. 불통을 맞은 자는 정군역(丁軍役)으로 강등한다. 고강과 저술이 월등한 자가 주부(州府)에서는 10인, 군현(郡縣)에서는 5인 이상인 경우, 해당 수령과 학관에 대해 한 자급을 올려주고, 강에서 불통을 맞은 자가 주부에서는 15인, 군현에서는 10인 이상인 경우, 해당 수령에 대해 한 자급을 강등하고 학관의 경우는 파직한다.

<**농민에 관한 전례**[農民典例]>

농민의 전결(田結)은 10결(結)을 1호(戶)로 삼고, 1호의 부세(賦稅)는 한 해에 4등급으로 나눈다.

상풍농(上豐農) 1호 : 세미(稅米)[938] 100두(斗), 황두(黃豆) 15두.
부미(賦米)[939] 60두, 부포(賦布) 10필(匹).【5승(升) 포(布)이다. 1필은 35척

938) 세미(稅米) : 조세로 바치는 쌀을 이른다. 전세미(田稅米), 혹은 공미(貢米)라고 한다.

939) 부미(賦米) : 대동으로 거두는 세를 이른다. 대동법에서는 공물을 쌀로 대신 바치게 하였는데, 이때 거두는 세를 이른다.

(尺)이다.】
중풍농(中豐農) 1호 : 세미 80두, 황두 12두.
부미 45두, 부포 8필.
하풍농(下豐農) 1호 : 세미 60두, 황두 9두.
부미 30두, 부포 6필.
흉년에는 농민 1호당 : 세미 40두, 황두 9두.
부미 15두, 부포 4필.

<농민 호정의 공미에 관한 전례[農民戶丁貢米典例]>【9품 이상의 관원, 생원, 진사 및 사대부 집안에서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는 호미(戶米)를 면제해 주고, 병사가 된 자는 호미를 면제해 준다.】

1호(戶) 10결(結) : 남녀를 통틀어 상하 15세 이상부터 60세까지 모두 호적에 기록하고, 1인당 1년에 백미(白米) 5승(升)을 바쳐 수령의 세록(歲祿)으로 삼는다.【사신(使臣)에게 지공(支供)하는 비용도 이 속에 포함한다.】

<농민의 호정이 역역에 제공하는 의무에 관한 전례[農民戶丁力役典例]>

1호가 10결(結)을 농사지을 경우 1년에 5정(丁)을 내어서 역역(力役)을 제공한다.【장빙(藏冰)[940], 시탄(柴炭)[941], 마초(馬草)[942] 등의 역역을 담당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는다.】정식 외에 별도로 민력을 쓸 일이 있으면【성지(城池)를 수리하거나 관사와 공해(公廨) 등을 짓는 것을 별도의 규식으로 삼는다.】 서울은 한성부에 입계하고, 지방은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한 뒤에 그 민력을 쓰되, 5인 이상을 함부로 쓰는 자는 파직한다.

이상은 10결(結) 1호(戶)에 관한 규정이다. 무릇 부세(賦稅), 호정(戶丁),

940) 장빙(藏氷) : 겨울에 얼음을 채취(採取)하여, 빙고(氷庫)에 저장하는 일이다.

941) 시탄(柴炭) : 땔나무와 숯을 마련하는 일이다.

942) 마초(馬草) : 역마의 사료로 쓰는 풀을 마련하는 일이다.

공미(貢米), 역역(力役) 등의 일은 호수(戶守) 1인이 납부를 감독한다. 무릇 부세는 1년 안에 수곡(水穀)이 상풍(上豐)이고 전곡(田穀)이 중풍(中豐)이면, 수곡은 상등(上等)을 적용하고 전곡은 중등(中等)을 적용한다. 전곡이 상풍이고 수곡이 중풍이면, 전곡은 상등을 적용하고 수곡은 중등을 적용한다. 하풍(下豐)과 흉년일 때에도 모두 이 규례를 적용한다.

신은 삼가 상고하건대,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의 제도는 백성에게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었습니다. 이보다 많으면 걸(桀)이 되고 이보다 적으면 맥(貊)이 됩니다.[943] 지금 우리나라의 부(賦)는 하·은·주 삼대보다 몇 배나 많은데 세(稅)는 도리어 옛날 제도보다 줄어들었으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이 그 연유를 자세히 따져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세법(稅法)은 바로 조종(祖宗)의 옛 제도이므로 이처럼 줄였습니다. 부법(賦法)으로 말하면 필시 연산군(燕山君)이나 광해군(光海君) 때 간신이 법률을 마음대로 조정하여 조종의 제도를 다 바꾸어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거두었습니다. 아첨하여 임금을 받든 폐단이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에도 다 제거되지 못하여 그대로 답습하여 점점 쌓여서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 폐단을 혁파하지 않는다면 비록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이 위에 있고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으로 하여금 교화를 베풀게 하더라도 백성들은 필시 지극한 은택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신이 삼가 우리나라 논밭에서 나는 1년의 소출을 고찰하여 비옥한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에 따라 절충하고, 풍년과 흉년에 따른 차이를 바로잡아 감히 1호당 10결의 법을 정립하고 연분사등(年分四等)의 규정을 만들었으니 대략 하·은·주 삼대 때 10분의 1의 조세를 거두는 법을 모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선왕의 정교(政敎)는 아마 이로 인하여 점차 회복될 것이고 백성들도 살아갈 수 있어 지극한 다스림을 혹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943) 이보다……됩니다 : 걸 임금은 하(夏)나라의 마지막 임금으로 폭군의 대명사이다. 맹자(孟子)의 제자 백규(白圭)가 20분의 1의 조세를 취하고자 한다고 하자, 맹자가 이는 오랑캐의 방도[貊道]라고 하면서 10분의 1을 취했던 요순의 방도를 기준으로, 이보다 많으면 걸왕이고 이보다 적으면 오랑캐의 방도라고 대답한 고사가 있다.《孟子 告子下》

비록 그렇지만, 신이 일찍이 옛날의 왕자(王者)는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취하니 그 거두는 것이 매우 적지만 오히려 나라의 재정이 넉넉하고 봉록이 풍족한 것을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후세의 군주는 백성에게 거두는 것이 한정이 없어서 10의 5보다 훨씬 많이 거두었지만 나라에는 남아 있는 재물이 없고 관리의 녹봉도 매우 빈약하였으니, 이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그 까닭을 깊이 생각해 보니, 옛날의 인군은 스스로 보양(保養)하는 것은 매우 적게 하고 관원들은 법도가 있었으므로 수입을 따져서 지출하였기에 적게 거두어도 재정이 넉넉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무익한 관원이 위에 너무 많고 급하지 않은 수요가 아래에 지나치게 많습니다. 주현(州縣)이 여기저기 퍼져 있고 향당(鄕黨)에는 법도가 없으며, 법령이 문란하고 교화가 행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진상하는 수량을 먼저 정하고 내직과 외직의 법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하·은·주 삼대 때 10분의 1로 거두는 좋은 정치와 훌륭한 교화가 시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관제(官制)에 관한 법을 뒤에 논하니 성상께서 재결해 주소서.

<**내직에 관한 전례를 논하다**[論內官制典例]>

신은 삼가 살피건대, 농민을 네 등급으로 나누고 10분의 1일의 조세를 거두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직과 외직의 제도 및 진상하는 방물(方物)의 수량을 먼저 정한 뒤에 그 법이 공평해지고 백성들이 지극한 은택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그 제도를 함부로 논하여 '농민에 관한 전례(典例)' 뒤에 붙입니다.

신이 삼가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 때의 제도를 살펴보니, 대국 (大國)의 경우는 상대부(上大夫)가 3인이고, 하대부(下大夫)가 5인이고, 그 아래에 상사(上士), 중사(中士), 하사(下士)의 관사(官師)가 약간 인이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대국의 경(卿)은 그 녹봉이 10만 종(鍾)이니, 인원수가 적고 녹봉의 수량은 마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이 삼가 전고(前古) 중국의 관제(官制) 및 명(明)나라의 관제를 살펴보니, 우리나라처럼 너무 쓸데없는 관원질(官員秩)이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중국은 땅이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넓고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많지만, 내직으로 여러 관직과 외직으로 주군(州郡)의 숫자는 우리나라에 비해 그다지 현격하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수천 리밖에 되지 않는 땅덩이에다 360군현을 나누고, 수천 리밖에 되지 않는 땅의 수입을 가지고 북쪽으로 오랑캐를 섬기고 동쪽으로 왜인을 접대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온갖 관사와 한직에까지 보내니, 백성의 재물이 어떻게 고갈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나라의 재용이 어떻게 넉넉할 수 있겠으며, 요록(料祿)을 어찌 넉넉하게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944] 더구나 작은 나라의 인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관·무관·남반(南班), 내직과 외직의 여러 관사와 학관(學官)·역관(驛官)·변경의 장수를 통틀어 머리에 관을 쓰고 띠를 띠고서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자가 걸핏하면 만으로 헤아리니, 양전(兩銓)[945]을 맡은 자가 비록 인재를 잘 선발하고자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1부(府), 1사 (司), 1원(院), 1관(館)의 경우, 많게는 15, 6원(員), 적어도 12, 3원을 밑돌지 않습니다. 아침에 옮기고 저녁에 바뀌며, 취해서 들어와 몽롱한 상태에서 나가고, 서리에게 명을 듣고, 도로에서 호창(呼唱)하는 자는 나라의 입장에서나 백성의 입장에서나 어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위의 높고 낮음만 따지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가 관사에 가득하니, 자리만 차지하고 국록만 축내는 자를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다면 주공(周公)을 재상으로 삼고 고요(皐陶)에게 법을 집행하게 하더라도[946] 왕도(王道)의 지극한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944) 요록(料祿)을……있겠습니까 : 원문은 '科祿安得給足哉'인데, 문맥을 살펴 '科'를 '料'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945) 양전(兩銓)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합하여 일컬은 것인데, 이조는 문관의 전선(銓選)을 맡고 병조는 무관의 전선을 맡았기 때문에 전조(銓曹)라고 일컬은 것이다.

946) 주공(周公)을……하더라도 : 주공은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아들이고, 무왕(武王)의 아우이며 성왕(成王)의 숙부로, 이름은 단(旦)이다. 무왕을 도와 주(紂)를 치고, 무왕이 죽고 어린 성왕이 즉위하자 섭정(攝政)하여 천하를 잘 다스렸다. 고요(皐陶)는 순 임금 때의 훌륭한 신하 가운데 한 사람으로 법관이 되어 법을 만들고 형벌을 제정하였다.

신은 바다 한쪽 구석 궁벽한 곳에 살아 조정 여러 관사에 대해서 비록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논하겠습니다. 홍문관(弘文館)이 있는데 또 예문관(藝文館)이 있고 승문원(承文院)이 있으니, 어찌 굳이 교서관(校書館)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훈련원(訓鍊院), 군기시(軍器寺) 등 병조의 여러 관사는 통합할 수 있습니다. 선공감(繕工監), 상의원(尙衣院) 등 공조의 여러 관사는 겸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수사(內需)가 있고 또 내자시(內資寺)가 있으며, 이미 사옹원(司饔院)이 있고 또 사온서(司醞署)가 있으니, 사축서(司畜署)는 전생서(典牲暑)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으며, 의금부(義禁府)는 전옥서(典獄署)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는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삼가 관제개정도감(官制改定都監)을 속히 세워 하·은·주 삼대 때의 다스림의 요체를 잘 아는 노성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에게 그 직임을 맡겨 하나하나 철저히 조사하여 혁파할 만한 것은 혁파하고 겸할 만한 것은 겸하게 하여 가능한 한 줄이고, 그러한 뒤에 또 공세마련도감을 두소서. 무릇 위에 무익하고 백성들에게 해로운 진상품에 대해서는 일일이 혁파하고, 그러한 뒤에 네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와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를 팔도에 반포하여 시행하소서. 이렇게 하였는데도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민심이 불안해하고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으며 왕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신은 떳떳한 형벌을 받아 참혹하게 주륙을 당하더라도 또한 달게 받을 것입니다.

<**외직에 관한 전례를 논하다**[論外官典例]>

주부(州府) : 9000결(結).【9리, 18당(黨), 90보(保), 900호(戶).】
군(郡) : 7000결.【7리, 14당, 70보, 700호.】
현(縣) : 5000결.【5리, 10당, 50보, 500호.】

이상은 주부(州府), 군(郡), 현(縣)에 공통된 전례이다. 10결(結)이 1호(戶)가 되고, 100결이 보(保)가 되고, 500결이 당(黨)이 되고, 1000결이 리(里)가 된다.

호(戶)에는 수(守)를 두고, 보(保)에는 정(正)을 두고 , 당(黨)에는 사(師)를 두고, 리(里)에는 관(官)을 둔다. 10호의 수(守)는 보의 정에게 통솔을 받고, 5보의 정은 당의 사에게 통솔 받고, 2당(黨)의 사(師)는 이관(里官)에게 통솔 받는다. 무릇 나라의 호령과 군읍(郡邑)의 분부는 읍(邑)에서는 이관 (里官)에게 공포하고, 이관은 당의 사에게 공포하며, 당의 사는 보의 정에게 공포하며, 보의 정은 10호(戶)에 공포한다. 공세(貢稅)를 거두고 병사를 징발하는 것은 모두 주관하는 사람을 두어 제때에 마련해 내게 한다. 1당(黨)의 왼쪽에는 서실(書室)을 세우며 서실에는 장(長)을 두어 삼사(三士)의 자제를 가르치고, 1당(黨)의 오른쪽에는 사정(射亭)을 세우며 사정에는 수(帥)를 두어 매달 초하루에 각종 병사를 모아서 무예(武藝)와 무서(武書)를 가르치게 한다. 1리(里)에 또 농관(農官) 1인을 두어 농상(農桑)을 권장하게 한다. 집에 농기구를 갖추지 않고 집에 뽕나무와 마를 심지 않는 자에게는 포(布) 1필을 내게 한다.

1리(里) : 농상병(農上兵) 100인, 농하병(下兵) 100인
1현(縣) : 농상병 500인, 농하병 500인
1군(郡) : 농상병 700인, 농하병 700인
1주(州) : 농상병 900인, 농하병 900인

신은 삼가 살피건대, 옛날에는 인(隣), 리(里), 주(州), 향(鄕)에는 모두 정해진 숫자가 있었습니다. 5가(家)가 인(隣)이 되고, 25가가 리(里)가 되고, 100가가 족(族)이 되고 500가가 당(黨)이 되고, 2500가가 주(州)가 되고, 1만 2500가가 향(鄕)이 됩니다. 향의 1부(夫)는 전(田) 100묘(畝)를 받고 8부(夫)가 함께 1정(井)을 경작하였습니다.[947] 무릇 공세(貢稅)와 병거(兵車)의 숫자는 모두 전세(田稅)를 계산하여 냅니다. 향과 인의 화목한 풍속

---

947) 향의……경작합니다 : 중국 하(夏)·은(殷)·주(周) 시대에 시행했던 정전법(井田法)을 가리킨다. 정전법은 사방 1리의 농지를 정(井) 자 모양으로 9등분하여 중앙의 한 구역을 공전(公田), 주위의 여덟 구역을 사전(私田)으로 하여 여덟 농가에 나누어 사유로 맡기고 여덟 집에서 공전을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다.

또한 거리의 원근에 따라 구별하니, 이 때문에 병부(兵賦)[948]가 균평(均平)하였습니다. 주(州)와 군(郡)에 일정한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이 뒤섞여 일정하지 않으니, 어떤 경우 주(州)이지만 현(縣)보다 작거나 군(郡)이지만 부(府)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전결(田結)은 균평하지 않고 인리(隣里)는 법도가 없어서 온갖 일이 전도되고 모든 일이 순서가 없습니다. 심지어 100결(結) 정도 되는 토지에 별도로 1현(縣)을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조밀한 관부(官府)가 10리에 이어져 백성들의 피폐함이 극도에 달한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그 까닭을 깊이 생각하니,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삼한(三韓) 때 수천 리에 불과한 땅을 삼국(三國)으로 나누어서 각각 부락(部落)을 세우고 서로 전쟁하였습니다. 작은 진(陣)과 작은 부(部)가 5리마다 있었습니다. 통합된 왕조가 선 뒤에 작은 부락 십수 개를 병합하여 1주(州)로 만들기도 하고 10실(室) 되는 작은 현(縣)을 혹 예전대로 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 조선이 건국된 뒤에 옛날 풍습을 통렬하게 혁파하고 온갖 폐해진 것들을 모두 일으켜 세웠는데, 군현의 제도에 대해서는 대개 옛날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주현은 일정한 법제가 없어 그 폐단이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아,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 오늘날의 풍습을 바꾸지 않는다면 성인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극한 다스림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은 삼가 주(州), 부(府), 군(郡), 현(縣), 리(里), 당(黨), 보(保), 호(戶)의 법제에 대해 이상과 같이 전결(田結)로 한계를 삼고 병부(兵賦)를 정하였습니다. 비록 하·은·주 삼대 때의 법도에 모두 부합하지는 못하더라도 군현은 제도가 있고 병부는 질서가 있을 것이니, 이를 통해 점점 선왕의 다스림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

948) 병부(兵賦) :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만든 제도로 토지의 단위와 분배된 토지의 넓이에 따라 징수할 병마(兵馬)의 수를 규정한 것을 이른다.《通典 食貨 田制上》

<**공민에 관한 전례**[工民典例]>

상공(上工) : 금공(金工), 은공(銀工), 석공(錫工), 동공(銅工), 유공(鍮工), 철공(鐵工)
중공(中工) : 석공(石工), 목공(木工), 피공(皮工), 각공(角工)
하공(下工) : 도공(陶工), 와공(瓦工), 죽공(竹工), 종공(騣工), 화공(畫工)

이상 상공(上工) 1인은 해마다 칠승포(七升布) 1필을 바치고, 중공(中工)은 해마다 오승포(五升布) 1필을 바치고, 하공(下工)은 해마다 사승포(四升布) 1필을 바친다. 역역(力役)을 사용하는 것은 1년에 4일을 넘지 말아야 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는 조세로 내는 포(布)를 면제해 준다.

신은 삼가 살피건대, 공인(工人)은 하찮은 기술로 백성들이 내는 곡식을 먹고 살지만 힘써 농사짓는 사람보다 부유한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부공(賦貢)은 비록 혹 납부하더라도 10인이 1인이 내는 정도의 세금을 바칩니다. 그런데도 수령이 사사로이 물품을 마련하는 것에 혹하여 매우 비호합니다. 그러므로 각 읍 공인의 점촌(店村)은 끝까지 모두 매우 풍족하지만 농민은 매우 피폐합니다. 공인은 이미 부유한 데다 인원수도 많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또 공업(工業)에 부지런하지 않으니, 사람은 많고 물건은 부족하여 물가가 폭등합니다. 이는 적지 않은 폐단입니다.

<**상민에 관한 전례**[商民典例]>

상상(上商) : 대선상(大船商), 금견상(錦絹商)
중상(中商) : 중선상(中船商), 금옥동석상(金玉銅錫商), 약상(藥商), 마저포상(麻苧布商), 모물상(毛物商)
하상(下商) : 소선상(小船商), 어채상(魚菜商)

이상 상상(上商)은 해마다 칠승포(七升布) 4필(匹)을, 중상(中商)은 칠승포

3필을, 하상(下商)은 칠승포 2필을 바친다. 무릇 상인이 거처하는 곳은, 서울에는 한성부(漢城府), 지방에는 각각 해당 고을이 모두 명부를 작성한다. 장부를 살펴 거둔 공물(貢物)은 모두 호조에 실어다 바친다. 그리고 그 상선(商船)과 상인(商人)은 모두 본부(本府)와 본읍(本邑)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에 도로를 통행한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상상(上商)은 참수하고, 중상(中商)은 장(杖) 100에 충군(充軍)하며, 하상(下商)은 장(杖) 50에 도(徒) 2년에 처한다. 무릇 행상(行商)으로서 군에 복무하는 자는 공포(貢布)를 면제한다.

신은 삼가 살피건대, 부상대고(富商大賈)[949]는 일하지 않고 농민이 낸 세금을 먹으면서 원근(遠近)을 출입하므로 사방의 물정을 잘 알아 평생 양민(良民)을 속이는 것을 업으로 삼습니다. 호방하고 재주가 있으며 용맹하고 힘이 센 자 가운데는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을 먹고 이따금 서로 모여서 도적질하는 자가 있습니다.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한갓 농사짓는 선량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낼 줄만 알고 장사치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두지 않으니, 또한 작은 폐단이 아닙니다.【어민(漁民)과 염민(鹽民)은 마땅히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승민에 관한 전례**[僧民典例]>

상승(上僧) : 불교의 교리 및 유서(儒書)에 통달하거나 산으로 들어가 곡기를 끊은 채 참선하는 자를 상승(上僧)으로 삼는다. 이러한 부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승(下僧) : 큰 사찰에 거처하는 무리로서 비록 산사(山寺)에 거처하더라도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놀고먹는 것을 일삼는 자는 모두 하승(下僧)으로 삼는다. 본관(本官)이 모두 명부를 작성하여 호조에 올린다. 1인당 해마다 육승포(六升布) 1필(匹)을 바친다. 모든 승려마다 각각 도첩(度牒)을 발급하니,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도 도첩이 없이 출입하는 자는 참수한다.

949) 부상 대고(富商大賈) : 많은 자본을 가지고 크게 하는 상인을 이른다.

군병이 된 자는 포를 바치는 것을 면제한다.

신은 삼가 살피건대, 오랑캐의 가르침은 사람을 미혹시켜 양민의 자제로 하여금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게 하니, 승려들이 많은 것이 요즘 더욱 심합니다. 농가의 백성들은 일 년 내내 고생스럽게 일하여 모두 세금으로 바치기에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봄에는 굶주리며 도로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산속의 무뢰한(無賴漢)은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으며 시가지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저 고달픈 농민들은 바라보고 부러워하며, 지친 군졸들은 일찍 머리를 깎지 않은 것을 매우 한스러워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승도(僧徒)는 대개 일반 백성과 비교하면 비록 이교(異教)라 하더라도 그들이 믿는 도에 전심전력하여 암혈(巖穴)에 들어가 곡기를 끊고 파리한 몰골로 수도하는 자는 납세에 얽매이게 할 수 없지만 나머지 제멋대로 행동하며 거리낌이 없이 군역을 피하는 것을 일삼는 자에 대해서 어찌 합당한 역을 지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저들도 우리 국토에 사는 우리 백성인데 병영과 수영 및 군읍에서 으레 사적인 일을 그들에게 시켜 마음대로 이익을 독차지하니 이는 그릇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호조에서 장부를 살펴 포를 거두는 외에는 베 한 자 종 한 장이라도 마음대로 거두지 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민에 관한 전례**[兵民典例]>

사상병(士上兵) : 하사(下士)로서 강등되어 군병이 된 자 가운데 나이가 50 이하면 사상병(士上兵)으로 삼는다.
사중병(士中兵) : 하사로서 강등되어 군병이 된 자 가운데 나이가 50 이상이면 사중병으로 삼는다.
사하병(士下兵) : 하사로서 강등되어 군병이 된 자 가운데 나이가 비록 50 이하라도 혹 현재 질병이 있거나 체력이 약하여 적진으로 뛰어드는 데

합당하지 않은 자는 사하병으로 삼는다.

이상은 사병(士兵)에 관한 규례이다. 상병(上兵) 1인에게는 중하병(中下兵) 4인(人)을 주어서 봉족(奉足)으로 삼게 하되, 3인은 전마(戰馬)를 갖추어 평상시에 극진히 기른다. 진법(陣法)을 연습하고 수자리 서러 갈 때라든지 적진을 향해 나아갈 때 상병은 말을 타고 달려 나갈 따름이다. 봉족 1인은 활과 화살, 창과 총 등의 병기를 마련하여 잘 정비한 다음 상병에게 공급한다. 상병은 평소에 맡은 일이 없고, 뛰고 돌격하며 활을 당겨 사냥할 따름이다. 위급한 일이 있으면 즉시 뛰어나간다.

신은 삼가 살피건대, 하사(下士)의 무리는 비록 미욱한 일개 농부이지만 평소 시골에서는 양반으로 일컬어집니다. 종이나 노비들은 모두 높은 사람으로 대우하고, 사대부도 당에 올라앉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강(講)에서 낙제하여 군병으로 강등되면 향당(鄕黨)에서 무시하고 노비들도 멸시하니 부모형제가 모두 울부짖으며 애석하게 여깁니다. 짐짓 강에서 낙제하여 군병이 된 이 무리들은 죽고 싶을 만큼 분개하는 마음은 있어도 정교하게 군무를 연마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나라에서 군사를 양성하는 것이 너무 각박하게 한 잘못입니다. 대저 병영은 사지(死地)이니,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몰아넣어 우리 종사를 편안하게 보호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을 평소에 대우할 적에 넉넉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각박하게 다그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병사로 하여금 평소에 굶주림과 추위, 험난한 곳에서 날마다 몸이 고달프게 하다가 위급한 일이 닥칠 경우에 "너는 어찌 사직을 위해 몸을 바치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이는 남의 살갗을 도려내어 자신이 아끼는 몸을 구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괜찮겠습니까? 지금 사민(四民) 가운데 오직 병사가 가장 고달픕니다. 변장(邊將)과 변수(邊帥)는 오직 제 한 몸만 이롭게 할 줄 알고 아끼는 군졸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혹독하게 채찍질할 줄만 알고 무예를 가르치지 않으며, 더욱 가포(價布)[950]를 독촉하여 징수하고 고혈을 다 짜내어 처첩과 친구들을 먹여 살리니, 사(士)는 사람의 행색이 아닙니다.

---

950) 가포(價布) : 국가에 일정한 신역(身役)을 치러야 할 사람이 동원되어 나가지 않고 그 신역의 대가로 바치는 포목(布木)을 말한다.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나라에서 병영을 설치한 것은 바로 무장(武將)을 부귀하게 해 주기 위한 것이지 종묘사직을 위한 계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신은 날마다 아래에서 이익을 챙기고 나라는 날로 망해갑니다. 신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신은 원하건대, 지금부터 각 도의 병사(兵使)와 수사(水使)에게 해당 고을을 겸하여 지키고 그 고을에서 녹봉을 받게 하며 군졸의 가포는 일절 징수하지 말게 하고, 만일 사졸(士卒)에게 함부로 불법을 자행하여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가 있다면 대죄(大罪)로 다스리게 하소서. 또 강에서 낙제하여 군인이 된 하사(下士)를 '하사병(下士兵)'이라고 하고 장수가 된 자가 그를 대우하되 천한 신분의 군졸과 서로 섞이지 않게 하소서. 1년에 한 차례 번(番)을 나누어 군영에 들어가면 장수가 된 자는 무서(武書)와 사예(射藝)를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다른 부역을 지워 독촉하지 않으며, 집에 있으면 수령이 한 달에 한 차례 무서를 가르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연습하게 하여 재예가 뛰어난 자에게는 많은 상을 내려 영화롭게 해 주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하사(下士)의 무리는 병사들이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고 문장의 장구나 짓는 진부한 선비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필시 또한 많을 것입니다. 병이 된 자는 좋은 말을 타고 가벼운 옷을 입고 사냥하며 말을 달리니, 반드시 또한 익힌 기예를 펼쳐 보고자 하여 변경으로 가서 일전을 벌여 만리의 공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필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북(東北)의 근심은 어찌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이상 사병(士兵)은 모두 마병(馬兵)이니, 궁술을 익힌다.】

농상병(農上兵) : 농가의 정(丁)은 나이 40세 이하는 상병(上兵)이 되니, 10결(結)의 전지를 경작하는 1호(戶)는 상병 1인을 낸다.
농하병(農下兵) : 농가의 정은 나이 40세 이상은 하병(下兵)이 되니, 10결의 전지를 경작하는 1호는 하병 1인을 낸다.

위에서 이른바 '농(農)'이라는 것은 비단 농민뿐만이 아니다. 삼사(三士), 삼공(三工), 삼상(三商)의 무리로서 또한 자신의 생업에만 전념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리를 통틀어 농민(農民)이라고 하더라도

괜찮다. 경대부(卿大夫)로 말하면 자신은 비록 조정에서 벼슬하지만 그 전토(田土)의 결부(結負)[951]가 군현에 흩어져 있는 부류 및 시골에 사는 삼사인(三士人)은 모두 농업에 종사한 뒤에 부모와 처자식이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수 있으니, 이러한 무리는 자신이 농병(農兵)이 될 수 없기에 모두 노복(奴僕)으로 충당한다. 농사일을 겸하는 공인(工人) 및 선박을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고 농사일을 겸하는 상인(商人)으로 말하면 모두 농병이 될 수 있다.

신은 삼가 살피건대,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의 제도는 전지(田地)의 부세(賦稅)에 따라 군사를 냈으니,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이른바 '자국의 군대를 다 거느린다.[悉索弊賦]'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민과 천민만 군졸이 되니, 한 집안에 부자와 형제가 모두 군역에 충정되어 평생 고생하지만 전토(田土)를 많이 소유하여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는 자는 편안히 앉아서 홀로 그 즐거움을 누립니다. 오민(五民)이 아님이 없지만 고생과 즐거움이 균등하지 않고 수고로움과 편안함이 현격히 다르니, 왕자(王者)가 천하를 고르게 다스리는 방도가 전혀 아닙니다. 신은 원하건대, 앞으로는 옛 제도를 말끔하게 씻어 내고 한결같이 전지의 부세에 따라 군사를 내는 하·은·주 삼대 때의 제도를 따라 10결(結) 내에서 상병(上兵) 1인, 하병(下兵) 1인을 정하고, 상병 1인의 군복과 군기(軍器)는 10결 내에서 일일이 마련해서 지급하고 전쟁에 나아갈 때 필요한 군량은 10결에서 함께 마련하고, 하병 1인이 군량을 운반하여 따르게 하소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삼대 때의 제도에 가까워 민심이 안정되고 군병의 허실에도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 농병은 모두 보병(步兵)이다. 이들의 기예는 모두 화포를 연습한다.】

공병(工兵) : 공방에 거처하는 각 색(色)의 공인은 부유한 정장(丁壯)을 가려서 상병(上兵)으로 삼고, 그다음 3인을 봉족(奉足)으로 삼아 경포수(京炮手)에

---

951) 결부(結負) :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토지의 면적 단위이다. 조선 시대에는 1결을 35보 평방으로 확대하고 보척(步尺)의 기준을 주척(周尺)으로 정하였으며,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두어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에 따른 양전척(量田尺)을 정하였다.

충정한다.[952]
상병(商兵) : 배에서 장사하는 상인 및 사로잡혀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정장(丁壯)을 가려 수군(水軍)에 충정하고, 그다음은 조군(漕軍)에 충정한다.

이상은 대선 수군(大船水軍)은 4인(人), 조군(漕軍)은 3인이다.【그 군기(軍器)와 군복은 같은 배의 사람이 함께 마련하여 지급한다. 아래도 같다.】
중판선 수군(中販船水軍)은 3인, 조군은 2인이다.
소판선 수군(小販船水軍)은 2인, 조군은 1인이다.
금저(錦苧)와 금동(金銅) 등을 파는 상인은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를 헤아려 성실한 자는 경포수(京炮手)의 호수(戶首)에 충정하고 성실하지 않은 자는 경포수의 봉족에 충정한다.

신은 삼가 살피건대, 상판(商販)의 이익은 농부보다 열 배나 많지만 판매하는 물자는 모두 농가에서 나옵니다. 더구나 농부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 흙덩이처럼 미련하지만, 상인은 도로를 집처럼 여기며 험난한 길을 다니고 걸음이 빠르니 사정을 헤아리는 것이 농부보다 열 배나 뛰어납니다. 농부보다 열 배나 많은 재산에다 농부보다 열 배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니, 사졸로서 치밀하고 민첩함이 이보다 나은 자가 없습니다. 더구나 배를 타고 장사하는 상인(商人)과 연해(沿海) 포구의 백성[953]은 그 부류가 매우 많고 강이나 바다에서 나고 자라 섬과 넘실거리는 바다를 농토로 삼으니, 풍랑이 이는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무리를 수군(水軍)에 충정한다면 스스로 전함을 갖출 것이니, 무예를 시험하고 정밀하게 조련하여 비상시를 대비한다면 오(吳)나라와 초(楚)나라의 주사(舟師 수군(水軍))만 어찌 강동(江東)에서 아름다움을 독차지하게 할 따름이겠습니까.
논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선상(船商)의 무리는 바다에 기생하며 아침

952) 경포수(京炮手)에 충정한다 : 원문은 '充丁于京炮手'인데, 문맥을 살펴 '丁'을 '定'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953) 포구의 백성 : 원문은 '捕民'인데, 문맥을 살펴 '捕'를 '浦'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저녁으로 사방을 떠돌아다녀 일정한 거처가 없으니, 평상시에도 군인의 수효를 채우게 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위급할 때 정처 없이 떠나버린다면 어느 곳에서 찾아다 막아 지키게 하겠습니까. 금은(金銀)과 비단을 파는 상인은 남쪽에서 모아 북쪽에서 파니 하루도 집에 있지 않는데, 또한 어찌 이 무리들을 데리고 위급함을 대비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답하기를 "선박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사람은 비록 배를 타고 남북으로 옮겨 다니며 장사하지만 거처하는 데는 본래 일정한 곳이 있습니다. 더구나 옮겨 다니며 장사하는 곳은 북쪽으로 오랑캐 지역이거나 남쪽으로 왜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우리나라 천 리 땅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평상시에 기강을 엄하고 분명히 하며 지극한 은혜를 내린 다음 반드시 본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뒤에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며 장사하게 해야 합니다. 변고가 있을 때 일시에 연변의 각 고을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떠돌아다니며 장사하는 곳에 급히 전령을 보내고, 본읍에서는 감압관(監押官)으로 하여금 본영(本營)에 영부(領付 부속)하게 하되, 미적거리며 지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즉시 군율(軍律)을 시행하게 한다면 어찌 일을 당해 모이지 않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부모와 친지가 강촌에 살고 있으니, 어찌 징발하는 데 어려운 일을 어렵게 여기겠습니까. 금은과 비단을 파는 상인으로 말하면 몸은 비록 사방으로 떠돌아다니지만 집은 일정한 곳이 있으니, 만약 위급한 일이 닥치면 부모를 가두고 사방에 공문을 보내 일시에 조발하여 보내게 한다면 또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평상시라면 항상 입번(入番)하는 달을 정해 비록 사방으로 멀리 나가서 장사하더라도 정한 기일에 와서 모이게 하고, 만약 기일을 어긴다면 친족에게 책임을 물어 대죄(大罪)로 논죄한다면 또한 어찌 징발에 응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승병(僧兵)

승상병(僧上兵) : 40세 이하인 승려는 상병으로 삼는다.
승하병(僧下兵) : 40세 이상인 승려와 비록 40세 이하라도 체력이 약한 승려는 하병으로 삼는다.
이상 승상병 1인에게는 하병 4인을 봉족(奉足)으로 삼아 군기(軍器), 군복, 군량을 일일이 마련하여 지급하게 한다.

신은 삼가 살피건대, 양민(良民)의 적자(赤子)를 빼앗아 부자의 인연을 끊고 후손을 낳지 않으며, 농민의 오곡을 빼앗아 화복(禍福)으로 현혹하고 궁각(宮閣)을 사치스럽게 꾸미는 자는 승려입니다. 그 정상을 따져 보면 국법상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수행하는 도량과 큰 사찰이 10리마다 들어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세도(世道)에 해독을 끼치는 것은 이루 다 말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300년이나 이어 온 맑고 성스러운 조정에서 이 일에 대해서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으니, 신은 삼가 매우 통탄스럽게 여깁니다. 신은 삼가 청하건대, 우리나라에 사는 승려는 모두 명부에 기록하여 사람마다 인패(印牌)를 주고, 인패가 없이 길을 다니는 자에 대해서는 대벽(大辟)으로 논죄하게 하소서. 그런 뒤에 그 가운데 건장한 자를 가려 상병(上兵)으로 삼고, 늙고 연약한 자는 하병(下兵)으로 삼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글을 알아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자를 가려 100사람을 거느리는 장수로 삼으며, 또 그 가운데 조금 뛰어난 자를 가려 1000사람을 거느리는 장수로 삼으며, 또 가장 호걸스러운 자를 가려 한 도(道)의 장수로 삼습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병사들처럼 한결같이 행진(行陣)과 무재(武才)를 익히게 하다가 변고가 생기면 독자적으로 한 방면을 담당하게 한다면 비단 적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민들의 자손들 또한 병역을 기피하여 승려가 되어 오륜을 끊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노병(奴兵)

노상병(奴上兵) : 각 사(司)의 노복(奴僕)으로 40세 이하이면 상병으로 삼는다.
노하병(奴下兵) : 각 사 노복으로 40세 이상이면 하병으로 삼는다.

이상은 내수사(內需司) 이하 각 관사 노복으로 팔도에 흩어져 있는 자에 관한 규례이다. 여복(女僕)은 일일이 신공(身貢)을 징수하여 본사(本司)에 바치고, 남복(男僕)은 모두 군병에 예속시킨다. 상병(上兵) 1인에게는 하병(下兵) 3인을 준다.

신은 삼가 살피건대, 옛날 열국에는 창두병(蒼頭兵)[954]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창두(蒼頭)'라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시노(寺奴)입니다. 민간에 흩어져 사는 여러 시(寺)의 노비는 그 숫자가 매우 많고, 여복(女僕)에게 신공을 징수하면 여러 관사의 재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남복(男僕) 가운데 장년(壯年)으로 건장한 자가 상병이 되고, 늙고 병든 자가 하병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화총(火銃)을 익히게 하여, 그 재예가 정밀하고 민첩한 자는 경포수(京炮手)로 올리고 그다음은 각 영의 장수에게 소속시킨다면 10만의 무리를 여기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민(兵民)**에 관한 총목**(總目)[兵民總目] ○병은 6과(科)로 나눈다.

사병(士兵) : 상(上), 중(中), 하(下). 감영에 소속시킨다.
농병(農兵) : 상(上) 하(下). 병영(兵營) 및 각 보(堡)에 나누어 소속시킨다.
공병(工兵) : 상(上) 하(下). 경포수(京炮手)에 소속시킨다.
상병(商兵) : 상(上) 하(下).【선상(船商)은 수영(水營)에 소속시키고,

954) 창두병(蒼頭兵) : 푸른색 수건으로 머리를 싸맨 사졸(士卒)이나 노복(奴僕)을 가리킨다. 중국 한나라 때는 노복들이 푸른색 수건을 머리에 썼다. 《사기(史記)》 〈소진열전(蘇秦列傳)〉의 창두(蒼頭)에 대한 주에 '푸른 두건으로 머리를 싸서 뭇사람들과 복색을 달리한다.' 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경포수에 소속시킨다.】
승병(僧兵) : 상(上), 하(下). 승대장(僧大將)에 소속시킨다.
노병(奴兵) : 상(上), 하(下). 영장(營將)에 소속시킨다. 사노(私奴)인 농병(農兵)도 같다.

이상은 6과(科) 상병(上兵)에 관한 규정이다. 평상시에는 서울과 지방의 제장(諸將) 및 수령은 잡다한 부역으로 침해하여 독촉하지 말아야 한다. 봄가을로 감사는 장재(將才)가 있는 문관 수령 1원을 차임하고, 병사(兵使)는 무서(武書)에 통달하고 재예가 있는 무관 수령 1원을 차임하여 함께 군현을 다니며 6과의 군병을 모아 놓고 일일이 재주를 시험한다. 화살 5발을 쏘아 3발 이상을 맞히고, 총알 5발을 쏘아 3점 이상을 맞히고, 승마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들어온 자는 성적의 고하를 논하여 크게 상을 내리고, 궁술, 사격, 승마에서 하나도 규정에 들지 못한 자는 벌로 장(杖)을 친다. 노병(奴兵)의 경우는 영장(營將)이 봄가을로 위와 같이 재주를 시험한다. 감사, 병사, 수사 및 영장, 수령이 각기 해당 병졸을 거느리고 1년에 한 차례 수상과 육지에서 진법을 익힌다.

이상은 6과(科) 가운데 병민(兵民)에 관한 규정이다. 영장과 수령이 재주를 시험하는 것 외에 3년에 한 차례 별도로 어사를 파견하여 무재(武才)를 시험한다. 사수(射手)는 10발 가운데 8발, 포수의 경우는 10발 가운데 8발, 기사(騎士)는 10발 가운데 7발 이상을 맞힌 자에 대해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며, 6발 이상을 맞힌 자에게는 넉넉히 상을 내린다. 감영과 병영에 소속된 병인(兵人)이 10발 가운데 1발도 맞추지 못한 자가 15인이면 감사와 병사는 두 자급을 거두어들이고, 속전(贖錢)으로 칠승세포(七升細布) 15필(疋)을 거둔다. 영장(營將)에 소속된 병인이 10발 가운데 1발도 맞히지 못한 자가 9인이면 곤(棍) 50대를 친 뒤에 속전으로 세포(細布) 9필을 거둔다. 주(州)와 부(府)에 소속된 병인이 열 발 가운데 한 발도 맞히지 못한 자가 7인이면 해당 수령에 대해 곤 30대를 친 뒤에 속전으로 세포 7필(疋)을 거둔다. 군(郡)과 현(縣)은 5인 이상이면 해당 수령은 곤 15대를 친 뒤에

속전으로 세포 5필을 거둔다. 10발 가운데 8발을 맞힌 경우는, 대장소(大將所)의 경우 20인, 각 읍의 경우 10인 이상이면 대장은 두 자급을 더해 주고, 수령은 한 자급을 더해 준다.

<**지방 의병에 관한 전례**[鄕義兵典例]>

이상은 6과(科)에서 하병(下兵)에 관한 규정이다. 평상시에 군기(軍器)와 자용(資用)을 미리 마련하여 상병에게 지급한다. 만약 변고가 있으면 해당 고을에 있는 하병을 수령이 거느리고 지방의 중사(中士), 하사(下士) 및 농호(農戶)의 하민(下民) 또한 수령에게 예속시킨다. 산성이 있는 읍은 산성으로 들어가 웅거한다. 산성이 없지만 해당 본읍의 성이 견고하여 지킬 만하면 본읍의 성에 웅거한다. 본읍의 성을 지킬 수 없으면 경내에 지킬 만한 험준하고 요충지가 되는 곳을 가려서 진을 치고 험한 지형에 의지한다. 숲속으로 들어가 흩어져 살지 못하는 향중(鄕中)의 여자와 선비는 모두 군진으로 들어간다. 군현의 군진이 곳곳마다 서로 바라보고 성세(聲勢)가 서로 의지하며 아침저녁으로 경계하고 병기를 잘 정비한다. 만약 적을 만나면 혹은 굳게 지키며 힘을 다해 방어하여 부모와 처자식을 지킨다. 혹 복병을 매복시키고 기이한 책략을 내어 협소한 지역을 나서서 유적(游賊)의 군병을 습격한다. 무릇 군량을 마련하여 운반하고 조정의 호령(號令)을 전달하는 등의 일은 군읍의 군진에서 차례로 신속하게 전달하되 대비하는 데 태만한 수령은 참한다. 향병의 군진을 버리고 사사로이 달아나는 향인은 참한다.

신은 삼가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제도는 수상에는 수군이 있고 육지에는 육군이 있습니다. 변고가 있으면 수군과 육군의 장수가 각각 해당 군사를 거느리고 천 리를 이동하여 전투를 벌이는데 열읍(列邑)에서는 신분이 귀하거나 천하거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숲속으로 흩어져 숨어서 사사로이 난을 피하니 고을이 텅 비고 성곽이 적막합니다. 수령은 한갓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손발을 둘 곳이 없기에 부득이 그 처자식을 거느리고

백성들과 함께 산택으로 숨으니 군량을 수송하고 조정의 명을 전달할 길이 아득히 막혀 전쟁하면 반드시 패배하는 것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 또 더구나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지만 산속이란 것은 한정이 있고 사람들은 매우 많으니, 비록 깊숙이 숨어서 병란을 피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적을 만나면 수천 명의 사람이 적의 한칼에 함께 죽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노략질하여 천 리 땅을 유린하지만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온 나라가 휩쓸려 함께 패배하였으니, 통탄스러운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통탄스러운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위급할 때 수령은 달아나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명분이 뒤바뀌고 기율이 문란해지니 병란을 피해 산으로 들어간 무리가 약육강식을 일삼아 제멋대로 겁탈합니다. 적이 국경을 넘기 전에 양민이 먼저 이미 우리나라 사람에게 피해를 입으니,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지금 만약 지방의 의병에 관한 법령을 만들어 수령을 장수로 삼고 엄격하고 분명하게 호령을 내리고, 평상시 방어하는 대책을 강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향병(鄕兵)이 나라에 이롭고 백성들에게 이로운 도리를 알게 한다면 환란에 어린아이나 힘없는 백성이 감히 향병의 진영을 버리고 홀로 달아나 구차하게 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병(上兵)에 들지 못한 사(士), 농(農), 공(工), 상(商), 승(僧), 노(奴)를 함께 한 진영에 편입하여 각각 부장(部將)을 두고 각 읍의 여러 진영이 서로 호령을 전하게 한다면 반드시 있는 힘을 다하여 굳게 지킬 것입니다. 그런 뒤에 군진에 있는 부모와 처자식이 병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니, 누군들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에 나아갈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적의 유병(游兵)과 엄호하는 군졸이 결코 감히 산택으로 깊이 들어와 우리 백성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비록 대군이라도 감히 무인지경(無人之境)에 들어온 것처럼 곧장 서울로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수상과 육지의 대장은 천 리 먼 곳에서 전투하여 군주를 호위하고 각 고을의 향병은 스스로 힘을 합쳐 그 부모를 보호하여 충과 효가 온전해지고 상하가 서로 보전됩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조정의 명령을 전하고 한편으로는 군량을 계속 운반할

수 있으니 아마 주(周)나라의 제도, 즉 향리에 있으면 비(比), 린(隣), 족(族), 당(黨), 주(州), 향(鄕)[955]이 되고, 나가서는 오(伍), 양(兩), 군(軍), 사(師)[956]가 되는 법에 가까울 것입니다.

<**육과의 병민이 과거를 치르는 전례**[六科兵民科擧典例]>

서울과 지방은 이소(二所)로 나누어 과장을 설치한다. 사병(士兵)과 농병(農兵)은 함께 일소(一所)로 나아가고, 공병(工兵)과 상병(商兵), 노병(奴兵)은 함께 이소(二所)로 나아간다. 일소에서 50인을 시취(試取)하고 이소에서 50인을 시취한다. 회시(會試)도 이소로 나누어 각 군병을 나누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위의 법처럼 하여 일소에서 100인을 시취하고, 이소에서 100인을 시취한다. 사병과 농병 가운데 무과에 입격한 자는 1년에 한 차례 어영청에 들어가 호위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번(番)을 교체한다. 변고가 있으면 모두 서울로 나아가 호위한다. 무과에 급제한 공병, 상병, 노병은 감영과 병영에 나누어 소속시킨다.

<**내관과 외직에 대한 규정을 세우는 전례**[內外立法典例]>

내관정제도청(內官定制都廳) : 당상관 3원(員), 당하관 3원이다.
진공방물연혁도청(進貢方物沿革都廳) : 당상관 3원, 당하관 3원이다.
외관정제도청(外官定制都廳) : 당상관 4원, 당하관 8원이다.
각 도의 관원을 제정하는 법은 도어사(都御史) 각각 1원, 부어사(副御史)

---

955) 비(比)……향(鄕) :《주례》의 육향(六鄕)에 5가를 비(比)라 하고, 5비를 려(閭)라 하고, 4려를 족(族)이라 하고, 5족을 당(黨)이라 하고, 5당을 주(州)라 하고, 5주를 향(鄕)이라 하였다. 육수(六遂)의 안에 5가를 린(隣)이라 하고, 5린을 리(里)라 하고, 4리를 찬(酇)이라 하고, 5찬을 비(鄙)라 하고, 5비를 현(縣)이라 하고, 5현을 수(遂)라 하였다.

956) 오(伍)……사(師) : 오(伍), 양(兩) 등은 군대를 편성하는 단위이다.《주례》<지관(地官) 소사도(小司徒)>에 "5인이 오(伍), 5오가 양(兩), 4양이 졸(卒), 5졸이 여(旅)이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각각 1원으로 한다.

이상 도어사 1원, 부어사 1원은 명을 받들고 여러 도(道)로 나누어 가서 해당 도의 감사와 상의하여 재예가 뛰어난 수령을 한 도에서 4원을 뽑아 차사원(差使員)으로 삼아 여러 고을에 나누어 관장하게 한다. 먼저 한 도 군현의 결복(結卜)의 수를 헤아린 뒤에 한 도에 2부(府), 2주(州)를 두고, 다음으로 남은 결복을 계산하여 각각 속현(屬縣)을 둔다. 이어서 옛 읍 가운데 줄일 만한 곳은 줄이고 병합할 만한 곳은 병합한다. 주군(州郡)이 이미 정해진 뒤에 차사원이 해당 고을 수령을 거느리고 당리(黨里)의 보호(保戶)를 나누어 정한다. 보호가 정해진 뒤에 오민(五民)을 분별하고, 오민이 정해진 뒤에 육병(六兵) 및 학교(學校), 사정(射亭)의 법을 분별한다.

南圃集

남포집

부록 제1권

附錄 卷之一

가장
家狀

선생의 휘는 만영(萬英)이요, 자는 영숙(英叔)인데 뒤에 군실(羣實)로 고쳤다. 성은 김씨(金氏)이고 선계는 당악(棠岳)에서 나왔다. 정유년(1597, 선조30)의 전란 때 가보(家譜)를 지키지 못해 고려(高麗) 이상은 징험할 수가 없다. 우리 조선조에 들어서 휘 인(忍)이 부총관(副摠管)을 지냈는데 묘소가 나주(羅州)에 있어서 자손들이 인하여 이곳에 살았다. 부총관의 손자 휘 종(琮)은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正言)을 지냈다. 정언의 아들 휘 효정(孝禎)은 진사와 생원시에 모두 합격하였으나 출사하지 않았는데 선생에게는 5대조가 된다.

고조 휘 두(蚪)는 진사(進士)로 호가 모암(慕庵)인데,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를 당해서 본주[羅州]의 진사 11인과 함께 성균관에서 의리를 주창하며 특별히 정암(靜菴)[957] 조 선생(趙先生)의 원통함을 변론하였다. 증조 휘 태각(台角)은 관직이 내자시 주부(內資寺主簿)에 이르렀다. 조부 휘 원록(元祿)은 사암(思菴) 박 상공(朴相公)[958]에게 수업하였는데 뜻을 독실하게 하고 몸을 삼갔는데 왜노(倭奴)의 변란에 참혹하게 일가의 화를 당했고 이때부터 과거(科擧) 공부에 대한 뜻을 끊었다. 부친 휘 태읍(泰浥)은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고 향해(鄕解)[959]에 여러 번 수석을 하였으나, 광해군 당시 사람들의 배척을 받아 한 번도 복시(覆試)에 나가지 못하였다. 마침내 개연(慨然)히 생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업을 삼고, 송호(松湖)라고 자호(自號)하였다.

송호공은 나주 나씨(羅州羅氏) 생원 원길(元吉)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는데,

---

957) 정암(靜庵) 조 선생(趙先生) : 조광조(趙光祖)로,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이다. 기묘사화(己卯士禍)에 능주(綾州)로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다.

958) 사암(思菴) 박 상공(朴相公) : 박순(朴淳)으로, 본관은 충주,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菴)이다. 1572년 영의정에 올라 14년간 재직했다.

959) 향해(鄕解) : 향시(鄕試)를 말한다.

숭정(崇禎) 갑자년(1624, 인조2)[960] 2월17일 귀업리(龜業里) 집에서 선생을 낳았다. 선생이 태어나던 밤, 모친의 꿈에 어떤 사람이 명주(明珠) 하나를 주니 광채가 방안에 가득하였다. 꿈을 깨고 나서 선생이 태어났다. 선생은 용모가 단정하고 장중하였으며 말을 배울 때부터 이미 문자를 알았다. 나이가 7~8세 되자 말과 행동이 차분하고 무거웠으며 시를 지으면 항상 놀랄만한 시어가 있었다. 비록 남이 보지 않는 방에서도 반드시 종일토록 바르게 앉았고, 아이들과 어울릴 때도 싸우거나 빠르게 달린 적이 없었다. 12세에 《대학》과 《중용》을 읽었는데 깊이 잠기고 반복하면서 한밤중까지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는 과거공부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권하면 웃기만 하고 답을 하지 않았다.

하루는 송호공에게 여쭈어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과거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선비의 포부는 매우 중대한지라 진실로 이것에 전념할 수는 없습니다. 옛 사람 중에 차라리 성인을 배우다가 이르지 못할지언정 한 가지 선(善)으로만 이름을 이루지 않았던 자가 있으니[961] 이것이 가장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공이 그 뜻을 가상히 여겨 마침내 다시는 사장(詞章)을 강제하지 않았다. 손수 《용학도(庸學圖)》[962]를 그리고 또 설을 지어서 자리에 걸어 두고서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하였다.

13세에 《논어》·《맹자》·《주역》 등 여러 책을 가지고 차례로 읽으면서 잠시도 해이하지 않았다. 의리가 귀착되는 취지에 대해 하나라도 알지 못한 점이 있으면 밤새도록 자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연구한 뒤에야 그쳤다. 또 《시경》·《서경》·《예경》·《춘추》 및 제자서(諸子書)와 사서(史書)에도 널리 통하여 한 번 보면 문득 기억하였다. 그러나 요점은 심오한 뜻을 깊이 찾는

---

960) 숭정(崇禎) 갑자년(1624, 인조2) : 이 해는 숭정(崇禎)에 해당하지 않고 숭정(崇禎) 이전인 천계(天啓) 4년에 해당한다. 연호에 착오가 있는 듯하다.

961) 옛……있으니 : 이 말은 여대림(呂大臨)이 명도(明道) 정호(程顥)의 애사(哀詞)를 지으면서 "차라리 성인을 배우다가 이르지 못할지언정 한 가지 선으로 이름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고, 차라리 한 사람이 은택을 입지 못하는 것으로 자신의 병통을 삼을지언정 일시적인 이익으로 자신의 공을 삼으려고 하지 않았다.[寧學聖人而未至, 不欲以一善成名, 寧以一物不被澤, 爲己病, 不欲以一時之利爲己功.]" 한 데서 인용한 것이다.《近思錄 觀聖賢》

962) 용학도(庸學圖) : 《중용》과 《대학》의 이치를 도표로 그린 것을 말한다.

데 있는 것이니 훑고만 지나가는 것을 일삼지 않았다. 이로부터 학업이 날로 성취되고 덕이 날로 높아졌으며 그 학문은 《주역》에 더욱 깊어졌다. 나이 겨우 14세 때, 만나본 자들이 더욱 공경하여 성덕군자(成德君子)로 지목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고을의 관아를 지나는 선비들도 만나보려는 자가 많았다.

이 때 선생 일가의 남녀노소가 폐병으로 죽는 자가 이미 십여 인이었다. 송호공도 마침 남평(南平)의 집에서 그 질병에 걸렸다. 선생은 약물로 시봉(侍奉)하면서 아침저녁으로 게을리 하지 않고 밤에도 옷을 벗지 않았다. 병이 더욱 심해지자 송호공이 일러 말하기를 "우리 집안 형제와 숙질들이 사망하여 다 사라지게 되었고 나 또한 불행히도 이 지경에 이르렀다. 너는 형제가 없다. 너는 나이가 어리고 자녀도 없으니 너는 의당 멀리 피해서 살기를 도모해야 한다. 네가 차마 나로 하여금 후사(後嗣)가 없는 죄를 지게 하려느냐?" 하고는 마침내 강제로 떠나게 하였다. 선생이 울면서 차마 떠나지 못하자 공은 또 계속 화를 내며 꾸짖었다. 선생은 그 뜻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항상 몸을 숨기고서 좌우에서 약을 드렸다.

급기야 공이 위독해지시니[963] 모친이 선생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들으니 폐병에는 병충이 있어서 항상 절명할 때 남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너는 우선 잠시 피해 기다리고 있어라." 하였다. 선생이 놀라서 울며 말하기를 "사람 자식이 죽게 되면 죽을 뿐이지 어찌 차마 부친을 버리고 저만 살기를 도모하겠습니까." 하면서 모친이 누차 말해도 선생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친이 울면서 밖으로 나가서 말하기를 "남편[964]을 이미 살릴 수가 없는데 하나 있는 아들도 장차 보전할 수 없게 되니 박복한 이 몸은 죽어버려서 모르는 것이 낫겠다." 하고는 바로 줄을 당겨 스스로 목을 맸다. 선생이 황급히 구하여 풀고는 울면서 또 간했으나 모친은 띠로 선생의 손을 묶어놓고 또 칼로 스스로를 겨누며 떠날 수 없음을 보였다. 이 때 조모 서씨

---

963) 위독해지시니 : 원문의 '대점(大漸)'으로, 《서경》 〈고명(顧命)〉에 "아, 병이 크게 번져 위태하다. [嗚呼, 疾大漸, 惟幾.]"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964) 남편 : 원문의 '소천(所天)'으로, 하늘처럼 받들면서 의지해야 할 대상이라는 말로,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徐氏)도 집에 있었는데 선생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 어미가 너로 인해 죽게 되면 네가 어찌 자식이 되겠느냐." 하고는 외손인 나적(羅積) 등으로 하여금 굳게 지키게 하고 다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선생이 머리를 땅에 찧어 혼절했다가 다시 소생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그 날 송호공을 과연 구할 수 없었다. 선생은 호곡(號哭)을 상례대로 하고 정침(正寢) 문 밖에 상차(喪次)를 설치하였다. 상복을 입고 곡용(哭踊)을 하며 슬퍼하는 모습에 조문한 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음이 없었다. 상복이 이루어졌을 때 모친이 또 꾸짖으며 선생에게 떠나게 하며 말하기를 "네가 여기에 있으면 내가 진실로 나갈 수 없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그만이지만 장차 나를 어느 곳에 두려 하느냐." 하였다. 선생이 붙들어 안고 울면서 간하기를 종일토록 하였는데도 끝내 청을 들어주지 않으니 곧바로 모친을 모시고 다른 마을에서 우거했다. 자신 또한 산암(山菴)에서 거처했는데 이 때 선생의 나이 15세였다.

거처한 지 수 개월이 되었을 때 선생도 이 질병에 걸렸다. 선생이 울면서 말하기를 "죄를 지은 고아가 상차(喪次)를 떠났던 것은 감히 죽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분부를 어기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병이 들었으니 밖에 있은들 무엇 하겠는가." 하였다. 이어 모친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알리고 즉시 도보로 상차로 돌아와서 장구(葬具)를 준비하고 날을 잡아 장례를 치렀다.

아침저녁 사이로 호곡을 하고 지나치게 슬퍼하니 병이 점차 심해져서 몸이 앙상하게 야위었으나 여전히 잠시도 상복을 벗지 않았다. 이에 의원을 불러 침을 맞으며 뜸을 뜨고 또 천초환(川椒丸)을 복용하면서 3~4년이 흘러서야 죽음을 면하였다. 이에 탄식하기를 "운명이 기박하여 거상(居喪)에 예도 다하지 못했으니 천지간에 죄인이다. 농사를 지으며 세상을 마치는 것이 낫다." 하고는 그 당(堂)에 '명농(明農)'이라 편액하고 '남포병일(南圃病逸)'이라 자호(自號)하였다.

병으로 폐기된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두문불출하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나서 한 숨이라도 남아있으면 잠시라도 태만하고 방기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혹은 책을 펴고 익숙히 반복하여 성현의 경계에 마음을 쏟고, 혹은

눈을 감고 묵묵히 앉아서 천도(天道)와 인사(人事)의 관계에 대해 마음을 기울였다. 마음에 계합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책에 썼는데 당시에 기록한 것으로 《완물편(玩物篇)》이 있다. 향리의 관동(冠童)들이 왕래하며 학업을 물으면 그 재질에 따라 자상하게 가르쳤다. 또 말하기를 "사람이 놓쳐버린 마음을 거둬들이고 외물(外物)을 끊으면 심기가 넓고 평탄해져 저절로 즐거운 경지가 있다. 어찌 꼭 외우고 쓰는 것을 익히는 데에만 전력하겠는가." 하였다.

선생은 외따로 살면서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았으나 명예가 원근에 퍼졌고, 사람들은 친소 없이 일제히 '임하제일인(林下第一人)'이라고 칭송하였다. 벼슬아치들과 장자(長者)들도 비록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더라도 또한 모두 그 명성을 부러워하고 칭찬하였다.

기축년(1649, 인조27)에 향천(鄕薦)으로 선생을 교관(敎官)으로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아 또 익위사 세마(翊衛司洗馬)에 제수되었는데 이때 마침 인묘(仁廟)가 승하[965]하였다. 선생은 분곡(奔哭)을 하러 한양에 도착하여 다음 날 분곡의 예를 행하였다. 또 다음 날엔 사은숙배(謝恩肅拜)의 예를 행하고는 바로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돌아왔다.

경인년(1650, 효종1)에 판서 민정중(閔鼎重)[966]이 본도의 어사(御史)가 되었는데 선생을 한 번 보고 재기(才器)를 중히 여겨서 선생을 포계(褒啓)하였다. 그러나 당시 당동벌이(黨同伐異)[967]의 풍조가 심하여 아래로 민간의 사서인(士庶人)들까지도 또한 사람들의 일동일정(一動一靜)을 엿보아서 지지와 반대, 비방과 칭찬의 징후로 삼지 않음이 없었다.

선생을 추천하는 일[968]이 마침 용주(龍洲) 조경(趙絅)[969] 공의 손에서

---

965) 승하 : 원문의 '빈천(賓天)'으로, 하늘에 손님이 되었다는 뜻인데, 임금의 승하를 가리킨다.

966) 민정중(閔鼎重) : 1628~1692.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대수(大受), 호는 노봉(老峯)이다. 1649년에 문과에 장원해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전라도·충청도·경상도에 암행어사로 나가기도 하였다.

967) 당동벌이(黨同伐異) : 자신과 뜻이 같은 사람은 편들고, 뜻이 다른 사람은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968) 추천하는 일 : 원문의 '취허(吹噓)'로, 입으로 불어 바람을 일으켜서 깃털을 날려 보내는 것으로, 남을 칭찬하고 장려하여 추천함을 이른다.

969) 용주(龍洲) 조경(趙絅) : 1586~1669.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일장(日章), 호는 용주·주봉(柱峯)

나왔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이 많았다. 처음엔 선생을 헐뜯으려 했다가 이유를 찾을 수 없자 이내 말하기를 "선생의 부친상 때 선생은 밖에 있었다." 하였다. 이어 서로 더하고 늘리며 모으고 보태서 날조하고 구설을 만들어 내니 식자들이 통탄하였다.

선생이 집안에 거처할 때 모친을 모시는데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비록 집이 가난하여 자주 쌀독이 비었어도[970]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맛있는 음식을 드렸다. 갑오년(1654, 효종5)에 모친상[971]을 만나서는 상제(喪祭)를 한결같이 《가례(家禮)》[972]를 따르면서 3년 동안 이를 드러낸 적이 없었다.[973] 상을 마치고는 더욱 벼슬에 나갈 뜻이 없었고 오직 청정한 마음을 지키고 본성을 기르는 것을 일삼았다. 때로 봄가을 좋은 절기를 만나면 산수 사이에서 노닐고 시를 읊으면서 그윽한 정을 후련하게 풀었다. 초목과 금수 하나하나까지도 따라 보면서 돌이켜 자신을 돌아보고 이치를 깊이 연구하며 스스로 경계하는 바탕으로 삼지 않음이 없었다. 그것을 기록한 것으로 《남교일기(南郊日記)》가 있다.

기해년(1659, 효종10)에 효묘(孝廟)가 승하하였다. 선생은 병을 무릅쓰고 한양으로 들어가서 분곡(奔哭)의 예를 행하고 돌아왔다. 현종(顯宗)이 처음 즉위하여 분곡한 현사(賢士)들에 대해 묻자 재신(宰臣)들이 팔현(八賢)[974]을 가려서 아뢰었는데 선생도 그 가운데 끼어있었다. 이 때는 대송(大宋)

이다. 인조반정 후 유일(遺逸)로 천거 받아 형조 좌랑 등을 지냈고, 1626년 정시 문과에 장원하여 지평·헌납 등을 역임했다. 대제학 및 각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970) 자주 쌀독이 비었어도 : 원문의 '누공(屢空)'으로, 살림살이가 빈궁한 것을 말한다. 공자(孔子)가 "안회(顔回)는 도(道)에는 거의 이르렀으나, 쌀독이 자주 비었다.[回其庶幾乎, 屢空.]"라고 말한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論語 先進》

971) 모친상[終天之痛] : 몸을 마칠 때까지 계속되는 슬픔이라는 뜻으로 부모의 상을 가리는데 여기서는 모친상을 말한 것이다.

972) 가례(家禮) : 중국 송나라의 주희(朱熹)가 일반 사가의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대한 절차와 예법을 정리한 책이다.

973) 이를……없었다 : 매우 슬퍼하여 웃지도 않았다는 뜻이다.《예기》〈단궁 상(檀弓上)〉에 "고자고가 어버이의 상을 집행할 적에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렸고 일찍이 이를 드러낸 적이 없었다.[高子皐之執親之喪也, 泣血三年, 未嘗見齒.]"라고 보인다.

974) 팔현(八賢) :《남포집(南圃集) 부록(附錄)》 권2의 〈서술(敍述)〉편에 8인의 이름이 나온다.

과 소송(小宋)[975]의 명망이 조정을 기울일 정도였으니 사류(士流)로 칭하는 자들이 모두 분주히 달려갔으나 선생은 끝내 그 집에 가지 않았다. 이윽고 돌아왔는데 선생을 사용(司勇)에 제수했으나 선생은 나아가지 않았다.

향리에서 선생을 공격하는 자가 더욱 많아졌으나 선생은 또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조정의 권력을 쥔 자들도 대부분 불쾌하게 여겼다. 마침 호남 어사(湖南御史)가 된 자가 있었는데 친히 선생의 집으로 찾아와 하룻밤을 묵었다. 함께 대화를 해보고는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군자다운 사람이다." 하면서 단번에 보고 판가름하였다. 마침내 그 행실을 상소하여 진술하였고 또 조정에서 크게 소문을 내면서 찬탄하고 애석해 마지않으니 선생을 미워하는 자들도 막지 못하였다.

신축년(1661, 현종2)에 과연 선생을 의망(擬望)하여 교관(敎官)으로 삼았으나 선생은 또 나아가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비(大妃)의 복제(服制)에 대한 의론으로 조야에서 큰 싸움이 벌어져 시비를 다투었다.[976] 문생 중에 선생에게 논란하는 자가 있었는데 선생이 말하기를 "국가의 대례(大禮)에 대해서 재야인사가 감히 의론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당시에 예(禮)를 논한 여러 차자(箚子) 및 미야(眉爺)와 백호(白湖)[977]의 장서(長書)를 꺼내면서 말하기를 "이것으로 충분히 그 시비를 판정할 만하다." 하였다. 또 송시열의 차자 가운데 있는 '문최(免衰)의 설[978]'에 대해 묻자 선생은 실망한

975) 대송(大宋)과 소송(小宋) : 대송(大宋)은 송시열(宋時烈), 소송(小宋)은 송준길(宋浚吉)이다.

976) 대비(大妃)의……다투었다 : 1659년 효종이 승하하자 대왕대비(大王大妃)인 자의대비(慈懿大妃)가 기년복(朞年服)을 입어야 하느냐, 삼년복을 입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서인(西人)의 송시열(宋時烈) 등은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南人)의 윤휴(尹鑴)·허목(許穆)·윤선도(尹善道) 등은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당의 극렬한 논쟁은 서인이 주장한 대로 기년복을 입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977) 미야(眉爺)와 백호(白湖) : 미야(眉爺)는 미수(眉叟) 허목(許穆)을 가리킨다. 백호(白湖)는 윤휴(尹鑴)의 호이다.

978) 문최(免衰)의 설 : 송시열이 허목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거론한 이른바 단궁의 문(免)과 자유 최(衰)[檀弓之免 子游之衰]의 설인데, 《송자대전(宋子大全)》 권26 헌의(獻議) 〈대왕대비복제의(大王大妃服制議)〉에 나온다. 문최(免衰)는 노(魯)나라 공의중자(公儀仲子)의 상사 때 단궁이 예가 아닌 단문(袒免)을 한 채 조문하여 공의중자가 맏손자를 상주로 세우지 않고 서자를 상주로 세운 것을 기롱했던 고사와, 사구(司寇) 혜자(惠子)의 상사 때 자유가 예가 아닌 마최(麻衰)를 입고 조문하여 혜자가 맏아들을 폐하고 서자를 상주로 세운 것을 기롱했던 고사를 가리킨다. 《禮記 檀弓上》

듯 대답하지 않고 한참을 있다가 말하기를 “공론(公論)이 정해지는 데에 꼭 백년을 기다릴 것도 없다. 너희들도 따라서 마땅히 알게 될 것이다.” 하고는 낯빛을 바꾸며 불쾌해 하였다. 향리에서 시세(時勢)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는 이때부터 선생을 공격하는데 날로 더욱 힘을 썼다.

황산서원(黃山書院)을 창건할 때에 대송(大宋 송시열)이 여산(礪山)에서 벗들과 만났는데 봉안(奉安)하는 날에 도내(道內)의 지조를 아끼는 사류들도 알현(謁見)을 청하지 않음이 없었다. 사람들이 혹 선생에게 고하기를 “유림의 큰 행사입니다. 선생께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송시열의 뜻도 선생께서 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평생 병이 많아 친구의 상장(喪葬)에도 달려갈 수 없다. 더구나 지금 수 백리 밖인데 달려 갈 수 있겠는가?” 하고는 끝내 가지 않았다. 송시열이 그 뜻을 알고는 크게 유감스럽게 여겼다.

이때 고을 친지들이 자제들을 위하여 세 재실(齋室)을 건립하고 선생을 추대하여 학업을 마쳐줄 것을 청하였다. 선생은 그 재실의 이름을 삼학(三學)·몽양(蒙養)·열락(悅樂)이라 짓고 강규(講規)를 엄격히 세웠는데 대략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유의(遺意)[979]를 본뜬 것이었다. 초하루와 보름날에 분읍례(分揖禮)를 행하고 그 배울 것을 부과하니 청아(菁莪)[980]의 교화가 얼마 되지 않아 진작되었다. 마침 송공(宋公)의 동생 송시걸(宋時杰)이 남평 현감(南平縣監)이 되어 또한 선생을 크게 해쳐서 세상에 용납을 받지 못하게 하려 했다. 애초에 선생의 부인 오씨(吳氏)가 잉태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선생이 모친상을 당했는데 부인이 해산을 했을 때는 마침 상중(喪中)이었다. 이에 옛 일들을 주워 모으며 손뼉을 치고 서로 축하하면서 상동 (喪童)[981]의 설을 만들어 냈다. 선생의 죄안(罪案) 하나를 더 지어낸 것이다.

---

979) 백록동 서원(白鹿洞書院)의 유의(遺意) : 백록동강규(白鹿洞講規)을 말한다. 주희(朱熹)가 만든 백록동서원의 규약이다.

980) 청아(菁莪) :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청아(菁莪)는 《시경》 〈청청자아(菁菁者莪)〉로, 인재를 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내용이다.

981) 상동(喪童) : 부모 상중(喪中)에 아이를 가졌다는 뜻이다.

선생이 문도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감정을 쌓아온 것이 일조일석의 일이 아니다. 끝내는 반드시 집을 헐고 흔적을 없앤 뒤에야 그칠 것이니 내가 근신하여 피하는 것이 낫겠다. 너희들은 내가 떠난다고 해서 강규(講規)를 태만히 하여 폐기하지 말고, 의당 끝까지 그 학문을 스스로 성취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날 문도들은 엎드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마침내 선생은 가족을 데리고 나주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때는 현종(顯宗) 을사년(1665, 현종5)이었다. 고을의 자제로 다시 찾아와 배우는 자가 많았는데 선생은 여전히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선영(先塋)[982] 아래에 서재를 세우게 하였다. 일가 사람이 혹 말하기를 “사람들이 모두 이르기를 ‘남녘에 이론(異論)을 가진 자들이 그대를 종장으로 여긴다.’라고 하여 다투어 서로 비방을 만들어낸다. 지난 번 영평(永平 남평)에서 화를 입었으니 마땅히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생도들을 사절해 보내서 사람들의 말을 잠재우지 않는가?”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저들이 배우러 오는 데 어찌 차마 거절하겠는가? 혹시 다시 화를 당한다 해도 문을 닫고 구멍을 막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이어서 조용히 생도에게 일러 말하기를 “옛날 정곤재(鄭困齋)[983]가 귀양을 갈 때 그 문하에서 종유하던 자들도 그 화를 맞이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너희들이 장차 화를 면치 못할까 두렵다. ‘홀로 걸어갈 때에도 그림자에 부끄럽지 않고, 홀로 잠잘 때에도 이부자리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獨行不愧影, 獨寢不愧衾.]’[984]는 것이

---

982) 선영(先塋) : 원문의 ‘송추(松楸)’로, 소나무와 가래나무인데 주로 묘 둘레에 심었기 때문에 무덤이나 선영(先塋)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983) 정곤재(鄭困齋) : 정개청(鄭介淸, 1529~1590)으로, 자는 의백(義伯)이며, 곤재는 그의 호이다. 본관은 고성(固城)이고, 전라남도 나주 출신이다. 1590년 5월 정여립과 동모하였다는 죄목으로 유배되었다가 죽었다.

984) 홀로……한다 : 송대(宋代)의 유학자인 채원정(蔡元定)이 도주(道州)에 유배되어 있을 때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훈계하기를 “홀로 걸어갈 때도 그림자에 부끄럽지 않고, 홀로 잠잘 때에도 이부자리에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이니, 내가 죄를 얻었다고 하여 해이해지지 말라.[獨行不愧影, 獨寢不愧衾, 勿以吾得罪故遂懈.]” 하였다.《宋史 권434 蔡元定列傳》

바로 우리 당의 십자부(十字符)[985]이다. 너희들은 의당 이를 가슴에 새기고 잃지 말라.” 하였다. 궁고(窮苦)와 곤액(困阨)을 당해 한 번도 그 마음이 동요된 적이 없었다.

선생의 종족으로 본주[羅州]에 있는 몇 사람이 마침내 약속하여 계(契)를 만들고, 서로 우호하자는 뜻으로 권면하였다. 한 해 봄가을로 매번 한 번 종족을 모아 스스로 즐기면서 혹 자질(子姪)들로 하여금 좌우에 서서 지은 시가를 읊고 술을 권하게 하니, 온 자리에 숙연히 감흥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선생이 비록 일찍 쇠약하고 병이 많았으나 배우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시종 게을리 하지 않아서, 거처하는 몇 칸 집에는 쌓인 책자가 수 백여 편이었다. 선생은 반드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의관을 정제하고 단정히 앉았고 종일토록 부지런하였다. 붓과 벼루·책과 책상 및 국화화분 외에는 적막하여 다른 물건이 없었다. 자리 모퉁이에는 한 장의 단금(短琴)을 두고 때로 간혹 술대를 뽑아 현을 탔다. 악보(樂譜)를 따라 옛 곡조를 연주하면 그 소리가 웅장하면서도 화평하였다. 손님이 오면 당 아래로 내려 공경을 다해 맞이하였다. 서로 마주하면 말이 그침이 없었으나 일언반구도 인간 세상에 대한 비평[986]은 하지 않았다.

신해년(1671, 현종12) 5월 10일에 병이 깊어져 정침(正寢)에서 세상을 마치니[987] 향년 48세였다. 문생들이 모두 상차(喪次)에 모여 서로 마주하고 곡을 하는데[988] 마치 부모상을 당한 것 같았다. 이 해 모월 모일에 남평(南

---

985) 십자부(十字符) : 10개의 글자로 된 신표인데, 좌우명이나 학문의 요결을 말한다. 주희(朱熹)가 초년 시절에 스승인 병산(屛山) 유자휘(劉子翬)에게 성인의 도(道)로 들어가는 차례를 묻자 “내가 《주역》에서 덕(德)으로 들어가는 문을 얻었으니, 이른바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온다[不遠復]’이란 구절이 나의 ‘삼자부(三字符)’이다.”라고 한 것을 원용한 것이다.

986) 비평 : 원문의 ‘자황(雌黃)’은 원래 유황(硫黃)과 비소(砒素)를 혼합하여 만든 안료(顔料)이다. 자구(字句)를 첨삭(添削)할 때 쓰는데, 여기서는 세상에 대한 평론을 말한다.

987) 세상을 마치니 : 원문의 ‘역책(易簀)’으로, 스승이나 현인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禮記 檀弓上》

988) 서로……하는데 : 원문의 ‘상향이곡(相向而哭)’으로 제자들이 스승의 상에서 서로 마주하고 곡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옛날에 공자가 죽자 제자들이 3년이 지난 후 행장을 꾸려 돌아갈 때 “서로 통곡하면서 모두 목이 쉬었다.[相嚮而哭, 皆失聲.]”라는 말이 나온다.

平)의 장암산(墻巖山)에 안장하였다.

선생은 덕성이 엄숙하고 단정하며 풍도가 맑고 시원스러웠다. 사람들과 말할 때면 온화한 기운이 넘쳐흘렀다. 많은 사람이 넓게 앉은 가운데서 애초 반면(半面)의 친분조차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 접하면 선생의 됨됨이를 알았고, 거칠고 사나운 무뢰배들이라도 만나보고는 절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서모(庶母)을 대우하는 데 그 정성을 다하였다. 서제(庶弟)를 가르치는 데도 애정을 지극히 하였고, 전장(田庄)과 노비도 균평하게 나눠 주면서 말하기를 "나는 본디 외가(外家)에서 받은 전답과 노비가 있으니 정말 차마 너희를 굶주리고 춥게 할 수 없다." 하였다. 족인(族人)에게는 먼 친족[989]이라도 형제처럼 대하였다. 종가(宗家)의 아비를 여읜 조카를 보살펴 기르면서 자기 자식처럼 하여 혹시라도 질환이 있으면 아침이 되도록 잠을 자지 않고 치료하는 방도를 다하였다.

매번 선대(先代)의 기일(忌日)을 만나면, 비록 한겨울이라도 반드시 목욕을 하며 장차 제사를 지내려는 날 밤에는 반드시 의관을 정제하고 단정히 앉아서 기다렸다. 제수(祭需)는 모두 친히 점검하여 지극히 정결하게 하였다.

그 학문은 마음에서 터득하고 스승을 거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심오한 뜻으로 난해한 것과 변례(變禮)로서 난처한 것을 사람들이 혹 질정을 구해오면 얼음이 풀리듯 명확히 해석해주고, 근거로 끌어댄 설이 각각 합당하니 듣는 자들이 기뻐하고 설복하지 않음이 없었다. 비록 명예와 현달을 추구하지 않아 사람들과 접촉은 드물었으나 당세의 일에 대해서 꿰뚫어 이해하지 않음이 없었다. 조정 일의 대체와 내용 및 외국의 풍토에 이르기까지 마치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것 같았다.

그 자품(姿稟)이 고상하고 재품(才品)은 호방하여 하는 일마다 뛰어나지 않음이 없었다. 일찍이 선생이 지은 〈만언소(萬言疏)〉를 보았는데, 성정(誠正)[990]의 요체에 근본을 두고 세상의 일 10가지에 미루어 나간 것이었는데,

---

989) 먼 친족 : 원문의 '시문(緦免)'으로, 상례(喪禮) 때 상복 가운데 가장 가벼운 복(服)인 시마복(緦麻服)과 그 아래인 문복(免服)을 가리키는데 관계가 먼 친족을 말한다.

990) 성정(誠正) :《대학장구》의 팔조목(八條目)에 속하는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을 가리킨다. 뜻을

점괘가 불길하여 결국 상소하지는 않았다. 또 일찍이 《경세통전(經世通典)》 한 부를 지어서 사(士)·농(農)·공(工)·상(商)·병(兵)·승(僧)의 제도를 논하였는데, 만일 나를 써주는 자가 있다면 거행하여 조치하겠다는 뜻이었으니 선생이 과연 세상에 뜻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만난 때가 좋지 못하여 광채를 품어 감추고 누추한 집[991] 가운데서 스스로 즐겼으니 이른 바 '옳다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근심이 없다.'[992] 것은 선생이 이에 해당된다. 저술한 《완물편(玩物篇)》·《남교일기(南郊日記)》·《경세통전(經世通典)》 및 《역상소결(易象小訣)》·〈우산답문질의서(牛山答問質疑書)〉 및 시와 문 약간 편이 집안에 간직되어 있다.

아! 선생은 어려서부터 이미 위기지학(爲己之學)[993]을 할 줄 알았고 장성해서는 문을 닫고 성리서(性理書)를 읽은 것이 거의 40년이다. 그 조예의 깊이는 후학들이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니고 그 행동거지와 위의(威儀) 사이에 드러난 것은 덮을 수가 없다. 그 학문은 오현(五賢)[994]의 적전(嫡傳)에 기치를 세우고, 평탄하고 드넓은 길로 법도에 맞게 나아간 것이었다. 애석하게도 선생의 생전에는 자기를 알아주는 선비가 없고 죽어서는 의발(衣鉢)을 전할 사람이 없었다. 중년에 선생을 헐뜯는 말이 실로 초년에 선생을 칭찬했던 사람에게서 나왔고 결국엔 간사한 자의 무함을 당해 폐해지고 말았으니, 슬프도다! 선생은 평생 퇴도(退陶)[995]를 특히 독실하게 믿어서 말을 세우고 마음을 쓰는 데 계승한 바가 많았다.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을 이른다.

991) 누추한 집 : 원문의 '필문규두(蓽門圭竇)'로, 필문(蓽門)은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사립문을 말하고, 규두(圭竇)는 담장을 뚫어 만든 규(圭) 모양의 창문이라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집을 말한다.

992) 옳다는……없다 : 《주역》 〈건괘(乾卦) 문언(文言)〉에 "세상을 피해 숨어 살면서도 근심이 없고, 옳다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근심이 없다.[遯世無悶, 不見是而無悶.]" 하였다.

993) 위기지학(爲己之學) :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공부하는 위인지학(爲人之學)에 상대되는 말로, 오직 자신의 덕성을 닦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論語 憲問》

994) 오현(五賢) :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퇴계(退溪) 이황(李滉) 등 다섯 명의 유현(儒賢)을 가리킨다.

995) 퇴도(退陶) : 이황(李滉)의 호이다.

숭정기원(崇禎紀元) 후 기미년(1679, 숙종5) 10월 보름에 문인 통덕랑 전행 성균관 학유(通德郎前行成均館學諭) 나만성(羅晩成)[996]이 삼가 쓰다.

【문인인 도사(都事) 이석삼(李錫三)·진사(進士) 홍최일(洪最一)이 선생의 학문과 행실이 오래되면 사라지고 희미해 것을 매우 염려하여 행장(行狀)을 지어 완성할 방도를 논의하였다. 중론으로 나를 추대하여 말하기를 "그대가[997] 일찍 선생의 문하에 나아가서 몸소 친히 그 거동과 법도를 보았고, 또 덕업과 행의(行義)를 훈도 받은 것이 두텁고도 오래되었다. 그러니 그대가 사실을 모으고 선양하여 후세에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기에 내가 사양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썼다.】

996) 나만성(羅晩成) : 1646~? 자는 대로(大老),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1678년에 증광시(增廣試)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지냈다.《國朝文科榜目 肅宗 4年 戊午 增廣試》

997) 그대가 : 원문의 '尹'은 '君'의 잘못인 듯하다.

행장
行狀

선생의 휘는 만영(萬英)이요, 자는 영숙(英叔)인데 군실(羣實)이라고도 한다. 성은 김씨(金氏)로 선계가 당악(棠岳)에서 나왔다. 정유년(1597, 선조30) 전란 때 가보(家譜)를 지키지 못하여 먼 선대는 징험할 수가 없다. 우리 조정에 들어와 휘 인(忍)이 부총관(副摠管)을 지냈는데 묘소가 나주(羅州)에 있어서 자손들이 인하여 이곳에 살았다. 부총관의 손자 휘 종(琮)은 정언(正言)을 지냈다. 이 분이 휘 효정(孝禎)을 낳았는데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하였고, 선생에게는 5세조가 된다.

고조 휘 두(蚪)는 호가 모암(慕庵)인데 이른 나이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효행으로 누차 어사의 포계에 올랐다.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를 당해서는 본주[羅州]의 여러 진사 공과 특별히 정암(靜菴) 조 선생(趙先生)의 원통함을 변론하였다. 증조 휘 태각(台角)은 내자시 주부(內資寺主簿)를 지냈다. 조부 휘 원록(元祿)은 박사암(朴思菴)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는데 뜻을 독실하게 하고 몸을 삼가면서 과거 공부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부친 휘 태읍(泰浥)은 문장으로 세상이 이름이 났고 향해(鄕解)에 여러 번 수석을 하였으나 광해군 당시 사람들의 배척을 받아 한 번도 복시(覆試)에 나가지 못하였으니, 마침내 개연(慨然)히 가르치는 것으로 업을 삼고 송호(松湖)라고 자호(自號)하였다.

송호공은 나주 나씨(羅州羅氏) 생원 원길(元吉)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숭정(崇禎) 갑자년(1624, 인조2)[998] 2월17일 나주 귀업리(龜業里) 집에서 선생을 낳았다. 이날 밤 모친이 꿈에서 명주(明珠) 하나를 얻었는데 광채가 방안에 가득하였다. 꿈을 깨고 나서 선생을 낳았다.

선생은 나면서부터 빼어나고 준수하였으며 기민하게 깨닫는 것이 범상치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보고 기특하게 여겼다. 말을 배울 때부터 이미

998) 숭정(崇禎) 갑자년(1624, 인조2) : 이 해는 숭정(崇禎)에 해당하지 않고 숭정(崇禎) 이전인 천계(天啓) 4년에 해당한다. 연호에 착오가 있는 듯하다.

문자를 이해하였다. 나이 겨우 7세일 때도 말과 행동이 신중하고 법도가 있었다. 아이들과 놀 때도 싸우거나 장난질을 한 적이 없었다.

12~3세 때 처음 《대학》과 《중용》을 읽고는 깊이 잠기고 반복하면서 반드시 궁격(窮格)[999]을 위주로 하였다. 손수 <중용도(中庸圖)>[1000]를 그리고 또 설을 짓고는 자리에 걸어 두고 항상 보았다. 또 《논어》·《맹자》·《시경》·《서경》 및 《주역》 등 책을 차례로 읽는 데도 부지런히 하면서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제자서(諸子書)와 사학(史學)에 이르러서도 한 번 보면 문득 기억하고 널리 통달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당시 본 사람들이 모두 성덕군자(成德君子)로 지목하였다.

무인년(1638, 인조16)에 송호공이 역병에 걸리자 선생은 손수 탕약을 달이면서 밤에도 허리띠를 풀지 않았다. 상을 당해서는 애훼(哀毁)함이 예제를 넘을 정도였다. 이에 앞서 한 집안의 남녀노소 가운데 이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거의 십여 명이었다. 이에 조모와 모친이 남은 화가 선생에게도 미칠까 깊이 두려워하여 성복(成服)한 날에 억지로 이웃집으로 나가 머물게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선생도 이 병에 걸렸다. 선생이 울면서 일러 말하기를 "죄지은 고아가 상차(喪次)을 떠난 것은 본디 스스로를 아끼려는 계책이 아니라 두 분의 분부를 어길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병이 들었으니 밖에 있은들 무엇 하겠습니까?" 하고는 두 부인께 고하고 돌아가서 궤연(几筵)을 모셨다. 그 곡읍(哭泣)의 절도와 궤전(饋奠)의 예를 병독(病毒)을 이유로 한 번도 폐한 적이 없었다. 삼년 안에 여러 번 침과 뜸을 놓고 천초환(川椒丸)을 복용하니 병든 몸이 소생했다. 항상 탄식하며 말하기를 "부여받은 명이 기박하여 거상(居喪)하면서 예도 다하지 못했으니 천지간의 한 죄인이다." 하였다.

마침내 당세에 뜻을 끊고, 스스로 농사를 업으로 삼았다. 그 당(堂)에 남포(南圃)라고 현판을 걸고 밝은 창과 조용한 책상에서 날마다 경적(經籍)을 탐구하였다. 혹 때로 눈을 감고 말없이 앉아서 천도(天道)와 인사(人事)의

---

999) 궁격(窮格) : 궁리격물(窮理格物)의 준말이다. 사물의 이치를 철저히 연구하여 물리(物理)의 극치에 도달하는 일이다.

1000) 중용도(中庸圖) : 《중용(中庸)》의 이치를 도표로 그린 것을 말한다.

관계에 대해 마음을 두었고, 마음에 계합한 바가 있으면 그때그때 반드시 기록하였다.

선생은 평소 명예와 현달을 추구하지 않았으나 명예가 원근에 퍼지니 사람들이 친소 없이 일제히 '임하고사(林下高士)'라고 칭송하였다. 벼슬아치와 장자(長者)들도 모두 그 명성을 부러워하며 흠모하였고 고을을 지나가는 인근의 관장(官長)은 반드시 와서 만나기를 구하였다. 기축년(1649, 인조27)에 향천(鄕薦)으로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또 익위사 세마(翊衛司洗馬)에 제수되었는데 모두 용주(龍洲) 조경(趙絅) 공이 추천한 것이다. 이 때 인묘(仁廟)가 승하하니 선생은 분곡(奔哭)하러 한양에 도착해서 은명(恩命)에 숙배(肅拜)한 뒤에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경인년(1650, 효종1)에 노봉(老峯) 민정중(閔鼎重) 공이 본도의 어사(御史)로서 선생을 한 번 보고는 재기(才器)를 중히 여겨서 성대하게 계문(啓聞)하여 포장(褒奬)하였다.

갑오년(1654, 효종5)에 모친상을 만나 상제(喪祭)를 한결같이 《가례(家禮)》를 따르면서 허물이 없었다. 기해년(1659, 효종10)에 효묘(孝廟)가 승하하자 선생은 또 분곡(奔哭)하고 돌아왔다. 현종(顯宗)이 즉위하여 초야의 선비로서 분곡을 한 자들에 대해 물으니, 조정에서는 팔현(八賢)[1001]을 가리어 아뢰었는데 선생도 그 한 사람이었다. 이에 군직(軍職)을 부여했는데 나아가지 않았다. 그 해에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1002] 공이 어사로서 친히 선생의 집으로 와서 하룻밤을 자면서 대화를 해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군자다운 사람이다." 하였다. 마침내 그의 행의(行誼)를 상소로 진술하여 포계(褒啓)하였다. 신축년(1661, 현종2)에 다시 교관(教官)에 제수되었으나 또한 나아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예송(禮訟)이 일어나서 조야가 어지러웠는데 선생에게 논란하는

1001) 팔현(八賢) : 《남포집(南圃集) 부록(附錄)》 권2의 〈서술(敍述)〉편에 8인의 이름이 나온다.

1002)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 1629~1711.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운로(雲路), 호는 약천(藥泉)이다. 1656년 과거에 급제하여 교리, 대사성, 형조 판서 등을 거치고 삼정승을 역임하였다. 남구만은 1659년 4월 호남 암행어사(湖南暗行御史)로서 호남 지역을 순행하였다. 《孝宗實錄 10年 4月 18日》《韓國文集叢刊解題 4 藥泉集》

자가 있었다. 선생이 말하기를 "국가의 대례(大禮)에 대해서 재야의 사람이 감히 의론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이어 미천(眉川)[1003]의 장서(長書)와 회천(懷川)[1004]의 차록(箚錄)을 꺼내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보면 시비가 저절로 정해질 것이다." 하였으니 대개 미천(眉川)의 뜻을 주로 삼는 것이었다. 선생은 다시 한양으로 들어가 당시 사문(斯文)의 장자(長者)를 두루 찾아보지 않음이 없었는데, 다만 회천(懷川) 송 상국(宋相國)에게는 끝내 가보려 하지 않았다. 황산서원(黃山書院)을 창건할 때에 회천이 여산(礪山)에 와서 머물자 도내의 지조를 아끼는 사류들도 대부분 분주히 달려갔다. 사람들이 선생에게 권하기를 "유림의 큰 행사이니 선생께서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송공(宋公)의 뜻도 또한 오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평소 병을 안고 사는데 어떻게 수 백리 지역에 달려갈 수 있겠는가." 하고는 끝내 가지 않았다.

선생이 이전에 상기(喪期)를 마친 후부터 남평(南平)의 석면촌(石面村)에 우거하였는데[1005] 향리의 사우(士友)들이 세 재실(齋室)을 세워 강습소로 삼았다. 선생은 그 재실의 이름을 삼학(三學)·몽학(蒙養)·열락(悅樂)이라 짓고 강규(講規)를 엄정히 세웠는데 한결같이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유의(遺意)[1006]를 본뜬 것이었다. 초하루와 보름날에 분읍례(分揖禮)를 행하고 날마다 그 배울 것을 부과하니 문사(文士)들이 부쩍 흥기하고 청아(菁莪)[1007]의 교화가 얼마 되지 않아 진작되었다. 이 때 선생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고을 수령이 되자 고을 사람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관장(官長)에게 부탁하여 선생을 해치려 하였다. 선생이 문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1003) 미천(眉川) : 허목(許穆)을 가리킨다.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문보(文甫)·화보(和甫), 호는 미수(眉叟)이다.

1004) 회천(懷川) : 회덕(懷德)에 살던 송시열(宋時烈)을 가리킨다.

1005) 우거하였는데 : 원문의 '矯居'는 '僑居'의 잘못인 듯하다.

1006) 백록동 서원(白鹿洞書院)의 유의(遺意) : 백록동 강규(白鹿洞講規)을 말한다. 주희(朱熹)가 만든 백록동서원의 규약이다.《朱子大全 권74 雜著 白鹿洞書院揭示》

1007) 청아(菁莪) :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청아(菁莪)는《시경》〈청청자아(菁菁者莪)〉로, 인재를 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내용이다.

"화를 예측할 수 없으니 내가 마땅히 근신하여 피해야겠다. 너희들은 내가 떠난다고 해서 태만히 하지 말고 의당 끝까지 노력해서 성취를 보아야한다. 이것이 나의 바람이다." 하였다. 마침내 가솔을 이끌고 나주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때는 현묘(顯廟) 을사년(1665, 현종5)이었다. 고을의 자제로 다시 찾아와 배우는 자가 많았고 선생은 여전히 가르치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선생의 거처는 부서진 가옥 몇 칸에 불과하고 허름한 집[1008]은 쓸쓸하였으니,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지만 선생의 처신은 여유로웠다. 반드시 이른 새벽에 일어나고 종일토록 단정히 앉아서 몸가짐에 조금도 태만한 기운이 없었다. 서적과 책상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질서정연하였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제를 대하듯[1009] 홀로 의리(義理)로써 스스로 즐거워하였다. 뜰에는 노란 국화 수십 본을 심고 율리(栗里)[1010]의 한가하고 담백한 아취를 깊이 얻었으며, 현금(玄琴) 한두 곡조를 손수 타면서 옛사람의 〈양보음(梁甫吟)〉[1011]을 본떠 추구하였다. 매번 좋은 때와 아름다운 철이 되면 반드시 대여섯 관동(冠童)과 함께 산수 사이에서 휘파람 불고 노래하였는데 이때 쓴 《남교일기(南郊日記)》가 있다.

신해년(1671, 현종12) 5월 10일에 병으로 집에서 세상을 마치니 향년 48세였다. 같은 해 모월 모일에 남평의 장암산(墻巖山) 묘좌(卯坐)의 언덕에 안장하였다. 낙천 오씨(洛川吳氏) 희일(喜馹)의 따님을 아내로 맞았는데 한림(翰林) 빈(賓)의 증손녀로서 군자의 덕성과 짝하여 어긋남이 없었고, 선생보다 4년 뒤 세상을 떠났는데 여기에 합장하였다. 딸 다섯을 두었다.

1008) 허름한 집 : 원문의 '환도(環堵)'로, 《예기》 〈유행(儒行)〉에 "선비는 일묘의 집과 환도의 방을 둔다.[儒者有一畝之宮, 環堵之室.]"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사방의 흙 담장이 각 면마다 한 발 길이가 되는 협소하고 비루한 집을 비유한다.

1009) 마음을……듯 : 주자(朱子)의 〈경재잠(敬齋箴)〉에 "그 의관을 바르게 하고 그 시선을 존엄하게 하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거처하고 상제를 대하 듯 하라.[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 하였다.

1010) 율리(栗里) : 동진(東晉)의 도잠(陶潛)이 은거하던 곳이다.

1011) 양보음(梁甫吟) : 악부(樂府)의 곡명이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제갈량(諸葛亮)의 〈양보음〉은 춘추 시대 제(齊)나라 재상 안평중(晏平仲)이 도량이 좁아 세 명의 용사를 죽이고야 만 일을 한탄하는 내용이며, 이백(李白)의 〈양보음〉은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지 못한 울분을 서술한 것이다.

장녀는 나재흥(羅再興)에게, 다음은 나재우(羅再祐)에게, 다음은 문과에 급제한 도사(都事) 이석삼(李錫三)에게, 다음은 이사존(李師存)에게, 다음은 정만규(鄭萬奎)에게 시집을 갔다. 아! 백도(伯道)처럼 후사가 없었고[1012] 외손 약간 명이 있다.

무오년(1678, 숙종4)에 문인과 자제들이 향리의 이웃 사우(士友)들과 앞장서 논의하여 재물을 모으고, 풍산(楓山)에 사우(祠宇)를 세워서 제물을 갖춰 제사를 올렸다. 아! 선생은 유서 깊은 집안의 쇠퇴한 종족으로 호남의 한쪽 누추한 고을에서 태어났다. 가정에 물려받은 가업[1013]이 없었고 사우연원(師友淵源)의 학통이 없었지만, 걸출하게 우뚝 서서 사도(斯道)를 자기의 임무로 여기고 성리학(性理學)에 마음을 오로지하고 진실의 영역에 발을 붙였다.

그 사생활을 살펴보면 진흙으로 빚은 소상(塑像)처럼 진중하였고 사람들과 말을 할 때는 봄바람처럼 화기가 넘쳤다.[1014] 많은 사람이 널리 앉은 자리에서 애초에 본디 반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 접하면 모두 선생의 됨됨이를 알게 되었다. 부모를 모시는 데는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어버이 상을 지낼 때는 그 예를 다하였다. 서모(庶母)를 대우할 때는 그 마음을 감동시켰고 서제(庶弟)를 기를 때는 애정을 지극히 하였다. 일가의 먼 친족

1012) 백도(伯道)처럼 후사가 없었고[伯道無嗣] : 뒤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을 말한다. '백도(伯道)'는 진(晉)나라 때에 하동 태수(河東太守)를 지낸 등유(鄧攸)의 자이다. 그가 석륵(石勒)의 병란 때에 아들과 조카를 데리고 피난하다가 둘을 모두 보호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여 자기 아들은 버려두어 죽게 하고 먼저 죽은 동생의 아들을 대신 살렸는데, 그 뒤에 끝내 후사를 얻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하늘이 무지해서 등백도에게 아들이 없게 했다.[天道無知, 使鄧伯道無兒.]" 하였다. 《晉書 권90 鄧攸列傳》

1013) 물려받은 가업 : 원문의 '기구(箕裘)'는 키와 가죽옷이라는 뜻으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가업(家業)을 비유하는 말이다. 《예기》〈학기(學記)〉의 "훌륭한 대장장이의 아들은 반드시 갖옷을 만드는 것을 배우고, 훌륭한 궁인의 아들은 반드시 키를 만드는 것을 배운다[良冶之子, 必學爲裘, 良弓之子, 必學爲箕.]" 하였다.

1014) 진흙으로……넘쳤다 : 원문의 '이소(泥塑)'는 단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말한다. 송나라 사양좌(謝良佐)가 스승인 정호(程顥)의 인품을 평하기를 "종일토록 앉아 있는 모습이 진흙으로 빚은 소상 같았으나, 사람을 접할 때는 온전히 한 덩어리의 화기였다.[終日坐如泥塑人, 然接人, 則渾是一團和氣.]" 하였다. 《上蔡語錄 권2》

[1015]이라도 동기(同氣)[1016]처럼 대하였다. 종가(宗家)의 아비를 여읜 조카를 보살펴 기를 때는 자기 자식과 다름이 없게 하였다. 매번 선조의 기일에는 비록 한겨울이라도 반드시 목욕을 하고 제수(祭需)는 친히 점검하며 힘써 정결하게 하였다. 제삿날에는 반드시 의관을 정제하고 바르게 앉아서 밤이 샐 때까지 기다리면서 슬피 사모하여 부여잡고 울부짖음이 초상 때와 같았다. 모두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다.

평생 학문을 하며 퇴도(退陶)[1017]를 독실하게 믿어서, 말을 세우고 마음을 씀에 계승한 바가 많았다. 일찍이 〈역상소결(易象小訣)〉·〈우산질의(牛山質疑)〉 등 글을 저술하였다. 그 난해한 깊은 뜻과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해 얼음이 풀리듯 명확히 해석하여 각각 합당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 당세의 일에 대해서도 모두 일마다 훤히 꿰뚫어서 조정의 고사(古事)나 외국의 풍토에 이르기까지도 마치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것 같았다. 여기에서도 선생의 높은 재주와 식견이 이와 같았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선생이 지은 〈만언소(萬言疏)〉 한 편을 보았는데 대개 성정(誠正)[1018]의 요체에 근본을 두고서 세상의 일 10여 가지로 미루어 나가 지극하게 말하고 남김없이 논하였는데, 모두 조리가 있었으나 둔괘(遯卦)가 나와[1019] 결국 상소하지는 못했다. 만약 이 말이 임금의 귀에 한 번 들어가서 시행되었다면 풍화(風化)의 다스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1015) 먼 친족 : 원문의 '시문(緦免)'으로, 상례(喪禮) 때 상복 가운데 가장 가벼운 복(服)인 시마복(緦麻服)과 그 아래인 문복(免服)을 가리키는데 관계가 먼 친족을 말한다.

1016) 동기(同氣) : 원문의 '同己'는 '同氣'의 잘못인 듯하다.

1017) 퇴도(退陶) : 이황(李滉, 1501~1570)의 호이다.

1018) 성정(誠正) : 《대학장구》의 팔조목(八條目)에 속하는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을 가리킨다.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을 이른다.

1019) 둔괘(遯卦)가 나와 : 원문의 '우둔(遇遯)'으로, 점을 쳐서 둔괘(遯卦)가 나왔다는 뜻인데, 써놓은 상소문을 올리지 못할 때에 쓰는 표현이다. 한탁주(韓侂冑)가 정권을 잡아 조정을 어지럽히고 도학(道學)을 위학(僞學)이라 지목하자, 주희(朱熹)는 수만 언(數萬言)에 달하는 봉사(封事)를 초(草)하였다. 이에 자제와 문인들이 화를 사게 될 것이라고 간하였으나 그가 듣지 않자, 채원정(蔡元定)이 들어가서 점을 쳐서 결정하기를 청하였다. 점을 쳐서 둔지가인괘(遯之家人卦)를 만나 '둔(遯)의 꼬리이다. 좋아하지만 은둔한다.[遯尾好遯]'는 점사(占辭)가 되었다. 이에 그 초고(草稿)를 불에 넣었다 한다. 《晦庵別集 권1 劉德脩》

애석하게도 소장은 상달되지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고 격언과 훌륭한 의론도 한갓 먼지 낀 상자 속의 빈 말이 되게 하였으니 아! 슬프도다. 또 일찍이 《경세통전(經世通典)》을 지어서 사(士)·농(農)·공(工)·상(商)·병(兵)·승(僧)의 부류를 논하였는데, 대개 만일 나를 등용해주는 자가 있다면 거행하여 조치하겠다는 뜻이었다. 아! 이 몇 가지로 본다면 선생이 과연 당세에 뜻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만난 때가 좋지 못하여 광채를 품어 감추고 누추한 집[1020] 가운데서 스스로 즐겼으니 이른 바 '옳다고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근심이 없다.'[1021] 것은 실로 선생을 이른 것이다.

아! 하늘이 호남의 한 도에 선생을 낸 것은 실로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수명을 늘리고 그 역량을 채워서 대현(大賢)의 경지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또한 무슨 까닭인가? 세상에 뜻을 달리하는 자들은 선생이 상려(喪廬)를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아, 거짓을 퍼뜨리며 비방을 만들어 내고 참소하는 혀를 시끄럽게 놀려서, 지난날의 화를 점차 이루게 했던 것이다. 아! 애통하다. 말세의 인심이 험악하도다. 선생 집안의 화가 이미 세속에서 이른 바 채질(瘵疾)에서 비롯되어 한 집안이 사망하고 거의 남은 사람이 없었기에 두 대부인(大夫人)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권유한 것은 남은 고아를 보호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혹 울면서 이끌고 혹 붙잡아 떠나게 하면서 밧줄을 당기고 칼로 찌르려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이때를 당해 선생의 입장에서 어찌 감정을 억제하고 애써 복종하여 두 부인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선생의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평일에 어버이를 모시면서 한결같이 뜻을 따르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으니, 비록 엄중한 상사(喪事)에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중에 있더라도 두 분 늙으신 자당(慈堂)께서 몹시 다그치는 명령이 그지없이 절절한데에야 어찌하겠는가?

1020) 누추한 집 : 원문의 '필문규두(蓽門圭竇)'로, 필문(蓽門)은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사립문을 말하고, 규두(圭竇)는 담장을 뚫어 만든 규(圭) 모양의 창문이라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집을 말한다.

1021) 옳다는……없다 : 《주역》 〈건괘(乾卦) 문언(文言)〉에 "세상을 피해 숨어 살면서도 근심이 없고, 옳다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근심이 없다.[遯世無悶, 不見是而無悶.]" 하였다.

화변(禍變)이 황급한 즈음에 설사 의(義)에 대처함이 지극히 좋지는 못한 점이 있었더라도 선생의 당시 나이는 15세였다. 아! 경도(經道)와 권도(權道)[1022]를 중도(中道)에 맞게 하는 것은 노성(老成)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아동 때의 일로 성덕(成德)한 뒤에까지 뒤미처 흠을 잡는다면 공자께서 '그의 진보를 허여할 뿐 지난날의 잘잘못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1023] 라고 하신 뜻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심하구나, 소인(小人)은 남의 미덕을 이뤄주기를 좋아하지 않도다.

아! 선생은 나에게 멀리 외재종척조(外再從戚祖)가 되고, 나의 백부(伯父)와 중부(仲父) 및 동당 제부(同堂諸父)들이 모두 선생의 문하에서 종유하였다. 일찍이 들으니 백부(伯父)인 상상공(上庠公)이 가르치기를 "남포(南圃)는 남녘의 도학지사(道學之士)이다." 하였고, 중부(仲父) 또한 말하기를 "바라보면 진중하여 참된 군자이다." 하였으며, 동당 제부들도 일찍이 칭송해 마지않았다. 내가 옛날 명재(明齋)[1024] 윤 선생(尹先生) 문하에서 유학할 때 (명재)선생이 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남녘 고을에 김만영(金萬英) 군이 있는데 참으로 호걸지사이다." 하였다. 나는 어려서 한양에서 자랐고 선생에게 세대가 뒤이며 지역도 멀어서 비록 선생의 언행 사이에서 친히 훈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부형과 사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익숙하게 들었다. 남쪽의 전리(田里)로 돌아갈 때에 한 번 사우(祠宇)를 참배하고 또 선생의 가장(家狀)[1025]과 행록(行錄) 및 유문(遺文) 여러 편을 본 연후에야 비로소 선생의 심오한 학문과 무거운 명망이 일세의 표준으로 후학들이 우러르는 태산북두(泰山北斗)가 되어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았다.

1022) 경도(經道)와 권도(權道) : 경(經)은 변할 수 없는 도이고, 권(權)은 임시로 변통하는 도를 말한다.

1023) 그의……않는다 : 공자 당시에 풍속이 나쁜 호향(互鄕) 사람들과는 같이 말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공자가 그곳 아이를 만나주자 제자들은 당황하였다. 이에 공자가 말하기를 "그 진보를 허여할 뿐이요 그의 퇴보를 허여하는 것은 아니니, 어찌 심하게 할 것이 있겠는가. 사람이 몸을 깨끗이 하여 찾아오면 그 깨끗이 한 것을 허여할 뿐이요 지난날의 잘잘못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與其進也, 不與其退也, 唯何甚. 人潔己以進, 與其潔也, 不保其往也.]" 하였다. 《論語 述而》

1024) 명재(明齋) : 윤증(尹拯)으로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인경(仁卿)·자인(子仁), 호는 명재(明齋)·유봉(酉峯)이다.

1025) 가장(家狀) : 원문의 '家莊'은 '家狀'의 잘못인 듯하다.

가령 국자 사유(國子師儒)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인재[1026]를 인도했다면 인재를 육성하는 효과가 꼭 여기에만 그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제는 죽어 묻혀서 배운 바를 펴지도 못한 채 몽매한 이를 기르고 교도하는 공효가 단지 한 문하의 선비들에게만 미치고 말았으니 그 또한 개탄스러울 뿐이다.

아! 나의 선친께서 선생보다 연세가 조금 어린지라 종유하지는 못하였으나 평일에 사모함이 또한 많았다. 일찍이 선생이 지은 〈중용훈해(中庸訓解)〉을 보고 조금 윤색을 가하여 저술하신 일설(一說)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이론(異論)이 없지 않지만 그 큰 개요를 말하자면 똑같이 도리는 하나였다.

지난 모년(某年)에 사론(士論)이 일제히 목소리를 내어 선친을 풍우(楓宇)에 함께 제향하였다.[1027] 이때부터 매년 봄가을 제향 때 항상 제사에 달려가 참여하였으니 소자(小子)의 구구한 애모의 정성을 어찌 다른 사람들에 비하겠는가?

선생은 성리학(性理學)에 전념하여 일찍이 사장(詞章)에는 힘을 쏟지 않았지만, 무릇 읊은 시들은 모두 성정(性情) 속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그중 〈사시가(四時歌)〉는 가사의 기운이 온통 온화하여 바로 정백순(程伯淳)의 기상이 있으니, 한 번 읊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공경심이 일었다. 내가 일찍이 판서 남용익(南龍翼)이 지은 《기아(箕雅)》[1028]를 보았는데 선생의 시가 【서술(叙述)에 자세히 보인다.】 또한 그 가운데 들어있어서, 비로소 선생의 문장이 풍아(風雅)[1029]의 반열에 뽑혔음을 알게 되었다.

1026) 인재 : 원문의 '준조(俊造)'로, 준사(俊士)와 조사(造士)를 합칭(合稱)한 말이다. 준사는 주나라 때의 학제(學制)에서 서인의 자제로 학덕이 뛰어나 태학(太學)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을 말하고, 조사는 인격이 성취된 선비라는 뜻으로 특히 태학의 진사(進士)에 선발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禮記 王制》

1027) 선친을……제향하였다 : '풍우(楓宇)'는 '풍산사우(楓山祠宇)'를 말한다. 임원(任遠)의 선친은 임세복(任世復, 1655~1703)으로 사후에 증통덕랑(贈通德郞)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증직되고, 남평면 풍산사(楓山祠)에 배향(配享)되었다.

1028) 남용익(南龍翼)이 지은 기아(箕雅) : 조선 숙종(肅宗) 때 남용익(南龍翼)이 엮은 시집이다. 신라 최치원(崔致遠)으로부터 조선 현종(顯宗) 때의 김석주(金錫胄)에 이르기까지 497인의 시를 모아 엮었다. 조선 후기에 널리 읽힌 시집이다.

1029) 풍아(風雅) : 《시경》의 〈국풍(國風)〉 및 〈대아(大雅)〉와 〈소아(小雅)〉를 말하는데, 바르고 고상한 시문(詩文)을 비유한 것이다.

또 명재(明齋) 선생의 유집을 살펴보니, (명재)선생이 일찍이 탄옹(炭翁) 권시(權諰)[1030] 공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위포(韋布)[1031]로 자처하는 경우가 있다. 김만영군 같은 사람은 더욱 태학(太學)에 두어 그 재능을 성취할 수 있게 함이 좋다." 하였다. 또 〈임사가를 보내는 서[送林士駕序]〉에서 말하기를 "내가 남녘의 선비에 대해 들은 사람은 김만영 군이니 그대가 돌아가면 그를 찾으라." 하였으니, 그 평일에 유문(儒門)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 또한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다.

일전에 선생의 서종자(庶從子)인 국상(國相)이 와서 말하기를 "제 숙부의 행장(行狀)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으니 그대가 기록해 주십시오." 하였다. 내가 비록 사람이 미천하여 선생의 덕을 찬양하는 글을 감히 감당할 수 없으나, 다만 나의 제부(諸父)들이 이미 문생(門生)의 반열에 있었고, 나의 선친 또한 따라서 한 사우(祠宇)에서 함께 배향되었으니, 정으로나 의리로나 글을 못한다고 사양할 수는 없었다. 삼가 가장(家狀)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차례로 서술하고, 평일에 가정과 사우들에게 들은 것을 간간히 덧붙여서 세상의 상덕군자(尙德君子)가 사실을 고찰하는 바가 있기를 기다리노라.

경신년(1680, 숙종6) 2월 하순에 후학 서하(西河) 임원(任遠)이 삼가 짓다.

1030) 탄옹(炭翁) 권시(權諰) : 1604~1672. 탄옹은 호이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사성(思誠)이다.

1031) 위포(韋布) : 가죽 띠를 띠고 베옷을 입은 사람을 말하는데, 옛날에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나 빈한한 평민의 대칭으로 사용하였다.

묘지명【병서】
墓誌銘【幷序】

남포(南圃) 김 선생은 인효(仁孝)한 세상을 만나 옥을 품고 보배를 쥐고서도[1032] 숲 울타리 아래에서 40여 년을 은둔하며 살았다.[1033] 그 덕성이 순수하게 얼굴에 나타나고 등에 가득 넘치며 마음속에서 발하여 겉으로 드러났으니, 야광과 명월주가 있어 절로 그 산의 광휘와 시내의 아름다움[1034]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명성이 자자했고 이에 용주(龍洲) 조 선생(趙先生)[1035]이 추천하였다.[1036] 벼슬아치들과 선비들도 그 명성을 부러워하고 몸소 그의 집에 와서 선생을 보기를 바랐다. 어사(御使)로 안렴(按廉)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니 조정에서 예를 갖춰 초빙을 한 것이 두 번이었다.

처음에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제수하였고, 이어서 익위세마(翊衛洗馬)에 제수한 명이 있었으니, 아, 아름답고 성대하도다! 성조(聖朝)의 숭덕상현(崇德象賢)[1037]의 교화가 이렇게 지극하였다. 그런데 근세의 학자들이 혹 괴이한 말에 침해를 받아, 물에 물결이 일고 거울에 먼지가 낀[1038] 것처럼

1032) 옥을……쥐고서도 : 재덕을 갖춘 것을 말한다. 《초사(楚辭)》 〈구장 회사(九章 懷沙)〉에 "옥을 품고 보배를 쥐고서도, 무엇을 보여줘야 할지 끝내 모르겠다.[懷瑾握瑜兮, 窮不知所示.]" 하였다.

1033) 은둔하며 살았다 : 원문의 '비둔(肥遯)'으로, 《주역》 〈둔괘(遯卦) 상구(上九)〉에 "살지는 은둔이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肥遯, 無不利.]" 하였다.

1034) 산의……아름다움 : 훌륭한 재덕(才德)을 품고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육기(陸機)의 문부(文賦)에, "돌이 옥을 간직하고 있으매 산은 빛나고, 물이 구슬을 품고 있으매 냇물은 아름답도다.[石韞玉而山輝, 水懷珠而川媚]" 하였다.

1035) 용주(龍洲) 조 선생(趙先生) : 조경(趙絅, 1586~1669)으로,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일장(日章), 호는 용주·주봉(柱峯)이다.

1036) 추천하였다 : 원문의 '吹瑩'은 '吹噓'의 잘못인 듯하다.

1037) 숭덕상현(崇德象賢) : 본래 《서경》 〈미자지명(微子之命)〉에 나오는 구절로, 숭덕(崇德)은 '덕이 있는 자를 숭상하여 제사를 받든다.'라는 뜻이고 상현(象賢)은 '선현을 닮은 어진 후손이 있으면 명하여 제사를 모시게 한다.'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덕이 있는 자를 높이고 현명한 자를 본받는 것을 말한다.

1038) 물에……낀 : 잔잔한 물에 물결이 일고 밝은 거울에 먼지가 낀 것처럼 마음에 평정심과 분별심을 잃은 것을 말한다.

되었으니 따라서 모진(茅榛)[1039]의 탄식이 있었다. 혹 설(說)이 상세하지 않은데도 대번에 한 마디 말로 그 극단을 찾으려다가 도리어 엽등(躐等)[1040]의 혐의가 있었으니, 자취를 끊고 길이 은둔하여 홀로 자기 몸을 선하게 하면서 세상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선생은 남녘에서 흥기하여 그 학문은 고정(考亭)[1041]에 바탕을 두었고, 퇴도(退陶)[1042]를 독실하게 신봉했다. 성명(性命)의 근원에 마음을 두고 의리(義理)의 분별을 연구하면서, 깊이 잠기고 반복하여 대체로 《중용(中庸)》을 귀착처로 삼았다. 고금의 치란(治亂)과 당세의 사무에 이르기까지 미루어 나가서 사소한 것[1043]도 빠뜨리지 않았고 하찮은 일[1044]도 모두 합당하게 하였다. 은거하며 한가롭게 사는[1045] 즐거움을 가지면서도, 이름을 날려 수제치평(修齊治平)[1046]의 공을 이루었으니 이 어찌 "임하제일인(林下第一人)"이 아니겠는가.

삼가 그 행장을 살펴보니 선생은 숭정(崇禎) 갑자년(1624, 인조2)[1047] 2월 27

1039) 모진(茅榛) : 산길이 띠 풀에 모색(茅塞)되고 개암나무에 막히듯 사람들의 마음이 사욕에 가려진 것을 말한다.

1040) 엽등(躐等) : 차례를 지키지 않고 등급을 뛰어넘는 폐단을 말한다. 《예기(禮記)》 〈학기(學記)〉에 "어린아이가 듣기만 하고 묻지 않는 것은 등급을 뛰어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幼者聽而弗問, 學不躐等也.]"라고 하였다.

1041) 고정(考亭) : 중국 복건성(福建省) 건양현(建陽縣) 남서쪽에 있는 정사(精舍)인데, 주희(朱熹)가 이곳에서 강학하여 그의 별호(別號)가 되었다.

1042) 퇴도(退陶) : 이황(李滉, 1501~1570)의 호이다.

1043) 사소한 것 : 원문의 '수량(銖兩)'으로, 1수(銖)와 1량(兩)으로 아주 적은 분량을 가리킨다.

1044) 하찮은 일 : 원문의 '이극(履屐)'으로, 신발과 같은 하찮은 일을 비유한 것이다. 진(晉)나라 극초(郄超)가 사현(謝玄)에 대해서 "내가 일찍이 환공(桓公)의 막부에서 사현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그때 그가 인재를 쓰는 것을 보았더니, 비록 신발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임자를 구해서 쓰곤 하였다.[吾嘗與玄共在桓公府, 見其使才, 雖履屐間, 亦得其任.]"라고 하였다. 《晉書 권79 謝玄列傳》

1045) 한가롭게 사는 : 원문의 '고반과축(考槃薖軸)으로,《시경》〈고반(考槃)〉에 나오는 '석인지과(碩人之薖)'의 '과(薖)'와 '석인지축(碩人之軸)'의 '축(軸)'을 합성한 말인데 은거한다는 뜻이다.

1046) 수제치평(修齊治平) : 《대학》에 나오는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를 말한다.

1047) 숭정(崇禎) 갑자년(1624, 인조2) : 이 해는 숭정(崇禎)에 해당하지 않고 숭정(崇禎) 이전인 천계(天啓) 4년에 해당한다. 연호에 착오가 있는 듯하다.

일에 귀업리(龜業里) 집에서 태어났다. 모친의 꿈에 어떤 사람이 명주(明珠) 하나를 주었는데 꿈에서 깨어나서 선생을 낳았다. 이를 갈 무렵부터 조숙하여 총명하였고, 풍범(風範)이 단중(端重)하고 언행이 신중하여 바라보면 성덕군자(成德君子) 같았다.

12세 때 《대학》·《중용》을 읽었고, 과거공부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 13세 때 《논어》·《맹자》·《주역》·《예경》을 읽고 제자백가의 책에 이르러서도 한 번 보면 줄줄 외웠고 심오한 뜻을 깊이 찾으면서 훑고 지나가는 것을 일삼지 않았다. 남이 보지 않는 방에 있더라도 바르게 앉아서 잠시도 해이하지 않았다. 이 이후로 강마(講磨)하여 뜻을 추구하니 학업이 날로 성대해졌다.

사(士)·농(農)·병(兵)·승(僧)의 제도, 초목금수(草木禽獸)의 미물, 조정의 법도, 외국의 풍토와 같은 것도 모두 훤히 꿰뚫고 두루 포괄했음을 〈만언소(萬言疏)〉·《경세통전(經世通典)》·《남교일기(南郊日記)》·《역상소결(易象小訣)》·〈우산문답(牛山問答)〉 등 여러 편에서 볼 수 있다. 그 학력의 조예와 견문의 엄박(淹博)함은 후생 말학이 작은 소견으로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언소〉에서 이르기를 "마음 다스리는 법은 방책(方策)에 실려 있고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약이니 나의 병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시종일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독실하게 보좌하는 사람을[1048] 의심하지 말고 함께 지극한 치세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경세통전(經世通典)》에서는 "과거로 인재를 취하는 것은 본래 삼대(三代)[1049]의 제도가 아닌데, 과거 제도가 또 이처럼 난잡하다면 도(道)를 잃어버린 가운데 또 심히 도를 잃은 것이니, 정인군자(正人君子)가 무엇을 좇아 본조(本朝)에 서겠는가." 하였다.

《남교일기(南郊日記)》에서 말하기를 "자양(紫陽) 선생이 일찍이 '외(畏)'자로써 '경(敬)'자를 풀이하였는데,[1050] 근래에 대략 그 방도를 터득해서 이

1048) 독실하게 보좌하는 사람을 : 원문의 '독비(篤棐)'로, 《서경》 〈주서(周書) 군석(君奭)〉에 주공(周公)이 소공(召公)에게 말하기를, "임금을 독실하게 보좌할 사람은 우리 두 사람뿐이다.[篤棐, 時二人.]"라고 하였다.

1049) 삼대(三代) : 이상적인 태평성대로 하(夏)·은(殷)·주(周)나라 시대를 말한다.

1050) 자양(紫陽)……풀이하였는데 : 자양(紫陽)은 주희(朱熹)의 별칭이다. 《주자어류》 권12에 " '경'이란

마음을 해이하고 태만한 지경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겨울날의 해는 여름날의 해와 같은 것인데 열기가 판이한 것은 그 때의 천기(天氣)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인하여 생각해보건대 사람의 성품에 현우(賢愚)가 있는 것은 기질(氣質)이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말이 푸른 풀을 뜯는 것에 사욕을 극복하는 경계를 붙이고, 국화를 위쪽 계단으로 옮기면서 등급을 구별하는 요점을 둔 것으로 말하면, 하찮은 것이라도 그 이치를 궁구하지 않음이 없었고, 어떤 사물도 의리에 갖다 붙이지 않는 것이 없어서 이기(理氣)와 지행(知行)의 심오한 뜻을 도처에서 발현하여 부류에 따라 확장하였다.[1051)]

〈만언소〉도 바로 자양(紫陽)이 했던 봉사(封事)의 유규(遺規)를 추구한 것이다. 오로지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성군을 만들고 충성을 다하려는 정성이 마음에 가득하였으니, 만약 현양(顯揚)하여 조정의 위에 두었다면 일세를 삼대(三代)의 경지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찌 위대하지 아니한가.

또 〈원리기설(原理氣說)〉·〈춘풍루기(春風樓記)〉·〈삼학재규의(三學齋規儀)〉·〈완물편(玩物篇)〉·〈덕성문학도(德性問學圖)〉가 있다. 모두 천리와 인도(人道)의 관계에 근본을 두고, 희문(羲文)[1052)]의 도를 묵묵히 이해하며, 태극(太極)을 연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돌이켜 구하였는데 광미장밀(廣彌藏密)[1053)]하여 만 가지 다른 일에 응접하니 거의 어디를 가도 안 될 것이 없었다. 평생의 학문의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외’ 자와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敬有甚物? 只如畏字相似.]” 하였다.

1051) 부류에 따라 확장되었다 : 원문의 ‘촉류이장(觸類而長)’으로 어떤 한 가지 사물의 원칙을 좇아 같은 부류의 사물로 확대시켜 나아가는 일이다. 《주역》〈계사전 상(繫辭傳上)〉에 “이끌어 펴며 유에 따라 확장하면 천하의 능사가 다할 것이다.[引而伸之, 觸類而長之, 天下之能事畢矣.]” 하였다.

1052) 희문(羲文) : 팔괘(八卦)를 그었다는 복희씨(伏羲氏)와 괘사(卦辭)를 지었다는 주 문왕(周文王)의 병칭인데, 《주역》을 가리킨다.

1053) 광미장밀(廣彌藏密) : 《중용》에서 말하는 심법(心法)에 통달했음을 뜻한다. 《중용집주(中庸集註)》에 정자(程子)가 중용을 설명하면서 “중은 천하의 정도요, 용은 천하의 정리이다. 이 책은 바로 공문이 전수한 심법이다.……이것을 펼치면 육합[天地四方]에 가득하고, 거두면 은밀한 마음속에 물러가 감추어져서 그 맛이 무궁하니, 모두 진실한 학문이다.[中者, 天下之正道, 庸者, 天下之定理. 此篇, 乃孔門傳授心法,……放之則彌六合, 卷之則退藏於密, 其味無窮, 皆實學也.]” 한 것을 원용한 것이다.

힘은 《중용》에서 터득하였고, 행동거지는 법도에 맞았다. 반드시 평탄하고 넓은 길을 경유하고 편향되지 않는 곳에 기치를 세웠다.

동인(東人)·서인(西人)을 표방할 때를 당해서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예송(禮訟)[1054]이 한 번 터져 나와 시비가 분분한 때에 선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구실을 주워 모아 공격하였다. 이에 고향의 허름한 집으로 자취를 거두고 백록동 서원(白鹿洞書院)의 규칙을 본떠서 생도를 가르쳤는데 지친 기색이 없었다. 항상 방을 깨끗이 소제하고 진중하게 단정히 거처하면서 종일토록 책상을 마주하고 좌우에는 경적(經籍)을 두었다. 왕왕 지은 시문에는 기수무우(沂水舞雩)의 기상[1055]이 있었다. 일찍이 절구 한 수를 읊었는데 "산은 고요하고 숲은 깊으며 해 또한 더디니, 한 책상에서 서적을 읽다가 해질 녘 되었네. 화정처사(和靖處士)는 한가한 일 중에 거름을 지고 바둑 두는 일은 배우지 않았다네."[1056]라고 하였다. 선생이 마음에 간직하고 지킨 바를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

몇 송이 국화 화분 외에는 쓸쓸하여 다른 물건이 없었다. 북창에 둔 한 장의 거문고로 때로 간혹 현을 튕기며 마음을 풀었다. 사람들이 혹시 예송(禮訟)을 가지고 질정해오면 항상 말하기를 "국가의 대례(大禮)에 대해서 재야인사가 감히 의론할 바가 아니지만 공론(公論)이 정해지는 데 꼭 백년을 기다릴 것도 없을 것이다." 하였다. 그 지조가 확고하여 분육(賁育)[1057]이라도 빼앗을 수 없었다.

기축년(1649, 인조27)에 교관(敎官)에 배수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또

1054) 예송(禮訟) : 1659년 효종이 승하한 뒤에 일어난 기해예송(己亥禮訟)을 말한다.

1055) 기수무우(沂水舞雩)의 기상 : 외물에 매이지 않고 초연히 도(道)를 즐기며 사는 것을 말한다. 기수는 노(魯)나라 도성 남쪽에 있는 물 이름이며, 무우는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論語 先進》

1056) 화정처사(和靖處士)는……않았다네 : 원문의 '處事'는 '處士'의 잘못인 듯하다. 자신도 화정처사처럼 산다는 뜻이다. 송(宋)나라 은사인 임포(林逋)의 시호이다. 임포가 매화를 심고 학을 기르며 서호(西湖)의 고산(孤山)에서 은거하였다.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세상일에 모두 능하지만 오직 거름을 지는 것과 바둑을 두는 것은 능하지 못하다.[逋世界間事皆能之, 唯不能擔糞與著棋.]' 하였다.《夢溪筆談 人事二》

1057) 분육(賁育) : 전국 시대 제(齊)나라의 용사인 맹분(孟賁)과 주(周)나라의 역사(力士)인 하육(夏育)을 말한다.《史記 권120 汲鄭列傳》

세마(洗馬)에 제수되었다. 인묘(仁廟)가 승하하자 선생은 분곡(奔哭)하러 한양으로 갔다. 기해년(1659, 효종10)에 효묘(孝廟)가 승하하자 또 처음처럼 분곡을 하였다. 현종(顯宗)이 즉위하여 현사(賢士)로서 분곡한 자에 대해 묻자 재신(宰臣)들이 팔현(八賢)[1058]을 아뢰었는데 선생은 그 한 사람이었다. 경인년(1650, 효종1)에 민노봉(閔老峯)이 어사(御史)로서 선생을 칭찬하여 천거하였고, 그 뒤 남약천(南藥泉)이 또 어사로서 선생을 한 번 만나 대화를 해보고는 크게 기뻐하면서 조정에 곧장 천거하였다. 이렇게 선생의 훌륭한 명성이 크게 드러나서 두 번이나 어사의 포양(襃揚)을 받고 연이어 이름 있는 벼슬에 제수된 것이다.

선생은 어버이를 모시는데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거상(居喪)에는 예를 다했다. 서제(庶弟)를 가르치고 우애가 두터웠으며 종질(宗侄)을 돌보기를 자기 자식처럼 하였다. 먼 친족을 대우하는데도 지극히 돈목하였으며 제삿날이 되면 목욕을 필히 정결하게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세상이 흠모하는 바였는데, 공격하는 자들은 전혀 근사하지도 않은 설로 선생을 억지로 몰아세웠다. 선생이 약관(弱冠)의 나이 때에 한 집안이 병에 걸려 거듭 화를 당했다. 당시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모친이 선생을 누누이 타이르면서 잠깐 피하도록 하였다. 선생은 울면서 간했으나 할 수 없게 되자 잠시 산 암자에 우거했으니, 실로 모친의 뜻을 따르는 의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인심이 험악하여 거짓말이 그치지 않았으니 심하다, 소인(小人)은 남의 미덕을 기꺼이 이루어 주려고 하지 않았도다.

선생의 휘는 만영(萬英)이요, 자는 영숙(英叔) 또는 군실(羣實)이다. 성은 김씨(金氏)로 선계가 당악(棠岳)에서 나왔다. 우리 조정에 들어와서 휘 인(忍)이 부총관(副摠管)을 지냈는데 묘소가 나주(羅州)에 있어서 자손들이 인하여 이곳에 살았다. 부총관의 손자 휘 종(琮)이 정언(正言)을 지냈고, 이 분이 낳은 휘 효정(孝禎)은 진사와 생원시에 모두 합격하였는데 선생에게는 5세조가 된다. 고조인 휘 두(斗)는 이른 나이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호가 모암(慕庵)인데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 때에 본주의 여러 진사

1058) 팔현(八賢) : 《남포집(南圃集) 부록(附錄)》 권2의 〈서술(敍述)〉편에 8인의 이름이 나온다.

공들과 특별히 정암(靜菴) 조 선생(趙先生)의 원통함을 변론하였다. 증조 휘 태각(台角)은 내자시 주부(內資寺主簿)를 지냈다. 조부 휘 원록(元祿)은 박사암(朴思菴)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는데 몸가짐이 신중하고 독실하였으나 과거 공부는 일삼지 않았다. 부친 휘 태읍(泰浛)은 향해(鄕解)에 여러 번 수석을 하였으나 송호(松湖)라고 자호(自號)하며 생도들을 가르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송호공은 나주 나씨(羅州羅氏) 생원 원길(元吉)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선생을 낳았다. 배위는 낙천 오씨(洛川吳氏) 희일(喜馹)의 따님인데 후사를 두지 못했고 외손(外孫) 약간 명이 있다. 선생은 신해년(1671, 현종12) 5월 10일에 집에서 세상을 마치니 향년 48세였다. 남평(南平)의 장암산(墻巖山) 묘좌(卯坐)의 언덕에 안장하였다. 오씨는 선생보다 4년 뒤에 졸하여 공의 왼쪽에 합장하였다.

아! 하늘이 이 분에게 장차 임무를 내리려고 하였는데 명이 박하여 중수(中壽)만 누렸고 관직은 처음 벼슬[1059]에 그쳐서 세상에 뜻을 크게 펼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 무슨 까닭인가? 선생은 성대한 세상[1060]을 맞아 솜옷도 화려하게 여겼고 물을 마시는 것도 달게 여기며 마음을 침잠하여 도를 즐겼다. 부지런히 학문을 하여 매양 앞에 서적이 가득한 서재에 조용히 앉았을 때는 엄숙하여 마치 진흙으로 빚은 소상 같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물을 접할 때는 온화하여 봄바람이 자리에 넘쳤다. 성명이기(性命理氣)의 근원과 산림경제(山林經濟)의 방책은 사람들이 그 깊은 뜻을 엿볼 수 없으니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칭송한다.

이제 그 손자 병규(秉圭)씨가 비석[1061]을 다듬고 그 글을 나에게 쓰게 하였는데 내가 문장에 능한 자가 아니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선생을 위해

1059) 처음 벼슬 : 원문의 '서사(筮仕)'로, 옛사람이 관직에 나아가려 할 때 길흉을 점치는 일인데, 곧 처음 관직에 나아감을 말한다.

1060) 성대한 세상 : '대유(大有)'는 치세(治世)를 가리킨다. 본래 《주역》의 64괘 중 하나인데, 하늘 위에 불이 떠 있는 상(象)으로 임금이 높은 자리에 있고 천시(天時)에 순응하는 괘이다.

1061) 비석 : 원문의 '이생(麗牲)'으로, 옛날 제사를 지낼 때 희생(犧牲)으로 쓸 짐승을 사당이나 묘소 앞에 세워놓은 돌에 붙잡아 매는 것인데, 전하여 비석(碑石)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禮記 祭義》

문장을 쓴 것은 평일에 경앙(景仰)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있기 때문이다. 삼가 채 중랑(蔡中郞)의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뜻[1062]을 부친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뜻을 두텁게 하고 업을 부지런히 하며	篤志勤業
의로 적시고 인으로 다듬었네	漸義磨仁
가까이는 퇴도를 숭모하고	近慕退陶
멀리는 낙민[1063]을 배웠네	遠學洛閩
성인의 가르침은 반드시 기록하여	聖訓必箚
태극도로 펼쳤네	極圖以陳
앎을 넓혀 사물의 이치 궁구하고	知淹格物
행실을 닦아 몸을 신중히 했네	行修側身
명예가 남쪽 지역에 퍼지고	譽播南服
대궐의 은혜가 융숭하니	恩隆北宸
골목엔 수레가 들어차고	巷塡輪蹄
문에는 선비들이 찾았다네	門登衿紳
가난한 살림에도 봉양을 다했고	寒廚養備
엄중한 여막에서는 예를 따랐네	嚴廬禮遵
올리지 못한 봉사[1064]에서는	未徹封事
임금에 충성했고 백성을 걱정했네	忠君憂民

1062) 채 중랑(蔡中郞)의……뜻 : 비명을 모두 진실하게 지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다. 채 중랑은 후한(後漢) 때 좌중랑장(左中郞將)을 지낸 채옹(蔡邕)을 가리킨다. 그가 곽유도(郭有道)의 비문을 짓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비명을 지은 것이 많지만, 모두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곽유도에 대해서만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吾爲碑銘多矣, 皆有慙德, 唯郭有道無愧色耳.]" 하였다.《後漢書 郭太列傳》

1063) 낙민(洛閩) : 낙양(洛陽)의 정자(程子)와 민중(閩中)의 주자(朱子)를 말한다. 송대 성리학을 말한다.

1064) 올리지 못한 봉사 : 〈만언소(萬言疏)〉를 지었으나, 점괘가 불길하여 실제로는 올리지 않은 것을 말한다.

표방[1065]하는 때를 만나서는	時際標榜
자취를 흐려 은둔하였네	跡混隱淪
처신하기는 늘 탄탄한 길을 밟았고[1066]	處每履坦
두려워하기는 나루가 없는 듯했네[1067]	惕若無津
성대한 저 언덕 전원에	賁彼邱園
기상이 새롭구나	氣象維新
한 책상의 경적을 대하니	一床經籍
정결하여 티끌도 없구나	淨無纖塵
시에 드러난 것은	發之於詩
넘치는 봄기운이라	藹然者春
아래에 처해도 근심이 없었으나	處下无悶
말이 사라질까 두렵도다	恐言斯湮
학술과 경제는	學術經濟
숲 아래 제일인이라	林下一人
내가 지은 묘지명이	我爲作銘
비석에 부끄럽지 않도다	無愧琠珉

숭정(崇禎) 기원후 정미년(1667, 현종8) 한 여름에 무령 태수(武靈太守) 지제교(知製敎) 연안(延安) 이명적(李明迪)이 삼가 쓰다.

1065) 표방 : 당파를 서로 표방(標榜)하여 당쟁을 한 일을 가리킨다.

1066) 처신하기는……밟았고 : 정도(正道)를 행했다는 뜻이다. 《주역》 〈이괘(履卦) 구이(九二)〉에 "행하는 도가 탄탄하니 유인이라야 곧고 길하다.[履道坦坦, 幽人貞吉.]" 하였다.

1067) 나루가……했네 : 매우 조심하였다는 뜻이다. 《서경》 〈미자(微子)〉에 "이제 우리 은나라가 빠져 망하는 형세는 마치 큰물을 건널 적에 나루나 물가가 없는 것과 같다.[今殷其淪喪, 若涉大水, 其無津涯.]" 하였다.

南圃集

남포집

부록 제2권

附錄 卷之二

서술
敍述

선생은 고금의 일에 널리 통달하여 남쪽 지방 이학(理學)의 종장이다. 【본주 《여지승람(輿地勝覽)》】

조용주(趙龍洲)가 선생의 인품과 문장이 초연히 자득한 것을 보고 매양 ‘임하제일인(林下第一人)’이라고 칭송하였다. 【문인 이문석(李文碩)의 기록】

묻기를 “아래에서 빈사(賓師)로 자처하는 혐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자연히 등급이 있는 것이다. 빈사로 자처하는 경우도 있고 위포(韋布)로 자처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응(鄭道應)과 김만영(金萬英)은 아직 젊으니, 더욱 태학에 두어 그 재능을 성취할 수 있게 함이 좋다.” 하였다. 【《명재집(明齋集) 〈남유기문(南遊記聞)〉》】

내가 들으니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벗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하였는데, 오늘날 이 의미를 아는 자는 대개 드물다. 독서를 하다 의심이 있을 때 벗이 아니면 누구에게 질정(質正)하며, 행동을 하다가 잘못이 있을 때 벗이 아니면 누구에게 듣겠는가? 지금 우리 그대는 여러 책을 배운 것이 아직은 두루 넓지 못하고 행동을 하는 데에 아직은 요체를 다 갖추지 못하였다. 서둘러 자기보다 나은 이를 가까이하고 그들의 깨우침과 도움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보완해 가야지, 떨어져 지내며 독학을 하다가 몽매함에 빠지는 부끄러움[1068]을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남쪽 지방 선비 중에 들어본 사람은 김만영(金萬英) 군이고 직접 본 사람은 유진석(柳震錫) 군이니, 그대가 돌아가 그들을

1068) 몽매함에 빠지는 부끄러움 : 현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 생기는 병폐를 말한 것이다. 《주역》 〈몽괘(蒙卦) 육사(六四) 상(象)〉에 “곤몽의 부끄러움은 홀로 강명(剛明)한 자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困蒙之吝, 獨遠實也.]” 하였다.

찾는다면 서로 도우며 연마하는 이익[1069]이 어찌 크다 하지 않겠는가?【《명재집(明齋集) 〈송임사가서(送林士駕序)〉》】

선생은 남쪽 지방의 도학지사(道學之士)이다. 또 말하기를 "바라보면 진중하여 진실로 군자이다."라고 하였다.【문인 임효복(任孝復)의 기록.】

명재(明齋) 윤 선생(尹先生)이 일찍이 선생을 칭찬하고 추켜세우며 말하기를 "남쪽 지방에 김만영 군이 있는데 참으로 호걸지사이다."라고 하였다.【서하(西河) 임원(任遠)의 어록】

선생이 일찍이 〈서과(西瓜)〉 시 절구 한 수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색은 가을하늘이 막 갠 뒤와 같고, 모습은 태극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과 같네. 붉은 중심을 쪼개자 감로(甘露)가 흘러내리니, 사마상여(司馬相如)는 이로부터 샘 찾는 일 게을러졌으리.[1070]"【호곡(壺谷) 남용익(南龍翼)이 지은 《기아(箕雅)》에 들어있다.】

선생은 강하의 큰 국량(局量)이요, 사림의 종장(宗匠)이니, 세상에서 "호남부자(湖南夫子)"라고 일컬었다.【문인 이석삼(李錫三)의 기록】

남약천(南藥泉)이 진휼 어사(賑恤御史)로 영남에 갈 때 상(上)이 인견(引見)하며 인재를 살펴 찾으라는 뜻으로 명하였다. 약천이 물러나서 상소하기를 "신이 일찍이 김만영을 조정에 천거하였는데 상께서 채용의 뜻이 없었습니다. 이제 신이 비록 인재를 찾더라도 나라에 끝내 어찌 보탬이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상이 특별히 전조(銓曹)에 교지를 내려 속히 직사를 부여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므로 교관(敎官)에 제수되었고 시남(市南) 유계(兪棨) 또한 극론(極論)하여 천거하였다.【남구만(南九萬) 《약천집(藥泉集)》】

1069) 서로……이익 : 원문의 '이택(麗澤)'으로, 붕우가 서로 도와 절차탁마(切磋琢磨)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 〈태괘(兌卦) 상(象)〉에 "두 연못이 서로 붙어 있는 형상이 태이니, 군자가 보고서 붕우들과 강습한다.[麗澤兌, 君子以朋友講習.]" 하였다.

1070) 사마상여(司馬相如)는……게을러졌으리 : 한(漢)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는 만년에 늘 갈증을 느끼는 병인 소갈증(消渴症)을 앓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史記 司馬相如列傳》

남북으로 관직에 매여서 경성(京城)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더구나 남쪽 소식은 하늘 멀리 묘연하였는데 오늘 임 참봉(林參奉) 형제를 통해 지난해에 영종(令從)인 세마(洗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그친 것은 운명이니 어찌 하리오 어찌 하리오, 사무치는 슬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대는 일가 형제의 의리가 있는데 그 슬픔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세마의 남은 자식들은 있는 지, 나이는 장성했는지 모르겠으니 알려주기 바랍니다. 뒷일을 처리하고 유문을 수습하는 것은 책임이 그대에게 있으니 신경을 써주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그 가운데 당본(唐本) 도서(道書) 4권은 세마(洗馬) 생존 시에 보내 드렸는데 이 책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물어볼 데가 없으니, 바라건대 그대가 그 집에 물어보고 찾아서 돌려주면 어떻겠습니까? 길이 몹시 멀어서 적당한 인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 정자(林正字)가 가니 만약 그 편에 돌려보내준다면 사라질[1071] 염려가 없겠으니 유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가을 과거(科擧) 때문에 반드시 한양에 가게 되어 만날 수 없을 것 같으니 더욱 그립고 서글픕니다. 【약천이 남포선생의 종제(從弟) 해영(海英)에게 주는 편지】

동춘(同春)[1072] 송준길(宋浚吉)이 이조 판서를 할 때 상(上)이 전교하기를 "이번 발인(發靷) 때 외지에 있는 전직 조관(朝官)으로 학업과 학행이 있는 사람 중에 와서 모인 자들을 일일이 서계(書啓)하라." 하였다. 이에 참판 이일상(李一相)·참의 조복양(趙復陽)과 함께 아뢰기를 "전(前) 교리(校理) 이수인(李壽仁)은 시종지신(侍從之臣)으로서 명리(名利)를 탐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 뜻을 지켜 세상의 칭송을 받으며, 사업(司業) 윤선거(尹宣擧)·사업(司業) 윤원거(尹元擧)는 모두 실직(實職)이 있으므로 비록 원단자(元

1071) 사라질 : 원문의 '침부(沉浮)'로 서찰이 중간에 유실되는 것을 가리킨다. 진(晉)나라 은선(殷羨)이 예장군(豫章郡)의 태수(太守)로 있다가 임기를 마치고 떠날 즈음에 사람들이 100여 통의 서찰을 주면서 전달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은선이 석두성(石頭城)에 이르러서는 서찰을 모조리 물속에 던져 버리고 "가라앉을 놈은 가라앉고 떠오를 놈은 떠오르겠지. 이 은홍교가 우체부 노릇을 할 수는 없으니. [沈者自沈, 浮者自浮. 殷洪喬不能作致書郵.]"라고 말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 任誕》

1072) 동춘(同春) :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호이다.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명보(明甫),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1659년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單子)의 전직 관함(官銜)의 수에는 나오지는 않으나 일찍이 탑전에서 자세히 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전(前) 좌랑 신석번(申碩蕃)·전(前) 좌랑 최휘지(崔徽之)는 일찍이 선왕조 때 직출육품(直出六品)[1073]하였고 전(前) 자의(諮議) 이상(李翔)·전(前) 자의(諮議) 송기후(宋基厚)는 일찍이 이미 강직(講職)에 제수된 적이 있으며, 전(前) 세마(洗馬) 김만영(金萬榮)은 일찍이 자의(諮議)에 의망(擬望)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석번(申碩蕃)·이상(李翔)이 더욱 두드러진 자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초계(抄啓)한 사람들은 다음 차례가 비록 비어있지 않았더라도 모두 직사를 부여하라." 하였다. 이날 신석번은 주부(主簿)에 제수되고, 최휘지는 별제(別提)에 제수되고, 이상은 사직(司直)에 임명되고, 송기후는 사정(司正)에 임명되고, 김만영은 사용(司勇)에 임명되었다. 【기해조보(己亥朝報)】

약천(藥泉)이 일찍이 조정에 선생을 천거하여 아뢰기를 "남쪽 지방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감히 쳐다볼 수 없다." 하였다. 【어사 때의 포계(褒啓)】

민노봉(閔老峯)이 본도의 어사로서 찾아와 하룻밤을 묵으면서 대화를 나누고는 크게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영숙(英叔)은 지금 세상의 군자이다." 하였다. 【문인 홍최일(洪最一) 기록】

김남포(金南圃)의 문장과 효행은 호남 제현들이 거의 미치지 못할 것이다. 【상국(相國) 김덕원(金德遠)이 선생의 종질(從侄) 이상(履相)에게 보낸 편지】

해옹(海翁) 참의(參議) 윤선도(尹善道)가 만년에 나 경주(羅慶州)의 수운정(峀雲亭)[1074]에서 선생을 만났는데 단아한 풍의(風儀)와 고명한 재식(才識)을 한 번 보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호남이 이제부터 다시 적막하지는 않겠다." 하였다. 【외손 나경성(羅景聖) 기록】

1073) 직출육품(直出六品) : 바로 육품직(六品職)에 제수하는 것을 말한다.

1074) 나 경주(羅慶州)의 수운정(峀雲亭) : 경주 부윤(慶州府尹)을 지낸 나위소(羅緯素)가 기거한 수운정(峀雲亭)을 말한다. 《남포집(南圃集)》 권5 〈제수운정(題峀雲亭)〉 참조.

제문 [문봉의]
祭文 文鳳儀

정신이 순수하고	神精粹然
타고난 자질 아름다워	天質之美
남쪽 땅에서 특출하고	挺特南表
도의를 창명했도다	倡明道義
멀리 사승도 없었으나	邈無師承
묵묵히 깨닫고 은연중 계합하며	默悟暗契
이치를 봄이 분명하여	見理分明
마음으로 알고 정신으로 이해했네	心融神會
위로는 수사[1075]로 올라가고	上溯洙泗
아래로는 관민[1076]을 이어서	俯承關閩
격물치지하고 거경하며	格致居敬
성정[1077]을 근본으로 삼았네	誠正爲本
함양을 날로 새롭게 하고	涵養日新
실천을 더욱 두텁게 하며	踐履益篤
편달하여 이치를 가까이하고[1078]	鞭辟近理

1075) 수사(洙泗) : 공자의 유학을 가리킨다. 중국 산동성(山東省) 곡부(曲阜)를 지나는 두 개의 강물 이름으로, 공자가 이 지역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공자나 유가(儒家)를 뜻한다.

1076) 관민(關閩) : 송(宋)나라 때 성리학을 가리킨다. 관중(關中)과 민중(閩中)으로, 관중은 장안(長安) 일대로 장재(張載)가 살았고, 민중은 복건성으로 주희(朱熹)가 살았다.

1077) 격물치지하고 거경하며 성정 : 《대학장구》의 팔조목(八條目)에 속하는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을 가리킨다. 곧,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거경(居敬)은 경을 실천한다는 뜻으로 주자학의 학문 수양 방법의 하나이다.

1078) 편달하여……가까이하고 : 원문의 '편벽(鞭辟)'은 탐구가 투철하여 정미한 경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형용하는 말이다. 송나라 명도(明道) 정호(程顥)가 "학문은 다만 채찍질하여 내면에 가까이 하고 자기 몸에 붙기를 요할 뿐이다.[學只要鞭辟近裏, 著己而已.]"라고 하였는데, '편벽(鞭辟)'에 대해 주자(朱子)는 "이것은 낙양 지방의 방언으로, 어떤 곳에서는 '편약(鞭約)'이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채찍질하여 안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다.[此是洛中語, 一處說作鞭約, 大抵是要鞭督向裏去.]" 하였다. 《心經附註 卷2 禮樂不可斯須去身章》

이미 발한 뒤에는 성찰하였네[1079]	已發省察
선조를 받들 땐 효도를 생각하고	奉先思孝
사람을 대할 땐 온화하게 하며	接人以和
시의를 따라 중도에 처하였고	隨時處中
사물을 보고는 조화를 살폈네	觀物察化
《주역》의 이치를 탐구했으니	探賾易理
선천과 후천[1080]이요	先天後天
예의 절문을 강구했으니	講究節文
삼백과 삼천[1081]이었네	三百三千
숙연히 정좌하고	肅然靜坐
좌우에 도서를 두고	左書右圖
내면의 미덕이 날로 드러나니	內美日著
풍문이 임금에게 알려졌네[1082]	風聽九皐
융숭한 성은으로 옥처럼 다듬어[1083]	恩隆玉汝
일명[1084]에 처음 임명되었으나	一命初除

1079) 이미……성찰하였네 : 행동을 절도에 맞게 했다는 것이다. ‘이발(已發)’은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정이 발한 것을 가리킨다. 성리학에서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未發]의 정(靜)할 때에는 존양의 공부를, 이미 일어나서[已發] 동(動)할 때에는 성찰(省察)의 공부를 강조한다.

1080) 선천과 후천 : 주역에 대해 깊이 탐구했다는 것이다. 북송(北宋)의 소옹(邵雍)이 진단(陳摶)의 학문을 터득하여 《주역》을 설명하면서 복희(伏羲)의 역(易)을 선천(先天), 문왕(文王)의 역을 후천(後天)이라 하였다.

1081) 예의……삼천 : 예(禮)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했다는 것이다. 《예기(禮記)》 〈예기(禮器)〉에 “경례가 삼백 가지이고 곡례가 삼천 가지인데, 그 이치는 한 가지이다.[經禮三百, 曲禮三千, 其致一也]” 하였다.

1082) 임금에게 알려졌네 : 원문의 ‘구고(九皐)’는 본래는 수택(水澤)의 깊은 곳을 이른다. 《시경》 〈소아(小雅) 학명(鶴鳴)〉의 “학이 구고에서 울면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린다.[鶴鳴于九皐, 聲聞于天.]”라는 구절을 원용한 것으로, 군자의 명성이 절로 드러나 임금에게 알려짐을 비유한 것이다.

1083) 옥처럼 다듬어 : 원문의 ‘옥여(玉汝)’로, 《시경》 〈민로(民勞)〉에 “왕이 너를 옥으로 만들고자 하므로, 이 때문에 크게 간하노라.[王欲玉汝 是用大諫]”고 하였고,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 “빈천과 근심 걱정은 너를 옥처럼 다듬어 완성시켜 주려는 것이다.[貧賤憂戚, 庸玉汝於成.]” 하였다.

1084) 일명(一命) : 조선 시대 관직의 첫 등급인 9품직을 말한다. 주대(周代)의 관계(官階)가 일명(一命)에서 구명(九命)까지 이른데서 유래하였다. 김만영이 세마(洗馬)에 제수된 것을 말한다.

임금에게 사은숙배에 하고는	肅謝天廷
옛집으로 수레를 재촉했네	促駕舊居
부귀는 원하지 않아서	富貴非願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簞瓢可樂
여유롭게 학문에 푹 잠겨	優遊厭飫
날로 깊은 경지에 나아갔네	日造閫域
뭇 입이 떠들어댄들	衆口雖呶
어찌 덕을 해치리오	何害乎德
두 번 국상을 만나서는	兩遭國恤
연이어 분곡[1085] 하였네	連仍奔哭
강습 연마에 부지런하여	講劘孜孜
교학에도 게으르지 않고	教學不倦
차근차근 잘 이끌면서	循循善誘
정성스레 문답을 했네	懇懇答問
체질 따라 이롭게 해주니	因體而利
단비와도 같아서	有如時雨
많고 많은 생도들이	濟濟生徒
혹 법도를 실천했네	或蹈規矩
행동과 언어도	擧止言談
따를 바를 생각하고	可想所從
후학을 계도해 옛 성현 이으니	開來繼往
큰 공이 있었네	大有功焉
돌아보니 어리석은 내가	顧余顓蒙
일찍부터 강학의 말석에 끼었으나	夙廁講末
비루하게 여기지 않고	不以卑鄙
정성껏 가르쳐서 계발해주었네	懇誨啓發
정은 간절하여 형과 아우였고	情切弟兄

1085) 두……분곡(奔哭) : 1649년 인조, 1659년 효종이 승하하자 분곡한 것을 말한다.

의리는 두터워 스승과 제자였네　義毒師生
의문이 있으면 꼭 풀어서　有疑必達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毫分縷析
주고받은 편지에서는　往來尺牘
부지런히 배우도록 경계했네　戒以勤學
재질이 노둔하고 열등하여　質魯才劣
전현의 뜻을 잇지 못할까 두려워　恐不承前
산처럼 앙모하고　景仰如山
하늘처럼 받드니　戴冐如天
다행히도 간혹　庶幾或者
감독하고 다듬는 은혜가 미쳤네　董甄惠延
처음을 회복하고 선을 밝혀서[1086)]　復初明善
기질을 변화시켰는데　變化氣質
어찌 생각했으랴 오늘　豈料今日
상장 짚고 슬픈 노래 부를 줄을　扶杖歌發
옛일을 추억하며　追思疇昔
눈물을 줄줄 흘리노라　有涕沱若
도는 장차 땅에 떨어지고　道將墜地
학문은 그 정도를 잃겠구나　學失其正
대들보가 부러졌으니　樑木其摧
우리는 장차 누구를 의지할까[1087)]　吾將安倣
고단한 신세로　孑孑身世
쓸쓸히 어디로 갈까　踽踽何往

1086) 처음을……밝혀서 : ‘복초(復初)’는 본연의 성(性)의 선함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 본연을 회복하는 것이고, ‘명선(明善)’은 이치를 궁구하여 선이 있는 곳을 참으로 아는 것이다.

1087) 대들보가……의지할까 : 대들보가 부러진다는 것은 스승이나 훌륭한 사람의 죽음을 비유한다. 공자(孔子)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태산이 무너지려 하는구나. 들보가 쓰러지려 하는구나. 철인이 시들려 하는구나.”라고 읊조렸는데, 자공(子貢)이 이 소식을 듣고는 “태산이 무너지면 우리는 장차 누구를 우러르며, 들보가 쓰러지고 철인이 시들면 우리는 장차 누구를 의지하겠는가?[泰山其頹, 則吾將安仰, 梁木其壞, 哲人其萎, 則吾將安放?]” 하였다.《禮記 檀弓上》

내가 운명이 좋지 못하여	余命不淑
중도에 밝음을 잃었으니[1088]	中遭喪明
홀로 서서 아득하여	獨立蒼茫
세상에 무슨 정이 있으랴	在世何情
조촐한[1089] 조문도	漬綿之吊
오히려 남보다 늦었는데	尙後於人
이승과 저승을 돌아보니	俯仰幽明
저절로 마음이 상하네	自然傷神
시내와 산은 의구한데	溪山依舊
인간사는 옛날이 아니네	人事非昔
한 잔술 올려 곡을 하고	一盃來哭
영원히 이별을 하나니	終天永訣
오호 영령이시여	嗚呼英靈
부디 강림하여 흠향하소서	庶其歆格

1088) 밝음을 잃었으니 : 원문의 '상명(喪明)'으로,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자하가 아들을 잃고 실명을 했다.[子夏喪其子而喪其明.]"고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아들을 잃은 것을 말한다.

1089) 조촐한 : 원문의 '지면(漬綿)'으로, 술에 적신 솜인데 제물(祭物)을 뜻하는 겸사이다. 멀리 있는 친지(親知)의 무덤을 찾아가 조문(弔問)하려면 술을 가지고 갈 수 없으므로 솜을 술에 담갔다가 말려 가지고 가서 다시 물에 담가서 술기운이 우러나게 하여 잔을 올리는 것이다.《後漢書 권53 徐穉列傳》

또 [나위]

又 羅褘

유세차 신해년(1671, 현종12) 10월 기묘삭 16일 갑오에 금성(錦城)의 친척 나위(羅褘)는 맑은 술과 여러 제물로 공경히 남포(南圃) 선생의 영전에 제사하나이다.

아! 제가 선생의 문하에 오른 지 무릇 몇 년입니까? 홀연히 상봉했을 때 난초의 방에 들어간 것 같았고,[1090] 며칠을 서로 대하고는 바로 아교와 칠[1091] 같은 의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1년 2년 집안의 우호도 더욱 돈독해지고 친애의 정과 깊은 교분은 이미 남의 지목을 받은 것도 오래되었지요. 그런데 어찌 알았겠습니까, 오늘 선생이 갑자기 떠나시어 저에게 끝없는 슬픔을 안겨줄 지를?

선생의 선부군(先府君) 어르신은 바로 저의 고조부 직계 후손의 사위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어진 소문이 났고 집안은 깊은 덕을 쌓았습니다. 선비(先妣)는 나씨(羅氏)로 시집을 와서 예를 받드는데 곤도(坤道)[1092]가 곧고 조용하여서 인척(姻戚)들은 빛이 나고 거동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복(福)을 끝없이 행하니 남은 경사[1093]로 보답이 있었습니다. 갑자년(甲子年, 1624)[1094]에 선생이 탄생하니 영준한 자질이 특출하였고 강하(江河)와 같은 큰 국량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화순 단정하였고 안팎으로 법도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성취가

1090) 난초의……같았고 : 훌륭한 인품에 감화되었다는 말이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지초와 난초의 방에 들어간 것 같아서 오래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하니 곧 그에게 동화된 것이다.[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久而不聞其香, 卽與之化矣.]" 하였다.

1091) 아교와 칠 : '교칠(膠漆)'은 아교나 옻으로 칠을 하면 떨어지지 않으므로 깊은 우정을 비유한다.

1092) 곤도(坤道) : 부녀자의 순종하는 덕을 말한다. 《주역(周易)》 〈곤괘(坤卦) 문언(文言)〉에 "땅의 도는 그 순하도다. 하늘을 받들어 때로 행한다.[坤道其順乎, 承天而時行.]" 하였다.

1093) 남은 경사[餘慶] : 조상의 음덕으로 후손이 번창함을 뜻한다. 《주역》 〈곤괘(坤卦) 문언(文言)〉에 "적선한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積善之家, 必有餘慶.]" 하였다.

1094) 갑자년(甲子年, 1624) : 원문의 '창서(蒼鼠)'로, 푸른 쥐의 해이다. 푸른 색은 천간(天干)의 '갑(甲)'에 해당하고, 쥐는 지지(地支)의 '자(子)'에 해당한다.

있었습니다. 주공(周公)과 문왕(文王)의 효상(爻象)[1095]도 이해하고 스스로 해석하였습니다. 공자(孔子) 성인의 과목을 두루 갖춰 터득하여 돈민(敦敏)의 후예로서 마침내 대유(大儒)가 되었고 사림의 종장이 되니 당시에 "호남부자(湖南夫子)"라고 일컬은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겨우 관례(冠禮)를 한 뒤에 명성이 조정에 널리 퍼지고 천거하는 계문(啓聞)이 멀리 임금에게 들어가니 세자의 보필로 발탁되어 이름이 관원들 사이에서 빛났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귀하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뜻이 한가히 사는 데 있었기에, 사은숙배를 하고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산림을 굳게 지켰습니다. 부귀를 뜬구름처럼 본 것이 어찌 우연이었겠습니까. 이 이후로 광채를 품어 감추고, 남을 가르치는 데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을[1096] 사모하여 영평(永平)의 남쪽에 서재를 짓고 뜻있는 선비들과 날마다 성현의 경전을 강구(講究)한 것이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 후 영평(永平)의 선비들이 모두 학문과 실천에 독실하였으므로 다른 고을에도 파급되어 경앙(景仰)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훈도와 인재 육성[1097]에서 거의 추로(鄒魯)[1098]의 유풍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세가 되니 야박함이 많아져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꺼리며,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함이 예나 지금이나 물결에 휩쓸려가듯 똑 같으니, 숙손(叔孫)이 중니(仲尼)를 비난하는[1099]것과

1095) 주공(周公)과 문왕(文王)의 효상(爻象) : 《주역》을 말한다. 주 문왕(周文王)이 괘사(卦辭)를 짓고 주공(周公)이 효사(爻辭)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1096) 남을……것을: 《논어》 〈술이(述而)〉에 공자가 "성과 인으로 말하면 내 어찌 감히 자처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인성(仁聖)의 도를 행하기를 싫어하지 않으며, 남을 가르치는 데 게을리 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若聖與仁則吾豈敢, 抑爲之不厭, 誨人不倦, 則可謂云爾已矣.]" 하였다.

1097) 인재 육성 : 원문의 '낙육(樂育)'으로, 본래 영재(英才)를 육성하는 즐거움을 말한다. 맹자(孟子)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시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得天下英才而敎育之, 三樂也.]"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孟子 盡心上》

1098) 추로(鄒魯) : '추로(鄒魯)'는 공자가 춘추 시대 노(魯)나라 사람이었고, 맹자가 전국 시대 추(鄒)땅 사람이었던 데에서 온 말이고, 여기서는 유학을 가리킨다.

1099) 숙손(叔孫)이 중니(仲尼)를 비난하는 : 숙손은 노(魯)나라 대부 숙손 무숙(叔孫武叔)이다. 《논어》 〈자장(子張)〉에 "숙손무숙이 중니를 헐뜯으니, 자공이 말하였다. '그러지 말라, 중니는 헐뜯을 수 없는 분이다.' 하였다.[叔孫武叔毁仲尼, 子貢曰, 無以爲也, 仲尼不可毁也.]" 하였다. 《論語 子張》

불행히도 가까웠습니다. 아 아! 심합니다. 성대한 명성 아래에 훼예(毁譽)가 많았으니 형세가 본디 그러한 것일까요?

을사년(1665, 현종5)[1100] 초봄에 금성(錦城) 서호(西湖) 가의 집으로 옮기고 좌우에는 거문고와 책을 두고 꽃과 대나무로 스스로 즐겼습니다. 친척들과의 정담을 즐거워하고 난정(蘭亭)에서 계사(禊事)를 행하여[1101] 돈독하고 화목한 의리를 친소간에 밝게 드러내니, 세속이 숭상하는 아름다움이 원근에 미쳐서 향린(鄕隣)의 행운이 매우 많았습니다.

내가 정미년(1667, 현종8)에 반남(潘南)에서 호수로 선생을 찾은 것은 바로 가을 7월 상순이었습니다. 곤궁한 처지라서 피우(避寓)를 해야 하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선생이 이때 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영중(英仲)의 서실이 좁고 누추하지만 외딴 곳이라 사람도 적으니 피해 있을 만하고 독서할 만하며, 또 세상 근심을 달랠 수 있다." 하기에 즉시 영중과 함께 가서 보고는 몇 달을 머물렀습니다. 선생의 거처와 거리가 만 2리쯤도 안되니 도보로 왕래하면서 서로 찾은 것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시편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아양곡(峨洋曲)〉에 부치니[1102] 친밀한 교분과 신뢰하는 정의(情義)는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해졌습니다.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목이 타고 굶주린 것 같았습니다. 만날 때마나 기뻐하여 마치 폐간(肺肝)을 서로 비춰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소라도 마음에 품은 것은 반드시 말하여 숨김이 없었습니다. 친족의 의리에 분수가 있다는 것도 도리어 잊고 문득 사제(師弟)[1103]간이

1100) 을사년(1665, 현종5) : 원문의 '청사(靑蛇)'로, 청색은 천간(天干)의 '을(乙)' 해당하고, 뱀은 지지(地支)의 '사(巳)'에 해당한다.

1101) 친척들과의……행하여 : 도잠(陶潛)처럼 전원의 흥취를 즐기고 왕희지(王羲之)처럼 명사들과 어울리며 살았다는 말이다. 도잠(陶潛)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친척들과의 정담을 즐거워하고, 거문고와 서책을 즐기면서 시름을 푼다.[悅親戚之情話, 樂琴書以消憂.]"라고 하였다. 왕희지(王羲之)의 〈난정기(蘭亭記)〉에 "영화 9년 계축년 3월 초에 회계 산음의 난정에 모였으니, 계사를 행하기 위해서이다.[永和九年, 歲在癸丑, 暮春之初, 會于會稽山陰之蘭亭, 修禊事也.]"라고 하였다.

1102) 마음을 아양곡(峨洋曲)에 부치니 :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사이가 된 것을 말한다. 원문의 '아양(峨洋)'으로, 거문고 곡 이름이다. 춘추 시대(春秋時代) 백아(伯牙)가 거문고를 타면서 고산(高山)에 뜻을 두자 종자기(鍾子期)가 "높고 높기가 마치 태산과 같도다![峨峨兮若泰山]"라고 하였고, 또 유수(流水)에 뜻을 두자 "넓고 넓기가 마치 강하와 같도다![洋洋兮若江河]"라고 하였다.《列子 湯問》

1103) 사제(師弟) : 원문의 '함장(函丈)'인데, 본디 옛날에 스승의 자리와 제자의 자리에 일장(一丈)의

되어 노닐었습니다.

내가 이때 얻은 것은 전일과는 크게 달랐으니 요컨대 가슴속으로부터 환히 밝아져서 마음이 난초의 방에 이끌려 마치 꽃향기에 적신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이별하여 별처럼 서로 흩어졌는데 번잡한 세상일까지 또 따라서 침범하니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이 벌써 여러 해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잠깐 머리를 돌리는 사이에 조물주가 많이 시기하여 백우(伯牛)처럼 병들고 안자(顏子)처럼 불행할[1104] 줄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지위는 그 덕에 차지 못하였고 나이는 50을 넘지 못하였으니 하늘이 빼앗아 감이 이렇게 빠른 것입니까? 아! 슬픕니다. 아! 애통합니다.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신선의 풍골이라고 하여 하늘이 풍진 세상에 오랫동안 놓아두지 않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운이 쇠하려고 하니 호걸 재사로 하여금 쓰러지려는 국가를 부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도(道)가 심히 곤궁해지니 군자로 하여금 시들어가는 사문(斯文)을 진작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닿는 영기(英氣)와 고금을 꿰는 식견을 이내 생애 천지에서 다시 어찌 대할까요? 아! 슬픕니다. 아! 애통합니다.

봄여름 사이 역병이 전화(戰禍)와 같아서 제가 임시 거소에 몸을 기탁한 지 7일 째에 선생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또 며칠 만에 흉음(凶音)이 갑자기 전해지니 꿈입니까, 참입니까? 막 밥을 먹으려다 수저와 젓가락을 던지며 슬피 부르짖고 길이 통곡하면서 한참을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옆 사람들도 참담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데 마치 친척의 상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원근에서 선생의 부음을 듣고 와서 저를 위로한 사람 또한 많았으니 평일에 저와 선생의 정의(情義)가 골육(骨肉)과 같아서였겠지요.

사이를 둔 데서 나온 말이다.《禮記 曲禮上》

1104) 백우(伯牛)처럼……불행할 : 운명으로 단명하였다는 말이다. ‘백우(伯牛)’는 공자의 제자 염백우(冉伯牛)이다.《논어》〈옹야(雍也)〉에 “염백우(冉伯牛)가 병을 앓자 공자가 문병할 때 남쪽 창문으로 그의 손을 잡고 ‘이런 병에 걸릴 리가 없는데, 운명인가보다.’ 하였다.[伯牛有疾, 子問之, 自牖執其手曰, 亡之, 命矣夫.]” 하였다. ‘안자(顏子)’는 공자의 제자 안회(顏回)이다.《논어》〈옹야(雍也)〉에 “안회라는 자가 배움을 좋아하여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으며 같은 잘못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수명이 짧아 죽었습니다.[有顏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 不幸短命死矣.]” 하였다.

제가 듣건대 대덕(大德)은 반드시 장수한다던데,1105) 우리 선생의 순명성덕(純明盛德)으로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제가 또 듣건대 선인에게 복을 주고 악인에게 화를 내리는 이치가 있다던데,1106) 말세의 풍속을 돌아보면 흉한 자와 간사한 자가 늙도록 죽지 않은 자가 많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선생처럼 순명성덕한 사람을 빼앗아 가며 화를 참혹하게 내립니까? 이른 바 하늘이라는 것도 불인(不仁)하고 이치라는 것도 믿기 어렵습니다. 아! 슬픕니다. 아! 애통합니다.

후손이 고아하고 수려한 데서 천륜(天倫)을 볼 수 있습니다. 임종할 때 한 마디 말도 끝내는 백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영중(英仲)과 사형(士亨) 또한 호우(湖右)의 명사로 칭송을 받고 있으니 훗날 집안의 명성이 더욱 커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의탁했던 옛정이 변치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구구한 저의 바람이니 이를 믿을 따름입니다. 더구나 제 선조(先祖)의 유장(遺狀)을 선생이 기초하다가 완성하지 못했으니 천추에 이 한을 이승과 저승사이에 영원히 맺게 되었습니다. 포복하여 오늘 와서 상여 줄을 잡고 크게 통곡하며 변변찮은 술과 짧은 제문으로 정을 다할 수 없음을 선생께서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 슬픕니다. 아! 애통합니다.

1105) 대덕(大德)은 반드시 장수한다던데 : 《중용장구》 제17장에 “큰 덕을 소유한 사람은……반드시 합당한 수명을 누린다.[大德,……必得其壽.]” 하였다.

1106) 선인에게……있다던데 : 《서경》 〈탕고(湯誥)〉에 “하늘의 도는 선인에게 복을 내리고 악인에게 화를 내린다.[天道, 福善禍淫.]” 하였다.

풍산사우 춘추 향축문 [유명현]
楓山祠宇春秋享祝文 柳命賢

끊긴 전통을 끌어내어 풀고	紬繹絶緖
그 연원에 잠겨 노닐면서	涵泳淵源
전해지지 않은 것을 얻었으니	得其不傳
백대토록 존숭을 받으시리라	百世式尊
이제 춘정[1107]을 맞아서	玆値春丁
정성스런 제사가 마땅하니	精禋是宜
삼가 희생과 폐백으로	謹以牲幣
진설하여 정결히 올립니다	式陳明薦

1107) 춘정(春丁) : 해마다 중춘(仲春)의 달 처음 돌아오는 정일(丁日)을 말한다.

《남포선생유집》 후서
《南圃先生遺集》後敍

그 글을 읽으면 마땅히 그 사람을 보아야 하고 그 사람을 보면 마땅히 그 시대를 논해야 한다. 이제 남포(南圃) 김 선생(金先生)의 유집(遺集)을 보건대, 그 시문이 모두 온후평담(溫厚平淡)하고 질직간요(質直簡要)하여 꾸미거나 답습하는 고루함이 없었다. 의리 가운데서 화락하였고 법도 안에서 거동하였으니 진실로 도가 있는 선비였다.

인효(仁孝)의 성대한 세상을 당해서는 유술(儒術)을 흠모하고 훌륭한 선비를 초치하며 이를 숭상하고 양성하는 교화가 한 세상을 감동시키니, 산림과 암혈 사이에서 글을 읽고 행실을 닦는 선비들이 조정에서 드러나지 않음이 없었다. 크게는 공경(公卿)과 사부(師傅)가 되었고 작게는 추천[1108]하는 사례에라도 들어있었던 것이다. 선생 또한 남녘에서 몸을 일으켜 문을 닫고 강습하였는데도 재상(宰相)들이 입을 모아 말하니, 명성이 위로 알려져서 예를 갖춰 부르는 명이 누차 적막한 물가에까지 이르렀다. 아! 성대하다. 진실로 도가 있는 세상이었도다.

도가 있는 선비로서 도가 있는 세상을 만나서, 마땅히 출사해 쓰이고 조정의 정사를 보필해야 할 것 같은데 숲 아래 소요하며 농사를 짓다 몸을 마치는 것은, 아마도 그 사이에 때를 만나고 못 만난 차이가 있어서 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반드시 자신을 헤아린 것이 분명했거나 스스로 지조를 지킨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근세 학자들이 은거하며 뜻을 추구하지만 세상일은 겪은 적이 없으니, 사람들은 혹 알맹이 없는 빈 말일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러나 이제 유집 가운데 《경세통전(經世通典)》 한 권을 고찰해보니 안으로 관(官)의 제도와 과거 선발, 밖으로 부세(賦稅)와 역역(力役)에 이르기까지 무릇 국가를 다스리는 도구들에 대해 대강을 들고 분류를 나눠 매우 자세하고 빠뜨린

1108) 추천 : 원문의 '섬천(剡薦)'으로, 중국 섬계(剡溪) 지방에서 생산된 종이에 추천을 쓴 데에서 유래된 말이다.

것이 없었다. 여기에서 깊이 마음을 썼고 충분히 헤아려 다듬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를 경영하는 군자가 채택하여 쓴다면 장차 《반계수록(磻溪隨錄)》[1109]과 더불어 나란히 반드시 전해질 불후의 글이 될 것이니, 조각난 문서와 찢어진 책 편으로 상자 속에 묻혀있겠는가? 원컨대 공의 후손들은 이를 보배처럼 중히 여기고 공경히 간직하여 뒷날을 기다릴지어다.

경인년(1830, 순조30) 동짓달 하순에 면주(綿州) 외사 지제교(外史知製敎) 청성(靑城) 심계석(沈啓錫)이 삼가 쓰다.

1109) 반계수록(磻溪隨錄) : 유형원(柳馨遠)의 저술로 전제(田制), 교선(敎選), 임관(任官), 직관(職官), 녹제(祿制) 등 다섯 분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南圃集

남포집

원문

南圃集

卷之十

序

金氏族譜序

金氏望族, 係出棠岳. 王麗以前, 譜逸不述. 聖鮮受命, 聿啓東華, 于時我祖, 佐幕南兵, 錦水西滸, 白鳳山陰, 相土刊木, 爰占宗基, 三百年于今而世傳龜業矣. 萬曆丁酉, 一家專沒於兵燹, 惟我皇考暨宗伯父諱 浚, 僅以身免, 門譜失守於此日. 皇考手記我朝以後南徙以下, 諱字世系, 書之小簡以傳焉. 萬英少失先人, 無所考徵, 適得是簡于舊秩中. 手澤尙新, 掩泣奉覽之餘, 仍錄皇考以後宗派所分及外孫傍支, 耳目所覩記, 幷成一冊, 以貽後昆焉. 嗚乎! 人有此生, 孰無父母, 自父母上至于親盡, 禮雖有限, 情則父母. 數代之後, 不知吾祖是爲何人, 則於飛走而蠢蠢者, 相距幾何, 而孝敬之心, 何由而起哉? 此門譜之所以作也. 是知家之有譜, 猶國之有史, 此而不明則宗法不立, 五服無親, 追遠報本之誠, 孝友敦睦之義, 無由而立矣. 惟吾子孫兄弟暨後人, 敬守先訓, 追思三百年相承士夫之風, 永傳萬世而勿墜. 匪我私言, 惟祖先在天之望云. 皇明南渡後十三年丁酉春正月甲子, 勵節校尉行世子翊衛司洗馬支孫萬英再拜謹書.

金氏族禊序

族禊何爲而作也, 禊之爲言契也. 束一家之心, 合而爲一, 如持左契合右符也. 粵我先祖副摠公見任南營, 一子留于錦, 實爲吾族氏居南之鼻祖. 再傳而至正言公, 又一傳至太學館上舍公, 迺育我高王父三昆季. 自先祖至于今凡九世, 而同我高王父而爲兄弟者, 並子侄禮醮者十一人. 上係上舍而分派者及同宗而傍孼者, 合若干人. 相與爲謀曰: "達人洞觀, 心無內外, 四海兄弟, 萬民同胞, 况我共祖同宗, 分形於一人之身, 受氣於兄弟之間, 一毫一髮, 無非一體, 呼吸屈伸, 氣實相通, 則其親愛忠厚之義, 豈無相講之道耶? 矧吾族氏散居異鄕, 同井無幾, 講信修睦之道, 今不相篤, 則服免而至於情盡者, 安保其不爲塗人耶? 莫若書名一幅, 列爲禊目, 春秋而燕毛, 吉凶而相

扶, 百代之踈情合一心者, 其不在斯耶?” 咸曰: “諾.” 有詰于列者曰: “人情不常, 事鮮有終, 凡我兄弟若子侄或後昆, 如有兩面二舌, 口是腹非, 不守此束, 以墜先訓者, 何以處之?” 咸曰: “祖先精爽, 昭布森列, 臨之在上, 質之在傍, 凡吾此擧, 必亦欣感于陰騭瞑瞑之中, 其或反此, 是無父無兄之人, 吾族人豈有是歟, 吾知免夫.” 詰者曰: “唯.” 於是遂成其約, 咸屬余記其說以弁劵首. 余有所摧感於此事者, 昔在髫齔, 伏覩先君子與一家鴈行諸公, 首發此約, 事未及就, 荊棣俱零, 而不肖孤今與諸賢兄弟, 繼先父兄未遂之志于二紀之後, 可謂幸矣, 亦豈無蓼蕭悲哀之痛歟? 况後吾兄弟而爲子弟者, 其不惕然感動而敬守之耶? 仍幷及此, 勖旃後人云. 皇明紀元龍集丁酉長至日, 勵節校尉, 前行世子翊衛司洗馬支宗萬英謹書.

梅栢軒遺稿序【名喜馹號梅栢軒, 翰林吳公賓之曾孫也,】

梅栢吳公, 環室植梅栢, 扁其軒曰‘梅栢’. 夫天下之名樹奇卉, 可爲庭實者何限, 而必以斯二者爲扁擧, 此可以知公之志矣非耶? 公洛川人, 其五世諱陟之以布衣見知于我成廟, 成廟以故人稱之. 曾祖諱賓以抄年擢科, 拜玉堂學士. 其家風世德, 自有所傳, 而公性質方直幹固, 耿介不羣, 而早登靜軒高公之門, 得聞霽峯先生之風, 故志尙雅古. 律己儉約, 早治擧子業, 屢魁鄕擧而竟屈禮部. 晩好詩酒, 遺棄世意欣然也. 居家朴素, 不事藻華, 祭先極其敬, 常作奉先規儀, 以戒子弟. 四時之祀, 忌節之祭, 一遵家禮, 盡其孝思. 公之考妣, 以丁酉倭奴之變, 考逝於衂, 妣殉於節. 公常於考妣忌辰, 一月茹素, 涕泣如喪初. 常戒其子孫曰: “吾親喪不能斂以禮, 人子終身之痛如何哉? 吾死之後, 素巾素帶, 斂以素棺, 擔以竹車, 歸附先兆可也.” 子孫竟不能違遺教焉. 公好古文善屬詩, 有所述輒棄其稿, 故家無傳焉. 公沒之後十年, 公之適孫再發搜得公少時程式詩略干篇于亂稿中, 繕寫于冊, 來示不佞. 嗚乎! 不佞十七登公門, 三十含公喪, 其間一紀, 備知公之志行, 數篇科詩, 奚足以盡公之平生耶, 嗚乎, 世無記言君子, 使夫公之操履, 泯泯焉與草木同朽而無聞悲夫, 謹略書其梗槩于卷末云.

惺庵集序【名壽仁號惺庵, 青蓮後白之孫, 仁廟朝登第不仕, 沉潛易學而終.】

湖南實我朝士大夫之冀北也. 賢人君子之出, 前後相接不斬. 至以學者正傳稱之則先輩皆推奇存齋爲首. 存齋之學, 出於退陶, 退陶之傳, 本之朱子. 世之不知道而以口耳强記爲學者, 疵退陶則以依樣朱子爲病, 說存齋則以崇信退陶爲玷, 愚雖不敏, 竊嘗深病. 年前拜惺菴李文丈于安靜洞之靜隱堂, 論及此事, 公愀然曰: "居敬窮理, 有體有用之學, 大中至止, 不偏不倚者, 鄒魯之後, 朱夫子爲大成. 當時幷生于一世者, 聰明達識若陸子靜兄弟, 尙不能得中於交修並進之正, 不自知其偏入于一邊. 惟退陶生于惟退陶生于邦僻海之間, 遠先生數百年而得其宗于殘編陳之中. 遊退陶之門, 親承耳提面命者, 不一其人, 而存齋能得其大意於一面片辭之間, 往來尺牘之餘, 則道之傳授, 固不在於地之遠近見之踈數者如此. 不知之誚, 固不足言, 而後學之篤信不疑, 當益密矣. 嗚呼! 誰知斯言也而與之訣哉?" 盖嘗竊公之爲學, 感發於退存之間者多矣, 是以讀誦專主朱文, 而以退陶節要爲歸重, 默究周易而以朱子啓蒙爲要旨, 讀啓蒙則以退陶傳疑爲指南. 其論治道則以治心爲天下國家之本, 論治心則以居敬爲窮理之標準, 而其言略見於辭職封事矣. 雅好山水間幽貞而出於吟閑咏物之句者, 淸粹端潔, 亦可以知其心操之有法矣. 嗚呼! 潛光於潛光於山絶壑之中, 世無知者, 而其對衆人, 固無崖異之行邊幅之修, 與凡人言, 片語未嘗强及於學文, 是以知公者, 以恬退淸淨目之, 不知公者以汎然名士大夫論之, 世之知道者鮮矣, 安足怪哉? 所可惜者, 有志斯學, 方自篤信, 將大有爲之日, 而奄忽長逝. 傳家無托, 承學無傳, 平日著述, 渾沒於雜紙亂藁之中而散失之, 其疏章及詩律如干篇, 其隣里童子抄錄而藏之. 公之甥愼君聖弼求得之, 將欲倩工剞劂而傳之, 以不佞嘗預聞其論學之緖餘, 寄稿本以示之. 嗚乎! 有德者必有言, 言不必信其德. 公之平日若能博學而平日若能博學而其理, 居敬而存其心, 隱微幽獨之中, 人所不見之地, 仰不愧俯不怍, 則一二文字, 傳亦可矣, 不傳亦可矣. 人之知之, 固亦善矣, 不知之, 亦不足傷矣. 是以書其曩日得聞于公之餘論數言于玆以還之, 以白公心學所自之萬一云.

錦江重修禊序

錦江古有十一人禊, 盖修蘭亭舊事也, 以時世較之, 當我中仁明三聖代, 太平文明二百年餘, 南中形勝, 我州爲最. 時則我高王父伯仲氏暨林正字鵬, 羅主簿逸孫諸彦, 約爲祓禊之會. 鸞翔鳳翥則有朴銀臺筆, 竹淸松心則有羅諫院詩, 一代風韻, 于可想矣. 繼此之後, 烟波, 思庵二老先生耕釣之暇, 公退之隙, 相携父老, 克修前事, 久益敦厚, 不幸島夷之變六載兵燹, 盖自萬曆丁酉, 修睦之信廢而未講. 往在某年間, 我大父公慨然囑鄕黨老少, 略述古意, 繼修其事, 前修後昆雖未克盡會一席, 而和厚之風, 動曜州里. 崇禎末時事艱憂, 而先進父兄踵武而逝後, 無有繼而述之者有年矣. 皇明南渡後二十一年乙巳, 萬英自永平還鄕, 鄕黨諸老袖一冊子來叩, 余目之, 卽我季父公與鄭上庠國賢重修舊禊券也. 再拜敬閱, 愴然久之.且諗于諸公曰: “社禊之會, 盖祖于成周祓禊之禮, 洛邑流觴之儀, 魏晉之後, 會稽之勝, 雄鳴千古, 而夷考其實則淸談而已, 詩酒而已, 安足爲名教道哉? 惟我錦江之禊, 特以桃花爛春爲戒, 則當日諸君子敦本尙義, 講磨以仁之實可見矣. 是以從遊長老之間, 揖讓樽俎之列者, 出而爲聖代羽儀則有二養相國, 超而爲鳳翔千仞則有淸心高士. 其薰陶德性, 獎掖輔導於旅酬登降之際者, 爲如何哉? 今諸公刱百年之業, 遵前賢之事, 可謂美矣. 抑未知春秋令日, 把盃臨高, 漂蕩風流而已耶? 將揖遜進退, 冬禮夏詩, 克修古轍之能 一作務 爲耶? 冠昏喪祭, 慶吊之盡其情, 勸善補過, 出入而一乃心, 醸出吾鄕黨禮讓之風, 毋得罪於吾古先父兄諸君子之責, 其不在吾社中諸公耶? 抑有一說, 惟古禊一十一員之子孫, 居吾鄕者何限, 而何故忘祖先一心交契之如金蘭, 而相視之如秦越哉? 此尤吾禊中所相誡者也.” 僉曰: “敬服吾子規.” 仍錄其語, 弁諸卷首云.

九皐書齋諸生名籍錄序

丙申歲, 余始移占新棲于道民古縣九皐之中四泉之畔. 郊原雖朴, 谷勢盤旋, 眞農夫野翁爰得我直之地也. 顧邱山敻僻, 隣比闃絶, 荷鋤浚泉, 雖有畎畝之樂, 挾經討論, 恨乏磋磨之益. 在癸卯春, 鄕之章甫少年請構書室而往來者如干人, 余不敢孤其懇, 乃許之. 越明年甲辰舍成, 一在乾邱之陽而巽其

面, 命名養正, 一在坤邱之陰而艮其前, 扁之以悅樂, 盖四山低平, 延納羣秀, 湖中名勝若瑞石, 月出, 若錦城, 開天諸山數百峯巒, 羅列乎軒牖, 而所謂九臯四泉參錯其間, 此地勢之美也. 茅屋新成, 簾楹端直, 朴而不侈, 儉而不野. 紙窓明淨, 几案斯整, 時與諸生, 對坐從容, 詩書之淳正, 大易之潔淨, 鄒魯諸子, 同經異傳, 古今史氏, 載治籍亂, 具收幷擧, 擧集目前, 雖不敢深潛乎閫奧, 庶幾乎咀嚼其粗粕, 無味而有味, 欲罷而不能, 則此齋堂之穩也. 至於冠童異列, 衣帶有秩, 掖黃披麻, 曉暮相從, 愉愉切切, 相勵以義, 則此余雖無師表之範, 而諸生有菁莪之樂者也. 而或春秋景明, 風日最佳, 長者唱而少者和, 讀經之暇, 繼以哦詩, 哦詩之餘, 命以醺盃, 醺盃之極, 數聲鳴琴, 適性而止, 隨絲而樂, 則此吾與諸生相隨之意, 不在世俗之鄙陋而出於常情者也. 於是合二臯之齋而命之曰'九臯書齋'. 一日諸生疊成卷, 請書諸生姓名於冊. 余曰: "山野之人, 相隨於畎畝之間, 異他家塾鄕庠籍名之擧, 姑舍是如何?" 諸生曰: "朋友旣衆而規約不密, 則言行或失於乖誤, 實德有歸於蕩慢. 玆欲列書姓名於紙, 使見之者, 指點而目之曰: '某也勤於業, 某也慢於學, 某也悌而某也信.' 恐懼修省之心, 從玆而生. 書名不爲無助, 況乎堂室之間, 書籍之具? 凡百施爲禮節, 必有有司焉主之, 則付標眼目, 必資於名卷, 今欲略倣呂氏鄕約之籍, 錄善紀過之儀, 似不甚失何如?" 余曰: "諾." 仍書始末于其卷首云. 甲辰至月旣望, 南郊老圃識.

三學齋學生契券序

"若知夫人之所以爲人之道乎?" 曰: "仁與義而已." "仁義之理安在?" 曰: "具於心." "仁義之道安在?" 曰: "載於六經." "然則行仁義如何?" 曰: "熟講六經之文, 反之吾心之理而躬行之篤, 則仁義可復而不愧於爲人之名矣." "然則熟講六經之文如何?" 曰: "本之小學, 以立其基, 參之大學, 以入其門, 論語以固其根, 孟子以達其變, 中庸以盡其妙. 然後於詩書而求聖人之性情達道, 於春秋而法聖人之大經大法, 於易經而盡天地萬化之屈伸消長, 於禮樂而觀天下萬事之有物有則, 傍通史氏之書, 百家之文, 以達古今事變, 文章技藝之株暢支分. 然後反求於吾心之至靜至約, 一貫而統萬, 則人之所以爲

人者, 可以與天地參而爲三而上下同流矣. 不然惰其四體, 放其心志, 惟私是懷, 惟慾是從, 自暴自棄, 放僻奢侈, 則所謂人面而獸心, 馬牛而衣冠, 其於得名爲人, 其可仰無愧於天, 俯不怍於心耶? 其可畏也夫! 其可嚴也夫! 世有章句而文辭, 媚人目而取榮幸者, 末矣無足言者也.” 近者坡平尹君俶·永平文君晩郁·晉陽鄭君�House·坡平尹君先夔·陽川許君謙, 與鄕里冠童, 約爲書社學齋, 列書其名於冊, 盟爲永久計. 請余爲文弁其首, 余略道人之不可不學之意, 首書仁義二字爲贈, 以爲卷序云. 歲在己亥之暮秋下浣書.

峀雲亭序

大海東域, 雄鎭西郊, 水合光綾, 山分瑞錦. 何年造物, 孕出一區名疆? 此日明公高開數畝精舍, 軒臨箕尾之英彩, 寶輝淩空, 門納濟羅之長風, 灝氣盈檻. 主人令公 人間達尊之列, 天上老躔之精. 世有令名, 家傳孝友, 鶚立鵷序, 豈欠三語清標? 鳳峙鷄林, 爲撫千年舊國, 按仲擧之長轡, 憶巨源之某邱. 歐公之白髮蒼顔, 翼然高閣, 謝老之青山綠水, 爽乎明窓. 楣上華扁, 遠述晉徵士之佳句, 巖間傑構, 近襲朴相公之遺墟. 雲鳥交飛, 依然三逕之風味, 水月相暎, 怳若二養【朴思庵卜居末年, 嘗作二養亭】之精神. 於是潦落秋灣, 蘆灘石出, 雨添春浪, 柳岸潮平. 漁父長歌, 沙禽戾翼, 烈士高咏, 潛魚躍鱗. 或棹孤舟, 或扶短策, 詠滄浪而翫月, 臨斷臯而嘘風. 三樂於斯世, 【此一句恐缺】至若虹橋百尺, 龍臥波心, 月峀千層, 鵬褰海浴. 仰巖之粉嶂丹壁, 呈朝暮之瑞輝, 歌岑之綠玉蒼珪, 獻雲雨之奇態. 輸四時之光景, 供一室之樽罍. 又如檻外長江, 遙連吳楚, 門前大道, 遠接京華. 雀舫龍軸之柁檣, 交鷁首於津泊, 龜章虎符之冠盖, 織駟踶於康衢. 侈停宇之睡望, 壯幽居之心目. 嗚呼! 登臨覽物, 往事蒼茫, 俯仰古今, 乾坤逆旅. 西湖鶴去, 處士之風流已空, 東里龍興, 前王之壯圖安往? 拜鵑相公,【思庵又作拜鵑窩於永平】清水之正氣收藏, 裴舟老仙,【思庵之兄烟波濈, 有葉舟載素月之句, 故如此云云】滄海之遠意綿漠, 而况梅窓夜寂, 蕙室春虛. 雲霞索寞兮明月獨來, 禽鳥哀吟兮主翁何處? 汀沙有路, 認是蠟屐餘塵, 逕苔無痕, 難尋鳩杖遺躅. 所賴唐馬君之三世, 庭生玉蘭, 宋王氏之雙璧, 宅存金友. 平泉花石, 不墜贊皇

公之規模, 常樂松篁, 焉用白香山之封植? 傳青箱之舊業, 自有說禮諶詩, 守墨帷之古藏, 非但彈絲弄竹. 客有一囊天地, 二豎江湖, 看大化之無停. 喜臨川上, 追前脩而莫及, 愧【恐缺】山阿. 輕鷗萬里心, 一天晴月, 老鶴千齡志, 百鍊澄瀾. 今來勝區, 立臺榭之通豁, 此意愈暢, 遡宇宙之餘風. 賦有望於衆賢, 恨乏扛鼎筆力, 詩效嚬於往轍, 豈待助席神功? 略抒胸襟, 庸塵窓壁.

龜巖書室八詠詩序

拙默愚夫嘗欲無言, 靜養子囑以八言曰: “夫人不言, 盍亦言志?” 愚夫莞爾曰: “龜吾知爲瑞, 鼇吾知爲靈, 化而爲巖爲嶺, 興起雲霞, 則天將使是雲霞爲雨澤而及蒼蒼者生耶? 抑守高巖嶺, 爲尙志朝暮之玩耶? 篴在八爲竹, 鍾在六爲宮, 天將使二音奏之韶頀, 使蹌蹌者舞耶? 抑寓於漁梵而鳴其不平耶? 斯二者在乎天, 在天者吾末如之何矣, 然則奈何? 當以晴松爲操, 霽月爲懷. 倘或鳴之朝陽, 爲舞文瑞命也, 澤畔孤醒, 泛滄浪帆亦命也. 至人無心, 與化同流, 吾何言哉?” 賡以八律而歌之.

題鄭生抄東策後序

光之人鄭生, 持東邱策對來示于余曰: “公未見夫良工巨匠乎? 櫲樟之木, 生于地而戾于天則良工取之而棟樑, 杞梓之材, 幹直而理細則良工取之而琴瑟之, 故巨細洪纖, 皆繩墨規尺度, 合於器用, 君之用人, 豈異於此哉? 國朝設爲科圍, 選明執事送八路, 問策于韋布之士曰: ‘某事當乎不當乎?’ 則弟子對曰: ‘當者當不當者不當.’ 執事取而進之于王, 王擇其大者大之, 小者小之, 若良工之巨細其材而用之, 其爲事豈不重且大歟? 然今之執事者, 問之不以其道, 故弟子對之不以其法. 藻章而錦句而已, 誕譎而詐飭而已, 安敢取其繩墨尺度器用哉? 君子之告君上者, 亦猶乎是, 大夫之取人材者, 其止此歟? 悲夫!” 余聞其言而賢之, 仍記于卷後云.

四箴序

某早有志于此學, 年十五六, 粗通論孟庸學大意, 十八而孤, 仍得大病. 奄奄垂盡幾十年餘, 於是搜得醫方服餌之書, 沉潛涉獵, 略知其意. 家貧身病, 殫於藥料之難得, 又求導引修鍊弛病延生之術, 着意行之有年, 盖病去七八. 於是有先親移葬之事, 又汨於堪輿之學, 費意數年, 病旣小愈, 年少氣麤. 仍慨然有志于兵家, 頗用力焉. 於是重厚之氣, 見消於修鍊導達之習而變爲輕放, 聰明之質, 見奪於積年沉痾之餘而變爲躁妄, 操守之志, 見搖於地家誕怪兵家奇變之術而化作曠蕩. 仍有跌宕湖山之志, 詩酒玩揭之興, 本然之眞, 已斲喪八九矣. 歲戊戌秋, 偶閱家藏書籍, 得一篇心經而讀之, 不覺愧汗沾背. 乃盡棄十年誤入之志, 而回頭舊學者一年于今, 而性偏難克者, 日又日甚. 自顧今年三十有六, 而失路倀倀, 奔走歧塗. 今有小覺而舊染難脫. 回顧半世, 廓然自喪, 於是乃作四箴, 揭帖于壁, 以戒于心云云.

記

春風樓記

天地以生物爲心者也, 生乎物者, 莫先乎元. 元者天地之大用, 而於人爲仁, 於時爲春. 春者四時之元, 元者四德之首. 仁者五常之元, 元爲四德之首而於亨於利於貞, 亦各旺焉. 春爲四時之始而於夏於秋於冬, 與土同德而旺於四季, 春元之用, 豈不大哉, 故春元長養之風, 鼓動萬物而萬物養生. 然則春者四時之全體, 風者春元之大用而生育萬物, 則君子之風, 亦猶乎是, 君子之仁, 亦本於是, 古之人有以是名其樓者, 盖取於此也. 斯樓之作, 以天根爲樑, 以月窟爲楝, 艮石爲臺, 乾坤爲門. 絪縕之氣, 交感於軒窓, 苒苒之光, 和順於房櫳. 東暘載陽, 資始資生之淑氣融融, 長男薰風, 九十春光之景物在在. 上下山光交翠, 前後水色漾綠, 眞源一脉, 妙難勝記. 至於升堂則紫紅之韶光濃郁, 入室則芝蘭之香氣芬芳. 八窓四闢, 花柳無私, 竹牖向陽, 庭草含滋. 前川雨過, 靑山依舊, 後園風微, 春鳥嚶嚶. 以陋巷爲嵎夷, 以闕里爲暘谷, 先天後天, 都付其中, 三十六宮, 成列其間. 檻外桃李, 矜東君之艶陽, 窓前梅松, 稟乾元之和氣. 樓之上玉宇寥廓, 鳶飛戾矣, 樓之下銀塘萬頃, 魚物躍矣. 闔戶而觀之, 天君泰靜, 四端藹然, 開門而察之, 春晴物佳, 萬理俱明. 三之日四之日, 春服既成則浴風咏歸之興可推而飽德之精神淸越, 玉壺之爽氣透澈. 薰蒸於此 鎔陶於此 則河南堂上, 座中春風之化可承焉. 玉戶金壁, 非主翁之所喜, 廣居安宅, 是主人之所樂. 然則夏亨之長, 此樓之所以資, 秋利之成, 此樓之所以資, 冬貞之遂, 亦此樓之所以資, 則稟物之所以資始資生者, 豈有外於此哉? 至如樓之東, 仁木葱鬱, 東風習習, 千蘂萬葩, 白白紅紅. 咸得靑陽之一氣, 熙皡賁若, 潤元始之仁澤, 而洪纖高下之類, 飛潛動植之物, 無不得所焉. 樓之西, 有正路坦坦如砥, 無一塵垢, 光風灑落, 霽月淸明焉. 樓之南, 有一禮門, 巍然屹立, 月出淸琴, 虛白乃生. 孔孟於是, 顔曾於是, 文物在玆, 禮樂在玆焉. 樓之北, 智水千仞, 混混源源, 不舍晝夜, 進以盈科, 達以成章, 遊魚弄波, 白鳥鶴鶴焉. 然則此樓之作, 眞可謂君子而後樂此者也. 於是主人翁, 逍遙焉徜徉焉, 求仁得仁, 對越上帝, 不愧屋漏, 俯

仰無怍, 以至於天地位萬物育焉. 由是而元亨利貞之天道, 春夏秋冬之流行, 仁義禮智之人道, 彬彬於玆, 三綱五常之倫, 二五四八之文, 爀爀於玆. 猗歟至哉! 凡百君子, 踵武而葺之, 則庶斯樓之不朽也. 主之者誰? 宋朝名儒張南軒也, 記之者誰? 海東人也.

彛倫齋記

嗚呼! 人之得名爲人, 衣服冠而立天地兩間, 與天地幷稱爲三才, 而禽獸異塗者何耶? 曰'三綱五常'而已. 三綱者, 天叙之大經也, 五常者, 天賦之至理也. 三與五旣本於天而人能行之, 則人與天地分雖三, 其體則一也. 以藐然之一身, 與天地參而爲三, 合而爲一, 則人之爲名, 其至大矣哉? 雖然形氣旣成, 外物觸於形而感於中, 則七情生而私慾乘之. 私慾旣勝則三綱五常之天, 汩喪而淪於禽獸, 與天地背而爲二, 爲天地間一賊蠹則不可以人名之也, 甚可懼也. 古之聖人深懼於此, 於是立敎人之法, 則庠序學校之設起焉, 四書六經之籍作焉. 夫四書六經者, 明三綱五常之書也, 庠序學校者, 行三綱五常之地也. 是以古之人, 非獨邦國之學也, 鄕村巷社皆得以立學舍, 入歲十五, 小學大學之節次第詳盡, 綱目嚴明. 人之生於兩間者, 自能言至于老死, 無一日非講學之時, 則淳風善俗, 安得不興, 孝悌忠信, 安得不篤, 而至治大化, 安得不行哉? 此三代之世, 人皆禮讓而比屋可封者然也, 後世有學校之名, 無學校之實, 而鄕村之學則名與實兩亡者久矣. 歷千里之邦而巷有塾者未見一二, 則學古有識之士, 孰不撫古而感傷也哉? 吾鄕之南, 有村曰'德谷', 一二好學之士, 與鄕黨有志之人, 創立齋舍于里門之右, 朔望會童冠講學, 書其名于卷, 請余志一言于卷首. 余欽其能復古而行善, 謹以人之能爲人, 不出於三綱五常, 而古之所以敎所以學者之亦不出三綱五常之道, 弁其卷而名其齋曰'彛倫', 略申其意而告之曰: "入則孝出則悌, 老老而長長, 言忠信行篤敬, 親親而尊賢, 時以講經習禮之暇, 兼通程式之文, 應有司之擧, 立身揚名, 顯其父母, 亦孝悌之道也. 入是齋者, 倘違於此而在醜紛爭, 言不謙恭, 使立齋之意, 始終參差, 則得罪於齋號之義, 而甚有愧於爲人之名矣, 可不勖哉?" 咸曰: "諾." 記其說以爲警式.

悅樂齋記

悅樂齋旣成, 扁以悅樂, 齋之諸生, 立齋下問余曰: “請聞悅樂之義.” 應之曰: “子不講魯論首章之經乎? 古人之學, 孝悌而已. 心乎孝悌, 不能不學于孝悌, 學乎孝悌, 不敢不習乎孝悌, 坐如尸, 坐時習孝悌也, 立如齊, 立時習孝悌也. 內而心志, 外而言動, 由中顯表, 粹面盎背者, 無非孝悌, 則其心之和悅如何哉? 以是心行之一家, 父母順兄弟怡, 行之邦家, 君臣正朋類從, 則其氣之和樂, 容有已乎? 此君子之悅樂也. 漢氏以降, 科制取人, 則學而時習者, 文藻而已. 摽竊六籍, 出入權數, 發爲文章, 眩人耳目則其心悅矣. 馳翰藝園, 騰名世路, 樂生忘死, 紛爭追逐則其氣樂矣, 此小人之悅樂也. 二者子等何居焉?” 俄有笑于列者曰: “有是哉! 子言之迂也. 三代旣古, 古道難回, 居今之世, 欲反古之道, 何異倒黃河之流, 注崑崙之坂哉?” 余應之曰: “嗟乎! 子獨不稟眞性於天矣乎? 子與我, 上至堯舜, 原厥初生, 同得乎天, 則爲吾徒計者, 不過曰‘復乎天’而已也. 雖然寒鄕晩出, 稟質汚庸, 習俗之累, 聞見之拘, 兼之而科目之慾則所謂本乎天者, 幾何而不流於飛走之嗇哉? 此魯論之所以揭學習二字於篇首者也. 然而世道之變, 亦不可不循, 父母之望, 在於科第, 君臣之際遇, 在於科第, 則應擧之業, 亦何可廢也. 余之所冀於諸生者, 學習雖在於擧業, 心志不溺於得失, 文辭雖尙於程式, 悅樂專在於孝悌, 則酌古參今, 庶得其中. 推原反本, 復之於堯舜之天, 亦可希矣. 此余名齋之至意也.” 諸生咸拜曰: “敬就敎矣.” 遂書其言于壁, 以省己而警諸生云. 歲在甲辰之日長至, 九皐散翁書.

玉成齋記

乙巳秋, 悅樂齋毁, 金生振華, 尹生瑜改築室于蓮花坪之南麓, 請名焉. 扁曰‘玉成’, 盖取訂頑庸玉汝成之義也. 略演其義曰: “寒霜降者, 橡樟莫不隕, 頑石攻者, 荊璞成其輝, 風霜之肅殺, 礱石之擊拍, 孰不向參天之幹曜日之珍, 愛惜其摧落消礫之慘哉? 及其軟弱者剛實, 嵯峨者滑澤, 架棟, 楪升筐篚也, 孰不欽賞其侖奐孚允也哉, 然則向之肅殺者擊拍者, 眞吾砭疾之藥石也非耶? 張子曰: ‘貧賤憂戚, 庸玉汝于成.’ 貧賤憂戚, 人莫不甚苦, 而卒能玉其成

何哉? 無所爲而爲者, 上智也, 中人以下, 必有所激而後志必篤行必力. 惟爾瑜與華, 俯而讀古人書, 仰而日三思此齋之所以移築者, 則唔咿之聲, 雖欲絶於唇, 必不得矣. 侖奐孚允之成, 其不在玆耶? 然後霜石非可愳之資, 而吾之志畢矣. 至於爲學之道, 處心之方, 已具悅樂齋, 勖哉! 華與瑜.”

道民精舍記

道民, 古縣也. 或曰: “古有道之民所棲息, 故曰‘道民’.” 世傳麗相文侍中所居云. 瑞石一支, 南流二三百里, 作德龍, 逆折東回, 反顧瑞石, 却步六十餘里, 背石面龍, 負陰抱陽, 成一區小地, 邱壟盤旋四環若房奧焉. 前面諸山, 若開天建地, 月出日封, 龍峙鳳嶽, 鵬溟龜谷, 羣奇衆秀, 或抵身引首, 或隱體露鬟, 或舞袖拱向, 或揚眉豁面, 媚狀姸態, 磊形健氣, 莫不呈瑞于朝暮. 谷有四泉皆上出, 涓流合勢, 放流于億山鳥枝兩邱之間, 與三台桴澤之水, 注于蓮花亭下. 由龍灘至于伽倻山, 其山藏水隱. 從外而觀, 鮮入于人人之目, 其佳氣淸幽之意, 有絅裏錦文之美, 眞所謂有道而民居者. 野冠農服, 打乖而混, 世人莫我知, 而其方寸而四體, 自內而見外者, 起敬於具眼之瞻仰則異矣. 余少無凝道之資, 而妄有求道之志, 中身此日, 萬無一聞, 恒起慨然之喟. 欣然是地得名之異, 遂定居而營築小室, 揭曰‘道民精舍’云. 歲丙申八月日, 主人翁記.

時習齋記

至靜之謂‘性’, 有動之謂‘氣’, 自靜而動之謂‘情’, 統是而主焉之謂‘心’. 是心之微, 雖宅於方寸, 其用之廣, 彌六合而不窮, 六合之廣, 收而致之方寸之內, 物各付物, 萬善俱足, 其不學而能之歟? 六合之廣, 萬善之衆, 運而輸之方寸之小, 擇而能守, 守而能行, 其不習而能之歟? 此致知力行, 爲學問之始終, 而闕里之徒, 弁之於二十篇之首者也. 至靜之中, 雖不容時習之功, 有動之後, 苟一息之不習則便非學矣. 致知欲其習於知也, 力行欲其習於行也. 若曰: “吾之知旣至, 吾之行旣力, 更不加時習之功,” 則所知者狹, 所行者泥.

既狹且泥則所謂動之者, 拘於自知, 而至靜之中, 亦不能存其前日之淸明, 而所謂統而主之者, 鮮不歸幷州之故鄕矣, 其可畏也夫! 吾黨有愼君汝眞者, 扁其齋曰'時習', 屬余求言甚懇. 余擧知行二字申告之. 余亦未革夫十年前喜獵之習者, 仍自警省焉. 壬辰仲春上澣書.

玉峀奇遊記

綿城之東錦江之北, 有一奇峯, 特立乎沙湖之上, 其名曰'玉峀', 烟波處士構一小屋巖隙間, 東岳白雲之句, 炳燿一世而山不孤矣. 余半生斯世, 爲二竪兒所魔, 尙未克登絶頂而撫高躅矣. 庚戌淸和下澣, 謀得一小艇, 順流而泛, 腹猶果然而抵其下. 未及至數百弓, 中流而望則但見疊玉累瓊, 挺然天表, 蒼松翠草散亂乎粉壁間矣. 泊舟巖角, 緣崖而升, 逶迤東轉, 偃息乎石臺之上, 仍西折而有小逕. 攀磴六七步, 右扶百丈層壁, 左瞰千仞深潭, 僅容一杖. 數足而進, 得玉峀庵舊基, 延袤可二丈許, 靑蘚碧莎, 堙沒古砌, 石間惟有安石榴一叢, 盖處士手植也. 其西石逕, 尙有遺蹤, 草棘不生. 又其西有小臺, 自小臺又東轉, 近北而上, 一步一石臺, 層疊而升, 不覺惱疲而至高巓, 豁然通暢, 爽若登仙然矣. 石臺之上, 有石如椅, 椅上蒼松如偃盖. 踞椅而坐, 四望天倪, 不知此身是塵中人也. 仍想烟波老仙以筍輿幅巾, 覽物起興, 抽毫點朱, 揮灑月邊僧影之什, 其氣像神彩, 了了如眼中事也. 俛仰之間, 感慨繼之, 則未知幾經年而吾人此跡, 泯滅已盡, 又有何人志存物表如今日事, 而來撫我踵耶? 每思至此, 欲倩石工刻烟波一絶于石壁上, 又刻陋名字其後, 以寓湖山跌宕之懷, 而散浪之人, 力瑣不及遂則戚矣. 於是愀然不樂, 信步而下, 下至山足, 回望層壁則有一老衲, 不知自何來者, 披藤撫崖而上, 坐于危巖巓上, 余奇之, 呼之使來則不見所往矣. 余亦登舟諷詠而歸, 回頭海山, 如覺一好夢矣.

種菊記

幽居無所事, 未免爲外物之念所役, 堂下仍土爲階凡三級. 使不塵汚, 又不許凡草生其間. 上級上種黃菊數根, 右及南端, 列植白菊, 虛左以便步玩. 中

級南端下級西南, 列植紅菊皆虛左. 上級左右, 互植梅竹各一本, 中級亦如之, 使皆向黃菊, 有如控揖敬服之狀, 又種香蘭一查以實之, 盖黃者有正中溫潤之美, 故居上級上南下焉. 白者精粹潔淨之操, 故次之, 紅者雖有貞純之姿, 未免豐富之態, 故不得上上級而居中下焉. 各行皆間植白者一二根, 以清其芬華之氣, 皆北上焉, 使人玩之. 有品制而不失上下中節之分. 此雖閒人外物之戲, 然似有不偶然之意, 故仍錄以示志焉. 己丑端陽上澣志.

盆梅記

梅林林中一植物耳. 春生秋落, 順天時而生死, 與凡草木何異焉? 古人愛其香而潔早而貞, 樹之堂室之間, 爲庭實焉. 其老而查奇而古根拳而枝瘦者, 巧者又加芟治, 栽之盆器, 升堂而入室焉. 余家亦有古莊一根, 余嘗推其理而長之曰: "物之初生, 萬品皆土之毛, 貴賤淸濁, 理本不殊. 獨梅之性, 以潔貞見取於人, 辭林莽薈蔚之中而特立於階庭. 植本固而條枝遠揚, 花實不雜, 譬若生之兩間. 血氣具體者, 厥類不億, 而惟吾人以仁義貴於兩間, 親親而仁人, 有恩而有義者也. 雖然其羣於植物而處於汚下者, 根於糞壤, 近乎荊棘, 其枝過茂而不踈, 其葉蘩蔓而不淸, 其或風雨霜雪之不時, 而花實又失其節, 斧斤羊豕之或侵而生氣亦至薾爾. 惟盆栽者, 根不煩而其枝益踈, 土不汚而其葉尤淸, 霜雪不及而其花早, 羊豕不至而其生遂. 春生而不加茂, 秋殺而不知謝, 亭亭獨立, 人莫不親愛, 譬若衆人之中, 有至人者. 養其生節其慾, 不以繁華富貴加其身, 而遺世獨立, 表出千古, 物累塵煩, 渾不我浼者矣. 雖然其實或和之大羹, 五味具和則伊尹, 太公當之. 物雖微而其理可推於遠者, 物莫近乎此者." 是以吾愛之至而記其說.

三學齋劵後跋

太歲舍己亥之暮秋, 永平之三學齋成. 成之日, 齋之諸君取齋生名籍屬余曰: “子旣序其劵首矣, 盍又一言以跋之?” 以卒其意, 余義難以辭苟免, 乃推衍三學齋之說, 遐于諸生曰: “夫學一而已矣, 謂之三者何也? 竊嘗聞河南程叔子有言曰: 古之學者一, 今之學者三, 一曰‘訓詁之學’, 二曰‘文章之學’, 三曰‘儒者之學’. 欲趍道, 舍儒學不可, 嗚呼! 儒學之不明於世久矣. 粤自劉漢氏以科選取人, 逮李唐趙宋, 學日趍於耳目而三分之學作矣. 夫字解句釋, 探賾名義, 專尙記聞之業者, 訓詁之學也, 今之所謂講經科也. 藻語葩辭, 繡章錦句, 馳騁翰墨之場者, 文章之學也, 今之所謂文藝科也. 學一句便知其理, 知其理便篤行之. 本之心而行之身, 由灑埽而達之天理, 始於家而及於天下者, 儒者之學也. 三代旣遠, 古道難復, 今雖有周孔之德顔曾之學, 不由科業, 難於得君而行道, 則文章訓詁之學, 安可專廢也? 此命斯齋三學之義也. 凡入是齋講斯學者, 童蒙者先學訓詁, 稍長者學習文辭, 成人者專以義理爲主. 博文約禮, 先立其大者, 然後推吾所有, 達之文辭之間, 以其緖餘, 爲應學進取之具而擴充其大本, 以爲孝親敬兄忠君悌長之道則爲學之道, 庶乎源流不渾, 本末交修矣. 若夫趍末而棄本, 以標竊偸靡, 爭長競短爲務, 馳心於聲譽, 騖意於榮利, 喪失其本體則非名齋之本意也.” 僉曰: “唯.” 仍記其說, 書于卷末以警之. 朝暮整衣冠入齋中, 引諸生訓章句者, 永平文居晩郁, 晉陽鄭君楮, 坡平尹君先夔其人也. 張子厚先生所謂敎人四益, 三君亦不可不知云.

農家集成書跋

自吾人鑽燧之後, 食之以火而耒耨之利, 盖取諸益. 天下之本, 其在是矣. 古之作民父母者, 務此而興, 忽之以亡, 考前史班班可見. 東民之垂三百年, 樂利安生, 耕鑿於聖化之中, 不自知而誰之力者, 在於農家直說之頒非耶? 前

三百而使斯民樂利安生者在於直說，則後此億萬年無彊之本，亦不在於我聖上此書之頒耶？若余之愚，樂堯舜於畎畝之中者，敬受是書之頒，親沐勛華之澤，遂欣然書此，以效含哺者歌.

謹書思菴集後

思菴先生集凡二冊六卷，附白沙撰狀，淸陰相國，白軒老爺實首尾之，瓊篇玉訣，炳琅相暎，照人耳目，嗚呼！偉矣. 第有一言，所貴乎有德之士，立言著書，垂示永世者，非但文詞華藻而已. 其有關世道，左右風化者，實其本意，先生立朝四十年，出入相位一紀有餘，輔弼君德，羽翼治道，必多大建明大樹立矣，編集之間，寂無一二文字及於章奏告啓之書何耶？先生早事花潭，學傳其緖，則紹述先師之餘旨，發於吟咏，播之章句，以發明之者，必有其作，片字隻言不見於集中何耶？其所輯者，不過山水間諷詠，而緇門軸律，獨加詳載，嗚呼！韓昌黎所謂掎摭星宿遺羲娥者，非此之謂耶？噫！此豈先生階庭無托，而家傳之寶，有所遺失耶？惜哉！抑世傳先生位至領相，而左相辭免批敎則栗谷秉文衡時所撰，白沙之狀，止於壬申右相，亦可疑矣. 幷錄之，以待求正云.

南圃集

卷之十一

原理氣說

天地有理有氣有形質, 合理與氣總言之曰‘道’, 至粹之謂‘理’, 變動之謂‘氣’, 流行之謂‘道’. 理寓於氣, 氣寓於形質, 是以氣積而爲天之形而氣寓於其中. 氣結而爲地之質而氣通於其中, 是氣也, 升降於天地之中, 運行不息, 不息之妙, 斯謂之理. 理至靜氣至動, 動不能自動, 由於理, 靜不能自發, 乘於氣, 是以至精無雜者理也, 有正有邪有通有塞者氣也. 五氣順布, 四時得正, 生長遂成, 萬品順成者, 氣發於正而理乘其正者也. 其或四時五氣不得其常, 寒暑風雨乖戾失節者, 氣發於邪而理蔽於邪也. 人之生也, 得天地之氣, 是氣凝結爲形質, 而氣寓於形質之中. 天地之理, 賦而爲性, 而性寓於氣. 性與氣合而流行於日用, 又謂之道. 其氣也通行於軀殼之中, 發而爲一呼一吸, 又與天地之氣, 相通而不息, 不息之妙, 是謂之理. 凡知覺運動者氣也, 知覺運動之妙者理也. 是以理至靜氣至動, 理有善無惡, 氣有善有惡. 四端發而七情得中其節者, 氣發於善而理乘其善也. 四端七情, 不得其正, 視聽言動, 皆出於邪者, 氣發於惡而理蔽於惡也. 夫人一天地也, 天地一大人也, 故配而言之曰‘三才’, 惟聖人正其氣而合其理, 以達於天地位萬物育, 使四時五氣寒暑風雨, 莫不順其序得其正焉, 故易曰: “財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大哉! 聖也, 斯其至矣.

中說

天地至大, 萬物至衆, 日月至明, 山川至廣, 人心至公, 萬事至煩. 萬物至衆, 天地能容之, 山川至廣, 日月能照之, 萬事至煩, 人心能總之, 盖天地之道正于一, 故萬物容焉, 日月之明定于一, 故山川照焉, 人心之靈定于一, 故萬事總焉, 是知天地日月人心, 形而下者也, 至大至明至公而定于一者, 形而上者也. 其形而下者, 高下大小, 號名雖殊, 其形而上者, 固無彼此之別何也? 以其一而已矣, 一者何也? 中而已矣. 是故天地不中, 萬物不能容, 日月不

中, 山川不能照, 人心不中, 萬事不能總. 以天地之大日月之明, 若或不中, 萬物不能容, 山川不能照, 况乎人心之不中耶? 天地動靜於上下, 日月運行於其間, 陰陽之氣五行之精, 合無極之眞, 降生吾人於兩儀之間, 所謂中之理. 先稟於吾心, 天下之人, 公傳得之, 非有我之獨私也. 然則天地卽吾大父母也, 日月卽吾父母之耳目也. 天下之人, 卽吾父母之子而於吾兄弟也, 於是父母命我, 大宗兄爲吾之君, 繼別小宗以下, 爲公爲卿爲大夫爲士, 又其下爲庶民. 吾以父母之子, 事吾大宗兄之爲君, 可不忠乎? 事吾兄弟之爲公卿大夫士者, 可不敬乎? 臨吾兄弟之爲庶民者, 可不愛乎? 是故不忠於君, 不敬於長, 不愛庶民者, 是不孝于吾父母之子也. 或有奸傲不悌, 戕及同氣若小子象者, 放之可也. 包藏元惡, 謀危宗子若管蔡者, 誅之可也. 烝烝底豫若大舜者薦之, 軆受歸全若曾參者福之, 若此者何也? 我亦受天地之中, 待天地之子, 公而已矣. 夫何叔季歸來, 天下之心, 陷溺於自私? 至正之中, 專倚於一偏, 不知天地爲吾父母, 故不識天下之人爲君臣上下者, 爲吾兄弟也. 愛憎由於一己之私, 中道不立, 好惡不循天下之公, 利欲橫流, 吾宗兄之受父母命爲吾之君者, 孤立於上, 而羣兄弟爲公卿大夫士及庶人者, 紛紛然分名角立, 爭利於一室之內, 則彼吾天地大父母臨之在上, 質之在下者, 謂吾爲克孝子耶? 爲不肖子耶? 天地神祇, 昭布森列, 至大至明至公至中, 吾何敢二吾中, 與吾羣兄弟疑貳於吾宗子大君之前, 得不孝之責於吾天地大父母乎? 我有至中, 初賦于天, 願與吾兄弟之有先覺者共守之, 以警發於吾兄弟之不能守中而倚於一偏者, 於是作中說.

冠誡

若知夫爲人之道乎? 人有恒言曰'天地人', 至大至廣, 不可得以名言者, 非天地耶? 然而稱三才者, 必以人參之於天地而幷數之曰'天地人'者何哉? 在易曰'立人之道'曰'仁與義', 在書曰'顧諟天之明命', 三省子有言'明明德', 述聖子傳之曰'天命之性'. 夫天之降稟於人者, 猶父之傳係於子, 高下大小, 雖若懸絕, 邈不相接, 其一氣流行, 通于上下, 然無間, 實無彼此, 故曰'天地人'. 然則吾之身, 其至重且大, 與天地無間者, 奚可不知其所以耶? 太上立德, 其

修之之序立之之法, 具在聖賢經傳, 使人循序而入, 令其自得而上達天德, 則其言邃矣, 其道微矣. 今姑不暇及. 其次飭行, 飭行之目有五, 曰'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 而行之者一也曰'誠'. 入誠之道, 在於居敬, 居敬之道, 在於肅然不放. 使志氣淸明而紛紜起滅之念不生, 正容端莊而怠惰放逸之氣不施, 一日之內一心之間, 淸多於濁, 靜多於動, 則自然心志明透, 見事易曉. 五者之目, 隨遇不昧, 而推之萬事, 無不明矣. 此飭行之大略而下學上達之門戶也. 仍此求之, 事天而參之之道, 亦不遠矣. 居鄕則正己而不偏, 立身則先實而後名, 接人以和而信, 處家以禮而恭. 至於飮食衣服聲色貨財名利五者, 陷人之機穽, 伐性之斧斤, 先立其大者而不爲所動則得矣. 宗侄履相, 未孩而孤, 今其壯矣. 禮當三加, 成人之道, 式自今日. 堂叔某推人參三才之說以申之, 爲醮席之戒. 又命之曰: "'詩不云乎? 哀哀父母, 生我劬勞', 吾之四體, 一毫一髮, 是誰之賜? 顧軆思親, 思親飭行, 所以不欲忝厥所生也. 立身揚名, 以顯父母, 孝之始也, 臨深履薄, 順生沒寧, 孝之終也. 履相戒之, 吾言不妄."

詩學發揮

余嘗妄自評論古之所謂'吟詠大家', 以爲"靑蓮詩, 若昆山彩鳳, 飛弄流霞, 太華高峯, 玉綻芙蓉, 只見天然之態, 未有斧鑿之痕, 可與造化相表裏左右手矣. 草堂詩, 瘦若飛鶴, 淸若沆瀣, 健若五百義士, 苦若三冬雪竹, 其刳心剖膽處, 可以泣鬼神而激志士矣. 昌黎詩, 混混如元氣, 流行如河海, 卓立者與五岳比高, 淵深者與四瀆幷沉, 余嘗以爲詩中之聖經也. 若楊士弘所編唐詩三等音律, 譬若華佗扁鵲輸天下四海之奇材異料, 合爲一劑名藥, 參求昌陽玉札丹砂, 辛者補之以甘, 凉者濟之以溫, 高者抑之, 下者揚之, 令人一服藥, 可以打疊了百骸疴痒矣. 余故導上品之才, 當以李杜韓三家, 若自中下以後, 當以三唐爲準云."

閒居誌

郊老平日, 性質拙訥, 不能俯仰於人間世. 其年四十, 始築室于郊之南, 仍號'南郊', 半畝蔬園, 自足爲生, 又號'老圃'. 宅邊有皐凡九墩, 或稱'九皐主人', 屋後手種蒼松, 篆其軒曰'晩翠'. 小室直而方, 僅取容膝, 題其壁曰'直齋', 隣生葺書室于二皐, 曰'養正'曰'悅樂'. 所居無名山佳水, 質素如其人, 或稱曰'野翁'. 翁嘗好看書, 多病未能劇讀, 架有冊數百卷, 有時披閱, 只取有灌漑吾心氣而已. 餘不着意苦思, 以病其天然之志, 盖性然也. 養性之方, 非不粗覺而氣孱不能精進, 治心之法, 時或預聞而懦鈍不能力行. 是以行之多暗劣, 人皆非短之, 亦囂囂焉, 盖其志寬緩故也. 嘗淨掃庭室, 几案斯整, 默然靜坐, 若有所思, 而其實無味乎所得矣. 沉吟叙氣, 俛仰宇宙, 繹思運意, 通達古今, 而其歸無預於所樂矣. 至於春蔬滿圃, 秋穀盈疇, 或竹杖草屨, 或短童羸馬, 行吟於野田草露之間則其樂似在於農圃矣. 和風促花, 露天流月, 一琴一樽, 自酌自彈, 而左右冠童, 咏歌吟詩, 以助其歡則其樂似在於琴酒矣, 而或泛月淸江, 雖遠必臻, 優遊巖壑, 不憚其勞則無乃樂於山水者耶? 其人之樂, 自有其樂, 不必深辨. 其心常語其口曰: "至高者天, 至大者地, 而一元之後, 澌盡泯滅, 其迹如掃, 況吾人眇然一塊肉, 未及百年, 與塵土同朽者, 何足自以爲有無哉? 雖然在我者, 亦有與天地同其理者, 昭昭然寄寓於方寸之間, 善養而擴充之則可以塞天地之高大而與一元同終始矣." 思慮之至此則彼浮世之憂樂, 倘來之毁譽, 豈足以動其樂哉? 然則前所稱數者之樂, 足以寄百年之閒情矣, 後所稱方寸之樂, 可以達天地之妙用矣. 合而收之, 書用誌哉? 乙巳暮春上浣, 九皐主人識.

經鋤問對

經鉏野夫, 於世上事, 無所識務, 手執鉏耰役, 以爲供親計. 一日携園丁二三, 從事於東皐之下, 力倦神疲, 舍鉏登隴, 快讀古經. 有客來過, 長揖而問曰: "巫醫樂師梓匠輪輿, 工之賤者也, 固不可耕且爲也, 況治繹古經, 亦可耕且爲歟?" 野夫笑曰: "莘摯之耒, 元亮之鉏, 客亦聞之歟?" 曰: "聞之矣." 曰: "士君子立心, 當以尹爲志, 窮亦可行, 達亦可行矣. 倘終不遇, 以陶之所守爲

守可也.” 客然應曰: “子之爲言, 癡且狷矣. 伊尹聖也, 淵明賢也, 旣聖且賢, 聖賢不居, 況吾子自居歟? 吾子少雖好學, 晩無所成, 一志未立, 衆咎蝟積, 窮未固守, 徒役四體, 何子之立志太高而行之不逮耶?” 野夫莞爾對曰: “子言是哉? 夫夫非矣. 然鯤羽未成而有扶搖九萬之志, 岱鴈未毛而有掣電千里之心, 君子之所貴乎膽大而自重者, 誠以斯道至遠, 斯任至重. 容刀之舟, 不足以濟海, 經尺之挺, 未可以制敵, 故古人爲心, 必以聖人自期何者? 我與聖人, 初無小異, 苟知其同而使無小異, 我亦一聖人也, 吾何異哉? 雖然聖人人也, 人而學人, 人各能之. 至於天者, 巍巍惟大, 不可名狀, 而古之人, 有與天合德者, 其故何也? 仁義而已, 子之言, 無乃卑陋而流於自棄耶?” 客曰: “子之言然矣, 請問吾子經鉏之樂?” 曰: “天地至大, 萬物至衆, 而道寓於其間. 天地父母而萬物同胞也, 達而兼濟, 同其樂也, 同其樂也而守約, 不同樂也. 我志可行勞吾心, 與天下同其道也, 我志不可行勞吾力, 自樂其分於畎畝之間. 春耕秋穫, 順天時之舒捲, 樂行憂違, 任道體之自然. 事畢西疇, 悠然而歸, 有書在床, 欣然涵泳, 其中有天地焉, 有萬物焉. 父子具而君臣備, 兄弟在而夫婦別. 羲農堯舜, 皥皥熙熙, 孔孟程朱, 混混元元, 具收幷集, 萃爲一家, 俯仰之間, 主翁其有樂乎? 俄而經邱尋壑, 瞻我南畝, 稊秕未成而五穀克秋. 秏蝗遠蟄而時雨施澤, 村氓里老, 歌者謳者詠者抃者, 提携傴僂, 相揖而賀, 徒見德色, 未覩哼咳, 言笑之際, 主翁其有樂乎? 此吾經鉏之樂也.” 客曰: “吾子之樂, 旣聞命矣. 請聞學聖之道.” 曰: “農夫所學, 策牛勤耕而已. 把犁之拳, 實非探理之手, 農歌之唇, 豈是講道之口? 聖賢模範, 昭在方策, 千秋萬世, 炳若日月, 苟非昏盲, 孰不能見知? 雖然至微者難著而至危者易乘, 一本雖同而萬殊各異, 以萬殊之異, 汨易乘之危. 一本所同者, 微而又微. 程朱以來, 上下千百載, 未聞有以一貫之統上接鄒魯者. 領靑手黃, 高談者紛然並起, 各異所論而大道喪矣. 爲今之學者, 齊其萬殊者而同歸一本, 抑其至危者而使著其微, 其要不過致知力行而已. 然致知之失, 易流於博雜, 力行之失, 易流於固陋, 博雜者爲口耳之學, 固陋者爲黃老之學. 此所謂種苗不耔而反成莠, 樹梧不治而變成棘者也. 必也所知不流於雜, 所行不流於陋, 精一而擇執, 先博而後約, 然後大本立而其用行矣, 所操約而所施博矣. 此學聖之大槩也.” 客曰: “如何斯可謂之致知, 如何斯可謂之力行?” 曰: “萬

物萬事之理, 推而致之吾心曰‘致知’, 旣知而行之吾身曰‘力行’, 知不盡則心不廣而多滯矣, 行不力則所知者爲虛具而爲無用矣. 雖然此心未能先立乎敬, 則吾之所知, 未能精擇而流於雜, 吾之所行, 未能固守而流於陋. 是故君子大居敬而貴窮理矣. 嗚呼! 後世有一種士子, 高談性理, 驟語古今, 對人談說, 喋喋累千而竟朝盡日, 未見歸宿者, 其於大本, 果有所立乎? 悲夫!” 客曰: “世之君子, 有以學問節義, 歧而爲二, 以節義爲實行, 學問爲不足貴, 此論何如?” 曰: “此論乃衰世之嘆也. 中古以上, 豈有此論哉? 大抵節義, 乃學問中一事, 若以節義爲重, 周公孔子不如伯夷, 秀夫天祥過於程朱耶? 周公孔子之於伯夷, 肩背之於一指, 秀夫天祥之於程朱, 一枝之於根本, 比而論之可乎? 後世之人, 有名爲學問, 而至於君臣大節, 反出凡人之下者, 故曰‘衰世之論也’.” 客曰: “世之君子, 有以行道爲節義, 不能行道, 爲非節義, 誠然耶?” 曰: “是亦衰世之嘆也. 中古以上, 豈有此論哉? 古之君子, 以大本達道之不立爲憂, 而不憂節義之不行. 大本達道旣立則節義非所論也. 若以行道爲節義則伊傅周召之徒, 皆可目之曰‘節義之士’耶? 孔子曰: ‘篤信好學, 守死善道’, 又曰: ‘邦無道富且貴焉恥也.’ 以此見之, 雖死於國, 不能善其道則非節義也. 雖身抱道德, 不行於無道之世, 亦可見矣. 不度時事之如何, 而必以行道爲志, 必以立節爲意, 而不顧是道之善不善, 其大本旣誤矣, 何足論歟? 子思曰: ‘邦有道, 其言足以興, 邦無道, 其默足以容’, 旣明且哲, 以保其身, 士君子抱道懷德者, 盍以此言爲終身戒哉?” 客曰: “聖賢敎人, 其道不同, 孔子敎人, 多從日用行事上, 曾子從明德說, 子思從性道說, 孟子常說仁義. 宋之先正以敬爲主, 橫渠之敎以禮爲先. 聖門升堂者, 多至七十, 而性與天道, 惟曾子子貢得聞, 己見大意之曾漆以下, 不得預聞. 自庸學之書首闡根本, 發明微妙, 宋之先正敎導初學, 必以涵養本源爲先. 談說性理爲學, 其流之弊, 程門高學漸流禪佛者太半, 而江西之學拍頭叫喚者, 多損賢者之志. 若非考亭夫子障百川而東之, 豈不庶驅天下之衣冠, 盡入天竺之卒徒乎? 雖然江湖異說, 不能盡去, 而流弊千年, 訖今未斬. 皇明學者不爲不多, 而並鄉故路, 赤幟已竪, 帝在旁州, 蒙不知尊. 今之學者, 若欲平步大路, 庶免偏重之弊, 用何道而可耶?” 野夫點頭改容而對曰: “嗟乎! 吾子可與語道矣. 昔者周公制禮, 以文爲上, 郁郁文哉! 彬彬可象, 及其先進野人, 其澤已斬. 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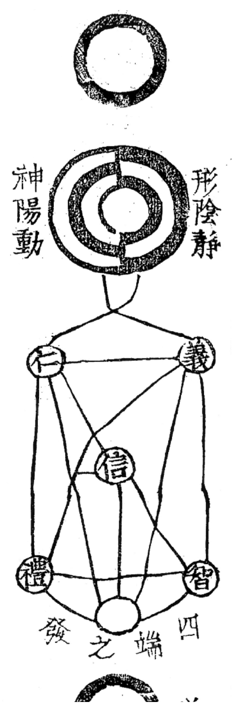
進君子, 文滅其質, 貿貿焉粉飾禮樂, 古道已去, 是以夫子設敎, 先從視聽言動, 止淫樂慝禮, 使不接耳目, 然後大本可立. 所謂制乎外, 所以誠其中也, 故顏子之卓然有立, 在於克己四勿之後, 曾子之一貫忠恕, 在於日三省身之後. 此聖門之敎, 如天地生物, 勾而萌萌而苗苗而枝枝而葉葉而花花而實者也. 及夫子旣沒, 門弟子散在四方, 各尊所聞而斯道不明. 曾子子思深憂且慮, 悶師道之無傳, 痛口耳之恍惚, 乃立準的, 直指本體以發明之, 盖不得已之敎也. 孟子之統, 盖得乎此, 而二中四下之克, 竟未聞有傳而不絶, 豈不惜哉? 詩書烈焰之餘, 僅得董子, 章句文辭之中, 幸有韓公, 而抽毫潤墨, 徒尙藻華而極乎五季矣. 濂洛羣賢, 特立千丈而俯視漢唐, 極盡高妙而上接鄒魯, 覺吾道之所在, 慨大本之未立. 是以奬率後進, 首以一本先立而萬殊各正, 誠明兩進而內外交養, 思曾【一作孟】絶學, 至此復續, 然門人高弟往往未免落於一邊, 有是乎! 斯道之難行也. 陸氏兄弟, 非不賢矣, 鵝湖一會, 終始不合, 竟爲千秋斯道之大疵, 文公夫子之憂, 豈不大乎?"【謹按此篇之作, 當在甲午年間, 或以丁內艱而未畢耶? 此下想必係之以東方, 抑先生深意有所待而遲回耶? 恨不就質於當日函丈也.】

玩物篇【先生年二十二三, 讀書時日記, 】

嘗讀一蠹鄭先生實錄, 有曰: "不取朱子中庸章句氣以成形理亦賦焉." 曰: "安有後氣之理乎云云?" 余謂'一蠹知理氣而不知朱子本意也.' 朱子曰: "若論本原則有理然後有氣, 若論稟賦則有是氣而後理隨而具." 此朱子本意也. 一蠹之見, 恐偏於一邊耳, 學者不可不知. 又曰: "理譬如水, 氣譬如器, 無是氣則是理無着在處." 如無是器則是水散解而無有矣, 故朱子先言氣而後言理.

或疑未發旣發曰: "當怒之時, 喜之理未發, 哀之時, 樂之理未發, 七情互相伏發否?" 余曰: "不須如此說, 思慮未動處爲未發, 旣動處爲旣發, 此心乍有發動處, 便不是未發. 非有四箇心在於其中, 互相發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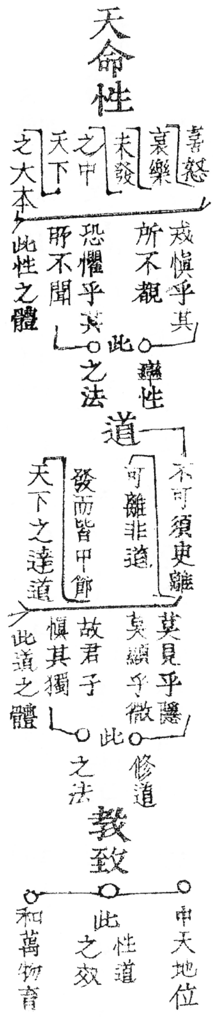
人具太極圖



按心有太極, 亦有陰陽動靜之理, 靜者形之生, 動者神之發. 方其動靜未形, 其理已具, 是謂太極. 及其一動一靜, 互相爲根, 則仁義禮智之性具焉. 仁義禮智之性具則仁義禮智之端發焉. 四端發而善惡分萬事出矣. 此乃伏羲堯舜以下, 孔孟以前, 相傳相受之心法, 其言具載於聖經賢傳之中. 孟氏以後, 無有的發而傳之者, 千載之下, 惟有濂溪夫子得太極二字於易傳之中, 畫而爲圖, 發而作說, 爲吾道一貫之的. 及我紫陽老先生而其圖其說, 又大暢明較著, 而三才一理之相合, 若符節之相契, 嗚呼! 無以加矣. 謹掇拾周子洎紫陽釋傳條節, 私作人具太極圖, 以備自省之具, 非愚之妄, 紫陽之意也. 又按羲禹圖書五數之中, 堯舜人心道心之幾, 文武周公建中建極之妙, 孔子易有太極吾道一貫之理, 子思戒謹恐懼之前, 曾子明德之初, 孟子本善之性, 乃所謂動靜未形, 其理已具之時也. 羲禹以五乘十之後, 堯舜惟精惟一之時, 文武周公敬義相勝之際, 孔生是生兩儀之發, 曾子明明德止至善之後, 子思隱微謹獨之中, 孟子人有四端之說, 乃所謂動靜相根, 四德具四端發者也. 是其一體一用, 雖有動靜之殊, 必其體立而用有以行, 其實一本而已. 一動靜而相終始者, 敬而已矣. 又五性之次, 與本圖五行之次不同者. 朱子曰: “形陰之爲, 神陽之發.” 又曰: “中也仁也, 所謂陽也, 正也義也, 所謂陰也.” 故今以仁禮居左, 以義居右, 仁爲四性之首, 故居左之上, 義爲仁之對, 故居右之上, 非自鑿也. 戒愼恐懼之前, 可見太極之體, 發而中節之時, 可見太極之用. 體眞妙之精, 當於夜氣淸朝見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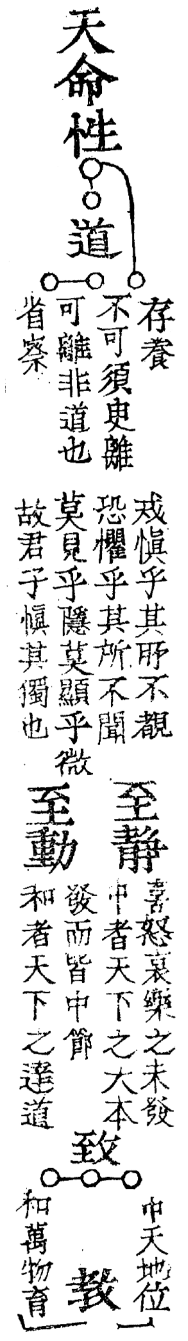
中庸首章之圖

謹按中庸首章之首節, 分言性道敎, 二節言道之不可離及存養之事, 三節言省察之事, 四節言中和之大本達道, 終言中和之極功, 此朱子章句已分明釋之矣, 更何毫髮之可間哉? 但性道敎三字, 爲一章之綱領, 而相爲脉絡, 其文雖不相續, 其義實相貫通. 其曰: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中者天下之大本也者’, 指性之大本而言, 其曰: ‘道也者不可須臾離, 可離非道也’, 又曰: ‘發而皆中節謂之和, 和也者天下之達道也者’, 指道之全體而言. 其曰: ‘戒愼乎其所不覩, 恐懼乎其所不聞者’, 存養之事而率性之法也. 其曰: ‘莫顯乎隱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者’, 省察之事而修道之法也. 其曰: ‘致中和天地位萬物育者’, 中和之極功而聖人之敎敎, 實本於性與道也. 謹條分作圖, 以備時習之不忘, 且待智者之較正焉.



中庸首章存養省察之圖

謹按朱子曰: “自戒懼而約之, 以至於至靜之中, 無所偏倚而其守不失, 則極其中而天地位矣. 自謹獨而精之, 以至於應物之處, 無少差謬而無適不然, 則極其和而萬物育矣.” 盖中庸首章之條脉工夫, 此言盡之, 而學者用功之成始成終者, 亦盡於此, 所謂終身用之, 有不能盡者也. 謹因朱子之言, 條分作圖, 以爲寓目思省之具焉. 但中庸雖不言敬, 而非敬則無以致存省之功, 故朱子曰: “君子之心, 常存敬畏, 雖不見聞, 亦不敢忽.” 程子亦曰: “學者莫若先理會得敬, 能敬則自知此矣.” 學者不可不察. 又按戒愼恐懼, 未發之謹獨也, 莫見莫顯, 既發之謹獨也. 此存心致知體用交修之法也.　存養在於未率性之前, 省察則既修道之後也. 雖未率之前, 天命之性, 明自若也. 當戒懼於此時, 乃存養於未發之前者此也.



中庸分節辨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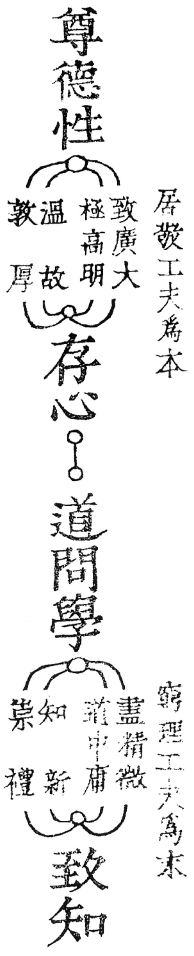
謹惟中庸一書, 子思子傳道之文也. 仰稽于古, 羲有畫而文有彖, 周有辭而孔作翼. 至於詩書禮樂之經, 語孟春秋之書, 切明的, 溫仁正厲之態, 粹然畫出聖賢之性情者, 誠非一二言而止耳. 然時有古今, 俗異淳澆, 其一時言語, 發於規箴警切之間者, 或有詳略之不同, 高下之難易, 或引而不伸, 伸而不反, 未易見其端緒. 其體用本末巨細大小, 俱含並包, 自爲一家, 咸括於一篇之中而徹上徹下, 該始該終者, 未有若中庸一書之詳切. 嘗讀是書, 知子思發前聖未發之蘊, 又讀章句, 知朱夫子發前賢未發之意. 求其本而及之末, 得其流而泝其源, 朝思暮讀, 不能無管窺蠡測之萬一. 乃敢言之曰: “子思子性道教三字, 爲一篇之綱領者, 若明明德三字, 爲大學之綱領. 一篇中萬言萬事, 不出於三者之中, 而更端作節, 意甚分明, 脉絡條理, 自有段緖.” 盖朱夫子四節之分, 饒氏子六節之辨, 雖有異同而意脉皆通, 後生末學, 何所容喙? 但於愚意妄以性道教三字推之, 以爲一篇之綱領, 而求之於三十一章之中, 則其綱領旨趣, 各有分派, 似有分段立節之可考. 竊念朱夫子以並駕鄒魯之明, 受讀是書於早歲, 沉潛反復, 至於六十年之久而後, 章句乃成, 則必有所見於此, 而終無可考. 是知愚累之見, 果有妄矣. 讀之屢百遍, 思之三閱月, 愈久而愈見其惑, 則果知愚累之惑, 終莫能釋, 惑而不釋, 未免箚錄, 以待求正於博理君子. 非敢別執已論, 求異於前脩也.

中庸分爲五大節

首章自爲第一大節. 此節言性道教三字, 爲一篇之綱領. 自仲尼曰章至鬼神章, 爲第二大節. 此節於三字中拈出道字言之. 首言道之難行難明, 仍發知仁勇三字, 爲入道之門. 次言君子之道, 近自夫婦, 遠至天地, 以至於鬼神不見不聞之極然後已焉. 自舜其大孝章, 至哀公問政章爲第三大節. 此節承上節至費至隱之道, 言聖人之教, 亦至費而至隱, 盖首言聖人之教, 由於一家, 一家之教, 莫大於孝, 故以大舜文武周公之孝言之. 次引夫子之言, 以言治天下國家之極致, 聖人之教, 至此無以加矣. 自誠明章, 至惟天下至誠章爲第四大節. 此節承上節天道人道之言, 而統論聖道教三者之義, 盖天道人道

之義, 一章深於一章, 漸漸高遠, 言天道則始於盡其性而終於川流敦化之極, 言人道則始於致曲, 終於發育萬物之盛, 而性道敎三者之義, 無不備於其中矣. 末章自爲第五大節. 此節與第一節相合. 但第一節言隱而至於費, 此一節言費而至於隱, 盖首言謹獨之事, 推而至於天下平之盛, 末章始言化民之敎, 次言德輶如毛, 以釋率性之道. 終言無聲無臭, 以釋天命之性. 程夫子所謂末復合爲一理者此也.

德性問學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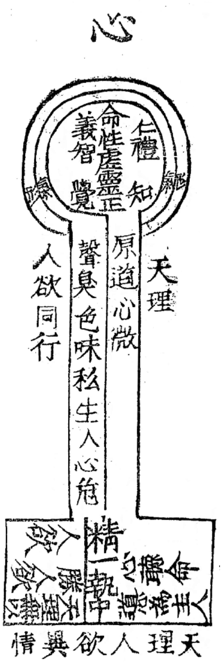


按中庸此一節, 該盡爲學本末工夫, 先儒莫不致謹於此, 而獨我紫陽老先生尤爲精密於此. 平生用力, 不外此二者. 玆謹手畫爲圖, 常常觀省于心目, 而又以心經末章及篁敦所摭全體大用之說參看. 吳明仲訪余於龍頭草舍留數日, 讀退溪心統性情圖, 至理發而氣隨之語, 明仲疑曰: “理本寂然不動, 安有理先發之理哉?” 余當初暫疑其言而不能答, 及退而自思, 以爲‘性卽理也, 當其未發, 理具於性, 及其旣發, 理氣動而爲情. 然則是理之未動爲性, 旣動爲情, 故理固有寂感, 而寂者體也, 感者用也. 旣曰感則非動而何? 故理先發而氣隨之, 理之至善, 不渾於或昏或駁之氣則是爲中節之情, 氣發而理隨之, 理之至善, 聽命於氣則是爲不中之情. 安有理之寂然不動, 如枯木死灰, 必待氣發而後理隨而發哉?’ 其後見黃勉齋氏之說曰: “及其感物而動則或氣動而理隨之, 或理動而氣挾之. 由是至善之理, 聽命於氣, 善惡由之而判矣.” 然後汪然大覺, 又知退溪理發之說, 非自家所見而有自來矣.【明仲名以井, 翰林希道之子, 登上庠早歿.】周子曰: “太極動而生陽.” 盖太極理也. 若曰‘理全無所發’, 周子何以曰‘太極動’云哉? 朱子亦曰: “氣旣有

動靜則所載之理, 亦安得無動靜.” 盖氣者理之器也. 今觀氣亦有美惡, 若此理則在天在人, 固無善惡之殊. 或問朱子曰: “誠者此篇之樞紐, 首章一篇之體要, 而不言誠何也?” 曰: “首章天命之性性字, 與二十一章自誠明之誠同意, 率性之謂道道字, 與二十章性之之誠相類, 修道之謂教教字, 與二十五章誠者非自成己也, 所以成物之誠字相似. 戒懼愼獨之際, 非誠不能眞實无妄, 而存養省察之工夫, 不能以立矣. 未發而中靜而誠也, 旣發而和動而誠也. 至於天地位萬物育則至誠之道, 可以參天地贊化育之極矣. 然則首章雖不言誠字, 誠之道貫徹於其中矣. 至於二章以物盛於器, 所盛之物動則器隨而動, 器動則所盛之物亦動, 理與氣何常有相離哉? 然則理發而氣隨者, 果無據歟?” 每讀中庸首章曰‘天命之謂性’, 章句曰‘氣以成形, 理亦賦焉’, 盖子思但言理而不言氣, 朱子添得一氣字, 以明理不可虛行而必寓於氣, 氣不能自善而必資於理. 此朱子章句發前賢之未發而大有功處也. 氣雖有昏明之殊, 而理之明者固自若也. 循其已明之理則可以變化氣質矣. 天命之謂性則成形之氣, 亦天之命也, 而人之氣質有美惡之殊者可見, 在天之以下無不皆然, 或問“中庸實兼中和之意, 則既發之後, 亦下中字否?” 曰: “然, 發而中節之中, 用其中於民之中, 君子時中之中, 旣發之中也, 天下大本之中, 致中之中, 中立不倚之中, 未發之中也. 君子中庸之中, 擇乎中庸之中, 兼旣發未發而言也.” 或問“首章亦有費而隱之道歟?” 曰: “十二章言費而隱, 首章言隱而費, 盖費隱之道, 無事不然, 無物不有, 大而天地, 微而夫婦. 一塵之細, 庶事之廣, 莫不有理, 而理莫不有隱有費. 若以首章論之, 在於性則性之中有費隱, 在於道則性隱而道費. 若專言道則道之中亦有費隱. 至於教則似若專費而無隱處. 然求其禮樂刑政之所以然則亦有至隱者存焉. 其曰: ‘不可須臾離者費也.’ 而其曰: ‘不睹不聞者隱也.’ 其曰: ‘喜怒哀樂之未發者隱也.’ 而其曰: ‘發而中節者費也.’ ‘愼獨於隱微者隱也.’ 而天地位萬物育者費也. 然費之中有隱, 隱之中亦有至隱, 透得一面, 熟讀精探, 其味無窮. 所操至約而所及極博者, 無過於費隱二字, 推之至精, 擴之萬變, 費隱上做工夫, 所得甚廣, 學者當可百倍思索處.”

人心道心圖

統性命包形氣，作一身之主宰者心也．理寓於氣氣寓於形，心統於中，所謂心者一而已矣，而仁義禮智之理，虛靈不昧者，心之體也，知覺運動發而應用者, 心之用也. 當其知覺之際, 原於性命之正, 是謂道心, 生於形氣之私, 是謂人心, 當此之時, 原者微而不著，生者易流於危，二者經界始分而未及歸宿地耳. 在此地頭, 善惡聖狂, 有若臨歧然, 於是聖人加精一之功而執中焉．以至於道心爲主，人心聽命, 操存出入, 發皆中節. 衆人不能致精一之功而生於私者, 危而至於人欲之汨沒, 原於正者, 微而已絶矣．善惡聖狂，至此而相去萬里，得失天壤，故曰：‘天理人欲, 同行異情也.’ 盖堯舜以下, 程朱以上, 前後數千載, 其所以脩之一揆, 歸之一域者, 皆本於此也. 其言其法, 具載方策, 以貽後世, 雖以某之無知, 粗得其說於經傳中矣．彼不知而不爲者，無可怪者，粗通其方而自棄如我者，其名曰‘自賊’，可不懼哉? 嘗探朱夫子人心道心之說及五峯同行異情之語，手畫成圖，以爲思省之具．然未知果合於朱夫子之意否. 仍錄其說, 以待知者正焉.



魯齋王氏人心道心圖附

謹按王氏曰: “原字, 自外推入, 知其本有, 故曰‘微’.” 以愚見之, 原猶根源也, 言道心之出於性命, 猶木自根而發, 水自源而流也. 盖原字, 有自內發外之意, 不可曰‘自外推入’. 既曰‘自外推入’則其本有者何物歟? 可疑. 其圖特書正字於上而書微字於下者, 未知何意. 其性命兩邊四條長畫及微字上橫畫, 亦未知指何物. 盡錄其所疑處如右, 以待知者. “子絶四, 毋意毋必毋固毋我.” 愚嘗讀至此, 每不快意, 曰: “聖人之於意必固我, 豈可以有無論也? 絶之爲言, 用工夫絶去之謂也. 聖人之心, 與天地造化, 上下同流, 不勉而化, 不思而誠, 則安有意必固我之萌而用力絶去之理哉? 在顔子地位, 未免些有意之萌而便絶之矣. 至於曰‘必’曰‘固’曰‘我’則雖顔子便不萌矣, 况夫子乎? 然則絶四工夫, 在聖門冉閔之徒, 所當勉勵者也. 愚故每讀至此, 必以曰字加子字下, 以爲夫子勉進門人之辭. 此意未知如何?” 問: “大學不言存養而多言省察, 中庸兼存養省察而言何也?” 曰: “所謂明德, 該未發既發而言. 未發之前, 不能存養則安能虛而具衆理哉? 既發之後, 不能省察則又安能靈而應萬事哉?” 此曾思相授之傳, 未有毫髮爽也. 然戒懼之工的發而分明說道者, 疑中庸爲尤切. 余嘗看古聖賢操心律己之篤, 反求之於吾身, 省其所爲, 未嘗不汗流浹背, 面發赤色. 雖中夜思至于此, 不覺發憤起坐, 以至達曙. 或値春晴秋霽, 天氣昭朗, 或値月明夜靜, 羣動俱寂, 或値名山麗水, 爽塏境上, 便覺心氣和泰, 多有涵養氣象, 依然有咏歸之興. 以此可見雖下愚之質, 皆得是性之明, 時時發見其曲, 但患其不能致曲耳. 余向學十年餘, 但知吾儒之可以辟佛, 而未能深知佛氏之學何如. 歲丙戌春, 偶在龍山僧舍, 有一老衲示所謂佛氏學文一經披覽, 便知先進諸老先生深排異端之意.

易象小訣【庚戌年間, 爲諸生始述, 以疾病, 至訟卦而止.】

"乾初九潛龍, 初九變則爲姤, 而下卦之巽, 反對爲兌. 兌澤也, 倒澤爲巽, 故有潛之象" ○"九二見龍在田, 九二之田象未詳. 或曰: '九二變則爲同人, 同人之互有巽, 巽之反對爲兌, 兌爲剛鹵之田, 故有田象.' 於理似通" ○"九三終日乾乾夕惕, 九三變則爲履, 履之互有离. 离者日之象而三爲下卦之終, 故曰'終日'. 兩乾相接, 故有乾乾之象. 乾在後天之位爲戌亥. 日入之時, 故有夕之象. 离屬心故有惕之象." ○"九四或躍在淵, 九四變則爲小畜, 互體四爲兌之上, 故有淵之象, 兌澤也. 又九四變則爲巽, 巽股也, 故有躍之象." ○"九五飛龍, 九二九五變則上下皆爲离. 离者日也, 初出地上則有見之象, 麗于中天則有飛之象, 故二曰'見'五曰'飛'." ○"上九亢龍, 乾之爲卦, 在上爲天, 在位爲君, 在倫爲父, 在物爲老馬. 上極乎天, 位極乎君, 尊極乎父, 物極乎老, 故物之高者莫如乾. 上又在乾之極, 故有亢之象. 下卦之象惕, 上卦之上悔, 上之有心象未詳." "坤彖牝馬, 乾坤皆以馬取象, 則當以牝牡別乾坤, 故牝馬. 地道雖柔, 不健無以配天, 故曰'馬'. 馬雖健物, 牝者性順, 故曰'牝'. 六爻皆陰, 從當陰極而變爲陽則有馬之象. 終雖變陽, 初本於陰, 故曰'牝', 若乾龍之無首也." ○"初六履霜堅冰至, 坤六之取霜冰未詳. 雲峯胡氏曰: '霜一陰象, 冰六陰象.' 盖以卦義言之. 愚謂坤爲十月純陰之節, 霜冰固其時也, 故曰'霜'曰'冰'也歟?" ○"六二直方大, 二爲下坤之中, 故專以地形言也." ○"六四括囊, 六五黃裳, 荀九家坤爲囊爲黃爲裳. 愚謂以色言則曰'黃', 以對乾言則曰'裳', 以其包物言則曰'囊'." ○"上六龍戰于野, 其血玄黃, 龍乾象也, 而坤得稱龍何也? 陰極而變爲陽也. 坤順也而有戰象何哉? 坤上變則爲剝, 剝傷之象也. 上爲坤之一隅, 故有野之象. 野者郊甸之外也. 至於血屬坎而坤上稱之則未詳其義. 右按乾之取象, 多用互變之卦, 坤之取象, 多用本卦, 盖陽動陰靜之義也." "屯彖利建侯, 雲峯胡氏曰: '屯建侯下震也, 震長子有侯象, 初九之侯同.'" ○"初九盤桓, 震爲足, 故有盤桓之象. 六二屯邅亦此意." ○"六二乘馬女子十年, 說卦傳震爲善鳴作足之馬, 故有乘馬之象. 六二變則爲節之下兌, 兌少女也, 故爲女不字之象. 坎六震四爲十, 故有十年之象. 又上下陰陽爻亦爲十數. 易之取象, 神變不測如此." ○"六三卽鹿林中, 三之取象于鹿未詳. 或曰: '鹿指五而言, 皇極內篇鹿屬一陽, 坎之一

陽有鹿之象也.' 似亦通矣. 林中下卦爲震木, 互卦之艮亦震之反對. 上下皆木, 故有林中之象." ○"六四乘馬班如, 坎與震皆有馬之象, 故曰'馬'. 然六四意欲上進而旣離震馬. 又在坎馬之下, 故有下馬班如之象." ○"九五屯其膏, 坎屬血. 膏者血之凝也, 故有膏之象." ○"上六乘馬班如泣血, 馬象同六四之坎. 象血同六五, 然五陽故曰'膏'. 六陰故曰'血', 班如之象未詳." "蒙彖匪我求童蒙, 艮少男故曰'童蒙', 六五同." ○"初六刑人桎梏, 荀九家坎爲桎梏, 盖一陽陷于二陰之中, 故有刑人而桎梏之象. 然初六變則爲兌, 有和說之象, 故曰'脫桎梏'." ○"九二包蒙納婦, 子克家. 一陽陷于二陰, 爲包蒙之象. 互卦之上爲坤, 爲納婦之象. 互卦之下爲震, 有長子傳家之象也. 或曰: '九二變則爲坤, 故有婦之象', 亦通." ○"六三取女金夫, 六三變則爲巽. 巽爲長女也, 有取女之象. 巽之反爲兌, 兌金也而九二爲陽, 故有金夫之象也." ○"上九利禦寇, 上九以剛决之性, 當過高之位, 有擊蒙之志, 而下體之坎, 有隱伏之志. 藏叢棘之間, 則以上九之剛决, 豈無禦擊之勇乎? 故曰: '不利爲寇, 利禦寇.' 寇指坎." "需彖利涉大川, 坎水在上, 乾天在下, 水極于天, 天入水底者, 非大川乎? 故需有大川之象. 水氣升天, 結而爲雨, 萬物之所需而生, 故曰'需'." ○"初六需于郊, 九二需于沙, 九三需于泥. 乾陽在下, 以進爲意, 而大水在前, 故三陽爻皆以水之遠近爲言. 郊尙遠于水, 有平曠之恒而無衝激之患則曰: '用恒无咎.' 沙雖近水而不若泥之至襯, 故曰: '小有言終吉.' 泥則波濤擊盪之所, 故曰: '致寇至.' 曰'郊'曰'沙'曰'泥', 乾雖無三者之象, 皆以坎象言之." ○"六四需于血, 出自穴, 坎之屬血, 見于屯五. 坎窞也窞穴也, 上六同." ○"九五需于酒食, 雲峯胡氏曰: '酒食坎象.' 愚謂九五變則爲坤, 坤土也, 土作稼穡, 稼穡作甘, 故九五有酒食之象也." "訟彖利見大人, 利涉大川, 九五爲乾卦人位, 故曰'大人', 坎在下故曰'大川'." ○"初六小有言, 需之六二訟之初六, 皆曰: '小有言.' 其取象小有言之義未詳. 或曰: '需之在互爲兌, 訟之初六變則亦爲兌, 兌爲少女爲口, 故有小言之象.' 理或似通." ○"六二邑人三百戶, 邑人三百. 未詳取義."

三學齋規儀

每月朔日之右夕, 師長各率所敎子弟齊會, 信宿于齋中. 朔日五更, 齋生年少一人鳴鼓三聲, 告起寢. 諸生齊起, 盥頮服儒服, 明燈于上下齋, 然後師長整衣冠列坐北壁下. 掌議一人、執禮一人、有司二人, 導齋長以下諸生, 行拜揖禮于庭, 然後齋生少年鳴一聲, 告請坐. ○齋長引諸生列坐下齋, 然後有司奉書案及講籍筆硯, 跪進于師長前, 拜告請講. ○有司分東西相向坐, 然後當講二人挾冊進立席端, 行拜禮, 然後奉冊跪置案上, 退坐于席. ○師生講問之時, 在座諸員毋得雜以他語諠笑失儀, 肅容莊敬, 一意講論. 講論之間, 開顔和氣, 務盡義理, 涵養從容, 講生雖或未通, 不宜遽加叱怒, 亦不宜嘲戲玩狎. ○講畢, 有不通者, 有司具楚請罪, 師長施罰. ○執禮一人, 引齋長以下列坐于下齋. 論諸生中有所失禮者, 重則告于師長施罰, 輕則自斷行罰. ○有司具紙筆請題, 掛于壁上. 諸生以此謄書而退, 毋得失次奔走笑語諠爭. ○整疊紙面必方正, 書畫字行必端諧. 紙不整齊, 書雜亂草者, 所製雖巧, 置之下考. ○正書來呈于上齋, 然後退歸下齋. 整疊書冊筆硯, 端坐以待, 毋得奔走譁溷窺覘上齋. ○考較等次, 上齋有司高聲呼出, 諸生以次列立于庭, 行拜禮而退. ○凡講禮之儀, 望日亦如上儀. ○入齋諸生, 每日昧爽而起, 盥櫛整衣冠斂枕具. 長者淨掃上下齋堂, 少者灑掃中庭. ○端坐各次, 敬對書冊, 平聲怡氣, 徐徐讀誦, 以次進拜于師長, 如朔日講問之儀. ○師長施敎, 弟子虛心平氣, 拱肅而聽, 毋得惰容偃仰, 游目振手. ○師長施敎畢, 恭揖而退, 各歸坐次, 疑則請問. ○自朝至暮, 整衣冠束帶, 立必端肅, 坐必方正, 毋得免冠偃臥, 解帶箕蹲. 不得談說博奕, 評論女色, 爭辨是非, 詰論長短, 惟務讀書, 講討義理, 辨難禮節. 或看說子史, 或執筆書字, 或談古人制行高義, 或詠古人詩什雅韻, 或於讀書之暇, 與冠童儕輩, 逍遙堂宇, 徜徉庭階. 敍氣伸志, 而行步遲重, 擧止端詳, 毋得少長失序, 疾行奔競, 鬪智角力, 致恠瞻聆. ○齋堂楹宇, 毋得畫刻, 窓戶板壁, 毋得書字. ○夜則正理几案, 靜闔窓戶, 明燈端坐, 尋繹舊讀, 深夜而寐, 整疊書冊, 高束于架上. 各就寢所, 如或春秋惠節月霽風良之宵, 則徘徊庭宇, 養氣淸神, 或集古人佳句, 或號韻作絶, 毋得從便就寢, 鼾睡昏寐. ○待長者以敬遜爲主, 待同列以和謙爲主. ○凡爲齋生者, 立志趍向, 期以遠大爲心, 至於鄕曲瑣屑鄙細之事,

毋得掛口談論. 立心以公平正直爲意, 至於世俗偏私回僻之言, 毋得霎時說道. ○年長者未寢, 少者不得先寢, 少者已起, 長者不得獨臥. 凡出入, 年長者起動則少者不得坐視. ○齋堂門內, 各家婢僕非有使令幹事, 不敢無故輒入. ○凡朔望設講之時, 各家奴僕不敢以私事不緊之故, 紛紜來告, 致澆講論禮席. ○朔望講日, 便服者不敢入齋門. ○凡齋生毋得引私客雜人, 打話齋堂. 右二十四條, 上下齋執禮掌之, 朔望講時, 引諸生列立于堂下, 高聲通讀, 使之悉聞. 齋生各書一本, 敬奉行之, 如有犯此規儀者, 朔望日行罰以警, 辛丑仲春下浣, 始立規儀.

南圃集

卷之十二

族禊劵後贊

稽古氏族, 金祖金天, 於休我宗, 紀自聖鮮, 粵徙姒鄉, 世九今傳, 澤斬君子, 業墜青氈, 不有孝睦, 何用承先, 式自此始, 維新厥係, 父父子子, 兄兄弟弟, 世疏情密, 服盡意締, 靈江若帶, 錦岳如礪, 世世遵守, 敬服無替.

泣麟贊

爾蹄圓, 誰知其非馬, 爾頭角, 人多謂爾牛者, 爾有德, 宜大隱乎馬牛之野.

歌鳳贊

烏啄壤虫, 鵄爭腐鼠, 猶有知覺, 色斯遐擧, 况爾有千仞之翼, 盍歸乎烟霞之所.

銘

窓銘

夜已子後, 鷄將鳴時, 主人未寐, 一室無私, 外客偸賊, 伺候覘闚, 窓乎愼之, 麾而却之.

戶銘

一室幽深, 玄靜安肅, 主人深居, 寂感隱默, 仁風發揚, 吹自嵎峽, 戶歟愼之, 闢而納之.

改過銘

人非至聖, 孰能無慾, 慾而能克, 作聖之則, 人非至誠, 孰能無過, 過而能改, 習與性化, 慾之始萌, 分毫至微, 過之造端, 絲忽其幾, 幾微不察, 任他放過, 一息之頃, 已陷水火, 旣陷之後, 雖悔何及, 肆惟哲人, 能謹其幾, 曾愼厥獨, 思戒其微, 獨達治平, 微致位育, 隱顯同途, 中和一轍, 志士能守, 守之於行, 過必能知, 知必能正, 外制內安, 己克禮復, 苟非至勇, 詎斬厥慝, 旣精旣一, 四體皆春, 軆立用行, 天下同仁, 嗟嗟小子, 惟敬是明, 視聽言動, 非禮勿行, 作辭銘骨, 惟神是質.

神明主君克外賊頌

正路路衢, 玉淵淵流, 天作名區, 千層絳宮, 屹立虛中, 巖巖崇崇, 誰實尸羣, 作宰統殷, 惺惺主君, 主君神明, 用天之經, 無賊不平, 蠢茲耗賊, 惟欲是隙, 乃命斯逆, 外誘五官, 五官從慢, 與賊同般, 內蠹六府, 六府耗蠱, 奉賊作主, 意馬騰踏, 于彼服愜, 來我作刼, 君用憂厲, 與神爲契, 奉命上帝, 爰定氣軍, 志帥意羣, 咸統於君, 禮兵秘秘, 義騎犖犖, 威儀三百, 君用前騎, 鑿城縱牛, 如蕩燕寇, 斫樹發弩, 亂接兵, 魏龐失路, 兇耗旣蠲, 淵流始涓, 廓乎如天, 鷹揚玉灣, 馬臥仁山, 將凱師班, 淫氛永屛, 天君泰靜, 百體順命, 遂開靈臺, 安宅宏恢, 萬善自來.

箴

主一箴

我有至寶, 藏在丹田, 誰實予之, 初賦于天, 不依形立, 不與物遷, 至中至明, 晴天午日, 孔仁孟善, 堯中舜一, 我亦得之, 其敢不敬, 神質乎傍, 帝臨于上, 昔我冰炭, 貳參其本, 今旣復之, 粹玉斯蘊, 然吾氣質, 變化無常, 安保來日, 罔念不狂, 勿謂旣一, 勿使助長, 平平正正, 勿正勿忘, 若拱圭璧, 擯相侯王, 輕輕略略, 不徐不疾, 若執君組, 調禦乘六, 斯須或忽, 賊瞰吾室, 一日復禮, 天下歸仁, 死而後已, 嗟我主人.

警學箴【壬寅夏, 諸生會三學齋以事製述, 書此以警之.】

頭雖熱, 冠不可免, 體雖汗, 衣不可袒, 外體不端, 內亦不定, 發爲辭章, 孰肯爾敬, 股雖僊, 坐不可倨, 氣雖倦, 臥不可叙, 形貌旣慢, 志亦不正, 出爲文筆, 安得定靜, 宰墻可戒, 禹陰可啇, 曾書警悖, 砭愚箴謔, 業雖末藝, 焉忽實德, 小子敬受, 毋謂我惑, 一乃心力, 終始不息, 文詞德業, 兩兼無忒, 揭諸齋壁, 朝暮寓目.

自警箴

天乃生汝, 降之于世, 名之曰人, 具汝四體, 稟之以善性, 投之以美質, 心爲之師, 志 一作氣 爲之卒, 體之於外, 耳目口鼻, 定之於內, 仁義禮智, 上帝謂汝, 投爾虛靈, 勿內荒爾心, 勿外慢爾形, 惟敬惟義, 以直以方, 上帝謂汝, 稟爾知覺, 勿怠舒爾氣, 勿放過爾慾, 惟精惟一, 以克以復, 上帝謂汝, 賦爾于命, 勿輕爾作爲, 勿忘爾動靜, 惟莊惟愼, 允率厥性, 上帝謂汝, 惟明作聖, 勿汶汶而昏, 勿狷狷而狂, 勿隱善而藏, 勿揜惡而長, 惟明惟顯, 用表爾光, 嗟汝小子, 帝旣命汝, 毋怠汝躬, 允承帝命, 毋謂獨而不愼, 毋謂暗而不敬, 上帝臨汝, 必降爾殃, 內外莊敬, 毋或敢忘, 表裏端一, 毋忽汝執, 上帝臨汝, 必降汝福, 夙興夜寐, 毋怠爾容儀, 取舍公明, 毋淫爾心思, 上帝臨汝, 必降爾

罪, 毋貪不義財, 毋慕非禮貴, 上帝臨汝, 必投介祿, 嗟汝小子, 必愼必篤, 夙夜孜孜, 毋虧上帝命.

自新箴

命之赫然, 降之自天, 降之自天, 天下來宣, 人於是得, 乃謂明德, 降之自天, 明且潔焉, 旣明且潔, 廣大通徹, 如衡之平, 如鑑之淨, 虛而且靈, 理事具形, 然或有蔽, 本然性閉, 靈者反塞, 廣者又窄, 昭然明鑑, 塵垢是陷, 潔然寶玉, 瑕玷是積, 非磨非琢, 玭不自剝, 不濯不硏, 塵豈自湔, 身上之垢, 浴以淸瀏, 心上之蔽, 非禮難洗, 沐矣浴矣, 我身潔矣, 滌焉濯焉, 我德新焉, 如何以新, 日新又新, 惟明之明, 因人以明, 不明不明, 不新不新, 明者在彼, 新之在己, 明之明否, 在我新否, 在我新否, 在心正否, 心苟正矣, 我自新矣, 我苟新矣, 德自新矣, 舊習革去, 新命有舒, 來染未全, 前正反虛, 惟我心身, 昏明並因, 我身我持, 我心我治, 惟新不新, 在己焉彼, 我欲明明, 胡焉不明, 我欲新新, 焉乎不新, 有惡斯去, 有慾斯沮, 窒慾行仁, 心德具新, 我德旣新, 民德可新, 民旣新矣, 國可平矣, 嗟余小子, 盍各勉正.

戒酒箴

志定氣安, 氣渾志滯, 性靜心正, 心昏性蔽, 氣爲志卒, 心作性郭, 亂卒毁郭, 惟酒斯極, 移志滅性, 喪身覆國, 惟玆小子, 其敢不勖, 惡旨好善, 崇伯是則.

戒色箴

我性其帥, 我體其塞, 旣稟是形, 形能生慾, 衆慾之中, 難制惟色, 蔽之于目, 其中則遷, 戕我至精, 奪我眞天, 父母遺軆, 天地賦命, 投之妖巧, 渾不知警, 敢不猛省, 廓然主敬, 若負此箴, 橫首同行.

戒惰箴

我惜七情, 惰惟無名, 凡我一志, 立不堅貞, 案伏其罪, 儘從惰生, 四體旣惰, 仍失聰明, 外旣不莊, 內從而慢, 淫思亂想, 仍此多端, 學墜而荒, 性隨而昏, 深思厥咎, 不敬爲過, 心若主一, 不與物化, 欽欽終日, 對越在上, 雖欲惰慢, 豈敢自放, 儼然天君, 惟我嚴師, 肅拱端默, 其敢小肆, 如或有違, 視此箴辭.

九容箴

疾趍而蹶, 非狂而何, 安行而舒, 君子之和, 足之輕重, 可觀其心, 欲速者趍, 血氣難禁, 足纔出門, 意越千里, 涵弘者徐, 禮敬所至, 一步方進, 意在一步, 勖哉小子, 毋蹶毋躁.【右足容重】手於一身, 用功之宗, 拜揖以之, 禮敬攸從, 操持擊拍, 奉受飮食, 日用萬事, 惟手之出, 一指妄動, 便失禮容, 措必以敬, 靜必以恭, 勖哉小子, 十手所指.【右手容恭】毋傾側視, 毋流邪睇, 毋疾顧眄, 毋嚬蹙眦, 驂不出式, 坐不外方, 一瞬或放, 陰怠蔽明, 視不見之, 殆乎暗盲, 勖哉小子, 非禮勿視.【右目容端】聲音律呂, 飮食言語, 興戎出好, 作善起爭, 其始維何, 由口而生, 八珍雖昌, 非義不嘗, 萬鍾雖積, 非禮不食, 欲訥而敏, 欲默而惺, 勖哉小子, 守口如甁.【右口容止】聲出於心, 心正聲靜, 聲使於氣, 氣厲聲猛, 如鑑之應, 如衡斯平, 不可揜矣, 誠難隱閉, 勖哉小子, 聲莫淫厲.【右聲容靜】首居體元, 五官所宅, 威儀之法, 瞻視之則, 愈敬愈莊, 惟肅惟恭, 翼翼竦直, 斯德之容, 勖哉小子, 毋或暫肆.【右頭容直】氣於一身, 養之爲難, 和之易流, 舒之太寬, 孰若正肅, 濟以巽和, 奉玉承盤, 履淵臨河, 造次或放, 蕩氣卽塞, 勖哉小子, 戰戰戒敕.【右氣容肅】一以直內, 敬之所在, 惟義之正, 可以方外, 方之有要, 立容爲大, 不偏不倚, 毋邪毋曲, 正大光明, 儼然惟德, 正內粹外, 表裏端肅, 心廣體胖, 聖賢同域, 勖哉小子, 敬佩訓戒.【右立容德】溫溫其氣, 凜凜其色, 和而有嚴, 肅而寬奕, 毋不敬矣, 充內粹面, 勖哉小子, 莊敬是勉.【右色容莊】

上梁文

錦城鄉校大成殿上梁文

棺天地葬日月, 難追【一作咸仰】四十表之德儀. 拱星斗挽華嵩, 盍創三百年之舊典? 玆倣澤宮之制, 聿建州序之規. 竊惟玆州, 箕尾南分, 瀛海東域, 靈江接海, 乘桴之睿化可攀, 錦岳蟠空, 小魯之至意庶述. 顧味儺於羅季, 正學無傳, 洎澆喪於麗朝, 聖澤未究, 公私爭效左道之施捨, 州郡專昧右文之作興. 唯眞聖膺五百之期, 重儒崇學, 幸玆土値千一之運, 建塾立庠, 寒溪洞門, 依俙闕里之絃誦, 廣灘源派, 髣髴沂雩之浴風. 逮蓂老而歲遷, 多蘚蝕而雨漏. 維嗣王甲子一紀, 乃歲星庚戌三春, 降香自天, 薰蒿乎楹奠若接, 如水在地, 昭明乎聖靈臨玆. 仍舊修基, 長府無譏於閔損, 晝宮有制, 山節豈歎於臧文? 曾參之財用有方, 孟軻之農時不奪. 上下棟宇, 取雷天於羲經, 東西序榮, 學霤風於周制. 升堂之十哲在列, 入室之四聖班行. 虞操猗蘭, 若聞在齊之三月, 姬亂河荇, 怳接返魯之七旬. 衰周暮天, 孕此堯舜氣象, 晚宋殘日, 啓我程朱嫡傳.【恐闕短句】道無間於夷夏, 四儒遵至敎於東韓, 德何殊於今古, 五賢奉旨訣於北學. 連宮合室, 共苾同芬, 洋洋乎左右後先, 穆穆乎鑽仰瞻忽. 三綱並立, 與殿隅而經天, 九法偕和, 齊宗桷而緯地. 皆仍聖世之明敎, 亦係賢府之重新, 周子邵州, 高明協卜, 文翁錦里, 儒化可成. 慶溢鱣堂, 歡開鰈域, 式陳兒郎之祝, 敢助梁欐之升. 兒郎偉抛梁東, 瑞日初昇積氣融, 欲識聖神眞妙跡, 海天時雨化春風. 兒郎偉抛梁西, 洙泗眞源接海倪, 日夕通潮連錦水, 從玆直到上天梯. 兒郎偉抛梁南, 南極樞星入海涵, 日夜扶持天地軸, 北辰相對共參三. 兒郎偉抛梁北, 衆星連繞環樞極, 天人豈可兩分看, 聖化無爲唯在德. 兒郎偉抛梁上, 七曜三光分萬象, 聖道如天豈可階, 羣蒙百代徒欽仰. 兒郎偉抛梁下, 章甫詩書春及夏, 六籍分明載道眞, 沉潛義理如親炙. 伏願上梁之後, 家談禮義, 戶誦詩書, 金石絲【一作笙】簧, 永奠萬代之樽俎, 文行忠信, 長留四敎之規矩, 羣彥鸞翔, 遠紹往聖之統緖, 諸賢鴻漸, 起作本朝之儒宗.

道民新舍上梁文

土而病木而顚, 先聖起宮室之制, 規之日測之景, 後生倣茅茨之儀, 詩稱胥宇之章, 禮有正寢之則. 主人農圃中迂學, 詩酒間醉翁, 志壯畫龍, 未得點睛之妙術, 心存買櫝, 徒起還珠之浩嘆. 西河之索居無聞, 北海之化羽未學, 原生貧賤, 縱慕至樂之曲肱, 元亮屢空, 寧無可安之容膝? 玆効南村卜宅, 竊倣北山幽居, 海外名區, 近接六鰲之背, 湖陽勝塏, 平挹三山之濱, 新都永平之南, 舊縣道民之曲, 山盤谷轉, 足數李愿之居, 水廻郊平, 人稱仲長之宅. 辰旣良兮日吉, 架竪棟兮橫樑, 聊揮端毫, 用贊工績. 抛梁東, 海外丹邱若可通, 從此直望靑鶴洞, 乾坤日夜泛環中. 抛梁西, 錦岳靈灘秀氣齊, 郊外百年烟月夕, 一鋤春雨渡長溪. 抛梁南, 月出靑峯割碧嵐, 山外瀛洲如可接, 海光天地尙涵三. 抛梁北, 天柱北辰拱北極, 梁甫大吟吟正苦, 衆星錯落連南漠. 抛梁上, 九萬長天積氣蕩, 仰面不堪爽我神, 分明日月臨吾顙. 抛梁下, 萬古坤維駕牝馬, 能發休徵作嘉祥, 一區和氣千春夏. 伏願上梁之後, 災殃永息, 園圃長春, 絃誦詩書, 戶充鄒魯君子, 家傳忠孝, 室有河洛純風, 夢叶熊羆, 永服螽斯之慶, 卜吉龜蓍, 允享魚矣之祥, 其始自今, 用傳無極.

祭李惺菴文

維歲次辛丑八月丁未朔丁巳, 後學金萬英, 謹遣家甥文鳳儀, 奉淸酌草果之奠, 敬祭于惺菴李先生靈座前. 嗚呼! 世之以學爲名者多矣. 然門庭各殊, 路脉多歧, 在湖中以正學爲心, 庶幾於程朱家法者, 千載之下, 一存翁而已, 寥寥百年間, 更無能倡之者, 先生之出, 幸當此時. 先生以潔素恬靜之姿, 安詳溫粹之氣, 早謝世穴, 專意斯學, 知庶事之必本於心則以存心爲要, 知心軆之必安於靜則以直內爲本, 是以學易而先究乎萬殊一本之域, 【缺】存而最明於謝氏論敬之旨, 嗚呼! 先生之學, 可謂有本矣. 策名登第, 官歷淸要, 恩綸累降, 懇命峇至而一不出. 不仕無義之訓, 非不預聞, 而吾斯未信之道, 有所篤信. 故獨抱遺經, 半世竆谷, 若將終身, 念絶榮進, 嗚呼先生之志, 可謂篤實矣. 雖然當兩廟賓天之日, 輿疾千里, 奔哭路左, 値餓殍盈塗之時, 憂惶若己, 拜章言事, 嗚呼! 先生之於世, 可謂將有志矣. 所可痛者, 方學成功熟之際, 益將大肆力於居敬益將大肆力於居敬理成己成物之學, 則其造詣之至, 實德之成, 何可量哉? 而奈何天之稟賦, 始若可有爲者, 而終奪之速如此哉? 嗚呼! 以先生信道之篤守志之堅憂時之切, 而守約而守約巷, 志未大就, 人未有及詳知者, 而華簀遽易, 晩學失依, 則曷爲不使我骨怵而魂悲, 係之以長慟也? 嗚呼! 年前之拜, 明訓丁寧, 繼以牘, 警發提撕, 約我之望方篤, 安仰之痛遽作. 今聞體魄永斂窀穸, 而賤疾纏躬, 挽紼斯違, 瞻望南雲, 精爽蜚越, 替人奉酌, 敢告哀辭. 不昧者存, 庶假卑誠, 尙饗.

又祭李惺菴文【爲蓬山書院儒生等作.】

名儒宗適, 隱賢家法, 姿稟旣異, 世學傳業, 早擢國賓, 中悟道的, 名山靜室, 左圖右籍, 易左圖右籍先天, 心存未發, 操養有方, 近思眞訣, 欽欽程敬, 惺惺謝學, 誠服篤信, 終期其極, 實充名發, 在家聲達, 綸音累降, 馹召頻篤, 柒雕未信, 原生不仕, 守約居敬, 期見大意, 蒲車未駕, 伯淳先亡, 良金鏟精, 粹玉理光, 遺篇無主, 瞽學奚式, 永平東崖, 中峯北麓, 命詞祀賢, 作我矜飾, 小

子樞衣, 深荷獎則, 玆將安仰, 無所考德, 謹具菲薄, 誠陳悃愊, 惺一不昧, 降格衷曲.

祭鹿洞書院崔山堂追配文

名都著望, 慶積坤六, 吉士弘儒, 世襲蘭玉, 琴書名節, 存養宿德, 顯允先生, 家傳正學, 魚川鳥雲, 因不失親, 時雨而化, 鉅賢之門, 於惟大東, 澤斬仁賢, 降羅迄麗, 學祖烏川, 金鰲再傳, 齋私淑, 睡翁暄翁, 操戈入室, 先生心法, 妙詣師門, 斯道浩浩, 下手無垠, 明倫立敎, 擿埴冥行, 先生尊信, 父母神明, 形命[1110]無形, 養省有法, 敬惺規則, 謝衍程式, 先生服膺, 怳然自得, 卷懷山堂, 志莘希巷, 傳擬無名, 詩愛擊壤, 寬閑弄丸, 得我攸止, 力排異敎, 倡明正理, 軆立形後, 用具未始, 一言昭晣, 原本出天, 顔生早世, 格言無傳, 伯淳先亡, 名聞播人, 餘芳遺馥, 立懦惺頑, 荒鄉鄙污, 久稽褥[1111]儀, 百代公論, 愈遠不淄, 縫掖咸辭, 不咨謀諧, 靈峯西麓, 德水南滸, 有堂巋然, 名祖神宇, 配享涓苾, 合祀同室, 崇德尙節, 永傳無極, 非私二公, 幷勸來億,

存養先生神位前告辭文

山堂正學, 端緖淵源, 家法師門, 兩盡罔愆, 禮合配祀, 並饗罍爵, 焞龜兆正, 芬涓叶卜, 奉配神位, 敢伸虔告.

祭龜潭江舍開基文【爲吳侄再發作.】

烏山縣南, 龜潭磯北, 一邱圓淨, 衆秀咸集, 流通錦湍, 峙自光嶽, 近拱南德, 遠引靈月, 大野寬平, 前後鋪氈, 龍虎蹲, 融結山川, 聿爲名區, 有臺有淵, 想昔先人, 高架華椽, 翼然甍桷, 丹堊奐侖, 蘭翁詠壁, 苔老題楣, 赤鷄兵燹, 天

1110) 形命 : 문맥상 ‘性命’의 잘못인 듯하다. 최충성(崔忠成)의《산당집(山堂集)》〈산당선생배향축문(山堂先生配享祝文)〉에 ‘性命’으로 되어있다.

1111) 褥 : ‘縟’의 잘못인 듯하다.

地交羅, 禍延回祿, 棟宇成燼, 荒榛百年, 行路嗟愍, 藐余裔雲, 克承先志, 芟蕪除蕁, 啓荒頹址, 文窓縱乏, 白屋可起, 荔丹非產, 麪醑將誠, 浴振沐彈, 齊心約情, 氣仍薰蒿, 嘏我衷赤, 佑我保我, 惟神所福, 永蠲災眚, 長延康吉, 戶鎖雲嵐, 軒納風烟, 心閑志樂, 老漁釣天, 久傳來世, 承我福田.

祭移家後土神文【乙丑正月十六日乙亥】

南陽之草廬始成, 持敬乃非長嘯, 晦菴之土祀有禮, 宿齋敢告短辭, 敬以遠之, 矧可射也? 主人某, 經鋤身世, 淸謹遠慕淵明, 山水素心, 幽閑近學陶退. 非敢蠱上, 竊濫乾初, 樂峙樂流, 寧學仁智而未就, 求名求利, 遠唾阿世而小成. 詠棠棣之詩, 惟願父母其順, 誦坤二之戒, 但求敬義直方. 今玆道民舊村, 世稱侍中故地, 松篁帶淳古之風味, 禽鳥喜山人之義軒. 肆築王通之弊廬, 生涯數秩經史, 乃葺玉川之破屋, 心期三傳春秋, 期酌醴醑一觴, 敢獻后土再拜. 齊明盛服, 怳怳乎悽愴薰蒿, 寅畏肅莊, 洋洋乎若在其上. 薄奠雖賤, 誠意可歆. 神其祐月夕荷鉏之此身, 安懷經抱義之初志. 無罔[1112]之至, 冰釋霧消, 不祥之來, 雲捲席撤. 浴乎沂風乎舞, 長占百年春風, 宜爾室樂爾家, 永享萬世和樂.

祭砥潭祈雨文【辛丑夏, 爲永平使君蔡忠立作.】

水維坎德, 陽正陰中, 矧玆澂潭, 乾九靈宮, 能興雨澤, 膏我羣生, 屬時艱虞, 饑饉荐嬰, 生靈困厄, 屍塡溝壑, 維神降監, 詎無矜恤, 況今民命, 都係麥農, 旱暵兩月, 焦盡芃茸, 哀我天民, 命迫涔魚, 昨日油然, 喁望其蘇, 云胡雩霎, 曾不崇朝, 邑宰不職, 神誅所攄, 罪丁厥躬, 赤子何辜, 玆深恐惕, 洗心滌膚, 虔誠披悃, 恭修忠告, 潔牲香醑, 兼陳芬苾, 維神陟降, 歆我赤悃, 駕風鞭霆, 騰天聳地, 霈霈甘澍, 八區同惠, 淫淫至澤, 萬品俱沐, 永世報祀, 神享厥福.

1112) 無罔 : 문맥상 '誣罔'의 잘못인 듯하다.

墓誌銘

獻納任公墓誌銘

公諱器之, 字國華, 豐川人. 祖諱允臣官觀察使, 考諱鐭官光陵參奉贈執義, 世稱鳴皐先生. 公天姿卓越, 稟性仁厚, 文章學行, 爲世所推. 年纔弱冠, 生進俱中, 戊午增廣, 對策登第, 歷職憲府, 諫院吏部, 轉拜獻納. 晩年卜居, 南平望山, 考終于第, 墓在治南昌屹國師峯卯坐之原, 有碣, 先生嘗製誌銘, 而風磨雨湔, 逸而不傳. 故今採任西河所製行狀中, 錄于本集爾.

禦侮將軍南挑浦萬戶梁公墓誌銘【幷序】

吾鄕之禦侮將軍萬戶梁公下世之後, 襄事將有日, 公之適孫孤有源甫, 屬于不佞以相樹誌之使. 不佞以情義分密, 莫能辭, 略誌顚末, 以備不朽之萬一. 竊按東韓史鎖, 梁氏之先, 出于耽羅,【缺】婦之種, 遂爲梁係之鼻祖. 史氏已書于傳紀, 昭然若日月而照于東土人耳目, 又何强記? 逮至後昆, 有諱泰始公仕于百濟, 世居帶方, 賜貫龍城, 其後移居于光山. 至公曾王父直長公, 與六峯朴先生祐, 贅入于吾先代, 仍居于羅州, 乃成均生員金孝祥之女婿也. 高王父諱顯民通訓大夫弘文館典翰. 曾王父諱鐵衡宣務郞司饔院直長. 王父諱澄贈通訓大夫軍資監副正. 考諱福壽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配坡州廉氏從仕郞寬之女, 以皇明萬曆紀元癸酉正月二十四日, 生公于羅州治南馬山面龜業里別墅, 實我國宣廟朝六年也. 公諱時立字【缺】. 公生有美質, 氣度不羣, 自在成童, 儼有成人之意氣. 及至壬辰之歲, 國祚中否, 島夷外猖, 越六年丁酉, 賊兵蹂躪兩湖. 公之一家父子兄弟盡衂兇鋒, 惟公一人僅獨保生於乾坤瘡痏之中. 公時年才二十有餘, 收拾父母軆骸, 歸葬于先塋之側, 居憂三年, 不踰【一作違】禮節. 服闋慨然以弓馬爲意, 不肯屑屑留心於文墨之上, 盖意有所在也. 越四年癸卯, 國家設廷試取人, 公擢參是選, 全羅兵使申慶裕榜下也. 至光海六年癸丑, 除公守門將, 加資禦侮將軍, 己未除南挑堡萬戶, 辛酉遞職. 時當昏朝, 權貴弄柄, 狐媚當途, 阿幸市利者盈路, 而公獨浩然脫意, 卜藏于先公所營三鄕別業, 築室于西湖之涯, 謝絶世事, 嘯詠自許終其身而不變. 至皇明南渡四年, 僞淸僭號改元, 順治六年之戊子六月

二十九日, 卒于三鄕第, 享年七十六歲. 是年某月日, 歸窆于華山先塋, 同兆異穴, 某坐某向之原. 公自小少, 聰明果斷, 毅然有立, 疾惡好善, 不拘小節. 中遭不幸, 一家父子全陷于賊手, 憤然以爲不共戴天之讎, 而竟以弓馬發身者, 志豈在小? 而本以湖山實[1113]宕見終, 嗚呼惜哉! 右承旨林閑好令公堜作詩挽公曰: "少年投筆封侯志, 南北腥塵擬掃淸. 可惜無人知楚璧, 蹉跎白首竟無成." 盖其志槩, 爲一時士大夫所推許者如此. 公配全義李氏通禮院引儀暹之女, 有丈夫子五女子一. 長曰悅娶南平文氏學生弘儉之女, 先于公八年而卒. 次曰忔曰協曰秀堅, 無後而夭折. 季曰恰娶利川徐氏學生玧之女, 女適學生羅致素, 報恩縣監德峻之子. 孫男五人曰有源曰次一曰後一, 長子悅之出. 曰厚源曰達源曰國一, 季子恰之出. 孫女三, 長孫女一適士人金俶, 一適宣傳官崔元立, 一適幼學金尙秉, 季孫女幾, 有源前娶棠岳金氏學生泰浹之女, 再娶兆陽林氏僉知時潤之女, 今以適孫居憂, 博聞强記, 英藻過人. 次一先夭, 後一未娶. 厚源娶錦城吳氏學生以望之女, 達源娶光山金氏幼學尙倚之女. 側室子五人女子一, 一曰憹二曰憬三曰惲四曰忕五曰忭, 女適金德昇. 家旣仍有源甫手錄之狀, 略敍而係之銘, 銘曰: 瀛海靈氛, 方丈精純, 惟公百代, 乃永厥芬, 毅然剛果, 傑然英特, 七旬湖山, 能享淸福, 顧閱身世, 六秩寒官, 人爲公惜, 公反爲安, 華山舊隴, 錦里新阡, 不泯者存, 於千萬年,

1113) 實 : '佚'의 잘못인 듯하다.

南圃集

卷之十三

反春秋論論

愚按老泉蘇氏春秋論曰: “位者公也, 道者私也, 私不勝公.” 其意以爲夫子雖有道未得其位, 私道而不公, 以一人之私, 公天下之賞罰非也. 卒乃隱然自解曰: “夫子借魯以天子之權, 夫子自借以魯史之名而作春秋.” 愚敢反其說而論曰: “老蘇之說非也, 以凡人之見, 逆聖人之意, 迂回巧曲, 不合不公, 大失春秋之本旨也何則? 通天地而不私謂之德, 達古今而大公謂之道, 道而可私, 位亦公乎? 通天地而不私, 故德合天地, 達古今而大公, 故道合鬼神, 然則夫子天地也鬼神也. 至大至廣, 不可名狀者天地也, 變化神妙, 不可知之者鬼神也. 吾之德能配合于彼, 則一箇爵位, 得亦可也, 不得亦可也. 周公旣沒, 大道不立, 文武已遠, 王綱墜地. 亂臣賊子, 接跡天下, 而三綱九法, 海渴山崩, 天地不得爲天地. 而夫子之天地卓爾獨立, 則夫子豈可以區區爵位之嫌而不援之以道乎? 此春秋之所以作也. 故春秋之法, 天地也鬼神也. 天地鬼神, 寓於夫子之筆而賞罰之, 其所以賞罰, 乃天賞罰之也. 故曰: ‘知我者春秋也, 罪我者春秋也.’ 此夫子之大意也, 若曰: ‘以位爲公而道爲私.’ 桀紂幽厲公也, 周公孔子私也, 而可乎? 至於借魯以天子之權者, 尤見其誤矣. 魯之禘, 夫子之不欲觀, 以其非禮也, 則況可以賞罰天下之權, 借魯而自借之歟? 決知其大不然也. 故天下有道則道在於人, 天下無道則道在於天. 在我之天, 至誠無息, 則以在我之天, 奉在天之命, 賞罰天下之善惡, 以正萬世之倫紀, 非天之所以責之夫子者耶? 知是責之在我而反以爵位之嫌, 負上天責任之重, 豈夫子之意耶? 此春秋之所以作也, 蘇子以煦煦小見, 逆測天地鬼神而不可量, 附會以私意, 求其說而不得, 假魯權之說而欲明聖人之意, 吁亦拙矣亦淺矣. 愚故曰: ‘以凡人之見, 逆聖人之意, 大失春秋之本旨也.’”

田橫論

愚按田橫以二人客五百士, 入于島, 漢招以王侯之禮, 盖慮其或作亂也. 橫乘傳至洛陽, 未及朝三十里死之, 死之後, 二人者與士五百皆自殺. 夫使五百二人, 捨生而取義, 視死如歸, 諸田宗已滅而橫亦無後可立, 彼五百二人者, 有何所望而能成其義歟? 胡管見所謂無所爲而爲之, 眞義士也者, 是也非耶? 雖然愚嘗執其中而論之曰: "橫之死, 可謂高矣, 士之死, 亦可謂義矣." 彼橫者齊之公子也, 建客松栢之歌, 使千載下, 耳目所照, 莫不絶悒, 况橫者耶? 以橫之賢, 挾五百二人之義, 當沛公扶義入關之日, 仗劍渡河, 與子房蕭曹共肩而贊成寬大長者之業, 據關一號, 雪松栢餓死之恥, 然後列書署冊, 金櫃之盟, 王齊一方, 南面稱孤, 使田氏之宗, 血食百世, 則人誰不曰大丈夫哉? 此之不爲, 與慓悍小兒同事, 竟致顚覆, 此王陵母一婦女所羞而橫爲之耶? 設使橫未及事漢, 而事已至此則全齊七十餘城, 一破於韓信之手, 而國滅君亡, 宗廟邱墟, 橫之大讎, 漢亦秦也. 爲橫之計, 當痛哭號天, 期以復讎, 連五百之死士, 入據十二强齊之境, 則百萬之衆, 可一呼而得矣. 負四塞之固而揖讓臨淄之上, 以致天下之士, 傳檄韓魏, 奮義而西, 則當其時, 中國之兵, 罷於劉項百戰百敗之餘, 呻痛瘡痍之聲, 達于四境, 彭王之變, 帝自出征, 而趙代邊兵, 一不庭召, 白登之圍, 蕭曹斂手, 計無所出, 則况可當於五百義士衝突之鋒耶? 然則漢齊雄雌, 未可必矣. 嗚呼! 以橫之賢, 計未及此耶? 假使天命人心已歸於漢, 人謀雖臧, 無可奈何, 則當背城一戰, 死於復讎之大義可也, 一見漢使, 誘於大王小侯之利, 千里乘傳, 奉命奔走, 至於計縮勢窮然後, 伏劍溝瀆, 是何義耶? 愚故曰: "橫以小惠結人心則有之, 不聞其大義也." 謹論.

傳

公孫航傳【並序】

公孫航江東人也, 或曰六人. 字海卿, 黃帝子也, 帝鑄鼎於荊湖, 共化狄從焉, 見浮葉在湖中, 帝感而生航, 使二人爲傅. 及帝御龍駕而賓天, 航乃居于湖海間, ▩公孫姓. 至禹時, 佐禹導水有功, 龍門之役, 江漢之注, 航之功居多焉. 及禹玄圭告成, 拜航爲九州通津伯. 嘗與禹濟江, 爲黃龍所負, 幾不渡, 航笑曰: “先帝御龍於鼎湖, 予又爲龍所負, 豈非命歟?” 顏色不變, 俄而龍乃去. 航爲人身長數十丈, 大可百餘圍, 軒騰磊落, 有憑河之力駕海之威. 其性能與世浮沉, 接人不分善惡貴賤而皆受容歸, 但不喜遊山與陸行矣. 及禹崩夏德衰而航亦老矣. 履啓卽位, 日事淫虐, 與航爲長夜之樂於酒池中. 航之子刀諫不聽, 刀與務光走于江湖終不出. 至湯伐桀, 航走于楚澤. 周昭王南巡至楚, 同載于楚澤中, 與王同溺焉. 航有三子, 長曰艦, 季曰方, 刀乃其中子也. 殷末刀與呂尙釣于東海, 及西伯將獵, 呂尙歸周, 刀愀然不悅, 去來江口淸涯, 以終其身. 其子孫散居川澤者, 皆以淸高自厲, 未嘗至於宦海要津, 盖刀之遺風也. 其後越范蠡·漢嚴子陵·晉陶元亮·唐張志和·宋林君復淸節之士, 皆與刀之子孫同遊焉. 季子方無他技能, 世爲津吏, 以取其直爲生. 其長子艦, 爲人宏傑寬大有大略. 從父航居於楚, 秦始皇時, 與徐市相善, 謂市曰: “始皇貪戾暴虐, 生民煎熬, 如水益深. 子何不以神仙之術說上, 仍爲圖生之地?” 市乃西入關, 見上請與童男女三千人, 入海求三神山不死藥. 上方求仙術, 信市言從之, 市乃與艦載三千人入居海島. 聞山東豪傑並起, 與其徒數千, 沿海至河, 將與沛公合兵入關. 時章邯擊趙, 楚救之, 項籍殺卿子冠軍, 以兵至河. 艦說羽曰: “邯不足擊也, 趙高用事于中, 與邯有隙, 是內外不相應也. 爲今之計, 不若與艦浮于河, 直抵函谷關, 與沛公合勢攻秦, 根本旣鋤則邯不足擊也.” 羽怒曰: “我方率十萬之衆, 攻無道秦, 艦乃以淺謀撓我, 以沮士卒心.” 乃沉艦于河, 其徒數千皆沉焉. 艦潛出, 與其徒南流江漢, 將與漢王合從. 會羽弑義帝於江中, 漢王用三老策, 縞素伐羽, 南浮江漢而下. 艦使裨將艘將數十萬衆, 從王下彭城, 艦自河入關, 與蕭何轉漕運糧, 終始不絶, 漢以此得天下. 高祖封艦爲河間王兼轉運使. 至武帝征伐四夷, 皆以陸

軍取勝, 艦不習陸戰, 故無功. 及兒寬卜式之徒, 以塩鐵爲利, 艦以轉漕立功, 大得寵焉. 及卒其子軸當光武渡滹沱河時, 不及從焉, 以此見黜. 及蜀漢赤壁之戰, 從臥龍大有功焉. 自此其子孫世爲水軍帥, 立功者不可勝記. 惟最可惜者, 宋崖山之戰. 軸之子孫萬餘衆, 統於張世傑, 世傑謀猷不長, 竟使數萬之衆, 爲犬羊之所呑, 通天之痛, 曷其極哉? 故其子孫散居四方外夷者, 彌漫天下, 而獨不居北胡之地, 北胡亦畏縮不敢乘其間, 上古神明之種, 吁亦奇矣. 史斷曰: "用人材, 不可不愼也. 在上者能用之則天下莫不賢, 不能用之則天下莫不惡. 航一體也, 佐禹立功, 平定水土, 傑然可觀也, 卒與桀沉淫, 竟死於楚澤之解弛, 何其累也! 亦不可以世類用人材也, 航之子刀淸高莫比, 艦壯略魁偉而方老津吏, 爲人所役. 一本之出而賢愚淸濁若此懸絶. 此先王之所以世祿而不世官者也, 用人材者, 可不愼歟? 余與刀之族裔名捊[1114]者最相親, 將有同載浮海之志. 故述其世傳獨加詳焉."

梅先生傳【並序】

梅先生, 余之爾汝友也. 其名曰玉和, 世稱謂貞白公. 余以閼逢之歲, 受命于帝, 降來大塊, 住近東海, 瘴癘所逼, 雲霞所濕, 黃蘆苦竹, 朝暮延接. 無與開顔寫意, 偶逢先生於竹籬之下, 欣然作世外交. 盖其質品挺特不羣, 純粹溫潤, 淸香襲人, 和氣動物, 冰生玉壺, 雪暎蟾宮, 精瑩秀澈, 有荊璞之實, 而淡然之趣. 遇之幽邃, 薰芳有芝蘭之秀而潔貞之態焉. 若其實行則外圓而內仁, 體小而意遠, 辛酸氣味, 使人寒齒, 塵人俗士無不沫出而結舌. 然若使鍾鼎大人擧而措之鼎鼐之間, 能令五味各正, 大羹調和, 薦之郊廟, 施之朝野, 莫不允偕, 此先生華實兩全者也. 噫! 世之大嚼芻豢者, 徒事珍膏, 而使先生踽踽焉植立於荒草之野, 而樵牧者皆得而慢易之, 豈不悲哉? 然先生豈久住籬落下哉? 必有薦之金盤者矣. 故余定交而略叙其傳, 以見其事實云. 太史公曰: "先生之先, 在商高宗朝, 見用於調和元氣之任. 其後世無尊而用之者, 及宋林和靖友而信之. 然徒事其幽閑之趣, 而及其調和大味則蔑乎無聞矣. 雖然和靖之後, 幷其幽閑之趣而棄之, 悲夫! 然則能友先生, 同余者幾

1114) 捊 : 공손항의 후손들의 이름은 모두 '배'와 관련된 것이므로 '桴'의 잘못이다.

人!”【壬辰五月端午夜夢, 余遊於洌泉之邊, 有白衣使者楫余而言曰: “受命于上帝, 求文于足下.” 余曰: “所謂文者甚文字歟?” 答曰: “梅先生傳矣.” 余診製而忽覺, 乃一夢也. 仍怪而乃作其傳, 并書其事于下云, 盖記異也, 非敢誕也.】

檄

喩氣卒檄

維年月日, 丹陽都總大將志帥, 頒告于氣卒軍人等. 蠢爾四賊醜儔, 實是七田耗孼, 蜂蠆鴆毒, 悍馬銛鋒, 覘我空虛, 乘此不守. 初虞氏之假道, 漸喩以私, 卒玁狁之據原, 反肆其虐. 呴嘘山澤, 放千弩於斯須, 叱咤風雲, 紛萬變於頃刻. 來如驚雹, 去若驅河, 據安宅而爲危, 乘禮門而作亂. 非火而熱, 室廬斯焚, 不冰而寒, 谿壑乃凍. 肆我主君, 岐山一隅, 勢迫太王之艱難, 西蜀三危, 事急上皇之播越. 紅爐雖設, 難消白雪之蔽天, 玄錫未功, 尙見黃河之擘地. 誰能掃此陰獰, 重見主君容顏? 白虹犯陽, 秦兵乘勝, 黃霧蔽野, 漢日難明. 主帥一片意城, 三田主將, 山河異昔, 幾拭伯仁之涕流. 妻妾編行, 不釋齊人之板鍤, 聞扣鍾於夜半, 所嚮已明, 立勿旗於關中, 兇徒變色, 尙忍與賊兩立, 誓不共戴一天. 玆乃繼往聖謨, 奉命天討, 三符旣立, 剖竹勢成, 一機斯張, 鈞石可拔. 六轡在手, 駟不詭馳, 四維張前, 車不亂序, 必殲滅無遺育矣, 焉使其有餘蛗哉? 咨! 我氣卒軍人等, 革去舊塵, 咸聽新命. 悟昔時之物化, 覺今日之天通, 勇礪劍鋩, 割賊勢之要路, 一守門戶, 防外客之來窺, 毋使神守之鄕, 永作鬼瞰之室. 若不從我約束, 必有天命誅譴. 爾倘不信我言, 來見天君氣象. 是余忠告, 檄到如章.

光羅兩邑戰藝檄

竊惟弊邑, 以彈丸一小縣, 幸得接壤於貴州, 鷄鳴相聞, 犬牙互錯. 瑞嶽神光, 常挹于錦峀, 靈灘休氣, 遠透於樂浦. 山川之美, 人物之庶, 直不相上下, 而名公巨卿, 碩德鴻儒, 前後輩出, 炳耀竹帛者, 亦不相優劣, 則湖中千里地, 列郡碁布者何限, 而稱之名勝, 並數光羅者, 豈偶然哉? 況在昔者昇平數百年, 文物富麗, 聖祖神宗, 時雨之化, 而髦俊傑出之才, 萃於玆二邦, 四時嬉遊, 相與娛樂者, 無非詩禮之敎, 絃誦之懿, 則吾二邑白戰之戲, 於是焉肇矣. 馳章走檄, 列隊成行, 一進一退, 一勝一負, 雌雄判矣, 成敗分焉. 有似乎兩敵相對, 旗鼓成陣, 奇門正法, 各決其能, 故名之曰戰, 盖戱之也. 壬丁之後,

軍國多艱, 文明之會, 廢而不講者凡數十年. 往在萬曆崇禎間, 中興正治, 百廢具振, 斯文此學, 又得更張, 禮樂之風, 才藝之富, 尙或有因及之者矣. 嗚呼! 息壤在彼, 盟壇依舊, 而載牲之書, 棄而不講者, 今幾年矣. 興言及此, 不勝長息. 頃在我明府李斯文先生, 移書貴州, 勖以古義, 而貴州僉君子屛氣脅息, 堅壁固守, 東周之約從纔合, 而函關之秦兵不出, 則弊邑當製巾幗婦人之服, 深責仲達之悏弱, 而仁將多恕, 不困人於窮, 兵家貴正, 矜不能而持危, 不若各守封壃, 以禮相恤. 故班師兩階, 舞文舞者有年矣. 今又思之, 一榻之外, 豈可久容江南之肝睡哉? 願與僉君子其肯戰否乎? 二月十五日癸酉, 乃受脤之佳期也. 弊邑方將以詩禮爲師律, 禮樂爲旌. 孤虛旺相之天時, 用大易, 賞罰予奪之權衡, 法春秋. 建大將旗於壯元峯下, 布六花陣于仁德池邊. 四子嚴密, 七書方略, 兼之以禮儀三百威儀三千, 具收幷擧, 左右排行, 然後中軍而作好者, 班馬莊韓, 賈勇而先登者, 李杜歐蘇. 至於山經地誌百家, 莫不輸糧載糗, 請供軍需, 又若軒倉六軆, 李蔡八分, 鍾張王趙千狀百態者, 陳縑布素, 奮臂揮灑, 或承令草檄, 或斫樹白書, 鵬飛墨池, 龍躍毫戈, 此弊邑軍容之大槩也. 又使淳風抽筳, 爻象並吉, 焦貢灼繩[1115], 兆體亦賢. 願僉君子, 速裝飮祖, 結什而來. 請援於韓趙, 求救於齊楚, 孫臏十萬之竈·項籍三日之糧·田單有死之心, 孟施無懼之志, 堂堂引旗, 整整行師. 榮江一帶碧萬頃, 勿以長江天塹, 難以飛渡自畫, 錦嶽千丈聳雲霄, 勿視八公山色而撫喪氣. 七縱七擒, 西蜀之勢也, 三戰三北, 東吳之形也. 爲弊邑計者, 整我師旅, 敷我文德, 貴州解甲投筆, 囿我春風者上計也. 若不得已出於下策, 則淸嘯一聲, 坐退思歸之衆可也, 玉貌片言, 却掃全秦之師可也. 亦若使成都老將先竪降旛, 則餉以牛酒, 存撫而慰諭之亦可也. 擒縱操捨, 吾掌中事, 豈不綽綽然有餘裕哉? 嗚呼! 前言戱耳, 抑有一規. 某等平日路出玉女峯下, 瞻仰褒忠祠宇, 則文章節義, 凜若隔晨. 經由望川山前, 再拜存齋院庭, 則學文宗派, 若或可泝. 況乃晩翠平原, 遺址尙存, 而淸冰一條, 怳接精神, 錦峯千仞, 雪月交輝, 則倡義忠肝, 能激百代. 爲吾徒者周旋揖遜, 勉勵正學, 責善輔仁, 文以會友可乎? 操觚弄墨, 專事雕篆, 爭長競短, 馳逐翰墨可乎? 其必有能辨

1115) 灼繩 : '灼龜'의 잘못인 듯하다.

之者矣. 幸須僉君子講會之日, 以程叔子改試爲課立心, 胡文定蘇湖經義爲規, 繩趍尺步, 升降以禮, 無庸關心於考定高下, 較量巧拙, 庶幾崇正學一統之宗, 免浮靡三舍之譏, 則善戲不謔, 弛張有道, 詞文德行, 兩行不悖, 無所愧於前脩, 永垂訓於來世. 竊願僉君子, 尙亦勖哉!

義

見龍在田利見大人義

余嘗讀易, 至于乾之二爻, 有曰: “見龍在田, 利見大人”之說, 未嘗不撿卷而嘆. 君子之於斯世也, 豈偶然哉? 關天下之大數, 稟清明之至氣, 經綸天下之巨志, 挹握宇宙之遠略, 天柱將傾則可以此身而擎之, 蒼生塗炭則可以此身而援之. 其爲抱負之如斯, 則人君之於賢者也, 顧不重歟? 信乎國家之器用也. 雖然待價自顯, 乃賢者之事, 側身旁求, 是人君之道. 不有同氣之相求, 焉得以致其鬻名而自臻乎? 爲人上者, 苟能推如渴之誠, 示思齊之心, 勞已甚於握髮, 禮亦隆於設醴. 下效上行, 豈能風草之斯速, 影隨形行, 甚於桴鼓之相應, 彼山林草屋之徒, 嶺海遐陬之輩, 孰不輟耕而皤然, 皆爲罷釣而歸來? 於是翺翔乎鳳闕, 駿奔乎龍門, 遇明君而展才, 遭聖主而施能, 運籌之合, 諫諍之聽, 可謂任職之如彼其專也. 是以君無慢賢之失, 臣無長往之意, 而雲從於龍見之日, 風烈於虎嘯之秋, 鴻毛順風, 巨魚縱壑. 逢時如此, 何患所懷之不盡? 得君如彼, 無或所學之不布, 措一世於熙皡, 躋萬姓於壽域, 文物唐虞, 猗歟休徵之畢至, 禮樂商周, 煥乎嘉瑞之爭臻. 謳歌康衢之烟月, 詎有干戈之耀日? 國勢如盤石之安, 擬此樂之無窮, 則易所謂利見大人之功效, 不在玆乎? 嗚呼! 以見龍之才而利見於大人者, 往古來今, 有幾人哉? 負鼎之伊尹聘成湯, 而成湯樹六百之蒼籙, 鼓刀之太公載周文, 而周文綿八百之姬業, 百里之自鬻也, 甯子之飯牛也, 於秦於齊, 功業可想, 其爲利見大人之效, 又何能枚擧乎? 談古無益, 請舍是矣. 海東千載, 國有三韓, 聖明高拱於紫宮, 賢材布列於青槐, 治不過於小康, 時不升於大猷者, 愚未知何故而至於斯乎? 抑無乃宏猷碩德之士, 韜光晦迹於巖穴, 而上無聘招之君, 下無援引之人, 而未展其才能耶? 然則求賢之誠, 未盡而然也, 際會之期, 邈爾而然也. 愚何有疑於今日之未爲利見乎? 其人爲誰? 某姓某名, 其居則江湖矣. 愚之餘意如是夫, 謹義.

南圃集

卷之十四

《南圃先生集》卷之十四

南郊日記 [上]【自己丑止庚寅, 又自己亥止乙巳.】

己丑. 七月十九日. 丙子. 以恩命發洛行. 蓋國有大慽, 不敢退坐, 將奔哭肅謝, 故扶病發行. 八月五日. 壬辰. 曉, 就次幕所. 平明入門, 行奔哭禮四拜, 就歇賓廳. 日高辰時, 行肅拜禮. 夕以病甚, 呈旬狀于兵曹. 林參判墰羅密陽緯素皆喩余以留京之意. 答曰: “臣子非不欲事君, 其於病篤曠職何? 六日權佐郎諰送書問答之, 是時此人以逸士, 特命招來, 亦以病呈旬云.” 午金澄又以權佐郎之言告余曰: “國葬將迫, 何不郊送而退?” 答曰: “病若不篤, 安有退歸之志哉? 昔者明廟之喪, 退溪李先生位至宰列, 而國葬之前, 奉身徑退. 當時意見, 雖未詳知, 然必有所重在此故也. 今某小子, 雖不敢擬, 病革若此, 歸意已定, 不能强留云云.” 十一月四日. 金君仲浩問爲學之方及氣質之病, 答云: “賢者資稟溫柔, 氣象安穩, 其於進德, 必不須於陋劣者. 然謹厚之人, 或不足於剛毅勇進之功, 紫陽先生嘗以畏字訓敬字, 主一之法, 莫此爲先. 近者粗得其方, 使此心束而不散, 不得入於解弛怠惰之地者, 都是畏字力也云云.” 十二月二十六日. 天無一雲, 地多和氣, 園林松竹, 更覺清幽. 籬鷄聲靜, 巷犬不吠, 絶然無塵煩汚濁之累, 廓然有獨立千古之想. 紙窓明淨, 案書清正, 與數三童子, 談講詩書移時. 仍出後原, 往來松邊竹逕, 至晩而還. 使小兒酌醪一觴而罷.

庚寅. 四月初一日. 聞胡使來請婚姻, 國家以錦林女子許嫁云. 又聞胡使安置領議政李景奭, 大提學趙絅于白馬山城云. 國事至此, 臣子之心如何? 九月二十三日. 氣神疲乏, 隱几而臥, 使侄子履相摩兩手. 仍默數余面上黑子, 蓋三十有二矣. 余又手點履相面痣, 亦三十有二矣. 乃奇而記之, 蓋八卦之三變者, 其數三十二, 豈其應耶? 十月初一日. 辛巳. 日有食之. 是日聞國家搜括士族家女子, 許婚胡清. 守令以士夫家孼産當之, 中夜發卒, 掩襲捕捉, 號哭之聲, 遍于閭里. 國事至此, 爲國家者, 寧不淚盡血繼? 閏十一月十九日. 閑中讀退溪先生所撰靜庵行狀, 至“孔孟程朱之德之才”一節, 不勝慨然

之懷. 以爲果如是, 則士之有大志於斯道者, 皆可止於立言垂後而已歟? 悲夫悲夫! 讀此狀, 細觀其立言, 涵容遜順, 不露崖角, 渾然有中和氣象, 眞有德者之言也. 近世能言之士揚眉大言者, 往往有之, 豈能窺其涯涘歟?

己亥. 五月初四日. 孝宗顯仁大王昇遐. 初七日. 訃至, 卽入哭于本邑客館, 第六日成服. 十月二十五日. 奔哭于闕門. 二十八日. 發引. 翌日下玄宮. 十一月初一日. 渡銅雀津. 夜投于果川三谷. 聞尹持平鑴希仲來住隣村, 久聞其盛名, 而未得見, 故往訪之. 愼進士慶胤亦同來矣. 蓋希仲以特旨拜持平, 以遷卜其先親葬地, 三疏乞遞, 以求山來此云矣. 少話後, 與希仲登村後山, 望畿甸山川. 仍穩話, 日晩而別. 二十六日. 聞余敍復軍職. 天恩至此, 惶感無言. 十二月初二日. 南平主倅送來朝報, 其中有曰: "十一月初一日, 上傳敎曰: '今發靷時, 在外前朝官來會者, 一一書啓事, 分付政院.'" 初五日. 政院啓達, 則傳曰: "此書啓中, 學業學行之人, 問于左參贊宋時烈吏判宋浚吉, 抄啓." 是時參贊以事引嫌, 未卽抄啓. 初七日. 傳曰: "右參贊以病未卽書啓, 失時可慮. 吏判書啓, 爲先書入事, 分付." 初八日. 吏判宋浚吉參判李一相參議趙復陽啓曰: "前校理李壽仁, 以侍從之臣, 恬退守志, 爲世所稱. 司業尹宣擧司業尹元擧皆有實職, 故雖不出於元單子前銜[1116]之數, 而曾於榻前備盡陳達. 前佐郎申碩蕃, 前佐郎崔徽之, 曾於先朝直出六品, 前諮議李翔前諮議宋基厚, 曾已授講職. 前洗馬金萬英, 曾擬於諮議望. 而申碩蕃李翔, 尤其表著者也. 惶恐敢啓." 傳曰: "此抄啓之人, 後次雖非闕, 竝皆付職事, 分付." 初九日. 吏曹啓曰: "傳敎矣. 參上則方有實闕, 卽爲擬望, 而參下則卽無闕處, 姑爲送西注擬如何?" 傳曰: "依啓." 是日申碩蕃除司僕主簿, 崔徽之除活人別提, 李翔付司直, 宋基厚付司正, 金萬英付司勇云. 聖上好士之至意可尙矣. 但聞中殿誕生公主, 一邦臣民之缺望, 不可言不可言. 十一日. 有人冒蔽陽笠著藁鞋衣布衣, 來拜于堂上. 坐良久, 問其名, 則金九成. 語及儒學, 粗通大義. 語及陰陽術學紫微之數, 皆通其意. 問其所居, 則曰"本以京人, 寓居于茂長海曲云."

庚子. 二月初六日. 少陽. 讀退溪高峯往復書數篇, 慨然不勝愴古之懷矣. 蓋

1116)銜 : 御

學者於義理出處之間, 有所疑晦, 則往復論辨, 必歸於正, 乃吾家審問明辨之學, 不可已者也. 近世世道偏私, 士阿所黨, 往復問辨, 指爲相攻, 不爲按劍相視者, 幾希矣. 今讀此書, 感歎伊塞, 而記于此. 二十日. 大陽. 從弟徐鳳鳴, 袖示牛溪栗谷請從享文廟疏二度. 蓋湖南儒生等所陳請, 而一卽前直講李起浡所製, 一前縣監崔猷之所製也. 竟用崔製云. 直講李君卽逸士興浡之弟, 以恬退著名. 崔卽故承旨蘊之繼後子也. 承旨以學行名世, 猷之方在承旨憂艱中. 三月十二日. 少陽. 李文碩來學, 李君自言"渠乃恥齋洪公仁祐之外曾孫也. 公苦行力學, 居憂而歿. 將歿也, 內夫人請見, 公不許而歿. 蓋以居憂不可近婦女也"云. 古人制行之嚴正終之愼如此. 四月初三日. 少陽. 李文碩來學. 李君傳言: "乃翁使君自京來言'主上頃患眼疾, 症勢極不吉, 不能視物, 大臣卿相, 憂悶罔極. 靑平尉沈益顯入拜便殿, 上不能辨視其爲誰, 輿情遑遑, 罔知攸爲. 醫官尹後益三度下鍼, 廓然復常云. 臣民之喜慶至矣'. 又云'掌令許穆上疏, 言「大王大妃於先王, 旣爲嫡孫承重, 則當服斬衰三年之服, 而今服朞非禮也. 周公之制, 朞之喪, 諸侯絶, 則大王大妃之服朞, 尤爲非禮云云」. 宋尙書浚吉上疏, 論許公之非, 批敎久未下, 不知結末之如何'云." 蓋國喪初, 兩宋以爲'先王雖入系重統, 非世適, 而昭顯之喪, 大王大妃旣服三年之喪, 則禮無二適固也. 今不可復擧斬衰'云, 故大王大妃服朞服云. 五月初四日. 大陰. 四更初點, 入于客館, 與太守及參奉徐荇, 會哭于館庭. 是日聞前參議尹善道論大王大妃服制, 言官爭論其罪, 請案律處置云云. 禮曹行會: "小祥後, 朝士大夫, 練布裹紗帽, 仍垂帶, 仍衰服, 文武堂上妻, 從吉服云云." 俄而又改行會: "士大夫正服, 以七升生布製團領, 衣帶用熟麻云云." 聞綾州座首李魏六十一歲, 得忝今榜進士, 率呼唱四人, 吹管入于州街. 牧使李聖徵, 執呼唱四人囚于獄曰: "國有大慽, 凶服未練, 作樂遊街, 於汝安乎?" 李惕赧而歸云. 聞可一笑, 又關於時, 故記之. 二十四日. 大陽. 聞李政丞延陽府院君時白卒. 公卽延平之長子. 以擧義元勳事仁祖, 歷三朝, 而位躋台鼎, 家業貧淸一寒士云. 二十五日. 大陰. 聞宋公浚吉, 退歸田園. 蓋以前參議尹公善道疏中, 有指斥之語, 疏入卽退, 而尹公亦安置三水云.聞漢城左尹權公諰退朝. 蓋尹疏旣入, 兩司交章請罪, 權公亦上箚, 論尹公以敢言之士, 兩司引嫌, 故權公亦退歸云. 八月二十八日辛亥. 大陽. 李文碩自

京送書相問, 又遺許掌令穆所上《儀禮喪服圖》. 十一月二十三日. 少陽. 聞掌令許穆, 出拜三陟府使, 識者惜之云. 十二月十六日. 大陰. 是日終夕靜坐, 心氣和平. 至夜仍細瑣底事, 忿懥之念起, 至夜分, 心氣不平, 强加寬制而平. 仍念身之過動, 由於心之過動, 心之過動, 由於形氣之私. 形氣之私, 皆出於耳之欲聲, 目之欲色, 口之欲味, 四肢之欲安佚, 物慾之欲快情. 五性[1117]之欲, 感於外, 而動於中, 生於心而發於事. 一日之內, 心靜時小, 動時多, 此心安得其正哉? 余於每日, 自子至午, 自午至子, 點檢此心, 不使外馳. 而往往造次之頃, 忽爲情慾引去, 事過之後, 不覺慚忸. 而余氣質之病, 常在於懦弱, 知之或敏, 而守之不固, 以至狼狽之患, 每每如是. 日間心志之發, 人所不見, 而已所獨知處, 一念之善惡, 隨筆箚記, 以爲警省之資焉. 十七日. 戊戌. 大陰. 早起靜坐, 平心省愆, 有不勝愧赧底氣. 意朝-缺-頮面, 仍自念人之日日洗面, 恐面有垢也. 移此心, 日日且恐心上有垢可也. 面上有垢, 人必見之, 心上之垢, 神必知之. 況萌於心者, 必顯於事, 則人亦終不可欺也. 午日當窓, 寒氣猶慄烈. 仍念冬日之日, 是夏日之日, 而寒熱判異, 何也? 以其時氣之使然也. 仍念人之性, 同得至善而有賢愚者, 氣質之使然也. 學者當於氣質上用工可也. 氣質俊邁者, 多不拘小節, 故多過, 氣質之庸下者畏守, 故小過. 余非俊邁之質而多過者, 大抵其氣麤之過也, 不可不知戒, 故記之. 午尹先三來學. 讀過一行書, 三失字音. 余曰: "是心不敬之故也, 此心放散而不克收斂, 故心口不相應矣." 又看《心經》, 至克己復禮章, 自解曰: "復禮處, 何以爲仁歟? 仁者便是天理. 克己之私, 則便是天理, 故復禮是仁也. 故曰: '禮儀三百威儀三千, 無一物之非仁也.'" 是日午前, 心氣有交戰之象, 午後心和氣平. 十八日. 己亥. 少陰. 平朝之後, 心氣小斂, 以夜氣之不善養故也. 所以聖人至日閉關, 可不愼哉!

辛丑. 正月初九日. 己未. 少陽. 訪尹保氏兄弟于蓬山山室. 尹公與兄儆, 築室于其先塋之下, 兄弟率妻子卜居, 一室相對, 友于耽樂, 不出洞門, 今十有餘年, 年亦七十矣. 二人雖非學古踐跡之士, 志行之高有可尙者. 余往訪焉, 命酒. 穩話移時而來. 山趣頗有動人意思者. 十一日. 辛酉. 少陽. 往見主倅.

1117) 性 : 音

主倅設酒穩話, 聞自上蠲減海邑災損人民今年田稅, 以賑飢民, 山邑則減上細布, 其人木方物等賦云云. 南平名雖山邑, 災損與海邑無異, 本道監司金始振, 別啓請與海邑一體施行. 自上下該曹, 戶判許積防啓, 人民怨之云. 聞吏曹判書宋浚吉, 在家上疏辭職, 上命遞云. 主倅又言: "余欲括富民粟, 救濟飢民. 其事已定奪, 而別有司約正輩, 憑依官令, 私斂民財者, 多有之. 余懲是, 方欲革破括粟救民之令矣." 余答曰: "分出富民之財, 救恤將死之民, 亦隣里相救之義, 今仍約正之濫而廢之, 則無乃近於仍噎而廢食耶?" 又曰: "歲饑民困, 主少國疑, 世臣連喪, 國將奈何?" 主倅曰: "自上蠲減賦稅, 爲民撫養之道至矣. 但十六司貢物, 則不論歲之豐凶, 而一定無進退, 今年田結過半損縮, 而各司貢物之納, 依前無減, 守令無路變通, 而飢民坐受其苦, 可憫可憫." 余曰: "如此之事, 未可報使通變乎?" 曰: "監司雖啓請, 該司例必防啓, 奈何奈何?" 余曰: "聞我朝祖宗朝, 田一結賦米一斗, 經一年, 無他役矣. 海州地有其故事, 栗谷建請行之八方, 竟不得行, 今之大同, 則一結十三斗, 而亦不足於國用云, 何歟?" 主倅曰: "世變可知矣云." 二月初八日. 戊午. 風寒. 午潭陽居呂益吉來見, 呂云: "潭陽士人柳震碩, 眉庵之曾孫也. 年今二十有餘, 篤志古學. 結屋于雲巖李公興浡之隱處, 讀書爲學, 不出山口, 今數年云." 余聞斯人之名久矣, 仍其言而記之云. 二十七日. 丁未. 少陽. 三學齋儒生等, 請書齋規儀, 乃敍二十四條而贈之.【詳見經義說】二十八日. 戊申. 少陽. 余於春夏, 例患上氣, 氣神昏眩, 口焦體勞, 頭重脚憊等症, 種種不佳, 余深憫之. 年前得修養要訣一冊於靜軒高公之舊庄, 試用其法, 今年則氣頗小平, 無乃得其驗耶? 今朝點檢神氣, 仍記之以愼疾之戒云. 靜軒乃余之妻外祖諱循厚, 霽峯之第三子. 精於禮學, 氣像古朴, 行操端重, 眞古之學者. 余少登其門, 觀感實多, 而倏焉二十年, 鬓髮欲斑, 而病冗懶習, 一無小成. 言念及此, 不覺浩歎也. 公官至刑曹正郞, 年七十二, 而卒於庚辰十二月十日. 平生操履端方, 守貧不屈. 緇冠布褐, 糲飯茅屋, 未免飢寒, 而怡然不以慮. 廷臣交薦, 職命屢下, 而竟不起. 丁卯胡亂, 奮然以出義勤王爲志, 與士人安邦俊趙坪等, 召募義士, 方欲赴難而死於節, 辭義凜烈, 有不可犯之氣象矣. 俄而亂平之報至, 敗師而歸, 終身恬靜, 不動聲色, 守道而歿, 嗚呼! 非有道之士, 而能然乎? 深居僻巷, 不求人知, 世未有知其操者, 身後無聞於

人, 可歎也. 仍念及而興感, 記于此. 二十九日. 己酉. 大陰. 靜坐看書終日, 仍思人之病痛, 都由氣質上出. 若按伏得這般氣上罪過, 使氣之濁者淸, 偏者正, 躁者靜, 急者緩, 懶者勤, 隨其所偏, 一歸於中, 氣之中, 性自然復其中矣. 余之氣質病痛, 每生於昏弱懶濁, 又麤而不細, 或和則易流, 急則易暴. 至於兩斧之害, 亦未免牽慮. 今麴糵之嗜, 斷念有年. 若夫遠色之戒, 雖每用鋤割之功, 而暮歸喜獵之念, 或不能不萌于中. 此皆氣之所使, 從此定可猛省痛絶之. 仍記于此. 自午後雨作. 戌時地震. 終夜雨不止. 春雨之數, 農談忌之, 地震之變,《春秋》所書, 爲民爲國, 其無憂乎? 三月十七日. 丙寅. 大陰. 尹俶以太守言來言曰: "當此大饑之歲, 十六司貢物, 無一毫蠲減. 濟用監正布, 方在輸納, 而本縣災結外所餘者, 僅二百夫, 而當平歲貢物之元數, 公私俱竭, 無由出辦. 今欲仍人民等呈狀, 轉報監司, 以爲入啓, 姑請待秋輸納. 而難於措辭, 請得一轉語以助之." 余對曰: "一命之士, 苟存心於愛物, 於人必有所濟. 方今生民之困極矣, 余安敢以他辭辭也." 遂構狀辭以送之. 聞監司金公始振, 以祭無等山來光州, 蓋以民間多厲疫來祭云. 十八日. 丁卯. 少陰. 尹生先夔文君晩郁來見. 聞綾州士人及本縣士人等, 會于熊岾寺, 通文于道內及長興. 蓋長興人金公光遠, 配享于靈川書院, 物論短金公, 欲仍書院重修, 仍出其位板. 文致郁李溥等, 先發通文, 金公子孫又囑生員曺德吉, 通文于列邑, 告其毁出之非義. 當時配享之論, 首發於安牛山邦俊, 故牛山子若孫輩, 勸起綾州士人, 通文伸救云云. 余嘗執其中, 而論之曰: "金公之出處言行, 余雖未能詳知其首末, 不敢輕議, 然書院之名, 則所關至重, 必也有功於吾道, 任重於斯文, 爲一邦之宗儒, 作百代之師表, 士林欽仰, 公論齊發, 然後立廟妥靈, 一以崇道學之先正, 一以振儒林之元氣, 傳之百代而無愧, 倡示天下而有辭. 今則不然, 一名之士, 稍有硜硜之行, 而其子孫枝屬, 蟠據於一鄕, 則遽出享祀之論, 遂建巋然之宇. 諂祀非禮, 擧世滔滔. 彼所謂先儒者, 雖道德不及於眞賢, 廉恥一念, 必有過於凡人, 倘使已死而有知, 寧不自愧於心, 而安受其非禮之享乎? 況世習日降, 士風澆漓, 春秋之祭, 名之曰享賢, 而屯聚廟宇, 醉飫終日, 喧呼叫讙, 放縱自恣. 仍之以爭鬪日起, 讎怨遽作, 其流之弊, 可勝言哉! 世道至此, 誰能挽回而廓淸之耶? 悲夫!" 夕宿于三學齋, 諸生三十餘人會宿, 曉鷄初鳴, 諸生起而講學, 頗有菁

莪之樂矣. 二十八日. 丁丑. 種柳于門前及大小陰陽四泉之邊. 幹其事者, 乙生及道乙伊兩童奴也. 四泉及岸邊者, 通三十餘根也. 不知何時綠陰成蹊, 隱映園林, 而護我門戶, 怳然有風來月上之懷也. 令人不覺起意焉. 余自少酷有山水之癖. 見一山一石園林澗泉之勝, 終日忘歸. 歸來數月, 亦不覺意牽而神. 半世貧病, 兼之以憂患, 尙未得一山一水之勝而卜居焉, 吁可嘆矣! 雖然, 郊野田園, 亦足以藏棲遁之跡, 而寄棄世之懷. 今新卜, 雖無山水形勝, 而郊原泉脉, 若加粧點, 庶有荷鋤帶月之興. 而民田相雜, 無資可買, 而俗亦不佳. 長懷茂林崇山, 不勝鳥歸之情, 而無可爲矣, 奈何奈何? 雖然, 大隱隱城市, 苟有吾之至樂, 自有眞得之妙, 可樂於人不及知之間. 而至於篤信無疑之地, 則彼山水亦一外物耳, 豈可牽懷於其中也哉? 自此可不勖哉? 仍記自警焉. 四月初九日. 戊子. 聞主倅以飢民賑給事, 去于將多勿坪. 今年飢饉, 振古所無, 號饑官門者, 日數百人. 塡咽於官道, 太守定十日一開倉門賑救之. 設幕于官庭, 作粥而食飢民, 飢民之就食者, 日三百餘人. 預作太醬七十餘甕, 貿海菜百餘石, 作羹食之, 飢民大悅. 又於兩大路上, 令僧徒設幕作粥, 他鄕流民之入境者, 賑救活之, 四方聞聲雲集者, 無數矣. 又慮農民不能遠來官門, 親馱米粟, 而往賑之, 邑民誦恩不已. 太守之愛民如此, 太守卽李侯最也. 十一日. 庚寅. 雲升于天, 細雨欲下, 微風不動. 草木枝葉皆踈直上向于天, 有若冀蒙雨露之意. 細看其氣象, 令人起感發之意. 植物之無知者, 而亦有感應於二氣相交之際, 况此有運動知覺, 而受性命於天者哉? 是日坐迎春齋, 令兒僕取小陽泉水, 和松葉一器而下之, 精神頗覺明爽矣. 余素多病, 探考方書, 節食服餌, 以養精神. 得服松葉法于《本草》, 服之有年, 今日覺有興趣. 仍記于此. 是日空齋孤坐, 闃無來人. 春鳥聲嬌, 趁簷尋巢, 飛繞於楹棟之間, 而前山邱隴, 菜童牧竪, 短歌輕笑, 往來相戲. 耕夫野老, 牽牛荷鋤, 相尋於野田草林之際, 此間儘有眞意. 靜觀不覺起感. 仍起逍遙于泉畔, 趁興而歸, 則空堂寥寂. 春日方午數秩書史, 自能捲舒於微風之過也. 十四日. 是日南郊精舍乘茅于屋. 手治庭梅之雜茂者, 僮子掃庭, 小婢掃室. 庭宇無塵, 茅簷齊整, 靜對書冊, 益覺有味. 但歲饑民困, 滿目愁怨, 田園之樂, 恐亦難得. 時未免出位之憂, 可嘆可嘆! 是夜吟成一絶, 有"亂叫群蛙說箇心"之句. 蓋前郊稻田新耕, 群蛙亂鳴. 潛思彼虫無知一物耳, 其鳴聲或作或止, 若

有節次. 況其自得於溝瀆之間, 其鳴也必有其樂, 嗓嗓之聲, 亦若相道其心情者. 天機自動, 至發於聲者, 亦一箇心也. 這間眞箇意思, 暗有相感於知覺本源之地. 吾亦不覺自發於吟哦之間者, 亦可見物我之無間矣. 是所謂藹然天理, 隨事發見者也. 夜分就枕, 又成一絶, 有"調氣怡神整枕衾"之句. 十五日. 甲午. 夜天月爽朗, 獨倚小窓而坐, 吟成一絶, 有"獨倚松窓夜已深"之句. 十六日. 乙未. 淨掃庭宇, 塵事不有相撓者. 默坐一室, 靜對案上聖賢. 若此之際, 豈無眞境意思哉? 但懼守之未一, 物接之後, 易爲牽去耳. 無時無處, 而存此間氣象, 則於道庶有可入之徑蹊矣, 勉夫! 二十三日. 壬寅. 喜雨新晴, 萬物皆有歡顔. 但飢歲食絶, 麥尙未登, 閭里之間, 滿目愁嘆. 余家素貧, 况値凶歉, 饘粥難繼, 則家屬或有慍見者. 余本心慮寬緩, 居産之間, 不爲掛意, 不以豐約爲欣慼. 然到此思之, 士夫之有家屬, 猶國家之有臣民. 爲君父而使臣民未免飢寒, 責有所歸, 爲家長而使家屬至於飢怨, 獨無惻隱哉? 古人簞瓢屢空, 而能得其樂者, 能令家屬喩於義, 寧飢死而無非義之慕故也. 今我之仁, 旣不能化僮僕至於義, 而飢寒困厄, 迫乎其身, 則非但於我心有不忍之惻, 僮僕之仍無恒心, 爲不善於隱暗之際, 安可保也? 爲今之計, 在平歲, 董令僮僕, 勤耕力穡, 令家間節用尙儉, 常蓄不虞之備, 免餓餒於凶歲可也. 然在吾之大本未立, 先事於營産, 計校豐約之念, 或作仍賓作主之勢, 則浸浸然流入於邪吝犯義之歸, 大可懼也. 故記于此, 以戒於嚴立本源之地, 然後推其餘以及於事務而無過不及之患云. 是日雨後, 風氣淸和, 牛眠橫坂, 而麥浪飜風矣, 鷺下平郊, 而稻田水漲矣, 足以敍田間之興致矣. 余近日每坐新齋, 見原野間, 有小鳥. 其鳴甚輕巧, 飛自草蓬間, 漸漸飛舞, 翻翻直向于天. 百般弄舌, 便捷輕姣. 其聲初暫低緩, 高極于天, 則節節細數, 細數之極, 則又旋旋飛下, 而其聲差緩, 至于地而止. 其名俗稱鍾至理鳥, 吾聞其聲, 有高下長短踈數之節, 其飛有周旋進退上下之漸, 看來亦有理趣. 仍思凡生天地之間者, 莫非理氣之發見, 而各有知覺. 屬氣, 知覺之本, 屬理, 乃天命之性也. 吾人與物, 本無殊也, 但有偏正之分而已. 雖然, 聲音出於心, 而運動由於氣. 旣有知覺, 故有運動聲音, 則彼物之有聲而鳴呼者, 必有意味, 而道其情者, 而但人不解聽耳. 夫人哀則哭, 樂則歌. 相逢而語其情, 讀書而長其聲. 我自各有其意, 而彼鳥獸, 亦不能解聽, 亦如人之不能解聽禽語也. 而

其間至理所寓, 則彼與我無間也. 詩曰: "鳶飛戾天, 魚躍于淵." 子思引是語, 發明君子之道, 亦有見乎此也. 是以古人, 聞鳳鳴上下, 而作十二律, 則鳳與此小鳥, 其爲鳥, 則一也, 其同得理氣而生, 亦一也, 何間焉? 古之至人, 見一物必窮其理, 羲之仍馬爲圖, 禹之見龜畫疇. 至於程子之見兎起數此也. 故余每見一微物聞一禽語, 未嘗不詳致意焉. 但恨見未透, 故理難窮耳. 今仍小鳥而謾記之. 又曰: "人知吾心之通乎天地, 周乎萬物, 無內外無彼此無物我, 同是一體之理, 則自然心不淺狹, 而器量亦宏大矣. 人徒知有我, 不知有物, 一身區殼之外, 氣全不通, 故心不廣而量小矣." 午後有鄕中知舊者過門外, 不入相見而去. 是人曾與我相從, 而與我亦有姻婭之分矣. 昔或相從, 而今過門不見, 何耶? 細思其由. 近有鄕之一二少年, 亦余之外屬族眷也. 往來學文字頗頻, 稍得解蒙. 頃者鄕人有來言: "某學書於子, 人多不好, 子何不停寢而止謗耶?" 余曰: "經傳, 聖賢之公言, 我幸先覺其糟粕. 人之欲學, 亦天下之公心也. 余安可絶人之誠心學古哉? 人亦豈可謗人之公心爲學耶?" 其人嘿嘿而去. 其後隣鄕某人, 昌言于衆曰: "金某與某人爲黨論云, 豈儒者之事耶?" 聞者來傳于余, 蓋鄕人之造訛傳播故也. 我國自東西黨分之後, 自朝廷至鄕曲, 指點名目, 黨同伐異. 光海朝以是亡國, 其論尙今不息. 右所謂少年來學者, 卽鄕人之有名目者子弟, 故他邊人忌而造謗及於余, 而今之過門不相訪者, 必含忌而然耳. 可笑可笑. 夫人心, 天下之公器也. 稟天理之大中, 爲天下之公器. 如衡之平, 如水之明, 苟有偏係於一隅, 則喪失天所賦之正理, 入於自私自賊之邪境矣, 人而尙忍此哉? 故余嘗立論曰: "文如韓范, 學如程朱, 若或拘係於今之所謂偏黨, 其人不足觀." 又常言曰: "若爲今之黨論, 則一朝而至萬鍾之富五鼎之貴, 我不爲也. 若秉心中正, 不偏不倚, 則枯死於蓬蓽之間, 我自甘心矣." 是以凡平日與人往來及立論措語間, 平生未嘗片言自偏於黨論, 故東西之人, 皆致疑惑. 或曰"某爲東論", 以其雖西人, 理曲則非之故也. 或曰"某爲西論", 以其雖東人, 非義則斥之故也. 或曰中無所主, 以其兩非則兩非之, 兩是則兩是之故也. 今者某人來學, 而某人忌之, 至於蔽面過門, 人之偏嗇, 至於此耶? 甚可笑也. 以余至公至正之心, 居鄕而鄕人如此, 立朝而朝人亦如此, 推可知矣. 世道如此, 其可行乎? 余有數畝野田, 力耕而歲豐, 則妻子不至於飢寒矣. 新構頗淨, 前有泉而後有柴

矣. 又有數帙經書, 足以治吾心而復吾性矣. 從此閉門淨掃, 養氣頤神, 安父母之遺體, 服往哲之至訓, 順天命樂閑靜, 足以安過一生, 沒吾寧也, 豈不樂哉? 但自古國之將亡, 必有朋黨相傾, 不公不正, 而國隨以亡. 言之至此, 誠可寒心. 老婆心切, 奈何奈何? 近看《退溪先生文集》, 吾東義理之文, 無出於此? 今看集中, 有曰"某與南時甫論花潭之學之病處, 許太輝聞之, 有一書相詰, 與黃仲擧論學, 偶及松堂白鹿洞規解, 未免指摘其差失, 其門人見之, 多不平云云." 今見此言, 忽憶十年前牛山安公著<牛山答問書>, 余偶發未解處若干[1118]條, 奉質牛山門下, 往來人見誚不貲, 至今不已. 蓋天下義理之是非, 乃公共底事也. 後覺之於先覺, 就質證正, 或論難是非, 亦天下之公道也. 今之人不然, 各護其所好, 而一槩崇奉, 不許人論質疑惑, 甚可笑也. 今仍此書偶見此論, 漫記之. 蓋牛山林下之士, 氣象甚好. 但本源之地, 或欠於涵養沈潛, 專以記聞敍述爲學, 故論議多激揚發露而少溫厚得中底氣意矣. 余嘗有解人心虛靈之說曰: "理本虛, 兼乎氣, 然後有靈. 氣本不靈, 資於理而有靈." 今見朱子理與氣合, 便能知覺之說, 果與瞽說偶合. 仍此用工, 或可小進於見道耶? 朱子又曰: "譬如燭火, 因得脂膏, 便有許多光焰." 又曰: "所覺者, 心之理也, 能覺者, 氣之靈也." 余乃解火膏之說曰: "膏不能自光焰, 得火然後光焰. 火不能自發光焰, 得膏而光焰發." 此理氣相合, 生知覺之說也. 夕奴輩覓牛不得而來曰: "牛之見盜丁寧矣." 余曰: "歲饑民困, 赤子將死, 雖良民變而爲盜, 將以免死也? 奈何奈何? 况我雖失, 人則得之, 何慮焉? 毋更求也." 二十七日. 丙午. 少陽. 朝起而坐. 霽天氣佳, 草木滋潤, 有一野鶴獨立泉源, 俄然而飛. 仍興到成一絶, 有"玄裳素服一仙童"之句. 又成一絶: "甘雨新晴麥已秋, 滿園芳草氣清幽. 靜看萬物生生意, 還向吾心一理求." 近來心氣頗穩當, 本源之妙, 庶可仍此得見. 恒日孜孜, 或於發見之際, 倏覺有好意思, 而俄然之頃, 自不覺其爲他慮引去, 蓋工夫未熟故也. 今朝仍觀物而有省悟, 至發於吟詠不已. 記之以戒雪消草生之患云. 午洪兄鍾華氏來, 話于新齋. 爲陳鄕黨和厚之義曰: "凡鄕黨隣里之道, 以忠厚敦睦爲重. 有過申申相戒, 不可遽加揮斥. 有善循循相勉, 不可輒生猜疑. 老者敬之, 賢者尊

1118) 干 : 千

之, 幼者導之, 弱者植之, 强者戒之, 務相竝至於寡過之地, 則鄕里之風, 漸可變而爲厚矣. 鄕中以此事爲相勉者, 在於兄輩數人, 其勖之!" 蓋近者鄕風似有不好之漸, 故言及之. 二十八日. 丁未. 大陽. 霽後氣象, 此日尤佳. 步出前蹊, 點檢新栽楊柳. 前月久旱, 故枯死者三分之二矣, 生存者新葉已抽可愛. 仍思天之生物, 其品萬殊, 而其生理亦有萬不同. 然花而結實, 實而又生. 其無實者, 必移其根荄而種植, 然後乃生者, 草木莫不皆然. 獨楊柳, 刈取其枝, 扱于土而得生, 何哉? 蓋此木得天地陽生之氣, 最先且富. 故先春草木未榮, 而此木先着葉矣. 得陽先, 故初秋之日, 易感於陰氣, 其葉先零. 古人制字, 從"木"從"昜", 古"陽"字意以此歟? 其扱地易生者, 稟得陽生之氣富盛, 故陽氣上升之時, 易得其氣, 而爲生也明矣. 譬若稟氣淸明之人, 先覺於天理之本源, 易於爲善者也. 細思其理, 有感於心, 記于此. 儻此樹綠葉成陰, 嫩茂條暢之時, 主人亦有長進志意, 上達本源之地, 而發揚於云爲之際, 與此樹而同敷也歟! 戒之哉! 仍成一絶, 有"數株楊柳種門前"之句. 又成一句, 有"野居新卜傍淸漪"之句. 李仁老言"渠高祖生員李應霖, 卽我太祖朝駙馬都尉李薆之孫也. 葬于楓山楸松谷. 今二月術士李啓玄來言'此墓地甚凶, 子孫當有凶疾'. 蓋其子孫方有其事, 仁老聞極大駭, 卽卜日遷葬, 其生員公, 墓道有水氣, 若潮水新退之狀. 白骨爲水浮沉, 積置一邊, 浮漚濕淤, 宛然如潮退水涯之形. 而其內墓, 則有一木根自地板下潛入, 大小根荄, 締結於骸骨者無數, 纏繞不可解開"云. 聞之不覺悚然. 蓋子孫之於祖先, 若枝葉之於根本, 程子彼安此安之說, 甚爲近理. 今李姓之人, 以瘡疾致死者, 一家皆然, 只餘仁老輩數人而已. 雖不知其墓山之應, 術人之言, 適然符驗, 此亦不可不知底事也. 記之以爲塋窆不密者之戒云. 又曰: "壙中之用石灰, 將防木根螻蟻虫蛇之患也. 今人惑於地家吉氣不升之語, 地板底例不用石灰." 余嘗極言其非, 地板之下, 若厚築三物以凝堅, 木根何從而入哉? 送終誠孝者, 不可不知云. 午後披閱《圃隱集》. 歷覽其往來中國時詩什, 數千里道途, 山川物色, 盡入吟哦牙頰之間. 使後人追詠章句, 怳若親見神州之形勝, 其馳車往還之狀. 得句呻吟之象想形神, 思若在今日之目中, 而不覺已經三百年事也. 欽愴之餘, 仍念男兒生世, 事業至重, 上可以達天地無窮之理, 下可以跡萬里山川之勝, 前可以通千古已往之事, 後可以立萬代不朽之名, 若先生者,

俛仰今古, 其人有幾? 哀此孤露之生, 生於海隅偏陋之鄉, 守一畝荒田於窮原寂寞之中, 知不周一身之事, 見不出千里之外. 殘編破冊, 尙不能通其理, 朝飮夜伏於蓬蒿之下, 未免欣慽於一毫之得失, 喜怒於愚夫之毁譽. 百年之過, 倏若一瞬之後, 草木塵土, 同歸於泯滅而已, 則以此方之於先生事業, 不翅壤虫之於鵬翼也. 嗚呼噫嘻! 可傷也已. 雖然, 君子事業, 不出於方寸間而已, 方寸一物, 在我非嗇, 豈獨豐於古人哉? 自此至于蓋棺日, 亦不甚促, 孶孶日夕, 死而後已, 雖不能彷彿於古人之萬一, 庶幾不負爲人之名, 而免於草木禽獸之同歸矣. 今見先生文集, 倏然有驚惕之心, 不覺隨筆而記, 他日進業怠惰之時, 或可目寓於此手記, 冀有翻然覺悟惕然矜式之念, 而警其頹懦之志云. 五月初四日. 辛亥. 少陰. 與徐君鳳翎語. 語間每以節義爲言, 以學問爲不足貴, 以禮經爲虛文, 言言若是. 余曰: “學問禮經, 果是虛文, 而不足貴, 則三綱五常, 皆學問中事, 排去學問, 而求節義, 則是不耕五穀, 而求腹飽也, 而可乎?” 徐君仍歷陳吾東古今人事實累數百言. 其語輕浪慨切, 信奇士也. 但學不求之本源之地, 每每牽掣於外面, 論古今人物, 而歸宿於節義, 故以學問守禮, 爲曲謹小廉, 經涉世務, 爲節義忠信. 其學蓋出於隱峯安丈, 安丈嘗學於牛溪, 何故其學至於如此太支離也? 雖然, 亦足以勵末世頹惰之習也, 豈可以一槩非之? 取其長處而友之可也. 初五日. 癸酉. 大陽. 日氣淸和可愛. 放家畜驪馬于前坂, 綠草沒脛, 終日飽吃. 旣無鉗勒轡銜之牽縶, 任意齕草, 下飮泉瀆之水, 臥起行齕自在, 其意看甚閑放. 家又有赤馬, 性多慾不馴, 故縶繫于槽櫪之間, 一飮一齕, 動須于人, 看甚苦楚. 仍思雖在物畜, 因其慾之多寡, 而苦樂懸殊如此, 人而不可按[1119]伏得一慾字耶? 不能克慾, 而受制於人, 拘縶其手足, 而不能自爲者, 何異於吾家赤馬耶? 看來忽有警惕, 而感於事者記之. 初六日. 甲戌. 大陰. 李文碩來見敍別, 蓋以城主秩滿當歸, 以明日內行發程, 故告別于余矣. 此人相從數年, 志意雅尙, 今成遠別, 不任悵然. 問余曰: “今歸當讀何書, 以自立歟?” 余曰: “文章辭藻, 末流之學, 吾不敢相期於君. 惟願於四子中, 探其本源之地, 則文章在玆, 義理在玆, 何用馳心於餘外哉? 見君氣質淸弱, 不宜久居於城市囂鬧之中. 聞君

1119) 按 : 案

有東湖別墅, 境極淸勝, 可抱遺經於此, 養精頤神, 涵養本源, 是吾之望也. 若余者索居荒僻, 又別吾君, 能不悵然哉?" 言竟雨作, 冒雨別去, 多有惜別之思. 李文碩言: "李司諫壽仁辭職疏末款言'本道監司金始振阿諛苟容, 賑政無實, 不恤窮民, 督捧貢米云云.' 監司方上辭職疏, 仍自分疏. 李司諫此擧如何?" 余曰: "此老高臥不出, 已十年餘矣. 讀古人書, 所得亦多, 必見合義而後, 發言於君父矣. 但進陳德義之言, 長益君德, 則雖山林未進之人, 或可爲矣. 至於論人長短是非, 則未知如何也." 初七日. 乙卯. 少陰. 送書于李文碩問行. 且寄三章別句, 其一有"南郊寂寞一茅廬"之句, 其二有"東湖形勝擅東隅"之句, 其三有"知覺無差在正心"之句, 文碩昨日告別之時, 請敎佩服之言, 故末篇及之矣. 夕忽得句有曰: "雨霽碧天闊, 白雲生遠山. 孤村日欲暮, 木末鳥知還." 仍自解曰: "雨霽天闊, 則知道體之廣大. 雲生遠山, 則知生意之無窮. 孤村日暮, 則知此生之易老. 木末鳥還, 則覺此心之歸宿. 此詩蓋因寓目之物, 自不覺心會句成, 而深思之, 又有味如此. 此詩之發於性情, 而性情之本於天理者, 可謂妙乎妙矣." 初九日. 少陰. 午讀退陶山詩序, 不覺爽然起慕之至, 仍成一絶, 有"白石淸溪光霽間"[1120]之句. 十三日. 辛酉. 少陽. 曉早起開窓, 霽天蒼翠, 風露滿空, 白雲在山, 棲鳥不起, 人聲寂然, 萬境具闃, 惟有晨鷄喔然相唱而已, 超然有俯視人寰, 獨立物表之意. 口吟成律, 有"元氣淋漓露濕天"之句. 又有"露氣凄凄天地空"之句. 朝飮茶, 有"栢葉煎茶氣作霞"之句, 又服松葉, 有"凜凜貞心雪裏顔"之句. 十四日. 壬戌. 大陽. 安生一大, 有"天", "圓"字韻. 用其韻, 遂一絶, 有"天君高拱立丹田"之句. 十五日. 癸亥. 少陽. 曉欲覺之時, 得一絶, 有"戶窓深鎖夜茫茫"之句. 午令安一大染皁冠布, 手自整疊而服之, 名其冠曰"兩儀冠". 仍作<冠說>曰: "用布一幅. 其長足繞頭, 而剩一寸八分. 一寸八分爲幌子. 幌子之制, 提起四分半摺向右, 四分半摺向左. 用線綴住, 而空其中, 則成幌恰九分矣. 當未成幌之初, 布幅兩邊及兩端疊向裏, 然後就幅一邊, 而作幌子. 當額兩眉上, 以其餘繞頭左右, 至後腦, 縫而合其端. 用線綴之, 而連上邊爲縫, 前面幌子, 其長及冠之中, 橫分兩脉, 而各至上兩隅. 未及兩隅, 而又分爲兩脉, 兩脉之端,

---

1120) 間 : 問

作兩横隅, 而左右凡四角也. 合而論之, 㡌子九分, 象太極也. 一㡌之端, 分爲兩脉, 象太極生兩儀也. 兩脉分爲四脉, 象兩儀生四象也. 前後四葉, 象四時也. 其高一尺二寸, 象十二月也. 余惟太極之體立而後, 二儀四象分焉, 二儀四象之道行, 然後四時十二月之功成, 萬物各遂其性, 而天地之道成矣. 故合而名之曰'兩儀冠'. 百年之間, 作我元服, 而冠其首矣. 庶可顧名思義, 反之於吾心之太極, 而有所省悟也云." <兩儀冠前後分釋之圖> 冠成, 客有難者曰: "非先王之法服, 不敢服, 禮也. 子何不服先王之法服, 自作冠制耶?" 曰: "先王法服, 非不美也, 千載之下, 其制承訛而不眞. 况古今異俗, 駭矚取怪. 是以夫子縫掖章甫, 隨地而變, 以其不欲大異於俗以取駭也. 今余冠雖不能祖述古制, 其所取象者, 皆至理之所寓, 而氣數之流行者也. 居常戴之於元首, 象想其天理流行之妙一本萬殊之道, 自有嘿符於吾心之天者. 此吾之所以製是冠者也." 難者曰: "子之冠, 取象太極二儀四象四時十二月也, 而必名之以兩儀者, 何居?" 曰: "太極理之至隱者也. 四象四時十二月, 氣之分殊者也. 若兩儀者, 理之旣分, 而四象時歲含在其中也. 故統之以名之者也. 然此非欲廣傳於人而取法者也. 用布一幅而緇染之, 功省而易備, 意遠而理具, 合乎守貧尙質之窮儒矣." 難者退, 竝記其語云. 十九日. 乙丑. 少陽. 家有白羔, 牝牡相交, 生黑羔, 滿體靑黑, 無一白毛. 有問者曰: "凡物得父母血氣而生, 則白羔之生黑羔, 何耶? 此亦格物者之所可窮至底理也." 余索其本, 而格之曰: "天下只有一陰一陽而已. 彼飛禽, 陽物也. 走獸, 陰物也. 陰變而陽不變, 故凡禽鳥之色, 皆有常色. 如烏鵲鴈鴨鷹雀鷺鸛之屬皆是也. 又有陽中之陰者, 如鷄雛, 黑鷄生白雛是也. 凡走獸皆變化其形色, 如犬馬猫牛羔羊之屬是也. 亦有陰中之陽者, 如鹿獐狐狸之屬, 皆有常色是也. 家畜有常色者, 毛族有猪, 羽族有鳴[1121]. 山之毛族有常色者多, 亦陰陽之義也. 惟陽氣爲貴, 故禽獸之稟陽氣多者, 雌雄有正配, 稟陰氣多者, 牝牡相混, 正配者多常色, 混雜者無常色, 陽貴陰賤, 陽正陰駁者, 可見矣." 夕嘿坐自思, 人之一身凡百事爲, 皆係於心之一本. 一心淸明, 無事不和, 一心渾雜, 無事不亂. 是以儒家事業, 專在治心. 千古聖賢垂戒之言, 不勝其多, 而其要

1121) 원문은 羽族有匹家鵝인데, "匹"은 "鳴"의 오기이고, "家鵝"는 연문인 듯하다.

不過治心二字. 治心之法, 莫要於四書, 四書之中, 學庸尤緊. 宋氏諸說,《近思》《心經》爲最緊.《學》《庸》《心》《近》之中, 亦有緊要數語, 上可接堯舜一中字及夫子之所謂一貫之妙者. 嘗授其語, 默符於吾心靜中之妙, 可達千古不傳之秘矣. 余每留心於此, 而益覺其難悟. 近日朝暮之間, 依依然若有透得其眞妙處. 雖用工不熟, 俄頃有失去之歎, 不遠而似有來復之狀, 朱子所謂"用力之久, 一朝豁然貫通"者, 仍此或可得窺其萬一耶? 雖然, 到此地頭, 蹉一足, 則便化爲禪空去矣, 不可不知. 故記于此. 是日洪自一自錦城歸, 聞前縣監羅褘子尙今日亡逝. 子尙卽余外族慶州府尹羅公緯素之子也. 仕守恩津泰仁雲峯等縣, 以才能名. 治郡多聲績. 爲雲峯時, 以兼官暫守南原, 南原人民老少咸乞於監司, 願得羅侯爲太守, 其得民心可見. 徐君必遠爲方伯, 以羅君爲最曰: "牛刀割鷄, 但恨邑小云." 徐君素稱高亢小許可, 而見稱如此, 其爲人可見其才矣. 聞其死, 可惜也已. 余於甲午年丁內憂時, 厲氣滿于閭閻, 羅君趁先來問, 賻襚備至, 其厚意可尙. 今聞其訃, 亦可哀也已. 二十日. 戊辰. 少陽. 午聞宗家叔母吳氏【卽七寸叔父同樞公諱悛之妻. 當壬丁之兵燹, 全門殘破, 公獨被擄于倭, 卄年異域, 萬死千生. 與姜睡隱沆諸公, 全節歸鄕. 有五丈夫子, 以永其嗣續, 此皆公義勇誠孝之致也, 有自叙文集一卷, 外孫羅諫議晩成作序誌, 行于世.】訃, 卽奔赴喪次, 臨夕而至, 以黑笠素帶入哭再拜. 乃出變服, 與諸哀相吊. 第三弟漢傑於初終時, 斷指出血以進, 雖不見效, 其孝心可尙. 余憂其仍此傷生, 手開其指見之, 則第四指斷割已盡矣, 卽遣人得朋沙塗之. 蓋是弟於平日, 誠孝出人. 吳氏凡五男子, 皆有室居産, 而依養於漢傑家, 吳氏每以孝養稱之. 至是有是行, 人誰不爲人子? 而以孝事親者, 萬不有一. 人誰不欲以孝事親? 而至於忘身盡孝, 古亦罕見其人. 幸於吾一家兄弟之間而得是人, 可敬也夫! 一家咸會治喪. 二十三日. 辛卯. 大陽. 自喪次歸家, 來時歷拜林佐郎塇. 往吊羅雲峯褘喪, 其子斗三, 斗章, 其弟都事袗受吊. 吊後仍赴宙雲亭, 致慰于慶州公, 其次子井邑倅襻侍側焉. 八十老人, 涕泣陳哀, 見之慘矣. 聞惺菴李公壽仁下世. 公靑蓮李公後白之曾孫, 登第後不仕, 仁祖朝除正言, 不拜職, 孝宗朝拜修撰校理執義等職, 皆不就. 今上卽位初, 奔赴先王喪次, 仍經國葬, 除副修撰, 不拜而歸. 今春又拜司諫, 上疏辭不起. 嘗築室月出山下安靜洞裏, 滿室圖書, 沉潛靜養

者, 凡二十年. 尤用力於易學. 余嘗往拜, 論至啓蒙. 又質《心經》《近思》中疑義. 言語淸朗, 動靜恬淡, 眞遯世[1122]淸修之士也. 期以更與相就於月出山寺, 穩討所學. 且曰: "若稱以講論, 則世厭此名, 嘲笑隨之. 去其名, 而得其實, 同世人, 而有所眞樂, 此吾輩之所可勉也." 余曰: "制乎外, 所以養其中. 孔顔之學, 先謹乎視聽言動, 程朱之學, 尤愼於內外交養, 則安有外世人, 而內聖賢之學乎?" 蓋公恬靜好學, 而或不致念於檢束外貌, 故余微諷焉. 公微笑而頷可之. 其後余亦多病, 尙未踐山房之約, 而相致書論學而已. 今聞其訃, 不勝痛悼. 是日與羅井邑襻語問, 羅曰: "世俗於喪初, 朝夕上食不用肉膳. 吾家亦自先世皆用素膳, 此事如何?" 余曰: "禮朝夕奠用脯醢, 則上食之不用肉, 甚似無謂矣." 羅曰: "然則世俗之用素, 未知甚道理耶, 古人必有所見, 而爲用素之俗矣." 余曰: "我國古者士俗, 專用佛敎, 人之初死, 設齋[1123]飯僧, 此俗蓋仍於此矣. 儒者之家, 不宜遵俗." 羅頷可. 二十五日. 癸酉. 大陽. 家甥文鳳儀歸自靈巖, 寄愼聖弼書.【辭義詳見第九卷書札類.】六月二十二日. 己亥. 大陽. 令奴末生桔槔泉水, 數日致力, 扱秧僅數升地. 記之以見農家災殃之極. 蓋自五月初二日雨下之後, 尙未注一犁之雨, 赤地千里, 其慘不可言. 姑以今日之所見言之, 生民之命, 保生於秋冬之前, 不可必也. 人民相與偶坐於閭巷之間, 仰天垂泣而已. 當此時, 爲民上者, 所當竭心殫志, 至誠感天, 以求活民之道, 而任專城之責, 寄司牧之道者, 方且剝民之財, 刑戮日加, 而小無字恤之念, 可勝痛哉? 哀此無辜之赤子, 擧將何依? 不覺惻隱之發, 記于此. 二十九日. 丙午. 大陽. 午微雨自東南西方來, 霎然而止, 民情尤悶, 鄭梓來言: "今月二十五日, 於綾州邑深井中, 結二條氷, 長可一尺餘. 汲水人見之, 多人聚看, 摘之置于掌上, 俄然而解云." 今年大旱, 古今所罕之變. 人心危懼, 朝夕難保, 而六月堅氷, 是何影耶? 可懼可懼. 七月初一日. 戊申. 大陽. 久旱之極, 田野已荒. 況連年饑甚, 四民遑遑, 田財奴僕寶玩鬻賣者盈于道路, 而人無求買者. 人人有必死之心, 而無樂生之氣, 見之慘矣. 嗚呼! 半生讀書, 豈無愛物之心? 而無術以濟之. 非徒不能濟物, 自己妻孥,

1122) 世 : 士

1123) 齋 : 齊

猶且不能濟, 飢嘆之聲盈室, 豈勝嘆哉? 昔伊尹見一民之不得其所, 若己推而內之溝壑, 學者當志伊尹之志可也. 而無才不可施, 無行不見知, 奈何? 日對飢民, 嘆咄而已. 今日將以救飢, 使奴賣田于人, 不售而來, 仍感而記. 非惜己之窮也, 不無傷時念也. 初三日. 庚戌. 大陽. 曉與前監察洪鍾聞入館庭, 行拜哭禮, 乃先王禫日也. 是日聞前右尹愼公天翼之訃. 公監司喜男之孫. 公考無子, 與妣某氏禱于智異山而孕. 妣夢青鳥一雙從懷中出, 一上天一入海, 而已解胎, 乃孿也. 長曰天翼, 次曰海翼, 蓋從夢徵也. 兄弟自孩提神表異凡. 丱年, 從趙玄洲纘韓學. 自童時, 以詞賦名世. 伯年二十登第, 次年二十一擢謁科壯元. 官至員外郎. 年二十六而卒. 卒後, 原州文官崔文煥及弟文煜, 在童年, 亦能治文詞. 一日兄弟俱遊于州校. 月夜文煜出步于庭除間, 忽於怳惚身到一山上, 文士十餘人羅坐, 言貌淸俊. 其中一人言文煜曰: "余靈巖愼海翼也, 余兄今在靈巖, 君幸傳我消息于余兄, 如何?" 崔"唯唯". 因忽不見. 翌日崔之家人, 遍求山澤, 深入山中, 則崔坐于藤蘿上. 歸家見衣裾中, 有一圓石子, 綻而視之, 滿裾書辭, 乃海翼筆也. 原與靈地遠, 崔曾不聞愼姓名爲何. 愼公天翼聞其事, 跟尋而至, 見其書, 果乃弟筆也. 其後文煥登第, 文煜中進士, 不復科. 此事, 余聞于參奉崔瀷. 崔乃愼同閈人, 審知始終無疑. 其後文煥爲靈巖郡守, 文煜從焉. 人皆問其事虛實, 崔丁寧言之云. 蓋此事似涉怪誕. 而覬公平生, 官極淸要, 而一不出. 名藉一時, 而若凡人, 縱酒淸談, 不拘小節, 杜門深居, 人罕識面. 或對人, 卽命酒放言, 傍若無人. 語及時事, 以詭言戲答而已. 以此見之, 其自處之道, 必有所志矣. 故今聞其訃, 慨高人之化去, 而竝記其語, 使後人知公之大槩云. 初七日[1124]. 甲寅. 自夜半雨作曉止, 朝食後雨作. 蓋自五月初二日後, 今日之雨頗沛然也. 但秧未扱疇, 菽未立苗者也, 已無及矣. 余看方書諺語, 多有明驗. 方書云: "立春日甲乙, 則歲豐." 又曰: "夏上甲雨下, 則船入村巷." 今正月初五日乙卯, 是立春也, 五月十六日上甲午雨, 而皆不驗. 諺曰: "元望月光澤, 早晩占豐." 而今年元望之月, 農民贊其有豐象. 諺曰: "兩麥占西成." 而今年麥農, 不[1125]

1124) 日 : 夕

1125) 不 : 보충

可謂登熟, 皆不符. 今而後, 知古言不相符也如此. 但有一驗. 諺以春雨頻數, 譬家母手大. 今年春雨頗頻而符其言矣. 然或有不符之歲矣. 午文入柱等來拜, 得見前判書趙絅疏草. 蓋以久旱, 自上避正殿求言, 趙應旨封疏. 其大略曰: "殿下側身警災, 審理冤獄, 第一義也. 尹善道之獨不入審理, 何哉?" 疏入, 政院啓曰: "尹善道之罪惡, 國人之所共憤, 聖明之所洞燭. 而趙絅, 乃敢肆然扶植, 譸張眩亂, 引喩陰慘, 略無忌憚, 其在出納惟允之道, 不當朦然入啓, 故捧入之意. 敢啓." 傳曰: "如此陰慘之疏, 覽之何益? 卽爲還出給云." 初因論禮之故, 而轉輾至此, 駭機之不測, 有不忍言者. 國家之事, 可謂罔極矣. 十二日. 己未. 小陽. 午雲起東南方, 千峯競秀, 色若濃玉. 望之非常, 口成一律, 有"玉作奇峯列百千, 平排南極半腰天"之句. 十三日. 庚申. 小陽. 夜半起視, 天月淸霽, 氣象澄湛, 口成一絶, 有"顚風急雨運神車"之句. 十四日. 辛酉. 大陽. 自午雷雨甚急, 至暮而止, 天月明快. 又成一絶, 有"龍驅滄海駕雄風"之句. 十五日. 壬戌. 少陰. 愼聖弼專人以書來問. 且告素隱愼公天翼之訃, 六月十五日下世云. 又痛其舅惺菴之喪, 辭意懇惻. 卽答書以送.【詳見第九卷書札中.】午有"南國高人已上天"之句, 右爲素隱作也. 有"正道無傳已百年"之句, 右爲惺菴作也. 二十八日. 乙亥. 少陰. 堂侄履相問"人之死於閏月者, 忌祭用本月, 所付之月, 禮有明文. 若遇閏月於忌日, 以閏月祭之否?" 曰: "此變禮而古無考, 難以臆決. 然閏者非天時之常也. 恐當以本月爲祭."

南圃集

卷之十五

閏七月初八日. 乙酉. 大陰. 從弟羅禃來拜. 其從侄羅斗三付書, 仍問其考雲峯君權葬之禮. 蓋以地家山運不吉權葬, 而其父兄論議不一, 故發書來問.
初九日. 丙戌. 少陰. 羅禃還. 答羅斗三別紙曰: "自堪輿家拘忌之說肆行, 權厝待吉之俗始起. 仁人孝子之上有兄長, 不得自專, 將何修而無犯於俗忌, 不悖於經禮耶? 世之遭此者不一, 而擧皆循例行之. 大孝援據古禮, 必欲極盡於大事, 足見純孝之至也. 但鄙人識淺見陋, 素昧禮學, 何敢妄容一言, 以塞大孝之盛望哉? 感孝意之勤, 不敢終孤哀懇, 略具一二臆說, 列錄于左. 既曰松殯土殯, 則與有故移殯之禮等矣. 既曰移殯, 則無祖奠永訣之節, 然後方可謂之殯. 今既曰權葬, 則牽紼發引, 樹豐懸窆之節, 全用葬禮, 而獨於禮贈題主二條, 棄而不行, 曰是殯禮云爾, 則未知如何耶? 然則, 虞卒哭祔禮, 亦可廢而不行耶? 穿壙下棺實土封塋, 則是幽宅, 是窀穸也, 返魂虞安之禮, 何可廢哉? 卽題主懷祝之節, 不可不擧. 反復思之, 大孝今用葬禮, 後用改葬者, 似爲得宜. 中國之人宦遊京師, 萬里歸葬, 勢不可易, 故有松殯土殯之俗. 然北京土氣寒, 無虫蛇水濕之患矣. 吾東窮海之陬, 乃虫蛇螻螘之窟, 安保虫蛇水濕之必無乎? 設使必無是事, 孝子仁人之心, 終必有未安者矣. 故愚意以爲雖半年權葬, 略用石灰隔板, 可也, 未知如何? 壙中幽室, 謂之宅, 墓地塋域, 謂之兆. 雖數月權葬, 尙可爲數月之宅兆, 告土之詞云云, 似無所疑. 况退陶之於丘瓊山, 可得改也, 凡人之於朱子, 容易改換耶? 張子曰: '大功以下筭閏, 自朞以上以朞斷, 不計閏云.' 除服者之會, 葬者當從喪服小記註說. 但以<玉藻>註'父有喪, 子不可純吉'之說推之, 來喩在喪側白帶之說, 似不可施於緦[1126]功之服矣. 然來參祭祀, 則似可以吊服來與矣. 未知如何? 葬地雖至近, 不用大轝, 恐非致謹致敬之至. 且子弟之事父兄, 與父兄葬子弟之禮大異, 凡儀節度數, 恐不可苟用從便. 葬前發書, 問難喪禮於知舊, 古之學者亦有行之者." 聞錦城縣監元斗樞, 新加堂上階, 蓋用御使金壽[1127]興褒

1126) 腮: 緦.

1127) 守: 壽.

啓也. 斗樞莅官之初, 以嚴明稱, 近來一境譁然仇怨. 今聞階加堂上, 闔州之人不怨斗樞, 號辱壽[1128]興如讎矣. 六月民方飢苦之日, 督捧兩麥於民間, 笞鞭狼藉. 又頒鹽魚一小塊于民間, 督收大麥三斗, 三斗之納, 民費六斗. 有不及納者, 囚四十餘人于一小房, 鎖其戶, 以火烘其突, 自朝至暮, 人皆垂死, 然後出囚于獄, 哭聲徹天云. 如此酷烈之事, 非一二聞之, 不可勝記. 前聞此人曾從事於儒宗之門, 或有以淸介公正稱之者, 邑政如此, 未知何故而至此. 可嘆可嘆. 二十五日. 壬寅. 朝尹俶以書來言: "砥江秋興方佳, 盍往觀之?" 食後余揮鞭赴之, 終日逍遙於江上松亭. 尹生等爲余設網得魚. 興致甚適, 日暮而歸. 是日, 江上吟成二絶, 有"水面澄明湛若空"及"淸流一帶翠如羅"等句. 二十七日. 甲辰. 大陽. 吏房丁遇說, 以監司賑救狀啓來示. 啓中九條. 一, 請災邑田稅蕩減不捧, 而以稍實山郡之稅, 移賑災邑之民. 一, 請未行大同各邑貢物, 收捧於各官, 以爲救荒. 一, 請行大同各邑未收春等米七斗, 蕩滌不收, 秋等六斗之米, 則捧留各邑, 以爲官需及進供物種之價. 一, 請高田之被災者給災. 一, 請災邑一應傜役, 盡皆蠲免, 軍匠價布, 亦皆許減. 一, 請減價賣官. 一, 請校生納粟. 一, 請寺奴婢官奴婢鄕吏許納穀免役. 一, 請此外未及思得者, 連續啓聞. 辭意懇惻[1129], 愛民憂時之心, 見於言外. 近來監司之賢者, 未聞如此. 但未知朝廷, 何以處其請? 而監司, 亦終始保守此心否? 從當觀之. 八月初一日. 丁未. 大陰. 愼聖弼, 專人致書, 告以李惺菴葬日, 且送挽紙, 書辭懇切. 且問沙溪云: "小兒主喪者, 於虞祭祝辭, '夙興夜處', '哀慕不寧'等語, 改書無妨." 如改之, 其詞何以書之耶? 舅氏繼後孤, 今十三歲, 故敢問云. 初九[1130]日. 乙卯. 大陰. 使靈巖文甥鳳儀致祭于惺菴. 是日雨聲至夜不止. 獨坐悄然, 口成一絶, 有"蕭蕭秋雨響茅簷"之句. 愼聖弼答書, 且製送挽詩排律十三韻【詳見第二卷五言排律.】及祭文.【詳見十二卷<祭李惺菴文>.】不錄于此. 十二日. 戊午. 少陽. 午後, 日氣晶明, 秋思淸爽. 淨掃堂宇, 端坐對案, 思慮不起, 百體靜泰. 安得恒持此氣象乎? 古人所

1128) 守: 壽.

1129) 測: 惻

1130) 十: 九

謂秋月寒氷之譬, 能如此否? 二十二日. 戊辰. 少陰. 午酉風雨作, 移時而止. 闔戶獨坐, 仍思昨日與金仲源語. 仲源, 仍擧光州人等指摘余過擧處, 一一言之. 其間, 或多有吹毛者之已甚, 偏時者之斥言. 然皆余律身不嚴, 治心不密, 爲學不勤, 愼言不篤而致此口舌, 此豈非[1131]可戒可懼之甚者耶? 但世方論議分歧, 引物辨色, 各有所阿, 希覬利名, 而余以一身, 當衆流之衝, 持心欲公, 處身欲中, 不以世俗所偏自處, 而特立不倚則衆口之集, 安得免乎? 至於自失而得非於人者, 自此痛加繩墨可也. 至於仍時議而易其中, 混於流俗, 余忍爲哉. 仍書而警之. 二十三日. 己巳. 少陽. 北風微起, 日氣淸凉. 午前端坐收束. 午後命兒僕收園中豆箕水荏, 杖屨往來于其間, 或手鎌刈豆, 或住杖望遠, 或擧頭仰天, 頗有至樂. 而已夕陽下山, 歸鳥投林.【一作簷】余亦悠然而還, 几案淨靜, 經傳在床, 欣然寓目. 無非澄心悅意之具, 何必外慕爲哉? 二十四日. 庚午. 少陽. 吳再發以書來曰: “秋氣良爽, 龜潭之澄浪可玩. 今與一二知舊, 相約會敍于江磯澳, 具酒樽, 謹以辦矣. 倘倍杖屨而爲一日之淸賞乎?” 余聞言卽駕, 俄頃而至. 士人李韶其弟謳, 吳再發兄弟, 李雲槫諸人, 竝童冠八九人, 班荊而坐, 開樽于水石之涯, 迎余而入. 列坐于江磯之上, 叙寒暄訖, 命酒數酌, 而海英弟自光州牧所至矣. 而已漁人因筏, 而倚于巖邊, 進錦鱗赤鯉數箇, 命童子切膾. 傳酒之暇, 雜以閑談, 興致佳適, 澄潭若鏡, 暝色依微. 循岸一路, 隱暎靑莎, 遂與別, 浩然而歸. 塵中一良遊, 亦爲一樂. 九月初一日. 丁丑. 大陽. 是日, 偶披《焦氏易林》, 得以六十四卦三百八十四爻, 分配一年三百六十日之法. 六十四卦, 除震離兌坎爲四正, 各配一日, 得四日六十卦, 六六三十六得三百六十日, 共三百六十四日. 起前年十一月二十日冬至, 復之初一爻, 至今年十一月初一日冬至, 三百六十四爻盡用矣. 自明日配日爲記是計. 而但十月二十八日, 坤之上六畢配, 而晦日爲剩, 是則未可知也. 從當更考. 初三日. 己[1132]卯. 艮六五. 是日, 參考《易林》及邵氏圖, 作六十四卦配二十四氣之圖及說. 別錄不記此. 初五日. 辛巳. 謙初六. 少陽. 太守趙君億, 來訪而去. 聞以今月二十四日設增廣生進試, 十

1131) 非: 보충

1132) 乙: 己

月十三日文武科設場云. 蓋以世子誕生慶及兩慈殿上徽號及先王祔廟之慶也. 又聞聖上從本道方伯啓請九條賑民之狀. 民生可甦, 聖恩如天. 孝宗大王誕五公主, 今上無兄弟, 卽位三年, 世子未育, 一國人心危疑. 今聞世子誕生之慶, 其喜可言? 蓋八月十五日辰時始誕云. 十二日. 戊子. 否六二. 少陰. 聞錦城前判官柳公浚卒. 柳公不仕家居四十年, 處家事有法, 立書齋敎養後學, 年今七十八而卒. 弟子持服行喪者四十餘人. 子誠吾懷德縣監, 二子昌吾亨吾, 孫尙運, 具有文才, 皆登司馬. 十九日. 乙未. 萃六三. 往見邑宰. 蓋謝頃日主倅來見之禮也. 古人非公事不見邑宰. 余居鄕, 邑宰每有來見致禮, 或累致禮物, 不得已有往謝之禮. 踈野之蹤, 頻入官門, 極有非便. 而先塋在此土則爲此地主者, 屈禮致敬, 而寞然無慰答之禮, 於義亦未安焉. 故有此不得已之擧. 可嘆可嘆. 十月初七日. 癸丑. 觀六三. 少陽. 聞敬差官呂曾齊肆虐刑于縣人. 先是, 本道三年饑饉甚酷, 而今年左道山農稍勝於海邑. 然本縣之農, 無異於海邑, 故監司李公泰淵以本縣同列於災郡啓聞. 錦城縣監元斗樞, 乃右相斗杓之弟, 性本殘虐. 曾於忠州牧使時, 李公泰淵爲忠淸監司, 以事汰斗樞而逐之. 今年秋, 斗樞受由抵京, 言于宰執曰: "南平之農, 無異豐年. 而監司與南平倅故舊, 故冒以災荒, 瞞報朝廷." 於是, 宰執白上, 仍遣敬差官于左道以檢之. 蓋南平邑井沿水數里, 稍得成農, 故元藉此, 欲嫁禍於監司而報往日之怨故也. 九月十二日, 呂曾齊自靈巖抵本邑, 全不審覈田野, 杖都監尹先甲都書員宋大春. 大春抵死而甦. 又以居處不適, 杖官吏甚酷. 而昨日, 又自綾州到縣時, 鄕中人前參奉徐荇等七十餘人, 村漢等百餘人, 伏于路傍, 上書哀乞, 仍陳飢寒之狀. 曾齊大怒, 僇辱徐荇, 囚其奴及常漢等于獄, 酷刑監官書員等七八人. 先是, 本邑災荒一千九百餘結盡汰去, 只存六百餘結而去. 監司不得已以次災邑更報于朝, 食穀及賦役, 徵督行會. 人心若崩, 怨讟徹天. 流死之禍, 迫在朝夕, 非徒本邑, 到處刑杖殘酷, 飢寒之民, 又加以刑戮, 不忍言不忍言. 人皆曰: "曾齊之, 酷於饑饉." 十一月初一日. 丙子. 復初九. 少陽. 齋居終日, 今日, 乃冬至日也. 有絶句"夜半天心"等語. 十二月十一[1133]日. 丙辰. 无妄九四. 大陽. 晨起, 行外祖考忌祭. 日氣

1133) 二: 一.

溫和, 頗有春氣. 飢民之苦, 日復日深, 道路之上餓殍相望. 聞務安古漢橋上, 有一女抱二三歲兒而坐, 半日哭泣, 臨夕投其兒于橋下, 大哭而去云. 蓋以飢餒勢不能母子兩活故也. 聞極悲憐悲憐. 十二[1134]日. 丁巳. 无妄九五. 大陽. 從侄履相, 貿穀于綾州. 余謂曰: "昔季路百里負米以養親. 人子之於親, 力之可及者, 皆所當自盡. 今人値此大饑, 不肯躬執家事, 使其親至於飢餒者多矣. 汝能辦此事, 以奉親爲意, 余甚惻然云." 十五日. 庚申. 明夷六二. 大陽. 朝陰霧四塞, 不能辨百步物色, 日高而止. 今日, 乃立春節也. 陰毒之氣如此, 此何影也? 生民飢饉不死而徙, 而厲疫又從而起矣. 首節之陰霾之氣, 昏塞否暗, 決非吉象. 憮然而記. 十六日. 辛酉. 明夷九三. 大陽. 日氣和煦, 無異仲春. 午吊尹忠義儆. 返魂柳車之制, 詳載《家禮》, 而世俗無有考出而製之者. 余使金載華言于喪家, 詳敎其制度, 而造之. 其制極好, 護喪諸人, 皆致謝於余矣. 但伏兎之制, 似有難從本文. 故別立小柱於長杠, 杠之近上, 度柩高而設圓鑿, 與小方狀[1135]小柱圓鑿相當, 而設橫扃通貫之, 上下原坂傾側甚偏, 而柩常平正. 庶使爲人子送終大事, 自此相傳其制而不失云. 十二月二十九日. 甲戌. 旣濟六四. 少陰. 灑掃庭宇, 終日齊居, 今日乃歲除日也. 歷考一年歲功之終始, 而記之曰: "春雨時降, 人民望豐, 夏旱亢極, 田畝災荒. 秋冬之間, 餓莩相望, 盜賊恣横, 厲疫又從而熾發. 流民老弱, 道路如市, 酷吏淫官, 刑戮縱肆, 而生民之困, 日深月滋. 美政雖發於聖明, 膏澤不究於赤子, 林下之憂雖切, 奈何? 信筆記事, 又反而思之, 一年三百日, 虛度光陰, 晝起夜伏, 所成者, 何事? 治心不密, 學無寸進, 律己不嚴, 積謗如山, 反躬自思, 仰愧俯怍. 庶幾來歲改心易慮, 舊過氷解, 新知漸進, 庶可作晩景小過之人耶? 可嘆可嘆. 是日未申時, 雷聲電光申方, 仍下雨, 日光晦瞑. 顚風急雨, 乍止乍作, 雷聲電光倏起倏滅. 勢甚非常."

壬寅正月二十六日. 庚子. 同人九五. 少陽. 近日無事, 靜坐收斂之暇, 閑閱《宋史》, 至光寧之間, 奸鬼用事, 指道學爲僞, 寓目不堪鬱. 見之若今日事, 不

1134) 三: 二.

1135) 狀: 牀.

覺累百年前事, 掩卷咄嗟. 二十七日. 辛丑. 同人上九. 少陽. 余嘗以爲人心之妙, 本與天合, 但透一重私己, 上達天理, 人間萬事, 可以總貫, 此而不得其成, 雖歷覽萬古, 竟無益於吾事. 是以余未暇及於讀史. 近者齋居之暇, 閱遍《宋史》, 肅然若身處本朝, 上應君父, 下班宰列, 內辦庶務, 外禦邊事. 自不覺其心神定肅, 外體端嚴, 惰怠之氣, 不起於心身, 而几案堂室, 儼然若朝廷, 於吾爲學, 所補大矣. 此可爲讀史法, 故記之. 二十八日. 壬寅. 臨初九. 大陰. 東風時起, 多有雨勢. 靜坐潛心, 時或念及已往年月, 微愆大過, 不一而足. 追思不覺有愧于天. 自此庶可挺然立志, 毅然發憤, 消除舊習, 日有新得, 未死之前, 得爲寡過之人歟! 先正有言曰: "無身過易, 無心過難." 又曰: "有身過, 人得而責之, 有心過, 神得而非之." 此語當終身誦之可也. 三十日. 甲辰. 臨六三. 少陽. 終日靜處. 午後, 起而看梅于東皐. 故吟一絶. "聞道東山已放梅, 一筇閒步穿莓苔. 無人識得尋芳興, 滿袖淸香獨自回." 春雨新晴, 雅意如此. 二月十四日. 戊午. 節九五. 少陽. 文八柱來贈三寅刀. 寅年月日所鑄冶. 或曰: "經三寅日鑄冶者也. 今年正月初四日戊寅, 十六日庚寅, 二十八日壬寅, 經此三日而成此刀云." 然則以壬寅年壬寅月壬寅日成之, 而中經戊寅庚寅. 戊爲中央正色, 庚爲西方正金, 壬爲北方慄烈之氣, 而五箇寅爲猛虎之神. 合其氣鍾于此刀, 其爲神物宜矣, 其將爲主翁之用乎! 十九日. 癸亥. 中孚六四. 寒食之節, 大風雨氣候, 至今日開霽. 和氣藹然, 萬象逞露. 原梅半落, 庭草初生. 觀物察理, 反己省心, 有新得之趣, 無舊染之萌. 士人有來講《心經》者, 端拱靜讀, 益覺深味. 使我長存似此氣象, 存主不失, 其進豈可量哉? 而身多疾病, 外貌不莊, 心本懦弱, 內志不固. 治日少而亂日多, 敬惺寡而昏惰勝, 使天理之發, 一薛居州, 而外物之誘, 衆於宋人, 可勝痛哉? 心之所發, 隨筆而記, 以備警箴. 但恐斂筆掩卷之後, 此念已消而他念又生, 愼之愼之. 是日花堤平人來謁言: "本縣籍飢民設粥飼之. 其數以千計, 口旣煩多, 而所喫之粥稀而小, 官吏又因緣作奸, 和水於粥飼之. 人皆黃病, 而死者日一二人. 他縣之流民, 飼之又不如縣人, 路傍之殍相望云." 聞之慘矣. 仍記日者, 余與光牧言, 言及飢民之餓殍相藉, 光牧答曰: "此輩雖在豐年, 不能樂業耕織, 無所事爲, 生無益於世, 死無損於國." 余曰: "才不才, 各言其子. 彼雖殘民, 自其父母者見之, 愛恤之情, 何間於賢愚哉?" 至今思之,

爲牧民之官, 其言如此, 俗吏之見, 每出如此, 可謂哀此煢獨也! 二十五日. 己巳. 歸妹九四. 少陽. 聞光州宋㕓參生進兩科, 朴致道參進士. 致道, 故進士忠挺之子. 忠挺之父富給, 爲盜所殺, 忠挺知盜在同閭. 三年後, 忠挺, 使其僕貿細布于盜家, 見其署, 乃其父手標也. 又使他僕潛從盜, 而市衣於肆, 乃其父衣也. 忠挺, 潛往州官, 泣言其故. 急捕盜屬, 而刑之, 盜乃服之, 大戮其類. 忠挺, 痛父非命, 取其父出息資財文劵焚之. 終身不赴科試, 杜門罕出, 鄕里見其面者鮮矣. 其爲父報讎, 三年伺察, 從頌盡道, 至於如此. 焚劵廢科, 杜絶榮利. 痛不能救其父於亂賊之中, 終身引罪, 閉門囚跡. 其篤於誠孝, 可尙也已. 其子致道, 少年登庠, 而其才也, 人將期於遠大. 或者, 忠挺孝行之報應歟! 聞各邑飢民設粥之所, 死人相積, 本邑尤甚, 死者日不下四五人, 官街巷路, 積屍相藉, 慘不忍見云. 聞之酷矣. 二十九日. 癸酉. 睽九二. 少陽. 縣吏奉吏曹關文來謁. 考其關辭, 以本月初九日政, 收敍臣萬英除童蒙敎官, 責以及期行公云云. 天恩所曁, 惶感無地. 三月初二日. 乙亥. 睽九四. 少陽. 自念余以畎畝愚陋, 獲竊祿秩, 于今三朝, 平生蹤跡, 隔絶朝市. 而除拜誤恩, 猥蒙累次, 雖守愚安分, 不敢冒進, 每念及此, 不覺惶愧. 庶或仍此警惕, 夙夜兢戰, 讀書省愆, 鞭辟頹惰, 未死之前, 或有變化陋質, 進步尺寸, 一以報累朝盛恩之萬一, 一以復天賦本然之良性, 倘無愧於得名爲人之道耶? 仍記于此, 以爲銘心鏤骨之戒. 初四日. 丁丑. 睽上九. 少陽. 靜坐終日, 有味乎無味之中. 仍成一絶, 有"主靜方虛一"之句. 初七日. 庚辰. 履六[1136]三. 北風終日, 黃塵四塞. 午任冕來見. 聞尤庵宋公拜兵判, 同春堂宋公拜都憲. 二公遭遇孝廟, 位極顯隆, 今上當宁, 杜門不赴命者今四年矣. 未知今蒙大除拜, 果不俟駕耶否? 以余見之, 方此之時, 天心未豫, 饑饉荐臻, 野積餓殍. 人心解離, 朝綱陵替, 大臣連喪. 瓦解土崩之勢, 朝暮且迫. 若余之畎畝賤愚, 不覺中夜起嘆, 有瞻烏爰止之痛. 況二公蒙先王之殊遇, 位已極於台鼎, 尙能安眠於蔀屋之下耶否? 言之至此, 自不知仰樑長吁. 仍記于此. 初八日. 履九[1137]四. 日氣如昨, 而北風昏塵益甚. 心氣不平, 閉戶凝坐, 完養神心. 夕聞

1136) 九 : 六

1137) 六 : 九

邑中設粥所, 一日死者七人. 隣村民有兩妻者, 以染病死, 兩妻出走, 村犬爭咬其尸, 而族人亦不收. 又有兩子母死于道傍, 群犬爭咬, 而其子不顧云. 人心之慘至此耶? 痛痛. 蓋以死亡將迫, 父子夫妻, 亦不相保故也. 古亦有如是事否? 痛痛. 二十二日. 乙未. 大畜上九. 聞南公九萬以賑恤御史[1138]往嶺南, 上引見, 命以採訪人才之意. 九萬退, 而上疏言: "臣曾薦金萬英于朝, 自上無採用之意. 今臣雖採訪人才, 竟何補於國哉?" 上特下旨銓曹, 命斯速付職, 故有敎官之除, 而吏曹參議兪公棨, 亦有論薦云矣. 五月初五日. 丁丑. 姤初六. 五月在辟卦爲姤, 今端午又爲姤之初六, 天時卦氣, 自相符合如此. 天道流行, 安可誣也? 一陰初萌之始, 古人之設戒也至矣. 氷雪融寒之慘, 未嘗不萌於夏半陰始之初, 則大而國家君子小人進退消長之幾, 微而吾心天理人慾公私邪正之判, 無不合. 其端甚微而難見, 其長漫天而極地, 可不懼哉? 今日妙冥難測之中, 一陰肅然之氣, 已兆於衆陽之下矣. 反而求之吾心, 人所不知, 己所獨知之地, 未知幾姤而幾復也. 舜之所謂惟精工夫, 可用力於此際矣. 嘿對天時, 用識于此以自省云. 十九日. 辛卯. 鼎九三. 大陰. 朝, 宗家行練祭, 余以氣未平不能參祭. 朝開戶視之, 蒼松滿壑, 綠樹循除, 不勝感古之懷. 蓋我高祖進士公甥侄朴思庵, 作相於宣廟朝, 乞暇還鄉, 參省于外先墓山. 進士公榮之, 作齋所于此地, 仍名曰"興慶寺", 丁酉之亂, 寺毁于兵火. 我王父公構小屋于基東北, 名之以碧松堂, 歲久而毁. 此室則余與諸族人謀建者也. 仍念兒時陪先父兄諸丈, 往來參省于先墓, 仍就宿此地, 完然昨日事, 而已作三十年舊跡矣. 俯仰思惟, 難以爲懷也. 二[1139]十七日. 戊辰. 訟九四. 少陰. 夕文三古自靈巖來拜, 卽余外眷戚弟也. 問曰: "戚兄曾作通文抵康津靑蓮祠宇, 喩以李惺菴壽仁配享於本祠云, 然耶否?" 曰: "然." 曰: "靈巖士人, 多以有惺菴不足配於本祠, 勸而配之, 亦過矣, 口舌喧傳, 聞者附和. 戚兄其無以解其誚乎?" 曰: "固矣. 明月夜光, 以暗投人, 人莫不按劍, 何哉? 曾所罕見, 猝然遇之, 心駭目動, 不覺怒魄, 乃人之情也. 今李公深居窮谷, 人罕其面, 雖或與人接者, 言笑動靜同於人, 飮食起居同於人, 見之者心

1138) 使 : 史

1139) 앞에 六月을 보충해야 함

忽之於平日, 今聞余大言, 莫不驚怪, 亦常情也. 今俗人之心, 以爲儒者之形貌顔色, 飮食事爲, 必頓別於衆人, 及見之, 與別人同, 則曰: '彼亦凡人, 非儒者也.' 此孟子之所以不得已而發堯舜與人同之之語也. 彼李公晩悟志學, 杜門求志之人也. 其事爲言動, 固無驚俗動世之事業, 則俗人今日之此言, 不亦宜乎?" 曰: "儒者, 不能不同於人哉?" 曰: "深求隱僻之理, 然後可以驚俗人之心, 過爲詭異之行, 然後可以動世人之耳. 此二者, 儒家之諱言者也. 是以君子之言, 同於衆人, 而所同之中, 自有不同者, 君子之行, 同於衆人, 而所同之中, 亦有不同者. 其所同者, 人人之所可見, 其不同者, 則豈凡耳目之所可瞻聆者也? 旣不能及知, 則其毁之也, 非故毁之也." 八月十三日. 癸丑. 遯初六. 天氣明爽, 堂室蕭然, 獨坐牀上, 或臥看古書. 口吟一絶, 有"碧淨秋天霽"之句. 九月初十日. 庚辰. 漸六四. 看《易圖說》, 感成一絶曰: "易外無天地, 羲文畫影形. 須從天地裏, 點檢畫中名." 蓋大易之道, 流行於天地之間, 一草一木, 一禽一獸, 遠之古今, 近之瞬息, 無一物一時之非易, 則易之全體, 寓於天地, 而彼羲之畫文之辭, 特畫出影形而已. 上智不待畫與辭, 而固可默識在天之易矣. 中智以下之士, 亦可因其辭而知畫, 考其畫而知天矣. 十月初[1140]八日. 戊午. 萃六二. 大陽. 錦城柳簞來見, 孝子公信之子, 於吾外眷八寸也. 公信少喪父母, 及長六年追服, 終身居于墓下, 晨昏省墓, 寒暑不廢, 墓前俯伏處, 草爲之不生. 太守李汝翊, 聞其孝, 而往見之, 封其門外孤松, 名曰"孝子松". 後朝廷聞其行, 旌表其門. 二十九日. 己巳. 觀九五. 少陰. 使奴將黃豆四斗買木于市, 不得買而來. 今年春夏間, 積莩成邱, 一匹之木, 直米二升, 易豆四升, 而人猶恐不及買. 數月之後, 得農稍稔, 一匹之木, 直租八九斗, 易豆五六斗, 一尾之魚, 其直數斗. 市場之間, 酒肉狼藉, 閭巷之曲, 歌舞成群, 人情之好糜費而易怠安, 一至此耶! 今農雖曰稍稔, 積年逋欠, 公私之債, 一時徵督, 而大同法又行於此時, 各司積年未捧之貢, 程董又急. 民之所食所餘者幾何, 而民心愚闇, 昏不知戒, 國事民心, 似無可爲者. 悵然而記. 十一月十一日. 辛巳. 復六三. 冬至日也. 晨起, 參拜于家廟. 風雪慘烈, 終日閉關而坐, 以養微陽. 有"一陽來復是天根"之句. 十二月初七日. 丙午.

1140) 初: 十

噬嗑六三. 大陰. 午里胥來, 督還穀甚切. 且以山城運米, 京大同納米, 官司納柴等役, 董刻甚至矣. 蓋以三年大侵, 久未收官穀, 以今年小稔, 積年逋欠, 一時徵督, 而他郡移賑及山城運米大同重賦, 層疊刻捧. 今農雖曰稍登, 而流徙之民, 尙未安集, 飢困之毒, 尙未蘇健. 而今年綿種之農, 又極不實, 飢餘之民, 體無完衣者. 郡縣之獄, 充塞矣. 加以括充閑丁之令, 朝暮星急, 一族侵漁之禍, 擾塡閭里. 愁嘆之色, 號泣之聲, 道路相望. 人人相謂曰: “恨不死於年前之飢, 而逢此百罹也.” 嗚呼! 民事至此, 國將奈何? 而無一人建白施恩者, 至有蠲減之命, 雖下於聖敎, 而徵輸極毒於州縣, 可勝嘆哉! 徒懷柒室嫠婦之嘆, 而咄咄於蓬蓽之下, 謂之何哉? 三十日. 己巳. 賁六二大陰. 終日齊居, 以送舊歲. 是歲也春夏大饑, 積殍成邱. 農雖稍稔, 賦斂極苛, 閭里之間, 卒歲無資. 蓋夏間州縣積尸相藉, 流民顚徙者, 塡塞道路, 而守令不以實報于監司, 監司徒信守令之口, 亦不以實聞于朝廷. 是以官債之償, 大同之設, 括丁之急, 水火督董, 延及于一族, 隣里郡縣之獄囚者如市, 官司之庭, 杖血淋漓, 不忍言矣. 一年將暮, 默念余一年身心上事, 著之于日用事爲者, 雖無大過, 思慮之微, 進學之工, 氣質之染, 舊習之陋, 未有能廓然變化之效. 靜坐一室, 點檢已往之事, 不覺仰愧俯怍. 持筆于此, 以爲明年恐懼修省之本云. 余少時, 於書冊面紙, 或空行處, 好寫文字. 年十七歲, 拜靜軒高公. 【公卽先生內夫人外祖. 霽峯第三子, 官正郞.】公深於禮學, 氣甚端重. 陪話之際, 適見書冊面紙有雜書草字, 公遽曰: “吾平生甚惡點汚書冊. 況聖經賢傳, 敬之如神明, 尊之如父母可也, 其可以墨筆塗抹耶? 足見其用心不端矣.” 余聞言卽懼然, 面發赤色, 大覺前日之非, 自是, 未嘗妄加一點於書冊. 嗟夫! 使余早從明師而勉學, 則至于今日, 作人如此哉? 偶思古事, 愀然而記. 癸卯. 二月初八日. 丁未. 臨六三. 三更四點, 起坐澡洗. 服公服執笏, 入就聖廟, 行釋奠禮. 聖賢列位肅穆, 上香酹爵, 若或見乎洋洋如在之氣象, 此心自然主敬莊一矣. 禮畢出門, 日已昧爽, 釋公服, 復就齋坐. 日午與諸生, 小酌餕餘而歸. 七月十三日. 戊寅. 升上六. 大陽. 聞廣州府尹元斗樞之死. 是人素稱酷吏, 自錦城移拜廣州, 吏卒多死於刑. 賊夜呼都城, 告其錦城時私運船二隻, 方泊京江, 拿命始下. 斗樞潛先聞之, 仰藥自死. 其舍人稱傷寒不汗而死云. 此言塗聽難信, 而傳之者再三, 故姑書之. 但錦城之人, 一夫一婦,

聞其死, 無不快之, 可見其大失人心矣. 九月初四日. 戊辰. 遯六二. 聞錦城縣監尹, 被臺論將歸. 公莅官數月, 治聲大起. 與民條約, 勸戒不怠, 邑人大悅. 正言蘇斗山劾年老不治, 自上不允, 而院啓不止. 公聞奇, 卽駕而歸. 邑人守門擁車, 不得出門云云. 春間武官洪宇益宰靈巖, 治聲最于道內, 被劾而去. 尹公又被重劾, 人謠曰: “欲保美守令, 虐民爲上策. 君看洪與尹, 愛民被重劾云云.” 十月初五日. 己亥. 蹇九三. 大陽. 聞敬差官李觀徵, 今日入縣. 今年災損慘矣, 而國家切禁用災, 官吏望風畏慴, 禾穀過半災傷者, 全不入災, 七分以上者, 僅僅置藉. 本邑之災, 才七百餘結, 而監司猶且怒其災田之過多, 八分災以下, 盡汰之. 民望如喪, 其他餘邑盡然矣. 秋間苦旱之餘, 自上特下哀痛之敎, 慰問生民, 藹然生意之發見, 聞者感悅. 而至於保民實事, 如此空踈, 則所謂至澤不止於民者, 豈吾君之過歟? 可歎! 十二月三十日. 癸亥. 隨上六. 是日除夕. 歷計一年之事, 雨暘不節, 三農不登, 民食艱難, 逋欠督償, 人心洶懼, 災異層出, 牛疫酷甚, 鳥獸自斃. 此何影也? 反檢吾身心上, 一年事爲, 此心動多於靜, 亂多於治, 發之於事爲之間, 家法之際, 雖無對人形顯之過, 一念之微, 閒居之獨, 或未免仰愧俯怍之擧. 則平生用力, 不出於一寸之心七尺之軀, 而對越在上, 質之在傍, 猶有屋漏之羞. 按伏罪源, 其萌實出於立心不堅, 氣質多偏, 查滓未化, 外物易牽, 病根專在於心志未明, 燭理不精, 善惡之機, 不能勇立標準故也. 默計明年四十一歲, 可不惕然甚懼哉!

甲辰. 正月初五日. 戊辰. 无妄九五. 少陰. 洪儒一耒言: “前年十二月二十四日, 黃山書院重修奉安之會, 渠亦往參云.” 院前享李文元李文成成文三先生. 今宋尤菴時烈, 主事重修, 以李文純趙文正二先生主享. 兩湖人士會齊者, 二百餘人, 宋判書首獻, 李參議惟泰副獻, 公州牧鄭英漢終獻. 而宋李二公, 以深衣幅巾行祭, 鄭君以時服行事云. 二十一日. 甲申. 旣濟九三. 少陽. 晨起行祭. 此地乃先君子梓桑之鄉, 昊天罔極, 萬倍于常. 是日歷謁先祖群塋, 兄弟侄子會宿于碧松堂. 二十七日. 庚寅. 家人九三. 少陽. 京中士人李潞來見. 前吏判趙絅之外孫, 言語頗穩, 能道曩日二宋二尹一許論禮始末. 其外祖, 亦一言之後, 尙擯於時, 時方退居于抱川村舍云. 又言: “其叔父李君聖徵, 時在東萊任所. 去年冬, 倭人進封領來者接待時, 爭酒悖慢, 李君終

始不屈, 倭人拔劍作亂, 釜山僉使及府使之軍官以下, 皆遁走, 惟下吏一人死守不去. 事定走聞, 僉使拿就繫獄云." 初二日. 甲子. 損上九. 少陽. 邑吏告明日主倅蔡侯忠立, 旅櫬發引而歸. 往見之, 喪主請挽辭, 爲賦一篇律語. 蓋蔡侯質朴寬儉, 而無才於政事. 故民雖愛其不猛, 而短其無變通. 及其喪也, 邑人尹先甲洪鍾華, 典治其喪, 布被短袴之外, 衕無所藏, 無以斂棺. 鄉人共賻, 買被與袴而斂之云. 故余挽辭三四云: "政用鞭皮方仰惠, 衣無充棺始知清." 其七八云: "酌彼齊州盃上水, 綈謳三唱送公行云." 蓋記實矣. 十五日. 丁丑. 歸妹初九. 大陽. 祭外祖考妣墓于栗枝谷. 蓋余外祖, 晩年厭煩城市, 終年於道村農舍. 旣無嗣胤, 而逝於崇禎辛未. 余在沖年, 不能返葬故山, 權窆于此. 余亦無兄弟子侄, 春秋掃塋, 以親塋遠在, 故不能行祭于節日, 例常擇日行之. 余於八歲, 初受千字文及唐宋詩文於外祖. 其年十二月下世, 猶及望見貞固之守介特之姿. 薰蒿今日, 凄感滿懷, 亦有人所不及知余意者, 可哀也已. 閏六月二十一日. 辛巳. 未濟九二. 日卯辰. 南風徐徐而起, 俄而北風竝起. 南北方雲氣, 一時會翕于楓山之西. 我家之東, 雷電從中起, 大雨如注, 信奇觀也. 南北之風, 相對竝起, 四方之雲, 囊括一處, 合成沛然之澤, 神功鬼跡, 賁然可窺. 噫! 其中若無主張是者, 其號令聚散變化屈伸, 安能若是之神也? 旣然已, 爽風一聲, 雲捲雨收, 而斂無迹矣. 吁! 亦神矣. 仍默觀而記. 是日聞吏曹參判兪公棨之逝. 兪君剛直好學, 嘗以事謫錦山, 手結數椽草舍于峽中, 黍飯菜羹, 朝夕不給, 而不撤讀書怡如也. 放還調務安縣事, 以廉謹公儉稱. 去職拜諫官. 當仁祖進謚之日, 直諫觸犯雷霆之威而不撓. 因山後配富寧. 尤齋宋公, 遭遇孝廟, 疏其非罪放還. 尋薦以王佐之才, 歷陟清要. 今上嗣服, 久在玉堂, 爲副提學, 入東銓以參議, 拜參判, 未久而遽. 君之在務安, 以書抵余, 仍往來通簡數年. 而時余遭王母之喪, 罹葬祭之故, 未遂執贄相就之約, 而罷官而去. 故聞其名, 而求見其人. 今聞其訃, 令人悽然. 十二月十四日. 辛未. 明夷六二. 少陽. 聞尤齋宋公於地主, 待之甚敬, 懷德倅清州牧來謁, 必下庭送迎, 容辭極恭. 嘗曰: "城主受命君父, 來治我也. 慢城主, 卽慢君父也." 夫人之侄, 治西原縣,【清州降號時】來謁, 亦下庭送迎, 無異他人. 蓋甚非俗人之視妻侄如己族故也. 二十日.丁丑. 賁六二. 少陽. 李啓玄, 京畿高陽常漢之子. 少時爲僧, 寓於故相國南以雄山齋, 南相

惜其有才, 勸之讀書. 一覽輒誦, 博觀群書, 無不通焉, 南相勸之還俗. 以堪輿之術鳴於時, 公卿大夫之葬其親者, 爭延接焉. 丁酉年間, 自李典翰壽仁家北歸時, 余亦以祖考葬地不吉, 故邀占移樹之地, 不滿余志, 尙不用其地. 今年徐鳳翎, 欲移葬其親, 追蹤於京畿江原等地邀來. 看其爲人, 當冬盛寒, 衣單衣不寒, 或入冽泉浴焉, 行不騎馬, 日走數百里而不疲. 過人舊村先山, 已往吉凶, 言之若符契. 故卿士以下, 人皆惑焉, 以道人稱之. 以余見之, 所行多乖誤, 而近溺於鄕之一老娼, 心跡盡露, 無可取者. 但地術稍勝於庸士而已. 是以余亦一二邀占先山矣, 而亦不可輕信, 故尙不用其說矣. 三十日. 丁亥. 旣濟上六. 少陽. 今日, 歲除日也. 歷計一年已然之事而論之, 春夏之交, 雨暘無甚愆忒者, 南中野邑若干地而已. 七八月之間, 上之人, 不詳考驗農家之得失, 而以豐年稱之. 至於霜降之後, 嘉穀過半不實, 而上之人, 亦不審察. 故野有凶歉之象, 而賦有豐年之徵, 民多苦怨. 至於山峽之郡, 水災備甚, 人民壓死於山崩, 五穀漂淪於激湍. 而況木綿災損, 山野同然, 而大同米作布之擧, 民心騷然, 體無完衣矣. 上天示警, 日月星辰, 震蕩相薄之變, 有目皆覩, 山川草木鳥獸之怪, 莫不畢見. 而人心之駭僻, 世道之汚澆, 有不足言者. 守令荒淫, 而耳若無聞, 朝廷備員, 而目若無見. 淸流之所尙, 黨論而已, 濁吏之所務, 財賂而已, 至於三百年宗社, 無一人顧護者. 此何時哉? 山野陋人, 地賤迹踈, 滿腹丹悃, 無日不激, 而亦無如之何矣. 聊書萬一于記陰晴小冊之末, 以敍五內之積氣焉. 雖然, 國家之事, 非吾之所獨憂, 而亦非吾之心力所可及矣. 若夫吾之一箇身心正不正治不治, 乃吾分內事也. 而回首一年之事, 百無可觀之實, 治心之道, 非不知也, 正身之學, 非不講也, 而心與事乖, 動與靜違, 三百六十, 無非浮泛底日子. 屈指吾年, 已至四十二矣. 送舊此夕, 不覺驚悟, 謹書于此, 以爲補過自訟之具焉.

乙巳二月初五日. 壬戌. 損六四. 靈巖人士, 配享崔山堂于存養祠宇, 請製奉安祭文于余. 余製崔山堂奉安祭文曁存養位前告文二篇.【祭文告文, 詳見十二卷.】存養, 姓崔, 名德之, 完山人. 魯山朝, 官至直提學, 見世廟王業漸隆, 奉身引退. 居于靈巖之永保村, 起小樓, 扁曰存養, 自號烟村居士. 閒居養性, 恬靜自牧, 絶意仕宦, 眞晉徵士陶元亮之流也. 鄕人立祠祀之. 公之孫忠誠, 自少有意斯學, 不事擧子業. 聞寒暄金先生, 倡明聖學, 勸進後生, 負

笈往從之. 篤志力學, 未嘗小離函丈. 以行昏禮歸鄕, 成昏後, 卽往師門, 更無歸意. 金先生勸以大倫不可廢, 公以學未成爲辭曰: "學無所疑, 大者旣立, 然後歸家, 亦未晩也." 先生不能强. 先生叔父金聰, 居于永保, 先生爲公躬往叔父家, 留數旬而歸, 公又從往焉. 其篤志勤學如此. 其爲學也, 以《小學》飭躬, 以居敬存心. 明於易學, 而有堯夫弄丸擊壤之樂. 自號山堂書客, 年三十三而卒. 其叙述若干篇, 存于家. 觀其立言不苟, 措意洞快, 眞心學正人之言也. 其學問高妙, 略見於《景賢錄》矣. 丁酉之前, 配享於順天府景賢書院, 而今方從享於玄風書院云. 存養之祠, 尙不行配祀之儀, 士論恨之, 今者道內公議齊發, 褥儀將成, 則儒林之幸矣. 故不以不文辭, 而著還祭文耳. 三月初九日. 乙未. 泰初九. 少陽. 吳再發來拜. 以明日改題主事, 來問禮節也. 蓋在乙酉年間, 祖在而其父先亡, 壬辰年遭其祖喪, 祖喪吉祭, 當改題遞遷, 而其時再發年幼, 未習於禮, 不能行焉. 余每勸之行, 今始遵禮. 但三年喪除後, 未卽行之, 追後祭之, 則告辭祝文, 恐不當用喪禮本文. 故余使稍變其禮, 以明日先告其由, 代各改題, 然後以再明日合祭父祖以上, 用時享禮, 然後親盡之主, 卽埋置焉云. 未知此節, 果不悖於行權之道耶? 余不習於禮, 此等變通, 在於一家之間, 不可以不習於禮, 頓無變通. 故不得已以臆見斷焉. 恐失於得中之禮, 以誤後人, 故記之. 從當稟質於知禮之君子云. 十六日. 壬寅. 大畜九二. 大陽. 約諸隣舊泛舟于藍石江邊. 主人裝船設酒, 倚棹而待. 余下馬登舟. 酒數行後, 褰衣下灘, 手弄滄浪, 激淸而濯吾足, 上流而類吾面. 彈冠振衣, 而復登舟, 不施棹楫, 放舳從風. 俄有荷琴數輩, 來迓於巖磯之間, 命移舟而近之. 雖時音俗調, 吪嗚難聽, 水風引其聲, 促者長, 潭淵響其音, 噪者和, 巖洞幽其曲, 淺者邃, 石灘鳴例, 而濁者淸, 江禽戛翮 而淫者淨, 竟不覺其卑俚之調, 而怳然若流水高山之入我耳, 皆山水之所助也. 彼琴音若此. 而況吾人一心, 本與山之靜水之動, 合其淨而同其淸, 無彼我之別者乎? 于時時雨新晴, 和氣藹然, 山花半謝, 渚草爭芬, 碧桃紅杏, 隱映於村竹巖松之間, 眞造化奇跡也. 於是微風徐起, 縠紋成章, 一棹蕭然, 汎汎中流, 蘇氏子所謂如遺世獨立, 羽化而登仙者, 眞不虛語矣. 俄而雲開月出, 波伏風恬. 回舟艤巖, 倚舷而思之, 凡物之悠久者, 莫如天地. 一元之盡, 天地亦一夢也. 長江碧山, 壽與天齊, 而閉物之後, 江山亦一夢也. 況吾人死生, 朝暮倏忽,

與彼岸草巖花, 同歸於片時中一殘夢者哉? 雖然, 旣散之後, 其跡之乘化泯滅, 則天地一吾, 江山一吾也. 其中實理之同得者, 則天地江山, 亦與我無上下矣, 吾何間然於其間哉? 爽然長吟, 俯仰宇宙, 回首塵寰是非叢中, 睢盱猜忌患得患失之流, 豈足滿一笑哉? 已而枕肱一眠, 酒力初醒, 乃命駕而歸. 月入梅軒, 而曉鷄欲鳴矣.
六月晦日, 與尹君先三暨文生八柱鄭侄世經等戒書.【詳見第九卷書札類.】

日記後錄

己亥五月初四日, 孝宗大王禮陟. 今上命大臣儒臣議大王大妃服制. 吏曹判書臣宋時烈, 兵曹判書臣宋浚吉等獻議, 定以朞年之服. 越明年庚子春, 掌令臣許穆, 上疏論朞服之非禮. 其大略蓋曰: "《禮疏》以爲'立次長亦爲三年云'. 則孝宗大王, 以次長入承大統, 宗主社稷, 大王大妃當服斬衰三年, 不可以服衆子之服服之云云." 上命議大臣儒臣, 左贊成臣宋時烈, 左參贊臣宋浚吉等, 執前見獻議, 以爲"昭顯世子之喪, 仁祖大王與大王大妃, 旣服三年之喪, 而今又服三年, 則是宗法不嚴, 倫序不明矣. 許穆之見, 恐不可從". 於是護軍臣尹善道, 上疏極論兩儒臣議禮之非, 終始據《疏》說次長亦斬之文, 以爲"兩儒臣以宗統歸之昭顯, 而支派待孝宗, 逆天理悖禮經, 其意所在 不可知云云". 疏上, 上震怒, 命放歸田里, 言官請案律治罪, 安置于三水郡. 左尹臣權諰, 上疏申救其非罪, 明其敢言, 言官以爲"救護兇人論啓, 罷其職." 庚子秋, 洪公命夏爲銓長時, 擬前掌令許公穆, 爲三陟府使. 大臣有白于上曰: "此人不當用之如此. 况此人老病, 不當補劇藩." 上卽問于吏曹, "許穆老病云, 果不堪邊藩否?" 吏曹回啓其氣力可堪之意, 上遂批之命往, 識者惜之. 是冬, 尤齋宋公, 累拜都憲銓判, 皆不起云. 孝宗大王, 有英毅大略, 沉默洪量. 昭顯有元子, 而仁祖廢之, 而立之, 蓋文王之意也. 孝宗卽位十一年, 勵精圖治, 內求儒術經學之士, 朝夕講治, 外修鍊兵訓卒之具, 極盡心力, 慨然有欲灑平城之恥之志. 嘗行幸之際, 挺馬突馳, 群下不能及. 於後庭中, 治射馳之路, 萬幾之暇, 彈弓躍馬, 精習武藝. 戊戌年間, 仍馳馬墜傷, 幾至大漸而復蘇. 越明年己亥五月, 以髮際暴薨, 一國人心, 若崩厥角. 識者又以有

君如是, 而下無王佐之才, 竟不見至治爲恨焉. 可勝痛哉! 仁祖朝, 館學儒生等及草野儒生, 上章請牛溪栗谷從享聖廟, 自上不允. 而嶺南儒生等, 上疏論其不可從祀. 孝宗元年庚寅, 館學外方儒生, 又上章陳請, 又不允. 而嶺儒及京中之異其議者, 又上疏極論其不可. 今上元年己亥, 中外儒生, 又上章陳請, 又不允, 而携貳之疏, 則不起焉. 庚子春, 典籍洪鍾聞, 自京來言: "京中人士, 或相傳言, '金沙溪嘗言, 牛栗於忠孝二字, 具被人言, 從享之事, 未知如何云云.' 故其一時門弟之及聞其說者, 皆於從享之議, 不敢主張. 兩宋亦其門之高弟, 意向亦如此. 故遭遇孝廟, 不敢建白從享之事云云." 此雖傳聞不足信, 而亦一時士論之至重處, 故記之以備後考. 商販倭奴來泊釜山者, 國家例令東萊府使享之. 蓋交隣之義也. 其禮府使椅坐北壁下, 使倭奴北面而向之, 中年倭奴猖獗, 府使疲劣, 南面之禮廢, 而爲東西相對之規, 識者恥之. 戊戌年間, 閔公鼎重守東萊, 慨然復坐椅南面之規. 倭人大怒, 將欲作亂, 閔公預知有變, 令發府內精卒, 列陣而待之. 倭憚其威, 莫敢肆, 朝廷憂之. 仍召閔公還朝, 以李萬雄代之. 倭奴漸使其惡, 掠恸人民, 李君執其魁二人斬之, 懸于關下. 仍上疏請得精兵數萬, 橫行賊窟. 於是命拿囚李萬雄, 而倭人空關而去. 國中囂喧, 恐有變起, 卒得無事. 戊戌七月二十一日, 余與客坐于堂, 時夜可戌時. 有長星大如棟者, 其光如火, 出自艮方, 直經天腹, 而入于坤方, 移時不滅. 己亥十二月初間, 忘其日子, 又自東至西, 如去年差小矣. 自戊戌至己亥, 變怪百出, 海仁雙溪寺土佛流汗, 人頭生角, 初生小兒, 有尾如牛, 都內黑霞有腥臭, 南山松木, 無風自折, 雌鷄化爲雄, 錦城沙湖江水, 三日赤色. 己亥十一月初十日, 終日霾霧, 不辨遠近, 日色紅赤. 如此等災異, 不可盡記, 怪而記之. 吁! 可嘆矣. 國恤奔哭, 古無其禮. 退溪於明廟之喪, 不待國葬而退歸. 文定王后之喪, 亦不赴哭. 至仁祖之喪, 前銜之官, 莫不赴哭, 或有不赴而獲譴者. 孝宗之喪, 一命以上, 雖在散班, 莫不奔赴, 仍成規例. 庚子大王大妃服制議禮時, 諸大臣之議, 與兩宋相合. 惟元坪元相與許公穆, 論議相合. 時護軍尹公善道, 上疏議禮, 極論兩宋之非, 尹持平鑴, 移書許掌令穆及李承旨惟泰, 又論其朞服之非甚勤. 是時, 物議喧騰, 是非交錯, 或有論兩宋之罪, 至於慢君誤國之目. 尤宋與人書有曰: "海尹大文, 驪尹註脚, 吾輩不知死所云." 一時議論之不合, 轉輾而至於此極. 士林兩歧, 國將奈何?

是時, 所謂西人之中, 有山西淸西濁西之目. 從儒術起者, 謂之山西, 卿士之持淸論者, 謂之淸西, 勳舊之從前渾淆者, 謂之濁西. 而東人之中, 所謂大北者, 今未聞, 而小北南人, 亦有分歧. 偏小之邦, 人心分裂至此, 未知瞻烏之止于誰之屋耶? 悲夫! 全州文官李興浡與弟起浡, 皆以文科立朝, 官至顯要. 丙子胡變後, 兄弟奉老母, 入于雲巖山中, 漁釣耕農爲業. 徵召累降, 堅守不起. 朝廷拜興浡錦城縣監, 縣吏尋往其家於山溪之間. 遇一人冒竹笠釣魚, 荷竿負薪而去者, 吏揖曰: "李縣君家安在?" 答曰: "從吾來焉." 俄至一村, 數家籬落, 依林而在. 其人入據竹牀而坐, 呼兒烹魚炊黍, 而食其吏曰: "爾其去矣. 吾不赴焉." 於是吏始知其爲李縣監云. 起浡亦屢拜官, 竟不一起. 靈巖有愼公天翼, 以詞賦鳴于世. 早登第歷官淸要, 丙丁以後, 累官不起. 孝宗卽位, 懇召一起. 時愼獨齋金公集李君惟泰, 同彼召登對, 上顧問甚慇懃, 金公勸上誠意正心, 李君啓以復讎. 上顧謂愼公曰: "君無一言耶?" 愼對曰: "金集以誠正爲言, 惟泰以復讎爲言, 臣更無所言." 仍曰: "臣從草野來, 不識天顔何如. 願一仰望聖儀." 上命起坐相對. 俄而趍出, 呼問上前近臣曰: "出去時, 亦行拜禮乎?" 上微哂. 近臣皆贊曰: "美哉, 山野之態!" 蓋公常以詩酒放逸, 自牧虛詼, 淸致自高, 平居閉門, 隣里罕見其面. 庚子正月, 宋公浚吉遞銓判, 洪公命夏代之. 自孝宗大王, 傾意儒學, 盡心禮賢, 一時士類之有一名一才者, 無不羈縻於命爵之列. 其爲先王股肱心腹, 東西兩銓, 專任倚毗者, 宋公時烈宋公浚吉二人也. 或出或入, 而十年之內, 位至崇班者, 權公諰也. 兩宋推薦以爲一代第一人物, 至在先朝, 出入臺閣, 逮嗣聖眷遇愈隆, 而位躋上大夫者, 李君惟泰也. 在先朝, 以事見斥, 十年田園, 而一以宋公之薦, 大伸其屈, 佑秩通顯者,兪公棨也. 或出入臺閣, 進退經幄者, 許公穆及李翔也. 自始至今, 有退無進, 徵召之命, 朝夕繼降, 而一向不起者, 尹文學尹宣擧尹元擧李壽仁也. 職在郎署, 或進或退者, 申碩蕃宋基厚林㙉崔徽之數人也. 其一時聞風而起, 以向學指點者, 中外之間, 頗多其人, 而士林之氣, 日以培植, 可見上之人, 導率以其方, 則待文王而興起者, 時無古今之異焉. 而駭機之發, 又有所隱兆於其間, 則士之先見者, 其可不深有察焉. 是時, 又有尹希仲鐫者. 在先朝, 禮遇隆甚, 嘗欲引見, 盡其誠禮, 而自守不出. 至今上初, 特拜持平, 四上疏見遞. 與今和順縣監金克亨友善, 託以道義交, 士流亦

頗有倚重之者. 而兩宋曁李公惟泰, 斥之以異端. 或有問於宋公曰: “公爲聖上委任, 建白施設, 今做幾許事?” 宋公曰: “當今第一義事, 尙未擧行, 他尙奚爲?” 或曰: “第一義者, 甚事?” 曰: “異論肆行, 而未能辭而闢之, 可謂做第一義乎!” 蓋指尹希仲也. 宋公門下, 有黃世禎宋奎禎二人, 與希仲友善. 李公在鄕抵書于宋公曰: “竝與其黃宋, 而絶之也云.” 士林之間, 或有不相合, 可謂寒心. 湖南又有尹公善道. 在光海朝, 上書立節, 仁祖孝宗, 皆禮待甚隆, 位至通顯. 年今八十, 與士林不合論議, 擯在草間.

南圃集

卷之十六

經世通典

人分六科【總目】

士 : 上 中 下

農 : 上 中 下

工 : 上 中 下

商 : 上 中 下

僧 : 上 下

兵 : 上 中 下

士民典例

上士 : 京中, 則成均館學生四學學生及初試入格者, 爲上士. 外方, 則校生及初試入格者, 爲上士. 成均館學生上士五十員, 四學各二十員, 外方州學五十員, 府學四十員, 郡學三十員, 縣學二十員. [右京外上士. 除初試入格外, 極擇經明行修士族子弟, 文藝過人, 而才器出衆者, 充其員額. 京則大司成一年二次會同郎屬, 試講上士, 外則各道都事與其邑守令學官, 一年二次試講. 講不通曉者, 降隷中士. 講雖通曉, 年過五十, 不得初試者, 降中士.]

中士: 京中外方, 額無定數. 擇士族子弟內外無疵玷者, 充其員額. 京外一年二次試講, 連三次講得通曉者, 升上士. 連二次不通者, 降下士, 初試入格者, 升上士. 講雖通曉, 年過五十, 而不得初試者, 屬之鄕任.【卽座首別監里官.】

下士: 京中外方, 額無定數. 兩班子弟之不得充中士者, 士大夫之庶孼及凡民子弟俊秀有學行者, 皆充其員額, 京外一年二次試講, 連三次講不通曉者, 降充軍役. 下士之初試入格者, 升中士. 軍人之初試者, 升下士. 下士之孼子, 直充軍役. 下士講雖通曉, 年過五十, 不得初試者, 屬之鄕任.【卽領去監官及黨師.】

三士通例 : 凡學校聚會時及講官學官拜揖之際, 上士居東, 中士居西, 皆北上. 下士居南, 東上.

下士, 則一年貢七升綿布一匹. 守令捧納于兵曹, 以爲軍國之用. 初試入格, 升于中士, 然後否.

三士科擧通例：京中及各道分三所設場. 上士赴一所, 中士赴二所, 下士赴三所. 上士選五十人, 中士選二十五人, 下士選十五人. 會試亦三士分赴三所. 上士取生進一百員, 中士取六十員, 下士取四十員. 文武及第試, 則初試分三所, 三士各赴如右. 殿試則三士同赴, 生進赴擧, 與上士同.

臣謹按, 古者, 三命之臣, 謂之士. 今則有大夫, 有郞官, 而學校諸生, 通謂之士. 夫士之謂言, 事也. 入則事父兄, 出則事君長, 時以暇日事之學問, 乃士之責任也. 今則不然. 上自館學, 下至鄕校及閭巷之間, 不問貴賤賢否, 戴弁束帶者, 通稱曰士. 甚至軍役, 子枝良家所産, 皆屬于校案, 稱之曰士. 其徒寔繁, 不可勝計. 或有隱名換面, 藏頭出尾, 欺蔽巧詐之輩, 亦出於其間, 在於平日, 則高談於閭里, 或有軍籍講閱之事, 則舞奸而脫名者, 亦皆稱之曰士. 名分渾淪, 上下無法, 風俗之日渝, 敎化之難行, 有不可勝言者矣. 臣反復三思, 謹立士分三品之說如右焉. 若此則庶幾賢愚有分, 貴賤有倫, 無渾雜駁亂之風矣. 至於科擧設場之際, 賢愚貴賤, 同入一場, 椎埋狗屠之輩, 相雜於章甫玄端之列, 噪作亂, 罔有紀極, 而考官不能禁斷, 若使高世之士卓立之儒見之, 豈肯低頭就辱於其間哉? 科擧取人, 本非三代之制, 而科擧之制, 又亂雜如是, 則失道之中, 又甚失道焉. 正人君子何從而立於本朝乎? 正人君子不立於朝, 則容悅之徒, 苟祿之輩, 日侍於殿陛矣, 三代至治, 亦何從而復見哉? 今臣三士, 各赴三所之科法, 雖非三代之制, 賢愚貴賤渾淪澆亂之弊, 似可少止, 而禮義廉恥之道, 庶可漸此可興矣.

三士試講通例

上士講：三十歲以下, 講四書, 兼《小學》《心經》《近思錄》中推生. 三十歲以上, 講三經兼《綱目》《通鑑》《宋鑑》中自願. 四十歲以上, 講四書三經《周禮》《禮記》中推生.

中士講：三十歲以下講《大學》《論語》, 三十歲以上講《孟子》《中庸》.

下士講：三十歲以下, 講《小學》或《史略》. 三十歲以上, 講《大學》《論語》, 或《通鑑》.

右講官講開時. 上士或有願製論表策問古賦, 以代講書者, 許製. 所著可以入格者, 以講能通曉同例. 所著不中規儀者, 以不通同例. 中士下士, 或

有願製古詩賦四書疑三經義者, 亦許製. 其法與上士例同.

右講除都事守令學官春秋考講外, 三年一次, 別遣御史, 考講著述一一通. 三士試閱講, 能通曉文味, 義理貫徹無疑者, 著述超等六分以上者, 入啓授初試, 三分以上, 賞給筆墨紙硯等優數, 不通者, 降丁軍役. 考講著述超等者, 州府十人, 郡縣五人以上, 其守令學官加一資. 講不通者, 州府十五人, 郡縣十人以上, 守令奪一資, 學官罷職.

農民典例

農民之田, 十結爲一戶, 一戶賦稅, 歲分四等.

上豐農一戶：稅米一百斗, 黃豆十五斗.

賦米六十斗, 賦布十匹.【五升布, 一匹三十五尺.】

中豐農一戶：稅米八十斗, 黃豆十二斗.

賦米四十五斗, 賦布八匹.

下豐農一戶：稅米六十斗, 黃豆九斗.

賦米三十斗, 賦布六匹.

凶歉農一戶：稅米四十斗, 黃豆七斗.

賦米十五斗, 賦布四匹.

農民戶丁貢米典例【九品以上官及生進及士夫處子未嫁者除戶米,　爲兵者除戶米.】

一戶十結 ：通男女上下十五歲至六十歲之人, 皆錄于籍, 一人歲各貢白米五升, 爲守令歲祿.【使臣支供亦在其中.】

農民戶丁力役典例

一戶十結, 歲出五丁, 以供力役.【藏氷柴炭馬草等力役, 爲定式.】定式之外, 如有別用民力之事.【城池修理官舍公廨等修築, 爲別式.】京則漢城入啓, 外則守令報于監司, 然後用其力, 濫用五人以上罷職.

右十結一戶. 凡賦稅戶丁貢米力役等事, 戶守一人董納. 凡賦稅一年之內, 水穀爲上豐, 田穀爲中豐則水用上等, 田用中等, 田穀爲上豐, 水穀爲中豐則田用上等, 水用中等, 下豐凶歉, 皆倣此例.

臣謹按三代之制, 稅於民十分之一. 多此則爲桀, 小此則爲貊. 今我朝之賦, 倍蓰於三代, 稅則反省於古制, 其故何哉? 臣細思厥由, 以爲稅法, 則仍祖宗之舊制, 故省略如此. 至於賦法, 則必在燕山, 或光海朝, 姦臣弄法, 盡革祖宗之制, 而毒斂生民. 媚奉君上之弊, 未盡祛於反正之後, 因循漸積, 以至於此也. 此弊不革, 雖使文武御上, 周召宣化, 生民赤子必未蒙至澤矣. 臣謹考察我國土田一年之出, 折中以肥饒地品之宜, 正之以年歲豐凶之異, 敢立一戶十結之法, 年分四等之規, 略倣三代什一之助焉. 若此, 則先王之政教, 庶可仍此漸復, 而生民可得甦息, 至治或可復見矣. 雖然, 臣嘗怪古之王者, 取於民十分之一, 其斂甚省, 猶且國用富厚, 班祿豐足. 後世之君, 取於民無法, 不啻十分取五, 而國無餘資, 官祿貧甚, 若此者何哉? 臣嘗深究厥由, 以爲古之人君, 自奉甚薄, 庶官有法, 故量入爲出, 斂薄而用裕, 今則不然, 無益之官, 太宂於上, 不急之需, 過煩於下. 州縣碁布, 鄕黨無法, 法令紊亂, 敎化不行矣. 若不先定進供之數, 次正內外庶官之制, 則三代什一之良政善敎, 難可行矣. 故謹論官制之法於後, 伏惟聖裁.

論內官制典例

臣謹按欲行農分四等貢稅什一之制, 必先定內外官制及上供方物之數, 然後其法可均, 而民得蒙至澤矣. 故敢妄論其制, 以附于農民典例之後焉. 臣伏覩三代之制, 大國, 上大夫三人, 下大夫五人, 其下有上士中士下士官師若干人而已. 是以大國之卿, 其祿十萬鍾, 以其員數省約, 祿數易辦故也. 臣謹考前古中國官制及大明官制, 員秩之太宂, 莫有如我國者. 中國之地, 十倍於我國, 中國之人衆, 十倍於我國, 內而庶官, 外而州郡之多, 不甚懸絶於我國. 今以數千里之地, 分三百六十郡縣, 以數千里之地之入, 北事胡東接夷, 而以其餘饋百司宂官, 民財安得不竭? 國用安得豐裕? 料[1141]祿安得給足哉? 况小邦人才幾許? 而通文武南班內外庶司學官驛官邊堡之帥, 冐弁而束帶, 啄民之骨髓者, 動以萬計, 秉兩銓者, 雖欲精擇人才, 安可得也? 一府一司一院一館, 多則十五六員, 小不減十二三員. 朝遷暮改, 醉入夢出, 聽命

1141) 料 : 科

於胥吏, 呼唱於道上者, 於國於民, 有何少補? 計班資之崇卑, 蠹生民之膏血者, 盈府而充司, 尸位而僭祿, 不可勝計. 若此則使周公作家宰, 皐陶執法, 王道之至澤, 不及於赤子矣. 臣僻居海隅, 朝廷庶司, 雖未詳知, 以聞見大槩論之. 弘文有館, 而又有藝文, 承文有院, 則何必校書? 訓鍊之院, 軍器之寺, 兵曹庶官合之可也. 繕工之監, 尙衣之院, 工曹庶官兼任可也. 既有內需, 又有內資, 既有司饔, 又有司醞. 司畜可兼典牲, 禁府可兼典獄. 若此之類, 不可勝記. 伏請亟立官制改定都監, 以老成夙德通達三代治體者, 充其位, 逐一查覈, 可革者革之, 可兼者兼之, 務從省約, 然後又置貢稅磨鍊都監. 凡進供之無益於上, 有害於民者, 一一革罷, 然後四等什一之制, 頒行於八路, 然而庶事不修, 民心不安, 國家不治, 王道不復, 則臣願伏常刑, 萬萬誅戮, 亦所甘心矣.

論外官典例

州府：九千結【九里, 十八黨, 九十保, 九百戶.】

郡：七千結【七里, 十四黨, 七十保, 七百戶.】

縣：五千結【五里, 十黨, 五十保, 五百戶.】

右通州府郡縣. 十結爲一戶, 一百結爲保, 五百結爲黨, 一千結爲里. 戶有守, 保有正, 黨有師, 里有官. 十戶守統於保正, 五保正統於黨師, 二黨師統於里官. 凡國家號令, 郡邑分付, 邑頒於里官, 里官頒於黨師, 黨師頒於保正, 保正頒於十戶. 貢稅之出, 兵卒之發, 皆得主張, 責之及期. 一黨之左立書室, 室有長, 以敎三士之子弟. 一黨之右立射亭, 亭有帥, 月朔會各種兵人, 敎習武藝武書. 一里又置農官一人, 勸課農桑. 家不備農器, 宅不種桑麻者, 罰布一匹,

一里：農上兵一百人, 下兵一百人.

一縣：農上兵五百人, 下兵五百人.

一郡：農上兵七百人, 下兵七百人.

一州：農上兵九百人, 下兵九百人.

臣謹按古者, 隣里州鄕, 皆有定數. 五家爲隣, 二十五家爲里, 百家爲族, 五百家爲黨, 二千五百家爲州, 一萬二千五百家爲鄕. 鄕之一夫, 受田百畝, 八

夫同一井, 凡貢稅兵車之數, 皆計其田賦而出, 鄕隣敦睦之俗, 亦仍遠近而別, 是以兵賦均平. 州郡有制, 今則不然. 州府郡縣渾雜無常, 或有州而小於縣者, 郡而大於府者. 田結不均, 隣里無法, 百度倒錯, 庶事失倫. 至於百結之地, 別立一縣. 覃覃官府, 十里相望, 小民力疲, 罔有紀極者, 何哉? 深思厥由, 蓋有其來. 昔在三韓, 以數千里之地, 分判三國, 各立部落, 互相爭兵. 小陣小部, 五里相接. 王朝統合之後, 幷小部落十數合, 爲一州者有之, 而十室小縣, 或有仍舊者, 亦多矣. 我朝卽眞, 痛革舊俗, 百廢俱興, 而郡縣之制, 蓋仍其故. 是以州縣無法, 其弊至此. 嗚呼! 居今之世, 無變今之俗, 聖人復生, 至治難復. 臣謹以州府郡縣里黨保戶之法, 限以田結, 定以兵賦如右焉. 雖不能盡合三代之法, 郡縣有制, 兵賦有倫, 庶可仍此而漸興先王之治矣.

工民典例

上工 : 金工, 銀工, 錫工, 銅工, 鍮工, 鐵工

中工 : 石工, 木工, 皮工, 角工

下工 : 陶工, 瓦工, 竹工, 駿工, 畫工

右上工一人, 歲貢七升布一匹, 中工歲貢五升布一匹, 下工歲貢四升布一匹. 用其力役, 歲不過四日, 爲兵者除貢布.

臣謹按工人, 以末技食民之穀, 而富於務本力穡之人者多矣. 而無常賦貢, 雖或有所納, 十人供一人之納. 守令利其私備器用, 十分杜護. 故各邑工人店村, 到頭皆極富盛. 而農民凋弊極甚. 工人旣富且庶, 而無所賦, 故又不勤勞於工業, 人衆物鮮, 物價騰踊. 此不細之弊也.

商民典例

上商 : 大船商, 錦絹商

中商 : 中船商, 金玉銅錫商, 藥商, 麻苧布商, 毛物商

下商 : 小船商, 魚菜商

右上商, 歲貢七升布四匹, 中商, 歲貢七升布三匹, 下商, 歲貢七升布二匹. 凡商人所居之地, 京則漢城府, 外則各其邑, 皆有所籍. 按簿收貢, 皆輸納戶曹. 而其商船及商人, 皆得本府本邑公文, 然後行于道路. 無驗者, 上商斬,

中商杖一百充軍, 下商杖五十徒二年. 凡行商爲兵者, 除貢布.

臣謹按富商大賈, 遊手而食農民之食, 出入遠近, 習知四方物情, 一生以欺蔽良民爲其業. 豪才勇力者, 長其罔利之心, 往往相聚爲盜者有之. 爲人上者, 徒知浚迫良循務本之民之膏血, 而逐末之人, 無所征賦, 亦非細微之弊也.【漁民塩民, 當入此.】

僧民典例

上僧：通曉釋教及儒書, 或入山絶粒者爲上僧, 此流無所貢.

下僧：居于大刹之徒, 雖居山寺, 不事其道, 以遊食爲事者, 皆爲下僧. 本官皆錄于簿, 上于戶曹. 一人歲各貢六升布一匹, 凡僧人人各有度牒, 無度牒而出入一步之地者斬. 爲兵者除貢布.

臣謹按夷狄之教, 令人靡惑, 使良民子弟落髮入山, 緇徒之衆盛, 惟此時孔極. 農家男女, 終歲勤苦, 盡輸貢稅, 冬寒春餒, 叫號道路. 而蠢彼林藪之無賴者, 飽食煖衣, 橫行街市, 而無所賦貢. 彼農民之困苦者, 樂觀而健羡, 兵卒之疲勞者, 大恨其落髮之不早. 故今之僧徒, 大率與凡民比數, 雖曰異教, 專心其道, 入于巖穴, 絶粒而形瘦者, 不可羈縻於征賦, 其他放縱自恣, 以避兵爲事者, 安可無其役哉? 雖然, 彼亦吾民之生于吾土者, 兵水各營及郡邑, 例以私事, 橫加漁括, 此則非也. 自今以後, 戶曹按簿輸布之外, 尺布寸紙, 毋得橫斂可也.

兵民典例

士上兵：下士之降而爲兵者, 年五十以下, 爲士上兵.

士中兵：下士之降而爲兵者, 年五十以上, 爲士中兵.

士下兵：下士之降而爲兵者, 年雖五十以下, 或有見在疾病及體力孱弱, 不合赴敵者, 爲士下兵.

右士兵. 上兵一人, 給中下兵四人爲奉足, 三人備戰馬, 而平時芻養備至. 及其習陣及赴戍, 或赴敵時, 爲上兵者, 跨出馳驅而已. 奉足一人, 備弓矢鎗炮等器械, 極其精銳, 以給上兵. 爲上兵者, 在平日無所事, 躍突鳴弓躲獵而已. 及其有急, 則應聲躍出而已.

臣謹按下士之徒, 雖蠢然一農夫, 然平日在其鄕中, 以兩班稱之. 僕隷臧獲之徒, 皆得尊待人, 士大夫亦許升座. 一朝落講, 而爲軍人, 則鄕黨賤侮之, 奴隷慢蔑之, 父母兄弟皆號泣而痛悼之. 故是輩落講爲兵者, 有欲死之憤心, 無精銳之勇氣, 其故何哉? 此則國家養兵刻甚之過也. 夫兵, 死地也, 驅人於必死之地, 以求吾宗社之安保. 待其人於平昔之日, 接之以厚恤可乎? 迫之以煩刻可乎? 使斯兵居於平日, 飢寒水火, 日苦其身, 及有緩急, 則曰爾何不爲社稷死乎? 是則無異於割人膚, 而求愛我也, 可乎? 目今四民之中, 惟兵最瘁. 邊將邊帥惟知肥己, 不念愛卒, 惟知鞭毒, 不敎武藝, 加之以懲督價布, 浚盡膏血, 以爲妻妾親舊之奉, 而士無人色. 以此觀之, 國家設營置兵, 乃所以爲武將致富貴也, 非爲宗社計也. 然則武臣日肥於下, 而國家日趍於危亡. 臣未知此何等事也? 臣願自今以往, 各道兵水使, 使之兼守其邑, 食其邑之俸, 而軍卒價布一切勿懲, 如有橫侵士卒, 以非義者, 律以大罪. 且下士之落講爲軍者, 名之曰下士兵, 爲將者待之, 不與賤卒相侔. 一年一度分番入營, 則爲將者敎以武書及射藝之外, 不得侵督以他役. 在於其家, 則守令一月一度講敎武書, 鍊習騎䠶, 才藝優等者, 多用賞給, 使之芬華. 若此則爲下士之輩, 望見其爲兵者之榮幸, 而恥作章句腐儒者, 必亦多矣. 其爲兵者, 肥馬輕衣, 弋䠶馳驟, 必亦爲才藝所使, 切欲出邊一戰, 以樹萬里之功者, 必不少矣. 然則東北之憂, 其足慮乎?【右士兵皆馬兵也. 以弓射爲習.】

農上兵 : 農家之丁, 年四十以下爲上兵, 十結一戶內, 上兵一人.

農下兵 : 農家之丁, 年四十以上爲下兵, 十結一戶內, 下兵一人.

右所謂農者, 非但農民而已. 三士三工三商之徒, 亦不專厥業, 而務於農者有之. 如此之徒, 通稱之曰"農民"可也. 至於卿大夫, 身雖立朝, 其田土結負, 散在州郡之類及三士人之鄕居者, 皆就農業, 然後父母妻子免於飢寒, 則如此之徒, 不可身作農兵, 皆以奴僕充之. 至於工人之兼治農務者及商人之非船販而兼治農務者, 皆得爲農兵.

臣謹按三代之制, 兵出以賦, 春秋傳所謂"悉索弊賦"是也. 今則不然, 良民賤漢, 獨爲軍卒, 一家之內, 父子兄弟皆充軍役, 終世辛苦, 而富有田土, 飽食煖衣者, 安坐而獨享其樂. 莫非五民, 而苦樂不均, 勞逸懸殊, 甚非所以王者均平天下之道也. 臣願自今以往, 永洗舊規, 一遵三代兵出以賦之法, 十

結之內, 定出上兵一人下兵一人, 上兵一人之軍服軍器. 十結之內, 一一備給, 而赴戰之時軍糧, 則十結共備, 下兵一人運其糧而隨之, 則庶近三代之制, 而民心均平, 兵無虛實之不齊矣.【右農兵皆步兵也. 其所藝, 皆以火炮爲習.】

工兵 : 各色工人之店居者, 擇其富實丁壯者爲上兵, 次者三人爲奉足, 充定[1142]于京炮手.

商兵 : 船販商人及捕作民人等, 擇其丁壯者, 充定水軍, 其次者, 充定漕軍.

右大船水軍四人, 漕軍三人.【其軍器軍服, 一船人共備而給之. 下同.】

中販船水軍三人, 漕軍二人.

小販船水軍二人, 漕軍一人.

錦苧金銅等商人, 諒其實與不實, 實者, 充定于京炮戶首, 不實者, 充定于京炮奉足.

臣謹按商販之利, 十倍於農人, 而其所販之財, 皆出於農家. 况農人生長畎畝, 蠢然若土塊也, 商人則以道路爲家, 涉險履艱, 行步輕捷, 揣事度情, 過農人十倍. 以農人十倍之財, 兼農人十倍之才, 士卒精敏, 無過於此. 况船販商人沿海浦民[1143], 其類甚繁. 生長江海, 以島嶼洋溟爲其町畦, 出沒風濤, 若走平地. 若以此輩充定水軍, 自裝戰艦, 試藝精鍊, 以備不虞, 則吳楚舟師, 豈但專美於江左而已? 議者曰: "船商之徒, 寄生洋海, 朝東暮西, 居無定所, 在於平日, 亦難羈縻以軍額, 况在急難, 飄篷而去, 則何處推回, 以防守禦哉? 金銀錦綾之商, 收南販北, 一日不在於家, 亦安能以此輩以備緩急哉?" 臣謹答曰: "船販之人, 雖泛梗漂檣, 行販南北, 其所居之地, 則自有定處. 况其行販之地, 亦非北胡南越之地, 不出於吾邦千里之內, 則在於常時, 紀綱嚴明, 惠懷備至, 必有本官公文, 然後行販四方. 及其有變之日, 一時急令于沿邊各邑船商行販之地, 本邑使監押人領付本營, 如有遲回等待者, 卽行軍律, 則安有臨事未集之理哉? 况其父母親屬居在江村, 則何難於調發之有艱哉? 至於金銀錦綾之商, 身雖四方, 家有定本, 若臨急難, 堅囚父母, 四方行

1142) 定 : 丁

1143) 浦 : 捕

會, 一時調送, 則亦不難矣. 若在平時, 則常定入番之月, 雖遠販四方, 及期來會, 若未及期, 責其親屬, 論以大罪, 則亦何難於調發哉?”

僧兵

僧上兵 : 僧人之四十歲以下, 爲上兵.

僧下兵 : 僧人之四十歲以上, 雖四十歲以下, 體力病弱者, 爲下兵.

右僧上兵一人, 下兵四人爲奉足, 軍器軍服軍糧一一備給.

臣謹按奪良民之赤子, 斬棄五倫, 絶滅滋息, 奪農民之五穀, 迷眩禍福, 僭宮侈閣者, 僧人也. 原其情狀, 在王法難赦. 叢林巨刹, 十里相望, 淫惑生靈, 蠹害世道, 有不可勝言者. 而三百年聖代淸朝, 無一人言及此事者, 臣切痛之. 臣伏請令僧人之在于邦內者, 悉數簿錄, 人各授印牌, 無印牌而出于道者, 論以大辟. 然後擇其壯者, 爲上兵, 其老弱者, 爲下兵. 擇其中稍知文字而知事要者, 爲百人之將, 又擇其稍勝者, 爲千人之將, 又擇其最雄傑者, 爲一道之將. 在於平時, 習肄行陣武才, 一如他兵, 及其有變, 使之獨當一面, 則非但有助於禦賊之道, 良家子枝, 亦無避兵爲僧斬絶五倫之弊矣.

奴兵

奴上兵 : 各司奴僕之四十歲以下, 爲上兵.

奴下兵 : 各司奴僕之四十歲以上, 爲下兵.

右內需司以下, 各司奴僕之散在八路者. 女僕則一一收貢, 納于本司, 男僕則皆隷于兵. 上兵一人, 給下兵三人.

臣謹按古者, 列國有蒼頭之兵. 所謂蒼頭, 卽我國寺奴也. 諸寺之奴, 散處民間, 厥數至衆, 女僕收貢, 足以充諸寺之用. 除其男僕之年壯力健者爲上兵, 老羸者爲下兵, 皆習火銃, 其才藝精敏者, 升于京炮, 其次屬于各營之將, 則十萬之衆, 可辦於此矣.

兵民總目 【兵分六科】

士兵 : 上, 中, 下. 屬監營.

農兵 : 上, 下. 分屬兵營及各堡.

工兵：上, 下. 屬京炮.

商兵：上, 下.【船商屬水營, 餘皆屬京炮.】

僧兵：上, 下. 屬僧大將.

奴兵：上, 下. 屬營將, 私奴農兵同.

右六科上兵. 在於平時, 京外諸將及守令, 毋得以雜例事役侵督. 春秋, 監司差文官守令之有將才者一員, 兵使差武官守令之通習武書才藝者一員, 同行于郡縣, 會六科兵卒, 一一試才. 矢五發, 三中以上, 炮五放, 三中以上, 馳馬能應漏刻者, 論高下, 大用行賞, 弓炮馬才, 一未入規者杖罰. 奴兵則營將春秋試才如右. 監兵水使及營將守令, 各將其兵, 習水陸戰陣, 一年一次.

右六科兵民. 除營將守令試才外, 三年一次別遣御史, 試閱武才. 射手十矢八中, 炮手十放八中, 騎士十矢七中以上, 直赴殿試, 六中以上, 賞給優數. 監營兵營所屬兵人, 十矢不中一矢者十五人, 則奪二資, 收贖七升細布十五疋. 營將所屬十矢不中一矢者九人, 則五十棍決罪後, 收贖細布九疋. 州府十矢不中一矢者七人, 則其守令三十棍決罪後, 收贖細布七疋. 郡縣五人以上, 其守令十五棍決罪後, 收贖細布五疋. 十矢八中者, 大將所二十人, 各邑十人以上, 大將加二資, 守令加一資.

鄉義兵典例

右六科下兵. 在平時豫備軍器資用, 給于上兵. 若有變, 則諸下兵之在于其鄉者, 守令統率爲將, 鄉中之中士下士及農戶之下民, 亦得統屬于守令. 有山城之邑, 則入據山城. 無山城而其本邑之城堅固可守, 則入據本城. 本城不可守, 則擇境內之險僻要害可守之處, 結陣據險. 鄉中子女人士毋得散處林藪, 皆入陣中. 郡縣之陣, 處處相望, 聲勢相依, 朝暮戒嚴, 利其器械. 若其遇賊, 則或堅守牢固, 戮力守禦, 以衛其父母妻子. 或設伏陳奇, 出其隘塞, 突襲其游賊之兵. 凡辦運軍糧, 通命朝廷號令等事, 郡邑之陣, 次次飛傳, 而守令之緩於備守者斬. 鄉人之棄鄉兵之陣, 私自逃匿者斬.

臣謹按我國之制, 水有水軍, 陸有陸軍. 及其有變, 水陸之將, 各將其軍, 轉鬪千里, 而列邑貴賤人民, 散伏林藪, 私自避兵, 邑里空虛, 城郭蕭然. 守令徒擁虛器, 手足莫措, 迫不得已率其妻孥, 與百姓同竄於山澤之間, 運餉軍饋, 通命朝廷, 漠然隔絶, 戰則必敗, 皆由於此也. 又况億萬人民, 同入山藪, 山藪有限而人物極煩, 雖欲深入潛藏以避兵火, 不可得也. 猝然遇賊, 則千人同斃於一賊之刃. 轉輾漂掠, 千里魚肉, 而莫有能禦之者. 壬辰之變, 丙子之禍, 擧國靡然, 同就敗衂, 可勝痛哉? 可勝痛哉? 且其急難之際, 守令逃竄, 人民分散, 名分倒錯, 紀律渾雜, 避兵入山之輩, 弱肉强食, 私自愒奪. 賊未入境而良民先已受害於我國之人, 此何等事耶? 今者若立鄕義兵一法, 守令爲將, 號令嚴明, 在於平日, 講習守禦之策, 使民人皆知鄕兵之利於國利於民之道, 及其臨亂, 寸童尺民, 不敢違棄鄕陣, 獨走偸生. 士農工商僧奴之不入上兵者, 同入一陣, 各有部將, 各邑列陣, 號令相通, 必也竭力堅守. 然後其父母妻孥之在于陣中者, 得免兵革, 則孰不出死力進戰哉? 若然則賊人之游兵遮卒, 必不敢深入山澤, 以害吾民, 而雖大陣, 亦不敢如入無人之境, 直犯京師矣. 如此, 則水陸大將遠鬪千里, 以衛君父, 各邑鄕兵私自戮力, 以扞其父母, 忠孝兩全, 上下相保, 一以通朝家之命令, 一以繼兵食之運輸, 則庶近周制. 居則爲比隣族黨州鄕, 出則爲伍兩軍師之法矣.

六科兵民科擧典例

京中及外方, 分二所設場. 士兵農兵同赴一所, 工兵商兵奴兵同赴二所. 一所取五十人, 二所取五十人. 會試亦分二所, 各兵分赴如上法, 一所取百人, 二所取百人. 士農之登武科者, 一年一次入衛御營, 一月遞番. 有變則沒數進衛于輦轂. 工商奴之登武科者, 分屬于監兵營.

內外立法典例

內官定制都廳 : 堂上三員, 堂下三員.

進貢方物沿革都廳 : 堂上三員, 堂下三員.

外官定制都廳 : 堂上四員, 堂下八員.

各道官制定法, 都御史各一員, 副御史各一員.

右都御史一員, 副御史一員, 奉命分往諸道, 與其道監司商確, 擇守令之多才藝者, 一道四員爲差使員, 分掌列邑. 先計一道郡縣結卜之數, 然後一道置二府二州, 次計餘結, 各置屬縣. 仍其舊邑可削者削之, 可合者合之. 州郡旣定, 然後差使員率其邑守令, 分定黨里保戶. 保戶旣定, 然後分別五民, 五民旣定, 然後分別六兵及學校射亭之法.

南圃集

附錄　卷之一

家狀 [羅晩成]

先生諱萬英字英叔, 後改羣實, 姓金氏, 系出棠岳. 丁酉之亂, 家譜失守, 麗以上無徵. 入我朝有諱忍官副摠管, 墓羅州, 子孫仍家焉. 副摠之孫諱琮文科正言, 正言之子諱孝禎, 俱中進士生員不仕, 於先生爲五代祖. 高祖諱斗進士號慕庵, 性至孝, 當己卯之禍, 與本州進士十一人, 倡義泮中, 特卞靜菴趙先生之冤. 曾祖諱台角, 官止內資寺主簿. 祖諱元祿受業於思菴朴相公, 篤志謹身, 倭奴之變, 慘遭一家之禍, 自是絶意學業. 考諱泰洽以文名世, 累魁鄕解, 爲光海時人所斥, 一不得赴覆試, 遂慨然以敎授生徒爲業, 自號松湖. 松湖公娶羅州羅氏生員元吉之女, 以崇禎甲子二月十七日, 生先生于龜業里第. 生之夜, 母夫人夢人授一明珠, 光耀滿室, 既覺而先生生. 先生形容端莊, 自學語已知文字, 年七八歲, 言動沉重, 賦詩輒有警語. 雖暗室必危坐終日, 與羣兒遊, 未嘗爭鬪疾走. 十二歲讀大學中庸, 沉潛反覆, 不舍中夜. 遂不復留念於科業, 人勸之則笑而不答. 一日稟于松湖公曰: “世之人皆業科, 然士之抱負甚重大, 固不可專意於此. 且古人有寧學聖人而未至, 不以一善成名者, 此最可爲法也.” 公嘉其意, 遂不復强以詞章. 手畫庸學圖, 又作說揭之座, 以自警省焉. 十三歲取論語孟子周易諸書, 次第讀之, 頃刻不懈. 至於義理歸趣, 一有未達, 則終夜不寐, 必極其究研而後已. 又博通詩書禮春秋及諸子史, 一覽輒記. 然要在探賾蘊奧, 不以涉獵爲事. 自是業日就德日卲, 其學尤邃於易. 年纔十四, 見之者莫不加敬, 以成德君子目之, 搢紳之過州家者, 亦多求見. 是時先生一家男女長少以瘵疾殞者, 已十有餘人, 而松湖公又適遘其疾于南平之寓舍. 先生侍藥物, 晨夕不懈, 夜未嘗脫衣. 疾且甚, 公謂曰: “吾家兄弟叔侄, 死亡殆盡, 而吾又不幸至此. 汝未有弟兄, 汝年少且無子女, 汝宜遠遁以圖生. 汝忍使我負無後之罪耶?” 遂勒使去. 先生涕泣不忍則公又繼之以怒呵, 先生恐傷其志, 常隱身左右以供藥. 及大漸, 母夫人謂先生曰: “吾嘗聞瘵有虫, 常以絶命時染人, 汝姑小避, 以俟.” 先生驚且泣曰: “人子死卽死耳, 安忍棄父而自謀?” 累言而先生終不可. 母夫人哭出於外曰: “所天已不可救, 一子又將不保, 薄命之身, 不如死而無知.” 卽引索自縊. 先生顚倒救解, 哭且諫, 母夫人以帶結先生手, 且以刀自擬, 以示不可離. 時王夫人徐氏亦在堂, 謂先生曰: “汝母由汝而死, 汝何以爲子?” 使

外孫羅積等固守, 使不得復入戶, 先生以頭叩地, 悶絶復蘇者累矣. 其日松湖公果不救. 先生號哭如禮, 設喪次於正寢門外, 以成服哭踊, 哀戚之狀, 吊者莫不流涕. 服且成, 母夫人又責先生去曰: “汝在此, 吾固不出. 死父已矣, 將欲置吾何地也?” 先生扶抱泣諫者盡日, 終不得請, 卽奉母夫人寓于別村, 身且棲于山菴, 時先生年十五矣. 居數月, 先生又得是疾, 泣而語曰: “罪孤之離喪次, 非敢以逃死重違父母之戒也, 今病如此, 在外何爲?” 乃伻告于母夫人, 卽徒步歸喪次治葬具, 卜日永窆. 朝夕之間, 號哭過哀, 病且漸劇, 以至柴毁, 而猶未嘗暫脫衰麻. 於是延醫鍼且灸, 且服川椒丸, 迨三四年得免死. 乃嘆曰: “賦命奇薄, 不能居喪盡禮, 天地間罪人也. 莫如爲農圃以終世.” 乃扁其堂曰明農, 自號南圃病逸. 自任病廢, 閉門不出曰: “人生一息尙存, 不可暫時怠惰放過.” 或開卷熟覆, 玩心聖賢之戒, 或閉眼嘿坐, 游心天人之際. 心有所契, 必書之冊, 當時所記, 有玩物篇焉. 鄕里冠童往來問業, 則莫不隨其才而諄諄. 且曰: “人能收得放心, 刬却外物, 則心氣寬平, 自有樂地. 何必專力於記誦著述之習哉?” 先生索居不求聞, 而名譽騰播遠邇, 人無親疎, 翕然稱林下第一人. 至於搢紳長者, 雖不相面, 亦皆歆艶其名而稱道之. 歲己丑用鄕薦除先生敎官不就. 未幾又除翊衛司洗馬, 時適仁廟賓天, 先生奔哭到京師, 翌日行奔哭禮, 又明日行肅謝禮, 卽以病辭歸. 歲庚寅閔判書鼎重爲本道御史, 一見先生器重之, 卽褒啓先生. 然時黨同伐異之風甚, 下及委巷士庶, 亦莫不覘人一動一靜, 以爲向背毁譽之候. 而先生吹嘘適出於龍洲趙公絅之手, 由是人多猜惡, 始欲訾毁先生而不得說, 乃曰: “先生父喪, 先生嘗在外.” 仍相與增衍裒益, 構捏作口語, 識者痛之. 先生家居養母夫人至孝, 雖家貧屢空而朝夕必有甘旨. 歲甲午遭終天之痛, 喪祭一遵家禮, 三年未嘗見齒. 服闋益無意仕進, 惟以守靜養性爲事, 時値春秋佳節, 則逍遙吟詠於山水之間, 以暢敍幽情. 以至一草一木一禽一獸, 莫不隨覽而反求諸己, 以爲竆格自警之資, 其所錄則有南郊日記焉. 歲己亥孝廟昇遐, 先生扶病入洛, 行奔哭禮而歸. 顯宗初卽位, 訪問賢士之奔哭者, 宰執揀八賢以奏之, 先生參其中. 是時大小宋名望傾朝, 以士流稱者皆奔波, 先生終不造其門. 旣歸除先生司勇, 先生不赴. 鄕之攻先生者益衆, 而先生又不求知於人, 由是秉朝權者亦多不快. 會有爲湖南御史者, 親造先生廬一宿, 與語大悅曰:

“此君子人也.” 一見決矣. 遂疏陳其行, 且揚言於朝, 歎惜不置, 惡先生者亦莫之沮. 歲辛丑果擬先生爲敎官, 先生又不赴. 先是大妃服制之論大鬩朝野, 爭其是非. 門生有難于先生者, 先生曰: “朝家大禮, 非在野之人所敢議也.” 仍出當時論禮諸箚及眉叟白湖長書曰: “此足以定其是非矣.” 又問宋箚中免衰之喩, 先生憮然不答, 久乃曰: “公論之定, 必不待百年. 爾輩從當知之.” 因愀然不樂. 鄕中趍時之徒, 得聞其說, 自是攻先生日益力. 及黃山書院之刱, 大宋會儕朋于礪山, 奉安有日, 道內自好之流, 莫不干謁. 人或告先生曰: “儒林大擧也, 子不可不往, 宋意亦欲先生來.” 先生曰: “我平生多病, 親舊喪葬, 且不能匍匐. 况今數百里外, 其能馳赴乎?” 竟不往, 宋知其意大憾焉. 是時鄕中親知爲子弟立三齋, 推先生請卒業. 先生名其齋曰三學曰蒙養曰悅樂, 嚴立講規, 略倣白鹿洞遺意. 朔望行分揖禮, 課其所學, 菁莪之化, 將不日而振. 會宋公弟時杰爲南平守, 亦欲大害先生, 使不容於世. 初先生夫人吳氏有孕, 未久而先生丁內艱, 夫人解胞適在喪中. 於是捃摭舊事, 拍手相賀, 做出喪童之說, 添作先生一罪案. 先生謂門徒曰: “此人輩畜憾, 非一朝一夕之故. 終必毁舍削迹而後已, 吾不如謹避之. 爾等勿以我去, 怠棄講規, 宜終始其學, 以自成就焉.” 是日門徒無不俯伏流涕者. 遂挈家歸于羅州之故里, 時則顯宗乙巳歲也. 州之子弟復多來學者, 先生猶敎之不倦, 使立齋于松楸之下. 一家之人或曰: “人皆謂南中異論, 以子爲宗, 競相造謗, 向也永平之禍, 宜可以懲, 何不謝去生徒, 以息人言耶?” 先生曰: “彼以學來, 何忍拒之? 儻復有禍患, 非閉門塞竇所可避也” 仍從容謂生徒曰: “昔鄭困齋之竄, 遊其門者無不延其禍, 爾等將恐不免. 獨行不愧影, 獨寢不愧衾, 乃吾黨十字符也. 汝等宜服膺而勿失之矣.” 未嘗以窮苦困阨, 一動其心. 先生宗族之在本州者幾人, 遂約束立契, 勉以相好之意. 歲春秋每一合族以自娛, 或使子侄左右立, 詠所製歌詞以侑酒, 滿座無不肅然起感者. 先生雖早衰多病, 而好學之心, 始終不倦, 所居數架屋, 積冊子累百餘篇. 先生必昧爽而起, 整衣巾端坐, 終日矻矻, 筆硯書床及菊盆外, 蕭然無他物, 座隅置一張短琴, 時或抽匙撫絃, 按譜作古調, 其聲雄遠和平. 客至則下堂迎致敬, 相對語亹亹, 一言半辭, 未嘗及人世雌黃. 辛亥之五月初十日寢疾, 易簀于正寢, 得年四十八. 門生皆會于喪次, 相向而哭若斬齊焉. 是年月日, 葬于南平之墻巖山.

先生德性嚴整, 風度清爽, 與人語則和氣盎然. 雖稠人廣坐之中, 初無半面之分者, 一接皆知爲先生, 雖麤悍無賴之徒, 見之自不覺屈膝. 待庶母盡其誠, 敎育孼弟, 情愛備至, 田庄臧獲平均分給曰: "我自有外家田民, 誠不忍汝飢寒也." 其於族人, 雖緦免之親, 待之如同氣. 撫育宗家孤侄若己出, 或有疾患則達朝不寢, 以盡救療之方. 每遇先代諱日, 雖隆冬必澡浴, 將祭之夜, 必整衣冠, 危坐以待, 祭需無不親檢, 以致精潔. 其學得於心而非由師傅, 然奧旨之難解者, 變禮之難處者, 人或就正則莫不渙然明釋, 援引各適其當, 聽者悅服. 雖不求聞達, 罕與人接, 而其於當世之務, 無不通解, 以至朝廷體例及外國風土, 有若目擊而親驗之者. 盖其姿稟之高, 才品之豪, 觸處無所不長. 嘗觀先生著萬言疏, 本之誠正之要而推而及乎世務十事, 以筮不吉不果上. 又嘗著經世通典一部, 論士農工商兵僧之制, 盖如有用我者, 擧而措之之意也, 則先生果非無意於世者. 而遭時不淑, 含光晦彩以自樂於蓽門圭竇之中, 所謂不見是而無悶者, 先生足以當之矣. 所著玩物篇·南郊日記·經世通典及易象小訣·牛山答問·質疑書及詩若文若干篇藏于家. 嗚呼! 先生自幼少, 已知爲爲己之學, 及長閉戶讀性理書, 盖將四十年. 其造詣淺深, 有非後學所可推度, 而其見於動止威儀之間者, 有不可掩. 其學盖立幟乎五賢之嫡傳, 而繩趍尺步於坦蕩之途者也. 惜先生生無知己之士而死無傳鉢之人也. 中年毁先生之言, 實出於初年譽先生之人, 而畢竟爲壬人所構陷以廢悲夫! 先生平生尤篤信退陶, 其立言處心, 多所祖述云.

崇禎紀元後己未陽月望日, 門人通德郞, 前行成均館學諭羅晩成謹狀, 【門人李都事錫三, 洪進士最一深懼先生之學問操行, 久而泯晦, 議所以撰成行狀, 僉議咸推於晩成曰: "尹[1144]早趍先生之門, 身親見其動作規矩, 且薰炙於德業行義, 既厚且久, 則惟君捃摭揄揚, 以視來後, 不亦宜乎?" 晩成不獲辭, 乃撰次如右.】

1144) 尹 : '君'의 잘못인 듯하다.

行狀 [任遠]

先生諱萬英字英叔, 一曰羣實, 姓金氏, 系出棠岳. 丁酉兵燹, 家譜失守, 遠代無徵. 入我朝諱忍官副摠管, 墓在羅州, 子孫仍家焉. 摠管之孫有諱琮, 官正言, 是生諱孝禎生進俱中, 於先生爲五世祖也. 高祖諱蚪號慕菴, 早登司馬, 以孝行累登繡褒, 當己卯士禍, 與本州進士諸公, 特卞靜庵趙先生之冤. 曾祖諱台角官內資寺主簿. 祖諱元祿受業於朴思菴門下, 篤志謹身, 不屑擧業. 考諱泰洽以文名世, 屢魁鄕解, 爲光海時人所擯, 一不得赴覆試, 遂慨然以教授爲業, 自號松湖. 松湖公娶羅州羅氏, 生員元吉之女, 以崇禎甲子二月十七日, 生先生于羅州龜業里. 是夜母夫人夢得一明珠, 光輝滿室, 旣覺而娩解. 先生生而英秀, 警悟異常, 人皆見而奇之. 自學語已解文字, 而年甫七歲, 言動擧止, 沉重有度, 與羣兒遊, 未嘗爭鬪嬉戱. 十二三歲, 始讀大學中庸, 沉潛反覆, 必以窮格爲主, 手畫中庸圖, 又作說揭之座右, 常目焉. 又取論孟詩書及周易等書, 次第讀之, 孜孜不懈. 至於諸子史學, 一覽輒記, 靡不博通, 當時見者咸以成德君子目之. 歲戊寅松湖公遘病癘, 先生手自煎湯, 夜不解帶, 及喪哀毁踰禮. 先是一家男女老少, 以是疾致殞者幾十餘人, 兩世慈堂深恐餘禍之及於先生, 服成之日, 强令出寓隣舍, 未幾先生又得是疾, 泣而謂曰: "罪孤之離喪次, 本非自愛計, 惟兩親之戒莫違. 而今病如此, 在外何爲?" 仍告于兩夫人而歸侍几筵, 其哭泣之節, 饋奠之禮, 未嘗以病毒而一廢焉. 三年之內, 多試鍼灸, 且服川椒丸, 病得蘇. 常歎曰: "賦命奇薄, 不能居喪盡禮, 天地間一罪人." 遂絶意當世, 以農圃自業, 扁其堂曰南圃, 明窓靜几, 日討經籍. 或時閉眼嘿坐, 遊心於天人之際, 心有所契, 輒必箚記. 先生平居不求聞達, 而名譽騰播, 人無親踈, 翕然稱林下高士. 至於搢紳長者, 亦皆艷慕其名, 而隣近官長過州里者, 必來求見. 己丑以鄕薦除童蒙教官不就, 又除翊衛司洗馬, 皆龍洲趙公絅之吹噓也. 是時仁廟賓天, 先生奔哭至京, 肅命後卽棄歸. 庚寅老峯閔公鼎重以本道繡衣, 一見先生器重之, 盛加啓褒. 甲午遭母夫人喪, 喪祭一遵家禮罔愆. 己亥孝廟昇遐, 先生又奔哭而歸. 顯宗初服, 詢問草野士流奔哭者, 廟堂揀八賢以奏之, 先生亦其一也, 仍付軍啣不就. 其年藥泉南公九萬以御史親造先生廬下一宿, 與語大悅曰: "此君子人也." 遂疏陳其行誼以褒之, 辛丑復除教官又不赴. 先是禮訟

作, 朝野紛紜, 有人難之于先生者, 先生曰: “朝家大禮, 非在野之人所敢議也.” 仍出眉川長書懷川箚錄而視之曰: “有見于此, 是非自定.” 盖以眉川意爲主矣. 先生再入京輦, 當時斯文長者, 無不遍尋周訪, 而但於懷川宋相, 終不肯往見. 及黃山書院之刱也, 懷川來留礪山, 道內自好之流, 擧皆奔波, 而人或勸先生曰: “儒林大擧, 子不可不往. 宋公之意, 亦欲來之矣.” 先生曰: “我素抱病, 何能馳往於數百里之地乎?” 竟不赴. 先生頃自免喪後, 矯[1145]居南平石面村, 而鄕中士友爲築三齋室, 以爲講習之所. 先生名其齋曰三學曰蒙養曰悅樂, 嚴立講規, 一倣白鹿遺意. 朔望行分揖禮, 日日課學, 文士蔚興, 菁莪之化, 將不日而振矣. 時有不悅先生者爲地主, 鄕人做讆言囑官長, 欲害先生, 先生謂門人曰: “禍將不測, 吾當謹避而已. 諸君勿以我去怠忽, 宜終始努力, 以見成就. 是吾之願也.” 遂挈家歸于羅州故里, 時顯廟乙巳歲也. 州之子弟復多來學者, 先生猶敎之不倦. 先生所居, 不過破屋數間, 環堵蕭然, 人不堪其憂而先生處之裕如, 必昧爽而起, 終日危坐, 設於身體, 少無惰慢之氣. 以至書籍几案, 皆秩然整頓. 潛心對越, 獨以義理自怡悅. 庭栽黃菊數十本, 深得栗里閒澹之趣. 手彈玄琴一二曲, 擬追古人梁甫之吟. 每當佳辰令節, 必與五六冠童, 嘯詠山水之間, 有所著南郊日記. 歲辛亥之五月初十日, 以病考終于第, 得年四十八. 同年月日, 葬于南平墻巖山卯坐之原. 室洛川吳氏喜馹之女, 翰林賓曾孫女也, 配德無違, 後先生四歲而沒, 合祔于玆. 有女五, 長適羅再興, 次適羅再祐, 次適李錫三文都事, 次適李師存, 次適鄭萬奎. 嗚呼! 伯道無嗣, 有外孫若干人. 戊午門人子弟, 與鄕隣士友, 唱議鳩財, 建祠于楓山, 俎豆以享之. 嗚呼! 先生以故家衰替之族, 生湖南僻陋之鄕. 無家庭箕裘之業, 乏師友淵源之緖, 傑然特立, 以斯道爲己任, 竱心於性理之學, 着跟於眞實之域. 窺其私則凝然如泥塑, 與人語則盎然若和風. 雖稠人廣座之中, 初無半面之雅者, 一接皆知爲先生也. 事父母至孝, 居親喪盡其禮, 待庶母感其心, 育庶弟情愛備至. 雖一家緦免之親, 視之如同己[1146], 撫養宗家孤侄, 無異己出. 每於祖先諱日, 雖隆冬必澡浴親檢祭需, 務

1145) 矯 : ‘僑’의 잘못인 듯하다.

1146) 己 : ‘氣’의 잘못인 듯하다.

致精潔. 祭之日, 必整衣冠正坐, 達宵而待之, 哀慕攀號如初喪, 皆出於至誠而非强作爲也. 平生爲學, 篤信退陶, 其立言處心, 多所祖述. 而嘗著易象小訣, 牛山質疑等書, 其奧旨之難解, 變化之不測者, 莫不渙然明釋, 各適其當. 其於當世之務, 亦皆觸處洞透, 以至於朝廷古事, 外國風土, 有若目擊而親驗之者, 於此可見先生才識之高有如是夫. 嘗觀先生有著萬言疏一篇, 盖本之誠正之要, 而推而及乎世務十餘事, 極言竭論, 儘有條理而遇遯不果上. 儻使此言一徹天聽, 施以行之, 則其有補於風化之治者, 庶不少矣. 惜乎疏未達而意未遂, 至使格言徽論, 徒爲塵篋中空言, 吁! 可悲矣. 又嘗撰經世通典, 論士農工商兵僧之流, 盖亦如有用我者, 擧而措之之意也, 噫! 以此數者觀之, 則先生果非無意於當世者, 而遭時不淑, 含光晦彩, 甘老於蓽門圭竇之中, 所謂不見是而無悶者, 實先生之謂也. 嗚呼! 天之所以生先生於湖南一道者, 實非偶然. 而惜不能假之年而充其量, 以臻大賢之域, 此亦何故歟? 世之異趣者, 以先生不守喪廬爲病, 興訛造謗, 讒舌囂囂, 馴致曩日之禍, 噫噫! 痛矣, 末路人心之險巇也. 先生之家禍, 旣由於俗所謂瘵疾, 而一門死亡, 殆無餘類, 則兩大夫人所以勸移者, 盖出於保護遺孤之意. 或涕泣而導之, 或扶將而去之, 至於引索擬刃之境, 當此時爲先生者, 顧安得不抑情勉從, 以順兩夫人之心乎? 先生性至孝, 平日事親, 一以順志爲本, 雖在嚴喪號擗之中, 其於兩老慈敦迫之命切切不已何哉? 禍變蒼皇之際, 設有處義之未盡善者, 而先生時年十五歲矣. 噫! 經權之得中, 在於老成尙難, 況以童兒時事, 追疵於成德之後, 則吾夫子與其進不保其往之意, 果安在哉? 甚矣, 小人之不樂成人之美也. 嗚呼! 先生於遠爲外再從戚祖, 而遠之伯仲父及同堂諸父, 俱遊先生之門, 嘗聞伯父上庠公之教曰: “南圃爲南中道學之士.” 仲父亦有言曰: “望之凝然爲眞箇君子.” 同堂諸父亦嘗稱頌不已. 遠昔遊於明齋尹先生門下, 先生謂余而言曰: “南州有金君萬英者, 眞豪傑士也.” 遠少長於洛中, 於先生世相後地相遠, 雖不能親炙于先生言行之間, 而嘗因父兄及師門之教而聞之已熟. 及其南歸田里, 一者瞻拜祠宇, 又得見先生家莊行錄及遺文諸篇, 然後始知先生邃學重望, 爲一世標準而後學山斗之仰, 有不勝言者也. 誠使國子師儒之席, 爲其所據, 以迪俊造則其樂育之效, 必不但已, 而今乃沉淪埋沒, 不展所學, 蒙養教導之功, 正及於一門之士, 其亦可慨也

已. 嗚呼! 吾先子於先生, 年歲差後, 未及從遊, 而平日景慕則亦多矣. 嘗見先生所撰中庸訓解, 稍加檃栝, 著有一說, 其間不無同異之論, 而語其大要則同一揆也. 頃於某歲, 士論齊聲, 並享先人于楓宇. 自玆以往, 每年春秋之享, 輒乃趁與於籩豆之間, 小子區區慕悅之誠, 豈餘人比也? 先生專意性理之學, 不曾致力於詞章之間. 而凡有吟詠, 皆從性情中流出. 其中四時歌, 辭氣渾和, 便有程伯淳氣象, 每一諷誦, 不覺起敬. 遠嘗見南尙書龍翼所抄箕雅, 先生之詩【詳見叙述】亦入其中, 始知先生之文章, 被選於風雅之列也. 又按明齋先生遺集, 先生嘗引炭翁權公諰之言曰: "韋布自處者有之. 如金君萬英者, 尤可使置太學成就其才可也." 又送林士駕序曰: "吾於南中士所聞則金君萬英, 吾子歸而求之." 其平日見許於儒門者, 亦不泛矣. 日者先生之庶從子國相來曰: "吾叔父行狀尙未成, 子其識之." 遠雖人微不敢當贊德之文, 而顧我諸父旣在門生之列, 吾先子又從以同享一宇, 則以情以義, 不可以不文辭, 謹依家狀而序次如右, 間附平日所聞於家庭及師友者, 以俟夫世之尙德君子有所考信焉. 歲庚申仲春下澣, 後學西河任遠謹狀.

墓誌銘【幷序 李明迪】

南圃金先生遭際仁孝之世, 懷瑾握瑜, 肥遯于林樊之下餘四十年. 粹於面而盎於背, 發於中而著於外, 夜光明月, 自不掩其山輝而川媚, 名聲藉甚, 於是乎龍洲趙先生吹瑩[1147]之. 縉紳章甫亦莫不艷其名而躬造其廬, 求見先生. 持斧按廉之地, 交口尉薦, 旌招者再, 始除童蒙教官, 繼而有翊衛洗馬之命, 於休盛哉! 聖朝崇德象賢之化, 若是乎至矣. 近世學者, 或爲異言侵牟, 水波鑑塵, 從而有茅榛之歎, 或說之未詳而遽欲一言探其極致, 反有躐等之嫌, 抑鏟迹長往, 獨善其身, 於世務茫然也. 惟先生起自南服, 其學則本諸考亭, 篤信退陶. 存心乎性命之原, 硏究乎義理之分, 沉潛反覆, 率以中庸爲歸宿. 推以至於古今治忽, 當世事務, 銖兩不遺, 履屐俱當. 隱焉而有考槃薖軸之樂, 揚焉而可以致修齊治平之功, 斯豈非林下第一人乎. 謹按其狀, 先生

1147) 瑩 : '噓'의 잘못인 듯하다.

以崇禎甲子二月十七日, 生于龜業里第. 母夫人夢有人授一明珠, 覺而生先生. 自在齠齔夙就穎悟, 風範端凝, 言動沉重, 望之如成德君子. 十二歲讀大學中庸, 於科業不屑意也. 十三歲讀論孟易禮, 以至於諸子百家之書, 無不寓目成誦, 探賾其蘊奧, 不以涉獵爲事. 暗室危坐, 頃刻不懈. 自是以後, 講磨求志, 學業日盛, 而若士農兵僧之制, 草木禽獸之微, 朝廷之法度, 外國之風土, 皆有以貫穿通透, 泛包該括, 觀於萬言疏·經世通典·南郊日記·易象小訣·牛山問答等諸篇, 其學力之造詣, 聞識之淹博, 有非後生末學之可以管窺. 其萬言疏, 有曰: "治心之法, 載在方策, 一字一藥, 可醫吾病. 臣願殿下終始一心, 篤棐無疑, 共成至治也." 其經世通典, 有曰: "科擧取人, 本非三代之制, 而科擧之制, 又亂褋如是, 則失道之中, 又甚失道焉. 正人君子, 何從而立於本朝乎?" 南郊日記曰: "紫陽先生嘗以畏字訓敬字, 近者粗得其方, 使此心不得入於解弛怠惰之地." 又曰: "冬日之日, 是[1148]夏日之日, 寒熱判異, 以其時氣之使然. 仍念人之性有賢愚者, 氣質之使然." 至若馬齕綠草, 寓克慾之戒, 菊移上級, 有品別之要. 無微而不究其理, 無物而不附於義, 理氣知行之奧旨, 隨處發見, 觸類而長之. 至於萬言疏, 卽追紫陽封事遺規也. 專以正君心爲本, 其致君願忠之誠, 寸丹藹然, 使揚顯而置諸廊廟之上, 可以導一世於三代之域, 豈不偉乎哉? 又有原理氣說·春風樓記·三學齋規儀·玩物篇·德性問學圖, 皆原本於天人之際, 默契乎羲文之道, 游心於太極, 反求乎方寸, 廣彌藏密, 應接萬殊, 殆無適不可. 平生學力, 得之於中庸, 繩趍尺步, 必由於坦蕩之途, 立幟於不偏倚之域. 當東西標榜, 世無完人. 禮訟一出, 是非紛然之日, 而先生亦爲人捃摭, 乃斂跡於故里蓬圭之下, 倣白鹿規式, 教授生徒無倦色. 常淨掃一室, 凝然端居, 竟日對案, 左右經籍, 往往發之詩文, 有沂水舞雩之氣象. 嘗口占一絶曰: "山靜林深日又遲, 一牀書史到曛時. 和靖處事閒中事, 不學擔糞與着祺." 先生之所存所守, 此亦可驗矣. 數叢菊盆外, 蕭然無他物, 北窓一張琴, 時或拂絃以適意. 人或以禮訟就質則輒曰: "朝家大禮, 非在野之人所敢議也, 公論之定, 必不待百年." 其操守之確然, 雖賁育莫奪矣. 己丑拜教官, 未幾又除洗馬. 仁廟賓天, 先生奔哭

1148) 是 : '與'의 잘못인 듯하다.

到京師, 己亥孝廟昇遐, 又奔哭如初. 顯宗卽位, 詢問賢士之奔哭, 宰執以八賢啓之, 先生其一也. 庚寅閔老峯以御史褒薦先生, 而其後南藥泉又以御史一見先生, 與語大悅, 亟薦于朝. 此先生華聞大彰, 再膺繡褒, 連除名宦者也. 先生事親至孝, 居喪盡禮. 敎庶弟而友于篤, 撫宗侄而若己子. 待踈族而敦睦備至, 遇祭日而澡浴必潔. 斯皆一世之所欽慕, 而操戈者乃勒驅先生以千不近似之說. 盖先生於弱冠, 一家染疾荐禍, 而時當嚴喪, 母夫人屢屢有教, 使之姑避. 先生泣諫不得, 暫寓於山菴, 寔出於順志之義, 而人心險巇, 譸言不已. 甚矣, 小人之不樂成人之美也. 先生諱萬英字英叔, 又曰羣實, 姓金氏, 系出棠岳. 入我朝諱忍官副摠管, 墓在羅州, 子孫仍居焉. 摠管之孫有諱琮官正言, 是生諱孝禎生進俱中, 於先生爲五世祖也. 高祖諱㺶早登司馬號慕菴, 當己卯之禍, 與本州進士諸公, 特卞靜庵趙先生之冤. 曾祖諱台角官內資主簿. 祖諱元祿受業於朴思菴, 持身謹篤, 不事科業. 考諱泰洽累魁鄕解, 自號松湖, 以教授諸生爲己任. 松湖公娶羅州羅氏生員元吉之女生先生. 配洛川吳氏, 喜馹之女, 不育, 有外孫若干人. 先生以辛亥五月初十日, 考終于家, 得年四十八. 葬于南平墻巖山卯坐之原. 吳氏後先生四歲而歿, 合祔于左. 嗚呼! 天將降任於斯人, 而命嗇中壽, 官止筮仕, 使不得大展布於世, 此其故何哉? 先生當大有之世, 緼袍華而飮水甘, 潛心樂道. 孜孜爲學, 每靜坐書室, 緗帙滿前, 儼然若泥塑人, 及夫對人接物, 溫溫然滿座春風. 性命理氣之原, 山林經濟之策, 人莫窺其蘊奧, 而民到于今稱之. 今其孫秉圭甫, 治麗牲之石, 而以其文命明迪, 明迪非能言者, 而不辭爲先生言者, 以其平日景仰之心, 有倍餘人. 竊附蔡中郎獨無愧色之義焉, 銘曰:

篤志勤業, 漸義磨仁, 近慕退陶, 遠學洛閩, 聖訓必簕, 極圖以陳, 知淹格物, 行修側身, 譽播南服, 恩隆北宸, 巷塡輪蹄, 門登衿紳, 寒廚養備, 嚴廬禮遵, 未徹封事, 忠君憂民, 時際標榜, 跡混隱淪, 處每履坦, 惕若無津, 賁彼邱園, 氣象維新, 一床經籍, 淨無纖塵, 發之於詩, 藹然者春, 處下无悶, 恐言斯湮, 學術經濟, 林下一人, 我爲作銘, 無愧珉, 崇禎紀元後丁未仲夏武靈太守知製教, 延安李明迪謹撰.

南圃集

附錄　卷之二

敍述

先生博古通今, 爲南中理學之宗.【本州輿地勝覽.】趙龍洲見先生人品文章, 超然自得, 每稱以林下第一人,【門人李文碩錄.】問: "在下無自處以賓師之嫌否?" 曰: "自有等級, 賓師自處者亦有之, 韋布自處者亦有之. 鄭道應, 金萬英年少輩, 尤可使置太學, 成就其才可也."【明齋集南遊記聞.】抑吾聞之, 程子曰: "自天子以至於庶人, 未有不須友以成者." 今之知此義者蓋鮮矣, 讀書有疑, 非友何質? 行己有過, 非友何聞? 今吾子學諸書者尙未盡博, 行諸己者尙未盡約, 急宜親勝己資警益, 以自輔助, 不可索居獨學, 自貽困蒙之吝也, 吾於南中之士, 所聞則金君萬英, 所見則柳君震錫, 吾子歸而求之, 其爲麗澤之益, 顧不大歟?【明齋集送林士駕序.】先生爲南州道學之士, 又曰: "望之凝然, 爲眞箇君子也."【門人任孝復錄.】明齋尹先生嘗稱詡先生曰: "南中有金君萬英, 眞豪傑士也."【任西河遠語錄.】先生嘗作西瓜詩一絶曰: "色似秋天初霽後, 形同太極未分前. 碎破丹心甘露滑, 相如從此懶尋泉."【南壺谷龍翼所撰箕雅入.】先生江河偉量, 士林宗匠, 世稱以湖南夫子.【門人李錫三錄】南藥泉以賑恤御史往嶺南時, 上引見命以採訪人才之意, 藥泉退而上疏曰: "臣曾薦金萬英于朝, 自上無採用之意, 今臣雖採訪人才, 竟何補於國哉?" 上特下旨銓曹, 命斯速付職, 故有敎官之除, 而兪市南棨亦極論薦矣.【南九萬藥泉集.】係官南北, 離京國久矣, 矧南州消息, 渺若天外, 卽因林參奉兄弟, 得前歲令從洗馬, 奄忽捐世. 斯人而止於斯, 命也, 奈何奈何, 不勝痛悼之至, 况尊一家連枝之義, 傷怛可言? 未知洗馬有遺孤而年亦長成否, 示及爲望. 經紀後事, 收拾遺文, 責在於尊, 加意幸甚. 就中唐本道書四卷, 洗馬在世時曾送呈, 而此冊乃借得他人者, 不可不還其主, 而今無可問處, 幸望尊問于其家, 搜得惠還如何? 道路絶遠, 得的便未易. 今林正字行, 若爲付還則可無沉浮之慮, 更須留念, 如何如何? 今番秋科, 想必戾京, 而無緣相奉, 尤用溯悵.【藥泉與先生從弟海英書.】宋同春浚吉吏判時, 上傳敎曰: "今發軔時, 在外前朝官學業學行之人來會者, 一一書啓." 與參判李一相, 參議趙復陽啓曰: "前校理李壽仁以侍從之臣, 恬退守志, 爲世所稱, 司業尹宣擧·司業尹元擧皆有實職. 故雖不出於元單子前銜之數, 而曾於榻前備盡陳達. 前佐郎申碩蕃·前佐郎崔徽之曾於先朝直出六品, 前諮議李翔·前

諮議宋基厚曾已授講職, 前洗馬金萬英曾擬於諮議望, 而申碩蕃·李翔尤其表著者也.” 傳曰: “此抄啓之人, 後次雖非闕, 並皆付職事.” 是日申碩蕃除主簿, 崔徽之除別提, 李翔付司直, 宋基厚付司正, 金萬英付司勇.【己亥朝報,】藥泉嘗薦啓先生于朝曰: “南中有人, 不敢仰視.”【御史時褒啓.】閔老峯以本道御史, 來訪一宿, 與語大加稱賞曰: “英叔今之君子也.”【門人洪最一錄】金南圃之文章孝行, 殆湖南諸賢之所不可及.【金相國德遠與先生從侄履相書.】海翁尹參議善道晚年遇先生于羅慶州亩雲亭, 一見風儀之端雅, 才識之高明, 歎曰: “湖南自此更不寂寞.”【外孫羅景聖錄.】

祭文 [文鳳儀]

神精粹然, 天質之美, 挺特南表, 倡明道義, 邈無師承, 默悟暗契, 見理分明, 心融神會, 上溯洙泗, 俯承關閩, 格致居敬, 誠正爲本, 涵養日新, 踐履益篤, 鞭辟近理, 已發省察, 奉先思孝, 接人以和, 隨時處中, 觀物察化, 探賾易理, 先天後天, 講究節文, 三百三千, 肅然靜坐, 左書右圖, 內美日著, 風聽九皐, 恩隆玉汝, 一命初除, 肅謝天廷, 促駕舊居, 富貴非願, 簞瓢可樂, 優遊厭飫, 日造閫域, 衆口雖呶, 何害乎德, 兩遭國恤, 連仍奔哭, 講劘孜孜, 教學不倦, 循循善誘, 懇懇答問, 因體而利, 有如時雨, 濟濟生徒, 或蹈規矩, 擧止言談, 可想所從, 開來繼往, 犬有功焉, 顧余顓蒙, 夙厠講末, 不以卑鄙, 懇誨啓發, 情切弟兄, 義毒師生, 有疑必達, 毫分縷析, 往來尺牘, 戒以勤學, 質魯才劣, 恐不承前, 景仰如山, 戴冒如天, 庶幾或者, 董甄惠延, 復初明善, 變化氣質, 豈料今日, 扶杖歌發, 追思疇昔, 有涕沱若, 道將墜地, 學失其正, 樑木其摧, 吾將安倣, 孑孑身世, 踽踽何往, 余命不淑, 中遭喪明, 獨立蒼茫, 在世何情, 漬綿之吊, 尙後於人, 俯仰幽明, 自然傷神, 溪山依舊, 人事非昔, 一盃來哭, 終天永訣, 嗚呼英靈, 庶其歆格.

又 [羅禕]

維歲次辛亥十月己卯朔十六日甲午, 錦城戚人羅禕謹以淸酌庶羞之奠, 敬

祭于南圃先生之靈. 嗚呼! 自我登先生門凡幾年乎? 忽然相逢, 如入芝蘭之室, 數日相對, 便有膠漆之義. 一年二年, 世好益篤, 親愛之情, 契托之深, 旣爲人指者久矣. 那知今日, 先生逝之奄忽, 令我抱無涯之戚耶? 伏惟先府君尊丈, 卽我高祖考直派贅郎也, 夙歲仁聞, 家積玄德. 而先妣羅氏于歸奉禮, 坤道貞靜, 姻族有輝, 壼儀是式, 福行無彊, 餘慶有報. 歲在蒼鼠, 降生先生, 英姿特異, 江河偉量. 粹然和正, 內外規度. 髫齡志學, 不敎有成. 周文爻象, 理會自解, 孔聖科目, 紆餘備得. 敦敏之後, 遂成大儒, 爲士林之宗匠則當時稱湖南夫子者有由然矣. 甫及冠後, 聲名洋溢乎朝廷, 薦聞遠入於九重, 擢爲儲輔, 名耀縉紳. 而性不喜貴, 志在投閑, 肅謝還鄕, 固守山林. 其視富貴如浮雲, 豈偶爾哉? 自玆以往, 含光蘊彩, 慕誨人之不倦, 結書舍於永平之南, 與有志之士, 日日講究於聖經賢傳者有年, 厥後永之士皆篤於文行. 故延及他鄕, 莫不景仰, 薰陶樂育, 庶見鄒魯之風矣. 亥世多薄, 人情忌殊, 媢疾彥聖, 今古滔滔, 叔孫譏仲尼不幸近之, 噫噫! 亦甚矣. 盛名下多毁譽, 勢固然歟? 靑蛇春初, 移寓錦西湖上之宅, 左琴右書, 花竹自娛. 悅親戚之情話, 修禊事於蘭亭, 敦睦之義, 昭彰親疏, 俗尙之美, 攸曁遠近, 鄕隣之幸, 已萬萬矣. 余於丁未歲, 自潘而訪先生於湖, 卽秋七月上浣也. 窮困避寓, 無處可往, 先生時謂余曰: “英仲書室, 雖窄陋, 地僻人小, 可以爲避寓, 可以爲讀書, 亦可以消遣世慮.” 卽與英仲往觀而仍留數月, 距先生居不滿二里許, 徒步往來, 相尋者數矣. 唱酬詩篇, 付心峨洋, 交契之深密, 情義之相孚, 尤倍前矣. 一日不見, 如渴如飢, 見輒歡猶肺肝相照, 多小所懷, 必陳無隱, 而還忘族義之有分, 轉作函丈間從容. 余時所得, 與前日大異, 要自胸中豁然以明, 嬰情芝室, 如襲馨香. 中間聚散, 若星相離, 塵宂世故, 又從而侵之, 不獲承誨, 已經年所. 豈料轉頭之間, 造物多猊, 伯牛斯疾, 顏子不幸? 位不滿其德, 年不踰知命, 而天奪之速耶? 嗚呼哀哉! 嗚呼痛哉! 夫孰使然耶? 以神仙中骨, 天不欲久落於風塵者乎? 抑時運欲衰, 不令豪傑之才有扶於家國之將顚耶? 吾道竆甚, 不令君子之流, 有振於斯文之凋喪耶? 竆天之英, 貫古之識, 此生天地, 更於何相對耶? 嗚呼哀哉! 嗚呼痛哉! 春夏癘疫, 有同兵燹, 余自寓所, 寄身佛舍之七日, 聞先生遘疾, 又數日凶音忽傳, 夢耶眞耶? 方對食投匙箸, 悲呼長慟, 掩泣者良久. 傍人之慘顏出涕, 有如親戚之喪. 遠邇之聞

先生訃而來慰我者亦多, 則平日吾於先生, 情義若同骨肉者然歟. 吾聞大德必得壽, 以吾先生之純明盛德, 何爲而至斯耶? 吾又聞福善禍淫之理, 顧瞻末俗, 兇者奸者老而不死者多矣, 何奪於吾先生純明盛德者而禍之慘耶? 所謂天者不仁矣, 理者難諶也. 嗚呼哀哉! 嗚呼痛哉! 嗣胤之雅麗明秀, 可見天倫, 臨終一語, 竟爲百年之型範, 而英仲士亨亦見湖右之名稱, 他日家聲, 知有更大. 舊情推托, 不替不衰, 區區所願, 惟恃而已. 况我先祖遺狀, 先生能構草而未及成章, 千秋此恨, 永結幽明. 匍匐今來, 執紼增慟, 薄醪短篇, 情不可盡, 先生其知也耶? 其不知也耶? 嗚呼痛哉!

楓山祠宇春秋享祝文 [柳命賢]

紬繹絶緖, 涵泳淵源, 得其不傳, 百世式尊, 玆値春丁, 精禋是宜, 謹以牲幣, 式陳明薦.

《南圃先生遺集》後敍 [沈啓錫]

讀其書, 當觀其人, 觀其人, 當論其世. 今見南圃金先生遺集, 其詩文皆溫厚平淡, 質直簡要, 無藻飾蹈襲之陋, 而雍容乎義理之中, 步驟乎規矩之內, 信乎其爲有道之士也. 盖當仁孝盛際, 傾嚮儒術, 招延賢俊, 崇奬培植之化, 動一世, 林樊巖穴之間, 讀書修行之士, 莫不顯揚于朝. 大則爲公卿師傅, 小猶在剡薦之例. 先生亦起身南服, 杜門講習, 而宰相交口, 名聲上達, 旌招之命, 累及於寂寞之濱. 吁! 嗟盛矣, 信乎其有道之世也. 以有道之士, 値有道之世, 宜若出而需用, 裨補朝政, 而低回林下, 耕稼沒身者, 抑或有遇不遇於其間者歟. 不然其必有自量者審而自守者存矣. 近世學者隱居求志, 未嘗經涉世務, 人或疑之以空言無實. 然而今考集中, 經世通典一卷, 內而官制科選, 外而賦稅力役, 凡所以出治之具者, 綱擧部分, 纖悉無遺, 此可見用心之苦而揣摩之熟. 若使經國之君子, 採而用之, 將與磻溪隨錄, 並爲必傳不朽之書, 其可以斷簡殘篇, 埋沒於箱衍之中乎? 顧公之後孫, 寶重而敬藏之, 以俟後日焉. 庚寅至月下澣, 綿州外史知製敎靑城沈啓錫謹撰.

호남한국학 자료총서 4 『**남포집**』 **2**
김만영(金萬英) 지음

인쇄 2021. 2. 14
발행 2021. 2. 19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주소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연락처 tel. 062)603. 9600 fax. 062)941. 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김만영(金萬英)
역자 손왕호 -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전문위원
장안영 - 전남대학교 문학박사
박해장 - 전남대학교 박사수료

편집·제작 (주)나무와달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37번길 8, 201호
tel. 062)529. 9179 fax. 062)529. 9178

<비매품/별매>
ISBN 979-11-90608-08-4 93910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호남한국학진흥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